

I. 문법용어사전 형식

1. 소프트웨어

문법용어 정의 및 용례는 Microsoft Word 예시화일(템플릿)로 작성한 후 Excel 로 편집한다.

2. 항목

‘용어명(국어)’, ‘용어명(외국어)’, ‘용어정의’, ‘설명’, ‘용례’, ‘비고’, ‘참고문헌’ 순으로 한다. 용어가 라틴어 형태와 영어 형태로 있는 경우 영어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라틴어 형태는 괄호 안에 기입한다.

하나의 문법개념을 위해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우, 가장 적절한 영어 표제어 하에 내용을 기입하고 다른 대체용어에는 → (~[대표적인 영어 표제어]을 보라)는 표시를 한다.

‘용어정의’는 명사(상당어구)로, ‘설명’은 동사(상당어구)로 문장을 종결한다. ‘정의’할 때, 국어사전들, 언어학 사전들, 외국어 사전들, 문법책들을 참조하여 히브리어(아람어)와 헬라어 이해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정의한다. ‘설명’의 첫 부분에 어원에 관한 정보(예. 헬라어나 라틴어)를 넣는다. ‘설명’할 때, 여러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히브리어(아람어)나 헬라어가 ‘설명’ 부분에 등장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를 괄호 안에 삽입하되, 괄호 안에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의미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의미에 홀 따옴표를 하지는 않는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법용어가 동일하면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함께 다루되, ‘정의’, ‘설명’, ‘용례’ 부분은 필요에 따라 히브리어 부분과 헬라어 부분을 분리해서 기술한다. 외국어명의 우리말 표현이 다른 경우(예: 시상, 상), 모든 표현을 표제어로 기재하되 중심된 하나의 표제어에만 설명을 달고 나머지 표제어에는 등위어 표시만 한다. ‘용례’에서 예문에 대한 설명은 줄을 바꿔서 괄호 없이 ‘3 기본’ 스타일로 기술한다.

‘비고’에는 우리말 문법과 비교되는 것이나 대체용어와 같은 사항과, 등위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대립어, 관련표제어(~을 보라), 참고, 비교를 기입한다. 단, 등위어는 ‘=’, 상위어는 ‘+’, 하위어는 ‘-’, 관련어는 ‘≡’, 대립어 ‘↔’, 관련표제어(~을 보라)는 →, 참고는 ‘참.’, 비교는 ‘비.’ 표를 하고 기입한다. ‘관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경우 기입한다. 등위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대립어, 관련표제어는 ‘표제어’를 기입한다.

3. 폰트

성경원어는 BibleWorks 의 Unicode 폰트를 사용하되, 히브리어는 SBL Hebrew Unicode 12 폰트로, 헬라어는 SBL Greek Unicode 11 폰트를 사용한다. 용어명(외국어)은 Times New Roman 10 폰트, 용어명(국어)은 산돌고딕 10 폰트로, 성경구절[우리말]은 윤고딕 10 폰트로, 기타 다른 내용은 바탕 10 폰트를 사용한다. '설명' 속의 영어도 Times New Romans 로 한다.

4. 강조

제목과 관련하여 '용어정의', '설명', '용례'에 쓰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강조할 때는 적색[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표준 색'에 나오는 빨강]을 사용한다. '용례'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부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연관된 우리말 낱말에는 밑줄을 긋는다.

5. 성경구절 표기

용례를 소개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먼저 기록하고 번역은 원문 다음 줄에 제시한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을 언급할 때는 음역이 아니라 알파벳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히브리어의 경우, 두 단어 이상이 장절과 함께 쓰이면 악센트를 포함시킨다.

성경원문과 우리말 본문의 장절이 다른 경우 한글성경 장절을 먼저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문 장절을 표기한다. 예. 민 16:50 (히, 17:15).

성경 장절 표기 시, 장 및 책의 구별은 세미콜론(;)으로 한다.

우리말 번역은 '사역'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역본 사용시 출처를 약어로 기재하되, 약어는 Canon&Culture 성경책약어를 따른다. 다른 데서 가져온 번역 표현 앞뒤에는 인용부호(꺾따옴표)를 한다.

6. 우리말 형식

문법구문형식을 제시할 때는 홑따옴표를 사용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홑따옴표나 꺾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이 종결되면 온점[마침표]을 찍는다.

문장줄임표시는 사이를 띄우지 않은 점 세 개(...)로, 문장구성성분 생략표시는 사이를 띄우지 않은 점 두 개(.)로 표시한다.

반점[콤마]과 하이픈 사용을 자제한다. '페이지' 대신 '쪽'을 사용한다.

'참고'나 '참조'는 '참.'으로 표기한다.

'설명' 항목에서 예를 드는 경우에는 '예로서'를, '액센트'대신 '악센트'를 사용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는 '성경 헬라어'를 의미한다. 여호와와 '주님'으로, 아도나이는 '주'로 표기한다.

원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2 인칭으로 된 경우, 우리말 번역시 '당신'을 사용한다.

7. 출처표기



다른 책의 예문을 참고한 경우에는 출처를 약어(예. JMK §143b; TDOT V 293-294)로 표기한다.

항목번호는 소문자로, 각주번호는 대문자 N 으로 표기한다. 예. JMK §2jnN.3.

약어로 표기하는 책은 항목(§)이나 쪽 수로 기재한다.

그 외의 참고문헌은 저자발행년 방식(저자명 출판년도, 쪽 수)으로 기재한다.

8. 우리말 문법책들은 3 년차에 추가한다.

9. 용어(특히 헬라어 관련 용어)는 계속 추가한다.

10. 기타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예. 알레포 사본)가 있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첨가한다.

철자점검 speller.cs.pusan.ac.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main.jsp

II. 문법용어사전 스타일

‘1 국어명’: 용어명(국어)에 사용한다. 산돌고딕 10 폰트

‘2 외국어명’: 용어명(외국어)에 사용한다. Times New Roman 10 폰트

‘3 기본’: 성경구절 외 모든 우리말 내용에 사용한다. 바탕 10 폰트, 외국어는 Times New Roman 10 폰트.

‘4 히브리어’: 구약성경원문에 사용한다. SBL Hebrew 12 폰트

‘5 히브리어강조’: 구약성경원문 강조에 사용한다. SBL Hebrew 12 폰트 빨강

‘6 헬라어’: 신약성경원문에 사용한다. SBL Greek 11 폰트

‘7 헬라어강조’: 신약성경원문 강조에 사용한다. SBL Greek 11 폰트 빨강

‘8 우리말’: 우리말성경본문에 사용한다. 맑은 고딕 10 폰트

‘9-1 우리말강조’: 우리말성경본문 강조에 사용한다. 맑은 고딕 10 폰트 밑줄

‘9-2 문장내강조’: ‘히브리어나 헬라어 주어가 추가된 경우’나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나온 경우’의 번역에 사용한다.

III. 약어, 용어, 부호 정리

참고문헌 가운데 아래 문헌들만 약어로 표시하고, 나머지 자료는 저자-발행년 형식으로 표기한다. 모든 책의 서지사항은 「캐논앤컬처」(Canon&Culture) 규정을 따른다.

1. 참고문헌 약어(약어 가나다 및 알파벳 순)

(1) 히브리어 문법책 약어표

Blau: Blau, J.,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Wiesbaden: Harrassowitz, 1976[1993].

Gardiner: Gardiner, S. A., *Egyptian Grammar,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eroglyphs*, Oxford: Ashmolean Museum, 1957.

Gibson: Gibson, J. C. L.,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Edinburgh: T&T Clark, 1994.

GK: Gesenius, Friedrich Wilhelm, and Emil Kautzsch,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mgearbeitet von E. Kautzsch*, Leipzig: F. C. W. Vogel, [1896]. [항목으로 표시]

GKC: Gesenius, Friedrich Wilhelm, Emil Kautzsch and Arthur Ernest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항목으로 표시]

GKCS: Gesenius, Friedrich Wilhelm, Emil Kautzsch and Arthur Ernest Cowley,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항목으로 표시]

JM: Joüon, Paul,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JMK: 김정우 역, 『주웅-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서울: 기혼, 2012; Joüon, Paul,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27,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항목으로 표시]

IBHS: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항목으로 표시]

Merve: van der Merwe, Christo H. J., Jackie A. Naudé and Jan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Moscatti: Moscati, S.,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PDSBH: Todd J. Murphy, *Pocket Dictionary for the Study of Biblical Hebrew*, Downers Grove: IVP, 2003.

SLI: Rabin, C.,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1.

WHS: Williams, Ronald J., *William's Hebrew Syntax*, third ed., revised and expanded by John C. Beck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

WHSK: Williams, Ronald J.,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옥 역, 서울: 그리심, 2012.

(2) 히브리어 및 고대 근동 언어 사전 약어표

고전 히브리어 및 아람어와 코이네 헬라어 문법용어사전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5



- Ahituv: Ahituv, S., *Handbook of Ancient Hebrew Inscriptions*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2.
- BDB: Briggs, C. et al., *The new Brown, Driver, Briggs,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Mass.: Hendrickson, 1979.
- CAD: Chicago Assyrian Dictionary(<https://oi.uchicago.edu/research/publications/assyrian-dictionary-oriental-institute-university-chicago-cad>)
- DCH: Clines, 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Volumes 1-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2011.
- GHAD: Gesenius, Friedrich Wilhel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Gesamtausgabe*, Berlin: Springer, 1962.
- GHADK: 이정익,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 HALOT: Koehler, 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s. 1-5, 1st English ed., Leiden/New York/Köln: Brill, 1993-2000.
- Heb. Lex.: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ew and Chaldee lexicon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numerically coded to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with an English index of more than 12,000 entr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1979.
- Holladay: Holladay, W., Köhler, L. and Köhler,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88.
- NIDOTTE: VanGemenen, W.,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eneral editor Willem A. VanGemene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2.
- Rodrigue: Rodrigue, S. O. & Sokoloff M., *A Hebrew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ilology* (written in Hebrew), Israel: Reches, 1992.
- Sokoloff: Sokoloff, Michael, *A Dictionary of Jewish Babylonian Aramaic of the Talmudic and Geonic Periods*, Publications of The Comprehensive Aramaic Lexicon Project.
- TJ: Josef Tropper, 『우가릿어 사전』, 주원준 역,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0.
- TWOT: Harris, R.,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s. I-II, Chicago: Moody Press, 1980.

(3) 헬라어 문법책 약어표

- BDF: Blass, F.,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A Translation and Revision of the ninth-tenth German edition incorporating supplementary notes of A. Debrunner by Robert W. Funk*,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1961. [항목으로 표시]
- C: Conybeare, F. C., and St. George Stock, *Grammar of Septuagint Greek*, Boston: Ginn and Company, 1905. [항목으로 표시]
- M-T: Moulton, J. H.,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4 vols. Vol. I: Prolegomena, Vol. II: Assidance and Word-Formation, Vol. III: Syntax by Nigal Turner, Vol. IV: Style by Nigel Turner, Edinburgh: Clark, 1996-1999 [1906, 1929, 1963, 1976]. [권과 쪽으로 표시]



- R: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4th ed., Nashville: Broadman, 1934 [1923]. [쪽으로 표시]
- S: Smyth, Herbert Weir, revised by Gordon M. Messing,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항목으로 표시]
- St: Stevens, Gerald L., *New Testament Greek Workbook*, 2nd ed.,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7.
- T: Thackeray, Henry St. John,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쪽으로 표시]
- W: Wallace, Daniel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쪽으로 표시]
- Z: Zerwick, Maximilian, S. J., *Biblical Greek: English edition adapted from the fourth Latin edition by Joseph Smith*, S. J. Scripta Pontificii Instituti Biblici.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1. [보다 세분화된 항목으로 표시]

(4) 헬라어 사전 약어표

- BDAG: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rederick William Danker, rev. and ed., 3rd ed.,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2000.
- GELSM: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Paris/Walpole: Peeters, 2009.
- LEH: Lust, J., E. Eynikel, K. Hauspie,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
- LN: Louw, Johannes P., and Eugen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nd ed., New York: UBS, 1988-1989.
- LSJ: Liddell, Henry George, and Robert Scott, revised and augmented by Henry Stuart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 NIDNTT: Brown, Coli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1986.
- PDSNTG: DeMoss, Matthew S. *Pocket Dictionary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Greek*, Downers Grove: IVP, 2001.
- TDNT: Kittel, Gerhard, and Gerhard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eoffrey W. Bromiley, trans., 10 volumes, Grand Rapids: Eerdmans, 1964-1976.

(5) 참고문헌 약어표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회, 『새로나온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6.
- 이정민 외: 이정민 외, 『언어학사전』, 제 3 판, 서울: 박영사, 2000.
- 이희승: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2011.
- 조성식 외: 조성식 외, 『영어학사전(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서울: 신아사, 1990.

- 종교학대사전: 종교학사전 편찬위원회 편, 『종교학대사전(The Great Encyclopedia of Religious Science)』,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8.
- ABD: Freedman, David Noel,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N.Y.: Doubleday, 1992.
- B: Burton, Ernest De Witt,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0.
- CDEG: Peters, Pam, *The Cambridge Dictionary of English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CTA: Corpus des tablettes en cunéforme alphabétiques découvertes à Ras Shamra-Ugarit de 1929 à 1939. A. Herdner, Paris: 1963.
- DGTL: Trask, R. L., *A Dictionary of Grammatical Terms in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1992.
- GLG: Gildersleeve, B. L., *Gildersleeve's Latin Grammar*, ???: Forgotten Books, 2015.
- HS: Coulmas, Florian, *The Handbook of Sociolinguistics*, Oxford: Blackwell, 1997.
- IDB: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 INTTC: Greenlee, Harold,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고영렬·장민석 역, 『신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 ODEG: Aarts, Bas, Sylvia Chalker and Edmund Weiner,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OED: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RDLL: Bussmann, Hadumod,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Taylor & Francis Ltd, 1999.
- SBCP: 최명덕, 박미섭, 『히브리어 발달사』, 서울, 기혼, 2011.
- PDSBS: Patzia, Arthur G., Anthony J. Petrotta, *Pocket Dictionary of Biblical Studies*, Downers Grove: IVP, 2001.
- PMHL: Jeffers, Robert J. and Ilse Lehist,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he MIT Press, 1979.
- POTT: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edited by D. J. Wise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VG: Allen, W. Sidney, *Vox Graeca: the Pronunciation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Y: Young, Richard A.,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6) 우리말 문법책은 3 년차에 추가하기로 하다.

2. 일반약어

모: 모음

비: 비교

자: 자음

참: 참고

3. 용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정]관사는 관사로 칭한다.

성경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성경 헬라어는 ‘헬라어’로 칭한다.

히브리어에서 ‘이전 방향’은 오른쪽 방향을, ‘이후 방향’은 왼쪽 방향을 가리킨다.

여호와와 ‘주님’으로, 아도나이는 ‘주’로 번역한다.

원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2 인칭으로 된 경우, 우리말 번역시 ‘당신’을 사용한다.

4. 부호

§ (항목표시)

「 」 (정기간행물표시)

『 』 (책제목표시)

= (등위어표시)

+ (상위어표시)

- (하위어표시)

≒ (관련어표시)

↔ (대립어표시)

→ (~을 보라)

참.

비.

IV. 문법용어사전

1. abbreviation (약어) – Ayin (아인) 11-135
2. Babylonian (바빌론어) - broken plural (깨어진 복수) 136-160
3. calendar year (달력상의 해) – cuneiform (췌기문자, 설형문자) 161-261
4. dagesh (다게쉬) – dyad (이분화) 262-330
5. Eblaité (에블라어) – extraposition (추가배치) 331-368
6. factitive (작용적) - future perfect, futurum exactum (미래완료) 369-392
7. ga‘ya (가아야) - guttural and vowel (후음과 모음) 393-432
8. habitual (습관상) – hybrid (혼성) 433-473
9. idem per idem (동일 단어 반복) – iterative (반복상) 474-519
10. Jehovah (여호와, 야웨) – juxtaposition (병치, 병렬) 521-525
11. kadma (카드마) – ktiv (크티브) 527-533
12. labial (순음) – long (forms) in pause (긴 휴지 형태) 534-561
13. mahpah (마흐파흐) – munah legarme (무나흐 레가르메) 562-618
14. Naqdanim (나크다님) – numeral (수사) 619-652
15. object (목적어) – orthography (정서법) 653-664
16. p'al'al (프알랄) – putative (추정의) 665-793
17. qal (칼) – Qumran orthography (쿰란 철자법) 794-810
18. rabbinic Hebrew (랍비 히브리어) – rvia (르비아) 811-844
19. Samaria (사마리아) – Syriac (시리아어) 845-950
20. tagmeme (문법소) – typological linguistics (언어 유형론) 951-985
21. Ugaritic (우가리트어) – Uqtol (우크톨) 986-992
22. vague (모호성) – Vulgate (불가타역) 993-1013
23. Waw (바브) – W-yaqom (베야콤) 1014-1029
24. yareah benyomo (야레아흐 벤요모) – Yod (요드) 1030-1034
25. zakef gadol (자킵 가돌) – zeugma (엑어법) 1035-1039

약어(略語)

abbreviation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말하기나 쓰기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단어나 구를 단축한 형태로 만들어 전체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약.

일반적으로 문법서에서는 긴 단어를 짧은 형태로 사용한다. 예로, “3 인칭은 3, 남성은 남, 단수는 단”으로 표기한다.

히브리어의 경우, 성서 히브리어에서보다는 후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었다. 단어의 첫 문자만 사용하여 만들거나(תַּנְ"ךְ의 경우), 약어의 끝에 ‘생략 기호’(apostrophe)와 비슷한 기호를 사용하거나(יִשְׂרָאֵל 대신 יִשׁ), 두 글자 사이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만든다(פ"ח 동사의 경우). 성서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약어는 יְהוָה 대신 יְהָ를 사용하는 것이다(참. GKCS §5m; JMK §5g).

תּוֹרָה, נְבִיאִים, כְּתוּבִים = תַּנְ"ךְ

타나흐(히브리어 성경) = 율법서, 선지서(예언서), 성문서

רַבִּי שְׁלֹמֹה יִצְחָקִי = רַש"י (참. JMK §5g)

라쉬 = 라비 솔로모 이즈하키(이즈하키의 아들 솔로모 랍비)

פ"נ 동사 = פָּה נוֹן 동사(참. JMK §5g)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동사를 설명할 때는 동사 פָּעַל을 사용한다. 따라서 פָּה נוֹן 동사란 동사 어근의 첫 자음이 נ인 동사를 가리킨다.

시 148:1

הִלְלוּ יְהוָה! הִלְלוּ אֶת־יְהוָה מִן־הַשָּׁמַיִם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יְהָ는 יְהוָה 대신에 사용된 약어이다. 하나님의 이름인 יְהוָה는 고유명사이므로 대격표시인 אַת가 필요하나 약어로 사용된 יְהָ에서는 대격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헬라의 경우, 단어의 뒷부분이나 중간부분을 생략하여 약어를 만든다.

APX(ων) Βεελζεβοῦλ, ΒΑΣ(ιλεως) Ἡρώδης (참. S §348)

관원 바알세불(참. 마 12:24), 왕 헤롯(참. 마 2:3)

Θ(ΕΟ)Υ, Ι(ΗΣΟ)Υ, ΑΝ(ΘΡΩΠ)ΩΝ

하나님의, 예수, 사람들의

탈격(奪格)

ablative

기본적으로 방향, 동작(movement)이나 행동(action)의 원천과 시발점, 출처, 재료, 원인, 비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격

우리 말에서 탈격(奪格)은 “동작이나 행동이 비롯하는 곳을 나타내는 격”(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한다. 영어 ‘ablative’는 라틴어(ablativus)의 ‘~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pertaining to removal from)에서 왔다. 원래 라틴어에서는 6 개의 형태론적 격으로서 주격(동사의 주어), 속격(소유 표현), 여격(동사의 간접목적어), 대격(동사의 직접 목적어), 호격(부르는 형태), 탈격(행위자격[agentive], 도구격[instrumental])이 있다. 탈격은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호격 등과 같은 명사의 격 중 하나로서, 수단, 원인, 방향, 원천, 시간등을 표현한다(DGLT). 라틴어와 같이 명사의 격으로 탈격을 가진 언어가 있고, 명사의 격이 사라지고 대개 특정 전치사로 탈격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도 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탈격처럼 사용되는 전치사는 **מן**(from)이다.

창 2:7

וַיִּצְרֹף יְהוָה אֱלֹהִים אֶת-הָאָדָם עָפָר מִן-הָאֲדָמָ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삼상 1:3

וַעֲלֶה הָאִישׁ הַהוּא מְעִירוֹ מִמָּקוֹם יְמִימָה לְהַשְׁתַּחֲוֹת וּלְזָבֵחַ לַיהוָה צְבָאוֹת בְּשֵׁלָה

그 사람은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 매년 그의 도시에서부터 올라가곤 했다.

명사를 다섯 개가 아니라 여덟 개의 격체계로 구분할 때, 소유격(genitive, ‘of’)은 소유격(genitive, ‘from’)과 탈격(ablative)으로 이분된다(W 34, 74). 도릭 방언의 탈격 단수어미는 **ᾱ** 이고(예. βορρᾱ ‘북쪽으로부터’: 계 21:13), 아티카 방언의 탈격 남성어미는 **ου** 이다(예. Ἡλείου ‘엘리아의’: 눅 4:25). 헬라어에서 탈격이 사라졌다고 여기기도 하지만(참. S §47, 99),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기도 한다(참. R 514-520). **ως**로 끝나는 부사(예. καλῶς, οὕτως)를 탈격으로 보기도 한다(R 295).

롬 1:17 (R 514)

δικαιοσύνη ... θεοῦ

하나님으로부터의 의

행 20:26 (R 515)

καθαρός ... ἀπὸ τοῦ αἵματος

피로부터 깨끗하다.

엡 2:12 (R 516)

ξένοι τῶν διαθηκῶν



언약들로부터 외인들[이다].

+ 격(case)

≡ 주격(nominative), 소유격(possessive), 여격(dative), 대격(accusative)

박신구, “히브리어 전치사 탈격의 의미에 대하여,” 『기독교사상』 426 (1994), 211-237.

절대형(絶對形)

absolute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다른 요소들과 분리되어 있는 단어나 절로서, 명사, 형용사, 수사에 격이나 접미사 등 다른 요소가 추가되지 않으며, 다른 명사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적인 형태.

영어에서 절대형은 ‘형용사, 부사를 비교할 때 무표적인 급수’(unmarked degree)으로서, 비교급이나 최상급 형태와 다르다(ODEG).

히브리어에서 절대형은 명사의 경우에는 대개 연계형(construct)과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의 명사만 사용된 경우에는 대명접미사(pronominal suffix)나 격(case)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된다. 두 개 이상의 복합명사(compound noun)로 구성된 경우 가장 끝에 오는 명사가 절대형이고, 앞에 오는 명사는 연계형이며, 관사가 필요한 경우 관사는 절대형에만 붙는다. 동사의 경우에는 부정사(infinitive absolute)에 나온다.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רֵאשִׁית가 절대형으로 사용된 경우로 레 2:12, 신 33:21, 욥 40:19 가 있다.

תּוֹרַת מֹשֶׁה

모세의 율법

신약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의 절대형과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독립 속격(genitive absolute)이나 독립 부정사(infinitive absolute) 용법이 있다. 독립 속격 분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속격이 관사 없는 분사와 함께 독립적인 절을 구성한다.

마 26:26

Ἐσθιόντων αὐτῶν λαβὼν ὁ Ἰησοῦς ἄρτον καὶ εὐλογήσας ἐκλάσεν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뺐다.

독립 부정사는 명령문과 또는 명령문 가운데서 부정사가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명령을 뜻한다(R 1093).

롬 15:12

χαίρειν μετὰ χαιρόντων, κλαίειν μετὰ κλαιόντων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 연계형(construct)

≡ 부정사 절대형(infinitive absolute), 독립부정사(속격부정사, genitive infinitive)

비. 보통명사화(appellative).

추상화

abstraction

구체성이 없이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가진 명사.

영어에서 추상명사는 구상명사(concrete noun)와 대조적으로 ‘동작, 사상, 질, 혹은 상태’(ODEG), ‘개념(psyche), 성격(laziness), 관계(kinship), 제도(marriage)’(RDL)를 주로 가리키는 명사들이다. 예로, 믿음 소망, 사랑처럼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히브리어에서, **הָאִשָּׁה**는 특정한 여인이 아닌 ‘여성’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또한 **בְּנוֹ-אָדָם**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의 아들이 아닌 ‘인류’ 전체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된다.

전 7:26

וּמוֹצֵא אֲנִי מִן מִמּוֹת אֶת-הָאִשָּׁה אֲשֶׁר-הִיא מְצוּדִים וְתַרְמִים לְבָהּ אֲסוּרִים יְדִיהָ

나는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같고, 손이 족쇄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시 12:9

סָבִיב רָשָׁעִים יִתְהַלֵּכוּ כָּרֶם לִזְוִת לְבִנֵּי אָדָם: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 구상명사(concrete noun)

≡ 보통명사(common noun), 보통명사화(appellative)

대격(對格)

accusative

동사적인 격으로서 타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거나 부사적인 격으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격

대격(對格)은 라틴어(accusativus)에서 온 이름으로, ‘고발하는 성격’(the nature of accusation)을 갖는다. 헬라어(αιτιατική)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야기되다’(be caused) 혹은 ‘영향을 받다’(be effected)는 뜻과 연관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사적 작용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 격이다. 히브리어에는 직접대격과 간접대격이 있으며, 동사의 목적어를 가리키는 직접대격은 피동 목적어와 달성 목적어로 구분된다(JMK §125, b, p). “동사에 간접적으로 종속되는 간접대격은 동사적 술어를 한정시킨다”(JMK §126, a).

히브리어의 경우 고대의 격어미가 소실되었으므로 명사의 끝에 붙는 어미로는 대격을 파악할 수 없고 통사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대격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대격표지 **את**로서 한정된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거나 대명사접미사(pronominal suffix)와 함께 사용된다. 그 외에, 동사의 형태 끝에 대명사접미사를 붙여서 대격을 표시하기도 하고, 대격표지 **את**가 아닌 전치사 **ל**, **אֶל**, **ב** 등이 사용되어 대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대격은 실명사적(substantival) 용법과 부사적(adverbial) 용법이 있다. 실명사적 용법에는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s), 동족 대격(cognate accusative), 술어 대격(predicate accusative), 부정사의 주어로서의 대격(accusative subject of infinitive), 보류 목적어로서의 대격(accusative of retained object), 고리형 대격(pendent accusative), 단순한 병치 대격(accusative in a simple apposition)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사적 용법에는 양태, 시간과 공간의 범위, 관계나 지시, 맹세에 대격을 사용한다(참. IBHS §10.3-10.4).

이 외에도 성과의 대격(accusative of product, 신 23:22, 왕상 18:32), 재료의 대격(accusative of material, 창 2:7, 수 7:25), 지시 대격(directive accusative, 창 27:3), 장소의 대격(accusative of place, 왕하 5:9, 19:37, 사 44:13), 분리 대격(separative accusative, 창 44:4, 렘 10:20), 지속 시간 대격(temporal-duration accusative, 창 3:14, 삼하 2:10), 시점 대격(temporal-point accusative, 민 16:5), 상술 대격(accusative of specification, 창 37:21, 삼하 15:32, 왕상 15:23), 서술 대격(predicate accusative, 창 7:1, 민 11:10), 강조의 상술 대격(emphatic accusative of specification, 창 12:14, 민 5:10, 삼하 3:25, 왕상 19:4, 왕하 6:5), 한정 대격(determinative accusative, 창 21:5, 27:42, 수 9:24, 22:17), 방식의 대격(accusative of manner, 레 26:13, 삼상 12:11)이 있다(참. WHSK 18-34).

(1) **את**와 함께 대격을 사용한 예

민 32:9

וַיֵּרְאוּ אֶת-הָאָרֶץ

그들은 그 땅을 보았다

(2) **את** 없이 대격을 사용한 예

삿 14:1

וַיֵּרָא אֶשְׁרָה בְּתַמְנָתָהּ

그는 딤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3) 동사형의 형태 끝에 대명사접미사를 붙여서 대격을 사용한 예
삿 14:16

וְלֹא אֶהְבֶּתֵנִי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4) 전치사 לְ, אֶל, בְּ 등으로 대격을 사용한 예
왕상 1:19

וַיִּקְרָא לְכָל־בְּנֵי הַמֶּלֶךְ

그는 그 왕의 모든 아들들을 불렀다

신 1:32

אַיִנְכֶם מֵאֲמִינִים בִּיהוָה

너희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

욥 1:6

קָרָא אֶל־אֱלֹהֵיךְ

너는 너의 하나님을 불러라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대격을 사용한다.

막 7:23

κοινοῖ τὸν ἄνθρωπον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계 5:10

ἐποίησας αὐτοὺς τῷ θεῷ ἡμῶν βασιλείαν καὶ ἱερεῖς

당신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타동사의 목적어는 항상 대격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격이나 여격을 취하기도 한다.

마 17:5

ἀκούετε αὐτοῦ

너희가 그를 들으라.

행 12:8

ἀκολουθεῖ μοι

너는 나를 따라와라.

+ 격(case)

≡ 주격(nominative), 소유격(possessive), 여격(dative), 탈격(ablative)

－ 피동 목적어(affected object), 달성 목적어(effectuated object)

내적 목적어의 대격

accusative of internal object

동사가 표현하는 내용을 동사의 목적어인 대격인 명사가 동일하게 나타내는 경우.

대격으로 사용된 목적어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과 그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동사의 동작을 목적어에 전달하는 피동목적어 대격, 동사의 동작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달성 목적어 대격과는 구별된다. (JMK §125q).

속 1:2

קָצַף יְהוָה עַל־אַבְוֹתֵיכֶם קָצַף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JMK §125q)

‘진노하다’라는 **קָצַף** 동사가 내적 목적어로 동일한 어근을 지닌 **קָצַף**를 취하였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진노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번역의 적절성을 고려하면 ‘진노하셨다’로 번역하게 된다.

욥 4:6

וַיִּשְׂמַח יוֹנָה עַל־הַקִּיקְיוֹן שְׂמָחָה גְּדוֹלָה

요나가 박녕쿨을 크게 기뻐하였다. (JMK §125q)

‘기뻐하다’라는 **שְׂמַח** 동사가 내적 목적어로 동일한 어근을 지닌 **שְׂמָחָה**를 취하였다. 직역하면 ‘요나가 기쁨을 기뻐하였다’로 번역할 수 있으나, 한글번역의 적절성을 고려하면 ‘기뻐하였다’로 번역하게 된다.

한계의 대격

accusative of limitation

동사의 의미의 대상이 되는 일부가 대격으로 표현되는 용법.

대격으로 사용되는 명사가 동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상의 일부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동사의 의미의 대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한계의 대격이라고 불린다. (JMK §126g).

창 41:40

הָאֱנֶלֶךְ אֶנְדֹּל מִמֶּנִּי

나는 오직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JMK §126g)

‘내가 높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대격인 ‘왕좌’로 제한되고 있다. 문맥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겼기 때문에 오직 왕좌에서만 요셉보다 높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시 3:8

הִכִּיתָ אֶת־כָּל־אֹיְבֵי לִחִי

당신은 나의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셨습니다. (JMK §126g)

‘치사’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모든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을 치는 동사의 동작이 ‘턱’으로 제한되고 있다. 여기서 ‘턱’은 한계의 대격이 된다.

측정 단위의 대격

accusative of measure

측정 단위를 표현하는 대격.

대격으로 사용되는 경우 중에서 거리, 무게, 규모 등 측정단위를 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창 43:34

וַתֵּרֶב מִשְׁאֵת בְּנִימָן מִמִּשְׁאֵת כָּלֶם תָּמַשׁ יְדֹתָ

베냐민의 몫은 다른 모두의 몫보다 다섯배 만큼 많았다. (JMK §126j)

대격이 규모를 측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겔 47:3

וַיִּמְדַּ אֱלֹף בְּאַמָּה

그는 일천 규빗을 측량하였다.

대격이 수량을 측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대격

움직임의 대격

accusative of movement

대격이 움직임이나 방향을 표현하게 되는 용법.

문장 안에서 대격이 주어의 움직임이나 어떤 장소로의 방향적 이동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방향의 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용법이다. (JMK §125n).

잠 4:27

אַל-תִּטֶּיִּם וְשָׂמְאוֹל

너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편’을 뜻하는 **יָמִין**과 ‘좌편’을 뜻하는 **שְׂמָאוֹל**은 대격으로 사용되어 ‘우편으로’ 및 ‘좌편으로’라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

창 44:4

הֵם יָצְאוּ אֶת-הָעִיר

그들이 그 성으로부터 나갔다. (JMK §125n)

‘그 성을 나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듯이, ‘그 성’은 대격이다. 그 성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장소의 한정적 대격

accusative of place (accusative of local determination)

전치사 없이 대격으로만 장소를 표현하는 용법.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있음을 표현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전치사가 없이 대격으로만 장소를 표현하는 경우를 장소의 대격이라고 부른다. 주옹-무라오까는 이런 장소의 대격은 움직임의 대격(accusative of movement)에서 확장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JMK §126h).

창 24:23

הֲיֵשׁ בֵּית־אָבִיךָ מְקוֹם לָנוּ לָלֶזֶן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JMK §126h)

‘네 아버지의 집’을 뜻하는 **בֵּית־אָבִיךָ**은 전치사 없이 대격으로만 사용되어서 장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대하 6:27

וְאַתָּה תִּשְׁמַע הַשָּׁמַיִם

당신은 하늘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를 뜻하는 **הַשָּׁמַיִם**은 장소의 대격으로 사용된다. 대하 6:30, 33, 39에서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 **מִן־הַשָּׁמַיִם**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하여 27절은 전치사가 없는 장소의 대격으로 사용된 것이다.

결과의 대격

accusative of result

결과를 나타내는 대격의 용법.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대격이 사용될 수 있는데, 주로 동사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대격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왕상 18:32

וַיִּבְנֶה אֶת־הָאֲבָנִים מִזֵּבַח בְּשֵׁם יְהוָה

그는 그 돌들로 여호와와 이름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대격으로 사용되어 동사인 ‘쌓다’의 동작이 낳은 결과를 표현한다.

잠 10:31

פִּי־צַדִּיק יָנוּב חֲכָמָה

의인의 입은 지혜를 쏟아낸다. (JMK §125o)

동사 **יָנוּב**는 ‘자라다,’ ‘번성하다’의 의미인데, 의인의 입이 자라고 번성하여 결국 지혜가 된다는 의미로서, ‘지혜’는 결과의 대격으로 사용되었다.

시간의 대격

Accusative of time

대격이 시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법.

시각이나 시간의 지속과 관련된 개념이 대격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JMK §126i).

창 3:17

בְּעֶצְבוֹן תֹּאכְלֶנָּה פֶּלִי יְמֵי חַיָּיָךְ

너는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수고함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פֶּלִי יְמֵי חַיָּיָךְ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은 일정한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명사구인데 대격으로 사용되었다.

두자법(頭字法)

acrophony

알파벳 문자의 소리가 원래 그 소리로 시작하는 사물의 이름, 즉 그 사물을 상징하는 음절 그림문자와 그것을 부르는 명칭에서 나왔다는 이론.

영어 ‘acrophony’는 헬라어 ‘아크로’(ἄκρο, 머리)와 ‘포니아’(φωνία, 소리)에서 나왔다. 즉, ‘첫 마디의 소리’를 뜻한다.

히브리어의 모체가 되는 원-셈어와 원-함어에서 알파벳은 대상에 대한 그림문자에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이 지칭하는 이름의 첫 음절이나 소리에서 나왔다. 이리하여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렙’은 원래 ‘소의 뿔’을 상징하는 데서 나왔으며, 두 번째 알파벳인 ‘베티’는 ‘집’, ‘기멜’은 ‘낙타’(?), ‘달렛’은 ‘문’, ‘바브’는 ‘갈고리’, ‘요드’는 ‘손’, ‘카프’는 ‘손바닥’, ‘멤’은 ‘물’, ‘아인’은 ‘눈, 샘물’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참. 박미섭, 성서 히브리어 문법, 1). 이후 ‘머리소리’(acrophony)를 만드는 법은 확장되어 일련의 글자로 발음하는 대신에, 단어의 첫 알파벳이나 음절을 축약하여 단어를 만드는 기법이 되었다. 예로서, AIDS, NATO 등.

= 자소(字素, grapheme)

≡ 약어(略語, abbreviation)

알파벳체(이합체, 離合體)

acrostic

각 시행이나 단락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기법.

영어 acrostic은 헬라어 ἀκροστιχίς에서 나온 것으로 ‘머리’(ἄκρο)와 ‘줄, 행’(στίχος)을 결합한 단어이다. 우리 말로는 ‘이합체’(離合體)라고도 부른다(조성식 외). 영문학에서는 네 종류의 이합체가 있으며, (1) 첫 글자만을 모은 단일이합체(simple acrostic), (2)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모은 이중이합체(double acrostic), (3) 첫 글자, 가운데 글자, 끝 글자를 모은 삼중이합체(triple acrostic), (4) 행말이합체(telestich acrostic)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조성식 외).

알파벳체는 우가렏시, 아카드 시에도 나오지만, 히브리 시의 중요한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히브리 시에서 알파벳 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시인이 알파벳의 틀 속에 자신의 시상과 교훈을 담아낸다.

시 34:2-4(한 34:1-3)

אַבְרָכָה אֶת־יְהוָה בְּכָל־עֵת תְּמִיד תְּהַלְתּוּ בִּפְי:

יְהוָה תִּתְהַלֵּל נַפְשִׁי יִשְׁמְעֵנוּ עֲנָנִים וְיִשְׁמְחוּ:

דָּלּוּ לִיהוָה אֲתִי וְנִרְוַמָּה שְׁמוֹ יַחְדָּו:

내가 여호와를 늘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을 것이다.

내 생명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 두운법(alliteration)

동작 동사(動作動詞)

action verb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시작과 끝을 가진 제한된 기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동사로서, 도착하다, 만들다, 듣다, 걷다”와 같은 동사이다(ODEG).

동작은 “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행동(acting)이나 행위(doing)의 과정”으로서(ODEG), 행위자(agent)가 행위수용자(patient)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상태와 구별된다. 동작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stative verb)와 대조되는 것으로 동작 자체를 나타내는 동사를 가리킨다.

히브리어에는 הָלַךְ, יָשַׁב, עָבַד 등이 있다.

+ 동사(verb)

≡ 과정 동사(fientive verb)

↔ 상태 동사(stative verb)

능동 동사(能動動詞)

active verb

“능동의 형태를 가진 동사.” (Smyth, 1984 [1920]).

능동 동사는 일반적으로 능동의 형태를 가진 동사로 사용된다(참. PDSBH).

히브리어의 능동 동사에는 완료형, 미완료형, 분사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칼, 피엘, 히필 등의 유형이 능동 동사이고, 푸알과 호팔은 수동 동사이다. 칼의 경우 완료형과 미완료형에서는 능동태로 주로 사용되지만, 분사형에서는 능동 분사와 수동 분사로 구분된다. 다만 무라오까는 이 용어를 동작 동사와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JMK §40b).

(1) 칼 능동 분사의 예

시 87:2

אַתָּב יְהוָה שְׁעָרֵי צִיּוֹן

주님께서는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신다.

(2) 칼 수동 분사의 예

신 7:14

בְּרוּךְ תְּהִיָּה מִכָּל־הָעַמִּים

너는 모든 백성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 동사(verb)

≡ 동작 동사(active verb)

↔ 수동 동사(passive verb)

능동태(能動態)

active voice

주어가 행동의 주체나 행위자가 되어 동사의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때, 서술어가 취하는 형식으로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일반적으로 능동태는 “주격 언어들(nominative languages)에서 수동태와 중간태와 대조되는 동사의 태이다”(RDLL).

히브리어에서 능동태는 동사나 분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동사의 형태일 때는 문장에서 술어로만 사용되지만, 분사의 형태일 때는 술어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다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형적 용법이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1) 동사로 사용된 예

창 26:9

וַיִּקְרָא אַבְרָמָה לְיִצְחָק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렀다.

(2) 분사의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된 예

시 43:16

כֹּה אָמַר יְהוָה תְּנוּתָן בְּיָם דָּרָד

바다에서 길을 내신 주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셨다.

(3) 분사의 형태가 명사로 사용된 예

삿 3:9

וַיִּקֶם יְהוָה מוֹשִׁיעַ לְבְנֵי יִשְׂרָאֵ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다.

눅 13:15

λύει τὸν βοῦν αὐτοῦ

그가 그의 소를 풀어준다.

계 17:13

τῇ δύναμει καὶ ἐξουσίᾳ αὐτῶν τῷ θηρίῳ **διδόασιν**.

그들이 그 짐승에게 그들의 능력과 권한을 준다

+ 태(voice)

≡ 중간태(middle)

↔ 수동태(passive voice)

형용사적 수식어(形容詞的 修飾語)

adjectival modifier

명사나 실명사(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단어나 구, 절.

‘형용사적’(adjectival)이란 “한 단어, 구, 절이 형용사처럼 작용하는 것이다”(ODEG). 예로서, 예, a damp cloth에서 damp는 형용사와 명사로 동시에 사용되지만, 이 구에서는 ‘형용사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적 어구’(adjectival phrase)란, “형용사로서 [형용사의 역할에 맞도록] 쓰여지는 어구”이다(조성식 외). 또한 “형용사절, 형용사구 등에 나오는 ‘형용사’는 [품사가 아니라-필자삽입] 통사부류(syntactic class)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adjective clause라는 말 대신에 adjectival clause라고 부르기도 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형용사적 수식어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adverbial modifier)와는 달리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모든 단어나 구, 절을 말한다.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를 포함하여 분사, 대명사접미사, 연계형, 동격, 중언법(重言法, hendiadys), 종속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참. IBHS §4.6.1a).

(1) 형용사의 예

수 21:45

לֹא-נָפַל דְּבַר מִכָּל הַדְּבָר הַטּוֹב

그 모든 좋은 말씀 중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다.

(2) 분사의 예

렘 27:14

וְאַל-תִּשְׁמְעוּ אֶל-דְּבַר הַנְּבִיאִים הָאֲמָרִים אֲלֵיכֶם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 대명사접미사의 예

시 33:20

עֲזָרָנוּ וּמִגְנוֹנוּ הוּא:

그는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의 방패시다.

(4) 연계형의 예

대하 12:1

עָזַב אֶת-תּוֹרַת יְהוָה

그는 주님의 율법을 버렸다.

(5) 중언법의 예

렘 3:2

וַתִּחַנְּנִי אֶרֶץ בְּגִיטִיָּה וּבְרָעָתָהּ:

너는 너의 음란함과 너의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여기서 ‘너의 음란함과 너의 악’이라는 명사구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음란한 악’이라는 한 가지 개념을 두 개의 명사로 표현한 것이다.

(6) 종속절의 예

민 22:2

וַיֵּרָא בָלָק בְּנֶצְפָר אֶת כָּל־אֲשֶׁר־עָשָׂה יִשְׂרָאֵל לְאַמֹּרִי:

십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헬라어에서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 분사, 인칭대명사, 소유격, 전치사구, 동격, 등 다양한 형태로 명사를 수식한다

(1) 형용사

요 13:34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2) 분사

계 17:9

ὧδε ὁ νοῦς ὁ ἔχων σοφίαν

여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

(3) 인칭대명사

신 15:11

ἀνοίξεις τὰς χεῖράς σου τῷ ἀδελφῷ σου

너의 형제에게 너의 손들을 펼 것이다

(4) 소유격

겔 38:1

ἐγένετο λόγος κυρίου πρὸς με

주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5) 전치사구

마 21:11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προφήτης Ἰησοῦς ὁ ἀπὸ Ναζαρέθ τῆς Γαλιλαίας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이다

(6) 동격

요 19:39

ἦλθεν δὲ καὶ Νικοδόμος, ὁ ἐλθὼ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τὸ πρῶτον

그리고 전에 밤에 그에게 왔던 자, 니고데모도 왔다

= 한정사(determinative), 수식적 형용사(attributive adjective)

+ 수식어(attribute, modifier), 명사 수식적(ad-nominal)

형용사(形容詞)

adjective

명사나 실명사를 꾸며서 한정하거나, 묘사하거나, 수식하여 그 꾸미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더 명료하게 해주는 품사.

히브리어에는 순수한 형용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적절한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도 명사의 연계형을 주로 사용한다. 형용사는 실명사 변화와 형태 변화가 거의 동일하다. 형용사는 주로 명사와 함께 한정적이거나 서술적으로 사용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 독립적으로 사용된 예

창 7:1

רְאִיתִי צָדִיק לִפְנֵי בְּדוֹר הַזֶּה:

나는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인을 보았다.

(2) 한정적으로 사용된 예

신 7:6

עַם קְדוֹשׁ אֲתָּה לַיהוָה אֱלֹהֶיךָ

너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3) 서술적으로 사용된 예

레 11:45

וְהָיִיתֶם קְדוֹשִׁים כִּי קְדוֹשׁ אֲנִי:

내가 거룩하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헬라어에서 형용사는 서술적, 한정적(attributive), 독립적 용법이 있다.

(1) 서술적 용법

ἀγαθὸς ὁ λόγος 그 말씀은 선하다

(2) 한정적 용법

ὁ ἀγαθὸς ὁ λόγος 그 선한 말씀

(3) 독립적 용법

ὁ ἀγαθός 그 선한 남자

+ 품사(part of speech, word class)

형용사적 명사(形容詞的 名詞)

adjective noun

본래는 형용사이나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요소.

형용사적 명사는 형용사가 명사적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다.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형용사적 명사와 명사적 형용사 두 가지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 형용사적 명사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명사적 역할을 하는 형용사이므로 명사적 형용사라는 용어가 보다 바람직하다. 히브리어에서는 독립적인 형용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연계형으로 많이 사용된다.

출28:3

וְאַתָּה תְּדַבֵּר אֵלֶי-כָּל־חֻמֵּי־לֵב

너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말하라.

창12:11

אֵשָׁה יִפְת־מְרֹאֶה אֵתָּ: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다.

부가어(附加語)

adjunct

한 문장의 주요 성분에 첨가되는 수식어(modifier)로서, 생략하여도 문장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택적인 구성 요소.

부가(附加)란 ‘주된 것에 덧붙인 것’을 말하며, 영어 ‘adjunct’의 어원은 라틴어 *adjunctus* 에서 유래하며, ‘연결하다’(to join)는 뜻을 갖는다. 부가어는 주어, 술어, 목적어 외의 요소로서 “다른 단어들을 확대해 주는 형용사, 형용사구가 있으며”(조성식 외), 자주 장소, 시간, 과정, 방식, 수단, 도구, 이유 등을 가리키는 부사구나 부사절, 전치사구나 명사구 등으로 나타난다(CDEG).

히브리어에서 특히 부가어는 소위 ‘바브 연속법’ 가운데 ‘또한’(also)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PDSBH).

시간

창 22:3

וַיִּשְׁכֶּם אַבְרָהָם בֹּקֶר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수단

신 6:5

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 לִבְבְּךָ וּבְכָל נַפְשְׁךָ וּבְכָל מְאֹדְךָ

너는 네 모든 마음과 네 모든 혼과 네 모든 힘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엡 1:15 (R 783)

τὴν καθ' ὑμᾶς πίστιν ἐν τῷ κυρίῳ Ἰησοῦ

너희에게 있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마 6:7

Προσευχόμενοι δὲ μὴ βατταλογήσητε ὥσπερ οἱ ἔθνικοί

한편,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명사 수식적(名詞修飾的)

ad-nominal

명사에 첨부된(attached, added) 형용사나 전치사구로서,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것.

히브리어에서 명사수식을 하는 부류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를 포함하여 분사, 대명사접미사, 연계형, 중언법(hendiadys), 종속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수식어(attribute [attributive])

≡ 동사 수식적(adverbial), 형용사 수식어(adjectival modifier)

부사(副詞)

adverb

동사를 수식하거나 명료하게 하는 품사로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단어나 불변화사.

영어에서 부사(adverb)는 라틴어(ad-verbum)에서 온 것으로 ‘동사에 속한 것’(belonging to the verb)을 뜻한다. “형태적으로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져서 명사, 동사, 형용사와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형용사와 동형도 있다”(조성식 외). 일반적으로 부사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지만, 장소, 시간, 방향, 상황, 인과성, 방식, 정도, 강도, 선호도, 양, 목적, 결과, 수단, 도구와 관련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나 불변사를 가리킨다(참. ODEG, CDEG). 부사의 의미에 따라 장소부사, 시간부사, 빈도부사, 방향부사, 양태부사, 도구부사, 수단부사, 의문부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정민 외). 그러나 “명사(quite a party), 대명사, 전치사(around here), 또는 문장 전체(plainly, generally)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간투사(감탄사)를 묶어 불변화사(particle)라고 부르기도 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는 인도-유럽어와 달리 파생 부사(derived adverbs)가 희소하므로, 다양한 요소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נִפְלְאוֹת 놀랍게, רַבָּה 많이, רְשׁוּנָה 처음으로), 실명사(הַיּוֹם 오늘, מְאֹד 매우, סְבִיב 주변에서), 부정사 절대형(הַרְבֵּה 많이, הַשָּׁמַיִם 일찍, הַיָּטִב 잘)이 보충의 부사(adverbs of suppletion)로서 사용된다(참. GKCS §100a-p; JMK §102b-e). 히브리어에는 지시부사(אֵן 그 때, הִנֵּה 여기, שָׁם 저기), 의문부사(מָתַי 언제, לָמָּה 왜, אֵיךְ 어떻게), 부정부사(לֹא, אֵל, אִין, אֵין), 존재 부사(יֵשׁ), 인칭접미사와 함께 오는 부사(יְשָׁרִי, אֵינִי, עוֹדֵנִי) 등이 있다(참. GKCS §100a-p; JMK §102h-k).

욥 22:5

הֲלֹא רָעַתָּךְ רַבָּה וְאֵין-לָךְ לַעֲוֹנוֹתֶיךָ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구나

민 11:33

וַיֵּד יְהוָה בְּעָם מְבָרַךְ רַבָּה מְאֹד

여호와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헬라어 부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막 1:12

εὐθὺς τὸ πνεῦμα αὐτὸν ἐκβάλλει

성령이 즉시 그를 몰아낸다.

요 20:1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ὴ ἔρχεται πρῶτ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왔다.

고후 11:16

πάλιν λέγω

내가 다시 말한다.

갈 6:2

ἀλλήλων τὰ βάρη βαστάζετε

너희가 서로서로 짐을 져라.

갈 5:7

ἐτρέχετε καλῶς

너희가 잘 달리고 있었다.

헬라어에서는 형용사에 부사화 접미사(-ως)를 붙여 부사를 만들기도 한다.

마 6:33

ζητεῖτε πρῶτο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너희는 먼저 나라를 구하라.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부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 품사

— 존재 부사(adverb of existence) 등.

≡ 불변화사(particle), 동사-수식적(adverbial)

존재부사(存在副詞)

adverb of existence

존재를 나타내는 부사.

히브리어에서 존재부사는 대개 ‘예쉬’(יש)와 ‘아인’(אין)으로 표현된다. ‘예쉬’(יש)와 ‘아인’(אין)의 용어 사용과 그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BDB(1972)와 윌리엄스(R. J. Williams, 2007)는 ‘명사’로 제안하며, 게제니우스(W. Gesenius, 1910)와 주옹(P. Joüon, 1991) 등은 ‘부사’에 분류하고, 무라오카(T. Muraoka, 1985), 블라우(J. Blau, 1976)는 ‘불변사’로 부르며, 앤더슨(F. I. Andersen, 1970), 김슨(J. C. L. Gibson, 1994), 월키-오코너(IBHS, 1990) 등은 ‘준동사’라 부른다. 메르베(C.H.J. Merwe, 1999)도 ‘준동사’와 비슷한 시각으로 ‘존재의 술어’라 부른다. 현대히브리어 학자들 중 오르난(U. Ornan, 1973), 루빈쉬타인(E. Rubinstein, 1967), 벤다비드(A. Bendavid, 1971)는 ‘예쉬’를 하야의 분사 형태로 이해하며 ‘동사’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쉬’(יש)와 ‘아인’(אין)과 관련하여 가장 심도 있는 연구를 한 ‘즈비’(T. Zvi, 1991)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 3장 전체(129-179)에서 존재 문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예쉬’와 ‘아인’을 ‘존재사’로 부른다. 그러나 용어 사용의 문제, 의미 영역의 지나친 확대, ‘예쉬’를 ‘계사’로 취급한 문제, 지나치게 누락된 여러 목록들 등의 비판을 받는다. ‘예쉬’와 ‘아인’은 ‘있다’와 ‘없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예쉬’와 ‘아인’이 항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인’(אין)의 경우 부정어(否定語)로 사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잘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1) 존재부사로 사용된 예

창 42:2

הִנֵּה שְׂמֵעָתִי כִּי יֵשֶׁבֶר בְּמִצְרָיִם

보라, 나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삿 17:6

בַּיָּמִים הָהֵם אִין מֶלֶךְ בְּיִשְׂרָאֵל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2) 존재부사가 아닌 것으로 사용된 예

창 43:4

אִם-יִשְׁךָ מְשִׁלַּח אֶת-אֶחָיו אֲחָיו

만일 당신께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왕하 17:34

אֵינָם יְרֹאִים אֶת-יְהוָה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 존재의(existential)

≡ 존재의 불변화사(existential particles), 존재절(existential clause)

동사 수식어(動詞修飾語)

adverbial

“부사, 부사구 및 동사를 수식하는 모든 성분(단어, 불변사, 명사구, 전치사 구, 동사수식 절 등)을 가리키는 넓은 언어적 부류”(참. PDSBH; RDLL).

이것은 단순히 ‘부사구’(adverbial clause)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 혹은 주동사와 연관된 주장을 하는 부정사, 분사, 전치사구를 가리키는 용어”이다(PDSNTG). 따라서 ‘동사수식어’(動詞修飾語)가 제일 좋은 번역이다(부쉬만도 동일한 번역을 한다). 이것은 “동사적 행동, 과정 혹은 일의 상태를 시간, 장소, 부류, 방식 등과 관련된 것”(RDLL)으로서, “원인, 이유, 양보, 조건, 장소, 목적, 결과, 시간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PDSBH).

참고로 영어학의 체계적-기능 문법(systemic-functional)에서 ‘동사수식어 부가사’(adverbial adjunct)는 동사수식어 요소(adverbial elements)로서, “(1) 범위(거리, 길이, 빈도), (2) 장소(위치, 시간), (3) 방식(수단, 질, 비교, 정도), (4) 우발성(조건, 상수, 양보), (5) 동반(comitative, 추가/부가), (6) 역할(외관, 산물), (7) 일(주제), (8) 각도(자료, 관점). 모든 상황의 유형들은 동사 과정의 특정 유형과 연관된다”(CDEG).

히브리어에는 순수한 부사가 최소하므로 여러 가지의 품사를 이용하여 동사수식적인 표현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동사 수식어’(adverbial)는 순수하게 ‘부사적’(adverbial)인 것과 구별되고(YES), 부사의 역할을 하는 실명사, 형용사, 부정사 절대형, 기수, 서수가 ‘동사 수식어’ 역할을 한다(JMK §102a-f). 또한 피엘이나 히필처럼 동사수식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JMK §102g).

주용-무라오카는 일반적인 동사 수식어와 구별되게 대격만을 꾸며주는 것으로서 동사적 술어를 한정시키는 개념으로 ‘동사-수식어 대격’(ad-verbial accusa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JMK §126a).

시 132:11 (JMK §102d)

נִשְׁבַּע־יְהוָה | לְדָוִד אֱמֶת

주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다.

창 22:15

וַיִּקְרָא מֵלֶאֱדָר יְהוָה אֶל־אַבְרָהָם שְׁנִית מִדְּהֶשְׁמִים: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불렀다.

헬라어에서는 부정사, 분사, 속격, 전치사구나 전치사절이 동사를 수식하거나 본동사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줄 때 ‘동사수식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동사수식적으로 사용된 대격(‘the adverbial use of the accusative’)이 코이네 헬라어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롬 15:22; 고전 14:27; 눅 11:3; 행 24:25; 17:30; 벧전 3:8; 롬 9:15; 요 8:25)(Z §74).

부정사는 동사적(verbial)이거나 명사적(nominal)으로 사용된다. 동사적 부정사는 동사적(verbial)으로나 동사수식적(adverbial)으로 사용된다. 동사수식적 용법은 목적(purpose; 마 5:17; 27:31; 요 1:33; 엡 6:11; 벧전 3:7), 결과(result; 눅 5:7; 롬 1:20; 고전 13:2), 시간(time; 마 26:32; 막 1:14; 히 10:26), 원인(cause; 마 24:12; 막 4:6; 요 2:24; 행 4:1-2; 히 7:24), 수단(means; 행

3:26; 4:29-30), 보충적인 것(complementary; 마 6:24; 막 2:19; 갈 3:21; 빌 1:12; 딤후 2:12)이 있다. 이 가운데 시간은 선행(antecedent) 시간(마 26:32; 막 1:14; 히 10:26), 동시성(contemporaneous)을 표현하는 시간(마 13:4; 눅 3:21; 히 2:8),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subsequent) 시간(마 6:8; 막 14:30; 요 1:48; 4:49)이 있다. 사도행전 1 장 3 절의 *μετὰ τὸ παθεῖν*(고난을 겪으신 뒤에)은 시간 중 선행하는(antecedent) 시간에 해당한다. 부정사의 이름에 ‘선행하는’과 ‘계속해서 일어나는’을 붙이는 기준은 ‘지배동사’(controlling verb)의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된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시점보다 ‘고난 받으신’ 시점이 선행하기에 *μετὰ τὸ παθεῖν* 은 선행하는 시간에 해당된다(W 590-599).

분사는 동사적(verbal)인 경우, 동사적(verbal)으로나 동사수식적(혹은 부사적 adverbial)으로 사용된다. 동사적인 분사는 종속적인 동사적 분사(Dependent verbal participles)와 독립적인 동사적 분사(Independent verbal participles)가 있다. 종속적인 동사적 분사가 부사적 혹은 상황적(Adverbial or Circumstantial)으로 사용되는 경우, 시간(Temporal; 마 4:2; 막 2:14; 9:15; 엡 1:15-16; 빌 1:3-4; 계 19:20), 태도(Manner; 마 19:22; 눅 8:47; 행 2:13; 5:41), 수단(Means; 마 27:4; 행 9:22; 고전 4:12; 엡 1:20; 2:14-15; 딤후 1:11; 뱌전 5:6-7; 빌 2:7), 원인(Cause; 마 1:19; 요 4:6; 11:38; 행 7:9; 16:34; 빌 1:6), 조건(Condition; 마 21:22; 눅 9:25; 갈 6:9; 딤후 4:4), 양보(Concession; 막 8:18; 롬 1:21; 엡 2:1; 뱌전 1:8; 빌 2:6), 목적(Purpose; Telic; 마 27:49; 눅 10:25; 13:7; 요 12:33; 행 3:26), 결과(Result; 막 9:7; 눅 4:15; 요 5:18; 엡 2:15; 5:19-21)를 나타낸다. 또한 부대상황(Attendant circumstance; 마 9:13, 18; 28:7; 눅 5:11, 14; 16:6; 17:19; 행 5:5; 10:13; 16:9; 히 12:1), 간접화법(Indirect discourse; 행 7:12; 빌 2:3; 요이 1:7), 보충적인 것(complementary; 마 11:1; 행 5:42; 12:16; 엡 1:16), 완곡어법(Periphrastic; 고후 9:12; 골 1:6 [현재]; 마 7:29; 막 10:32 [미완료과거]; 막 13:25; 고전 14:9 [미래]; 눅 12:6; 고후 4:3; 엡 2:8 [완료]; 마 9:36; 행 21:29 [과거완료]), 반복용법(Redundant; 중어법 Pleonastic; 눅 12:17; 마 11:25)이 있다(W 616-653).

사도행전 1 장 4 절의 *συναλιζόμενος* 는 시간에 해당한다. 분사의 경우 ‘선행하는’ 시간은 완료나 부정과거로, ‘동시성’은 현재나 부정과거로, ‘이어지는[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 시간은 미래나 현재로 표현된다. *συναλιζόμενος* 는 동시성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므로, “모여서는 지시하셨습니다” 혹은 “모일 때면 지시하셨습니다”와 같이 번역하면 되겠다.

속격 가운데 동사수식적 속격(adverbial genitive)은 가격이나 가치나 양의 속격(Genitive of price or value or quantity; 마 20:13; 요 6:7; 행 7:16; 고전 6:20), 시간의 속격(Genitive of time; 눅 18:12; 요 3:2; 살전 2:9; 계 21:25), 장소/공간의 속격(Genitive of place/space; 눅 16:24; 19:4; 빌 2:8), 수단의 속격(Genitive of means; 롬 4:11; 고전 2:13; 약 1:13; 빌 2:8), 대리의 속격(Genitive of agency; 요 18:16; 6:45; 롬 1:7; 8:33; 고전 2:13), 독립 속격[속격 절대형](Genitive of absolute), 지시 속격(Genitive of reference; 히 3:12; 5:13 [형용사와 함께]; 마 21:21; 골 1:15 [명사와 함께]), 제휴 속격(Genitive of association; 마 23:30; 롬 8:17; 엡 2:19; 5:7; 골 4:10; 계 19:10)이 있다(W 121-130).

— 동사수식어 대격(adverbial accusative)

≡ 동사(verb), 부사(adverb)

Young, Edward J., “Adverbial in Semitic,” *WTJ* 13 (1951), 151-154.

반의절(反義節)

adversative clause

문장 안에서 앞서 진술한 내용과 대조되거나(contrast) 반대되는(opposition) 내용을 표현하는 절.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나’(but)로써 반의절을 시작한다. 히브리어에서도 반의절은 접속사 바브(ו)로 연결되지만, 도치바브 완료(inverted perfect) 또는 도치바브 미완료 (inverted imperfect)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부정적 진술 이후에 **אֲמָ**이나 **כִּי**가 나타나서 대조를 표현하기도 한다.

창 17:5 (JM §172a)

וְלֹא-יִקְרָא עוֹד אֶת-שְׁמִי אַבְרָם וְהָיָה שְׁמִי אַבְרָהָם

네 이름은 다시는 아브람이라 불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브라함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창 32:29 (JM §172c)

לֹא יַעֲקֹב יֹאמַר עוֹד שְׁמִי כִּי אִם-יִשְׂרָאֵל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창 22:7

וַיֹּאמֶר הֲנֵה הָאֵשׁ וְהָעֵצִים וְאַיִהּ הִשָּׂה לְעֹלָה:

그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헬라어의 통사론에서는 복합 문장(compound sentence)을 만드는 등위 접속사(coordinating conjunction)의 종류로서, (1) 연결 접속사(copulative conjunctions), (2) 반의 접속사(adversative conjunctions), (3) 분리 접속사(disjunctive conjunctions), (4) 추정(inferential conjunctions), (5) 인과 접속사(causal conjunctions)가 있다(Smyth, 2163). 특히 반의절에서 반의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는 접속사 *δέ, καί*가 있고, 원래부터 반의적으로만 사용되는 접속사 *ἀλλά, πλὴν*이 있다.

= 등위절(coordinate clause)

≡ 관계절(relative clause), 상황절(circumstantial clause), 부정절(negative clause), 결과절(consecutive clause), 양보절(concessive clause), 비교절(comparative clause), 조건절(conditional clause) 등.

비. 접속사(conjunction)

피동 목적어(被動目的語)

affected object

주어의 동작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동작대상 목적어, 動作對象 目的語).

영어 ‘affected’는 라틴어 affectus에서 유래하며, 원래 ‘(질병에) 감염되다’(laid hold of by a disease)는 뜻이지만, “마음이나 감정이나 혹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 영문법에서 ‘affective’는 ‘정의적’(情意的), ‘affectivity’는 정의성(情意性), 즉 “언어에 얹힌 감정적 색채 또는 감정성”을 뜻한다(조성식 외). 우리는 이 단어를 ‘피동’(被動)으로 번역하였다. 피동 목적어(affected object)에서 ‘피동’(被動)은 ‘수동’(受動)의 뜻을 가지며, 그 목적어는 주어의 동작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피동자(被動者) 혹은 수동자(受動者)가 된다. 달리 말하자면, 그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 예로, “그가 밥을 먹었다”에서 ‘밥’은 ‘먹다’의 피동목적어가 된다.

히브리어에서 직접 대격은 ‘피동목적어’와 ‘달성목적어’ 두 가지가 있으며, 피동목적어는 동사적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다.

창 37:9

וַיִּתְּלֵם עוֹדֹת תְּלוּם אֶחָד וַיִּסְפֹּךְ אֹתוֹ לְאַתָּוִי

그 후에 그는 다시 꿈을 꾸고 그는 그것(꿈)을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다
꿈을 말하다에서, ‘꿈’이라는 목적어는 말하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

대상18:6

וַיַּשֶּׁעַ יְהוָה לְדָוִד בְּכֹל אֲשֶׁר הָלַךְ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에서 ‘다윗’이라는 목적어는 이기게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

+ 직접대격

↔ 달성목적어

확인절(確言節)

affirmative clause

긍정이나 부정의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바를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사.

한국어에서 ‘확인’(確言)은 ‘확실하게 말함’을 뜻하며,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함’을 가리키는 ‘단언’(斷言)과 동의어이다. 영문법에서 affirmative(확인)는 “문장 혹은 절에서, 명제가 진실함을 진술하는 것이며, 부정과 반대되고 assertive(단언)와 동일하다”(ODEG).

히브리어에서 ‘확인절’(affirmative clause)은 ‘확인 부사’(affirmative adverb) אֲבָל, אֲמֵן, אֵן, אֲכֵן, רַק, הִנֵּה 같은 것과 ‘참으로, 진실로, 정말’과 같이 동사적 행동에 확실성을 표현하는 불변사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כִּי는 ‘확실히’보다는 의미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엄숙한 맹세를 조건절의 귀결 부분에서 나타낸다(JMK §164a-b).

히브리어에서 ‘확인절’(affirmative clause)은 맹세와 같은 문맥에서 강한 확증이나 헌신을 전달하는 절로서 ‘단언절’(asseverative clause)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JMK §164, GKC §149).

왕상 22:32

אֵן מֶלֶךְ־יִשְׂרָאֵל הוּא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창 17:19

וַיֹּאמֶר אֱלֹהִים אֲבָל־שָׂרָה אֲשַׁתְּךָ יִלְדָּת לְךָ בֶּן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라가 반드시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 18:20 (JMK §164b)

זַעֲקַת סֹדֶם וְעֹמֶרָה כִּי־רָבָ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정말 크다.

+ 절 (clause)

접사(接辭)

affix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 어간(語幹, stem), 혹은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

접사(接辭)를 뜻하는 영어 affix는 ‘~에 붙이다(‘to attach), 묶다’(fasten to)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affixare, afficere에서 왔다. 따라서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작은 의미 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접사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단어의 시작 부분에 붙는 접두사(接頭辭), 끝에 붙는 접미사(接尾辭), 중간에 붙는 접요사(接腰辭, 혹은 삽입사[插入辭], infix)가 있다. 예로, 영어 disagreement에는 접두사 dis-와 접미사 -ment가 나온다. 영어에서 의미론적으로 볼 때, 접사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pre-는 앞을, post-는 뒤를 가리키며,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super-는 위, sub-는 아래, 상대적인 규모로서 macro-는 큰 것, micor-는 작은 것을 가리킨다”(CDEG).

히브리어의 경우 “어근(root)과 접사(affix) 시스템은 히브리어 형태서의 심장이다”(IBHS § 5.1.f). 특히 접사(affix)는 부가형태소와 동의어로서 동사 활용에서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 접요사(삽입사, infix)를 비롯한 모든 ‘의존 형태소’(bound morpheme)를 가리킨다(PDSBH, 21; 참. JMK §2jN.3, 53aN.1). 명사 변화에서는 정관사(JMK §140.c.)나 전치사(JMK § 103.b)가 접두사로 붙을 수 있으며, 인칭대명사가 접미사(JMK §94.a)로 주로 사용된다. 게제니우스는 라메드(ל), 뎀(נ), 그리고 눈(י) 등이 접미된 명사형들을 여러가지 소개한다(GKC § 85.XI.s, t, u)

≡ 의존 형태소(bound morpheme)

－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 접요사(infix)



부가 형태소(附加形態素)

afformative

히브리어나 셈어의 동사 어간에 추가되어 의미를 구별하는 문법형태소.

셈어의 동사 활용은 기본적으로 어두 형태소(preformative)와 어미 형태소(sufformative)로 나뉜다. 일군의 학자들은 부가 형태소(afformative)를 접미사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나, 주옹-무라오까는 접미사뿐 아니라 접두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JMK §31cN).

+ 형태소(morpheme)

≡ 의존 형태소(bind morpheme)

－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 접요사(infix)

아프리카-아시아어족

Afro-Asiatic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사용된 어족(語族)으로 함어-셈어족이라고도 한다.

“셈어는 고립된 언어군이 아니고 북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되는 다른 언어 군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셈어와 아프리카어 사이의 어족 관계에 대한 연구는 18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와 20세기에 점차 힘을 얻었고, 마침내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1947년 코헨은 함어-셈어의 비교 연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함어-셈어가 명확한 언어 공동체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혔다. 성경에서 나온 함어, 셈어라는 명칭은 모호하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아시아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명칭은 그린버그(J. H. Greenberg)가 처음으로 제안했고, 현재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함어 그룹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집트-콥트어(Egypto-Coptic, 기원전 4000 년대부터 문헌이 남아 있음), 리비아-베르베르어(Libyco-Berber, 기원후 2세기부터 비문이 있음), 쿠시어(Cushtic, 동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차드어(Chadic)도 포함시킨다.

비교 형태론에서 함어-셈어의 어근, 동사, 대명사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함어-셈어는 두 자음 어근이 우세했으며, 최소한 한 개의 접두형 동사 형태가 있었고, 어근의 둘째 자음이 중복된 또 다른 형태가 있었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SBCP 45-46에서 발췌). 함어-셈어의 특징은 성(남성과 여성), 동사의 인칭 접두사, 인칭 대명사의 자유로운 형태, 상태동사의 분리된 어형변화, 단순 격체계, 동사적 태(사역, 수동, 중간) 등이다.

= 함어-셈어(Hamitic-Semitic)

- 이집트-콥트어(Egypto-Coptic), 리비아-베르베르어(Libyco-Berber), 쿠시어(Cushtic), 차드어(Chadic)

행위자(行爲者)

agent

어떤 행위나 사건을 ‘유발하는 자’(instigator)나 ‘수행하는 자’(doer, performer)로서 주체가 되는 사물이나 사람.

영어 agent는 ‘행하다, 수행하다’(to do, to perform)라는 뜻의 라틴어(agere)에서 왔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가 되는 ‘동작주’(動作主)가 된다. 특히 동사가 능동형일 경우, 주어는 동작의 행위자(doer)가 된다. 행위자는 사람 혹은 인간 이외의 존재(nonhuman)일 수 있다. “큰 우박이 지붕의 기와를 부수었다”(CDEG). 행위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자’(能動者)는 행위를 수용하는 수동자(受動者, patient)와 대비된다. 영어의 수동태에서 행위자는 전치사 구로 표현된다(예, The apple was eaten by him).

특히 히브리어의 동사에서 행위자는 행위를 유발하는 주체이고, 행위대상자는 행위자에 의해 유발된 행위에 동참하게 된 객체를 뜻한다. 행위대상자(patient, 혹은 수동자[受動者])는 행위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분사에서 능동분사는 동작을 실행하는 행위자가 되며, 수동분사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JMK §40b).

창 28:3(JMK §55ne).

וְאֵל שַׁדַּי יְבָרֶכְךָ אֲתָּךְ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헬라어에서는 태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타동사의 주어가 되는 것이 행위자이고, 목적어가 되는 것이 행위대상자이다.

요 3:35

ὁ πατὴρ ἀγαπᾷ τὸν υἱόν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 행위 대상자(patient)

Callaham, Scott N., “Passive Paradox: Demoted Agent Promotion in Biblical Hebrew,” *ZAW* 124 (2012), 89-97.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

언어의 ‘형태론적’(morphological) 또는 ‘유형적’(typological) 분류의 하나로서, 낱말의 기본형에 일련의 형태소들을 결합하여 문법관계가 표시되고, 단어, 파생어, 합성어를 만드는 언어.

교착(膠着)은 ‘붙여서 달라 붙어 있게 한다’는 뜻으로(참. 교착상태) 기본적인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형태소를 하나씩 붙여서 어형을 만드는 방식이다. 영어 agglutinative도 ‘함께 붙인다’(gluing together)는 뜻의 라틴어(agglutinare)에서 왔다.

교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어휘소)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형태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이다. 단어 내에서 각각의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와 독립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태소의 경계는 항상 명확하고 식별이 용이하다.

교착어는 알타이어계의 언어들로서,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핀란드어 등이 있다.

≡ 굴절어(inflexional language), 고립어(isolating language)

일치(一致)

agreement

문장이나 구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문법적으로 서로 일치를 이루는 관계.

영어 agreement는 concord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성(gender), 수(number), 격(case), 인칭(person), 등이 하나의 구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이어질 때 문법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일치가 있다. 일치에는 “형식적 일치, 개념적 일치, 인접성의 일치가 있다”(CDEG). 개념적인 일치는 주어와 동사가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예, The police are ready for action). 인접성의 일치란 가까운 주어가 동사와 수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 일치와 인접성의 일치는 형식적 일치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히브리어의 경우,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꾸미는 명사의 성과 수에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며, 인칭 대명사도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의 수와 거의 항상 일치한다. 동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 혹은 대명사와 일반적으로 성, 수, 인칭이 일치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JMK §148-152). 동사에 붙은 대명사에서 여성은 빈번하게 남성으로 대치된다(JMK §150r).

신 6:18

וַיִּרְשָׁתָּהּ אֶת-הָאָרֶץ הַטֹּבָה

너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헬라어에서 일치는 명사류와 동사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명사류는 관사, 형용사, 대명사의 성, 수, 격을 수식하거나 지시하는 명사에 일치시킨다. 동사류는 시제, 태, 법, 인칭, 수를 동사의 주어에 일치시킨다.

(1) 명사류의 예

약 2:3

τὴν ἐσθῆτα τὴν λαμπρά

그 아름다운 옷

(2) 동사류의 예

마 22:32

ἐγὼ εἰμι ὁ θεὸς Ἀβραά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카드어

Akkadian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주전 2800-500년 사이에 사용되었던 셈어군에 속하는 주요 언어로서 바빌론과 앗시리아가 사용한 켈기 문자의 국제 공용어.

아카드어는 ‘아카드’(Akkad)라는 고대 도시국가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 도시는 고대 바빌론 제국의 사르곤 1세가 당시 제국의 북부 지역에 세웠고, 그 고대 이름은 아가다(Agada)였을 것이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아카드와 수메르로 나누어져 있었다. 아카드어는 고대 수메르어인들이 그림 형태의 표의문자(表意文字, logogram, 사물을 가리키는 그림)를 음절 형태의 켈기문자로 창안하여 만든 것을 차용한 언어이다. 수메르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표의문자 체계에 원래 단어의 뜻과 상관 없는 음절(syllable) 표기를 사용하였다. 예로, ‘AN’은 수메르어에서 ‘하늘’을 뜻하였는데, 이제는 ‘하늘’과 상관 없이 단지 음으로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메르 서기관들은 ‘의미적 분류사(semantic classifier)’를 통하여, 사람, 신, 도시, 식물 등을 분류하였는데, 아카드어는 이 한정사를 단어 앞이나 뒤에 붙여서 단어를 분류하였다. 사르곤은 아카드어를 고대 근동의 전역에 확산시켰다. 이 시대를 고대 아카드어 시대라고 부른다(2500-1950).

이후 메소포타미아는 주전 1950년대로부터 북쪽의 앗시리아와 남쪽의 바빌론으로 나누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아카드어도 앗시리아어와 바빌론어로 나누어졌다. 캐플리스에 따르면, 이 두 언어는 아래와 같이 발전한다(R. Caplice, *Introduction to Akkadian*, 3rd rev. edition,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8).

바빌론어	앗시리아어
고대 바빌론어(주전 1950-1530)	고대 앗시리아어(주전 1950-1750)
중기 바빌론어(주전 1530-1000)	중기 앗시리아어(주전 1500-1000)
신 바빌론어(주전 1000-625)	신앗시리아어(주전 1000-600)
후기 바빌론어(주전 625-0)	

아카드어는 고대 근동 아시아의 국제 공용어로서, 메소포타미아뿐 아니라, 이집트, 시리아-팔레스타인, 아나톨리아와 페르시아 지역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아카드어는 여러 지역에서 차용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언어에 영향을 미쳤다(수사, 보가즈코이, 알라라흐, 누지, 우가릿, 아마르나 텍스트 등). 현재 발굴된 토판들에는 조약, 법조문, 역사, 연대, 왕의 명단, 행정, 신화, 찬양, 서사시, 지혜, 잠언, 우화, 사랑의노래, 의료, 예언과 징조, 편지, 상업, 건물의 비문, 점성학, 수학, 결혼과 이혼 문서 등 모든 장르의 본문들이 나온다.

아카드어는 성경 히브리어 및 아랍어와 같은 언어들과 어휘와 구문 등에서 비교적 공통점이 많다. 그 서체는 음절 형태의 켈기문자로 되었다. 주전 8세기에 아랍어가 나타나기까지 아카드어는 메소포타미아와 근동 지역에서 사실상의 국제 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되었으며,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아랍어가 국제 공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SBCP 25, 33-34; JMK §2b). 셈어 중에서는 아카드어는 에블라어와 함께 동북 셈어 군(Northeast Semitic subgroup)에 속한다.

+ 셈어(semantic), 동북 셈어(Northeast Semitic), 수메르어(Sumerian)



- = 서북 셈어(northwest semitic)
- ≡ 함어(Hamitic)
- 아람어(Aramaic), 히브리어(Hebrew),

Andrason, Alexander, "The Akkadian *iprus* from the Unidirectional Perspective," JSS 55 (2010), 325-345.

동작양태(動作樣態)

aktionsart(en)

원래 동작의 방식(manner of action)을 가리키는 말로서, 동사가 취하는 동작의 양태로서 ‘순간, 지속, 반복, 완성’을 표시하는 것

원래 ‘동작양태’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Aktionsart’는 ‘동작의 방식’(manner of action)을 가리킨다. 이후 독일의 언어학자들은 이 용어가 “시제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동사 의미에서 의미 구별을 어휘화한 것(lexicalization)으로 이해하였고, 그 후에 이와 같은 의미 구별을 체계적으로 문법화시킨 것(systematic grammaticalization)으로 사용하였다”(RDLL).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기본 값을 시제(tense)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시상(aspect 혹은 Aspekt)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따라서 ‘동작양태’(혹은 유형, 종류)는 시상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시상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 동작양태는 “한 상황의 내적 구조를 완료성(completeness)의 여부로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Comrie의 관점). 즉, 상황을 전체(global)로 보느냐 혹은 과정(process)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작양태가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료형도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고, 미완료형도 완료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동작양태(Aktionsart)가 시상과 구별되어 사용될 때는 한 상황의 내적 구조가 “인과성(causation), 태(voice), 타동성(transitivity), 재귀성(reflexivity), 반복(repetition)”과 같은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피게 된다(참. IBHS, 문법용어 목록).

욥11:13

אִם־אַתָּה הַכִּינוֹתָ לְבָדָּךְ וּפְרַשְׁתָּ אֵלָיו כַּפְּךָ

만일 네가 마음을 정하고 너의 손을 그에게 펼친다면...(칼형)

여기서 칼동사 ‘손을 펼친다’는 ‘손을 펼치는 과정’을 드러내준다(pocessual aspect/Aktionsart, IBHS, 24.3.1.b.)

사 65:2

פְּרַשְׁתִּי יָדַי כִּלְהִיּוֹם אֶל־עַם סוֹרֵר

내가 하루종일 나의 손을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폈다(피엘형)

여기서 피엘 동사 ‘손을 펼친다’는 ‘손을 폈다’는 ‘동작의 끝남’(end)을 구체화한다(IBHS, 24.3.1.b.).

전통적으로 헬라어에서 동사의 동작양태는 (1) 계속되거나 선형적인(durative or linear) 행동과 (2) 순간적이거나 즉각적인(momentary or punctiliar) 행동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거나, (1) 순간적이거나 즉각적인 행동과 (2) 계속되거나 선형적인 행동과 (3) 완결된 뒤 지속되는 행동(the continuance of perfected or completed action)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R 823), 이 세 가지에 (4) 반복적인(iterative) 행동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BDF §318). 이러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동작양태는 (1) 동사 자체 어근 즉, 어휘 측면, (2) 시제를 포함한 문법적인 측면, (3) 문맥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동사의 동작양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학자들은 동사의 의미와 시제와 문맥을 통해 ‘어떤 양태의 동작’이 그려지는지 질문한다.

이에 반해 동사의 시상(aspect)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동사의 시제란 동작양태보다는 화자의 관점(point of view)과 관계된다고 보고, ‘동작양태’ 자체를 (1) 내부적이거나 진행적인(internal

or progressive) 행동, (2) 외부적이거나 즉시 이루어지는(external or summary) 행동, (3) 완결적이고 상태적인(perfective-stative) 행동으로 구분한다(W 500-501). 그리고 동사의 시제 가운데 현재와 미완료과거는 (1) 내부적이거나 진행적인 행동과 연결하고, 부정과거는 (2) 외부적이거나 즉시 이루어지는 행동과, 완료시제는 (3) 완결적이고 상태적인 행동과 연결짓는다.

요 1:12

ὅσοι δὲ ἔλαβον αὐτόν,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ἐξουσίαν τέκνα θεοῦ γενέσθαι,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하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다.

‘영접하는’는 직설법 부정과거, ‘주신다’도 직설법 부정과거, ‘믿는’은 현재분사이다. 동작양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영접하는’을 기동상(ingressive)으로 쓰인 부정과거의 예로 본다(R 834). ‘주신다’ 역시 기동상으로 이해할 것이다. 한편, ‘믿는’은 계속되거나 선형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것이다(W 621 n. 22). 시상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영접하는’과 ‘주신다’는 즉시 이루어지는 표현으로, ‘믿는’은 삶의 현장에서 믿는 바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행 18:18

χειράμενος ἐν Κεγχρεαῖς τὴν κεφαλὴν, εἶχεν γὰρ εὐχήν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는 그가/바울이 서원을 했기 때문이었다.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은 부정과거 분사로 표현되고 서원을 ‘했다’는 표현은 직설법 미완료과거로 표현된다. 동작양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머리를 ‘깎은’ 행동은 순간적이거나 즉각적인 한 순간의 행동이고 서원을 ‘한’ 행동은 계속되거나 선형적인 행동이다. 시상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화자는 머리를 ‘깎은’ 행동은 즉시 이루어짐을 표현하였고, 서원을 ‘한’ 행동은 화자가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 상(시상, aspect)

알레포 사본

Aleppo Codex

마소라 학파의 여러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주후 930년경)이며, 티베리아의 벤 아쉐르 학파의 작품으로서 마소라 성경의 거의 전부를 담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중 하나.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사해사본이다. 마소라 학파는 그들에게 전수된 텍스트를 필사할 뿐 아니라 모음 부호까지 붙이게 되었고, 티베리아의 벤 아쉐르 학파는 필사본을 만들면서,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모음을 붙이고(vocalization) 악센트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후대의 사본에서 잃어 버린 초기의 악센트 전통을 온전하게 보전하였다. 이 사본은 내가 사진으로 검토한 모든 티베리아 성경 필사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다”(Yeivin, in Jerusalem Crown, 35). 따라서 이 사본은 다른 어떤 사본들보다 필사자의 오류가 적으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모음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참. SBCP 124-125).

이 사본은 처음 티베리아에서 필사된 후 예루살렘에 살던 카라이트 종파(Karite sect)가 보전하다가 분실되었으나, 이집트 카이로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구입하였다. 이 때 마이모니데스(Maimonides)가 이 사본을 참조하였다고 한다. 이후 14세기에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의 유대인 회당에 보존되어 왔다. 20세기의 유대인 학자로서 움베르토 카수토는 1943년에 그 완전한 형태를 처음 보았으며, “그것은 붉은 가죽으로 덮힌 나무 상자 안에 있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책은 마치 두 개의 판대기가 일반적인 제본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았다”(Jerusalem Crown, 29)고 말한다.

1947년 시리아에서 ‘반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서 회당이 불타면서, 약 1/5 정도가 소실되었다. 원래는 487장 분량이었으나, 신명기 후반부를 제외한 오경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아가서의 일부 및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및 선지서의 일부분이 소실되었다. 현재는 294쪽의 분량만이 남아 있으며, 1958년에 이스라엘로 이송되어 보관되고 있다. 히브리 대학교는 1950년대부터 알레포 사본을 기초로 한 복원 작업과 성경 편찬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2년에 ‘케테르 예루살라임’(Jerusalem Crown)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참. <http://www.aleppocodex.org>, <http://www.Jerusalem-crown.co.il>).

이후 히브리대학 연구팀은 소실된 페이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복원하였다. (1) 16세기 말에 쿠르디스탄(Kurdistan)의 마마디야 마을에 사는 이사이 벤 아므람(Yishai ben Amran ha-Cohen Amdi)이 알레포 사본에 근거하여 오경 본문을 수정하였다. (2) 카수토는 1943년에 알레포 사본을 검토하면서, 알레포에서 기록된 토라 본문과 알레포 사본 사이에 있는 11가지의 차이점을 열거한 메모지를 발견하였고 그 목록을 복사하였다. (3) 1850년에 아쉬케나지의 랍비인 야곱 사피르(Ya'akov Sapir)는 토라에서 철자법, 모음기호, 악센트에 대한 500개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의 목록을 통하여 알레포 사본의 독법을 확인하게 되었다(예, 신 25:19의 ‘제케르’는 ‘세골’ 대신에 ‘제레’로 읽는다). (4) 랍비 샬롬 샤흐나 엘린(Shalom Shakhna Yellin, 1709-1874)은 리투니아에서 살다가 1855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기 위하여 오던 중, 알레포에서 양피지에 쓰인 타나흐를 보았는데, 그 안에 벤 아쉐르가 수정한 마소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기록한 모든 자료들은 1987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Jerusalem Crown, 41).

+ 마소라(Massorah),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 사해사본(Dead Sea Scrolls)

두음법(頭音法)

alliteration

시문에서 시행의 첫 글자나 소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거나 암송을 도우거나 시를 장식하는 기법

원래 ‘두음법’을 뜻하는 영어 alliteration은 ‘~을 향하여’를 뜻하는 라틴어 ad와 ‘(알파벳의) 글자’를 뜻하는 littera를 합성하여 만든 용어이다. 구약에서 두음법은 유사음 놀이(paronomasia)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카산노비치(Casanowicz)에 따르면 히브리어에서 다음과 같은 두음법들이 발견된다.

- (1) 두음법은 구문상 통합된 단어나 구를 이루며, 그 결합 안에서 강조와 인상적인 힘(the force of emphasis and impressiveness)을 나타낸다. 그것의 배열은 반대나 대조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보다 동의어로 구성된 결합이 훨씬 더 많으며, 이때 음의 유사성이 고려된다.
- (2) 두음법에서 단어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일반적으로 동의어의 배열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더 긴 단어나 혹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절정을 이루면서 두 번째에 위치한다(2-1). 또는 어떤 결합에서는 그것들이 결합된 위치를 바꾸어 나오며(2-2), 연결된 단어들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기보다 시문의 평행구로 나뉘어지기도 한다(2-3). 특히 직접적인 동의어(2-4)나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결합어(2-5), 혹은 정반대의 실례들(2-6)로 연결되기도 한다.
- (3) 문법적으로 종속된 단어들(주어와 서술어[3-1], 서술어와 목적어[3-2], 서로 연결된 속격[3-3], 보어, 부사적인 성격, 비교의 결합) 안에서는 두음법의 많은 실례들은 비교적 적게 나온다. 이 경우에 그 음의 일치에 의도적인지 단지 우발적인지 분별하기 어렵지만, 음의 유사성은 단어와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그 관계를 설명해준다.
- (4) 첫 자음의 한 음이 일치하여 두음법이 형성되지만, 두 개 이상(4-1), 또는 세 개 이상의 자음과 모음(4-2)까지도 유사한 음을 갖게 되어 전체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 (5) 히브리어에서 미묘한 유사음은 자음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5-1, 5-2).
- (6) 문법적인 어미변화에서 음의 일치나 유사성이 어간의 어절 안에 있는 경우에 유사음 놀이의 종류, 구약의 수많은 운율의 실례는 비교적 적게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전체 단어의 유사음과 연결되어 있다
- (7) 구약에서 마지막 음절의 단어를 재현하여 바로 다음 문장 앞에 단어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 (8) 구약에서 한 단어가 발음상 비슷하거나 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의 형태를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있다.
- (9)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리스어보다 더욱 실제성을 나타낸다. 적합한 이름과 그것을 설명하는 통칭 사이의 관계는 어원이라기보다는 이름과 연관되는 사건이나 어떤 감정에 의한 발음의 유사함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창2:23)
- (10) 구약에는 전반적으로 말하기로서 음의 유사성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 (11) 알파벳 시에서 시편 119편처럼 알파벳이 반복이 될 때에도 두음법에 해당된다.

위 설명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2-1)

시21:6[한21:5]

הַיּוֹד וְהַדֶּרֶךְ

존귀와 위엄

시24:6

זֶה דֶּרֶךְ דְּרָשׁוֹ

이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2-2)

민23:21

לֹא-הִבֵּיט אֶנֶן בְּיַעֲקֹב וְלֹא-רָאָה עָמֶל בְּיִשְׂרָאֵל

야곱의 아무런 허물(אֶנֶן)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어떤 죄(עָמֶל)도 보지 아니하신다

욥15:35

הָיָה עָמֶל וַיֵּלֶד אֶנֶן

그들은 악한 생각(עָמֶל)을 잉태하고 불의(אֶנֶן)를 낳으며

(2-3)

삿5:4

יְהוָה בָּצָאתָּךְ מִשְׁעִיר // בָּצַעְתָּךְ מִשְׁדָּה אָדָם

주님,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 주께서 에돔 들에서 진군하실 때에

(2-4)

나1:3

יְהוָה בְּסוּפָהּ וּבְשַׁעֲרָהּ דִּרְבּוֹ

그(여호와)의 길에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있다

(2-5)

스1:15

יוֹם שִׁאָּהּ וּמִשׁוּאָּהּ

그날은 황폐와 멸망의 날이요

욥38:27

לְהַשְׁבִּיעַ שִׁאָּהּ וּמִשָּׂאָ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적시며

(2-6)

사12:2

אֶבְטָח וְלֹא אֶפְתָּךְ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3-1)

사24:6

אֱלֹהִים אֶכְלָה אֶרֶץ

저주가 땅을 삼킬 것이다

(3-2)

잠8:27

בְּתוֹקוֹ חֹג עַל־פְּנֵי תְהוֹם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

(3-3)

사22:2

תָּלַלְיָהּ לֹא תִלְלִי־חֶרֶב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다

(4-1)

신28:53

בְּמִצּוֹר' וּבְמִצּוֹק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아

창18:27

וְאֲנֹכִי עֹפֵר וְאֹפֵר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니

(4-2)

사24:17

פָּתַד וּפָתַת וּפָח עָלֶיךָ יוֹשֵׁב הָאָרֶץ

땅에 사는 사람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5-1)

신21:18

בֶּן סוֹרֵר וּמוֹדָ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5-2)

신28:22

וּבִשְׂדֵפָהּ וּבִירְקָהּ

가뭄과 썩는 병

헬라어에서 사용된 두음법의 예로는 $\pi\omicron\eta\eta\rho\acute{\iota}\alpha$ $\pi\lambda\epsilon\omicron\nu\epsilon\xi\acute{\iota}\alpha$ (롬 1:29), $\acute{\upsilon}\beta\rho\iota\sigma\tau\acute{\alpha}\varsigma$ $\acute{\upsilon}\pi\epsilon\rho\eta\phi\acute{\alpha}\nu\omicron\upsilon\varsigma$ (롬 1:30), $\acute{\alpha}\pi\epsilon\iota\theta\epsilon\acute{\iota}\varsigma$ $\acute{\alpha}\sigma\upsilon\nu\acute{\epsilon}\tau\omicron\upsilon\varsigma$ $\acute{\alpha}\sigma\upsilon\nu\theta\acute{\epsilon}\tau\omicron\upsilon\varsigma$ $\acute{\alpha}\sigma\tau\acute{o}\rho\gamma\omicron\upsilon\varsigma$ $\acute{\alpha}\nu\epsilon\lambda\epsilon\acute{\eta}\mu\omicron\nu\alpha\varsigma$ (롬 1:30-31)가 있다(R 1201).

+ 유사음 놀이(paranomasia)

≡ 두운법(acrophony), 유사음 현상(assonance)



Casanowicz, Immanuel M., "Paronomasia in the Old Testament," *JBL* 12 (1893), 105-167.

변이형태(變異形態)

allomorph

하나의 형태소가 문법기능이나 통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지만 의미는 동일한 변이 형태(variant form).

영어 allomorph는 헬라어 ‘allos’ (다른)와 ‘morphe’ (형태)의 합성어이다. 영어의 예로서는 (1) 동일 어간의 형태소가 변이되는 형태로서 loaf(단수)와 loave-(복수), inquiry와 enquiry, hiccough와 hiccup, (2) 음성적으로 형태소가 변이되는 것으로서, 과거 형태소 -ed가 어간의 최종 자음에 따라 /d/ 혹은 /t/로 들리는 것, (3) 문법적 형태소가 변이되는 것으로서, 과거 분사의 접미사가 -ed(규칙, 약동사) 혹은 -en(불규칙, 강동사) 등이 있다(ODEG).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로 변이된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예로, 히브리어에서 칼 분사 여성 단수 절대형의 어형 변화 범주는 세 개의 변이 형태소 קטלָה, קטלָה, קטלָת로 나타난다(JMK §34e). 또한 성경 아람어에서는 הִּ and הִּי는 둘 다 3인칭 단수 대명사 접미사이며, הִּמוּ, הִּמוֹן과 אֲנוּן은 모두 3인칭 남성복수 독립인칭대명사이다(PDSBH 23)

에스라 4:23

וּבִטְלוּ הִּמוֹ בְּאֶדְרֵעַ וְחִיל
그들이 무력으로 막았다

단 2:44

וּבְיוֹמֵהוּ דִּי מְלָכִיא אֲנוּן
그들 여러 왕들의 시대에

≡ 변이음(allophone), 기식(aspiration)

변이음(變異音)

allophone

한 음소가 발음하는 위치와 강세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 음

히브리어에서 강세의 위치는 음성론적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것은 가끔 음소적으로 의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JMK §15c, 64). “현대 언어학은 음(phone)과 음소(phoneme)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한다(JMK §5gb)”. 샌즈-바딜로스는 변이음소를 설명하면서, “브가드파트(בְּגַדְפָּת)는 음성론적 주변 환경에 따라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발음되며, 이 두 종류의 발음은 구별된 두 음소가 아니라 한 음소의 변이음이 있다”고 보았다(참. SBCP 89)”라고 말하였다(참. JMK §19a-f).

+ 음소(phoneme)

≡ 변이형태(allomorph), 기식음(aspirate, aspiration)

알파벳

alphabet

음소를 기본 단위로 하는 표음 문자체계로서, 그림문자, 상형문자 등의 표의문자에 대비되는 문자

알파벳은 수많은 기호들을 간편화하기 위해 창안한 특별한 체계로서 고대 페니키아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크레테에서 가져와 헬라어 알파벳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알파벳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두 문자인 ‘알파’(α)와 ‘베타’(β)를 합친 말로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두 문자인 ‘알레프’(א)와 ‘베트’(ב)에서 유래된 것이다.

인류의 첫 문자는 수메르인들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그림문자(pictograph)를 통하여 상형문자를 만들었고, 후대의 아카드인들이 그것을 발전시켜 단어 음절문자인 쉐기문자로 발전시켰다. 고대 이집트 역시 수메르인들이 고안한 그림문자에서 상형문자를 발전시켰다.

최초의 알파벳은 주전 16-17세기경의 것으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로 부른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겜, 게젤, 라기스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로 오스트라카(깨진 자기위에 잉크로 찍여진 기록물), 인장, 칼, 창의 머리 부분에 기록되었다. 그 다음 시기의 알파벳은 주전 15세기의 것으로 ‘원시-시나이어’(proto-Sinaitic)로 부르며 시나이반도의 세라비트 엘-카템(Serabit el-Khadem)에서 발견되었다. 초기의 알파벳은 그 수가 27-30개 정도로 추정되며, 글을 쓰는 방향은 수직, 수평, 지그재그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다. 알파벳 순서대로 문자가 배열된 최초의 예는 주전 14세기 경의 우가릿어로 27개였다. 알파벳 수가 22개로 축소된 것은 주전 13세기경이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이 확정된 것은 주전 1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과 시나이 반도에서 출발한 알파벳은 페니키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발전되었으며, 그리스어 알파벳을 통해 유럽의 모든 문자들로 발달했다.

Joseph Naveh, *Origins of the Alphabets. Introduction to Archaeology*, Herzlia: Palphot LTD, 1994.

Yardeni, Ad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중의성(重義性)

ambiguity

한 단어, 구, 절,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현상

영어의 ambiguity는 라틴어 ambigo, ‘방황하다, 주저하다, 의심하다’의 명사형 ambiguitas에서 온 용어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모호함(vagueness)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의성에는 의도적인 것(deliberate)과 비의도적인 것(unintended)이 있다. 나아가 중의성은 형태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종류가 있다(참. ODEG; PDSBH; 조성식 외)

(1) 어휘적 중의성(lexical ambiguity)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의적 단어가 문장에 있음으로 생긴다. 예로, She cannot bear children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와 ‘아이들에게 참지 못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2) 문법적 중의성(grammatical ambiguity) 혹은 구조적 중의성(structural ambiguity)은 통사적 관계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로, Beautiful girl's dress에서 ‘아름답다’가 ‘소녀’ 혹은 ‘옷’을 수식할 수 있다.

(3) 작용적 중의성(scope ambiguity)은 단어의 의미가 문장 전체나 혹은 부분 중 작용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Every boy loves some girl은 ‘모든 소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가 한 사람씩은 있다’, 혹은 ‘모든 소년들로부터 사랑 받는 한 소녀가 있다’는 두 가지 뜻이 생긴다.

히브리어에서 ‘손’을 가리키는 단어(יד)는 ‘손’뿐 아니라(창 3:22), 권세와 능력을 가리킨다(시 139:10). 히브리어 ‘아름’(עָרוֹם)은 ‘간교함’(창 3:1)과 ‘지혜로움’(잠 12:16)을 동시에 뜻한다.

시 139:10

גַּם-שָׁמַיִם יָדְךָ תִּתְּנֵנִי וְתֹאחֲזֵנִי יְמִינְךָ:

주의 손이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창 3:1

וְהַנָּחֵשׁ הָיָה עָרוֹם

그런데 뱀은 간교하다/지혜롭다

잠 12:16

בְּכֹסֶה קִלְזוֹן עָרוֹם

간교한/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참는다

헬라어의 경우, 단어, 격, 부정어의 위치, 부정사의 수식, 전치사 구의 수식에 의해서 중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요 3:7

δεῖ ὑμ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ἄνωθεν은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데 요한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는 것 같다.

행 2:33

τῇ δεξιᾷ οὖν τοῦ θεοῦ ὑψωθείς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오른 손으로 올리셔서

여격인 τῇ δεξιᾷ는 수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처격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단으로 해석하면 ‘오른손으로’가 되고, 처격으로 해석하면 ‘오른편에’가 된다. 여기서는 문맥상으로는 처격이 옳다.

갈 2:16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소유격이 주격적 소유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가 되어서 새 관점을 지지하는 해석이 되고, 목적격적 소유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로 해석되어서 전통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해석이 된다.

행 7:48

οὐχ ὁ ὑψιστος ἐν χειροποιήτοις κατοικεῖ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부정어가 동사를 부정하느냐, 주어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가 될 수도 있고, ‘손으로 만든 것들 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하는 것은 아니다’가 될 수도 있다.

Callaham, Scott N., “But Ruth Clung to Her: Textual Constraints on Ambiguity in Ruth 1:14,” *TynBul* 63 (2012), 179-197.

Collins, C John, “Ambiguity and Theology in Ruth: Ruth 1:21 and 2:20,” *Presb* 19 (1993), 97-102.

Davies, Richard, “Creative Ambiguity,” *RelEd* 77 (1982), 642-656.

Roose, Hanna, “A Letter as by Us’: Intentional Ambiguity in 2 Thessalonians 2.2,” *JSNT* 29 (2006), 107-124.

암몬어

Ammonite

서북 셈어 군에 속하는 가나안 방언으로서 페니키아어, 에돔어, 모압어, 히브리어와 같은 어족(語族)을 이루는 고대 암몬 족속의 언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다(창 19:36-38). 그들은 요단강 동쪽 산지에서 왕국을 세웠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주전 18세기에 강력한 왕국을 세웠고(MB II), 후기 청동기 시대에 백성들의 수가 줄어 들었다(LB, 16-13세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만났고(민 21:24-35; 신 2:16-37), 다윗 시대에는 그들과 전쟁이 있었다(삼하 11-12). 랍바 암몬은 주전 10세기에 성벽을 쌓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암몬의 왕으로서는 나하쉬(약 1030-1000; 삼상 11:1-12; 12:12; 삼하 10:2), 나하쉬의 아들 하눈(삼하 10:1-4), 나하쉬의 아들 소비(삼하 17:27), 그리고 성경 외의 자료에서는 샤니브(약 733년, 티글랏벨레셀 3세 시대), 샤니브의 아들 자쿠르(암몬 비문), 야리호-에제르(?) (암몬 비문), 푸두-일루(혹은 부두일리, 약 701-677, 산헤립과 에살하돈 시대), 암미나답 1세(약 667, 아수바니팔) 등이 있다(참. ABD).

페르시아 시대에는 ‘강 건너편’의 5번째 총독의 지역에 속한다. 하스모니안 시대에는 유다 마카비가 암몬 서쪽 지역을 정복한다(마카비 1서, 5:6-7).

샌즈 바딜로스에 따르면, 암몬어는 기원전 7-6세기 비교적 짧은 시간의 여러 인장들과 비문 파편들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기원전 9세기 중반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 파편 하나가 암만의 요새에서 발견되었다. 암몬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은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데이르 알라 비문이다. 이것은 1967년 요단 계곡 동쪽에서 발견되었고, 1976년에 전문이 출판되었다.

암몬어의 언어적 특징을 정리하자면, “복수 연계형 어미 -e(초기 페니키아어처럼 -ey 대신), 남성 복수 접미어 -m, 눈의 다음 자음으로의 동화, 때때로 치찰음 앞에 알렘(alef) 첨가어 사용, 이중 모음 ay의 축약, 그러나 aw는 축약되지 않음, 두 모음 사이에 오는 요드(י)의 발음 생략, 여성 접미어 -t, 관계사 'š/š, 정관사 h-, 접두형 동사 3인칭 남성 복수 형태 마지막에 눈의 일반적인 사용, 2인칭과 3인칭 단수 형태에 인칭대명사 접미어 -k와 -h의 사용, 목적격 불변화사로 보이는 t-의 사용” 등이다(SBCP 60).

아모리어

Amorite

주전 2250-1000년대에 초기의 시리아-팔레스타인과 주로 유프라테스강 서쪽 마리 지역에서 사용된 서북 셈어의 하나.

리베라니(M. Liverani)는 다음과 같이 아모리인들의 역사에 대하여 말한다(M. Liverani, “The Amorites,” in POT, 100-133).

“한 종족으로서 아모리인(Amorites)에 대한 가장 오래된 명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수메르어로 마르투(Martu)와 아카드어로 아무룸(Amurru[m])으로 나온다. 이 명칭은 고대 아카드 시대에는 지리적으로 ‘서쪽’을 가리켰다. 종족으로서 ‘마르투’는 파라(Fara) 시대(주전 2,600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모리인들의 신화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마르투의 신화’로서 마르투 신은 “장막에 살며, 비와 바람을 맞고, 산 기슭에 살며, 무릎을 꿇지 않고, 야생 음식을 먹으며,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집이 없고, 죽어서는 무덤이 없다”고 한다. 즉, 원래 아모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목민들이었다. 그렇지만, 아모리인들은 시리아 지역에서는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다. 아모리인들은 우르 3왕조 때에 아카드와 수메르를 북쪽에서 공격하였으므로, 술기의 통치(2094-2047) 때에는 성을 쌓기 시작하였으며, 우르의 왕 슈-신(Shu-Sin)은 아모리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280km의 성을 쌓았다고 한다. 우르 3왕조가 망한 후에 아모리인들은 그 지역의 왕이 되었으며, 왕의 칭호를 가졌다. 대표적으로 바빌론의 왕은 ‘아무루의 왕’(lugal mar-tu)라는 칭호를 가졌다. 시리아 지역에서 아모리인들은 왕국을 이루었으며, ‘아무루’(Amurru)는 남부 시리아 지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15세기경 아모리 왕국은 북부 레바논과 남부의 예벨 안사리아까지 다스렸다. 주전 1200년경에 아모리 왕국은 시리아 지역에서 독립적인 국가로서 종말을 맞이하였다.”

구약성경에서는 아모리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도시국가를 이룬 대표적인 종족으로 언급된다(창 10:16; 창 48:22; 수 10:5; 암 2:9).

셈어의 발달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전 2000 년대에 비옥한 삼각주의 동북쪽 지역에서 아카드어가 바빌론어와 앗시리아 방언들로 분열되는 한편, 더 서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아모리어, 나중에 우가리트어와 원시 가나안어 비문들, 비블로스와 시나이 비문들, 엘아마르나 주석(gloss)으로 알려진 다른 언어들이 등장했다”(SBCP 25).

아모리어는 주전 2250-1000년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고, 주로 마리(Mari)와 그 인접 지역에서 발견된 토판에 나온다. 아모리어는 고유명사들과 일부 일반 명사들을 통하여 서북 셈어로 확인되었다.

아모리어는 “셈어의 자음을 정확히 알려 주지 못하지만 모음에 관해서는 중요한 정보를 준다. 셈어의 원래 격조사 모음들이 남아 있고, 'h, w나 y로 분리되는 모음들이 축약되어 장모음을 등장시키며, aw와 ay 이중모음이 유지되고, 어두움의 w가 y로 바뀐다. 형태론적으로는 1인칭 접미형 대명사가 두 개이고(-na와 -ni), 수동분사 형태도 두 개이다(qatulum과 qatulum).” (SBCP 50)

동사에서는 히트파엘의 재귀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삽입사(infix) ʾ는 셈어 가운데 아모리어에 나타난다(JMK §53aN). 아모리어의 히필 미완료 접두사 모음은 /a/였다(JMK §54aN).

Lemaire, André, “Mari, the Bible, and the Northwest Semitic world,” *BA* 47 (1984), 101-108.



- Merrill, Eugene H., "Ebla and Biblical Historical Inerrancy," *BSac* 140 (1983), 302-321.
Van Seters, John, "Terms Amorite and Hittite in the Old Testament," *VT* 22 (1972), 64-81.
Waltisberg, Michael, "The Case Functions in Amorite: a Re-evaluation," *JSS* 56 (2011), 19-36.

파격구문(破格構文)

anacoluthon

절이나 문장에서 원래 계획된 문장 구조가 갑자기 일관성이 없는 구문으로 바뀌면서 불일치 구문을 나타내는 것.

헬라어 ἀνακόλουθον(‘일치하지 않는, 뒤따르지 않는’)에서 나온 용어이다. 처음 시작된 문장의 형식으로부터 어떤 구문이 도중에 갑자기 다른 구문으로 바뀌면서, 앞뒤의 문법적인 조응관계가 깨어지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잃게 되어 문법적으로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긴 삽입구로 인해서 화자가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었거나, 혹은 문장의 흐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장구조를 시작할 때 이러한 파격구문이 나타난다. 예로, “Our world is facing a critical shortage of-why are you laughing?”(CDEG). 즉, 파격구문은 언어의 상호적인 조응 특징 때문에 일어난다.

창세기 23:13 (GKC §110e, §167b)

הַתִּשְׁבִּי הָרִשָּׁאִי הָיָה לִי הַתִּשְׁבִּי הָרִשָּׁאִי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간청의 불변사 **הָיָה** 뒤에 미완료형이 와야 하는데, 보다 강한 명령형[**הָיָה**]을 써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참. JMK §163cN.2).

신약성경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과 같은 긴 삽입도 일종의 파격구문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파격구문은 주어나 목적어가 매달린(suspended) 경우, 문장이나 절이 끼어들어 이탈된 경우(digression), 분사가 일반적인 문장 형식을 벗어난 경우,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asyndeton)가 있다(R 434-440). 이 가운데 분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격구문인 경우도 있지만 분사가 직설법을 대신하는 경우(고후 9:11, 13)도 있고, 명령법 및 부정사와 연결되는 경우(롬 12:9-13)도 있다.

마 12:36(R 436)

πάν ῥῆμα ἄργον ὃ λαλήσουσιν οἱ ἄνθρωποι ἀποδώσουσιν περὶ αὐτοῦ λόγον ἐν ἡμέρᾳ κρίσεως

사람들이 얘기한 모든 헛된 이야기를, 그들은 심판의 날에 그것에 관해 계산해야 할 것이다.

매달린 목적어의 경우이다. ‘사람들이 얘기한 모든 헛된 이야기’가 문장 초두에 나와서 강조되었지만, 주문장 안에서는 자기 자리를 αὐτοῦ에게 내주었다.

행 27:10(R 438)

θεωρῶ **ὅτι** ... **μέλλειν** ἔσεσθαι τὸν πλοῦν

내가 보니 항해가[항해하면] ... 있을 것입니다.

ὅτι절이 부정사 구문으로 바뀌었다. 절이 있어야 할 곳에 부정사 구문이 끼어들어 이탈된 예이다.

벧후 1:17-18(PDSNTG 17)

λαβὼν ... καὶ ταύτην τὴν φωνὴν ἡμεῖς ἠκούσαμεν

[그분이] 취하실 때, 이 소리를 우리도 들었다.



- ≡ 접속사 생략(asyndetic, asyndeton)
- ≡ 삽입구(parenthesis)

유추(類推)

analogy

기존하고 있는 단어들의 굴절(inflections), 파생어(derivatives), 구문(constructions)을 모사하거나 모방하여 다른 단어들의 어형변화, 파생어, 구문을 만드는 현상.

일반적으로 유추란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이다. 유추를 뜻하는 영어 analogy는 원래 수학 용어인 헬라어 ‘아날로기아’(ἀναλογία, 비율, 치수가 동일함)에서 나왔으며, 관계나 사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뜻한다. 신학에서는 ‘믿음의 유추’(analogy of faith)가 중요한 개념을 이루고 있다.

언어학에서는 통시적이거나 공시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연관된 언어적 단위들의 형태가 유사해지거나 동일해진다. 또한 발음 변화에서도 유추가 중요한 요인이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유추란 “어떤 단어나 어법(語法)이 의미적·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른 단어나 문법 형식을 모델로 하여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킨다(표준국어대사전). 예로, 우리말에서는 ‘서르’, ‘바르’가 ‘함부로’, ‘저절로’ 따위의 ‘-로’에 유추하여 ‘서로’, ‘바로’로 변화되었고, 초기 현대 영어의 can의 과거 시제는 coude였지만, should와 would의 유추로 could가 되었다.

히브리어에서 어떤 명사는 남자를 유추하여 남성으로 나오며, 여자를 유추하여 여성으로 나온다(IBHS §6.2.2.b).

삼하 14:24 (참. JMK §82.c)

וַיֹּאמֶר הַמֶּלֶךְ יִסָּב אֶל-בֵּיתוֹ וּפָנִי לֹא יֵרָאֶה וַיִּסָּב אֲבִשָׁלוֹם אֶל-בֵּיתוֹ וּפָנִי הַמֶּלֶךְ לֹא רָאָה: ס

그러나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니팔 완료형 나싸브(נִסַּב)의 미완료형 이싸브(יִסָּב)는 폐눈동사 칼 형태(예, 나게쉬*, 이가쉬)를 유추하여 형성되었다.

출 12:16(참. JMK §96A.b)

וּבַיּוֹם הָרִאשׁוֹן מִקְרָא-קֹדֶשׁ וּבַיּוֹם הַשֵּׁבִיעִי מִקְרָא-קֹדֶשׁ יִהְיֶה לָכֶם

너희에게 첫 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될 것이라

원시형태 *qudš 는 *qodš 가 되었고, 세페르(סִפֵּר)와 멜렉(מֶלֶךְ)을 유추하여 보조모음 ֶ를 취한 후 코데쉬(קֹדֶשׁ)가 되었다.

창 2:5 (IBHS§11.2.13b, #5)

כִּי לֹא הִמְטִיר יְהוָה אֱלֹהִים עַל-הָאָרֶץ

야웨 하나님은 아직 비를 땅 위에 내리게 하지 않았었다.

출 20:26 (IBHS§11.2.13b)

וְלֹא-תַעֲלֶה בְּמַעֲלֹת עַל-מִזְבְּחִי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왈키-오코너에 따르면, “움직임의 동사와 함께 알(al)은 목표성(terminative sense)을 가진다. 즉, ‘~으로, 향하여’(on, to, onto) 즉, ‘al은 유추에 의하여 ‘al과 같은 뜻을 가진다. 그래서 파르디는 출 20:16에서 halak ‘al을 ‘~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다’로 제시하였다.”



≡ 수평화(leveling)

분석(分析)

analysis

본문의 뜻을 보다 명료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본문 안에 나오는 다양한 문법적 단위들을 구분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

문법용어로서 분석이란 문장이나 문장의 일부를 구성 성분들을 기본 단위를 따라 분해하여, 전체 문장과의 관계 및 성분들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다.

전통적인 본문분석 방식은 음운론(phonology), 형태론(morphology), 구문론(syntax)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 해석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삼분법적 접근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분석법으로는 구조주의(structuralism),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 등이 있다(IBHS §3.3; 참. R 9, 980).

전방대용어(前方代用語)

anaphor (anaphora)

한 구문이나 문맥 안에서 그 앞에 언급된 단어, 구, 지시물(referent)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

전방대용어(anaphor/anaphora)는 전방조응어(前方照應語) 혹은 수구반복(首句反復)라고도 한다(JMK §154j).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으로(*ἀναφορά*, ‘pointing back, carrying back’), 한 문장 안에서 공지시적 관계(coreferential relationship) 속에 있는 선행하는 언어적 단위(단어나 구)를 대체하는 단어들의 용법을 가리킨다. 모든 종류의 대명사들은 전방대용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인칭(personal) 대명사는 선행하는 명사를 가리키므로 전방대용적이며, 정관사도 지시어가 이미 언급되었으면 전방대용적이 된다(JMK §137f). 넓게는 재귀(reflexive) 대명사와 상호(reciprocal) 대명사도 여기에 속한다(참. 이정민 외). 쉬운 예로, “The stair in front of the building took us up to its huge carved door”에서, building 은 선행사이며, its 는 전방대용어이다(anaphor)(CDEG). 선행대명사는 문장에서 응결성(cohesion)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이다. 히브리어에서 재생(resumptive) 대명사는 동격과 같이 “첫번째 명사적 주어를 두 번째 것과 분리 시킬 때” 나온다(JMK §146c).

창 2:4

אֱלֹהִים תּוֹלְדוֹת הַשָּׁמַיִם וְהָאָרֶץ בְּהִבְרָאָם בַּיּוֹם עָשׂוֹת יְהוָה אֱלֹהִים אָרֶץ וְשָׁמַיִם: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표준), 『표준』은 전방대용어로 본 번역이다(참. JMK §143b). “여호와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개역)은 후방대용어로 본 번역이다.

창 9:17

וַיֹּאמֶר אֱלֹהִים אֶל־נֹחַ זֶאת אֹת־הַבְּרִית אֲשֶׁר הִקְמַתִּי בֵּינִי וּבֵין כָּל־בֶּשֶׂר אֲשֶׁר עַל־הָאָרֶץ: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개역개정)(JMK §143b)

창 13:1

וַיַּעַל אַבְרָם מִמִּצְרַיִם הוּא וְאַשְׁתּוֹ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와 그의 아내는...

룻 1:1, 1:2

וְשֵׁם הָאִישׁ אֱלִימֶלֶךְ, וַיָּלֶךְ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가서(룻 1:1)...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룻 1:2)

헬라어에서는 관사의 기능(R 759, 790) 및 평행구(예. 히 11:3-31 의 “믿음으로”, BDF §491)와 관련하여 언급된다.

헬라어의 경우, ὅδε 가 전형적인 전방대용적 대명사이다. 관계대명사를 전방조응적 대명사로 부르기도 한다(R 290). 지시대명사가 전방조응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 전방 조응적인(anaphoric)
- ↔ 후방대응적(cataphoric, cataphora)
- ≡ 응결성(cohesion)

보조모음 첨가(補助母音添加)

anaptyxis

두 자음이 연속될 때 어색한 발음을 쉽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두 자음 사이에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

헬라어 아납튀시스(ἀνάπτυξις)는 ‘펼치다’(unfolding)는 뜻을 갖고 있다. 영어에서 athlete 를 발음할 때, th 와 l 사이에 e 모음을 첨가하여 음절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발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세골 명사들은 대표적으로 보조모음 e 를 첨가하여 발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세골 명사들은 원래 */malku/[자+모+자+자+모] 와 같이 주격에서 짧은 끝 모음이 있었다. 이후 이 모음이 상실됨으로써 /malk/ [자+모+자+자]로 두 개의 자음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자음 사이에 보조 모음 e 를 삽입하게 되어 /melek/ [자+모+자+모+자]가 되었다. 이 과정을 보조모음 첨가라고 부른다(JMK §27db). 특히 티베리아 발음 전통에서는 단어 끝에 자음 다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모+자+자] 형태는 대명사접미사가 없는 단수 형태에서 [자+모+자+모+자] 형태로 변한다. 이 때 추가된 세골 모음은 이차적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어중 삽입(epenthetic) 또는 보조모음 첨가(anaptyptic)이라고 불리우며, 이 명사들은 세골 명사라고 부른다(JMK §88Ca*).

*/malku/ > /malk/ > מֶלֶךְ

헬라어에는 보조모음 첨가 현상이 드물지만 ἑβδομος가 ἑβδομος나 ἑβδεμος로 된 것을 예로 들고있다(Sihler §92.c). 또 다른 예로는 πνυτός 대신에 πινυτός가 사용되기도 한다(Stanford 61).

= 어중 삽입(epenthesis, epenthetic)

DeCaen, Vincent, “Hebrew Sonority and Tiberian Contact Anaptyxis: the Case of Verb Primae Gutturals,” *JSS* 48 (2003), 35-46.

무관사의(無冠詞的)

anarthrous

(정)관사를 취하지 않는 형태.

‘무관사’라는 단어 anarthrous 는 ‘관사가 없다’는 뜻의 헬라어 anarthrous(결성사 $\alpha\nu + \alpha\rho\theta\rho\omicron\nu$, ‘joint’)에서 왔다.

히브리어에서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몇몇 명사들은 관사를 취하지 않는다. 위엄의 복수가 전치사와 함께 나올 때 관사가 나오지 않으며, 이런 경우를 무관사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 무관사 형태는 초기 문헌에 더 자주 나온다(JMK §137d).

창 17:1

שְׁרָרִי

전능자

시 89:28 [한 27]),

עֲלִיֹן

지존자

신 32:15

אֱלֹהִים

하나님

고유명사로 사용된 ‘전능자, 지존자, 하나님’ 등 몇몇 명사들은 관사를 취하지 않는다(JMK §137d).

בְּאֱלֹהִים, לְאֱלֹהִים, מֵאֱלֹהִים (JMK §137d)

위엄의 복수가 전치사와 함께 나올 때에는 관사를 취하지 않는다

지시, 한정, 대용의 기능을 하는 헬라어 관사는 사용이 자유로워 관사가 없는 형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 관사(article)

Harner, Philip B., “Qualitative Anarthrous Predicate Nouns: Mark 15:39 and John 1:1,” *JBL* 92 (1973), 75-87.

Wallace, Daniel B., “The Relation of Adjective to Noun in Anarthrous Constructions in the New Testament,” *NovT* 26 (1984), 128-167.

이중적 성격의 모음(二重性格母音)

anceps vowel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모음

원시 히브리어 지시 대명사 *zā* (긴형태)는 이중적 성격의 모음을 가져, 남성 단수형태인 *זָא*와 드문 여성형태인 *זִי*, *iz* 와 표준적인 여성형태인 *זִיא*(= *zā* + 여성형의 *י*)로 나타난다. 이때 *z*은 단순한 모음 문자라기보다 어원일 가능성이 높다(JMK §36a). 또한 의문 대명사 *מָה* 역시 원시 형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mā* 이다. 아랍어에는 긴 형태인 *mā* 가 있고, *li'ma* 안에 짧은 형태의 *ma* 가 있다. 고전 에티오피아어에는 *kama*(‘~처럼’)와 인칭대명사 접미사가 함께 오는 긴 형태(예. *kamāna* ‘우리처럼’)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긴 형태 *mā* 는 *im*가 되었고, 이것은 시문 형태 *im* (‘~처럼’)의 접미사와 함께 오는 *ב* 형태들 속에 나타난다(JMK §37b).

변칙형태(變則形態)

anomaly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이례적이거나 불규칙적인 형태로서, 문법에서 어형변화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형태

문법 형태나 법칙에서, 변칙적인 형태와 변형,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형태이거나 예외, 불규칙적인 현상들을 모두 일컬어 말한다. 형태소나 철자가 변칙적으로 사용될 때 대부분은 오류이나 어떤 경우, 특히 시문에서는 의도적일 수 있다(PDSBH, 26). 히브리어에서 קדֶּשׁ 명사는 복수 절대형에서 약간 이례적인 형태로서 קדָּשִׁים 대신 קדָּשִׁים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태인 קדֶּשׁ이 유지된다.

신약성경에서 변칙구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이다(R 127). 한편, 어형변화와 관련된 변칙형태의 예로는 막 4:31, 행 21:36, 계 1:15, 3:12 을 참조(R 1104).

선행사(先行詞)

antecedent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뒤따르는 대명사나 관계절이 가리키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로, 대명사나 관계절에 선행하는 것.

일반적으로 대명사나 관계절 앞에 선행하는 단어를 말한다. 선행사의 문법적 범주에 따라 대명사의 관계절의 성격과 관계대명사가 결정되기도 한다. 관계절 앞에서 선행사는 명사인 한정 명사와 비한정 명사, 그리고 대명사가 있으며, 전치사와 함께 나오는 대명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또한 실명사화된 형용사나 분사 등도 선행사로 나온다.

민 16:7

וְהָיָה הָאִישׁ אֲשֶׁר־יִבְחַר יְהוָה

주님께서 선택하실 사람

출 1:8

וַיָּקָם מֶלֶךְ־חֲדָשׁ עַל־מִצְרַיִם אֲשֶׁר לֹא־יָדָע אֶת־יוֹסֵף: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장하였다.

창 20:9

מַעֲשִׂים אֲשֶׁר לֹא־יֵעָשׂוּ

해서는 안될 행동

(JMK §158f)

אִישׁ אֲשֶׁר כָּמֹנִי:

나와 같은 사람

헬라어의 경우, 관계대명사에 지시대명사가 포함되어있거나(요 4:18; 히 5:8; 뱀전 1:6) 그리스도 찬양시의 경우에(딤후전 3:16), 선행사가 생략되기도 한다(W 340-342). 선행사를 지시대명사와 관계대명사로 이어 받음으로써 매우 강조하기도 한다(예. 행 2:22-24).

행 2:22-24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ἄνδρα ἀποδεδειγμένον ἀπὸ τοῦ θεοῦ ...,

τοῦτον ... ἀνείλατε,

ὃν ὁ θεὸς ἀνέστησεν ...

나사렛인 예수를,

... 하나님에 의해 입증된 남자를,

이 사람을 ...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 살리셨다



↔ 대명사(pronoun)

강세 전전 음절(強勢前前音節)

antepretonic

강세가 있는 음절로부터 그 이전 방향으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음절.

히브리어 단어 혹은 마궤 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음성적인 단위를 이루는 단어가 갖는 강세의 위치에서부터 그 이전 방향으로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음절을 강세 전 음절(pretonic)이라고 하며, 그 앞에 위치한 음절을 강세 전전 음절(antepretonic)이라고 한다. 문법 설명에 있어서 한 실례를 들면, 히브리어에서 말(horse) 혹은 말탄 사람(horseman)의 의미를 가진 פָּרָשׁ의 복수가 פָּרָשִׁים이 아니라 פָּרָשִׁים이 되는 불규칙 변화를 설명할 때, ‘강세 전전 음절’이 ‘쉐바’(ֿ)가 아니라 ‘카메츠’(ֿ)를 갖게 되어 פָּ가 된 것을 말한다(JMK §96BbN).

민 33:38

הָאֵרֶבֶתִּים

사십

≡ 끝 전전 음절(antepenult, antepenultimat), 끝 전 음절(penult, penultima), 끝음절(ultima), 강세 전 음절(pretonic)

선행성(先行性)

anteriority

문맥 안에서 언급된 행동과 연관하여, 그 행동시점 이전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시간(JMK §166j).

선행(先行)이란 ‘어떠한 것보다 앞서가거나 앞에 있음’을 뜻하며, 영어 anteriority 는 시간이나 발전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이라는 라틴어 anteriorem 에서 왔다. 내러티브에서 선행시간(anterior time)은 시간에서 일정 지점에 선행하는 시간을 가리킨다(ODEG).

(1) You're too late. They have left. 여기서 완료시제는 실제로 현재 이전에 앞서 일어났음을 가리킨다.

(2) This time next week, he will have forgotten all about it 에서 완료는 미래의 시점 이전에 일어났음을 가리킨다.

(3) I realized I had lost my key 에서는 과거의 시점 이전에 일어났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과거 완료라고 한다.

히브리어에서 선행성은 (1) 내러티브의 순서를 따라서 바의톨을 피하고 베-...카탈로 대체할 때 베-...카탈도 문맥으로 인해 과거완료의 힘을 가지며, (2) 일반적으로 카탈 뒤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불변사로도 표현된다. (4) 불변사의 경우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1) 내러티브의 순서를 따라서 바의톨을 피하고 베-...카탈로 대체할 때
민 17:15 (한 16:50)

וַיָּשָׁב אֶהְרֹן אֶל-מִשְׁחָה אֶל-פֶּתַח אֹהֶל מוֹעֵד וְהַמִּגְפָּה נִנְעָצָה:

그리고 아론은 돌아왔다... 그리고 재앙은 그쳤었다(had ceased).

재앙이 그친 후에, 혹은 재앙이 그쳤기 때문에 로서

(2) 일반적으로 카탈 뒤에서 사용되는 것

출 10:13

הָיָה רוּחַ הַקָּדִים נָשָׂא אֶת-הָאָרֶבָּה:

...아침이 되었을 때,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었다.

뒤의 카탈이 앞의 카탈보다 선행한다.

(3) 불변사

전치사	לְפָנַי 명사/부정사와 함께 עַד 부정사와 함께	앞에, 전에
접속사	בְּטָרָם, עַד-אֲשֶׁר	앞에, 전에
부사	בְּרֵאשִׁיטָה (לְפָנַי = 과거에)	이전부터

(4) 불변사

단 5:2

בְּלִשְׁאֲצָר אָמַר | בְּטָעַם חֲמֹלָא לְהִיתָהּ לְמַאֲנִי דְהִבָּא וְכִסְפָּא דִּי הִנֵּפֵק' נְבוּכַדְנֶצַּר אֲבוּהִי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 후행성(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동작, posteriority)

선행법(先行法)

anticipation

명사를 동격으로 갖는 인칭 대명사가 동사 뒤에서 명사 앞에 나오는 것(동사+대명사+명사).

이 대명사의 종류에는 (1) 독립적 대명사, (2) 동사적 접미사인 대명사, (3) 명사적 접미사인 대명사가 있다(JMK §146e).

(1) 독립적 대명사

출 7:11

וַיַּעֲשׂוּ גַם־לָהֶם תְּרִטָּמִי מִצָּרִים בְּלִהְטֵיהֶם כֵּן:

... 그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2) 동사적 접미사인 대명사

출 35:5

יְבִיאֶנָּה אֶת תְּרוּמַת יְהוָה זָהָב וְכֶסֶף וְנַחֲשֵׁת:

... 그가 여호와와 제물을 바칠 것이니

(3) 명사적 접미사인 대명사

겔 10:3

בְּבֹאוֹ הָאִישׁ וְהִעָּנָן מָלֵא אֶת־הַחֹצֵר הַפְּנִימִית:

... 그 ... 사람이 들어 갈 때

헬라어의 경우, 이 표현(anticipation)은 가정법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가정법을 ‘기대의 법’으로 부르기도 한다(R 927).

대조법(對照法), 반의법(反義法)

antithesis

둘 이상이 되는 어구에서 의미를 대립 관계로 나타내는 표현의 수사적 기법.

서로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반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행법(병행법, parallelism)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도 함.

잠 11:19

כִּי־צִדְקָה לְחַיִּים וּמִרְדָּף רָעָה לְמוֹתוֹ:

참으로, 의인은 생명에 이르나,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죽음에 이른다.

렘 7:19

הֲאֵתִי הֵם מִכְבֵּסִים נְאֻם־יְהוָה הֲלֹא אֲתָם לְמַעַן בְּנִיחָם: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나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개역개정)
‘나를’과 ‘그들’ 그리고 ‘자기 얼굴’이 대비되고 있다. 여기서 대명사 접미어는 ‘재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JMK §146k).

철기 시대의 몇몇 비문에 나타나고 있는 ליהוה [אַרָּר=] ארר (‘주님에게 저주를 받은’)라는 표현은 ברוך ליהוה (‘주님에게 복을 받은, 주님께 의하여 복을 받은’)라는 표현의 반의적 어법이다(JMK §132fN).

헬라어 ἀντίθεσις(‘반론’, 딤했 6:20)에서 나온 용어로, 성경에서는 의와 불의, 지혜와 우매, 믿음과 불신,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우상 등 중요한 개념들에 사용된다.

롬 4:25 (M-T IV 97)

ὃς παρεδόθη διὰ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ἡμῶν καὶ ἡγέρθη διὰ τὴν δικαίωσιν ἡμῶν

그 분은 우리의 범법 때문에 넘겨졌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일으켜지셨다.

Snyman, S. D., “Antitheses in Malachi 1:2-5,” *ZAW* 98 (1986), 436-438.

비인칭의

apersonal

인칭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부정사는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나 시제와 시상은 문맥으로만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부정사는 비인칭적(apersonal)이어서 그것의 주어는 오직 문맥으로만 결정된다.

창 2:18

לֹא־טוֹב הָיְתָה הָאָדָם לְבַדּוֹ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JMK §124b).

삼하 1:18

וַיֹּאמֶר לְלִמְדָּ

그들(=어떤 사람)이 가르치도록

이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으며 주어가 모호한 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JMK §124s).

첫음 탈락, 어두음 탈락(語頭音脫落)

aphaeresis

어형변화를 하는 동안 단어의 첫 부분에서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 또는 그 이상의 소리가 탈락되는 현상.

헬라어 아파이레시스(ἀφαίρεσις)는 ‘제거하다, 가져가다’는 뜻이며, 문법에서는 한 단어의 첫 음이나 음절을 제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다. 첫음 탈락은 어두음탈락(語頭音脫落)으로도 부르며, “한 단어의 강세음절 바로 앞에 오는 어두음이나 무강세음절이 발음에서 탈락하는 음성변화”를 가리킨다(조성식 외). 영어에서 약음절은 arise-rise, awake-wake, estate-state 처럼 a-, e-의 탈락이 많다.

히브리어의 경우, 단어 처음에 오는 자음 א, ו, י, מ, ל 또는 완전 모음이 없는 י가 모음과 함께 탈락된다.

י״פ 동사의 명령형 צַו와 ו״פ 동사의 명령형 צֹא, 그리고 קרָא 동사의 명령형 קר, 또한 וַיִּנָּח 대신 6 번 나오는 וַיִּנָּח는 단어 처음에 나오는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된다(JMK §17d, 72c, 75a, 75m).

헬라어에서 첫 음이 탈락되는 대표적인 예는 θέλω(‘원하다’)이다. 본래 ἐθέλω 형태가 기본형이었으나, 기원전 250 년 이후부터 첫 음이 탈락된 θέλω 형태가 나타났다(BDAG 447). 미완료과거와 부정과거에서는 첫 음이 고려되어 접두모음 ῥ이 붙어 ῥέβηλον과 ῥέβηλησα와 같이 변한다. 이오니아어에서는 ἐκεῖνος(‘저’)가 κείνος로 사용되기도 한다(R 206). ἐχθές(‘어제’)의 경우, χθές 형태를 취하는 사본들이 많다(BDAG 419; R 206).

≡ 끝음 탈락(apocopation)

끝음 탈락, 어말음 탈락(語末音脫落)

apocopation (apocope)

단어의 끝 부분에서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 또는 그 이상의 소리가 탈락되는 현상.

영어 apocope 는 헬라어 아포코페(*ἀποκοπή*, cutting off)에서 나왔다. 문법에서는 주로 악센트가 없을 때 어말(語末)의 음이나 음절이 탈락되는 현상을 말한다.

הָלָה 동사나 명사 형태에서 흔히 나타나며, 그 예로서 הָלָה 대신 הָלָה(‘그리고 그가 대답했다’)로, לָמַעַן 대신 לָמַעַן(‘때문에’)으로 끝자음이 탈락된다(JMK §17f).

헬라어의 경우, 전치사의 끝모음이 합성동사에 사용되거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나올 탈락된다.

스마이스에 따르면(Smyth 75D)에 따르면, 헬라어에서 “첫 자음 전에 마지막 짧은 모음이 탈락할 때 끝음 탈락이 일어난다. 문학에서 끝음 탈락은 시문에 제한된다. 그러나 산문 방언의 비문에는 빈번하다. 호머와 아티 시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포티 대신에 포트(=프로스의 뜻)는 도릭과 보에티안에서 빈번하다.”

≡ 첫음 탈락(aphaeresis)

귀결절, 결과절(歸結節, 結果節)

apodosis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절이거나, 가정에서 미루어 생각하여 낸 결과(then)를 일컫는 절.

헬라어 ἀπόδοσις(‘되돌려주는 행위’)에서 유래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귀결절이란 조건절(protasis)과 연결되어 뒤따라 나오는 절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절이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귀결절의 바브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귀결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 조건절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JMK §176a).

창 13:9

אֲמַרְתָּ לְיִצְחָק וְאֵלֶיךָ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 쪽으로 가겠다.

창 32:18f

כִּי יִפְגְּשֶׁךָ עֲשֹׂא אֲחִי...

창 32:19

... וְאָמַרְתָּ לְעַבְדְּךָ לְיַעֲקֹב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날 때... 그 때 너는 말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19 절은 18 절의 조건절 다음에 나오는 귀결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귀결절의 바브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의 ‘귀결절의 바브’와 같은 καί 가 시간절(눅 2:21)이나 조건절(계 3:20[이문 존재]), 혹은 ὥς 다음에(눅 7:12; 행 1:10) 쓰인다고 보기도 한다(Z §457). 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것(예. 눅 2:21)은 단순 강조된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행 1:10

ὥς ἀτενίζοντες ἦσα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

καὶ ἰδοὺ ἄνδρες δύο παρειστήκεισαν αὐτοῖς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런데 보십시오,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귀결절은 ‘결과절’로 부르기도 한다. 헬라어로는 εἰ 이나 ἐάν 과 같이 조건을 의미하는 조건절 다음에 등장한다. 조건절이 “문법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독립적인” 것과 달리, 귀결절은 “문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의존적이다”(W 684). 조건절과 귀결절은 기본적으로 ‘원인-결과’(예. 롬 8:13; 마 4:9; 고전 2:8), ‘증거-추론’(예. 롬 8:17; 고전 15:44), ‘등가’(갈 2:18 약 2:11)의 관계를 가진다(W 682). 귀결절에 ἔν 이 나오고 회구법이 쓰이면 실현은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를 가진다(fourth class condition). 돈절법이 쓰여 귀결절이 표현되지 않기도 한다(예. 막 8:12. R 94).



롬 8:13 상

εἰ γὰρ κατὰ σάρκα ζῆτε, **μέλλετε ἀποθνήσκειν.**

만일 네가 육신을 따라 살면, 장차 죽게 될 것이다.

≡ 조건절(protasis), 돈절법(aposiopesis)

Baarda, Tjitze, “Ti Eti Diōkomai in Gal 5:11: Apodosis or Parenthesis?,” *NovT* 34 (1992), 250-256.

아폴로니우스의 규범

Apollonius' Canon

헬라어에서 한 명사가 다른 명사를 지배할 때 생기는 규칙으로서 주 명사(head noun)와 속격 명사(genitive noun)는 관사를 함께 갖든지, 함께 갖지 않든지 한다는 주장(W 250).

주후 2 세기 헬라어 문법학자인 Apollonius Dyscolus 는 헬라어 관사에 대해 한 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바로 주 명사에 관사가 붙을 때는 속격 명사에도 관사가 붙고, 주 명사에 관사가 붙지 않을 때는 속격 명사에도 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사가 붙지 않는다고 해서 한정성(definiteness)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격 명사가 한정성을 가지면 주 명사도 한정성을 갖는다.

마 3:16(W 251)

πνεῦμα θεοῦ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읽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한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도 한정성을 가진다(W 251).

행 7:8(W 252)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ῷ διαθήκην περιτομῆς

“또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가 한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약’도 한정성을 가진다.

행 7:32(예외)

ἐγὼ ὁ θεὸς τῶν πατέρων σου, ὁ θεὸς Ἀβραὰμ καὶ Ἰσαὰκ καὶ Ἰακώβ.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주 명사 ‘하나님’에는 관사가 있는데, 속격 명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관사가 쓰이지 않았다. 이는 관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붙어있다고 보면 이해될 수 있다(참. ‘관사[article]’ 항목).

≡ 관사(article), 명사(noun), 주 명사(head noun), 한정성(finiteness)

Hedges, David W., “Apollonius’ Canon and Anarthrous Constructions in Pauline Literature: An Hypothesis,” M.Div. thesis,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83.

Hull, Sanford D., “Exceptions to Apollonius’ Canon in the New Testament: A Grammatical Study,” *TrinJ* ns 7 (1986), 3-16.

돈절법(頓絶法)

aposiopesis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문장 전체나 일부를 생략하는 수사학적 기법.

헬라어 ἀποσιώπησις(‘침묵’)에서 음역된 용어이다. 말하는 사람이 감정이 고양되어 이야기를 중간에 그만두면서 말을 끝내지 않아, 문장의 이해에 필수적인 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생략하는 기법인데, 생략된 요소는 문맥으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을 뜻하는 돈절(頓絶)에서 온 돈절법(頓絶法)은 특히 조건문 뒤에서 흔히 나타난다(참. GKC §167).

민5:20 (GKC §167)

וְאַתָּה כִּי שָׁטִיתָ תַּחַת אֲשֶׁךְ וְכִי נִטְמָאתָ וַיִּתֶּן אֱלֹהִים בְּךָ אֶת־שִׁכְבְּךָ מִבְּלִעְדֵּי אֲשֶׁךְ: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떠나 더럽혀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지 못하리라’(민 5:19)가 생략됨.

대개는 강한 감정의 영향을 받아 엄숙한 맹세나 의문을 표시할 때, 조건절이 귀결절 없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막 8:12(엄숙한 맹세; R 1024)

εἰ δοθήσεται τῇ γενεᾷ ταύτῃ σημεῖον.

이 세대에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행 1:6(의문)

εἰ ἐν τῷ χρόνῳ τούτῳ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ῷ Ἰσραήλ;

이참에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되돌려 주시려는지요?

+ 문채(figures of speech)

≡ 짧은 말(brachylogy)

유사복수(類似複數)

apparent plural

외관상 복수 형태로 보이나 실제로는 단수인 명사의 형태.

영문법에서는 유사복수(類似複數)로 칭한다. 명사에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의 차이가 불분명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흔히 문자상으로나 발음상으로 혼동이 일어난다. 복수 명사 접미사에서 '가 생략된 경우가 좋은 예이다.

수 1:8(비. 시 119:37) (JMK §94j).

דְּרָכֶיךָ

너의 길들

출 33:13에 사용된 **דְּרָכֶיךָ**은 복수로 읽어 ‘너의 길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단수 **דְּרָכְךָ**의 형태로 이해하여 ‘너의 길’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단수와 복수 어느 경우로 보아야 할지는 쉽지 않다

보통명사화(普通名詞化)

appellative

원래는 고유명사였던 것이 실질적인 보통명사로 사용되는 단어.

원래는 고유명사였던 단어가 보통명사의 의미로 바뀌게 된 경우인데, 관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원래 ‘기브아’라는 지명을 뜻했던 **גִּבְעָה**가 ‘언덕’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 좋은 예이다. 관사와 함께 **הַגִּבְעָה**로 사용될 수 있다(GKC §125 e-g, 137d).

삿 19:13의 ‘기브아’는 고유명사이며, 삼상 7:1은 보통명사이다. 삼상 11:4은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보통 명사일 수도 있다.

출 17:9

מָחָר אֶנֶכִּי נֹעֵב עַל־רֹאשׁ הַגִּבְעָה וּמֵטָה הָאֱלֹהִים בְּיָדִי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된 경우뿐 아니라, 보통명사가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된 것도 이 용어로 표현한다. 이런 단어들을 헬라어로는 *ἀντονομασία*라고 칭한다(LSJ 166).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된 예로, 지하세계의 신 이름이던 하데스(*ᾍδης*)가 지하세계를 가리키게 된 것(마 16:18; 행 2:27, 31 등)이나 율리우스 시저의 가족 명인 시저(*Καῖσαρ*)가 아우구스도(아우구스투스) 이래로 황제의 이름이 된 것(마 22:17, 21; 막 12:14, 16; 눅 2:1; 3:1; 20:22; 23:2; 요 19:12; 행 11:28; 17:7 등)을 들 수 있다. 보통명사가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된 예로는 베드로(*Πέτρος*)를 들 수 있다. 본래 ‘바위’(*πέτρα*)와 같이 단단한 것을 가리키던 단어가 바요나 시몬의 이름이 된 것이다(요 1:42 등).

+ 명사(noun)

≡ 고유명사(proper noun)

동격(同格)

apposition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동일한 문법적 단위가 문장 안에서 병치될 때, 뒤에 나오는 요소가 앞에 나오는 사항을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것. 특히 명사와 명사구들이 규칙적으로 문법적인 평행을 이루며, 선행하는 명사를 더욱 명료하게 설명하는 기법.

영문법에서 문법학자들은 세 개의 동격으로 구분한다(CDEG). (1) 완전 동격(full apposition), (2) 비제한적이고 제한적인 동격(nonrestrictive and restrictive apposition), (3) 부분적 동격(partial apposition)

히브리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두 명사가 서로 나란히 병행되어 한 명사가 다른 명사를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명사는 한정성이나 비한정성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일치한다. 주용-무라오까는 동격의 예로, 종류, 성질, 재료, 분량, 한정, 이름, 친척용어, 직분이거나 직업 등 11가지를 나열한다.

신 22:23 (JMK §131)

נַעֲרָה בְּתוּלָה

처녀인 젊은 여자

마 1:16

τὸν Ἰωσήφ **τὸν ἄνδρα** Μαρίας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아랍어

Arabic

남부 셈어의 대표적인 언어로서,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아랍어는 아랍어 알파벳에서 발전하였으며(부시만), 이슬람의 팽창으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퍼져 점차적으로 아랍어를 대체하였다(참. JMK §2g-h).

히티(Philip K. Hitti)에 따르면, 셈족의 요람은 아라비아 반도이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후에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이주하여 바빌론인, 앗시리아인, 페니키아인, 히브리인이 되었다고 한다(3쪽). 아라비아 반도의 중앙지역은 사막으로 둘러 쌓여 있었으므로 인종적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외부와 차단이 되었으므로 인종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셈족을 대표할 수 있었다. 그들의 역사는 아카디안으로 불리던 고대 바빌론인들과 앗시리아인들 이전에 시작되었다. 주전 3,500년 경에 인구 증가로 말미암아 서쪽으로는 시내 반도와 나일 강의 비옥한 골짜기로 이주하였고, 동북쪽으로는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골짜기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메르인들을 만났다.

조앤 오즈(J. Oates) 역시, “셈어를 말하는 족속들의 원래 고향은 아라비아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22쪽). 그들은 유목민들로서 인구의 팽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략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셈어를 말하면서 목축 경제를 특화시켰고,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삶의 패턴에 중요한 일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목민이라 하더라도, 떠돌아 다니는 문맹인들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류이다.

샌즈-바딜로스에 따르면, 셈어는 주전 3000 년전에 첫 분열이 일어나서 동북 셈어(아카드어)와 다른 셈어들이 분리되었다. 주전 2000 전에는 서부 셈어가 이미 북부와 남부 두 가지로 분열되었고, 2000 년대 말에 “가나안어와 아랍어 어군이 서북 셈어에 등장했다. 남쪽에서는 아랍어(북부 아라비아어)와 남부 아라비아어, 에티오피아어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났다”(SBCP 35).

아랍어는 서북 셈어와 몇몇 특징을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나 남부 셈어들과 공유하는 특징들이 훨씬 더 분명하다. 이 특징들 중에는 어순이 동사+주어+목적어(VSO)의 어순, 깨어진 복수 형태, qatala 동사 형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특히 깨어진 복수 형태와 qatala 동사 형태는 이 어군을 다른 셈어분파들과 형태론적으로 구분하는 혁신적인 형태들이다(SBCP 35).

남쪽 지역 내에서 가장 초기의 남쪽 아라비아 비문들은 주로 기원전 8-5 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방언에는 기원후 천 년경에 사라진 사바어, 미네아어, 하드람어가 있다(SBCP 35).

북부 아랍어로서 마르울카이스 왕(King Mar'ulqais, 주후 328 년)의 비문이 있다(JMK §2h).

주후 5 세기에서 7 세기 사이에 이슬람의 팽창으로 아랍어는 아랍 제국의 공용어가 되었으며, 고전 아랍어는 코란(꾸란, Qur'an)의 언어가 되었다. 오늘 날에는 방대한 방언들(dialects)이 생겼다.

+ 셈어(Semitic, semitic language)

Bloch, A.A. *Studies in Arabic syntax and semantics*, 2nd rev. printing. 1991.



- Hitti, Philip K. *History of the Arabs*. Macmillan, 1970.
- Oates, J.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 Mendenhall, George E., "Arabic in Semitic Linguistic History," *JAOS* 126 (2006), 17-26.
- Rendsburg, Gary A. et al., "A Proper View of Arabic, Semitic, and More," *JAOS* 128 (2008), 533-541.
- Wiesbaden. Wright, W. 1955. *A grammar of the Arabic language*, 3rd ed, 2 vols. Cambridge.

아라드 비문

Arad Inscriptions

현 이스라엘 남부를 차지하는 네게브의 동쪽 지역의 아라드에서 발견된 구약시대의 비문들.

사해 근처에 있는 아라드는 구약성경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성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민 21:1; 14:4-45; 33:40; 신 1:44). 이 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예배 처도 있었다.

1962-1967 년에 요하난 아하로니(Yohanan Aharoni)가 네게브 지역의 아라드에서 발견한 비문들이다. 이 당시 88 개의 히브리어, 85 개의 아람어, 5 개의 아랍어, 2 개의 그리스어 비문이 아라드에서 발굴되었다. 1974 년에는 히브리어 도편(ostrakon)이 88 개가 발견되었고, 1976 년에 3 개가 더 발견되었다. 히브리어 도편들은 주전 10-6 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문들에는 ‘깃담’ 사람들이 나오며, 지나 가는 자들에게 포도주와 양식을 공급하는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라드의 성소 안에서는 파슈르(Pashhur)와 메레못(Meremoth)이란 두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단편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예쉬야후의 아들 엘리아십이 이 성의 마지막 지휘관으로 나타난다(주전 600 년경). 히브리어 비문들 외에도 아람어 도편은 주전 4-5 세기, 그리스어는 주후 1-2 세기, 그리고 아랍어는 주후 7-9 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어의 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완료형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된다.

아라드 24.18(참. 왕상 15:19).

הנה שלחתי להעיד בכם הים בכם הים

보라 내가 너를 오늘 경고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지금 보낸다

파르디(Pardee)는 ‘내가 너에게 보낸다’를 ‘서신형’(epistolary) 완료로 불렀다 (JMK §112fN.6).

Aharoni, Yohanan, “Arad: Its Inscriptions and Temple,” *BA* 31 (1968), 1-32.

아람어

Aramaic

서북 셈어의 대표적인 언어로서 신앗시리아 시대로부터 알렉산더 대제의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고대 근동아시아의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원래는 아람인들의 언어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언어였고, 주후 10세기까지 사용되었으며, 오늘 날에도 시리아, 터키, 이라크의 일부 부족들이 사용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아람어는 창세기 31:47(‘여갈 사하두다’, 히브리어 ‘갈르 엷’, 증거의 무더기, 다니엘서 2:46-7:28, 에스라 4:8-6:18(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 7:12-26(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예레미야 10:11에 나타난다. 신약성경의 아람어로서는 ‘달리다굼’, ‘마라나다’ 등이 등장한다.

‘아람’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주전 23세기 아카드의 나람 신의 비문에 유프라테스 북쪽 지역에 있는 지명으로 최초로 등장한다. 아람인들은 주전 2천년대에 남부 티그리스의 도시로 나와서 살게 되며, 마리 비문(18세기), 알라라(17세기), 우가릿(14세기) 비문에 등장하고 있다. 이집트의 자료로서 아메노피스 3세(14세기 전반부)에 나오며, 메르넵타 비문에는 이집트의 경계지역으로 소개되고 있다(1220년). 아람 부족은 주전 2000년대말과 1000년대를 시작할 때 독립국가를 형성하였고, 주전 10세기에는 시리아에서 다메섹을 중심으로 전승기를 이루었다(암 1:5의 벤-에텐, 왕하 17:6의 고산 강가). 이후 앗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하여 큰 압박을 받았다.

아람인들은 페니키아 알파벳을 채택하였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가끔 다른 철자로 쓰기도 하였다. 아람어는 히브리어, 페니키아어와 함께 서북 셈어 그룹에 속하며, 초기에는 시리아 사막 부족들이 사용하다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후에 아람어는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북 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고,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 인도, 아프카니스탄까지 전달되었다. 주전 천년대에 아람어는 바빌론에서는 이미 행정과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앗시리아 제국에서도 ‘아람어 편지’(egirtu armitu)라는 용어가 공식문서에 나온다. 주전 8세기 후반부의 자료에는 자주 ‘아람인 서기관’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티글랏 벨레셀 3세 시대의 벽화에도 등장한다. 이 시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아람어가 이미 사용되었다(왕하 18:26이하; 주전 700년경). 아람어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간 이유 중 하나는 앗시리아가 아람을 정복한 후 대규모 추방이 있었고, 그들이 온 제국에 퍼져 살면서, 국제 도로(교역로)를 따라 상업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앗시리아 군대와 행정부에서 일했던 역사적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람어에 대한 연구는 특히 20세기 첫 10년 사이에 괄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매우 젊은 학자들인 F. Rosenthal (1939), H. L. Ginsberg (1942), E. Y. Kutscher (1942-43), E. Littmann (1941) 등이 연구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람어를 등어선으로 구분하자면, 동부 아람어에는 시리아어, 바빌론 탈무드의 유대 방언, 만다어(Mandaen) 등이 있고, 서부 아람어로는 팔레스타인 탈굼과 예루살렘 탈무드의 후기 방언들, 사마리아어, 팔미르어(Palmyrene), 나바트어(Nabataean), 기독교인이 사용한 팔레스타인 아람어 등이 있다(JMK §2d).

로젠탈(F. Rosenthal)과 쿠처(E. Y. Kutscher)는 아람어의 발전을 크게 세 시대로 나눈다.

(1) 고대 아람어(Old Aramaic)는 동쪽으로는 인도와 서쪽으로는 이집트 사이, 북쪽으로는 코카서스와 남쪽으로는 남부 이집트-서북 아라비아에서 사용되었다. 나바티아의 아람어, 팔미라 비문들은 고대 아람어의 파생어이며, 이미 중기 아람어 요소를 갖고 있다. 타르굼 웅켈로스와 사해사본 아람어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

(2) 중기 아람어(Middle Aramaic)에는 두 어파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시리아어, 만다어(Mandaic), 탈무드 바브릴의 아람어, 가운 문학, 서쪽으로는 사마리아 아람어,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아람어, 갈릴리 아람어(예루살렘 탈무드와 하가다 미드라쉬)가 있다.

(3) 후기 아람어(Late Aramaic)는 서쪽 어파(Ma 'lu:la)와 동쪽으로는 쿠르시드탄과 코카사스에 남은 언어이다.

그렇지만 피츠마이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고대 아람어(Old Aramaic, ~주전 700년), (2) 공식 아람어(Official Aramaic, 주전 700-300년), (3) 중기 아람어(Middle Aramaic, 주전 300년-주후 200년), (4) 후기 아람어(Late Aramaic, 주후 200년~1000년, 선행[線行] 구분의 Middle Aramaic), (5) 현대 아람어(Modern Aramaic, 선행[線行] 구분의 Late Aramaic).

권성달은 다섯 시기를 조금 달리 구분한다(권성달, 『아람어 율판』, 10-11).

(1) 고대 아람어(주전 1000년~700년). (2) 공식 아람어(주전 700년~200년). (3) 중기 아람어(주전 200년~주후 200년). (4) 후기 아람어(주후 200년~1000년), (5) 현대 아람어(주후 1000년~현대).

위의 다섯 시기 중 특히 성경과 연관된 것은 첫 세 시기이며,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헌들은 아래와 같다.

- (1) 고대 아람어(주전 1000년~700년). 상부 메소포타미아, 북부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에서 사용되었다.
- (2) 공식 아람어(주전 700년~200년). 앗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으로 고대 근동 전 지역에서 약 500년간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구약 성경의 아람어는 이 공식 아람어에 속한다.
- (3) 중기 아람어(주전 200년~주후 200년).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아람어 대신 헬라어, 로마어가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아람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탈군 웅켈로스, 탈군 요나단, 엘리판타인에서 발견된 문헌, 쿨란의 아람어 본문들(주전 1, 2세기)은 이 시기의 아람어로 쓰여졌다. Simon bar Qusiba는 사해로 도피하여(132-35) Cave of the Pool, Cave of Letters (36개의 파피루스)에서 아람어 자료를 남겼다.

+ 셈어(Semitic, semitic language)

Dion, Paul-Eugène, "Aramaic Words for 'Letter'," *Semeia* 22 (1981), 77-88.

Driver, Godfrey Rolles, "The Aramaic Language," *JBL* 45 (1926), 323-325.

Fitzmyer, Joseph A., "The Aramaic Language and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JBL* 99 (1980), 5-21.

Flesher, Paul Virgil McCracken, "The Aramaic Dialect of the James Ossuary Inscription," *Aramaic Studies* 2 (2004), 37-55.

Häberl, Charles G., "Iranian Scripts for Aramaic Languages: the Origin of the Mandaic Scrip," *BASOR* 341 (2006), 53-62.

Khan, Geoffrey, "Some Remarks on Linguistic and Lexical Change in the North Eastern Neo-Aramaic Dialects," *Aramaic Studies* 1 (2003), 179-190.

Kutscher, Eduard Yechezkel, "The Language of the Genesis apocryphon-A Preliminary Study," in *Hebrew and Aramaic Studies*, ed. By Z. Ben-Hayyim et al (Jerusalem: Magnes Press, 1977), pp. 3-36.

Kutscher, Eduard Yechezkel, "Aramaic," in *Hebrew and Aramaic Studies*, ed. By Z. Ben-Hayyim et al (Jerusalem: Magnes Press, 1977), 90-155.

Maynard, John A. F., "Hebrew or Aramaic? A Critique of Naville's Hypothesis of an Aramaic Text of the Old Testament," *ATHR* 4 (1921), 29-45.

- Sasson, Victor, "The Aramaic Text of the Tell Fakhriyah Assyrian-Aramaic Bilingual Inscription," ZAW 97 (1985), 86-103.
- Snell, Daniel C., "Why is There Aramaic in the Bible," JSOT 18 1(1980), 32-51.
- Tal, Abraham, "In Search of Late Samaritan Aramaic," Aramaic Studies 7 (2009), 163-188.
- Torrey, Charles Cutler, "The Aramaic of the Gospels," JBL 61 (1942), 71-85.
- Wesselius, J W,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2-6", VT 38 (1988), 194-209.
- Zimmermann, Frank, "The Aramaic Origin of Daniel 8-12," JBL 57 (1938), 255-272.

아람어 서체

Aramaic Script

고대 근동의 서체 중 하나로서 이후에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로 발전된 서체의 이름.

아람어를 기록한 서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고대 히브리어 서체(Paleo Hebrew script)로 불리는 고대 글자체에 이어 나타났고, 주전 8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로 발전하였다(JMK §5b).

= 고대 히브리 서체(Paleo-Hebrew script),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

아람어풍(1)

Aramaism (in Hebrew)

성서 히브리어에 아람어의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

성서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영향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 표현이다. 주전 6세기 이후 히브리어 문화권과 아람어 문화권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전제를 따라 성경 본문의 저작 시기를 추론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러한 방법론의 진정성 및 구체적인 접근법에 관하여 학계의 논란이 분분하다.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어근의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 형태들 외에 첫 번째 자음이 중복되는 현상은 아람어 풍일 수 있다. 예로, תִּדַּק 단 2:40 그것이 산산 조각낼 것이다(JMK §82h).

어휘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시편 2:12 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נִשְׁקוּ-בֶרֶךְ)의 히브리어 ‘아들’(בֶּרֶךְ)은 ‘땅, 벌판’을 뜻하므로 ‘땅에 입맞추라’(kiss the ground)로 번역하거나, 혹은 ‘순수한’(pure)을 뜻하므로 ‘순수하게 경배하라’(심마쿠스, 제롬, 루터), ‘친밀하게 입맞추라’(아퀼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람어로 보면 ‘아들에게 입맞추라’가 된다(김정우 『시편주석 1』, 188). 이미 주전 9세기의 킬라무바 비문에도 ‘왕의 아들’이 나오며, 브레드쉬 비문에도 ‘하닷 신의 아들’인 왕이 등장하고 있다(윤영탁, 신학지남 176, 1977, 50-60).

윤영탁,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신학지남」 176 (1977), 50-60.

아람어풍(2)

Aramaism (in Greek)

칠십인역과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셈어의 영향.

히브리어나 아람어와 같은 셈어의 특성이 구약의 헬라어 번역성경인 칠십인역과 신약성경에 나타날 때 이를 아람어풍(Aramaism) 혹은 셈어풍(Semitism)이라 부른다. 아람어풍은 주로 구문, 해석, 단어 사용 측면에서 나타난다.

구문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아람어풍은 문장 서두에 쓰이는 *καὶ ἐγένετο* 일 것이다(Jobes and Silva 2000, 112-113). 이는 히브리어 *וַיְהִי*를 반영한 것으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해석 측면에서 아람어풍이 있다고 제시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복음 1-2 장(PDSBS 104)과 예수님의 비유 해석(PDSBS 15)이 있다.

단어 사용 측면에서 아람어풍을 반영한다고 제시되는 예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아바’(αββα, 막 14:36; 롬 8:15; 갈 4:6)가 있다(Black 1977 [1967], 283; PDSBS, 15).

그러나 칠십인역과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아람어풍이 똑같지는 않다. 히브리어 *לֵּךְ הָרִשִּׁי*를 반영하는 칠십인역 표현인 *καὶ προσέθετο κύριος δηλωθῆναι* 가(Jobes and Silva 2000, 113) 신약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히브리어 *לָלַךְ*를 반영하는 칠십인역 표현은 *πορεύομαι* 인 반면(Jobes and Silva 2000, 113), 신약성경에서 *לָלַךְ*를 반영하는 표현은 *περιπατέω* 이다.

≡ 통사론(syntax)

Black, Matthew,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3rd ed., Oxford: Clarendon, 1977 [1967].

Montgomery, James A., “Some Aramaisms in the Gospels and Acts,” *JBL* 46 (1927), 69-73.

Jobes, Karen H., and Moisé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고어풍

archaism

오늘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과거 언어상태의 어구, 철자, 구문이 후대의 본문에 나타나는 것.

영어 archaism은 ‘구식, 고풍’(old-fashioned, antiquated) 을 뜻하는 헬라어 아르카이오스(*archaios*)에서 왔다. 따라서 후대의 본문에 나타나는 고대 언어의 특징을 가리킨다. 관련된 용어로 고어화(*archaizing*)와 고어풍(*archaism*)이 있다. 고어화(*archaizing*)는 후대의 글을 고대의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필사 혹은 편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어풍(*archaism*)은 고대의 언어적 표현이 편집된 후대의 본문에 남아 있는 현상을 말한다(*IBHS* §1.4.1e).

시편 29:6의 ‘시론’은 ‘헬몬 산’의 고대 이름이다. 오늘날에도 서울을 서라벌, 남산을 목멱산(木覓山), 한강을 아리수라고 부르는 것은 고어풍을 사용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3인칭 남성 복수의 형태 *יִקְטֹלוּ*와 2인칭 남성 복수의 형태 *תִּקְטֹלוּ*에서 접미사 *י*에 *ן*은 첨가된 눈(*paragogic nun*)이라 하는데, 이 *ן*은 원시 형태에 속한 것으로 우가리트어, 아랍어, 아람어와 같은 동족 언어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모두 305개의 예 중에서 신명기(56회), 이사야(37회), 욥(23회), 시편104(15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ן*의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본문의 고대성, 의도적인 고어체 사용이나 운율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이유는 서기관들이 더 완전하고 더 강조적이거나 두드러진 형태를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JMK* §44e).

Cheyne, T. K., “Some Supposed Archaisms in the Old Testament,” *JBL* 18 (1899), 210-211.

관사(冠詞)

article

품사의 하나로서 명사 앞에 위치하여 그 명사를 한정시키는 문법적 요소.

영어 article은 라틴어 articulus (joint, 이음, 관절)에서 왔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서는 명사 앞에 놓여 명사를 한정하며 명사의 단수, 복수, 성, 격 따위가 일치한다. 전통적인 영문법에서는 관사에 정관사(definite article)와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가 있다. 어떤 문법학자들은 관사를 형용사의 특별한 부류로 보지만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ODEG). 오히려 오늘날 영문법에서는 관사를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관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한정사(determiner)의 기능을 담당한다. 영문법에서 관사의 용법에 설명으로서 4가지가 있다(영문학사전). (1) 한정설: 관사가 없는 명사는 막연히 어떤 비한정적인 것을 나타내지만, 관사가 붙으면 한정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가장 보편적인 설이다. (2) 현실화설: 관사가 붙으면 명사가 개념에서 벗어나 일정한 현실적인 것의 명칭이 된다고 본다. (3) 실체화설: 관사는 실사(substantive)의 표지이다. (4) 친근-통일성 설(familiarity-unity): the의 친근성, a(n)의 통일성을 내세운다.

히브리어에는 부정관사(영어의 a, an)가 존재하지 않고 정관사(영어의 the) ׁ ה만 사용된다. 정관사는 단어 앞에 붙여쓰며 단어의 첫 자음에 오는 다게쉬는 강다게쉬이다. 정관사 ׁ ה은 뒤따르는 단어의 첫 자음을 중복시키기도 한다. 정관사의 용법으로는 (1) 다게쉬를 붙일 수 없는 후음 א, ה, ח, ע, ר, 앞에서 정관사에 변화가 생긴다. (1-1) א과 ר 앞에 항상 ה가 온다(הַאֵשׁ). (1-2) ע앞에서도 주로 ה가 온다(הַעֵץ). (1-3) ה와 ח 앞에 주로 ה가 온다(הַהִיכָל). (1-4) 강세 있는 ה 앞에 ה가 온다(הַהֶרֶם). (1-5) 강세 없는 ה와 ע 앞에 그리고 강세의 유무와 관계없이 ה와 ח 앞에 ה가 온다(הַהֲרִים). (2) 몇몇 단어들은 정관사와 함께 올 때 첫 음절의 모음이 카마쓰로 변한다(הַאֲרָץ). (3) ו, י, ל, מ, ג, ק 글자들과 s계통의 음이 나는 치찰음인 ס, צ, ש, ש 글자들이 슈바와 함께 올 때 정관사의 다게쉬가 종종 생략된다(הַיְלָדִים). 또한 비한정은 정관사가 없거나 문맥에 따라 표현된다(JMK §35ab).

신약성경에서 관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약 2만 번, 혹은 일곱 단어 중 한 번”(W 207) 나오는, 사용 횟수 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헬라어 문법 책에서 관사를 다루는 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블라스(F. Blass)와 데브루너(A. Debrunner)와 펑크(R. W. Funk)는 관사를 위해 15면[본문의 1.9%]를(BDF § 249-276),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43면[본문의 3.5%]를(R 754-796), 왈리스(D. B. Wallace)는 85면[11.7%]를(W 206-290) 할애한다. 일반 원칙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책 모두 관사를 용례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매우 복잡하다. 반면, 관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간단히 제시하는 편이다. 블라스와 데브루너와 펑크는 ‘관계, 지시, 총칭’을(BDF § 249-252), 로버트슨은 ‘지시, 관계, 한정’을(R 755), 왈리스는 ‘한정, 동일시, 개념화’를(W 209-210) 관사의 기능으로 제시한다. 박형대는 우리말 가운데 지시, 한정, 대용의 기능을 갖는 ‘거시기’를 헬라어 관사 개념이해에 도입하면서, 헬라어 관사를 ‘거, 게, 거시기, 바로 그, 하는 자, 하는 분, 하는 바, 하는 것’ 등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왈리스는 ‘좋은지, 나쁜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종류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가장 특별한 것을 지시하는 관사(the par excellence article)”의 예로, οὗς ὁ πατήρ ἔθετο(행 1:7, 그것들을 거 아버지께서 두셨다)의 ὁ를 제시한다(W 222). 고유명사가 동격으로 쓰일 때는 이름은 관사 없

이, 그 사람에 대한 기술은 관사와 함께 쓰인다(W 49). 분사 앞에 관사만 있고 수식하는 실명사가 없으면, 형용사적 분사 가운데 실명사적(substantival)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W 619-621).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Ἱερουσαλὴμ(행 2:14,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러분!)과 같이, 주격 관사가 호격으로 쓰이기도 한다.

κατὰ τὴν Ἀντιόχειαν καὶ Συρίαν καὶ Κιλικίαν (행 15:23, 거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퍼져 있는)과 같이, 하나의 관사로 개념이나 대상을 연결시키기도 한다(Z § 184).

부정사의 주어를 결정할 때 관사가 있는 명사를 주어로 보기도 한다. 예로, 사도행전 18장 5절의 εἶναι τὸν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와 같이 번역되기도 하였으나, 단어 순서와 ‘그리스도’ 앞에 사용된 관사를 고려하여 부정사의 주어를 ‘그리스도’로 보고 “거 혹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좋다(W 197 N.78; 최근 사도행전 주석 대부분).

– 콜웰 법칙(Colwell’s rule), 그랜빌 샵 법칙(Granville Sharp rule)

박형대, “성경 헬라어 관사 번역에 대한 교육적 제안,” 「성경원문연구」 24 (2009), 93-109.

상(相), 시상(時相)

aspect

동작의 시점(time)을 가리키는 시제(tense)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동작의 종류, 모습, 양태(kind of action)의 관점으로 포착하는 범주.

영어 aspect는 원래 ‘보다’라는 라틴어 동사 *specto*are/*spectere*(to look at carefully, contemplate, observe, watch)와 그 명사형(*aspectus*)에서 왔다. 언어학에서 독일어 *Aspekt*(동작 상태)와 *Aktion*-*sart*(동작 양태)라는 두 개의 다른 문법적 범주가 영어에서는 aspect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어와 슬라브어에는 동작이나 존재가 그 시작, 지속, 혹은 완성을 표현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영어, 독어, 불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그런 형태가 없으므로, 독일학자들은 *Aspekt*와 *Aktion*sart로 구별하였다. 예로, 러시아어에는 지속상 어휘소(*spat* ‘to sleep,’ *zit* ‘to live, to dwell,’ *sidet* ‘to sit’)가 일반적으로 미완료형만으로 나오지만, 비-지속상 어휘소는 미완료형과 완료형을 둘다 가지고 있다(*probuzdat*’ *sja* (미완료상) *probudit*’ *sja* (완료상), ‘to wake up’; *naxodit*/*najti* ‘to find’; *umirat*/*umeret* ‘to die’).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동사가 단순형(I sing)과 진행형(I am singing) 만을 가진다. 러시아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he ate apples” (지속상, 미완료상)은 “he ate an apple” (비지속상, 완료상)과 대립된다(RDLL, Aspect).

우리말에서 상(相)이란 기본적으로 “뒹뒹이, 모양과 태도, 얼굴 표정,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같고, 명확한 물리적 경계에 의하여 구별된 물질계의 고른 부분으로서, 기체는 기상(氣相), 액체는 액상(液相), 고체는 고상(固相)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표준국어대사전). 이런 점에서 우리 말 상은 ‘보다’라는 라틴어 동사(*specto*are/*specter*) 및 명사(*aspectus*)와 뜻이 통한다. 영문법에서 상·시상(相, 時相)은 “시간 영역 내의 동작 과정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동작의 양태, 성질 등의 차이를 파악해 내는 문법 형식이다”(조성식 외). 여기에는 지속(duration), 반복(iteration), 순간(montariness), 기동(inception), 완료(completion), 결과(result) 등이 있다.

이 안에는 ‘시간’과 ‘동작 양태’의 두 개념이 공존한다. 따라서 ‘시상’(時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한 동사나 혹은 다수의 동사구가 그 안에 표현된 상황이나 사건을 구현하는 특정한 관점을 가리킨다. 아래의 세 동사 모두 과거 행동이지만, 다른 함의를 갖는다”(CDEG).

We went home (과거)은 단순 과거 사건이다. we were going home (과거진행)은 지속적 관점(durative perspective)이다. we had gone home (과거 완료)은 회고적 관점(retrospective erspective).

특히 콤리(Comrie, 1976, 3-5)에 따르면, 상·시상(aspect)이란 “어떤 상황의 내부의 시간적 전후 구성을 고찰하는 상이한 관점”이다. 그리고 상·시상을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습관상(habitual)과 계속상(continuous)으로 나눈다. 계속상은 다시 진행상(progressive)과 비진행상(non-progressive)으로 나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기본 값을 시제(tense)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시상(aspect 혹은 Aspekt)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이리하여 ‘동작 양태’는 시상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시상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 동작양태는 “한 상황의 내적 구조를 완료성(completeness)의 여부로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Comrie의 관점). 즉, 상황을 전체(global)로 보느냐 과정(process)으로 보느냐에 따라 동작 양태가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료형도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고, 미완료형도 완료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동작 양태(Aktionart)가 시상과 구별되어 사용될 때는 한 상황의 내적 구조가 “인과성

(causation), 태(voice), 타동성(transitivity), 재귀성(reflexivity), 반복(repetition)과 같은 요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피게 된다”(참. IBHS 문법용어목록).

또한 시상은 동작의 성격에 따라서 (1) 단독적인지 혹은 반복적인지, (2) 즉각적인지 지속적 인지여 따라 파악된다(JMK §111c-e, 참. SBCP 77).

(1) 단독적 시상.

왕하 17:3

וַיֵּשֶׁב לוֹ מִנְחָה

그리고 그는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비. 왕하 3:4).

(2) 반복적 시상.

욥 1:5

כָּכָה יַעֲשֶׂה אֵיּוֹב

욥이 항상 그와 같이 하곤 하였다.

(3) 즉각적 시상.

창 27:30

וַעֲשֹׂ אָחִיו בָּא

그의 형 에서가 집에 들어가다.

(4) 지속적 시상.

삼상 9:14

הִמָּה בָּאִים בְּתוֹךְ הָעִיר

그들이 성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완료와 미완료 형태만을 가진 히브리어와 달리, 헬라어는 현재, 미래, 미완료과거, 부정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와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각 형태가 가지는 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헬라어 상 이론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비로는 ‘패레이드’(parade; 행진)가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행진을 한다. 그런데 이 행진을 바로 곁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행진을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체 행렬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하늘에서 전체 행진을 관망하는 사람들은 행진에 참여한 사람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지만 행진 전체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행진 바로 곁에서 본 것처럼 상황이나 대상을 기술한 것을 미완료상(imperfective)이라고,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고 기술한 것을 완료상(perfective)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조건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상은 조건의 성취나 상태(condition, stative)를 표현한다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에 기초하여 각 형태를 상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참. 정창욱 2012, 58-192; 박윤만 2013, 120).

현재와 미완료과거는 미완료상을 가진다. 미완료상은 근접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가까운 거리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반복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현장감을 살리는 데 유익하다. 그런데 같은 상을 왜 두 가지 형태 즉, 현재와 미완료과거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완료과거에 “하고 있었다, 하곤 했다, 시작했다”와 같은 의미를 추가하기도 한다(정창욱 2012, 91-92).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시간 개념을 사용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부정과거는 완료상을 가진다. 완료상은 원점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나 대상을 그리다보니 ‘단회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완료(현재완료와 과거완료)는 조건이나 상태상을 가진다.

사도행전 7 장에 소개된 스테반 변론을 보면, 모세에 대한 설명이 20 절부터 나온다. 그 가운데 32 절까지를 보면 주로 부정과거 시제가 쓰이다가 모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할 때는 미완료과거가 쓰인다. 바로, ἦν ἀστέϊος τῷ θεῷ (하나님께 돌보였습니다, 20 절), ἦν δὲ δυνατὸς ἐν λόγοις καὶ ἔργοις αὐτοῦ (하여 그의 말들과 행동 면에서 능통했습니다, 22 절), ἐνόμιζεν δὲ συνιέναι τοὺς ἀδελφούς [αὐτοῦ] (당시 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5 절), ὁ δὲ Μωϋσῆς ἰδὼν ἐθαύμαζεν τὸ ὄραμα (이에 모세가 보고 그 모습에 당황하합니다, 31 절), Μωϋσῆς οὐκ ἐτόλμα κατανοῆσαι (모세가 감히 주목하지 못합니다, 32 절)이다. 모세의 감정이나 상태와 같은 내용을 보다 자세히 표현할 때 미완료과거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시대명사로 모세를 가리킬 때도 현재와 부정과거를 모두 사용한다. 예로, 36-37 절을 들 수 있다. 모세가 했던 행동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οὗτος ἐξήγαγεν αὐτοὺς ποιήσας τέρατα καὶ σημεῖα (이가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면서 그들을 빼내 주었습니다, 36 절)와 같이 부정과거를 사용하지만, “모세가 바로 그분입니다”와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는 οὗτός ἐστίν ὁ Μωϋσῆς (이가 그 모세입니다, 37-38 절)와 같이 현재를 사용한다.

한편, 스테반의 변론 가운데 완료는 단 한번 사용된다. 바로 τοῦτον ὁ θεὸς [καὶ] ἄρχοντα καὶ λυτρωτὴν ἀπέσταλκεν σὺν χειρὶ ἀγγέλου (이를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손길과 더불어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35 절)이다. 여기서 완료는 상태나 조건을 표현한다.

– 미완료상(imperfective), 완료상(perfective), 상태상(stative)

≡ 동작 양태(Aktionsart[en])

정창욱, 『성경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이해』, 서울: 그리심, 2012.

박윤만, 『신약성경 언어의 의사소통 기술: 신약성경 본문 읽기에 인지언어학 이론 적용』, 서울: 그리심, 2013.

McKay, Kenneth L., “On the Perfect and Other Aspects in New Testament Greek,” *NovT* 23 (1981), 289-329.

Tsumura, David Toshio, “Tense and Aspect of Hebrew Verbs in 2 Samuel 7:8-16-from the Point of View of Discourse Grammar,” *VT* 60 (2010), 641-654.

기식음(氣息音)

aspirate (aspiration)

숨을 쉴 때나 발음할 때, 성문(聲門)을 통해 공기의 분출이 일어나는 음가를 지닌 음.

기식(氣息)은 ‘숨을 쉴, 또는 그런 기운’을 뜻한다. 기식을 뜻하는 영어 aspirate는 라틴어 aspirare (to breathe)에서 나왔다. 따라서 기식음(氣息音)이란 우리 말 문법에서는 대기발음(帶氣發音) 혹은 기음(氣音)으로 불리며, “파열음(stop) 혹은 파찰음(affricate)을 발음할 때 파열 직후에 동반되는 강한 배기(egressive) 또는 그 배기에 의해 생기는 소음(noise)을 기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기음을 동반하는 발음현상을 대기발음이라고 한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의 예로는 연강점(dagesh lene)을 가진 בגדכפת 발음이 약화되어 부드러운 발음이 될 때 기음화되어 연강점이 없는 בגדכפת 형태로 표기된다(GKC§21).

성경 사본에는 파열음과 마찰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마찰음이 나타나는 곳에 라페라고 불리는 가로획을 글자 위에 붙였다. 성경 인쇄본에서는 더 이상 라페가 나타나지 않는다(JMK § 50, 12a).

헬라어에서 기식음은 파열음들 중에 ϕ, θ, χ 가 있다. $\Phi[ph]$ 는 유기양순파열음이고, $\theta[th]$ 는 유기치조파열음이고, $\chi[kh]$ 는 유기구개파열음에 해당한다.

= 마찰음화(spiriatization)

단언절(斷言節)

asseverative clause

강조나 강한 확언을 표현하는 맹세, 저주, 약속, 위협, 권면, 언약 등의 형식에서 엄숙함을 표현하는 단어나 단어군으로 이루어진 절.

우리 말에서 ‘단언’(斷言)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함”(표준국어대사전)이란 뜻에서 확언(確言)과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히브리어에서는 화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으로, 확실히’ 등을 뜻한 부사 אֲבָל, אֵד, אֲכֵן, רַק 외에도 지시 부사 הִנֵּה가 함께 나오는 절이다. 저주나 맹세의 절에서는 אִם이나 לֹא 등을 사용한다. 단언의 כִּי는 엄숙한 저주 맹세(삼상 14:44)와 조건절의 귀결 부분에 나타 나며(창 18:20), כִּי־אִם은 특히 맹세에서 사용된다(왕하 5:20)(GKC §149; JMK §164, 165).

창 17:19

אֲבָל שָׂרָה אֲשֶׁתְּךָ יִלְדֶּת לְךָ בֵּן

참으로 너의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왕상 22:32

אֵד מֶלֶךְ־יִשְׂרָאֵל הוּא

그가 틀림없이(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창 28:16

אֲכֵן יֵשׁ יְהוָה בְּמִקְוֹם הַזֶּה

과연(확실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창 20:11

רַק אִי־יִרְאַת אֱלֹהִים בְּמִקְוֹם הַזֶּה

이곳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시 121:4

הֲנִיָּה לֹא־יָנוּם וְלֹא יִישָׁן

참으로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삼하 11:11

חִיָּךְ וְחַי נַפְשְׁךָ אִם־אֶעֱשֶׂה אֶת־הַדָּבָר הַזֶּ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당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고전 15:31, 히 6:14의 단언의 불변사를 참고하기 바람.

≡ 확언절(affirmative clause)

동화(同化)

assimilation

두 개의 다른 소리의 요소가 인접하여 나올 때, 인접하는 두 음성이 발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쉽게 하기 위하여 비슷하거나 닮은 소리로 통합되는 현상.

동화를 뜻하는 영어 assimilation은 라틴어 assimilare (비슷하게 만든다)에서 나왔다(예로, in + mediate = immediate, in+legal = illegal). 두 모음 사이에 동화가 일어날 때는 ‘모음 조화’라고 한다.

히브리어에서 자음 동화가 많이 일어난다. 특히 모음이 없는 자음 **ל**은 다음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그 자음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로, **לך + שׁפּ > שׁפּך** 이 된다(JMK §17g). 나팔 동사(נפַל)의 미완료는 **לִנְפַל**이 아니라 **לִנְפֹל**이 되며, 재귀형에서 첫 치음은 뒤에 나오는 자음에 동화된다(**רַחֲמֶיךָ**은 **רַחֲמֶיךָ**가 됨). 본문 비평에서는 두 개의 다른 독법을 조화하기 위하여 하나로 합성하는 기법(conflation)을 말한다.

헬라어에서는 자음 동화와 형태 동화가 있다. 자음 동화는 관사와 전치사의 끝자음이 뒤따라오는 단어의 첫자음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형태 동화는 제2부정과거에 제1부정과거 어미가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관사의 끝자음이 **τῆμ πόλιν**이나 **τὸλ λόγον**와 같이 동화되는 현상이 고전 헬라어와 비문에 나타나지만(R 216) 신약성경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R 216).

전치사의 끝자음이 뒤따라오는 단어의 첫자음에 따라 변화는 현상도 신약성경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고대 비문에서 뒤따라오는 자음에 따라 **ἐγ, ἐκκ, ἐχ, ἐγκ**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쓰이던 **ἐκ**는 자음 앞에서 **ἐκ**로 통일된다(R 215). 전치사 **ἐν**과 **σύν**의 다양한 형태가 여러 사본에 나타나지만 현재 사용되는 비평본에는 쓰이지 않는다(R 216). 다만, 전치사가 어떤 단어와 결합되어 합성어가 될 때에는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ἐγγέγραπται** (기록되다, 눅 10:20), **ἐμβάς** (올라타다, 눅 5:3), **συγγενεῖς** (친척, 눅 1:58), **συλλήμψῃ** (임신하다, 눅 1:31) 등 예는 매우 많다.

형태동화 현상의 예로는 제2부정과거에 제1부정과거어미가 사용된 **ἦλθαν**(가다, 눅 2:16)이 있다(W 19 n. 17).

↔ 이화(dissimilation)

유운(類韻)

assonance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 음절, 단어의 운문적인 배열.

유운(類韻)은 자음까지도 포함한 모든 유사한 음의 반복을 뜻한다. 영어 assonance는 라틴어 assimilare (~과 비슷하게 한다, to make like to)에서 왔다.

히브리어의 경우 유운은 운문체의 가장 큰 특징인 평행법 중 음운론적 평행법을 따라 동일한 행 안에서나 혹은 행과 행 사이에서 발생한다. 나아가 어절이나 문장의 첫머리, 중간, 끝 어디에나 나올 수 있다. “심미적인 표현, 기억, 강조, 통일성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다”(PDSBH).

시 2:1

לָמָּה רָגַשְׁנוּ גּוֹיִם וְלֹא־אֱמִים יְהוָה-רִיק:

왜 민족들이 소동하며 나라들이 헛된 것을 중얼거리는가

여기서는 ‘라메드, ל’와 ‘레쉬, ר’는 평행을 이루고, ‘우, ו’와 ‘임, ים’은 교차대구를 만들고 있다.

시 137:3

כִּי שָׁם שְׂאֲלֵנוּ שׁוֹבֵינוּ דְּבַר-יִשְׂרָאֵל וְתוֹלְדֵינוּ שְׂמֵחָה שִׁירוּ לָנוּ מִשִּׁיר צִיּוֹן: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황폐케한 자가 기쁨을 청하며, 그들은 저희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바람 소리를 뜻하는 ‘션, ש’이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짜디 צ’(무성치찰음)가 나와서 시인의 비애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헬라어는 관사, 명사, 형용사, 대명사의 변화어미가 성과 수와 격에 따라 유사하여 유사음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행 11:6

εἶδον **τὰ** τετράποδα τῆς γῆς καὶ **τὰ** θηρία καὶ **τὰ** ἑρπετὰ καὶ **τὰ** πετεινὰ τοῦ οὐρανοῦ.

지면의 네발짐승들과 야생동물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한편,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을 중요한 곳에 배치하여 형식에 통일성을 주고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히 5:8(PDSNTG 93)

ἔμαθεν ἄφ’ ὧν **ἔπαθεν** τὴν ὑπακοήν

그분은 자신이 고난 받으신 것들에 기초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 두음법(alliteration), 이합체(acrostic), 각운(rhyme)

Casanowicz, Immanuel M., "Paronomasia in the Old Testament," *JBL* 12 (1893), 105-167.

앗시리아어

Assyrian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동북 셈어족(East Semitic)에 속하며, 아카드어에서 나온 방언 중 하나로써 앗시리아 제국의 공용언어이다. 음절 쉐기문자로 돌이나 토판에 기록되었으며, 앗시리아-바빌론어라고도 부른다.

주전 4500 년경 메소포타미아 동북 지역에서 고대 아카드어(Old Akkadian)가 수메르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후 주전 2000 년대에 고대 아카드어(약 기원전 2800-1950년)는 바빌론 방언(Babylonian)과 앗시리아 방언(Assyrian)으로 분리되며 대체되었다. 주전 6세기경 아람어가 국제공용어로 사용되기까지 온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다(SBCP 25, 33).

창세기 10:10-12에는 앗시리아 문명이 ‘시날 문명’의 영향을 받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날’은 남부 이라크가 있는 곳이며, 쉐기문자로는 ‘수메르’로 알려진 곳이다. 창 25:3에서는 앗시리아가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소개되고 있다. 즉, 앗시리아는 셈족에 속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앗시리아는 수메르 영향을 받은 셈족이다. 이것은 고고학과 쉐기문자의 고증과 일치한다.

원래 앗시리아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북쪽의 니느웨로부터 남쪽의 아수르까지 이루어진 넓은 평원에 비옥한 콩밭을 가진 부유한 농경 국가였다. 고대 앗시리아의 비문에 나오는 왕들의 목록을 보면, 첫 17명의 왕들은 ‘장막에 살던 왕들’로서 바로 유목민이었다(Saggs). 주전 24세기의 아гада 왕국은 아수르와 니느웨에 비문을 남겼고, 21세기에는 수메르의 우르 3왕조 지배를 받았으며, 우르 3왕조가 무너진 후 앗시리아 왕들이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증거된다. 그들은 갑바도기아의 켈테페(현대 터키의 Kayseri 근처)에 무역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 시기의 가장 유명한 왕은 아모리 출신의 샴시-아닷 1세(Shamshi-Adad 1)이다. 그는 앗시리아를 정복하였고(1820년 경), 마리까지 지배하였다.

아마르나 시대(주전 1400년경)에 앗시리아는 미타니의 후르 왕국과 바빌론 왕국의 봉신국가가 되었다. 아슈르-우발리트 1세(1362-1327년)는 독립전쟁을 시작하였고, 미타니 왕국의 지배를 벗어난 후 ‘앗시리아 땅의 왕’이란 칭호를 얻었다. 그의 이전 왕들은 ‘아수르 성의 영주’ 혹은 ‘아수르 신의 통치자’로 불려졌다. 이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자는 살만에셀 1세(1274-1245년)로서 우라르투(아르메니아)의 산맥을 단숨에 정복하고, 구티 땅을 차지한 후, 앗시리아의 옛 형제국인 후리아와 샤투아라를 정복하였다. “나는 그들과 싸우고 승리하였다. 나는 수많은 군대의 군인들을 죽였다.” 13세기 말에 투쿨티-닌누르타 1세(Tukulti-Ninurta 1, 1244-1208)가 바빌론에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고, 이 때로부터 특히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바빌론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주전 1000년대의 앗시리아-바빌론 종교 문헌들은 주로 니느웨와 아수르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후, 블레셋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고, 아람인들은 주전 1000년 이후에 확고한 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들 중 한 명은 비트-아디니(Bit-Adini, 암 1:5의 Beth Eden, 벵 에덴; 삼하 8:3-7 참조)였다.

앗시리아는 주전 911년 다시 깨어났고, 이 해에 아닷-니라리 2세(Adad-nirari, 911-891)가 등극하였고, 아람인들을 티그리스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바빌론의 제8왕조의 샤마쉬-무다믹(Shamash-mudammīq)을 두 번 공격하여 두 번 패배시키고, 땅을 빼앗고 유프라테스와 하부르를 지배하며, 고잔(왕하 17:6, Guzanu)을 다스렸다. 그의 아들인 투쿨티-닌누르타 2세(Tukulti-Ninurta, 890-884)는 왕위를 이어 받고, 아수르의 벽을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새로 쌓았다고 한다. 그 후 아수르나시르팔 2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883-859년). 살만에셀 3세(Shalmaneser III, 858-824)는 주전 859년 왕국을 얻는다. 살만에셀은 주전 853년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

해 라티부, 혹은 칼카르(Qarqar)전투를 한다. 예후가 살만에셀 3세에게 절하는 모습의 비문이 유명하다(POTT, VIIa).

신 앓시리아 시대(782-627년)는 살만에셀 4세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대에 역사의 새 획을 그은 왕은 티글랏벨레셀 3세(throne name, 744-727, Pul)이다. 그는 앓시리아 대왕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였다.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였으며,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므나헴의 반역을 직면하였다. 남 유다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티글랏벨레셀은 유다를 돕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 대신에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다. 살만에셀 5세(727-722년)는 티글랏벨레셀 3세를 계승하며, 그의 통치 시기에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에 반-앓시리아 전선을 구축하였고, 북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가담하여 결국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유배되었다(왕하 17:5).

이후 사르곤 왕조가 들어선다(721-627년). 사르곤 2세(722-705년)는 이집트를 패배시킨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다. 이집트는 조공을 바쳤지만, 그가 이집트를 다스린 것은 아니었다. 사르곤 2세는 주전 720년에 “나는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정복하였다”고 말한다. 즉,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다. 또한 그는 유다를 공격하였다(사 10:27-32 참조). 재위 5년에 갈그미스를, 11년(711년)에는 아스돗을 공격하였고(사 20:1), 12년(710년)에 바빌론 왕 프로닥-발라닷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사르곤 2세는 북쪽에 우라투(Uratu)와의 전쟁터에서 죽었다(705년경).

사르곤 2세를 계승한 산헤립은 반 앓시리아 동맹의 맹주가 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쳐서 46개의 성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자랑한다. 히스기야는 항복하고 성전의 금을 조공으로 바쳤다(주전 701년). 주전 7세기 중엽 바빌론은 점점 창성해 가고, 앓시리아는 점점 약해졌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에살하돈이 죽기 전에 아수바니팔을 앓시리아 왕으로, 또 다른 아들을 바빌론의 왕자(crown prince)로 세워 이 두 나라의 권세가 대등해졌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후 완전히 기진하였다. 주전 626년 갈대아군이 나보폴라살의 지도 하에 새롭게 등장하였고, 609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메데 왕 키약사레스와 바빌론의 나보폴라사 연합국에 패배하게 되며, 니느웨는 함락되고 역사의 주권을 바빌론에 넘기게 되었다.

앓시리아는 이스라엘에 군사적, 정치적인 힘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까지 깊이 미쳤다. “아하스 시대 이후에, 앓시리아가 문화적으로 바빌론과 이스라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앓시리아 종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다신론’(polythesism)이었다. 여러 도시와 지역마다 신들이 있었다. 앓수루, 아눔, 엔릴, 에아, 신, 샤마쉬, 아닷, 마르둑, 나부, 네르갈, 이쉬타르, 이들 외에도 한 없이 많다. 이쉬타르는 ‘하늘의 여왕’이다(렘 44:17, 25). 이것은 앓시리아보다 바빌론의 영향일 것이다. 앓시리아 종교에서는 신의 뜻을 알게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꿈의 신탁’(oneiromancy)이다. 앓시리아 궁궐에는 꿈의 신탁자들이 있었다. 또 다른 것으로는 간점과 점성술이었다”(Saggs, 156-78).

≡ 바빌론어(Babylonian)

+ 셈어(Semitic), 수메르어(Sumerian)

Saggs, H. W. F. “The Assyrian,” in POTT, 156-78.

비대칭(非對稱)

asymmetry

한 단어나 문장에서 언어 요소들이 상호간에 균형이나 대칭이 이루어 지지 않는 구조.

불균형은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차원에서 모두 적용이 된다. 음운론적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i 모음과 e 모음이 서로 균형 혹은 대칭이며, i 모음과 u 모음은 불균형 혹은 비대칭이다(참. JMK §70b). 형태론적 차원에서는 인칭, 성, 수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일치할 경우 서로 균형이나 대칭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통사론적 차원에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참이 아닌 경우를 불균형, 혹은 비대칭이라한다. 특히 히브리 시에서 평행법은 완전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타나는데, 첫 행과 둘째 행 사이에 성, 수, 인칭, 시제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생략된 형태로 나타날 때 비대칭이 된다(참. Watson, 1984:114-22).

시 2:1

לָמָּה רָגַשׁוּ גּוֹיִם וְלֹא־אֱמָּן יִהְיֶה-רִיק:

어찌하여 못 나라들이 소용돌이치며, 못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여기서는 1 행의 완료형이 2 행에서 미완료형으로 변한다. “(제 1 행의) 히브리어 동사는 접미사 변화로서 최근 상황이지만, 마치 바다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전쟁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형으로 번역하였다”(김정우, 시편주석, 2005, 160).

헬라어 문법책들에서는 비대칭이 다뤄지지 않는다.

↔ 대칭(symmetry)

연결사 생략(連結絲省略)

asyndesis, asyndetic, asydeton

문맥에서 뜻이 자명할 때,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현상

asyndesis 는 헬라어로 ἀσύνδετον (‘연결이 없음, 이어지지 않음’)을 뜻하므로 ‘연결사생략’(連結絲省略)이 적절한 번역이다. 문장에서 서로 이어진 단어들이나 구들이 등위 관계로 병렬되었을 때, 접속사 없이 병치되어 연결되는 것을 주로 가리킨다. 시저의 유명한 말, “Veni, vidi, vici (나는 왔다, 나는 보았다, 나는 이겼다)”는 빠른 템포와 간결한 표현 효과를 지닌다”(조성식 외).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וְ, כִּי, אֲשֶׁר 등이 생략된 절이나 구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접속사 구문을 매우 선호하므로(예. 수 2:18), 연결사가 생략된 비접속사 구문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JMK § 177a).

출 6:28

וַיְהִי בַיּוֹם דִּבֶּר יְהוָה אֶל-מֹשֶׁה בְּאָרֶץ מִצְרָיִם: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신 18:1

לְכֹהֲנֵי הַלְוִיִּם כָּל-שֹׁבֵט לְוִי

제사장, 레위인, 모든 레위 지파(레위계 제사장들, 즉 모든 레위 지파)

본문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제사장, 레위인, 모든 레위 지파’로 직역되므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모호하다. 우리 말 성경은 ‘레위계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의 두 부류로 보지만(개역, 개역개정, 공동, 표준), 몇몇 대표적인 영어, 불어, 독일어 성경들(NET, NIV, RSV, TOB, ZUR)은 두 부류로서 ‘레위계 제사장들, 즉 모든 레위 지파’로 번역한다.

신 32:15

שָׁמַנְתָּ עֵבֶתְךָ כְּשֵׂיִת

너는 살찐고 비대해졌고 배불러졌다.

삿 5:27

בֵּין הַגְּלִיָּה כָּרַע נָפֹל שָׁכָב

그는 그녀의 발 앞에 꾸부러졌고 엎드러졌고 쓰러졌다.

대상 29:18

יְהוָה אֱלֹהֵי אֲבֹתֵינוּ יִצְחָק יִשְׂרָאֵל אֲבֹתֵינוּ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합 3:10

קָאוּד יְחִילוּ הָלִים זָרִים מִים עֲבָר נָתַן תְּהוֹם קוֹלָהּ הִם יְדִירוּ נֶשֶׂ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사행시에는 단 하나의 접속사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시인이 주제와 분위기를 숨도 쉬지 않고 강화시키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욥 1:2

וְעַתָּה אֵלֶיךָ יְיָ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스웨로 가라
여기에는 접속사가 없는 명령형이 나온다.

헬라어에서는 주로 asyndeton 을 사용한다. 헬라어 문법에서 접속사가 생략된 구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헬라어에서는 병렬적 문장과 종속적 문장 둘 다에서 접속사 생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체상의 이유로나 이거나 진심을 표현할 때 생략된다(참. R 431).

병렬적 문장의 대표적인 예는 명령문에서 자주 등장한다.

마 28:6(R 949)

δεῦτε ἴδετε τὸν τόπον

오라! 그곳을 보라!

두 명령 δεῦτε 와 ἴδετε 사이에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종속적 문장의 예들은 내용 측면에서 그렇게 분류된다.

요 18:39(R 430)

βούλεσθε οὖν ἀπολύσω ὑμῖν τὸν βασιλέα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러므로 너희는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의 왕을 풀어 줄까?

οὖν 과 ἀπολύσω 사이에 접속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문장을 병렬적으로도 종속적으로도 연결할 만한 경우도 있다.

행 25:12

Καίσαρα ἐπικέκλησαι, ἐπὶ Καίσαρα πορεύσῃ.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다.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위의 두 문장은 병렬적 접속사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내용상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쩌면 베스도는 두 문장을 접속사 없이 나열함으로써 어떤 인과관계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 접속사(conjunction)

≡ 연결사 생략(asyndetic, asyndeton)

↔ 병렬(parataxis), 접속사절(syndesis)

김정우, “하박국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의 서원 (합 3 장),” 「그말씀」 147 (2001), 70-83.

아트나흐

Athnah

히브리어에서 제 1 급에 속하는 악센트.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실룩(:)과 함께 제 1 급에 속하는 악센트로서 실룩이 절의 끝에 오는 것이라면 아트나흐(^)는 절 안에 위치한다. 절의 길이가 매우 짧을 때 아트나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 욥 1:1). 아트나흐는 산문에서 실룩과 함께 다른 악센트보다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하며 이것을 중심으로 절을 이등분 하여 어절들을 지배한다.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절에서 아트나흐는 세 번째 단어인 엘로힘 아래에 나와 전반부의 끝을 알리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이 이등분 되었음을 보여준다.

+ 악센트(accent)

모음 약화(母音弱化)

attenuation

강세의 유무나 음절의 종류에 따라 완전 모음(full vowel)이 그 음가나 길이가 약화되는 현상.

영어 attenuation 이란 원래 라틴어 attenuāre 에서 ‘약하게 하다, 혹은 약해지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약화시키는 동작이나, 약화된 상태, 혹은 약화시키는 과정을 뜻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의 모음에는 강세가 주어지는데, 강세음절 주위의 모음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히브리어에서는 강세의 유무나 음절의 종류에 따라 완전 모음(full vowel)이 유성 슈바로 변하거나, 혹은 강한 모음이 약한 모음으로 변한다.

필리피 법칙에 따르면 강세가 있는 닫힌 음절에서 /i/가 /a/로 바뀐다(예. /bint > bat). 모음 약화 법칙은 필리피 법칙과 반대되는 것으로, 강세가 없는 닫힌 음절에서 /a/가 /i/로 바뀐다(예. *haqtal > *hiqtal > hiqtil)(JMK §29aa).

견인(牽引)

attraction

하나의 의미 단락을 이루는 구문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미쳐 기본 법칙을 깨뜨리고, 약한 요소가 강한 요소에 끌려가거나 빨리 들어가는 현상.

견인(牽引)이란 “문장 가운데서 근접원리(promixity principle)에 의해 가까이 있는 말의 영향을 받아, 수, 인칭, 격 등의 일치(concord)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이며, 수, 인칭, 격, 관계, 부정 견인 등의 종류가 있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견인 현상은 대개 명사와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나 분사로 등장하는데, 머리가 되는 명사와 그것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나 분사에서 성과 수를 일치시키는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고리형(JMK §125j4)과 교차대구(JMK §155nd)에서도 견인 현상이 나타난다.

신 4:38

גִּזְיוֹם גְּדוֹלִים וְעַצְמִים

크고 강한 민족들

두 개의 형용사가 머리 되는 명사와 성, 수가 일치한다.

대상 7:5

גְּבוּרֵי חַיִּלִּים

용감한 군사들

‘용감한 군사들’은 대부분 **גְּבוּרֵי חַיִּל**로 나온다(대상 5:24; 7:2, 9; 9:13; 12:22, 26, 31 등). **גְּבוּרֵי חַיִּלִּים**은 대상 7장에서만 네 번 나타난다(7:5, 7, 11, 40). **חַיִּלִּים**은 결코 추상의 복수로서 ‘용맹스러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복수의 견인현상으로서 “첫 번째 명사의 복수가 두 번째 명사에 기계적으로 전달된 경우이다”(JMK § 136o).

겔 20:16

וְאַתְחַקֹּזֶתְלִי לֹא־חֲלָכְנִי בָהֶם

나의 율례들을, 그들은 그것들을 따르지 않았다.

문장 끝에 나오는 ‘그것들’은 고리형(casus pendence)이며, 앞에 나온 ‘나의 율례들’에 걸린다. 즉, 고리형의 견인 현상이다.

삿 6:28

וְהָנָה נִתַּח מִזִּבְחַ הַבַּעַל וְהָאֲשֵׁרָה אֲשֶׁר־עָלָיו כִּרְתָּהּ

보라 바알의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가 찍혔다

어순대로 번역하자면 “보라 헐렸다(a) 바알의 제단이(b), 그리고 아세라(b')는 찍혔다(a')가 되어 교차대구로 서로를 끌어주고 있다(a:b/b':a').

헬라어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의 격을 취하는 일치 현상을 가리킨다. 본래 관계대명사는 성(gender)과 수(number)는 선행사를 따르지만, 격(case)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내에서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의 격을 따를 때 ‘견인’(attraction)되었다고 설명한다(PDSNTG 24).

행 7:16(R 716)

ἐτέθησαν ἐν **τῷ μνήματι** **ᾧ** ὠνήσατο Ἀβραὰμ τιμῆς ἀργυρίου

그들이 묘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은으로 값 주고 매입한 묘에요.

관계대명사 **ᾧ**의 격은 본래 대격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사 **τῷ μνήματι**에 견인되어 여격을 취한 것이다.

↔ 역견인 현상(inverse attraction)

수식어(히. 修飾語)

attribute, attributive

표현을 아름답고 강력하게 하거나,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사나 명사구를 꾸며주는 요소

영어 attribute는 ‘~에게(ad)+주다, 넘기다, 제공하다(tribuere)’가 합성된 라틴어(attribuere)에서 나왔으며, 사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성질이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문법적으로 ‘수식적’이란 그 대상의 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언어학에서 수식어(attribute, 修飾語)는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명사의 수식어(modifier), 또는 명사 앞의 수식어(prenominal modifier)라고도 한다”(이정민 외).

히브리어에서 수식어(attribute)는 주로 피수식어 뒤에 나오며 성, 수, 관사가 일치해야 한다. 수식어는 서술어(predicative)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식어로는 명사, 분사, 형용사 등이 있다. 명사는 일반적으로 속격이 수식/ 피수식 관계로 나타난다. 분사는 수식어로 사용될 때 준-형용사로서 비시간적이 되나, 서술적이 될 때는 시간적 형태를 지니며, 익톨을 대신한다(JMK §121a). 형용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수식어(attribute [attributive])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어(ad-nominal)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왕상 4:30(히 5:10)

תְּכַמֵּת שְׁלֹמֹה

솔로몬의 지혜

느 9:13

וַתִּתֵּן לָהֶם מִשְׁפָּטִים יִשְׂרָאֵל וְתוֹרוֹת אֱמֻנָה תְּקִים וּמִצְוֹת טוֹבוֹת:

그는 정직한 규례와 진실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 수식어(modifier), 명사 수식적(ad-nominal)

- 형용사 수식어(adjectival modifier)

↔ 술어(predicative)

한정어(헬. 限定語)

attributive

한 문장에서 뒤에 오는 명사를 한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형용사, 분사, 부정사, 전치사구 등의 요소

한정어(限定語)는 “명사를 주요어(head-word)로 하여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상당어)를 말한다”(조성식외). 이것은 명사구에서 명사 앞에 나와서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구나 명사구를 가리킨다. 또한 한정어는 동사의 보어로 기능하는 형용사구 혹은 명사구를 가리킨다. The green carpet is old에서 ‘green’은 한정어이고 ‘old’는 술어이다.

헬라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비교, 고양, 관계, 최상급 등의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관사가 있을 때 형용사, 명사는 다음과 같은 위치를 갖는다(W 306-307).

(1) 첫 한정적 위치. 관사-형용사-명사. ‘그 거룩한 도시’(마 4:5), ‘그 선한 사람’(눅 6:45), ‘그 악한 일군’(빌 3:2), ‘완전한 사람’(요일 4:18): 이 구문에서는 “형용사가 실명사보다 더 크게 강조된다”(R 776).

(2) 둘째 한정적 위치. 관사-명사-관사-형용사(호 바실류스 호 아가소스): 형용사의 위치 차이는 관계 문제가 아니라, 위치와 강조의 차이이다. 둘째 한정적 위치에서 “실명사와 형용사는 강조되고, 형용사는 분리된 관사와 동격을 이루면서 절정을 이룬다”(R 777). 문자적으로는 ‘the king, the good one’이 된다(마 5:29; 행 11:15; 히 6:4; 계 19:2).

(3) 셋째 한정적 위치. 명사-관사-형용사(바실류스 호 아가소스): “여기서 실명사는 [자주] 비한정이고 일반적이다. 한정사 [형용사]는 특별한 적용을 한다”(R). “한 왕, 선한 자”이다. 이것은 가장 적게 나타나는 형식이다(눅 15:22의 ‘the best robe’, 요 1:18, who was near).

ὁ ἀγαθὸς ἄνθρωπος

그 선한 사람

ὁ λέγων ταῦτα μαθητῆς

이것들을 말하는 제자

고전 2:7

θεοῦ σοφίαν ἐν μυστηρίῳ

신비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눅 1:57

ὁ χρόνος τοῦ τεκεῖν αὐτήν

그것을 낳을 시간

수식적 대격(修飾的對格)

attributive accusative

간접 대격의 하위 개념으로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사용된 대격(JMK §127).

간접 대격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격으로 상태, 한계, 한정을 나타낸다(참. JMK § 126).

창 3:8(JMK §127a)

וַיִּשְׁמְעוּ אֶת-קוֹל יְהוָה אֱלֹהִים מִתְּהֵלֶךְ בְּגֶן

그들은 그 정원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와의 소리를 들었다.

‘거니시는’은 소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식적 대격이다. 즉, ‘거니시는 소리’이다.

삼하 15:32

חוּשֵׁי הָאָרֶץ קָרַע בְּתֻנְתּוֹ

그의 옷이 찢긴

즉, 후새는 속옷이나 신발을 찢을 수 있는데, 그의 겉옷을 찢었다. 한계의 대격은 표현이 적용되는 일부가 대격 속에 있는 것이다(JMK § 126g).

사 30:20

מִים לְחַץ

고생의 물

이 물은 엄격하게 생존에 필요한 극소량이다. 따라서 한계의 대격이다.

대상 28:18(JMK § 127c)

הַכְּרִבִּים זָהָב

금으로 된 그룹들

‘금’은 은이나 동이 아니므로 그룹을 만드는 재료로서 한정된다.

+ 대격(accusative), 격(case)

수식적 형용사(修飾的 形容詞)

attributive adjective

히브리어의 경우,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성, 수, 한정성이 일치한다.

창 8:20

הַבְּהֵמָה הַטְּהוֹרָה

정결한 짐승

레 7:21

בְּהֵמָה טְמֵאָה

부정한 짐승

레 7:21

עֲצֵי זָקֵן

가증한 물건

헬라의 경우,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의 성과 수와 격을 따른다.

행 1:5

ὁμοῖς δὲ ἐν **πνεύματι**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ἀγίῳ** οὐ μετὰ **πολλὰς** ταύτας **ἡμέρας**.

한편 너희는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형용사 **ἀγίῳ**는 수식하는 **πνεύματι**의 성과 수와 격을 따라 중성 단수 여격을 취했다. 형용사 **πολλὰς** 역시 수식하는 **ἡμέρας**의 성과 수와 격을 따라 여성 복수 대격을 취했다.

= 형용사 수식어(adjectival modifier)

+ 형용사(adjective)

≡ 일치(agreement), 술부 형용사(predicate adjective)

수식적 분사(修飾的 分司)

attributive participle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분사.

삼하1:5

וַיֹּאמֶר דָּוִד אֶל־הַנָּעַר הַמִּגֵּד לוֹ

다윗이 그에게 말하는 소년에게 말했다.

출 11:5

בְּכוֹר פְּרִעָה הַיֵּשֶׁב עַל־כִּסְאוֹ

그(바로)의 보좌에 앉을 바로의 장자

헬라어 분사가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할 때도 ‘수식적 분사’라 부른다. 관사 없이 쓰이기도 하고 관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관사 없이 쓰이는 경우(R 1105)

요 4:10

ἔδωκεν ᾧ σοι ὕδωρ ζῶν

그가 네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텐데.

분사 ζῶν 이 명사 ὕδωρ 를 수식한다.

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R 1106)

요 4:11

πόθεν οὖν ἔχεις τὸ ὕδωρ τὸ ζῶν;

그러니 당신이 어디서 그 살아있는 물을 얻겠습니까?

분사 ζῶν 이 명사 ὕδωρ 를 수식함에 있어 관사가 함께 쓰였다.

+ 분사(participle)

≡ 술어적 분사(predicate participle)

시상접두모음(時相接頭母音)

augment, temporal augment

헬라어 동사 미완료와 부정과거와 과거완료의 어간 앞에 붙어 제2시상 혹은 제2시제를 만드는 보조 모음.

영어 augment는 ‘증대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augmentum, increase)에서 왔으며, 영문법에서는 augmentative (증대사, 增大辭)라는 범주로 사용된다. 예로, ballon (=large ball), million (=large thousand)의 -oon, -on 등이다. “몇몇 고대 인도-유럽어들(헬라어, 인도-이란어, 아르메니아어, 프리기아어)에서 과거를 표시하기 위하여 보존된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이다”(부시만). 헬라어에서 오그멘트는 동사 시작을 길게하는 것이다(lengthening). 즉, 증대시키는 증대사이다. 동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엡실론을 추가한다(Mounce, 180).

헬라어 동사의 형태소(formative) 가운데 하나인 시상접두모음(헬라어로 αὔξησις) é는 제2시상 혹은 제2시제에 속하는 미완료와 부정과거와 과거완료에 붙어 “과거를 표시한다”(R 365).

시상접두모음을 붙일 때,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시상접두모음을 바로 붙인다.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모음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우선 α와 ε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시상접두모음이 붙으면 α와 ε이 η로 길어진다. ο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시상접두모음이 붙으면 ω로 길어진다. ι와 υ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시상접두모음이 붙으면 발음은 길어질지라도 어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모음(diphthong) αι의 경우에는 시상접두모음이 때로 생략되고, αυ의 경우에는 보통 ηυ로 바뀌며, ευ의 경우에는 εύ로 바뀌는 게 보통인데 드물게 ηυ로 바뀌며, οι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거나 ωι로 된다(시상 접두모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 198-202을 참고하라). 전치사가 어두에 합성(composition)되어 있으면, 전치사와 어간 사이에 시상접두모음을 붙인다. 이때 모음으로 끝난 전치사의 모음은 생략된다.

신약성경의 경우, 과거완료에 시상접두모음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R 366).

(1) 부정과거; 과거완료, 시상접두모음이 붙은 경우

행 17:23

εὔρον καὶ βωμὸν ἐν ᾧ ἐπεγέγραπτο· Ἀγνώστῳ θεῷ.

내가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εὔ와 ε가 시상 접두모음이다.

(2) 부정과거; 과거완료, 시상접두모음이 붙지 않는 경우

행 14:23

παρέθεντο αὐτοὺς τῷ κυρίῳ εἰς ὃν πεπιστεύκεισαν.

그가 제자들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부정과거 παρέθεντο의 é가 시상접두모음이다. 과거완료 πεπιστεύκεισαν의 경우 시상접두모음이 붙지 않고 어간중복(πε)만 일어났다.

≡ 어간중복(reduplication), 형태소 자음(formative letter)

보조어(補助的)

auxiliary

여러 구성 성분에 덧붙여 특별한 뜻을 더해 주거나 발음을 편하게 해 주는 요소

히브리어에서 보조어는 발음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1) 후음 뒤의 보조 하텡, (2) ו"ע (아인 요드) 명사의 보조 모음, (3) 세골 명사 등에서 발생한다.

(1) 후음 뒤의 보조 하텡(auxiliary h. after guttural)은 슈바 대신에 매우 자주 아주 짧은 모음으로, 주로 완전 모음과 같은 음색을 가진 하텡(hatef)이다. 이 보조 하텡의 목적은 후음에서 그 위의 자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매우 짧은 이 모음이 두 개의 인접한 음절에 걸쳐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음절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텡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많은 변형들과 모순된 형태들이 나온다. (a) 보조 하텡은 강세가 없는 모음 뒤에서만 나타난다. (b) 보조 하텡은 단순 슈바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c) א과 ע는 기꺼이 취하는 반면, ה와 ח는 하텡 없이도 잘 나타난다. (d) 후음 뒤에 오는 자음은 하텡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후음에서 뒤따라 오는 자음으로 전환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의 정도는 뒤따라 나오는 자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보조 하텡은 강세가 없는 모음 다음에 나타나는데 후음 자음 앞에 붙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하텡 파타흐), ֿ(하텡 세골), ֿ(하텡 카메쯔)의 세 종류로 나타난다. 예로서 יִחַנוּ, בָּאֲדוֹם, נִעְמִי가 있다. 또한 יִחַן은 매우 드물게 나오며 대부분 יִחַןִּיק으로 나온다(JMK § 22a). יִעֲמֹד는 단수에서 יִעֲמֹד로 나온다(JMK § 27c).

(2) ו"ע (아인 요드) 어근 명사의 보조 모음의 예로서 단축된 형태인 연계형 בֵּית는 절대형에서 בֵּית, 힘: חֵיל, 눈: עֵין (JMK § 88Cf).

(3) מֶלֶךְ는 보조 모음 첨가로 세골 모음이 첨가되어 מֶלֶךְ이 되었다.

시 76:8[한 76:7]

אַתָּה | נֹרָא אַתָּה וּמִי־יִעֲמֹד לִפְנֵיךָ מֶאֱזָא אִפְּדָ:

주님, 주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조동사(助動詞)

auxiliary verb

본동사와 대비되는 명칭으로서, 시제(tense), 서법(mood), 태(voice), 상(aspect) 등을 나타내거나 그 의미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동사.

영어 auxiliary는 라틴어 auxiliārius (도움)에서 왔다. “be, do, have, can, may, must, shall, will, need, dare, ought 등이 조동사로 사용된다. 이것들은 독립된 동사로서의 의미는 약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말로서 다른 언어의 굴절 어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는 영어의 조동사와 같은 것이 없으므로, 주용-무라오까는 익톨형이 허용(may, can), 당위(must), 의지(will) 등의 서법을 포함한다고 본다.

(1) 허용, may

창 2:16

מָכַל עֵץ־הָגֶן אֵכֶל תֹּאכֵ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2) 당위, must

출 21:28

קָוֹל יִשְׁקַל הַשּׁוֹר

그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3) 의지, will

창 24:58

הֲתֵלֵכִי עִם־הָאִישׁ הַזֶּה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헬라어에도 조동사는 없다. 다만, 분사가 완곡어법(periphrastic)으로 사용된 경우, 함께 쓰인 ὑπάρχων이나 εἰμί가 조동사처럼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PDSNTG 25; R 1119-1121).

행 8:16(R 1121)

μόνον δὲ βεβαπτισμένοι ὑπῆρχο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다만 그들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였습니다.

행 19:36(R 1121)

ἀναντιρρήτων οὖν ὄντων τούτων δέον ἐστὶν ὑμᾶς κατεσταλμένους ὑπάρχειν καὶ μηδὲν προπετεὲς πράσσειν.

이를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는 진정하고 어떤 경솔한 짓도 해서는 안 된다.

≡ 완곡한 표현의, 우언법의(periphrastic)

아인

Ayin

22개의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 16번째 알파벳.

아인(א)은 유성 후음(voiced guttural)으로 아랍어의 ع 소리와 일치한다. 인후부에 힘을 주어 ‘아’를 강하게 발음하며 발음기호는 ‘로’ 표시한다.

아랍어에서 ‘알라’는 ‘아인’으로 시작하고 ‘높이다’ 어근의 동사와 연관되며 ‘높으신 분’이란 뜻을 가지지만, 히브리어에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엘’(אֵל), ‘엘로아’(אֱלֹהִים), ‘엘로힘’(אֱלֹהִים)은 아랍어의 ‘아인’으로 시작하는 ‘알라’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히브리어 ‘엘’은 ‘강하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바빌론어

Babylonian

아카드어의 방언으로서 동북 셈어에 속하며, 음절 썬기문자를 사용하며, 고대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신 바빌론제국 시대까지 사용된 국제 통용어.

바빌론어는 앗시리아어와 함께 주전 3000 년대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제국을 통일한 사르곤 1세가 확산시킨 언어인 아카드어의 방언이다. 바빌론어는 약 2000 년간 2000 개의 기호로 만들어진 음절 썬기문자(logograph) 체계를 갖고 있다. 각 기호는 여러 개의 가치를 가진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약 100 만개의 토판이 발굴되었다. 이것들은 법조문, 역사, 연대, 왕의 명단, 신화, 지혜, 잠언, 우화, 의료, 징조, 편지, 경제, 건물의 비문, 점성학, 수학, 맥주 만드는 법 등을 포함한다. 아카드어와 바빌론어는 히브리어의 중요한 모어 중 하나이다.

‘바빌로니아’와 ‘바빌론인들’(Babylonians)이란 명칭은 고대 바빌론 사람들의 명칭이 아니라, 고대 헬라인들이 사용한 명칭으로서 영어로 만든 것이다(W. G. Lambert, 179).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바빌론’은 도시의 이름이었다. 고대 바빌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든 평평한 충적토양으로 이루어진 넓은 평원의 남쪽 끝 지역에 있었고 현대의 바그다드에서 바스라까지를 포함하였다. 주전 3천년대 이 지역을 사람들은 ‘수메르와 아카드’로 불렀다. 헬라인들은 함무라비가 바빌론을 정치적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이 지역을 바빌론이라고 불렀다. 즉, 바빌론은 함무라비 왕조가 등장하기 이전인 주전 3천년대의 수만개의 토판에서 겨우 몇 번 언급되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하였다.

바빌론 왕국은 주전 3천년대 말에 셈족에 속하는 아모리인들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당시 수메르 왕국인 우르 3왕조(2100-2000)를 무너뜨리고 세웠다. 이 때부터 고대 아카드어와 상당히 다른 셈어인 바빌론어가 국어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아모리 왕조의 여섯 번째 통치자인 함무라비 왕(약 1793-1760)은 탁월한 행정력, 외교력, 군사력으로 짧은 시간에 온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고대 사르곤 왕의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바빌론을 제국의 수도로 만들었다. 함무라비의 족보를 보면 그의 왕조는 ‘구트인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앗시리아의 아모리인 왕과 같은 조상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즉, 함무라비는 원래 아모리인이었다.

함무라비는 통치 말년에 자신이 내린 법적인 판결들을 대리석에 조각하여, 예사길라 신전 안에 두었다. 그는 법 조문의 서문에서 “나라에 정의가 가득하게 하고, 악인과 악을 무너뜨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목적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정의의 왕’으로 소개한다. 이 안에는 범죄, 상거래, 결혼, 가정, 재산, 직업인의 경비와 책임, 농사와 연관된 법적 문제 등 약 282 개의 법조문이 담겨 있다. 이 법전은 고대의 법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었으며, 순수한 바빌론어로 기록되었다.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함무라비 왕의 족보(BM 80328)는 조상숭배에 사용되었다(참. 김정우, 구약통전 하, 2003, 257-259).

함무라비가 죽은 후(주전 1750년), 바빌론 제국에는 반역이 일어나 급격히 붕괴되었다. 약 1세기 반 후에 히타이트가 바빌론을 정복한 후 바빌론은 조그만 도시로 전락하였다. 그렇지만 함무라비의 영광은 계속 되었다. 이후 느부갓네살 제1세는 이신 제 2왕조를 세우고 바빌론 왕국을 회복하였다. 그렇지만, 아람인들이 시리아 사막에서 올라와서, 농사와 무역을 방해하고 도시들을 약탈하였다가 아주 남쪽인 페르시아만 근처에 머무르게 되었고, 바빌론인들은 그들의 지파들을 ‘갈대아인들’이라고 불렀다. 아람인들은 도시 거주자들인 바빌론 사람들과 뒤섞였고, 이리하여 후기 바빌론 언어가 생겼다. 이것은 아람어 이전의 언어로서 바빌

론어 단어를 아람어 구문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앗시리아의 전승기 시절(725-625년)에 바빌론인들은 이 지역을 지배하였고, 앗시리아가 망한 후에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 2세가 신 바빌론 제국을 세웠다.

고대 바빌론 문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전수되었을 것이다. 이후 아마르나(Amarna) 시대에 바빌론의 언어와 문학과 문화가 가나안 땅에 전수되었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신바빌론 제국은 유다 왕국과 적이었으므로, 바빌론 포로 후기에는 바빌론 문화의 영향은 약화되었고, 언어에 있어서도 바빌론어보다 아람어 영향이 더 깊었다. “바빌론 제국의 문화는 헬레니즘의 확산으로 사라져 갔지만,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종교로 생존하였다”(W. G. Lambert, 192).

- + 아카드어(Akkadian), 수메르어(Sumerian), 셈어(Semitic)
- ≡ 앗시리아어(Assyrian)
- 아마르나(Amarna)

고대 바빌론의 다양한 문헌의 집대성은 J. B. Pri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를 보라.

Dassow, Eva von, “Advances in Late Babylonian,” *JAOS* 122 (2002), 535-541.

Huber, Peter J., “On the Old Babylonian Understanding of Grammar: A Reexamination of OBGT VI-X,” *JCS* 59 (2007), 1-17.

원형절(原形節)

bare clause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단순절에서 주어와 술어가 수식어나 보어를 갖고 있지 않는 절.

영어 ‘bare’란 ‘덧붙인 것이 없는, 순수한, 단순한’(without addition, mere, simple)을 뜻한다. 원형절이란 용어는 일반적이지 않고, 히브리어 문법에만 사용되고 있다. 영문법에서는 ‘원형절’이란 용어 대신에 동사 앞에 to 가 붙지 않은 형태인 ‘원형부정사’(bare infinitive, 原形不定詞)가 있다. 예로, They made us drink warm orange juice 에서 drink 이다. 또한 영문법에서는 ‘원형관계사’(bare relative)로서 “관계절을 소개하기 위하여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절이다. 다른 문법학자들은 zero relativizer(영 관계사)라고 부른다”(CDEG).

일반적으로 절이란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며, 대체로 술어에 따라 절의 성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절은 단순하거나 복합적(여러 개의 단순절로 구성됨)이다. 단순절은 주어와 술어가 수식어나 보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현대 문법학자들에 의해 원형절(bare clause, 原形節) 혹은 확장절(covered clause, 擴張節)로 불려지기도 한다(JMK §153).

창 42:28

הוֹשֵׁב בְּכֶסֶף

내 돈이 돌아왔다.

동사절에서 일반적인 어순은 동사-주어로서 이 단순절은 원형절에 속한다

출 15:18

יְהוָה! יִמְלֹךְ לְעֹלָם וָעֶד:

영원무궁토록 주님이 다스리신다.

삼하 14:20

וְאֵדֹנִי חַכָּם

내 주는 지혜롭습니다.

↔ 확장절(covered clause, 擴張節)

바르트-긴즈버그 법칙

Barth-Ginsberg's law

이 법칙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미완료형 접두사의 모음이 원래 동작동사에서는 a, 상태동사에서는 i 였다는 원리가 바르트에 의해 yaqtul, yaqtil 형태가 yiqtal 형태로 공식화되고, 그 후 긴즈버그가 우가릿어에도 적용되는 것을 찾아내어 오늘날 바르트-긴즈버그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 것(JMK §41eN).

히브리어에서 이 모습들은 실제로 열린 음절에 나타나며, ע"ע 동작동사 יָסַב와 상태동사 יָקַל, 그리고 ע"ו 동작동사 יָקוּם, יָשִׁיר와 상태동사 יָבוֹשׁ 가 있고, 닫힌 음절에서는 동작동사의 원시모음 a가 꽤 널리 퍼짐에 따라 i로 약화된다. yaqtul이 상태동사처럼 i를 갖게 되어, יָקַטַל이 된다. 한편 에블라어와 엘-아마르나 가나안어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에블라어보다 700년 정도 후대에 나온 아모리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JMK §41e).

브가드크파트

begadkefat

히브리어 자음 중 두 종류의 형태와 발음법을 가진 6 개의 자음 **ב, ג, ד, כ, פ, ת**을 말하며 기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일반적으로 ‘브가드크파트’는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발음을 지닌다. 파열음들은 영어에서 b, g, d, k, p, t 에 해당하는 자음의 음가를 가지며, 파열음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 안에 ‘다게쉬(dagesh)’라고 불리는 점을 찍는다. 파열음에 대응하는 마찰음은 부분적으로 그 이전에 있는 모음의 영향으로 동화되어서 그것과 유사한 마찰음이나 이어지는 소리를 내게 된다. 사본들에서는 마찰음을 표시하기 위해 ‘라페(rafé)’라고 불리는 가로 획을 글자 위에 붙였으나, 성경 인쇄본들에서 ‘다게쉬’가 없는 것은 그 자음이 ‘라페’임을 표시한 것임이 분명하다. 마찰음의 발음은 **ב**(b, bh 현대 그리스어의 β, 영어의 v 와 거의 같다), **ג**(g, gh 현대 그리스어의 γάλα의 γ), **ד**(d, dh 현대 그리스어 δ (영어 this 의 th), **כ**(k, kh 현대 그리스어의 χάρης의 χ), **פ**(ph 현대 그리스어의 φ =영어의 f), **ת**(t, th 현대 그리스어의 Θ =영어 thing 의 th)가 된다 (JMK §50).

또한 이 ‘브가드크파트’는 단어 처음이나 닫힌 음절(폐음절) 다음에 올 때에는 점이 붙고, 열린 음절(개음절) 다음에 올 때에는 점이 붙지 않는다. 이것의 발음은 **ב/ב**(v/b), **ג/ג**(gh/g), **ד/ד**(ð/d), **כ/כ**(h/k), **פ/פ**(f/p), **ת/ת**(θ/t)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ב/ב**(v/b), **כ/כ**(h/k), **פ/פ**(f/p)의 발음만이 차이가 난다(참. 권성달, 2009).

수혜적

benefactive

주어에 속한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주체나 혹은 객체.

히브리어에서 수혜적 용법은 주로 명사와 동사에서 나타난다. 명사나 명사구가 수혜적으로 사용될 때는 여격으로 나타나며, 상당히 자주 이 여격(간접 목적어)은 속격으로 표현된다(JMK §129h). 동사에서 나타날 때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수여동사와 함께 여격으로 나타난다. 특히 니팔은 행위의 영향을 받는 수혜자가 되며, 히필은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인 지위(double-status)를 갖는다(참 IBHS §23.1.h).

출 3:21

וְנָתַתִּי אֶת־תְּנוּתָם הָעֵם־תְּנוּהָ בְּעֵינֵי מִצְרַיִם

나는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개역 개정) (JMK §129h)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애굽 사람의 눈 앞에서’ 주실 것이다. 즉, 애굽 사람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백성’은 수혜적 용법으로 이해된다.

시 20:3 (한 20:2)

יִשְׁלַח־עֲזָרָהּ מִקֹּדֶשׁ

그가 너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JMK §129h)

삼상 20:6

וְאַמְרָתָּ נִשְׂאֵל־נִשְׂאֵל מִמֶּנִּי דָוִד לְרוּץ בֵּית־לָחֶם עִירוֹ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개역개정) (IBHS §23.4.d)

욥 13:27

עַל־שָׂרְשֵׁי רִגְלֵי תַתְּחִקָּה

주님은 나의 발바닥에 (주님을 위해서) 표를 새기십니다

תַתְּחִקָּה는 수혜 재귀동사(benefactive reflexive)로 설명된다(IBHS §26.2.e).

주님이 욥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심은 욥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욥은 모든 자유를 잃고 신분과 재산을 박탈 당하므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헬라어에서는 중간태의 용법 중 하나로 수혜적 중간태(benefactive middle)가 있다(W 419).

주어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을 취한다.

눅 10:42(W 421)

Μαρίαμ γὰρ τὴν ἀγαθὴν μερίδα ἐξελέξατο

마리아는 좋은 역할을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기 때문이다.

≡ 재귀형(reflexive), 중간태(middle voice)

수여동사(授與動詞), 수혜동사(受惠動詞)

bestowal verb

혜택을 주거나 받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주다, 받다, 드리다, 얻다’ 등과 같이 ‘허용과 허락’의 의미를 가지며,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라는 사역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IBHS §27.5.c).

대하 26:5

וּבְיָמַי דָּרְשׁוּ אֶת־יְהוָה הַצִּלִּיחוּ הָאֱלֹהִים: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개역개정)

시 89:43(한 89:42)

הָרִימוּתָּ יָמִין צִרְיֹ הַשְׁמַחְתָּ כָּל־אֲוִיבָיו: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개역개정)

렘 2:37

וְלֹא תַצְלִיחִי לָהֶם: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만들지 못할 것임이라

‘수여’와 관련된 대표적인 헬라어 동사는 εὐλογέω(‘찬양하다, 축복하다’)이다. 이 동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가질 때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나, 사람이나 사물을 목적으로 가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수여’를 의미한다.

눅 2:34

εὐλόγησεν αὐτοὺς Συμεὼν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여되길 시므온이 기도했다”는 의미이다.

베트

Beth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베트는 두 번째 글자이므로 ‘2’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베트는 유성 순음에 속한다. 다게쉬의 유무에 따라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나뉘어지는데 베트에 다게쉬가 있으면 파열음으로 영어의 ‘b’ 소리가 나며 다게쉬가 없으면 마찰음으로 영어의 ‘v’ 소리가 난다(참. GKCS §5 c, h, o; JMK §6 n-p).

+ 문자(letter)

원인(原因)의 베티

Beth causa

동사가 만드는 동작의 이유나 원인을 표시하는 전치사 베티로, ‘때문에’로 번역되는 것.

창 18:28

הַתְּשָׁחִית בְּתַמְשָׁה אֶת־כָּל־הָעָר

당신은 그 다섯 때문에 온 도시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50 명의 의인 중 다섯 명이 부족하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느냐고 묻는다. 따라서 그 다섯 명이 하나님의 동작의 원인이 된다.

왕상 18:18

לֹא עָבַרְתִּי אֶת־יִשְׂרָאֵל כִּי אִם־אֵתָּהּ וּבֵית אָבִיךָ בְּעֻבּוּבְכֶם אֶת־מִצְוֹת יְהוָ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안이 주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힌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고통은 아합과 그 왕조가 주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원인이 된다.

동반(同伴)의 베틀

Beth commentiae

주어가 동작을 할 때 동반하는 실체를 가리키는 전치사 베틀로, ‘함께’ 혹은 ‘또는’으로 해석되는 것.

창 9:4

אֲדֹבְשָׁךְ בְּנִפְשֹׁךָ דָּמוֹ לֹא תֹאכְלוּ:

정녕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마라.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짐승의 생명인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십계명과 같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언적 명령형이다.

왕상 10:2

וַתָּבֹא יְרוּשָׁלַּיִם בְּחֵיל כָּבוֹד מְאֹד

그는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 왔다.

스바의 여왕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심히 많은 수행원들과 선물들의 긴 행렬을 이루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본질(本質)의 베티

Beth essentiae

전치사 베티(ב)의 용법 중 하나로, 베티와 함께 나오는 단어나 구가 그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는 베티(ב).

본질의 베티에서 전치사 베티는 사실상 실제적인 의미를 추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술부(predicate)와 특히 술어(predicative)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목적어를 가리키는 술어에도 사용된다(JMK §133c).

(1) 술부를 가리키는 ב

출 18:4

כִּי־אֱלֹהֵי אָבִי בְּעֻזִּי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 때 ב는 술부로서 실제로 아무런 의미를 추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셨음을 설명한다.

(2) 술어를 가리키는 ב

(a)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사 40:10

הִנֵּה אֲדֹנָיִי יְהוָה בְּתִזְקָה יָבוֹא

그는 강한 자(처럼) 올 것이다

(b) 일반적으로 실명사로서 사용되는 경우

출 6:3

וַאֲנִי אֶל־אַבְרָהָם אֶל־יִצְחָק וְאֶל־יַעֲקֹב בְּאֵל שַׁדַּי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나타내었다

민 13:23

וַיִּשְׁאַחוּ בְּמוֹט בְּשָׁנִים

그들은 그들 들 사이에 메고 왔다

신 28:62

וְנִשְׁאַרְתֶּם בְּמִתֵּי מָוֶט

너희는 몇 사람(상태로) 밖에 남지 못할 것이다

(3) ב가 목적어를 가리키는 술어를 시사하는 경우

민 18:26

אֲשֶׁר נָתַתִּי לָכֶם מֵאֲתָם בְּנִחְלָתְכֶם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것

민 18:10

בְּקֹדֶשׁ הַקֹּדֶשִׁים תֹּאכְלֶנּוּ

너희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들을 먹어야 한다(JMK §133c)
‘가장 거룩한 것’은 ‘먹어야 하는 것’의 술어로서 그 음식의 본질을 말한다.

Manross, Lawrence N., “Bêth Essentiae,” *JBL* 73 (1954), 238-239.

수단(手段)의 베틀

Beth instrumenti

동작의 수단을 가리키는 전치사 베틀(ב)로, ‘~로, 로써’로 번역됨.

출 5:3

פֶּן־יִפְגַּעֲנוּ בְּדָבָר אֹו בְּחָרָב

그가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가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질병이나 전쟁으로 심판을 받을까 두려우므로 광야로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길 구한다.

미 5:1(히 4:14)

בְּשִׁבְטֵי יָבֹן עַל־הַלְחִי אֶת שִׁפְטֵי יִשְׂרָאֵל

그들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뺨을 칠 것이다.

여기의 막대기는 심판의 도구를 가리킨다.

장소(場所)의 베티

Beth locale

동작의 방향이나 위치를 가리키는 전치사 베티(ב)로, ‘~로, 향하여, 에서, 안에서’ 등으로 번역된다.

삿 16:4

וַיֵּאָהֱבָ אִשָּׁה בְּנַחַל שָׂרֵק

그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였다.

창 31:54

וַיְלִינוּ בְּהָר

그들은 산에 머물렀다.

신 12:15

וְאָכַלְתָּ בָּשָׂר כְּבָרֶכֶת יְהוָה אֱלֹהֶיךָ אֲשֶׁר נָתַן־לְךָ בְּכָל־שְׁעָרֶיךָ

너는 너의 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너희의 성 안 어디서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가격(價格)의 베티

Beth pretii

동작이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리키는 전치사 베티(בֵּת)로, ‘지불하다, 받다’로 번역된다.

왕상 10:20

וְהַתְּעִלָּה וְהַתְּצִיא מִרְכָּבָהּ מִמִּצְרַיִם בְּשֵׁשׁ מֵאוֹת כֶּסֶף וְסִיּוֹס בְּחִמְשִׁים וּמֵאָה

그는 병거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을 지불하고 말 한필에 백 오십 세겔을 애굽에 지불하고 들어 왔다(올라가고 나갔다).

즉, 병거 한 대의 값은 600 세겔이며, 말 한필은 150 세겔이었다. ‘수입하다’는 직역하자면 ‘올라갔다가 나갔다’가 된다.

왕상 21:6

תְּנֶה-לִּי אֶת-כַּרְמִי בְּכֶסֶף

너의 포도원을 돈을 받고 내게 다오.

두 자음 어근(二子音語根)

biconsonantal root, biliteral root

히브리어에서 단어(명사, 형용사, 동사)가 두 개의 자음으로 된 한 어근.

히브리어는 대부분 세 자음 어근으로 구성되며, 가끔 네 자음도 있으나 두 자음으로 구성된 어근들이 나온다. 모스카티(Moscatti 1947)나 보터벡(Botterweck 1952)은 원시 셈어-함어의 어근이 본래 두 자음이었고, 셈어가 나중에 세 자음 어근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샌즈 바덜로서는 “여러 셈어의 명사와 동사까지 보존된 두 자음 어근보다 더 고대의 것이라는 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BCP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류의 명사들과 약동사에 두 자음 어근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같은 자음을 가진 세 자음 어근들과 의미론적 관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SBCP 42). 주옹-무라오까도 히브리어에서 세 자음 어근이 주로 나오는 것은 “원래 두 자음 어근으로 구성된 어휘들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면서 역사적으로 후대에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현존하는 세 자음 어근들이 결국 두 자음 어근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JMK §34aN.4).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동사는 고대에 중간 바브나 요드가 탈락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약동사인 **וָע**(아인-바브)나 **וָי**(아인-요드) 동사로 분류된다.

(1) 명사의 예들

בָּרָא, **מָדָה**, **דָּרָה**, **אָרָה**

(2) 형용사의 예들

רָב (신 2:10)

(3) 동사의 예들

קָם (삼상 17:48), **רָם** (신 2:10), **מָת** (창 20:3)

(4) **וָע**(아인-바브) 동사

קָם(일어나다, 어근: **קום**), **מָת**(죽다, 어근: **מות**), **אָבָה**(오다, 들어가다, 어근: **בוא**), **בוֹשָׁה**(부끄러워하다, 어근: **בוש**)

(5) **וָי**(아인-요드) 동사

שָׂם(두다, 놓다, ~로 삼다, 어근: **שים**)

Ward, William A., “Semitic Biconsonantal Root SP and the Common Origin of Egyptian čwf and Hebrew sūp: marsh (-plant),” *VT* 24 (1974), 339-349.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ism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나 공용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호간의 언어 접촉(language contact)과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 언어를 차용하거나(loanwords),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다중언어(multilingualism)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중언어를 둘이나 그 이상의 언어의 원어인 정도의 구사력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이차 언어의 극소수의 단어만 알고 있어도 이중언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단의 정의는 이중언어에 대한 개념이 성경신학에 적용되는데 방해가 되었다. 바람직한 정의는 둘이나 그 이상의 언어의 공용으로 보아야 한다(참. Romaine 1995:11-12, Lee 2012:79-80).

이중언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주로 일곱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다(Lee 2012:112-132).

(1) 군사적 침략이나 식민지화는 피식민 지역의 이중언어를 촉진한다. (2)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이주나 인구 유입은 이중언어를 발생시킨다. (3)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계획이나 정책은 이중언어를 유지하게 한다. (4) 이중언어자인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중언어가 발생한다. 느 13:23-24 에 보면, 아스돗, 암몬,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의 자녀들이 이중언어 환경에 놓여있었다고 말한다. (5) 이중언어 지역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중언어자가 된다. 신약 시대에 벳새다의 경우,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 헬라어와 아람어 이중언어자였다. (6) 정규교육도 이중언어자를 만든다. (7) 직업도 이중언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구약시대에 앗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항오를 벌일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랍사게는 유다 민족 전체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말한다. 이런 경우, 랍사게를 이중언어자라고 한다.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아람어]로 말한다(행 21:37-40). 또한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흥분했을 때 자기들끼리는 루가오니아어를 사용하지만, 바울에게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행 14:11-12). 이럴 때 바울과 루가오니아 사람들을 이중언어자라고 부른다.

≡ 이중언어자(bilingual)

이명식(二名式)

binominal

히브리 시에서 평행을 이루는 인명, 지명, 동물, 식물 등에서 속명과 종명이 한 쌍으로 나오는 형식.

영어 binominal 는 라틴어에서 ‘두 개의 이름’(bi-two + nōmin-name)을 뜻하는 단어(binōminis)에서 왔다. “여기의 중심 포인트는 두 개의 명사형이 평행을 이루어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다”(PDSBH). 따라서 ‘한 쌍’(binary)을 뜻하는 것과 다르다.

민 23:8

מָה אֶקֶב לֹא קִבָּה אֵל וּמָה אֶזְעַם לֹא זָעַם יְהוָ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것을 저주할 수 없고

야웨께서 징죄하지 않은 것을 징죄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과 야웨는 동일인으로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갖는다.

민 23:23

כִּי לֹא-נִחַשׁ בְּיַעֲקֹב וְלֹא-קִסָּם בְּיִשְׂרָאֵל

아무도 야곱을 저주할 수 없고

아무도 이스라엘에 마법을 걸 수 없다.

룻 4:11

וַעֲשֵׂה-חַיִּיל בְּאַפְרָתָהּ וּקְרָא-שֵׁם בְּבֵית לְחָם:

네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기를 바라고

베들레헬에서 유명하기를 바란다.

동사 활용(動詞活用)

binyan, binyanim

동사 활용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문법 용어.

히브리어 빈얀(binyan)은 라틴어로 conjugatio 로 불렸으며 이것은 영어의 conjugation 이다. 빈얀은 히브리어 명사 단수형 binyan (직역, ‘구조’ 참조, binā)과 복수형 binyanim (건물들) 이 있다. 이것은 동사 활용, 또는 어형 변화라고도 불린다. 이 단어는 원래 중세 히브리어 문법학자들이 만든 것이며, 히브리어에는 7 개의 활용(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예가 있다. “성경에서 1300 이상의 동사 어근들 중에서 오직 네 개(גלה, ידע, ילד, פקד)만이 7 개의 활용을 한다(JMK § 40aN.1).

≡ 활용(conjugation), 동사 어간(verb stem)

결속형태소(結束形態素)

bound morpheme

형태소의 한 부류로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나 단어에 붙여져야만 하는 형태소.

형태소에는 단독으로, 자립적으로 사용되는 ‘자유 형태소’(free morphemes)와 또 다른 형태소나 단어에 붙여져야만 하는 ‘결속 형태소’(bound morphemes)’가 있다(참. 이정민 외; PDSBH). 일반적으로 결속형태는 홀로 설 수 없고, 다른 (결속 혹은 자유) 형태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s, -ing, -ed, -ly 등이며, 접두사로는 de-, dis-, un-이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3인칭 여성 복수 형태로서 **הִנָּה**에서 첫 자음 **ה**는 남성 형태를 유추하여 나왔다. 짧은 형태 **הָ**는 미쉬나 히브리어의 표준 형태이며 성서 히브리어에는 **הָהֵן**, **לָהֵן**, **הֵן** 같이 결합된 형태소로만 나타난다(JMK §39a).

+ 형태소 (morpheme)

좌우교대서법(左右交代書法)

boustrophedon

고대의 서법으로, 첫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소(βοῦς: ‘황소’)가 이리저리 뛰거나 밧가는 방식(τροπή: ‘회전’)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어 글을 쓰는 방식

이 용어는 헬라어(βουστροφηδόν)에서 나왔다. 소가 밧을 가는 형식이란 뜻으로 우경식(牛耕式)이라고도 한다.

고대 히타이트 비문에 좌우교대서법이 나오며, 고대 헬라어, 고대 라틴어, 에트루리아어 등에서 사용하였다. 솔론의 법(laws of Solon)이 우경식으로 쓰여진 것이 바빌론의 비문에 나온다(J. Hager 1801 Babylon. Inscr. 11). 초기 헬라 비문 기록 방식으로 기원전 6-5 세기 중에 사라졌다. 이런 방식으로 쓰인 비문의 경우, 줄마다의 글자수를 일치시키고 글자들의 세로 줄도 맞춰 기록되었다(ODEG).

간결성(簡潔性)

brevity

히브리 시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서 시의 운율이나 압축을 위하여 어휘들이나 구들을 생략하는 기법.

히브리 시는 시가서 외에도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산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적 특징들이 생략된다. 구체적으로 접속사, 정관사, 관계사, 정관사, 대격의 불변사 등을 생략한다(참. GKC §2s; JMK §3d, 137fN.3).

(1) 정관사 생략(JMK §137fN.3).

삿 5:2-5

עַם (2 절), מַלְכִּים (3 절, 호격), רוֹנִים (3 절, 호격), אֶרֶץ (4 절), שָׁמַיִם (4 절), עֲבִים (4 절), הָרִים (5 절) 등.

수 10:12

שָׁמַשׁ בְּגִבְעוֹן דָּוִם וַיִּרַח בְּעַמְקֵי אֵילָן: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기서는 ‘머물다’는 동사가 제 2 행에 생략된다.

수 10:13

וַיִּדֹם הַשָּׁמֶשׁ וַיִּרַח עֲמֹד

해와 달은 머물러 섰다

여기서는 ‘해’ 앞에 정관사가 나온다.

(2) 전치사 생략

시 18:3

אָקְרָא יְהוָה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

여기서는 ‘부르다’는 동사가 전치사 אֶל을 생략한다.

신 4:7

אֲלֹהֵינוּ בְּכָל-קְרָאֵנוּ אֵלָיו:

우리가 그를 부를 때마다

여기에서는 ‘부르다’는 동사는 전치사 אֶל을 취한다.

깨어진 연계형 고리

broken construct chain

연계형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와 둘째 명사 사이에 전치사나 접미사와 같은 문법적 요소를 삽입하여 연계형을 깨뜨리는 것.

연계형과 속격 사이에 전치사나, 전접 맴이나 다른 문법적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IBHS § 9.3.d)으로서, 연계 고리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일반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족 언어에는 전접 맴을 연계형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와 함께 사용함을 허락한다. 그러나 그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JMK §129u).

출 34:9

אִם-נָא מִצָּאֵתִי תֵן בְּעֵינֶיךָ אֲדֹנִי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면

‘주님’과 ‘눈 앞에’ 사이에 대명사 ‘당신’이 들어가서 연계형의 고리가 깨어졌다.

합 3:13

יִצְאָתָּ לְיֵשַׁע עַמְּךָ לְיֵשַׁע אֶת-מִשְׁיַחְךָ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셨다.

창 14:6

בְּתֹרְכִם שְׂעִיר

세일의 산들

민 21:14

וְאֵת-תְּנֻלִּים אֲרָגוֹן:

아르논의 개울들

시 18:16

אֶפְקֵי מַיִם

물(바다)의 밑바닥

이 구와 평행을 이루는 삼하 22:16 에서 **אֶפְקֵי יָם** ‘강(바다)의 밑바닥’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시 18:16 의 ‘물’에 있는 첫 맴은 전접어로서 **אֶפְקֵי יָם** 에 붙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 110:3

מִרְתֵּם מִשְׁתָּר

새벽의 모태로부터

깨어진 복수

broken plural

복수 형태가 단수 형태와 다른 형태에서 나온 복수

지역들을 언어의 특징으로 구분할 때 사용되는 기준 중 하나로, 아랍어와 에디오피아어는 남부 셈어의 특징을 공유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깨어진 복수형’과 qatala 동사 형태의 발달이다(SBCP 35). 히브리어의 경우 남성 명사 중 세골 명사의 복수 형태와 관련된다.

malak>malakīm>malākīm>מְלָכִים

원래 형은 */malak/인데, 복수형은 malakīm>malākīm>מְלָכִים 이 되었다. 즉, 복수형은 단수 고대형인 */malk 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다(JMK §96Ab).

참고로 아랍어 /'arḍun/ 땅 그러나 복수는 /'araḍūna/ ; 에디오피아어 /ḥelqat/ 반지 그러나 복수는 / ḥelaqāt/ ; 히브리어 מַסְלִים의 단수 מַסֵּל 우상, שְׁחִיתוֹת 단수 שְׁחַת 구덩이, בְּהֻנוֹת 단수 בְּהֻנָּה 엄지 발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의 복수형태들이 있다. 그리고 이 복수 형태들은 다른 단수 형태나 깨어진 유사-복수형태를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JMK §96AbN.3).

달력상의 해

calendar year

히브리어에서 연대기적으로 달력상의 해를 의미할 때에는 שָׁנָה와 שָׁנָת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שָׁנָה는 수사 다음에, שָׁנָת는 수사 이전에 나오며,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다 (JMK §142o).

창 14:5

וּבִשְׁנֵי עָשָׂר שָׁנָה

제 십사년에

왕상 16:10

בְּשָׁנַת עָשָׂרִים וְשֶׁבַע

제 27 년에

레 25:10

שָׁנַת הַחֲמִשִּׁים שָׁנָה

오십년째 해

Haber, Heriberto, “Year or Season,” *JBQ* 22 (1994), 57-58.

가나안어

Canaanite

서북 셈어의 한 하위 범주로서 주전 18-17 세기에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형성된 언어.

주전 2,000 년대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쪽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어 계통의 언어가 형성되었다. 이 언어군에는 아모리어, 우가리트어, 원시 가나안어가 있으며, 이 언어는 비블로스와 시나이 반도의 비문들, 엘아마르나 주석들에 담겨 있다. 주전 2,000 년대가 끝날 무렵부터 가나안어와 아람어는 분리되면서 두 언어의 차이점이 뚜렷해졌고 1,000 년대에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는 초기 가나안어에서 나왔다(참. 사 19:18)로 불리기도 하였다. 모압어, 암몬어도 가나안어에 포함된다.

나베에 따르면 원시 가나안어(주전 18-17 세기)에서 셈어 알파벳, 원시 아람어 문자(주전 1300 년경), 페니키아 문자, 고대 히브리어 서체(주전 800 년), 아람어 서체(주전 700 년)가 나왔다고 한다(SBCP 37). 원시 가나안어의 알파벳은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그리스의 크레테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서양 알파벳의 모체가 되었다.

특히 ‘가나안어 모음 전환’(Canaanite vowel shift)는 a-계통 모음을 o-계통 모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셈어는 일반적으로 a 인데, 가나안어는 o 이다. 아카드어 *anaku* 가 예루살렘에서 온 아마르나 편지에서는 ‘*anoki* 가 된다(EA 287, 66, 69). 후대 히브리어에도. 여러 지명에도 -on 어미가 나오는 것도 가나안어 모음 전환으로 보인다(아스글론, 시돈: 시안, 라브난과 대조).

샌즈-바딜로스에 따르면, “세겔, 게셀, 라기스에서 발견된 원시 가나안어 그림문자 본문들(기원전 17-16 세기)은 그림문자인 세라비트 엘-카뎀(Serabit el-Khadem, 약 기원전 1500 년)의 원시 시나이어 비문처럼, 서북 셈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알파벳 문자이다. 이 비문들에 쓰인 부호들은 종종 단어의 첫 음을 따르고 있다(acrophonic, 두운법). 이 문자의 창시자들은 이집트 상형문자 본문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본래의 문자체계는 완전히 자음 문자체계였고, 27 개의 서로 다른 글자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SBCP 37-38).

우가리트어가 가나안어라는 점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반대하지만, 여러 특성들을 살펴 볼 때 서북 셈어 그룹으로 히브리어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으므로 가나안어 계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창세기 10장의 열국 목록을 보면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이 함의 후손이다(10:6).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족속, 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이다(16-18 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19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땅에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하였다”(민 13:29).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에는 그 땅 전체의 이름이 가나안이었다(민 35:10).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집트의 고고학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주전 2천년대 초기에는 팔레스타인과 남부 시리아를 ‘레테누’로 불렀고, 그 거주자들은 ‘아시아인’이었다. 주전 1500년 이후에도 레테누라는 명칭은 오랫동안 계속 사용되었다. 투트모스3세는 ‘후루’(Hwrw)를 처음에는 종족명(gentilic)으로 부르다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통 명사로 사용하였다. 아메노피스 2세의 본문에 ‘640명의 가나안 포로들, 아내들, 자식들’이라는 보고를 통하여 ‘가나안’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제 19왕조에도 가나안은 남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언급되고, 라암세스 파피루스에는 ‘후루의 가나안인 종들’이 언급된다. 메르넵타 비문에는 ‘가나

안, 후루, 이스라엘, 하티, 아스글론, 게제르, 야노암'등의 지명이 나온다”(Alan R. Millard, “The Cannanites,” in POTT, 29-52에서 요약됨).

+ 셈어(Semitic), 서북셈어(northwest semitic)

– 히브리어(Hebrew), 우가리트어(Ugaritic), 모압어(Moabite), 암몬어(Ammonite) 등

Albright, William Foxwell, “The Old Testament and Canaanite Language and Literature,” *CBQ* 7 (1945), 5-31.

Meier, Samuel A., “Linguistic Clues on the Date and Canaanite Origin of Genesis 2:23-24,” *CBQ* 53 (1991), 18-24.

O'Callaghan, Roger T., “Echoes of Canaanite Literature in the Psalms,” *VT* 4 (1954), 164-176.

Von Dassow, Eva, “Canaanite in Cuneiform,” *JAOS* 124 (2004), 641-674.

영창(詠唱)

cantillation

히브리어 성경을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낭송하기 위하여 필사본의 행간에 악센트 기호를 표기한 시가.

주후 600 년-1000 년 사이에 마소라 학자들이 전수된 본문을 올바르게 읽기 위하여 본문 윗쪽과 아래쪽에 악센트 기호를 표기하였다(IBHS §1.5.4). 이 표기 방식은 아모라임 학파에서 먼저 만들고 마소라 학파가 완성하였다. 원래 히브리어 시편은 예배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므로 노래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바빌론 포로 후 성전 예배가 중단되면서 원래의 곡조는 잊혀지게 되었다. 마소라 영창 부호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적 연구로는 Wickes(Wickes)와 예이빈(Yeivin)의 책이 있다.

창 1:9

וַיֹּאמֶר אֱלֹהִים יְקוֹן הַמַּיִם
(וֹ) (וֹ) (וֹ)

= 악센트(accent)

≡ liturgical cantillations

Wickes, William, *Two Treatises on the Accentuation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KTAV, 1970 [1881, 1887]), reprinted in *The Library of Biblical Studies*, prologomenon by Aron Dotan, edited by Harry Orlinsky.

Yeivin, Israel. *Introduction to the Tyberian Massorah* (Scholars Press, 1980), translated & edited by E. J. Revell. *Massoretic Studies* 5.

기수(基数)

cardinal

기수(基数, cardinal, cardinal number, cardinal numeral)는 수를 나타내는 데 기초가 되는 수를 말하며, 십진법에서는 0에서 9까지의 정수이며, 10 이후에는 다시 0-9가 반복된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수사의 범주 안에 있는 기수는 숫자를 표시하는 명사로서 원래 실명사이거나 형용사였다. 그러나 자주 일부는 실명사로, 또 다른 일부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혼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JMK §100a). 첫 두 기수인 1과 2는 형용사적인 특성이 강하며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서 일치한다. 숫자 2는 쌍수 형태를 갖는다. 3~10은 집합적인 실명사이다. 수식하는 대상이 여성이면 접미사 없는 남성형을 표기하고, 대상이 남성이면 여성형 어미를 붙여 표기한다. 11~19는 ‘10+ 한 자리 수’라는 등위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한 자리 수는 자주 연계형과 유사한 단축형을 취한다. 11, 12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 13~19에서 실명사인 한 자리 수는 수식하는 명사와 반대되는 성을 가지며, 10은 같은 성을 가진다. 20~90에서 십의 배수에 해당되는 수는 십자리 단수의 복수 형태를 가지며, 그 외 두 자리 수는 주로 십자리 수가 앞에 오고 접속사 1로 한 자리 수를 연결하는 형태를 가진다. 100 이상의 수에서 숫자 100은 여성단수이며, 1000은 남성 단수이다. 기본적으로 높은 자리 수부터 각 자리 수마다 접속사 1로 연결하여 표현한다. “느헤미야에는 역대기와 에스라서처럼 기수가 명사 다음에 온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강조를 위하여 기수를 명사 앞에 둔다”(SBCP 139, 144). 히브리어 실례들은 JMK §100을 참조하라.

히브리어의 기수는 여성형 명사와 함께 쓰이는 절대형으로서 אַחַת (일), שְׁתַּיִם (이), שְׁלֹשׁ (삼), אַרְבָּע (사), חֲמִשָּׁה (오), שֵׁשׁ (육), שִׁבְעָה (칠), שְׁמֹנֶה (팔), תְּשַׁע (구), עָשָׂר (십)이 있다.

남성형 명사와 함께 쓰이는 절대형으로서 אֶחָד (일), שְׁנַיִם (이), שְׁלֹשָׁה (삼), אַרְבָּעָה (사), חֲמִשָּׁה (오), שֵׁשָׁה (육), שִׁבְעָה (칠), שְׁמֹנֶה (팔), תְּשַׁעָה (구), עָשָׂרָה (십)이 있다. 그리고 עֶשְׂרִים (이십), שְׁלֹשִׁים (삼십), אַרְבָּעִים (사십), חֲמִשִּׁים (오십), שִׁשִּׁים (육십), שִׁבְעִים (칠십), שְׁמֹנִים (팔십), תְּשַׁעִּים (구십), מֵאָה (백)이 있다.

도표로 표기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수기본-여성형 (F)	남성형 (M)	기수	10-100
1 אַחַת	אֶחָד	10	עָשָׂר
2 שְׁתַּיִם	שְׁנַיִם	20	עֶשְׂרִים
3 שְׁלֹשׁ	שְׁלֹשָׁה	30	שְׁלֹשִׁים
4 אַרְבָּע	אַרְבָּעָה	40	אַרְבָּעִים
5 חֲמִשָּׁה	חֲמִשָּׁה	50	חֲמִשִּׁים
6 שֵׁשׁ	שֵׁשָׁה	60	שִׁשִּׁים
7 שִׁבְעָה	שִׁבְעָה	70	שִׁבְעִים
8 שְׁמֹנֶה	שְׁמֹנֶה	80	שְׁמֹנִים
9 תְּשַׁע	תְּשַׁעָה	90	תְּשַׁעִּים

10 עשר

עשרה

100

מאה

헬라어의 기수는 εἷς(일), δύο(이), τρεῖς(삼), τέσσαρες(사), πέντε(오), ἕξ(육), ἑπτὰ(칠), ὀκτώ(팔), ἑννέα(구), δέκα(십), ἑνδεκα(십일), δώδεκα(십이), ἑκατόν(백)과 같이 구성된다. 이 중 ‘1’에서 ‘4’까지만 변화한다. 특별히 ‘1’의 변화(εἷς, μία, ἓν)는 중요하다. 부정대명사 οὐδείς와 μηδείς도 εἷς와 동일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 수사(numerals)

= 기수(cardinal number [cardinal numeral])

≡ 서수(ordinal number)

네 방위(四方位)

cardinal points

동, 서, 남, 북의 네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는 상대적 위치

히브리어에는 네 개의 방위(צפון 북쪽, נגב 남쪽, ימה 서쪽, קדם 동쪽)와 좌우를 가리키는 ימין 오른쪽, שמאל 왼쪽이 있다. 가끔 ימין은 남쪽, שמאל은 북쪽으로 사용된다.

네 방위를 가리키는 단어들은 그 원래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정관사를 가진다(아래의 수 15:19; 16:8 를 보라). 그러나 방향을 가리킬 때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사를 갖지 않는다(JMK §137q).

창 13:14

שָׂא נָא עֵינֶיךָ וּרְאֵה מִן־הַמָּקוֹם אֲשֶׁר־אַתָּה שָׁם צָפְנָה וְנִגְבָּה וְקִדְמָה וְיָמָ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 28:14

וּפָרַצְתָּ יָמָה וְקִדְמָה וְצָפְנָה וְנִגְבָּה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시 89:13

צָפוֹן וְיָמִין אַתָּה בָּרָאתָם

당신은 북쪽과 남쪽을 창조하셨습니다.

수 16:8

מִתְּפוֹחַ יַלְדָּה הַגְּבוּל יָמָה נָחַל קָנָה וְהָיוּ תַּצְאוֹתָיו הַיָּמָה

또 담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개역개정)

수 15:19

אַרְצַ הַנִּגְב׳ תַּחְתָּנִי

마른 땅

수 15:2

וַיְהִי לָהֶם גְּבוּל נִגְב׳

남쪽

헬라어로 동쪽과 서쪽은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연관된 단어인 ἀνατολή 와 δυσμή 가 쓰인다. 남쪽은 νότος 이고 북쪽은 βορρᾶς 이다. Δίψ 가 신약성경에서는 남서쪽(행 27:12)을 가리키나 LXX 에서는 주로 남쪽(예. 창 13:14)을 가리키지만, 가끔 서쪽(출 27:9)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θάλασσα 가 LXX 에서는 지중해가 있는 ‘서쪽’을 의미하기도 한다(예. 창 12:8). ‘네 방위’를 모두 가리킬 때는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 ἄνεμος 를 사용하여 ἐκ τῶν τεσσάρων ἀνέμων 으로 표현한다(예. 마 24:31).

격(格)

case

문장 안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의 (굴절)어미가 나타내는 문법기능 범주.

영어의 격(case)이란 용어는 라틴어 ‘카수스’(casus)에서 유래하였다. 헬라어에서는 ‘프토시스’(πτῶσις, fall, deflection, modification)라는 용어로 격을 표현하였다. 고대 인도-유럽어와 셈어에는 명사에 격이 있었다. 아카드어에는 명사에서 남성과 여성, 단수, 쌍수, 복수의 격어미가 모두 달랐다. 그리고 주격, 속격, 대격 어미도 모두 달랐다. 라틴어에는 6 개의 격이 있었다. 고대 영어에서는 명사들이 격에 따라 변했으나, 영어는 격이 상실되고 대명사 형태에 격 형태가 남아있으며 주격, 목적격, 속격만 표시된다.

격은 일반적으로 문장 안에서 명사와 대명사가 담당하는 문법기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통사적 격은 주격(nominative), 속격(genitive), 여격(dative), 대격(accurative)를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탈격(ablative), 호격(vocative), 처소격(locative), 도구격(instrumental)과 같이 보다 상세하게 격을 구분하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히브리어에서 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격, 속격, 주격이라는 용어를 라틴어에서 유추하여 사용한다. 비록 “격어미는 히브리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해도, 원래 모든 형태론적인 범주들은 구문론적인 범주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그 종류로는 직접 대격과 간접 대격이 있다”(JMK §125-131)

- 주격(nominative)
- 속격(genitive)
- 여격(dative)
- 대격(accurative)
- 탈격(ablative)
- 호격(vocative)
- 도구격(instrumental)
- 처소격(locative)

격어미(格語尾)

case ending

한 문장 안에서 명사의 통사론적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명사에 붙이는 글절어미

히브리어의 경우 초기 히브리어에서는 격어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경 히브리어에는 격어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히브리어에서 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연계형 구문, 동격 구문, 어순, 전치사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방향의 헤(he local) 같은 경우, 처소격(locative)을 나타내는 격어미가 남아 있다.

창 12:14

וַיְהִי כְּבֹא אַבְרָם מִצִּיֶּרֶם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헬라어의 경우 격어미가 매우 잘 발달되어 격(주격[호격], 속격, 여격, 대격)마다 어미가 있을 뿐 아니라, 어미가 성(남성, 여성, 중성)과 수(단수, 복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어마다 기본적으로 24 개의 격어미가 있다. 성과 수와 격에 따라 격이 변화하는 품사로는 명사, 형용사, 관사, 대명사와 동사 가운데 분사가 있다. 분사는 시제 및 태에 따라 적용되는 격어미가 달라진다.

행 9:31

οἰκοδομουμένη καὶ πορευομένη τῷ φόβῳ τοῦ κυρίου καὶ τῇ παρακλήσει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πληθύνετο.

주님을 경외함과 거룩한 영의 복돋워 주는 말을 받아, 지어지고 진보하여 수가 많아졌습니다.

οἰκοδομουμένη 는 분사 현재 수동태 여성 단수 주격이고, πορευομένη 는 분사 현재 이태중간 여성 단수 주격이다.

τῷ 는 관사로 남성 단수 여격이고, φόβῳ 는 명사로 남성 단수 여격이다.

τοῦ 는 관사로 남성 단수 속격이고, κυρίου 는 명사로 남성 단수 속격이다.

τῇ 는 관사로 여성 단수 여격이고, παρακλήσει 는 명사로 여성 단수 여격이다.

τοῦ 는 관사로 남성 단수 속격이고, ἁγίου 는 형용사로 중성 단수 속격이고, πνεύματος 는 명사로 중성 단수 속격이다.

이와 같이 헬라어는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본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가 성과 수와 격에 따라 격어미를 가진다.

사격(斜格)

casus obliquus

직격(casus rectus)으로 부르는 주격 외의 모든 격.

‘격’을 의미하는 라틴어 *casus* 와 ‘경사진, 비틀어진’을 의미하는 라틴어 *obliquus* 로 이루어진 용어이다. 사격이란 “인도·유럽어에서, 주격, 호격 이외의 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의 경우 원래 단어 끝에 오던 모음의 격 형태소가 탈락하여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원래 주격, 속격, 대격 세 개의 격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주격은 직격으로 부르고, 속격과 대격은 사격으로 부른다. 헬라어는 격 형태소가 뚜렷이 구분되므로, 주격은 직격으로 부르고, 속격과 여격과 대격은 사격으로 부른다(참. JMK §93b).

≡ 직격(casus rectus)

고리형(環形)

casus pendens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의 서두에 독립적으로 나타난 후,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에 의해 다시 재생되는 문법적 형태.

‘고리’는 순수 우리 말로서, “긴 쇠붙이나 줄, 끈 따위를 구부리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든 물건”으로 정의된다. 문법에서 두 개의 다른 문법적 요소가 처음과 끝에 나오면서 서로 이어져 연관되어 ‘이음매’를 만드는 것이 고리어다. 주 문장과 연결이 되지 않는 서로 떨어진 문법적 요소로서 “초점의 대상을 나타내고, 주로 주어 다음 문장에서 재진술된다. 예로,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는 멋진 삽화가였다.’”(PDSBH).

고리형으로 표현된 명사나 대명사는 주문장과 문법적 관계가 없으며, 그 명사가 대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 주문장 안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에 의해서 소급되어 재생된다(참. PDSBH). 이런 고리형 구문은 화자의 마음에 먼저 떠오른 말을 먼저 말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고, 혹은 표현을 명료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다(JMK § 156a).

창 3:12(JMK § 156d)

הָאִשָּׁה אֲשֶׁר נָתַתָּה עִמָּדִי הִוא נְתָנָהּ לִי מִן־הָעֵץ

당신께서 나와 함께 두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나에게 주었습니다.

헬라어의 경우, 주격, 속격, 대격이 절대형으로 쓰이는 데, 그 가운데 절대형으로 쓰인 주격과 대격을 고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격이 고리형으로 쓰인 경우는 ‘걸려있는 주격’(nominates pendens, pendent nominative), 대격이 고리형으로 쓰인 경우는 ‘걸려있는 대격’(accusativum pendens, pendent accusative)이라 부른다.

주격의 예. 행 7:40(R 459)

ὁ γὰρ Μωϋσῆς οὗτος, ὃς ἐξήγαγεν ἡμᾶς ἐκ γῆς Αἰγύπτου, οὐκ οἶδαμεν τί ἐγένετο αὐτῷ.

왜냐하면 이 사람 모세는, (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이 사람 모세”가 ‘걸려있는 주격’으로 고리형이다.

대격의 예. 행 26:3(R 490)

μάλιστα γνώστην ὄντα σε πάντων τῶν κατὰ Ἰουδαίους ἐθῶν τε καὶ ζητημάτων, διὸ δέομαι μακροθύμως ἀκοῦσαί μου.

특히 유대인들이 따르는 모든 관행뿐 아니라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이 전문가이기에, 내 말을 진드근하게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전문가이기”는 ‘걸려있는 대격’으로 고리형이다.

+ 파격 구문(anacoluthon)

직격(直格)

casus rectus

격을 의미하는 라틴어 casus 와 ‘곧은’을 의미하는 라틴어 rectus 로 이뤄진 용어로서, 명사나 대명사의 격을 두 가지(직격과 사격)로 표현할 때, 주격을 이르는 격이며, 그 나머지의 모든 격은 사격이라고 한다.

히브리어의 경우 원래 단어 끝에 오던 모음의 격 형태소가 탈락하여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원래 주격, 속격, 대격 세 개의 격만이 존재하였으므로 주격은 직격으로 부르고 속격과 대격은 사격으로 부른다. 헬라어는 격 형태소가 뚜렷이 구분되므로, 주격은 직격으로 부르고, 속격과 여격과 대격은 사격으로 부른다(참. JMK § 93b).

창 49:11

בְּנֵי אֶחָדָם

그의 아나귀 새끼(SBCP 76)

민 23:18

בְּנֵי צֶפֶר

십볼의 아들(SBCP 76)

창 49:11 의 בְּנֵי(i)는 속격으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연계형에 붙어 있는 고대 격조사 어미이다. 민 23:18 의 בְּנֵי(o)도 마찬가지다.

계 1:5 하

ἀπὸ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ὁ μάρτυς, ὁ πιστός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증인, 충성된 분

사격인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를 주격(ὁ μάρτυς, ὁ πιστός)으로 연이어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주격을 ‘직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 F. J. A. Hort 의 요한계시록 1-3 장 주석).

+ 격(case)

≡ 사격(oblique)

후방대용어(後方代用語)

cataphora, cataphoric

문장이나 문맥 안에서 뒤따라나 나오는 지시물(referent)을 가리키는 대명사적 요소.

후방대용어(cataphora, cataphoric)는 후방조응어(後方照應語)라고도 한다(JMK §154j). 이 단어는 헬라어(καταφορά)에서 온 것으로, “이것은 지시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나 문법적 요소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나올 것으로 예기하고 있으므로 예기적 대명사(anticipative pronoun)라고도 불린다”(PDSBS 38-39). 예로, What I want to say is this: please drive carefully 에서는 this 는 후방대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전방대용어’(anaphoric word)가 가리키는 요소는 짧은 반면, ‘후방대용어’(cataphoric word)가 가리키는 요소는 길게 나타난다. 히브리어의 경우 후방대용어는 명사 문장에서 지시대명사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이 때 지시대명사는 ‘지시적’(deictic)이거나 ‘수식적’(attributive) 힘을 잃어 주어가 아닌 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 3:17

אֱלֹהִים בְּנֵי-לֵוִי בְּשִׁמְתָם גִּרְשֹׁן וְקָהָת וּמֶרָרִי: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탓과 므라리요

대상 2:1

אֱלֹהִים בְּנֵי יִשְׂרָאֵל רְאוּבֵן שִׁמְעוֹן לֵוִי וַיהוּדָה יִשָּׁשְׁכָר וּזְבֻלֹן: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창 2:4

אֱלֹהִים תּוֹלְדוֹת הַשָּׁמַיִם וְהָאָרֶץ בְּהִבְרָאָם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개역)

창세기 2:4a 의 지시대명사를 후방대용어로 본다면, 2:5 이하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 때 ‘엘레’는 ‘이러하다’와 같이 부사적 술어로 번역된다(개역, 표준)(참. JMK § 143b).

대부분의 헬라어 문법책에서는 이 단어를 전방대용어(anaphor, anaphora)의 반대 개념으로만 소개하고(PDSNTG 18)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왈리스(Wallace)는 후방대용어의 개념을 후행사(postcedent) 항목에서 설명한다(W 318, 333, 738). 하지만 헬라어에서도 지시대명사와 관련하여 후방대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후행사(postcedent)

↔ 전방대용어(anaphor, anaphora)

원인절(原因節)

causal clause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의 원인,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절.

영어 causal 은 라틴어 causālis (원인, 이유와 연관된, relating to a cause)에서 나온 문법 용어이다. 원인절은 일반적 원인(because, Lat. cum), 원인 설명(for), 알려진 원인(since)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단순 바브로 부드럽게 나오기도 하며(창 22:12), 대부분 불변화사로 시작된다. 히브리어에서 원인절과 연결된 결과절은 원인절 뒤에 오기도 하고 앞에 오기도 한다.

왕상 1:25

כִּי יָרַד הַיּוֹם וַיִּזְבַּח שׁוֹר

왜냐하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כִּי**는 선행하는 절(1:24)의 사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왕상 20:36

יָעַן אֲשֶׁר לֹא־שָׁמַעְתָּ בְּקוֹל יְהוָה הִנֵּה הוֹלֵךְ מֵאֵלַי וְהִכָּה הָאָרֶץ

네가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서 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יָעַן אֲשֶׁר은 보다 강한 이유를 설명한다.

삼상 18:16

וְכָל־יִשְׂרָאֵל יְהוֹדָה אֹהֶב אֶת־דָּוִד כִּי־הָיָא יוֹצֵא וְנָבֵא לַפְּנִיָּהִם: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들 앞에서 왕래하였기 때문이다.

창 20:3

הִנֵּה מֵת עַל־הָאִשָּׁה אֲשֶׁר־לָקַחְתָּ

너는 네가 취한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인과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전치사는 **עַל**이다.

헬라어의 경우, 원인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로 ὅτι 가 있다. 비평 본문을 구성할 때 학자들은 원인절을 이끈다고 생각되는 ὅτι 앞에 콤마를 넣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구별하였다. 더불어 ὅτι 에 전치사가 결합된 접속사 καθότι 와 διότι 도 원인절을 이끈다.

행 10:38(W 460)

ὃς διῆλθεν εὐεργετῶν καὶ ἰώμενος πάντας τοὺς καταδυναστευομένους ὑπὸ τοῦ διαβόλου, **ὅτι** ὁ θεὸς ἤν μετ' αὐτοῦ.

그분[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돌보시고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행 2:24

ὃν ὁ θεὸς ἀνέστησεν λύσας τὰς ὠδῖνας τοῦ θανάτου, **καθότι** οὐκ ἦν δυνατόν κρατεῖσθαι αὐτὸν ὑπ' αὐτοῦ.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일으키셔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사망이] 자기 밑에 그분을 억류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행 18:9-10

μὴ φοβοῦ, ἀλλὰ λάλει καὶ μὴ σιωπήσης, **διότι** ἐγὼ εἰμι μετὰ σοῦ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ιθήσεται σοι τοῦ κακῶσαί σε, **διότι** λαὸς ἐστὶ μοι πολὺς ἐν τῇ πόλει ταύτῃ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얘기하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네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속한 백성이 이 도시에 많기 때문이다.”

의문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관사와 함께 쓰여 원인절을 구성할 수도 있다.

행 22:30

Τῇ δὲ ἐπαύριον βουλόμενος γινῶναι τὸ ἀσφαλές, **τὸ τί κατηγορεῖται ὑπὸ τῶν Ἰουδαίων**

해서 이튿날 그가 왜 유대인들에 의해 기소되는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접속사 ὅπου 가 이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행 17:1

ἦλθον εἰς Θεσσαλονίκην **ὅπου ἦν συναγωγή τῶν Ἰουδαίων**

그가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Z 215-217).

+ 절(clause)

사역적(使役的)

causative

행위의 주체가 제 삼자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거나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문법의 의미 범주.

사역적 행위는 주로 사역 동사(causative verb)를 이용하여 표현하며, 그 특성상 타동사로 나타난다. 히브리어의 경우 대개 능동형 히필과 수동형 호팔에서 나타나며, 아람어에서는 하펠, 아펠, 샤펠이 있다.

창 8:1

וַיַּעֲבֵר אֱלֹהִים רוּחַ עַל-הָאָרֶץ וַיָּשֹׁב הַמָּיִם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날게 하시니 물이 줄어 들었다.

창 25:19

אֲבְרָהָם הוֹלִיד אֶת-יִצְחָק:

아브라함은 이삭을 날게 하였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헬라어는 각각의 태가 사역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 사역적 능동태: 헬라어 능동태는 단순 능동태(Simple active), 사역적 능동태(Causative active), 상태적 능동태(Stative active), 재귀적 능동태(Reflexive active)가 있다(W 410-414).

행 21:11(W 412)

τὸν ἄνδρα οὗ ἐστὶν ἡ ζώνη αὕτη, οὕτως **δήσουσιν**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παραδώσουσιν** εἰς χεῖρας ἐθνῶν.

이 때가 속한 남자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묶어[묶이게 하여],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줄[넘겨지게 할] 것이다.

(2) 사역적 중간태: 헬라어 중간태는 직접[재귀적] 중간태(Direct middle/Reflexive or Direct reflexive), 중복(Redundnat) 중간태, 간접(Indirect, Indirect reflexive, 수혜적 Benefactive, 집중적 Intensive, 동작[역동적] Dynamic) 중간태, 사역(Causative) 중간태, 허용(Permissive) 중간태, 상호(Reciprocal) 중간태, 이태[디포넌트](Deponent) 중간태가 있다(W 414-430).

행 21:24(W 424)

δαπάνησον ἐπ' αὐτοῖς ἵνα **ξυρήσονται** τὴν κεφαλὴν.

그들이 머리를 깎을[깎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과된] 비용을 당신이 지불하십시오.

(3) 사역적 수동태: 헬라어 수동태는 단순 수동태(Simple passive), 사역적 혹은 허용적(Causative/Permissive) 수동태, 이태[디포넌트](Deponent) 수동태가 있다(W 439-441).

눅 7:7(W 441)

ἰαθήτω ὁ παῖς μου.

나의 아끼는 종이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동사 어미 가운데 사역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όω 와, 때로 사역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어미 -ίζω, -σκω 가 있다(R 149-150).

행 17:6(-όω)

οἱ τὴν οἰκουμένην ἀναστατώσαντες οὗτοι καὶ ἐνθάδε πάρεισιν

온 세상을 선동하던 자들, 이자들이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행 23:12(-ίζω)

Γενομένης δὲ ἡμέρας ποιήσαντες συστροφὴν οἱ Ἰουδαῖοι ἀνεθεμάτισαν ἑαυτοὺς λέγοντες

한데 날이 새자 함께 모의하더니 그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들을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행 1:7(-σκω)

οὐχ ὑμῶν ἐστὶν γινῶναι χρόνους ἢ καιροὺς

기간이나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 능동태(active voice), 중간태(middle), 수동태(passive), 어미(ending)

≡ 히필(hifil)

≡ 호팔(hofal)

Cook, Edward M., "The Causative Internal Passive in Qumran Aramaic," *Aramaic Studies* 8 (2010), 5-12

구심적(求心的)

centripetal

접미사가 주어나 동작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재귀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JMK §133dN.3).

이 용어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전치사 라메드와 관련된 것인데 다른 학자들은 ‘감성/관심의 여격’(dativus ethicus)으로 부른다(GKC §119s; JMK §133dN.2). 그러나 주용-무라오카는 ‘구심적’ 라메드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전치사 라메드와 함께 오는 대명사 접미사는 행위자 자신이 아닌 다른 행위자를 가리키는 반면에, 구심적 라메드는 행위자 자신인 주어나 동작의 주체를 가리켜 재귀적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창 12:1

לְךָ־לֵךְ

너 자신이(스스로) 가라.

창 27:43

וְקוֹם בְּרַח־לְךָ אֶל־לָבָן

너 자신이 (스스로) 라반에게 즉시 도망쳐라

왕하 4:3

שְׂאֵל־לְךָ בָּלִים

너 자신이 (스스로) 그릇을 빌려라

헬라어의 경우는 감성의 여격(dative of feeling [dativus ethicus])을 보라.

≡ 감성의 여격'(dative of feeling [dativus ethicus])

고리(連鎖)

chain

히브리어에서 속격 관계나 연계형과 관련된 구에서 사용되는 것.

고리란 “선적인(linear) 연속(sequence)에서 두 언어적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CDEG). 히브리어의 속격 관계에서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명사들이 속격 관계로 서로 뒤따라 나올 때(a+[b+c+....]), 첫 번째 명사는 일반적으로 전체 고리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JMK §129a, 130c).

창 3:2

מִפְרִי עֵץ-הַגֶּן נֹאכַ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동산’(c)은 ‘열매’(a)보다 ‘나무’(b)와 연계된다. 즉, 열매가 전체 고리의 핵심을 이룬다(a+[b+c+....]) (JMK § 130c)

왕상 3:18

וַיְהִי בַיּוֹם הַשְּׁלִישִׁי לִלְדָּתִי

해산한 후 제 삼 일에 (해산한지 삼일 만에).

직역하자면, ‘나의 해산의 3 째 날에’로서 ‘나의’(c) ‘해산’(b)과 ‘날’(a)이 연계형으로 고리를 만든다. 여격(‘나의 태어난 아이에게’)과 함께 나올 때 고리 관계는 더 분명해진다(JMK § 130d).

교차대구(交叉對句)

chiasm, chiasmus

평행을 이루는 두 행이나 절에서 어순이나 구문이 서로 도치되는 문법적, 수학적 기법

영어 chiasm 은 헬라어 *χιασμός*(교차, 대각적 배치)에서 나왔다. 영문법에서는 교차배열(交叉配列)이라고 한다. 내러티브에도 나오지만, 대부분 시문에서 나오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원문에서 나타나는 이 형식을 번역에서는 살리기 어렵다.

삿 6:28(JMK §155ng)

וְהָיָה נִתְּצָן מִזִּבְחַ הַבָּעַל וְהָאֲשֵׁרָה אֲשֶׁר-עָלָיו כִּרְתָּהּ

그리고 보라 헐렸다(a) 바알의 제단이(b),

곁에 있는 아세라가(b') 찍혔다(a').

시 2:9

תִּרְעַם בְּשִׁבְטִי בִּרְגֶלִי כִּכְלִי יוֹצֵר תִּנְפָצִים:

너는 깨뜨릴 것이다(a) 철장으로(b)

질그릇 같이(b') 너는 그들을 부술 것이다(a')

시 9:12(히 13 절)

כִּי-דָרַשׁ דָּמִים אוֹתָם זָכַר לֹא-שָׁכַח צַעֲקַת עַנְיִים

피흘림을 갚으시는 이는(a) 그들을 기억하시며(b)

잊지 않을 것이다(b')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a')

헬라어 *χιασμός* 는 ‘히(χ)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로(PDSNTG 29), 역교차 대구법(reverted parallelism)로도 불린다(R 1200).

막 2:27(PDSBS 24)

τὸ σάββατον διὰ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γένετο καὶ οὐχ ὁ ἄνθρωπος διὰ τὸ σάββατον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몬 5(R 1200)

ἀκούων σου τὴν ἀγάπην καὶ τὴν πίστιν, ἣν ἔχεις πρὸς τὸν κύριο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ἁγίους

네 사랑과 믿음, 즉 네가 주님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들으며

사랑과 믿음 순으로 언급된 다음, 믿음과 관계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사랑에 관계된 내용이 나중에 나온다.

+ 대구법(parallelism), 문체(style)

상황절(狀況節)

circumstantial clause

주절의 사건에 따르는 여러가지 상황(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동작, 상황 등)을 묘사하거나 분명히 하거나 수식하는 종속절.

상황절은 히브리어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속적이라기보다 병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주절에 동반하는 상황을 가리키므로, 주절에 종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절의 종류로서 비접속사절의 명사절과 동사절, 연결사절의 명사절과 동사절이 있다(JMK §159a-e; GKC §156).

(1) 비접속사절의 명사절로서 상황절(JMK §159b)

창 12:8

וַיֵּט אֱהֱלָהּ בֵּית-אֶל מִיָּם וְהָעִי מִקֶּדֶם

그가 그의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엘이요 동쪽은 아이였다.

창 32:12

פָּרִיבּוֹא וְהִלֵּנִי אִם עַל-בָּנִים:

그가 와서 나를 치고, 자식들과 함께 어미도 칠까 두렵다.

(2) 비접속사절의 동사절로서 상황절(JMK §159c)

창 44:12

וַיַּחֲלֹשׁ בְּגָדוֹל הַחֵל וּבִקְטָן כָּלָה

그는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막내에 이르기까지 조사하였다.

여기서 ‘시작하다’(히)와 ‘마치다’(히)의 두 동사는 상황을 묘사하며 접속사 없이 나온다.

(3) 연결사절(바브와 함께)의 명사절(JMK §159d)

레 26:6

וּשְׁכַבְתֶּם וְאֵין מִתְרִיד

너희가 누워 잘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음’은 명사절이다.

(4) 연결사절(바브와 함께)의 동사절(JMK §159e)

창 24:56

אֶל-תְּאֶתְרוּ אֹתִי וַיְהִי הָעֲלִית דִּרְכִּי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아웨께서 나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으니.

헬라어에서는 분사구문이 상황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헬라어 분사는 동사적(verbale)이거나 형용사적(adjectival)으로 사용된다. 동사적인 경우, 동사적(verbale)으로나 부사적(혹은 동사수식적 adverbial)으로 사용된다. 부사적 혹은 상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절에 대해 시간(temporal), 태도(manner), 수단(means), 원인(cause), 조건(condition), 양보(concession), 목적(purpose; telic), 결과(result)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인다(W 622-640).

특히 속격 독립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을 히브리어의 상황절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참. W 102). 참고로, 분사의 절대형(participle absolute)에는 주격 절대형(nominative absolute)과 속격 절대형(genitive absolute)이 있다(W 653-655). 용례는 속격 독립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을 참고하라.

≡ 속격 독립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

Chankin-Gould, J D'ror et al., "The Sanctified 'Adulteress' and Her Circumstantial Clause: Bathsheba's Bath and Self-Consecration in 2 Samuel 11," *JSOT* 32 (2008), 339-352.

Muraoka, Takamitsu, "The Prefix Conjugation in Circumstantial Clauses in the Tel Dan Inscription?," *VT* 51 (2001), 389-392.

인용공식(引用公式)

citation formula

기존의 문헌에 나오는 표현이나 구, 문장을 인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형화된 문학적 형식.

다른 문장이나 어구를 인용하기 위해 문장 서두나 문장 끝에 첨가하는 문학적 형태로서, 문장 서두에 나올 때는 의문사를 동반하여 문장 전체를 의문문으로 만들기도 한다(GKC § 150e).

수 10:13 (GKC §150e)

הֲלֹא־הִיא כְּתוּבָה עַל־סֵפֶר הַיָּשָׁר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잠 30:1

דִּבְרֵי אֲנֹכִי בְנוֹתָא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이라

헬라어 신약성경의 경우, *γράφω* 나 *λέγω* 동사를 사용해서 인용임을 표시한다. 전자는 완료가, 후자는 완료와 함께 현재시제도 사용된다.

막 1:2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ἐν τῷ Ἡσαΐα τῷ προφήτῃ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행 13:35

διότι καὶ ἐν ἑτέρῳ *λέγει*

이래서 다른 데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시편 16 편 10 절을 인용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행 13:34

οὕτως *εἶρηκεν* ὅτι

그런 까닭에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사야 55 장 3 절을 인용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명료성(明瞭性)

clarity

특정 단어나 문장 요소, 또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여러가지 언어적 수단을 이용하여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

명료성은 형태론과 통사론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참. JMK §125h, 126h; IBHS §4.7c; 9.7b). 마소라 학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독법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자음 본문에 악센트를 추가하여 본문의 독법을 명료하게 하였다(참. IBHS §28.1.6.4.a).

(1) 특정 구에서

신 22:21

בֵּית אָבִיהָ

그녀의 아버지의 집 대신에

בְּבֵית אָבִיהָ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참. 창 31:14

(2) 한정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전치사를 사용

룻 2:3

תְּלַקַּח הַשָּׂדֶה לְלִבָּעוֹ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부분

(3) 목적어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비한정 명사와 함께 목적어 표지를 사용

민 21:9

וְהָיָה אִם-נִשְׁדָּה הַנָּחֶשׁ אֶת-אִישׁ

만일 뱀이 사람을 물면

즉, 다른 것을 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는 경우이다(참. JMK § 125h).

(4) 종속절에서 선행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부사를 사용

왕하 1:4

הַמָּטָה אֲשֶׁר-עָלִיתָ שָׁם

네가 (거기로) 올라갔던 그 침대

헬라어의 경우, 대명사를 반복하거나 주어의 강조하는 αὐτός 를 사용하여(W 318) 대상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낸다.

대명사 반복의 예, 요 5:11(W 317)

ὁ ποιήσας με υἱοῦ ἔχεινός μοι εἶπεν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ἐχεινός 가 사용됨으로써 주어의 더욱 명료하게 나타낸다.

주어를 강조하는 αὐτός 의 예, 행 7:15

καὶ κατέβη Ἰακώβ εἰς Αἴγυπτον καὶ ἐτελεύτησεν αὐτὸς καὶ οἱ πατέρες ἡμῶν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이 일생을
끝마쳤습니다.

αὐτός 가 사용되어 주어가 야곱임을 명료하게 나타낸다.

고전어(古典語)

classical language

서양의 고전에 사용된 언어로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대표적인 고전어로 보며,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와 같은 고대어(ancient language)와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고전 성서 히브리어(classical Biblical Hebrew)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성경시대의 히브리어로서 구약성경의 산문집에 주로 나타난다. 이 언어는 북왕국의 언어와도 약간 다르며, 포로 후기의 언어와도 구별된다.

절(節)

clause

복합 문장의 일부로서 전형적으로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는 단위.

한자에서 절(節)은 원래 ‘마디’를 뜻한다(대 나무, 초목의 마디). 영어 **clause** 는 라틴어 어근 **clausa, close**, (닫다)에서 유래한다. 문법에서 절은 어떤 개념을 온전하게 전달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최소한 주어와 술어 혹은 주어부와 술어부로 구성된다. 영문법에서는 절을 주로 주절, 종속절 및 대등절(**coordinate clause**)로 나눈다.

히브리어에서 술어가 명사인 경우, 명사문장, 혹은 비동사문장이 되며, 술어가 동사인 경우 동사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절이 하나인 경우 단순절, 여러 개인 경우 복합절을 구성하게 된다. 복합절의 경우, 등위절과 종속절로 구분한다. 또한 주어와 술어가 보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형절과 확장절로 구분하기도 한다. 문장 안에서의 절의 역할에 따라 목적절, 상황절, 감탄절, 기원절, 단언절, 저주와 맹세의 절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기도 한다(JMK §153h).

- 상황절(**circumstantial clause**)
- 인과절(**causal clause**)
- 목적절(**final clause**)
- 결과절(**consecutive clause**)
- 단언절(**affirmative clause**)
- 저주기원절(**imprecative clause**)
- 비교절(**comparative clause**)
- 양보절(**concessive clause**)
- 조건절(**conditional clause**)
- 확장절(**covered clause**)
- 예외절(**exceptive clause**)
- 감탄절(**exclamative clause**)
- 설명절(**explicative clause**)
- 명사절(**nominal clause**)
- 부등식절(**nonequative clause**)
- 기원절(**optative clause**)
- 관계절(**relative clause**)
- 시간절(**temporal clause**)
- 반언절(**adversative clause**)
- 분류절(**clause of classification**)
- 정체 판명절(**clause of identification**)
- 맹세절(**clause of oath**)

분류절(分類節)

clause of classification

히브리어의 명사문장에서 술어의 지시물(referent)이 주어의 상태, 조건, 위치나 계층, 범주를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절로서 주어와 술어가 ‘부분적으로 겹치는’(partial overlap) 절(JMK §154ea).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명사문장을 정체 판명절(clause of identification)과 분류절(clause of classification)로 나눈다. 따라서 정체 판명절이 아닌 절을 분류절로 취급한다(F. I. Andersen, 1970). 그러나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분류’ 대신 ‘서술절/묘사절’(clause of description, JMK §154ea)로 부르기도 한다. 분류절의 일반적인 어순을 ‘술어-주어’로 보는 이들이 있으나 (IBHS §8.4.2) ‘주어-술어’와 ‘술어-주어’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욥 1:9

עֲבָרִי אֲנִי וְאַת־יְהוָה אֱלֹהֵי הַשָּׁמַיִם אֲנִי יְרֵא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창 42:11

נָחֲנוּ כְּנִים

우리는 정직하다.

창 45:3

אֲנִי יוֹסֵף

나는 요셉이다.

이 구는 일반적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만약 문맥에서 “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직한 상인이다”를 뜻한다면 서술적이 된다(JMK § 154ea, p. 619, N.1).

창 49:9

גֹּר אֲרֵיָהּ יְהוּדָ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삼상 25:2

הָאִישׁ גָּדוֹל מְאֹד

그 사람은 매우 위대하다.

헬라의 경우, εἶμι 동사가 생략된 문장을 히브리어 명사 문장으로 보고, ‘정체 판명절’ 혹은 ‘분류절’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 7:32

ἐγὼ ὁ θεὸς τῶν πατέρων σου, ὁ θεὸς Ἀβραὰμ καὶ Ἰσαὰκ καὶ Ἰακώβ.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선 구약성경을 인용한 경우, 히브리어 본문이 명사 문장이어서 헬라어 본문도 명사 문장처럼 된 경우가 있다.

행 10:39

καὶ ἡμεῖς μάρτυρες πάντων

“우리까지도 모든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구약성경 인용이 아니지만 히브리어 명사 문장처럼 기술된 경우도 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한 말이므로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번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절(clause)

= 서술절/묘사절(clause of description)

↔ 정체 판명절(clause of identification)

정체 판명절(正體判明節)

clause of identification

히브리어의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지시물(referent)이 동일한 절로서, 주어와 술어가 완전히 겹치는(total overlap) 절.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명사문장을 정체 판명절과 분류절로 나누고, 주어와 술어가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절을 정체 판명절로 취급한다. 정체 판명절에서는 ‘주어-술어’의 어순이 ‘술어-주어’의 어순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참. IBHS §8.4.1).

대하 16:14

הוא יהוה אלהינו

그는 야웨 우리 하나님이다.

창 14:2

וּמֶלֶךְ בִּלְעַ הָיָא-צַעֲרָ

벨라 왕, 즉 소알

원문은 뜻이 모호하며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개역),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표준)로 번역된다. 개역은 벨라가 소알 왕이란 뉘앙스를, 표준은 벨라가 곧 소알임을 말해준다. 문법적으로 볼 때 ‘소알’은 ‘벨라’의 또 다른 지명으로, 벨라의 정체를 판명해 준다.

창 27:32

אָנִי בְנֶךָ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 절(clause)

↔ 분류절(clause of classification)

맹세절(盟誓節)

clause of oath

서약 혹은 맹세의 의미를 표현하는 절

서약 혹은 맹세를 표현할 때는 동사를 사용하거나 감탄 형식을 사용한다. 동사를 사용할 때 긍정적 진술을 위해서는 **נִשְׁבַּע כִּי** 구문을 쓰고, 부정적 진술을 위해서는 **נִשְׁבַּע אִם** 구문을 사용한다. 감탄 형식으로는 ‘~의 생명을 걸고’의 의미로 **יְיָ**를 자주 사용한다(JMK §165b-h).

왕상 1:17

אֶתָּה נִשְׁבַּעְתָּ בַּיהוָה אֱלֹהֶיךָ לְאַמְחֹד כִּי־שְׁלֹמֹה בְנִךָ יִמְלֹךְ אַחֲרָי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주님을 가리켜 당신의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삼하 19:8

נִשְׁבַּעְתִּי כִּי־אֵינֶךָ יוֹצֵא אִם־יָלִין אִישׁ אֶתְּךָ הַלַּיְלָה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오늘밤 그 누구도 당신과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맹세합니다.

삼하 12:5

חַי־יְהוָה כִּי בְּגִמְלוֹת הָאִישׁ הָעֹשֶׂה זֹאת

주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절 (clause)

틈새 문장, 분열 문장(分列文章)

cleft sentence

한 문장의 틈 사이로 다른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므로 틈새 문장이라 하며, 한 문장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질 때 분열 문장이라고 함.

틈새 문장 혹은 틈새 구문이란, “한 문장이나 절을 두 개의 절로 나누어 만드는 것이며, 이때 각 구문은 자신의 정동사를 갖는다”(ODEG). 이 틈새 문장(혹은 분열 문장)이란 용어는 제퍼슨(Jespersen 1937)이 만들었다(조성식 외). 영어의 예를 들면, 분열 문장을 만들 때 주절은 it is.....라는 형식을 취한다. 즉 A loud noise destroyed the lecture hall 이라는 틈새 문장은 It was a loud noise that destroyed the lecture hall 과 It was the lecture hall that a loud noise destroyed 라는 두 개의 분열 문장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종속절은 전제되고(that destroyed the lecture hall), 주절이 단언적 의미를 가진다(It was a loud noise). 일반적으로 주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된다. 틈새 문장을 만드는 이유는 강조점을 만들기 위함이다. 예로서, Bob always plays golf on Sunday 는 강조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진다(ODEG).

It is BOB who always plays golf on Sunday.

It is GOLF that Bob always plays on Sunday.

It is ON SUNDAY that Bob always plays on Sunday.

히브리어에서도 지시대명사가 문장 구조 밖에 있는 선행사를 표시하여 분열 문장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JMK § 143g).

욥 38:19(JMK § 143g)

אֵיזָה הַדֶּרֶךְ יִשְׁכַּן-אֹרֶךְ לְחֹשֶׁךְ אֵיזָה מְקוֹם:

빛이 머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어둠이 머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사 66:1(JMK § 143g)

אֵיזָה בַּיִת אֲשֶׁר תִּבְנֶנּוּ לִי וְאֵיזָה מְקוֹם מְנוּחָתִי: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Jespersen, O., *Analytic Synta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7.

Wertheimer, Ada, “Special Type of Cleft Sentences in Syriac,” *JSS* 46 (2001), 221-241.

접어(接語), 접속어(接續語)

clitic, clitic-like

정상적인 발화(normal utterance)에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주요어(host word)의 앞이나 뒤에 부착되어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결속형태소(bound morpheme).

영어에서 접어에는 동사의 단축 형태인 He's here, I'm leaving 이 있다. 관사 a/an, the 는 후접어라고 할 수 있으며 do 가 단축된 d'you know?도 후접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 후접어란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ODEG).

영어에서는 접어가 단어인지 혹은 접사(affixes)인지 논란이 있다. “접어(접속어)가 접사(affix)와 다른 점은 접사(affix)는 단어의 한 부분으로서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첨가시켜주는 동시에 어근과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반면에, 접어(clitic)는 그것이 의존하는 단어의 일부가 아니고 통사적으로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조성식 외). 또한 접어는 그것이 의존하는 단어와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데, 단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전접어(enclitic), 단어 뒤에 나타나는 것을 후접어(proclitic)라고 한다.

가끔 히브리어 동사절에서 대명사적 성분을 지니는 단어가 ‘접어적 성격(clitic-status)’을 갖거나(JMK §154fg), 특실의 여격 ל가 동사의 주어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접미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명령형일 때, 그 전치사는 ‘접어처럼(clitic-like)’ 규칙적으로 동사 직후에 나온다(JMK §133d).

시 39:13(JMK §154fg)

נָרְ אֲנִי עִמָּךְ

나는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이다.

창 27:43(JMK §133d)

וְקוּם בְּרַח-לְךָ אֶל-לְבָן אָחִי חָרָה: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

여기의 라메드는 ‘특실의 여격’으로 ‘너를 위하여’, 혹은 ‘너 스스로’ 피신하라는 뜻이다.

+ enclitic(전접어), proclitic(후접어)

폐음절(닫힌 음절, 閉音節)

closed syllable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규칙적인 음절에는 열린 음절(개음절)과 닫힌 음절(폐음절)이 있다. 열린 음절은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며, 닫힌 음절은 하나의 모음이 두 개의 자음 사이에 닫힌 것(CVC)으로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다. 또한 불규칙적인 음절들은 불완전하게 닫힌 음절들로서 반 닫힌 음절(semi-closed syllable)이 있다. 그리고 반 닫힌 음절의 변형이며 가상 중복과 유사한 가상적으로 닫힌 음절이 있다(JMK §27b, c).

(1) 닫힌 음절(폐음절)

창 1:29(JMK § 27b)

לָכֶם יְהִי לְאֹכֶל:

너희의 먹을 거리(^{oklā})가 될 것이다.

시 44:5[한 44:4]

אַתָּה־הוּא מֶלֶךְ אֱלֹהִים צִוָּה יְשׁוּעוֹת יַעֲקֹ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malKi})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2) 반 닫힌 음절(JMK § 27c)

창 43:15

וַיַּעֲמְדוּ לִפְנֵי יוֹסֵף:

그들이 요셉 앞에 섰다(^{yal'amdū}).

(3) 가상적으로 닫힌 음절(자발적 중복)(JMK § 27c)

창 13:8

כִּי־אֲנָשִׁים אֶחָד אֲנָחְנוּ:

우리는 한 형제(^{aHim})가 아니냐.

+ 음절(syllable)

≡ 개음절(open syllable)

동족어(同族語)

cognate

동일한 어족(language family)에서 기원하는 언어.

영어 cognate (동족어)는 라틴어 cognātus (co- [together]+ gnātus [born]) 즉, ‘함께 나왔다, 태어났다’에서 나왔으며, 동계어라고도 불려진다. 동족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 언어학 분야에 속하며, 특정한 단어나 형태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동족어는 동일 어족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다른 어족 사이에서 발견되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쉬운 예로, 라틴어 mater, 독일어 Mutter, 영어 mother 는 모두 동족어이다.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는 모두 라틴어에서 나온 동족어이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주후 10 세기부터 성서 히브리어와 동족 언어들에 대한 창조적 문법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예로서 아아디아의 가온과 동시대 인물인 예후다 이븐 쿠라이쉬(Yehuda ibn Quraysh)는 성서 히브리어와 아랍어 단어들을 비교 연구하였고, 두나쉬 이븐 타밈(Dunash ibn Tamim)은 히브리어와 아랍어 어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었다. 숄텐(Schultens 1685-1750)은 히브리어가 유일한 셈어 방언이며, 아랍어가 가장 순수하고 명료한 방언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 세기 중반까지 동족어 연구를 통하여 난해한 히브리어 단어들에 대한 탁월한 언어적 연구를 하였다(IBHS §2.4a, b). 19 세기 중반부터 20 세기에는 다양한 셈어들이 발견됨으로써 셈어 비교연구를 통한 동족어 연구가 활발해졌다.

(1) 동일 어족(셈어)에서의 예

이름 - שֵׁם(셈 - 히브리어), שֵׁם(셈 - 아랍어), اسم (이름 - 아랍어), šumum(슈뎀 - 아카드어)

(2) 다른 두 어족(셈어와 인도-유럽어) 사이의 예

포도주 - יַיִן(야인 - 히브리어), יַיִן(야인 - 아랍어), οἶνος(오이노스 - 그리스어), ‘wein’(와인 - 독일어), ‘wine’ (와인 - 영어)

Campbell, J Y., “KOINŌNIA and its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JBL* 51 (1932), 352-380.

Cross, Frank Moore, “Ugaritic db'at and Hebrew cognates,” *VT* 2 (1952), 162-164.

Furfey, Paul Hanly, “PLOUSIOS and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CBQ* 5 (1943), 241-263.

Hillers, Delbert R., “Hebrew cognate of unuššu/unt in Is 33:8,” *HTR* 64 (1971), 257-259.

Prince, John Dyneley, “An Assyrian cognate of the word ROZNYM,” *JBL* 16 (1897), 175-176.

Wolters, Albert M., “Authentēs and its cognates in Biblical Greek,” *JETS* 52 (2009), 719-729.

동족 대격(同族對格), 동족 목적어(同族目的語)

cognate accusative, cognate object

동사가 자신과 형태가 동일하거나 혹은 같은 어원을 가진 명사 또는 그 동의어를 대격 혹은 목적어로 갖는 것.

동족 대격은 동족 목적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동족 목적어와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동족 목적어는 내부 목적어(inner object), 내적 목적어(internal object) 혹은 독립 목적어(absolute object)라고 부르기도 한다(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경우 동족 목적어가 동사의 의미를 강화하거나 명료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족 목적어가 수식어구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다(참. JMK §125q; GKCS §117p-r).

출 32:30

אַתֶּם תִּטְּאוּם תִּטְּאוּ אֶתְכֶם גְּדֹלָה

너희들은 큰 죄를 지었다.

‘죄’(הַטָּאָה)는 ‘죄를 짓다’와 동일한 어근의 명사이다.

창 2:17 하

כִּי בְיוֹם אֲכָלְךָ מִמֶּנּוּ מוֹת תָּמוּת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여기서는 동족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하여 동작의 강렬성을 부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동족 부정사 절대형은 대격, 즉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용어의 부적절성을 말한다(GKC §117p-r; PDSBH 42).

신 32:44

וַיְדַבֵּר אֶת-כָּל-דִּבְרֵי הַשִּׁירָה-הַזֹּאת בְּאָזְנוֹ הָעַם

그는 백성의 귀에 이 모든 노래의 말을 했다.

삿 16:23

וְסַרְנֵי פִלְשֹׁתַיִם נֶאֱסָפוּ לְזִבְחַת זָבַח-גָּדוֹל לְדָגוֹן אֱלֹהֵיהֶם

블레셋 장관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 모였다.

헬라어의 경우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눅 8:5(R 478)

ἐξῆλθεν ὁ σπείρων τοῦ **σπεῖραι** τὸν **σπόρον** αὐτοῦ.

뿌리는 자가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갔다.

σπεῖρα 와 σπόρον 이 동족 대격이다.

행 2:17(W 190)

οἱ πρεσβύτεροι ὑμῶν **ἐνυπνίοις** ἐνυπνιασθήσονται

너희의 노인네들은 꿈을 꿀 것이다.

ένυπνίοις 가 ένυπνιασθήσονται 의 동족 대격이다.

롬 6:10(R 715)

ὁ γὰρ ἀπέθανεν, τῇ ἁμαρτίᾳ ἀπέθανεν ἐφάπαξ· ὁ δὲ ζῇ, ζῇ τῷ θεῷ.

왜냐하면, 그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한편 그가 산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관계대명사절인 ὁ ἀπέθανεν 과 ὁ ζῇ 이 동족 대격이다.

+ 목적어(object)

응집성(凝集性)

coherence

텍스트의 의미를 문장과 단락과 거대 단락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만들어 주는 의미상의 자질.

영어 coherence 는 원래 라틴어(cohaerere)에서 ‘함께 달라붙다, 엉겨붙다’(cleaving or sticking together)는 뜻을 가지며, 논리에 일관성이 있어서 담론에서는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철학에서는 명제가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속성, 일관성’으로도 불리는 ‘응집성’은 텍스트 언어학 분야의 용어이다. 이 응집성에는 좁은 의미에서는 문장이나 단락 간의 의미론적 결속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접속사(인과적 접속, 시간적 접속, 등위 접속, 역접 접속, 종속적 접속 등), 반복어나 유의어, 지시어나 대명사나 대동사, 환언(paraphrase) 등의 사용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참. 이정민 외 146, 213-214).

넓은 의미에서의 응집성에 대하여 보그랑드(Beaugrande)와 드레슬러(Dressler)는 “담화(discourse)를 담화답게 조리 있게 해주는 의미상의 조건, 지향성(intentionality) 및 논리/인과적 관계 등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이정민 외). 즉, 넓은 의미에서 응집성은 거대 구조에서 주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명제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좁게는 일련의 문장에서부터 넓게는 전체 담론에서 이 일관성과 응집성이 약해진다면, 청중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욥 1:2

קוֹם לְךָ אֶל-נְיִיגָהָ הָעִיר הַגְּדוֹלָה וּקְרָא עָלֶיהָ כִּי-עָלְתָה רַעְתָּם לְפָנַי: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너는 그 위에서 외쳐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헬라어의 경우, 다양한 접속사와 불변화사를 통해 “생각의 응집성이 논리적으로” 표현된다(R 443). 접속사(conjunction)와 불변화사(particle)에 대해서는 해당 용어를 참고하라.

행 8:30

ἄρα γε γινώσκεις ἃ ἀναγινώσκεις;

적어도 당신이 읽는 것들은 알겠습니까?

ἄρα 는 걱정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거나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에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말 ‘짚[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으로 표현할 수 있다. γέ 는 “적어도”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불변화사를 통해 구스 내시를 빌립이 어떻게 이해했는 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응결성(cohesion)

- Brueggemann, Walter, "Narrative Coherence and Theological Intentionality in 1 Samuel 18," *CBQ* 55 (1993), 225-243.
- Gibson, R J., "The Literary Coherence of 1 Timothy," *RTR* 55 (1996), 53-66.
- Morrison, Bruce and Woodhouse, John, "The coherence of Romans 7:1-8:8," *RTR* 47 (1988), 8-16.
- Niccacci, Alviero, "Finite Verb in the Second Position of the Sentence Coherence of the Hebrew Verbal System," *ZAW* 108 (1996), 434-440.
- Viviers, Hendrik, "The Coherence of the ma'alôt Psalms (Pss 120-134)," *ZAW* 106 (1994), 275-289.
- Wenham, Gordon J., "Coherence of the Flood Narrative," *VT* 28 (1978), 336-348.

응결성(凝結性)

cohesion

텍스트의 의미를 문장과 단락과 거대 단락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만들어 주는 형식상의 자질.

응결성은 문장이나 단락 간의 의미론적 결속관계를 말하는 응집성과는 달리, 문법, 어휘, 소리와 같은 다양한 문법적 수단들(various linguistic means (grammatical, lexical, phonological))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결속관계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응결성은 반복, 풀어쓰기, 평행법, 형태소적 혹은 구문적 장치로서 격 체계, 시제 및 시상, 접속사, 평행구문, 통사구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바브 연속법(도치법)이 두 문장의 시간적, 혹은 논리적 결속을 표현하는 응결성의 예라 할 수 있다.

≡ 응집성(coherence)

Segal, David Simha, "Observations on Three War Poems of Shmuel ha-Nagid: A Study in Internal Poetic Cohesion," *AJSR* 4 (1979), 165-203.

Snyman, S D., "Cohesion in the Book of Obadiah," *ZAW* 101 (1989), 59-71.

권유형(勸諭形), 청유형(請誘形)

cohortative

화자의 바람이나 의지나 소원을 1 인칭으로 표현하는 담화 형식.

영어 cohortative 는 라틴어 cohortatio (encouragement)에서 나왔으며, 영문법에서는 격려, 추천, 경고에 사용된다. 국문법에서는 권유형 대신에 청유형(請誘形)이라 부르며, 종결 어미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다.

서북 셈어와 특히 히브리어에서 권유형은 주로 동사의 의지 표현법이다. 예로, 우가릿어에서 iqra ilim n'mm, “내가 은혜로운 신들에게 간구하리라”(I will invoke the gracious gods)를 들 수 있다(CTA 23:1; PDSBH). 히브리어에서 권유형은 지시형(jussive)과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1인칭에 제한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형태론적으로 권유형은 1인칭 단수나 복수 미완료 동사 형태의 끝에 ה를 붙여 길게 만들므로 연장형이라고도 부른다. 그렇지만, 자주 강조형 אָנְּ를 첨가하기도 한다(참. JMK §114 b-f; GKCS §108).

민 9:8

וַיֹּאמֶר אֱלֹהִים מֹשֶׁה עֲמְדוּ וְאַשְׁמְטָה מֵה־יָצְוָה יְהוָה לָכֶם: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서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삼상 17:10

תַּנְוִלִּי אִישׁ וְנִלְחָמָה יַחַד:

“너희는 내게 사람을 달라.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원한다.”

헬라어의 경우, 권유형(과 청유형)의 의미로 cohortative 보다는 hortatory 를 사용한다. 청유형(hortatory)를 보라. 한편, 구약 칠십인 역의 인용으로 사용된 부정어+직설법 미래 형태를 권유형 직설법(cohortative indicative)로 이해하기도 하나(W 452) 이는 금지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성윤, “성서 히브리어 미완료 1 인칭 단수 의지표현법 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1 (2011), 217-248.

≡ 청유형(hortatory), 지시형(jussive)

집합명사(集合名詞)

collective noun

사람이나 사물의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는 명사.

어떤 개체나 개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실명사이므로(예, 가족, 팀, 군대, 청중, 위원회, 무리 등) 그것을 받는 동사, 대명사, 대명사 접미사 등은 단수 또는 복수로 취급되기도 한다. 예로, “동사를 단수 혹은 복수로 취하는 것은 그 그룹을 개체 단위로 볼 것인가, 혹은 개인들의 집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ODEG).

히브리어의 집합명사는 עַם(백성), קָהָל(회중), יִשְׂרָאֵל(이스라엘), בְּהֵמָה(가축) 등이 있다.

왕하 11:20

וַיִּשְׁמַח בְּלִעְמֵהָאֶרֶץ וְהָעִיר שָׁקֵטָה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즐거워했으며 그 성은 조용했다.

여기서 ‘백성은 즐거워했으며’는 3인칭 남성단수이다.

대하 23:21

וַיִּשְׁמְחוּ בְּלִעְמֵהָאֶרֶץ וְהָעִיר שָׁקֵטָה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즐거워했으며 그 성은 조용했다.

여기서 ‘백성은 즐거워했으며’는 3인칭 복수이다.

헬라어에도 집합명사로 사용되어 주어가 단수이나 동사는 복수를 취하기도 하는 명사들이 있다. ὄχλος(무리), πλῆθος(군중, 회중, 청중), οἰκία(주택), λαός(백성) 등이다(R 404, 1391).

마 21:8(R 404)

ὁ δὲ πλεῖστος ὄχλος ἔστρωσαν ἑαυτῶν τὰ ἱμάτια ἐν τῇ ὁδῷ

그런데 더 많은 군중이 자신들의 겹옷들을 길에 폈다.

‘군중이... 폈다’는 3인칭 복수이다.

+ 명사(noun)

연어(連語), 배합(配合)

collocation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낱말들을 낱말의 단어로 분리시키지 않고 거의 통합된 단위로 파악해야 하는 어군(word group).

영어 collocation은 ‘함께’(co-)라는 단어와 ‘장소’(location)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서 라틴어(collocatio, ‘arrangement, ordering’)에서 나왔다. 이것은 현대언어학에서는 퍼스(J. R. Firth)가 만든 전문 용어이다. 언어학에서 연어란 “문장 안에서 하나의 특정한 단어를 다른 특정 단어와 습관적으로 병치하거나 연관시키는 것”이다(ODEG). 현대 언어학에서는 여러 품사들(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연결사 등)이 한 문장 안에서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신 7:12(JMK §124nN)

וְשָׁמַרְתֶּם וְשִׁיתֶם אֹתָם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신 5:1

וְשָׁמַרְתֶּם לְשִׁמְרָתָם

지켜 행하라

창 31:27

לָמָּה נִחַבְתָּ לְבָרְךָ

어찌하여 네가 몰래 도망하고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헬라어 동사의 병치 현상에 대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지만, 병치로 볼 수 있는 헬라어의 예로, ἀποκρινομαι와 λέγω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행 4:19

ὁ δὲ Πέτρος καὶ Ἰωάννης ἀποκριθέντες εἶπον πρὸς αὐτούς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로 대꾸하여 말했습니다.

두 명사가 병치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조하기도 한다.

마 6:25(W 111)

οὐχὶ ἡ ψυχὴ πλεῖόν ἐστιν τῆς τροφῆς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요 2:21(W 98)

ἐκεῖνος δὲ ἔλεγεν περὶ τοῦ ναοῦ τοῦ σώματος αὐτοῦ

그런데 저분은 자신의 몸인 성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 결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

Firth, J.R. 1957. Modes of meaning. In his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190-215.

콜웰 법칙

Colwell's rule

헬라이어 한정적 서술명사의 관사 사용에 대한 법칙.

콜웰은 헬라이어 한정적 서술명사의 관사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정적 서술명사는 대개 관사를 가진다. 다만, 한정적 서술명사가 동사 앞에 나올 때는 보통 관사가 없다. 고유명사는 대부분 술어 앞에서 관사가 없다. 관계절에서는 관사가 있는 없는 서술 주격이 동사 앞에 나온다(Colwell, 1933, 20).

콜웰의 법칙과 관련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사 앞의 무관사 서술주격(anarthrous pre-verbal predicate nominative)과 동사 뒤의 무관사 서술주격(anarthrous post-verbal predicate nominative)이 있는데, 전자는 질적인(qualitative) 것과 한정적인(definite) 것이 있고 후자는 질적인 것과 비한정적인(indefinite) 것이 있다. 따라서 용법으로 구분하면, 한정적 서술주격(Definite predicate nominatives), 질적 서술주격(Qualitative predicate nominatives), 비한정적 서술주격(Indefinite predicate nominatives)이 있다(참. W 256-270). 동사에 앞서는 무관사 서술주격(anarthrous pre-verbal predicate nominative)을 콜웰의 구문(Colwell's construction)이라 부른다. 하너는 ‘콜웰의 구문’ 대부분은 한정적인지 비한정적인지를 나타내기보다 질적(qualitative)인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Harner 1973, 75-87).

행 13:33

υἱός μου εἶ σύ, ἐγὼ σήμερον γεγέννηκά σε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υἱός μου 에 관사가 없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콜웰이 제시한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 관사(article)

Colwell, E. C., “A Definite Rule for the Use of the Article in the Greek New Testament,” *JBL* 52 (1933), 12-21.

Harner, Philip B., “Qualitative Anarthrous Predicate Nouns: Mark 15:39 and John 1:1,” *JBL* 92 (1973), 75-87.

명령(문)(命令[文])

command

전통문법에서 인정된 문장의 네 가지 기능인 진술, 명령, 의문, 감탄 가운데 하나로서 그 자체의 독특한 명령 구문을 갖는 문장

명령형은 “앞으로 진격하라, 저것 치워라, 담배 피지 마라, 지금 오라”와 같이 일반적으로 동사 문장으로 나오지만, “금연, 주목” 등에서와 같이 명사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창 50:2(JMK §177j)

וַיֹּצֵא יוֹסֵף אֶת־עַבְדָּיו אֶת־הַכֹּהֲנִים לַחֲנֹט אֶת־אֲבִיו וַיַּחַנְטוּ הַכֹּהֲנִים אֶת־יִשְׂרָאֵל:

요셉은 시의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시신에 향을 넣게 하였고, 시의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였다.

(요셉은 시의들이 아버지의 시신에 향을 넣도록 명령했다)

창 42:25(JMK §177j)

וַיֹּצֵא יוֹסֵף וַיִּמְלֵא אֶת־כְּלִיָּהֶם בָּרֶבֶץ וּלְהָשִׁיב...

요셉은 명령하여 그들의 자루에 곡물을 채우고 그리고 ... 을 도로 넣게 명령하였다.

헬라어는 동사의 법에 명령법이 있어서 명령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행 22:27

λέγε μοι, σὺ Ῥωμαῖος εἶ;

“내게 말하라. 너는 로마 사람이냐?”

행 22:24

ἐκέλευσεν ὁ χιλιάρχος εἰσάγεσθαι αὐτὸν εἰς τὴν παρεμβολήν

천부장은 그를 병영으로 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명령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하여 명령을 표현하기도 한다.

+ 법(voice)

평언(評言)

comment

한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갖는 부분으로서 주 정보인 ‘화제’(topic)에 대해 평가하는 말.

평언(評言) 혹은 평어(評語)는 일반적으로 ‘평가거나 평가하는 말’이지만, ‘평언’(comment)이란 영문학의 용어로서 ‘화제’(topic)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즉, 화제는 대부분 “문장의 처음에 나와서 추가적인 내용 전개를 위하여 초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평언’은 “문장 안에서 정보 전달과 연관된 화제(topic)에 대하여 보충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이다”(CDEG). 예로, “우리 식구는 주일에 교회를 간다”에서는 ‘우리 식구’가 화제이며, ‘주일에 교회를 간다’가 평언이다. 그러나 “주일마다 우리 식구는 교회를 간다”라는 문장에서는 ‘주일마다’가 화제가 되며, ‘우리 식구는 교회를 간다’가 평언이 된다.

따라서 문장을 ‘화제’와 ‘평언’으로 분석하는 구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구성요소인 주어-술어(subject-predicate)와 달라진다. 왜냐하면, 평언 안에 주어-술어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학에서는 문장을 주제-논술(theme-rheme), 화제-평언(topic-comment)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화제-평언은 문법적인 시각이 아닌 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시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하는 것이 화제이며 ‘그것에 대해 무엇이든 이야기하는가’하는 것이 평언이다. 정보 이론에 의하면 알려진 정보가 화제이며, 새로운 정보가 평언에 속한다”(이정민 외; 조성식 외).

영문법에서는 ‘평언절’(comment clause)라는 범주가 있으며, 이것은 준-형식적인 단문절(quasis-formulaic mini-clause)로서, I think, you know, I believe, I guess, I suppose, it seems, they say 등의 형식이 있다(CDEG).

헬라어의 경우, 전접어에 강세가 있으면 평언이 기대된다(R 233).

행 5:25(R 233)

ἰδοὺ οἱ ἄνδρες οὓς ἔθεσθε ἐν τῇ φυλακῇ **εἰσὶν** ἐν τῷ ἱερῷ ἐστῶτες καὶ διδάσκοντες τὸν λαόν
“보십시오! 나리께서 감옥에 둔 남자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 25:22(R 233)

αὔριον, **φησὶν**, ἀκούσῃ αὐτοῦ.

그가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 화제(topic)

공성(共性)

common gender, communia

자연적 성(性)인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성(性)으로 주로 생물적 성(性)이다.

‘공성’(共性)이란 주로 성(性)의 구별이 없는 수많은 생물명사(animate noun)가 공유하는 성이다. 생물명사의 예로, 사람, 아기, 말, 양과 같은 것이 있다. 또한 성과 상관이 없는 생물에도 협소하게 ‘그것’(it, which)으로 표현된다. 공성은 통성으로 불리기도 하며, 두 가지 성으로 모두 통용되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 같은 굴절어(inflexional language)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사가 남성, 여성이라는 문법적 성을 갖는다. 이 문법적 성은 자연적 성과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한 낱말이 구문 여하에 따라서 남성형이나 여성형이 될 때 공성(共性, communia)이라 한다(GKCS §122b).

창 24:63 (GKCS §122d)

וְהָיָה גַּמְלִים בְּאֵיִם:

낙타 때가 오고 있다 (남성)

창 32:16 (GKCS §122d)

גַּמְלִים מִיִּנְקוֹת וּבְנֵיהֶם שְׁלֵשִׁים

젖을 빨리는 낙타와 삼십과 그들의 새끼 (여성)

출 21:37 (GKCS §122d)

תִּמְשָׁה בָּקָר יִשְׁלַם תַּחַת הַשּׁוֹר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남성)

욥 1:14 (GKCS §122d)

תִּבְקַר הָיָה חֲרָשׁוֹת וְהָאֲחֻזּוֹת רָעוֹת עַל־יְדֵיהֶם: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여성)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히브리어와는 달리 성의 구분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사에 적용되고, 동사에는 분사에만 적용된다. 헬라어에도 공성을 가진 단어가 있다. *παῖς*(아끼는 종), *ὄνος*(나귀), *θεός*(하나님, 신)이다(R 252). 이 가운데 *θεός*는 공성이지만 여성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R 253).

행 19:11(남성, 공성)

Δυνάμεις τε οὐ τὰς τυχοῦσας ὁ θεὸς ἐποίει διὰ τῶν χειρῶν Παύλου

이에 좀처럼 만나기 힘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행하십니다.

행 19:37(여성, 공성)

ἡγάγετε γὰρ τοὺς ἀνδρας τούτους οὐτε ἱεροσὺλους οὐτε βλασφημοῦντας **τὴν θεὸν** ἡμῶν.

“너희가 신전도둑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자도 아닌 자들을 끌고 왔기 때문이다.”

행 19:27(여성형)

τὸ τῆς μεγάλης θεᾶς Ἀρτέμιδος ἱερὸν εἰς οὐθὲν λογισθῆναι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ὄνος(나귀)는 마태복음 21 장 2, 5, 7 절과 요한복음 12 장 15 절에서는 여성으로 누가복음 13 장 15 절에서는 남성으로 쓰인다.

이 가운데 παῖς(아끼는 중)는 신약에서 남성으로만 쓰인다(행 3:13, 26; 4:25, 27, 30; 20:12). 공성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단어로 παιδίσκη(마 26:69; 막 14:66, 69; 눅 12:45; 22:56; 요 18:17; 행 12:13; 16:16; 갈 4:22, 23, 30, 31)가 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여성형만 나오지만 일반 문헌에는 남성형으로도 쓰인다.

+ 성(gender)

≡ 남성(masculine), 여성(feminine), 중성(neuter)

보통명사(普通名詞)

common noun

명사의 일종(class)으로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 장소, 사물 등의 명칭(name)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와 대조되는 명사.

날날의 특정 개체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고유명사와 달리, 사람, ‘나라’, ‘도시’, ‘강’, ‘책’, ‘개’, ‘집’ 등 어떤 개체를 전체로 묶어 사용하는 명사의 범주로서 일반명사, 통칭명사라고 한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 달’ 따위는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유명사에 속하지 않는 반면, ‘홍길동’과 같은 인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는 경우라도 고유명사에 속한다. 한편 ‘홍길동’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라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 고유명사는 유일한 존재를 가리키므로 일반적으로 관사를 취할 수 없고, 한정적 속격과 결합할 수 없는 반면, 보통명사는 관사나 한정사와의 결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경우 보통명사는 그 자체가 비한정적이며, 관사, 대명사 접미사, 지시형용사 등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참. JMK §137).

(1) 관사와 함께 한 예

הָאִישׁ הָאָרֶץ
그 사람 그 땅

(2) 대명사 접미사와 함께 한 예

אֱלֹהֵינוּ בֵּיתִי
우리의 하나님 나의 집

(3) 지시형용사와 함께 한 예

הַיּוֹם הַזֶּה בְּהָר הַהוּא
이 날 저(그) 산에서

히브리어와 유사한 헬라어의 예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관사와 함께 한 예

ὁ ἄνθρωπος(마 4:4; 비교. 신 8:3) ἡ γῆ(마 5:18)
그 사람이 그 땅이

(2) 인칭대명사와 함께 한 예

ὁ θεὸς ἡμῶν(막 12:29; 비교. 신 6:4) ὁ οἶκός μου(마 21:13; 비교. 사 56:7)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이

(3) 지시대명사와 함께 한 예

Μετὰ δὲ ταύτας τὰς ἡμέρας(눅 1:24) ἐν τῷ ὄρει τούτῳ(요 4:20)

이 날들 뒤에

이 산에서

+ 명사(noun)

↔ 고유명사(proper noun)

교체(交替)

commutation

거친 발음을 부드러운 발음으로 바꾸는 일종의 자음 대체 현상

히브리어에서 교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경강점 (degesh forte)이 생략되는 것처럼 거친 발음을 부드러운 발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소라본문 (MT)에서 이를 종종 라페(Raphe)로 표시되는 데, 라페는 자음 위에 가로 획을 긋는 것이다 (참. PDSBH). 다른 하나는,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한 글자가 좀더 부드러운 자음으로 변형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웃다’라는 의미를 가진 צחק의 צ가 שחק의 ש으로 바뀌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아람어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이다. 그 외의 예로는 ‘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לחץ와 נחץ, ‘닫다’라는 의미를 가진 סגר와 סבר, ‘도망가다’의 뜻을 가진 מלט와 פלט 등이 있다.

이러한 자음 교체는 문법적인 억양(grammatical inflexion)보다 어근의 사전편찬적인 작업에 속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문법적인 억양의 경우는 히트파엘 동사의 치환(ת와 ט의 교체)이나 아인-바브(ע"ב) 동사 혹은 아인-요드(ע"י)에서 ו와 י의 교체가 있다(참. GKC §19a).

≡ 동화(assimilation)

≡ 이화(dissimilation)

비교급(比較級)

comparative

주로 영어, 불어, 독어 계통의 언어에서 비교를 나타내기 위한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론적으로 갖는 급수로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여 단순 형태가 의미하는 질(quality)이나 성질(attribute)보다 더 높고 낮은 정도를 표현하는 기법.

영어에서 형용사나 부사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절대형보다 더 높거나 낮은 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비교급을 사용한다. 예로, 비교급 better 는 절대형 good 보다 더 좋고, 최상급 best 보다는 못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표현이 극도로 단순하며, 비교급이나 고양형(영어 better, lesser 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많은(more) 더 적은(less)을 뜻하는 비교급 부사도 없다. 즉 히브리어는 문장이 비교할 용어를 하나만 표현하였을 때 형용사적 형태나 동사적 형태만으로 만족해야 한다(JMK §141g).

민 26:54(JMK §141g)

לָרֹב תִּרְבֶּה נַחֲלָתוֹ

수가 더 많은 자에게는 더 큰 몫을 주어야 한다

삿 9:2(JMK §141g)

מִה־טוֹב לָכֶם הִמָּשְׁל בָּכֶם שְׂבָעִים אִישׁ כָּל בְּנֵי יִרְבֵּעַל אִם־מָשָׁל בָּכֶם אִישׁ אֶחָד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삼하 14:32(JMK §141g)

טוֹב לִי עַד אֲנִי־שָׁם

내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나에게 더욱 좋았겠다

헬라어에서 원급(positive)은 종류(kind)에, 비교급(comparative)과 최상급(superlative)은 정도(degree)에 초점이 있고, 비교급과 최상급의 차이는 수량(number)에 있다(W 296). 고양형(elative)은 원급을 강화(intensification)시킬 때 사용한다(W 296). “신약성경에는 대략 7399 개의 원급 형용사, 198 개의 비교급 형용사, 191 개의 최상급 형용사가 있다”(W 298). 비교급을 만드는 어미로는 -ιον(예. μείζων)과 -τερος(예. πρεσβύτερος)가 있다(R 276-277).

(1) 원급이 비교급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마 18:8(W 297)

καλόν σοί ἐστὶν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ζωὴν κυλλὸν ἢ χωλὸν ἢ δύο χεῖρας ἢ δύο πόδας ἔχοντα βληθῆναι εἰς τὸ πῦρ τὸ αἰώνιον.

내반측으로 걷거나 다리를 절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과 두 발을 가진 채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좋다. 불변화사 ἢ 다음이나 전치사 παρά 혹은 ὑπέρ 다음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나온다(W 299).

(2) 비교급의 기본적인 용법은 ‘비교’이다(W 299).

행 4:22

ἐτῶν γὰρ ἦν **πλειόνων** τεσσεράκοντα ὁ ἄνθρωπος ἐφ’ ὃν γέγονει τὸ σημεῖον τοῦτο τῆς ἰάσεως.

이 치유 표적이 이뤄진 사람이 사십여 세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3) 비교급이 원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비. W 305).

행 17:21(Z 150)

Ἀθηναῖοι δὲ πάντες καὶ οἱ ἐπιδημοῦντες ξένοι εἰς οὐδὲν ἕτερον ἠὲ καίρου ἢ λέγειν τι ἢ ἀκούειν τι **καινότερον**.

당시 모든 아덴 사람들과 방문객들은 (더)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소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비교급은 원급의 의미만 갖든지, 아니면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다(Z 150).

(4) 비교급이 최상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고전 13:13

μείζων δὲ τούτων ἡ ἀγάπη.

하나 이것들 가운데 제일은[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5) 비교급이 고양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행 13:31(W 300)

ὃς ὥφθη ἐπὶ ἡμέρας **πλείους** τοῖς συναναβᾶσιν αὐτῷ ἀπὸ τῆς Γαλιλαίας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그분은 그분을 따라온 이들에게 한참 동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행 17:22(Z 147; W 300)

ἄνδρες Ἀθηναῖοι, κατὰ πάντα ὥς **δαισιδαιμονεστέρους** ὑμᾶς θεωρῶ.

“아덴 시민 여러분, 모든 면에서 매우 종교적인 여러분을 목도했습니다.”

(6) 최상급이 비교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행 1:1(Z 151; W 304)

Τὸν μὲν **πρῶτον** λόγον ἐποιήσαμην περὶ πάντων

한편 지난번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들에 관해 썼습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πρῶτος**는 쌍이 아니라 복수를 전제하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다른 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여기서는 최상급이 비교급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 원급(positive), 최상급(superlative), 고양형(elative)

비교절(比較節)

comparative clause

주절에 묘사된 일의 상태와 비교하는 절로서, 비교를 표시하는 부사적 수식어로 시작되는 종속절.

영어에서 비교절은 *than* 혹은 *as* 로 시작한다.

히브리어 비교절에서 조건절을 열어주는 불변사는 כַּאֲשֶׁר이고, 귀결절을 시작하는 불변사는 כִּי가 자주 사용된다. 비교의 대상이 절이 아닌 일반적인 실명사일 경우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된다(JMK §174a-b).

삿 1:7

כַּאֲשֶׁר עָשִׂיתִי כֵן שָׁלַם-לִי אֱלֹהִים

내가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다.

헬라어의 경우, 비교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는 καθώς, ὥς, ὥσπερ, καθάπερ 등이 있다(W 662, 663 n. 13).

행 11:15

ἐπέπεσεν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π' αὐτοὺς ὥσπερ καὶ ἐφ' ἡμᾶς ἐν ἀρχῇ.

처음에 우리 위에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 절 (clause)

비교(比較)

comparison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표현하는 기법

영어에는 형용사, 부사에는 정도의 비교를 나타내는 형태변화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전치사 **מִן** 혹은 **כִּ**를 함께 사용하여 비교급과 최상급을 표현하며, 형용사에 대명접미사를 붙여서 최상급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외에, 동일한 형용사가 두 번 반복되어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두 개의 동일한 실명사를 사용하여 최상급 개념을 표현하기도 한다(JMK §141l). 또한 연계형을 가진 추상명사가 형용사 기능을 함으로써 최상급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JMK §141d), 하나님을 의미하는 **אֱלֹהִים**과 **אֵל**같은 명사가 ‘매우’ 혹은 ‘아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JMK §141n), 이러한 경우들은 많지 않다.

(1) 비교급에 관해서는 비교급(comparative) 항목을 참고하라.

(2) 관사 혹은 대명접미사를 가진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표현한 예는 다음과 같다.

아 1:8(JMK§141j)

הַיָּפֶה בַּנְשִׁים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

욥 3:5(JMK§141j)

מִגְדֹּלָם וְעַד־קֶטְנָם

그들 중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3) 연계형을 가진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표현한 예

대하 21:17(JMK§141e)

קָטָן בָּנָיו

그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린 자

(4) 비한정적 실명사에 연계된 형용사가 최상급 개념을 표현한 예

삼상 17:40(JMK§141d)

חֲמִשָּׁה חֲלָקִי אֲנִי

다섯 개의 아주 매끄러운 돌

חֲלָקִי는 חֲלָק의 연계형 복수 명사이다. 이 구문을 직역하면, ‘다섯 개 돌들의 매끄러움’이 된다. 이 구문은 ‘매끄러움’이라는 추상명사를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드문 예이다.

민 17:3

רַקְעֵי פָחִים

아주 얇은 판

(5) 두 개의 동일한 형용사의 반복

삼상 2:3(JMK§141k)

גְּבֻהָהּ גְּבֻהָהּ

아주 교만하게

(6) 두 개의 동일한 실명사, 즉 단수와 복수의 결합으로 최상급 표현한 예
출 26:33(JMK§141l)

קָדַשׁ הַקְּדָשִׁים

지성소(가장 거룩한 것)

(7) אֱלֹהִים와 אֱל과 같은 신적 통칭은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 36:7(JMK§141n)

תְּרֵי אֵל

매우 높은 산들

삼상 14:15

תְּרַצַּת אֱלֹהִים

매우 큰 두려움

헬라어에서는 비교를 위해 형용사(원급, 비교급, 최상급)(R 276-281), 불변화사 ἤ(R 661), 상호관계대명사 ὅσος(R 733) 등이 쓰인다. 이 외에도, 이중 비교(double comparison)을 위해 부사 μᾶλλον 이 쓰이기도 하고(R 663-664), 비교 대상이 없이 비교가 사용되기도 한다(R 664-666).

(1) 비교를 위해 사용된 형용사의 예와 불변화사 ἤ 가 사용된 예는 비교급(comparative) 항목을 참고하라.

(2) 상호관계대명사 ὅσος(R 733)가 사용되고 이중 비교를 위해 부사 μᾶλλον 이 쓰인 예
막 7:36

ὅσον δὲ αὐτοῖς διεστέλλετο, αὐτοὶ μᾶλλον περισσότερον ἐκήρυσσον.

하나 그들에게 일러주실수록 그들 자신은 더욱 심하게 전파하였다.

(3) 비교 대상이 없이 비교가 사용된 예

행 18:26

ἀκούσαντες δὲ αὐτοῦ Πρίσκιλλα καὶ Ἀκύλας προσελάβοντο αὐτὸν καὶ ἀκριβέστερον αὐτῷ ἐξέθεντο τὴν ὁδὸν [τοῦ θεοῦ].

그의 말을 듣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굴라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자세히’라는 의미를 가진다(R 665).

행 24:22

ἀνεβλέπετο δὲ αὐτοὺς ὁ Φῆλιξ, ἀκριβέστερον εἰδὼς τὰ περὶ τῆς ὁδοῦ εἴπας

결국 벨릭스가 그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기에 말하면서요.

벨릭스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진다(R 665).

행 25:10

Ἰουδαίους οὐδέν ἡδίκησα ὡς καὶ σὺ **κάλλιον** ἐπιγινώσκεις

“나는 유대인들을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도 한층 더 잘 알게 된 것처럼요.”

‘베스도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스도 자신이 바울의 무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바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R 665).

행 27:13

Ὑποπνεύσαντος δὲ νότου δόξαντες τῆς προθέσεως κεκρατηκέναι, ἄραντες **ἄσσον** παρελέγοντο τὴν Κρήτην.

한데 남풍이 가벼이 불어 뜻한 바를 이룬 것 같아, 닻을 올리고 그레데 섬을 바싹 끼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바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R 665).

≡ 비교급(comparative)

보상 장모음화(報償長母音化)

compensatory lengthening

인접 자음이 소실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모음이 연장되는 현상.

영어에서는 ‘통시적 음성학적 과정’으로서, 한 음이 상실될 때, 그 이웃하는 음절을 길게 발음해 주는 현상으로 보상연장(報償延長)이라고 한다. 예로, 중세영어 north의 r은 현대영어 발음에서 소실되었지만, 그 대신에 앞에 오는 모음(o)이 원래의 단모음에서 연장되어 장모음(no:)이 되었고, hard도 보상 장모음(ha:d)을 갖는다. 이리하여 원래의 두 음가를 지닌 질적인 관계를 보전한다.

히브리어의 경우 뒤따르는 후음으로 인해 앞서는 음이 장음화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예로, הָעִיר 대신 הָאָרֶץ, הָעִיר 대신 הָאָרֶץ. 후음 앞에서 모음 ִ(i)와 ֶ(u)가 각각 ֵ(e) ֹ(o)로 바뀌는 것을 보면 ִ(i)와 ֶ(u)는 원래 장모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참. JMK §6d).

예. מֵעֵן 대신 מֵעֵן, מֵאֵן 대신 מֵאֵן, מֵבָרֵךְ 대신 מֵבָרֵךְ

보어(補語)

complement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구, 절)에서 서술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채워주는 수식어(참. 표준국어대사전)

영어 complement는 라틴어에서 ‘채우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complere)와 명사(complémentum)에서 왔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채워 완성시키는 수식어’가 바로 보어이다.

보어란 “(1) 동사와 함께 문장의 술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소위 보어 외에 직접 목적어 및 부사까지 포함하는 경우, (2) (1)에서 직접 목적어만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3) 동사에 불가결한 요소, 예를 들면 He put his affairs in order 에서의 in order 와 같이, 그것이 없으면 동사의 의미가 불완전해진다고 생각되는 것과 (4) He is a fool 과 He grew wiser 에서의 a fool 이나 wiser 와 같이 연계사(copula)와 함께 나타나면서 주어의 서술을 완전하게 하는 명사 형용사 등 소위 주격보어라 불리는 것(SVC 구문의 C 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They elected him president 의 president 처럼 목적보어(SVOC 구문에서 C 에 해당하는 것)를 가리키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4)라고 말할 수 있다”(이정민 외). 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 ‘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철수가 지도자가 되었다’의 ‘지도자가’ 따위이다.

렘 30:10

כִּי הִנְנִי מוֹשִׁיעַדְּמַרְחֹק וְאַתָּה זֹרֵעַדְּמֵאֶרֶץ שְׂבָבִים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니,

전 7:21

אֲשֶׁר לֹא־תִשְׁמַע אֶת־עֲבָדָי מִקִּלְלִי:

너는 네 종이 저를 저주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출 34:6

וַיִּקְרָא יְהוָה אֵל רַחוּם וְחַנּוּן אֶרֶךְ אָפִים וְרַב־חֶסֶד וְאֱמֶת:

여호와께서 외치시기를,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헬라어의 경우 주격 보어(subject complement)는 술부 주격(predicate nominative) 혹은 술부 형용사(predicate adjective)라고 부른다. 목적 보어(object complement)의 경우, 목적어와 보어를 함께 묶어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라고 부른다. 각각의 경우를 참고하라.

– 주격 보어(subject complement), 술부 주격(predicate nominative), 술부 형용사(predicate adjective), 목적 보어(object complement),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

≡ 주어(subject), 술어(predicate)

완결된(完結)

completed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나 사건, 상태가 완전하게 끝이 나서 종결된 것으로 보는 관점(참. GKCS §106a).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히브리어 시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히브리어 동사는 특정 형태가 특정 시간을 주로 가리키는데 사용되지만, 많은 경우 동사의 형태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드라이버(S. R. Driver)는 시간의 순서(order of time)와 시간의 종류(kind of time)를 구별한다. 어떤 이야기에서든지 사건들이 만들어진 시간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 동작을 생각해 볼 때 화자의 상상에 따라서, 혹은 그가 원하는 특정 관점에 따라, 그것은 시작(incipient), 계속(continuing), 완성(completed)일 수 있다. 화자는 시작하는 순간, 지속되는 기간, 끝난 순간을 강조하고 싶어할 수 있다. 헬라어에서도, 에오리스트는 순간적 동작과 지속적인 동작을 말해준다. 히브리어에서도 시제는 시간 종류의 차이를 표시하지, 시간 순서의 차이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드라이버는 히브리어 완료형이 꼭 과거의 상황에서뿐 아니라,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도 ‘완결된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고 본다.

콤리(Bernard Comrie)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완결성의 개념이 행위(action)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 상태적(stative)이거나 역동적(dynamic)인 것을 나타내는 상황(situation)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본다. 즉, 완료 시상(perfective aspect)은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너무 강조하는 완결되었다(completed)는 표현보다, 완성된 상황(complete situation)이라는 표현이 상태 동사(stative verb)나 과정 동사(fientive verb)를 나타내는 데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BHS § 29.6c). 따라서 완결성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즉, 시제가 어떠한지 완료형을 통한 완결성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라오카(T. Muraoka)는 에발트(Ewald, G.H.A.)로부터 비롯된 히브리어 시제를 시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 중에서 완결된 동작(completed action)과 미결된 동작(incomplete action)의 구별은 인도 유럽어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히브리어 시제를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JMK §111f).

시 10:11(GKCS§106g)

שָׁכַח אֶל הַסֵּתִיר פָּנָיו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오래 전에 성취된 사실 또는 오래 전에 획득된 상태나 속성이지만 그 효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현재 완료이다.

삼상 28:3(GKCS§106f)

וַשְׁמוּאֵל מָתַ וַיִּסְפְּדוּ לוֹ כָּל־יִשְׂרָאֵל וַיִּקְבְּרוּהוּ בְרָמָה וּבְעִירוֹ

사무엘이 이미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어떤 행위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그 이전에 완료된 행위나 사건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이다.

사 6:11

וְאַמְרָ עַד־מָתַי אֲדַנִּי וַיֹּאמֶר עַד אֲשֶׁר־אֶם־שָׂא עֲלֵימָאין יוֹשֵׁב

내가 이르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어떤 행위나 사실들이 미래에 완료되어 존재케 된다는 뜻으로 표현되는 미래완료이다.

헬라어의 경우, ‘완결된’이라는 용어는 완료시제를 설명할 때 사용된다. 동사의 시상을 미완결적(imperfective)-완결적(perfective)-상태적(stative)으로 설명하는 경우, 이 용어를 “완결적-상태적(perfective-stative)”으로 표현하기도 한다(W 501). 완료시제의 의미를 집중적(intensive)인 것과 확산적(extensive)인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이 용어를 확산적(extensive)인 것과 연결짓는다(R 895). 완결되었다고 말할 때, 지속적이다가 멈춘(durative-punctiliar) 것과 멈췄다가 지속적인(punctiliar-durative) 것으로 나눠 설명하기도 한다(R 895).

지속적이다가 멈춘(durative-punctiliar) 것의 예: 행 5:28(R 895)

ἰδοὺ **πεπληρώκατε** τὴν Ἱερουσαλὴμ τῆς διδαχῆς ὑμῶν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채운다.

멈췄다가 지속적인(punctiliar-durative) 것의 예: 요 19:22(R 895)

ὁ γέγραφα, **γέγραφα**.

내가 쓸 것을 내가 썼다.

여기서 처음에 쓰인 γέγραφα 는 지속적이다가 멈춘(durative-punctiliar) 것의 예가 된다.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892], 1969.

복합의(複合的)

complex (compound)

단어, 구,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

복합어(complex word)는 주로 어휘적 기어(base)와 한 개 혹은 다수의 결속 형태소(bound morpheme)로 구성된 것으로서 예로, impolite, rudeness, blackboard, unmanly 등을 들 수 있다.

복합 전치사(complex preposition)는 out of, because of, on behalf of 등과 같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전치사이며, 복합 동사구(complex verb)는 주동사에 추가된 동사구로서, 법, 완료, 진행, 수동 보조사 중 하나 혹은 여러 개가 합성된 동사구로서, can leave, will have forgotten, must have been being investigated와 같은 것이 있다. 복합문장(complex sentence)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종속절을 가진 문장이다(ODEG).

신 4:21

וַיִּשָּׁבַע לְבַלְתִּי עֲבָרִי אֶת־הִירְדֵּן וּלְבַלְתִּי־בֹא אֶל־הָאָרֶץ הַטּוֹבָה אֲשֶׁר יְ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נְחֻלָּה: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맹세하셨다.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complex 보다는 compound 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 헬라어에는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가 명사나 동사와 결합되어 복합어(complex or compounded word)를 이루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더구나, 결합된 전치사가 동사에 한 번 더 뒤따라 옴으로써 의미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행 9:18(R 559)

καὶ εὐθέως ἀπέπεσαν αὐτοῦ ἀπὸ τῶν ὀφθαλμῶν ὡς λεπίδες
그러자 그의 눈에서 딱지 같은 것들이 곧바로 떨어졌습니다.

행 3:3(R 559)

ὁς ἰδὼν Πέτρον καὶ Ἰωάννην μέλλοντας εἰσιέναι εἰς τὸ ἱερόν, ἡρώτα ἐλεημοσύνην λαβεῖν.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접어들려는 것을 보고 구제를 받으려고 요청합니다.

한편, 문장과 관련된 사항은 ‘복문(compound sentence)’ 항목을 참고하라.

≡ 복합명사(compound noun), 복문(compound sentence)

성분(性分), 요소(要素)

component

“음운론이나 의미론에서 언어적 단위를 일정한 성분으로 분석하려는 접근방식”(조성식 외).

성분분석에는 음운론적 성분분석과 의미론적 성분분석이 있다. 음운론적 성분분석은 어떤 한 음소가 다른 음소와 구별되는 음성적 특질을 일정한 순서로 설정하여 그것을 기초화하는 것으로서, 음소의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을 찾는다. 이러한 성분의 단위를 찾아내면, 각각의 음소는 성분의 묶음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모든 언어에서 이들 성분의 수는 그 언어의 음소 수보다 당연히 적을 것이다. 의미론적 성분분석은 언어적 단위인 어휘소(lexeme)의 의미를 의미적 성분(semantic feature)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색깔용어(color terms), 친족어(kinship terms)’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성분분석은 변형 생성 문법에서 문장을 생성하는 문법조직의 부문(部門)으로도 일컬어지며, 통사부(syntactic component), 의미부(semantic component), 음운부(phonological component)가 있다. 예로, 한 명사가 선행하는 명사와 단순하게 병렬되어 나오는 동격에 있어서 이 명사는 첫 번째 명사와 동일한 격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두 ‘요소’ 사이에는 동질성이나 동일성의 관계가 나타나며, 여기서 한 요소는 다른 요소와 한정성에서나 비 한정성에서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할 때 사용된다(참. 이정민 외; JMK §131b).

왕하 9:4(JMK §131b)

וַיֵּלֶךְ הַנָּעַר הַנִּבְיָא רִמְתָּ גִלְעָד:

그 청년 곧 선지자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문법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Shachmon, Ori, “ibn aššarīfah vs ibn aljāriyah ‘son of the noble wife vs son of the concubine’: the Hebrew Component as a Polemic Device,” *JQR* 104 (2014), 144-166.

합성(合成)

composition

한 단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파생어(derivation)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으로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자유로운 형태소나 일련의 형태소를 합성(composition) 혹은 합병하여(amalgamation) 만드는 단어나 구.

영어에서는 여섯 개의 합성어의 범주가 있다(CDEG). (1) 어휘 단위로서 합성어는 두 개의 기존하고 있는 어휘가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classroom, worldwide). (2) 사전의 자유로운 요소-혹은 자유 형태소. 합성어는 절의 문법 안에서 합성과 굴절은 명사와 동사가 결합할 때, 시제에 따라 굴절된다(baby-sat, cold-shouldered). 공식적 칭호로서는 editors-in-chief, ladies in waiting가 있다. (3) 합성명사 (혹은 명사 합성)에는 car park, daylight-saving, makeover, videotape가 있으며, (4) 합성형용사로는 childlike, home-made, icy-cold, three-legged, down-trodden, well-meaning, airtight, duty-free, (5) 합성동사로는 baby-sit, cold-shoulder, overcome, snowball, bypass, outsource, overtake, (6) 합성 부사에는 downtown, online, offline, overseas, upmarket, hereafter, meanwhile, thereupon, throughout, whenever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단어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는 합성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헬라어의 많은 단어들은 합성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형성 방법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의미 변화없이 합체되는 ‘고유 합성’(proper composition), 단순 나열식으로 결합되는 ‘계합적(병렬적) 합성’(copulative[paratactic] composition), 합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파생적 합성’(derivative composition)이 있다(R 161). 고유 합성의 예로는 οἰκονόμος(청지기)를, 계합적 합성의 예로는 παράκλητος(보혜사, 돕는 자)를, 파생적 합성의 예로는 εἰδωλολατρία(우상숭배)를 들 수 있다(R 161).

이 가운데 ‘계합적 합성’에 해당하는 전치사+동사로 이뤄진 단어는 전치사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로, 전치사 κατά 와 합성된 단어 καταλαλέω (비방하다; 약 4:11)가 소유격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R 512).

각각의 전치사들은 합성될 때 그 나름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1-11 번).

(1) ‘로부터’, ‘안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ἐκ 는 합성될 때 ‘완결된’(perfective) 의미를 갖는다(R 596).

행 13:41(R 597)

ὅτι ἔργον ἐργάζομαι ἐγὼ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ὑμῶν, ἔργον δὲ οὐ μὴ πιστεύσητε ἐάν τις **ἐκδιηγῇται** ὑμῖν.
내가 너희의 날에 누가 너희에게 설명한다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2) ‘에 근거하여, 의지하여’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ἐπὶ 는 합성될 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R 600).

행 3:10

ἐπεγίνωσκον δὲ αὐτὸν ὅτι αὐτὸς ἦν ὁ πρὸς τὴν ἐλεημοσύνην καθήμενος ἐπὶ τῇ ὡραία πύλῃ τοῦ ἱεροῦ
그러다가 그들이, 그가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들머리에 구걸하러 앉아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3) ‘아래로, 맞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 전치사 *κατά* 도 합성될 때 본래의 의미를 갖는데, 종종 ‘완결성’이 내포되기도 한다(R 606).

행 14:18(R 606, ‘완결성’이 내포된 경우)

καὶ ταῦτα λέγοντες μόλις κατέπαυσαν τοὺς ὄχλους τοῦ μὴ θύειν αὐτοῖς.

이것들을 말하여 가까스로 무리를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 ‘가운데’라는 기본 뜻을 가지는 전치사 *μετά* 는 합성될 때 ‘함께’ 혹은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다(R 609).

행 2:46(함께, R 609)

καθ' ἡμέραν τε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 ἐν τῷ ἱερῷ, κλῶντές τε κατ' οἶκον ἄρτον,

μετελάμβανον τροφῆς ἐν ἀγαλλιάσει καὶ ἀφελότητι καρδίας

결국 날마다 성전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지내고 집집마다 돌면서 떡을 떼니, 마음이 환희에 차서 천진난만하게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행 10:5(후에, R 609)

καὶ νῦν πέμψον ἄνδρας εἰς Ἰόππην καὶ μετὰπεμψαι Σίμωνά τινα

“그러니 지금 옴바로 급히 남자들을 보내서, 시몬이란 사람을 불러오너라.”

(5) ‘곁에’ 등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παρά* 는 합성될 때 ‘어떤 것을 어떤 것 옆에 두다’는 의미를 갖는다(R 613).

행 20:16(R 613)

κεκρίκει γὰρ ὁ Παῦλος παραπλεῦσαι τὴν Ἔφεσον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6) ‘주변’, ‘무렵’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περί* 는 합성될 때 ‘둘레’라는 의미를 갖는다(R 617).

행 22:6(R 617)

Ἐγένετο δέ μοι πορευομένῳ καὶ ἐγγίζοντι τῇ Δαμασκῷ περὶ μεσημβρίαν ἐξαίφνης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περιαστράψαι φῶς ἱκανὸν *περὶ ἐμέ*

“그런데 출발하여 다메섹 가까이에 가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오쯤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내 둘레에서 번쩍였습니다.”

(7) ‘앞에’, ‘전에’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πρό* 는 합성될 때 ‘앞의, 전방의’라는 의미를 갖는다(R 620).

행 2:31

προϊδὼν ἐλάλησεν περὶ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τοῦ Χριστοῦ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미리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8) ‘가까이, 근처’ 혹은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πρός* 는 합성될 때 ‘곁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R 622-623).

행 1:14(R 623)

οὗτοι πάντες ἦσαν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 τῇ προσευχῇ

이들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9) ‘와 함께’라는 기본 뜻을 가지는 전치사 σύν 은 합성될 때 ‘연합’ 개념을 갖는다(R 626-627).

행 18:5(R 628)

Ὡς δὲ κατήλθον ἀπὸ τῆς Μακεδονίας ὃ τε Σιλᾶς καὶ ὁ Τιμόθεος, **συνείχετο** τῷ λόγῳ ὁ Παῦλος
그런데 실라뿐 아니라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이 말씀에
붙들립니다[수동태로 해석].

(10) ‘위에,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ὑπέρ 는 합성될 때 ‘위에’, ‘간과’ 등의 의미를 가진다(R 629).

행 1:13(위에, R 629)

καὶ ὅτε εἰσῆλθον, εἰς τὸ **ὑπερῶν** ἀνέβησαν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서자 윗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행 17:30(간과, R 629)

τοὺς μὲν οὖν χρόνους τῆς ἀγνοίας **ὑπεριδὼν** ὁ θεός, τὰ νῦν παραγγέλλει
모르던 기간은 하나님께서 문제시하지 않으셨지만 현재는 사람들에게 지시하십니다.

(11) ‘위로, 아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ὑπό 는 합성될 때 ‘아래에’라는 의미를 가진다(R 633).

행 27:17(R 633)

ἦν ἄραντες βοηθείαις ἐχρῶντο **ὑποζωννύντες** τὸ πλοῖον
그것을 들어 올린 뒤, 배의 밑쪽을 단단히 묶느라 그들은 보조설비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가 타동사와 합성될 때 타동사를 자동사로, 자동사와 합성될 때는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기도 한다(R 800).

행 13:11(타동사를 자동사로, R 800)

καὶ **περιάγων** ἐζήτει χειραγωγούς
이에 그가 돌아다니며 손 잡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Cosby, Michael R., “The rhetorical composition of Hebrews 11,” *JBL* 107 (1988), 257-273.

Kahn, Lily, “The grammatical composition of the early Hasidic Hebrew tale,” *JSS* 56 (2011), 327-343.

Yoder, Perry B, “A-B pairs and oral composition in Hebrew poetry,” *VT* 21 (1971), 470-489.

복합명사(複合名詞)

compound noun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명사.

히브리어에서 복합명사는 주로 고유명사에서 나타난다(참. GKCS §81d; JMK §87c, 93m). 두 단어의 결합은 명사+명사, 동사+명사, 전치사구+명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אֲבִימֶלֶךְ

아비멜렉=왕의 아버지,

לֵאסְרָאֵל

이스라엘=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לִמָּנוּעַל

임마누엘=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헬라어에는 고유명사를 복합명사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미항(칼로이리메네스; Καλοῦς λιμένας; 행 27:8)이나 삼관(트레이스 타베르네; Τριῶν ταβερνῶν; 행 28:15)과 같은 경우, 지명이지만 복합명사를 만들지 않고 두 단어를 떼어 사용한다.

(1) 명사+명사의 경우: 헬라어에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가 드물지만, 예로 νεωκόρος(신전 관리인)가 있다. ‘신전’을 의미하는 ναός 와 ‘포만’ 혹은 ‘포식’을 의미하는 κόρος 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2) 형용사+명사의 경우: 예로, διατία(이태, 두 해, 2 년)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둘’을 의미하는 형용사[혹은 수사] δύο 와 ‘해, 년’을 의미하는 ἔτος 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3) 접두사+명사의 경우: ἀσιτία(입맛을 잃음, 식욕부진) 등 다수 있다. 이 단어는 부족이나 결핍을 표현하는 접두사 α 와 밀이나 곡물을 의미하는 σῖτος 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4) 전치사+명사의 경우: 가장 흔한 복합명사의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로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한 가지만 든다면, παραχειμασία(겨울나기, 월동, 과동)가 있다. 이 단어는 곁에 등을 의미하는 전치사 παρά 와 눈[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국립국어연구원]을 의미하는 χιών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 명사(noun)

의욕적(意慾的)

conative

화자가 청자 혹은 청중에게 원하는 요구를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용법 (참. 이정민 외; PDSBH)

영어 conative 는 라틴어 conativus 에서 왔으며, “노력하다”(endeavor)는 뜻을 갖고 있다. 문법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청자가 수행하도록 표현하는 사역형, 재귀형, 강의형 등으로 나타난다.

히브리어에서 의욕적인 용법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엘 동사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변화형 중 포엘 동사를 들 수 있다. 포엘 동사의 능동태는 포엘, 수동태는 포알, 재귀형은 히트포엘로 나타난다. 첫번째 모음을 장음화해주어 강조의 뉘앙스를 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랍어 동사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된다(JMK §59a).

욥 9:15

יִפְתָּקִי עֲשָׂרָה

나는 나를 심판하려는 자에게 은총을 구할 것이다.

이 용어가 헬라어에서는 주로 현재시제와 미완료과거시제의 용법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며, ‘기동적’(inchoative)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R 880, 885).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의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현재시제의 예: 행 26:28(W 534)

ἐν ὀλίγῳ με **πείθεις** Χριστιανὸν ποιῆσαι.

하찮은 것으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려고 설득하는구나.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의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의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미완료과거시제의 예: 행 26:11(W 551).

κατὰ πάσας τὰς συναγωγὰς πολλάκις τιμωρῶν αὐτοὺς **ἠνάγκαζον** βλασφημεῖν

회당마다에서 자주 그들을 벌하면서 억지로 모독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도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의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분사와 관련해서도 ‘의욕적’인 용법의 사용이 제시되기도 한다(R 892).

행 28:23(R 892)

οἷς ἐξετίθετο διαμαρτυρόμενο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πείθων** τε αὐτοὺς περὶ τοῦ Ἰησοῦ

그리고 그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관하여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 경우도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의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보절(讓步節)

concessive clause

‘비록’이나 ‘불구하고’ 등의 부사들을 통하여 용인, 시인, 허용을 담고 있는 종속절로서, 주절에 표현된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을 표현하는 절.

히브리어에서 양보의 뜻은 진지한 의미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조롱조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כִּי**, **עַל**, **אִם**, **גַּם כִּי** 등을 사용한다. **נִשְׁבַּע** 구문을 쓰고, 부정적 진술을 위해서는 **נִשְׁבַּע** 구 비교절에서 조건절을 열어주는 접불변사는 **כְּאִשֶּׁר** 이고, 귀결절을 시작하는 불변사는 **כִּי**가 자주 사용된다. 비교의 대상이 절이 아닌 일반적인 실명사일 경우는 전치사 **כ**를 사용하게 된다(JMK §174a-b).

잠 6:35

לֹא-אֵלֶּכָּה כִּי תִרְבֶּה-שָׁחַד

네가 뇌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시 23:4

גַּם כִּי-אֵלֶּךְ בְּגִיא צַלְמוֹת לֹא-אֶירָא רָע

비록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헬라어의 경우, 양보절은 의존적(dependent)이거나 종속적(hypotactic)인 문장에 속한다. 양보절은 이끄는 접속사로는 *καὶ εἰ*(예. 마 11:14), *καὶ ἐάν*(예. 요 8:16), *εἰ καὶ*(예. 눅 18:4)가 있다(R 1026).

눅 18:4(R 1026)

εἰ καὶ τὸν θεὸν οὐ φοβοῦμαι οὐδὲ ἄνθρωπον ἐντρέπομαι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나

+ 절 (clause)

구상명사(具象名詞)

concrete noun

구체적인 실체(substance)를 나타내는 명사.

구상명사는 추상명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구상명사는 다시 고유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로 나누어진다.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사와 관련된 명사는 추상명사이며 분사와 관련된 명사는 구상명사이다(참. GKCS §83a-c).

מֶלֶךְ

목자

שֹׁפֵט

재판관, 사사

헬라어의 예는 아래와 같다.

ποιμήν(요 10:2)

목자

κριτής(눅 18:2)

재판관

+ 명사(noun)

- 보통명사(common noun)

↔ 추상명사(abstract noun)

조건절(條件節)

conditional clause

다른 상황, 정황,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황, 상황, 행동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절.

주절과 관련하여 조건적인 종속절로 만들어지며, 주절의 동작이 의존하는 부사적인 수식어(adverbial modifier)로 기능한다.

히브리어에서 조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건적 불변사를 사용한다. 실제적인 조건의 경우는 אם을 조건절에 사용하고, 비실제적인 가정에는 לו를 사용한다. 이러한 조건적 불변사 없이 조건절과 귀결절에 각각 접속사 바브를 사용하여 조건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JMK §167a-c).

창 18:26

אִם-אֶמְצָא בְּסֻדִּים תְּמַשְׁכִּים צְדִיקִים בְּתוֹךְ הָעִיר

만약 내가 소돔 성 중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는다면

민 22:29

לֹא יִשְׁחָרֵב בְּיָדִי כִּי עָתָה הִרְגָּתִיךָ

만약 내 손에 칼이 있다면 지금 너를 죽일 것이다.

창 44:22(JMK §167b)

וְעָנָב אֶת-אָבִיו וָמָת

만약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조건에는 단순 조건(Simple conditions [요 15:20; 갈 5:18]; A type; First class condition), 비현실적 조건(Unreal conditions [요 18:36]; B type; Second class condition), 일어날 수 있는 조건(Eventual[Probable] conditions [마 21:3]; C type; Third class condition), 가능한 조건(Possible conditions [벧전 3:14]; D type; Fourth class condition), 보편적 조건(General[Universal] conditions both in the [atemporal] present [요 11:9] and in the past; E type; Cf. Third class condition)이 있다(Z 303-328).

단순 조건의 예: 요 15:20(Z 303)

εἰ ἐμὲ ἐδίωξαν, καὶ ὑμεῖς διώξεουσιν·

만일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면, 너희들도 그들이 핍박할 것이다.

비현실적 조건의 예: 요 18:36(Z 314)

εἰ ἐκ τοῦ κόσμου τούτου ἦν ἡ βασιλεία ἡ ἐμή, οἱ ὑπηρέται οἱ ἐμοὶ ἠγωνίζοντο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서 비롯되었다면, 내 종들이 힘썼을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의 예: 마 21:3(Z 320)

ἐάν τις ὑμῖν εἴπῃ τι, ἐρεῖτε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거든, 너희는 말하라.

가능한 조건의 예: 뱀전 3:14(Z 328)

ἀλλ' εἰ καὶ πάσχοιτε διὰ δικαιοσύνην, μακάριοι.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려까지 한다면, 복되도다.

보편적 조건의 예: 요 11:9(Z 325)

ἐάν τις περιπατῇ ἐν τῇ ἡμέρᾳ, οὐ προσκόπτει

만일 누군가가 낮에 걸어도 다닌다면, 그는 넘어지지 않는다.

+ 절 (clause)

조건문(條件文)

conditional sentence

조건절과 귀결절로 구성되어 조건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

조건문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절(protasis)과 그 조건에 의해 발생할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apodosis)로 구성되어 있다.

신 21:14

הַשֹּׁפָרִים לְהַחֲלִישׁ בָּהּ אֶל־סָלָא תִּפְצָץ בָּהּ

네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뜻에 따라 그녀를 보내도록 하라.

헬라어 조건문의 조건절과 귀결절의 문장형식에 대해 왈리스가 정리한 것을 번역하여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W 689, Table 12 “The Structure of Conditions”).

	조건절	귀결절
제 1 급	εἰ + 직설법 어느 시제든 가능 (부정: οὐ)	아무 법이나 가능 어느 시제든 가능
제 2 급	εἰ + 직설법 과거시제 부정과거 ... 미완료과거 ... (부정: μή)	(ἄν)+직설법 과거시제 ... 부정과거 ... 미완료과거
제 3 급	εἰάν + 가정법 어느 시제든 가능 (부정: μή)	아무 법이나 가능 어느 시제든 가능
제 4 급	εἰ + 회구법 현재 혹은 부정과거	ἄν+ 회구법 현재 혹은 부정과거

조건문이 수사적으로 사용된 예: 행 5:38-39(Z 307)

ἐάν ᾗ ἐξ ἀνθρώπων ἡ βουλή αὕτη ἢ τὸ ἔργον τοῦτο, καταλυθήσεται,

εἰ δὲ ἐκ θεοῦ ἐστίν, οὐ δυνήσεσθε καταλῦσαι αὐτούς

만일 이 뜻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으면, 그것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면, 여러분이 그들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5:38 의 조건은 제 3 급 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표현하고, 5:39 의 조건은 “단순 조건”이다.

– 조건절(protasis), 귀결절(apodosis)

활용(活用)

conjugation

동사에 속한 모든 굴절 형태의 체계로서, 동사의 형태가 인칭, 수, 성, 시제, 태, 서법 등의 요인에 따라 굴절하는 현상.

영어 conjugation은 라틴어 conjugare에서 나왔으며, ‘멍에를 같이 지다, 연결하다, 뒤섞이다’는 뜻을 갖고 있다. 헬라어에서는 ‘쉬쉬기아’(συσυγία)였는데, 라틴문법이 주후 4세기에 라틴어 ‘콘주가치오’(conjugatio)로 번역하였다. 활용(conjugation)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격, 수를 표시하는 곡용(declension)과 구분된다. 이 용어는 각각 특징적인 어근 모음을 가지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동사들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독일계 언어인 영어에서는 동사 패러다임에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이것 대신에 강동사와 약동사로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규칙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사용한다(CDEG).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의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 형태를 변화시킨다. 히브리어의 경우 완료 어형변화, 미완료 어형변화 등이 주요한 어형변화가 있다.

헬라어의 경우, 동사변화를 다루는 활용(conjugation)과 명사, 형용사(분사 포함), 대명사의 격변화를 다루는 곡용(declension)을 합하여 굴절(inflexion)이라 부른다(S 190). 헬라어 동사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시제어간(tense stem)과 인칭어미(personal endings)사이에 어간모음(thematic vowel)이 있는 어간모음 동사(thematic verb; 혹은 ω 동사)의 활용을 가리키는 어간모음 활용(thematic conjugation)이 하나이고, 시제 어간(tense stem)과 인칭어미(personal endings)사이에 어간모음(thematic vowel)이 없는 비어간모음 동사(athematic/non-thematic verb; 혹은 μ 동사)의 활용을 가리키는 비어간모음 활용(athematic/non-thematic conjugation)이 하나이다.

+ 굴절(inflexion)

- 어간모음 활용(thematic conjugation), 비어간모음 활용(athematic/non-thematic conjugation)

≡ 곡용(declension)

접속사(接續詞)

conjunction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부류

영어 conjunction은 ‘연결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동사형 conjugere, ‘to join’, 명사형 coniunctio, ‘joining together’)에서 나왔다. 라틴어 문법에서는 연합과 접속을 가리킨다. 영어에서는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진다. (1) 단순 접속사, (2) 복합 접속사(compound: albeit, although, because, whereas), (3) 군 접속사(group: according as, as soon as, even if, in order that), (4) 상관 접속사(correlative: as~as, as~so, both~and, either~or, neither~nor, not only~but also). 그리고 기능적 관점에서 접속사는 대등접속사(coordinate: and, but, or, for)와 종속접속사(subordinate: as, because, if, since, than, that, though, unless)로 나누어진다.

히브리어에서도 접속사는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로 나누어진다. 등위접속사는 연결되는 부분들을 구문론적으로 동등하게 연결시키며, ו, אֲךָ, אֲבָ, וְאִם 등이 있다. 종속접속사는 연결되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종속시키는 것이며, אֲשֶׁר, כִּי, אֲמָ, כִּן 등이 있다. 이 두 접속사와 결합된 형태의 많은 접속사들 역시 자주 사용된다(JMK §104a-b).

창 3:22

פָּרִישְׁלָח יְדֹ וְלִקַּח גַּם מֵעֵץ הַחַיִּים וְאָכַל וְתִי לְעֵלָם

그가 손을 뻗고 생명나무로부터도 취하고 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창 22:16

יֵעָן אֲשֶׁר עָשִׂיתָ אֶת־הַדְּבָר הַזֶּה

네가 이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등위접속사는 대등한 관계를 표현하는 καί, 전환을 표현하는 δέ, 추론을 표현하는 γάρ와 οὖν, 반의를 표현하는 ἀλλά가 있다. 대표적인 종속접속사로는 조건을 표현하는 εἰ와 ἐάν, 이유를 표현하거나 명사절을 이끄는 ὅτι, 목적이거나 결과절을 이끄는 ἵνα, 때를 표현하는 ὅτε와 ὅταν이 있다. 상호 관계나 이접적으로 사용되는 접속사로는 μέν... δέ, τε... καί 등이 있다.

요 3:21

ὁ δὲ ποι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ἵνα φανερωθῇ αὐτοῦ τὰ ἔργα ὅτι ἐν θεῷ ἐστὶν εἰργασμένα.

한편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으로 나아와, 그의 일들이 드러나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δὲ는 전환을 나타내는 등위접속사이고, ἵνα는 결과를 의미하는 종속접속사이며, ὅτι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이다.

– 등위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 종속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

접속사(接續詞) 바브

conjunction vav(waw)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ו)

히브리어에서 접속사로 사용되는 바브(ו)는 등위접속사로 주로 사용되는데, 종속접속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바브는 단순히 단어 혹은 문장을 대등하게 병렬로 연결시키는 구문론적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계승, 도치, 서법의 바브로 독특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JMK § 104a-b).

삼상 1:2

וְלֹא שָׁתִי נָשִׁים שָׁם אַחַת חָנָה וְשָׁם הַשְּׁנִית פְּנִנָּה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그리고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이 바브는 등위접속사의 경우이다

창 27:4

וְהָבִי־אָה לִּי וְאַבְלָה

그것을 가져와서 그리고 나로 먹게 하라

이 바브는 명령형 다음에 나오는 종속접속사의 경우이다.

וַיֵּצֵא חֵטֶר מִגִּזְעֵי יֶשְׁעִי וְנִצֵּר מִשְׁרָשָׁיו יִפְרֶ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베카탈티형),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익톨형).

이 바브는 계승을 나타내는 베카탈티형의 동사에 사용되고(계승의 바브), 뒤에 나오는 미래의 동작과 연결되어 미래를 나타낸다.

욥 1:11

וַיֹּאמְרוּ אֵלָיו מַה־נַּעֲשֶׂה לָּךְ וַיִּשְׁתַּחֲוֶה הָיִם מַעְלֵינוּ כִּי הָיִם הוֹלֵךְ וְסֹעֵר: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더욱 거세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기를,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서법의 바브)

암 9:3

וְאִם־יִחְבְּאוּ בְּרֹאשׁ הַכְּרָמִל מִשָּׁם אֲחַפֵּשׁ וּלְקַחְתִּים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미완료) 내가 거기에서 찾아서(미완료) 데려오게(베카탈티, 도치된 완료) 할 것이요(도치의 바브)

연속(連續)

consecution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바브(vav, ו)가 선행하는 절의 시제를 계승하여 이어가는 것.

문법의 용어는 꼭 일반적인 의미와 일치하지 않고, 전문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우리 말에서 ‘연속’(連續)이란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시간적인 개념을 표현하며, ‘연결’(連結)이란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상당히 공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참. 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이 용어는 주로 ‘동사의 바브 연속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바브 연속(vav consecutive)란 접속사 바브로 이어지는 문장이 선행하는 문장의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시제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주용-무라오까는 연속의 개념을 논리적 연속성으로만 이해하여 바브 연속은 ‘연속’의 개념이 아닌 ‘도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연속이란 단순한 시간적인 연속성만이 아닌 좀 더 넓고 다양한 논리적 연속성을 뜻하는 말이며, 따라서 문장 안에서의 어떠한 결과를 뜻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문법서에 따라서 ‘consecution’을 ‘결과’로 번역하기도 하며, ‘consecutive clause’의 경우 ‘결과절’로 번역한다(JMK §117aN).

+ 접속사(conjunction)

≡ 결과절(consecutive clause)

결과절(結果節)

consecutive clause

원인을 나타내는 주절에서 진술된 내용의 논리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

결과관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를 가리킨다(표준국어대사전). 문법에서 결과절은 주절에 나온 진술의 논리적인 귀결이나 결과 및 결말을 가리키는 종속절에 사용된다.

히브리어에서 결과절을 나타낼 때는 주로 כִּי, אֲשֶׁר, לְמַעַן 등을 사용한다. כִּי는 일반적으로 질문 다음에 나오게 된다. אֲשֶׁר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보아야 한다. לְמַעַן는 특히 목적이나 결과 둘 다 뜻할 수 있으므로 문맥으로 판단해야 한다(JMK § 169a-g).

시 8:5

מֶה-אֶנֶּשׁ כִּי-תִזְכְּרֶנּוּ וּבִן-אָדָם כִּי תִמְקְדֶנּוּ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권고하십니까?

신 16:20

אַתָּה תִּרְדָּף לְמַעַן תִּחְיֶה וְיָרַשְׁתָּ אֶת-הָאָרֶץ

너는 정의를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그 땅을 얻을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결과를 표현할 때는 종속절이나 부정사를 사용한다.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는 ὥστε, ἵνα 등이 있다. ἵνα의 경우, 결과절을 이끈다고 판단될 때는 ἵνα 앞에 숨표를 둔다.

행 15:39

ἐγένετο δὲ παροξύσμος ὥστε ἀποχωρισθῆναι αὐτοὺς ἀπ' ἀλλήλων

하니 마찰이 생겨 그들이 서로 결별했습니다.

요일 3:1(R 999)

ἴδετε ποταπὴν ἀγάπην δέδωκεν ἡμῖν ὁ πατήρ, ἵνα τέκνα θεοῦ κληθῶμεν, καὶ ἔσμεν.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셨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구요.

+ 절(clause)

≡ 종속절(subordinate clause), 목적절(final clause)

↔ 원인(causal clause)

연속적 미완료(連續的 未完了)

consecutive imperfect

전통적인 히브리어 문법의 용어로서, 바브 연속 미완료 형태를 지칭하는 것.

히브리어 문장에서 선행하는 절과 뒤따르는 절 사이에 접속사 ‘바브’가 동사와 함께 나올 때, 시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초기의 문법학자들은 이 ‘바브’를 ‘전환의 바브’(vav conversive)로 불렀다. 그렇지만 후대의 문법학자들은 이 ‘바브’가 ‘연속적인 내러티브’(consecutive) 안에서만 나오므로 ‘바브 연속법’(vav consecutive)으로 불렀다.

바브 연속법에서 1 행에 완료형(suffix form)이 나온 후, 2 행에서 바브와 함께 미완료형(prefix form)이 나와서 1 행의 완료형 시제를 계속 이어갈 때 ‘바브 연속 미완료’라고 불렀다. 이에 와인그린은 ‘바브 연속법’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친숙하므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편리성 때문에’ 사용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힌다(참. JMK §117; Weingreen, 91).

시간적 연속(JMK §118c)

창 14:5ff

וּבְאַרְבַּעַ עָשָׂרָה שָׁנָה בָּא כְּדָרְלֶעָמֶר וְהַמֶּלְכִּים אֲשֶׁר אִתּוֹ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왔고 (완료)

.....

창 14:7

וַיָּשָׁבוּ וַיָּבֹאוּ אֶל-עֵין מִשְׁפָּט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엔미스밋으로 갔다 (바브 연속 미완료)

결과적(논리적 연속) (JMK §118h)

창 12:19

לְמָה אִמְרָתְךָ אֶחָתִי הוּא נָאֶקֶח אֹתָהּ לִי לְאִשָּׁה

네가 어찌 그녀를 네 누이라 말하여(완료)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바브 연속 미완료)

+ 접속사(conjunction), 바브 전환법(vav conversive), 바브 도치법(vav inversive)

≡ 바브 연속 완료(vav consecutive perfect)

연속적 완료(連續的 完了)

consecutive perfect

전통적인 히브리어 문법의 용어로서, 바브 연속 완료 형태를 지칭하는 것.

히브리어 문장에서 선행하는 절과 뒤따르는 절 사이에 접속사 ‘바브’가 동사와 함께 나올 때, 시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초기의 문법학자들은 이 ‘바브’를 ‘전환의 바브, 바브 전환법’(vav conversive), 도치의 바브, 바브 도치법(vav inversive)으로 불렀다. 그렇지만 후대의 문법학자들은 이 ‘바브’가 ‘연속적인 내러티브’(consecutive) 안에서만 나오므로 ‘바브 연속법’(vav consecutive)으로 불렀다. 바브 연속법에서 1 행에 미완료형(prefix form)이 나온 후, 2 행에서 바브와 함께 완료형(suffix form)이 나와서 1 행의 미완료형 시제를 계속 이어갈 때 ‘바브 연속 완료’라고 불렀다. 와인그린은 ‘바브 연속법’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친숙하므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편리성 때문에’ 사용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힌다(참. JMK §117; Weingreen, 91).

+ 접속사(conjunction), 바브 전환법(vav conversive), 바브 도치법(vav inversive)
 ≡ 바브 연속 미완료(vav consecutive imperfect)

자음(子音)

consonant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표준국어대사전).

영어 자음을 가리키는 consonant 는 라틴어 consonant 에서 나왔다. 라틴어는 con+sonare 의 합성어로서 ‘함께 소리내다, 조화롭다’는 뜻이다. 즉, 자음은 그 자체로는 발음이 되지 않으며 꼭 보조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된다.

음소에는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자음과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모음이 있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그 음소가 가지는 음가와 관련해서 본다면, 음성학적 자음이면서 동시에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음소가 자음이며, 음성학적 모음이면서 음절을 구성하는 음소가 모음이다. 음성학적으로는 모음인데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음소를 반모음이라고 부른다.

자음은 성대진동의 위치, 조음의 위치, 조음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성대진동의 위치에 따라 자음은 (1) 성대의 진동이 동반하는 유성자음(b, d, g, v, z, dz 등)과 (2) 성대의 진동이 없는 무성자음(p, t, k, f, s, sh, ts, h 등)으로 나눈다. 다만 성문 폐쇄음(glottal stop)에는 유성음이 없다. 또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무성음화(devocalization)라고 한다.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국어에는 자음을 (1) 양순음(ㅂ, ㅃ, ㅍ, ㅁ), (2) 치조음(ㄷ, ㄸ, ㅌ, ㄴ, ㅆ, ㄹ, ㄷ, ㄷ), (3) 경구개음(ㅈ, ㅉ, ㅊ, ㅊ), (4) 연구개음(ㄱ, ㅋ, ㆁ, ㅇ), (5) 성문음(ㅎ)으로 분류한다. 조음의 방법에 따라서는 (1) 파열음(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2) 파찰음(ㅈ, ㅉ, ㅊ), (3) 마찰음(ㄴ, ㅆ, ㅎ), (4) 유음(ㄹ), (5) 비음(ㄴ, ㅁ, ㅇ)으로 분류한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의 자음은 모두 22 개이며, ו와 ש를 각각 글자로 세면 23 개가 되며 다음과 같다 (א, ב, ג, ד, ה, ו, ז, ח, ט, י, כ, ל, מ, נ, ס, ע, פ, צ, ק, ר, ש, ט, ת).

헬라어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알파벳 24 개 가운데 7 개는 모음에 속한다. 자음에 속하는 17 개는 β, γ, δ, ζ, θ, κ, λ, μ, ν, ξ, π, ρ, σ, τ, φ, χ, ψ 이다. 이 가운데 양순음은 π, β, φ 이다. 이 가운데 π 는 무성음(voiceless), β 는 유성 자음(voiced), φ 는 기식음(aspirate)이다. 치음은 τ, δ, θ 이다. 이 가운데 τ 는 무성음, δ 는 유성음, θ 는 기식음이다. 구개음은 κ, γ, χ 이다. 이 가운데 κ 는 무성음, γ 는 유성음, χ 는 기식음이다. 이상 아홉 개는 조음 방법 분류상 폐쇄음(mutes/stops)에 속한다. λ 와 ρ 는 치음이면서 구개음인데, 조음 방법 분류상 유음(liquids)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양순음인 μ 와 치음인 ν 는 조음 방법 분류상 비음(nasals)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치음인 σ 는 조음 방법 분류상 마찰음(spirant)에 속한다. 나머지 세 개는 글자는 하나인데 음이 두 개인 이중 자음에 속한다. ψ, ζ, ξ 인데, 각각 첫 소리에 따라 ψ 는 양순음이면서 무성음이고, ζ 는 치음이면서 유성음이고, ξ 는 구개음이면서 무성음이다. 이상이 잘 정리된 표는 S 22 에 있다.

↔ 모음(母音, vowel)

자음 동화(子音同化)

consonant assimilation

어떤 자음이 근접한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 그 자음과 같거나 유사한 음으로 변화되는 현상(참. 이정민 외).

“음절(音節) 끝 자음(子音)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이다”(표준국어대사전). 예로, ‘밤물’이 ‘밤물’로, ‘섭리’가 ‘섭니’로, 이 ‘섭니’가 다시 ‘섭니’로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의 경우, 자음 **ל**은 근접한 자음에 동화되어 형태가 사라지면서 근접한 자음과 겹쳐져서 이중점(dagesh forte)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치사 **מן**의 두번째 자음인 **ל**이 뒤에 나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이중점으로 바뀌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창 3:2

מִן־הָעֵץ נָאֵכְל

우리는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로부터 먹을 수 있다.

헬라이어 전치사의 경우, 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이형을 가진다.

고전 15:47

ἐξ οὐρανοῦ

살전 3:7

ἐφ' ὑμῖν

어휘 형성과 관련하여 자음의 변이음을 볼 수 있다.

전치사 ἐκ의 κ가 모음 앞에 복합동사를 이룰 경우, ἐξέρχομαι

전치사 σύν의 ν가 다른 자음 앞에 와서 복합동사를 이룰 경우, 자음의 조음점에 따라 달라진다.

(1) 설측음

마 13:40

συλλέγεται

(2) 양순음

눅 23:48

συμπαραγενόμενο

롬 7:16

σύμφημι

(3) 구개음

눅 15:6

συγκαλεῖ

빌 2:17

συγχαίρω

자음의 장음화(子音長音化)

consonant lengthening

두 자음이 중복되어 자음의 음량이 연장되는 것.

‘장음화’란 ‘긴 소리로 변화되는 현상’이다. 자음의 중복 혹은 장음화는 모음보다 길지는 않으나 두 개의 음량을 갖는다. 또한 단순한 장음이 아니라 장음의 중간에 형태소의 경계가 있고 음절의 경계가 있다(참. 이정민 외). 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을 중복하여 기록하는 대신 חֲבַיִת과 같이 자음 안에 점(다게쉬)을 붙여주어 habbayit와 같이 자음을 반복하여 음역한다(참. JMK §18).

연계형(連繫形)

construct

두 개 이상의 단어들 이 병치를 이루며 함께 나올 때, 먼저 나오는 지배명사(nomen regens)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피지배명사(nomen rectum)와 속격 관계를 이루는 구문 형식.

영어 construct 는 라틴어 construere 에서 나왔다. 이 동사는 ‘함께’를 뜻하는 con 과 ‘쌓다, 세우다’(to lay, pile, build)를 뜻하는 struere 의 합성어이다. 문법 용어로서는 ‘구문적 관계’나 ‘문법적 구조’로 단어들을 ‘함께 모으다, 연결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셈어에서는 명사들이 서로 병치되거나(juxtaposition) 연결되면서 속격 관계(genitive relationship)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수식어가 되는 명사는 속격으로 나온다. 그리고 속격 관계에서 첫 번째 명사는 연계되며(annexed), 모음이 축약된다.

아랍어 문법에서는 이러한 속격 관계를 연계형(annexation)이라고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라틴어로서 첫 번째 명사를 nomen regens(지배하는 명사, 지배명사), 두 번째 명사를 nomen rectum(지배받는 명사, 피지배명사)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구조를 연계구조(annexation structure)라고 일컫는다. 이 연계형은 속격 관계에 대한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속격관계로 묶여진 두 명사는 하나의 탄탄한 단위를 이루어 이론적으로는 그 어느 것도 떼어낼 수 없다(JMK §129aN2, 129bN2).

왕상 10:9

בְּאַהֲבַת יְהוָה אֶת־יִשְׂרָאֵל לְעַלְמִם

주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잠 20:2

נָהָם בְּכַפִּיר אֵימַת מֶלֶךְ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출 29:29

וּבְגָדֵי הַקֹּדֶשׁ

거룩한 옷

헬라어의 경우, 관사 속격과 함께 쓰인 부정사 형태를 히브리어 연계형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행 10:25(R 98)

Ὡς δὲ ἐγένετο τοῦ εἰσελθεῖν τὸν Πέτρον, συναντήσας αὐτῷ ὁ Κορνήλιος πεσὼν ἐπὶ τοὺς πόδας προσεκύνησεν.

하여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더니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Weingreen, Jacob, “Construct-genitive relation in Hebrew syntax,” *VT* 4 (1954), 50-59.

변형(變形)

contamination

의미적으로 인접한 관계를 이루는 형태소, 단어, 구가 서로 유사한 음성형태를 갖게 되는 현상.

형태가 문법적인 변화와는 관계없이, 둘 이상의 형태소나 단어들이 서로 의미상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유사한 음성형태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명사의 모음 형태에 있어서 *qatl* 형태와 *qitl* 형태는 상호 변형을 시키는 관계에 있다. 첫 모음이 변형되는 것이다. 세골 명사인 경우, 첫 모음이 켄레일 때, 두번째 모음인 세골과 공명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첫 모음이 세골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다(JMK §96f).

현대 히브리어 발음

contemporary Hebrew pronunciation

현재 이스라엘에서 모국어로 사용되는 현대 히브리어의 발음.

현대 히브리어는 러시아계 유대인인 엘리에젤 벤-예후다(Eliezer Ben-Yehuda 1857-1922)가 1881 년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후 성경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 등에 기초하여 만든 언어이다. 따라서 현대 히브리어는 어휘, 문법, 발음이 성경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하나 일부 차이점도 존재한다. 다음은 현대 히브리어 발음과 성경 히브리어 발음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1. 자음

1) 다음 6개의 자음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서로 다른 발음이었으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하게 발음된다.

ו=ו, ח=כ, ק=כ, ת=ט, י=ג, ע=א,

2) 단어의 처음이나 폐음절 다음에 올 때 붙는 점(연강점) 중, 점의 유무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6개이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3개이다.

(1) 성경 히브리어

ב/ב (v/b), כ/כ (h/k), פ/פ (f/p), ג/ג (gh/g), ד/ד (ð/d), ת/ת (θ/t)

(2) 현대 히브리어

ב/ב (v/b), כ/כ (h/k), פ/פ (f/p)

(3) 자음의 중복을 위해 붙이는 점(경강점)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중복하여 발음하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중복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예로, **אֵל עֲמֻנּוּ**를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임마누엘’로 발음하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마누엘’로 발음한다.

2. 모음

(1) 장모음, 단모음 등 장단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발음한다.

(2) 이중 모음 중 **אֵי** 혹은 **אֵי**를 ‘에이’로 발음한다.

(3) 슈바(◌ֿ)가 단어 처음에 올 때 첫 두 자음의 공명도 계층(발음의 편이성) 및 단어의 종류에 따라 무성슈바(묵음)일 때도 있고 유성슈바 ‘에’로 발음될 때가 있다.

맥락(脈絡)

context

어떤 말, 진술, 담화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넓은 의미의 문학적,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것.

영어 context 는 라틴어에서 ‘짜임새 있는 구성, 체계’(an ordered scheme), ‘함께 연결된 상태’(the state of being joined)’를 뜻하는 contextus에서 나왔다(RDLL). 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에서 맥락은 의사소통의 상황에 속한 모든 요소를 뜻하며,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성경해석학에서 맥락(context)은 문학적 배경과 제의적-역사적 배경을 총괄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이다. ‘문학적 문맥’이란 어떤 담화를 해석하기 위해 그 담화가 속해 있는 근접 문맥의 의미와 나아가 그 담화가 문학 단위 전체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뜻한다. ‘역사적 맥락’이란 그 담화의 배경이 되는 역사, 제의, 정치, 문화, 경제, 지리적 배경 등을 뜻한다.

캐트포트(Catford)는 한 담화의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과 ‘상황적 근접 맥락’(situational co-text)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RDLL).

≡ 근접본문(co-text)

Catford, J.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축약(縮約)

contraction

하나 혹은 두 개의 연속적인 형태소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자음이나 모음이 탈락되거나 동화되어 하나로 부드럽게 발음되는 현상.

영어에서는 do not 이 don't 로 축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브리어에서는 여러가지 축약의 경우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비분리전치사 ׀와 동사 연계형 ׀가 만나 결합하게 될 경우, 알렙 밑의 모음인 하탐 세골은 축약되어 사라지고 라메드 밑의 모음이 켄레가 되어 ׀가 된다(JMK §24e).

헬라어의 경우, 축약은 발음이 단축된 경우와 계사(copula)의 생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장 축약의 경우에 사용된다. 발음이 단축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단축동사(contracted verb)는 해당 용어를 참고하라.

발음이 단축된 경우의 예: 계 4:4(R 274)

χρυσοῦς

금들

이 단어가 시내산 사본에는 축약되지 않은 형태인 χρυσεύς 로 되어 있다.

문장 축약의 경우의 예: 고후 1:18(R 1202)

πιστὸς δὲ ὁ θεός

그러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εἰμι 동사의 직설법 현재 3 인칭 단수 형태인 ἐστίν 이 생략되어 문장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단축동사(contract verb)

변환의(變換)

conversive, converted

히브리어에서 접속사와 함께 나오는 동사가 선행하는 동사의 시제를 변환하거나 전환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문법적 용어.

히브리어 접속사의 용법에 대한 전통적 용어로서, 접속사 바브와 결합된 동사의 시제가 선행하는 동사의 시제를 변환 혹은 전환시킨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용어이다. 중세의 유대인 학자들은 바브가 시제를 변환시키므로 ‘변환의 바브’라고 이름지었으며(Elijah Levita, 1468-1549), 게제니우스도 그의 책 13 판(1813-1842)까지 이 용어와 이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참. IBHS § 29.2.d, 32.1, 33.1). 게제니우스는 히브리 성경에서 새로운 책이 ‘변환의 바브’로 시작할 때는 이전 내러티브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았다(Heb. Lex., 274).

한국어 히브리어 문법 책들에서는 주로 ‘바브 연속’으로 번역하였다(권성달, 박미섭, 한동구 등). 왈키-오코너는 ‘상대적 바브’(vav-relativ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IBHS §30.5.1.b). 주옹-무라오카는 ‘도치의 바브’ 혹은 ‘계승의 바브’로 지칭하였다(JMK §117a; IBHS §32.1.1a).

창 1:4

וַיֵּרָא אֱלֹהִים אֶת-הָאֹר כִּי-טוֹב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고 그 빛이 좋았다.

히브리어에 있는 변환의 바브로 인해 칠십인 역의 번역의 일관성이 의심되기도 한다(R 98). 예로, 창세기 1 장 3 절의 있는 두 개의 ‘변환의 바브’는 칠십인 역에서 모두 부정과거로 번역되었으나, 사사기 1 장 1 절에 있는 두 개의 ‘변환의 바브’는 칠십인 역에서 하나는 부정과거로 다른 하나는 미완료 과거로 번역되었다.

대등 접속(對等接續), 등위 접속(等位接續)

coordination, coordinate conjunction

통시적으로 동등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위들이 접속사로 연결된 구문.

영어 coordination 은 라틴어에서 ‘함께 배열한다, 규정한다’(together + ordered, arranged)는 뜻을 가진 동사인 co-ordinare 에서 나왔다. 따라서 문장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위들을 대등하게 함께 연결하고 묶는 것이다(ODEG). 따라서 ‘등위’(等位) 접속이라는 용어보다 ‘대등’(對等), 혹은 ‘대등접속’(對等接續)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영문법에서 대등접속은 (1) 연결적 대등접속(copulative-co-ordination)으로, both... and, not only... but also, first..., then... next; (2) 반의적 대등접속으로, but, not.... But, but... (and) yet... however, or; (3) 원인적 대등접속으로 so..., ...for 등이 있다.

히브리어의 경우, 주로 바브연속법에 의해서 문장들이 대등하게 연결된 것을 지칭한다. 대등 접속에서는 문장 내에서 구성요소들이 종속되지 않고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단어나 절이 대등(등위) 접속사에 의해 연결된 경우,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asyndeton)와 병렬구조로 배열된 경우(parataxis)를 지칭하기도 한다.

왕상 13:14

וַלֵּךְ אַחֲרַי אִישׁ הָאֱלֹהִים וַיִּמְצְאוּהוּ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갔고 그를 만났다.

렘 6:7 (IBHS §44.1.8)

וְשִׁמְעָה בָּהּ יִשְׁמַע

폭력과 억압이 그 안에서 들려진다.

헬라어의 경우, 등위 접속은 (1) 대등접속, (2) 반의적 접속, (3) 분리적 접속, (4) 추론적 접속, (5) 원인적 접속으로 나뉘 볼 수 있다(W 2163).

(1) 대등접속의 예: 행 1:1

Τὸν μὲν πρῶτον λόγον ἐποιήσαμην περὶ πάντων, ὃ Θεόφιλε, ὣν ἤρξατο ὁ Ἰησοῦς ποιεῖν **τε καὶ** διδάσκειν

한편 지난번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들에 관해 썼습니다. 오, 데오빌로님! 예수님께서 이루실 뿐 아니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들입니다.

접속사 **τε καὶ** 가 ποιεῖν 과 διδάσκειν 을 대등하게 연결짓는다.

(2) 반의적 접속의 예: 행 4:32

καὶ οὐδὲ εἰς τι τῶν ὑπαρχόντων αὐτῷ ἔλεγεν ἴδιον εἶναι **ἀλλ'** ἥν αὐτοῖς ἅπαντα κοινά.

그러자 누구 하나 자신에게 속한 어느 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함께 씁니다.

(3) 분리적 접속의 예: 행 1:7

οὐχ ὑμῶν ἐστὶν γινῶναι χρόνους **ἢ** καιροὺς
 기간들이나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4) 추론적 접속의 예: 행 1:6

Οἱ **μὲν οὖν** συνελθόντες ἡ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κύριε, εἰ ἐν τῷ χρόνῳ τούτῳ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ῷ Ἰσραήλ;
그래서 모인 자들이 그분께 말로 요청합니다. “주님, 이참에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되돌려 주시렵니까?”

(5) 원인적 접속의 예: 행 1:20

γέγραπται **γὰρ** ἐν βίβλῳ ψαλμῶν
 시편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접속사(conjunction)

≡ 접속사생략(asyndeton), 병렬(parataxis)

콥트어

Coptic

주후 3-7세기에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언어.

콥트어는 아시아-아프리카 어족의 한 부류인 함어에 속하는 이집트어의 가장 후기에 속하는 언어이다. 이집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주전 3000-2200), 중기 이집트어 및 신 이집트어(주전 1300-660), 민중 문자(주전 660-주후 300)로 나누어진다. 민중문자는 성각문자(hieroglyphics)를 간략하게 만드는 신관문자(hieratics)를 더욱 흘려 쓴 서체이다. 콥트어는 주후 3-7 세기에 이집트에서 모국어로 사용되었으며 17 세기까지 구어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콥트 정교회에서 예배용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문자는 그리스어 문자에 자체 발음을 위한 6-7 개의 보충 문자가 있다.

신약성경에서 콥트어 역본은 중요한 고대 역본에 포함된다.

Depuydt, Leo, "A New Coptic Grammar," *JAOS* 122 (2002), 807-815.

Dubois, Jean-Daniel, "Ephesians 4:15 : alētheuopstes de or alētheiaps de Poountes; on the Use of Coptic Versions for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ovT* 16 (1974), 30-34.

Filson, Floyd Vivian, "New Greek and Coptic Gospel manuscripts," *BA* 24 (1961), 2-18.

Petersen, Theodore, "Early Coptic Manuscript of Acts: an Unrevised Version of the Ancient So-called Western Text," *CBQ* 26 (1964), 225-241.

계사(繫辭)

copula

동사의 하부 범주로서, 주동사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 자체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단지 주어와 보어(또는 술어)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동사

우리 말 ‘계사’(繫辭)에서 ‘계’(繫)라는 한자는 ‘맬 계’로서 ‘동여매다’는 뜻을 가지며, ‘이어질 계’로서 ‘잇닿아 있다, 연결하다’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인접한 문법 요소들을 이어매고, 동여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어 copula는 라틴어에서 ‘함께’(co-)와 ‘매다, 맞추다’(apere, to fasten, fit)를 합성한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계사는 연결사, 또는 연결어로 부르기도 한다. 인도-유럽어에서 유래된 이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두 가지 측면 즉, 기능적인 측면과 의미론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사는 주어와 보어(또는 술어)를 단순히 연결하는 기능 외에 ‘강조’ 등과 같은 다른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계사는 자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be가 계사와 가장 밀접한 단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be 동사가 다 계사는 아니다. 예로, ‘He is coming’에서 be는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God is’에서 is는 완전자동사이며, ‘He is at home’에서와 같이 자체 의미를 소유하는 경우에서의 be는 계사라 할 수 없다. 영어에서 ‘계사 동사’(copula verb)로서는 be, become, seem, get 등이 있다.

be에 상응하는 우리말은 ‘이다’, ‘있다’, ‘되다’ 세 가지이며 이 중 ‘있다’와 ‘되다’는 자체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사와 연결시킬 수 없고 ‘이다’만을 계사와 연결시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말의 ‘이다’를 계사로 부르는 이들이 있으나 우리말은 인도-유럽어와 언어 체계가 다르므로 인도-유럽어에서 유래한 용어인 계사를 ‘이다’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말의 ‘이다’를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통용하고 있으나 용언설, 조사설, 파생접사설 사이에서 아직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계사와 관련된 단어는 היה이다. 영어의 be에서와 같이 히브리어에서도 모든 היה가 계사일 수 없고, 강조나 조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체 의미가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계사라 부를 수 있다. תְּלֹם פִּרְעָה אֶחָד הָוָא (창 41:25)와 같은 세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의 구성소인 הָוָא를 계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세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의 구성소를 계사로 보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היה를 포함하여 성서 히브리어에는 계사가 없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참. GKCS §141 f-i; JMK §154 i-jN, m; Glinert 2004, 174; Hartmann 1972, 55; Pustet 2003, 5; Zewi 1996, 40; 권성달 2008, 9-10; 서정수 2006, 745-756; 이정민 외; 조성식 외).

계사는 문장의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단어이다. 넓은 의미로 접속사를 계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를 계사라고 부른다. 히브리어의 경우 존재를 나타내는 불변사인 יֵשׁ와 היה 동사가 계사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PDSBH; 이정민 외).

삿 11:1

וַיִּפְתָּח הַגִּלְעָדִי הָיָה גִבּוֹר חֵי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였다

사 30:26

אֹר הַחַמָּה יִהְיֶה שְׁבָעָתָם

햇빛은 일곱 배가 될 것이다.

헬라어의 계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εἶμι 와 γίνομαι 가 있다(다른 종류는 S 917 참조).

행 1:19

ὥστε κληθῆναι τὸ χωρίον ἐκεῖνο τῇ ἰδίᾳ διαλέκτῳ αὐτῶν Ἀκελδαμάχ, τοῦτ' **ἐστίν** χωρίον αἵματος.
그리하여 그 토지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아겔다마라고 불립니다. 이는 ‘피의 토지’입니다.

행 4:16

ὅτι μὲν γὰρ γνωστὸν σημεῖον **γέγονεν** δι' αὐτῶν πᾶσιν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ὴμ φανερόν
그들을 통한 표적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 세구성소 명사절(tripartite nominal clause)

동일지시(同一指示), 공지시(共指示)

coreference

문장(들) 안에서 두 개 이상의 명사구들이 하나의 동일한 지시물(실체)을 가리키는 것.

영어 co-reference는 ‘함께-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지시(共指示)라고도 한다. 즉, 본문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어떤 공통된 실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현상을 동일 지시(coreference)라고 지칭하며, 동일 지시의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공지시적(coreferential)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비언어적 실체를 지시물(referent)이라고 부른다. 예로, Simon¹ said that he² would help라는 문장에서 Simon과 he는 동일인이다. 좀 더 복잡한 문장으로서, Philip¹ discovered his friend² and greeted him² heartily. He¹ was glad to have this jovial fellow² finally nearby 에서 1번으로 표시된 Philip과 He는 동일지시이며, 2번으로 표시된 friend, him fellow도 마찬가지이다(RDLL).

출 32:33(JMK §144fa)

מִי אֲשֶׁר חָטְא־לִי אֶמְחֶנּוּ מִסִּפְרִי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어떤 자도 내가 내 책으로부터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 전방조응어(anaphora)

상관어구(相關語句)

correlatives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어로서 접속사나 부사로 구성된 어구.

영문법에서는 상관어구(相關語句)라고 하고, 상관연결사(相關連結絲)라고도 한다. 문장 안에 있는 단어, 구, 절 등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영어로는 either, neither, nor, both, even 등과 종속적 상관어구로서 hardly.... When, if.... then, so-such... that, less/more... than 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ODEG).

히브리어의 경우 접속사 바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 ׀ 등이 상관연결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창 14:16 (IBHS §39.3.4d)

וַיָּשָׁב אֶת כָּל־הָרֶכֶּשׁ וְגַם אֶת־לוֹט אָחִיו וְרָכָשׁוֹ

그가 모든 재물 및 그 형제 롯과 그의 재물 또한 되찾아왔다.

헬라어의 경우, 상관대명사(correlative pronoun)과 상관부사(correlative adverb)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상관어구로 불리는 단어로는 τηλικοῦτος 가 있다(R 290).

히 2:3

πῶς ἡμεῖς ἐκφευξόμεθα τηλικάυτης ἀμελήσαντες σωτηρίας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는가?

≡ 상관대명사(correlative pronoun), 상관부사(correlative adverb)

근접본문(近接本文)

co-text

어떤 말, 진술, 담화를 해석하기 위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 문맥.

어떤 한 담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담화의 앞에 위치한 담화 및 뒤에 위치한 담화를 고려하여 근접문맥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 때 그 앞과 뒤에 위치한 본문을 근접본문이라고 부른다.

캐트포트(Catfort)가 소통이론(communication theory)으로 만들어낸 용어로서 언어적인 맥락(linguistic context)과 대조되는 한 담화의 ‘상황적 근접맥락’(situational co-text)에 원래 사용되었다(RDLL).

성경해석에서는 어떤 한 담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담화의 앞에 위치한 담화 및 뒤에 위치한 담화를 고려하여 근접문맥의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이 때 그 앞과 뒤에 위치한 본문을 근접본문이라고 부른다.

Catford, J.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 맥락(context)

가산명사(可算名詞)

countable

“일정한 형상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셀 수 있는 명사. 단수와 복수를 구별함”(표준국어대사전).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복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부정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가산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형체를 가진 집, 말, 꽃, 소년 등이 있으며, 낫, 밤, kg, km 등과 같이 비물질적인 것도 있다. 가산명사의 반대 개념으로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不可算名詞)가 있으며,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סֵפֶר (책, 복수 - סִפְרִים),
בַּיִת (집, 복수 - בָּתִּים),
אִישׁ (남자, 복수 - אֲנָשִׁים),

헬라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눅 4:20

πτύξας τὸ βιβλίον

그 두루마리[책]를 말아

βιβλίον은 중성 단수 대격이다.

요 21:25

τὰ γραφόμενα βιβλία

그 기록된 두루마리[책]들을

βιβλία는 중성 복수 대격이다.

+ 명사(noun)

↔ 불가산명사(uncountable noun)

췁기문자, 설형문자(楔形文字)

cuneiform

기원전 약 3000 년 경 수메르인들이 개발한 고대의 문자.

영어 cuneiform 은 ‘췁기’를 뜻하는 라틴어 cuneus 에서 나왔다. 설형문자라고도 불려진다. 한자 설(楔)은 ‘꺾아 새긴다’는 설·결·계(契)에서 나왔으며 새겨 넣듯이 틈새에 끼워 박는 췁기를 가리킨다. 췁기문자라는 명칭은 18 세기초 캄퍼(Engelbert Kaempfe)가 만들어내었다. 췁기문자 대개 갈대 가지를 뾰족하게 잘라 만든 철필로 점토판에 기록했다. 췁기문자는 처음에는 상형문자 혹은 회화문자(pictograph)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발전하여 뜻을 전달하는 표의문자(ideogram)와 음절문자(syllabic)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메르인들이 처음 창안하였으며 이후 아카드어, 엘람어, 바빌론어, 앗시리아어, 히타이트어, 우가리트어, 미탄니어, 후리어, 페르시아어 등에서도 차용되었다.

췁기문자로 기록된 예로, 나일강변에서 1887 년에 발견된 엘 아마르타 문서(주전 1350-1334 년 경의 본문)을 들 수 있다. 이라크 북부 누찌에서 1925-1941 년에 발견된 ‘누찌 문서’는 아카드어 문서로 4 천 개 이상의 췁기문자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PDSBS).

+ 문자(letter)

≡ 엘 아마르나(el Amarna)

– 아카드어(Akkadian), 엘람어(Elamite), 바빌론어(Babylonian), 앗시리아어(Assyrian), 히타이트어(Hittite), 우가리트어(Ugaritic), 미탄니어(Mitanni), 후리어(Hurrian), 페르시아어(Persian)

Barré, Michael L., “A Cuneiform Parallel to Ps 86:16-17 and Mic 7:16-17,” *JBL* 101 (1982), 271-275.

Brewer, David Instone, “Mene mene teqel uparsin: Daniel 5:25 in Cuneiform,” *TynBul* 42 (1991), 310-316.

Cody, Aelred, “New Inscription from Tell āl-Rimah and King Jehoash of Israel,” *CBQ* 32 (1970), 325-340.

Dalley, Stephanie, “Yahweh in Hamath in the 8th Century BC: Cuneiform Material and Historical Deductions,” *VT* 40 (1990), 21-32.

Foster, Benjamin R.,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the Early Years,” *JCS* 65 (2013), 3-12.

Horowitz, Wayne, “Hazor: A Cuneiform City in the West,” *Near Eastern Archaeology* 76 (2013), 98-101.

Horowitz, Wayne, et al., “A Bibliographical List of Cuneiform Inscriptions from Canaan, Palestine/Philistia, and the Land of Israel,” *JAOS* 122 (2002), 753-766.

Knutson, F Brent, “Cuneiform Letters and Social Conventions,” *Semeia* 22 (1981), 15-23.

Maynard, John A F., “Hebrew or Akkadian? A Critique of Naville's Hypothesis of a Cuneiform Text of the Old Testament,” *ATHR* 3 (1921), 284-299.

Schmitz, Philip C., “Archaic Greek Names in a Neo-Assyrian Cuneiform Tablet from Tarsus,” *JCS* 61 (2009), 127-131.

Smick, Elmer B., “A Lesson in Textual Criticism as Learned from a Comparison of Akkadian and Hebrew Textual Variants,”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0 (1967), 127-133.

Von Dassow, Eva, “Canaanite in Cuneiform,” *JAOS* 124 (2004), 641-674.

다게쉬(強點)

dagesh

자음중복이나 파열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히브리어의 자음 글자 안에 찍는 점.

다게쉬는 성경 히브리어(דָּגֵשׁ), 중세 히브리어(dāghēsh)와 시리아어(d'ghash)에서 ‘찌르다’(to pierce, prick)는 뜻을 갖고 있으며, 오직 자음 글자 안에만 찍힌다.

다게쉬에는 강다게쉬(dagesh forte)와 약다게쉬(dagesh lene)가 있다. ‘브가드크파트’(בִּגְדֻקְפָּט, בִּגְדֻקְפָּט, בִּגְדֻקְפָּט) 자음들에서, 자음이 중복될 때 사용되는 것을 강다게쉬(dagesh forte)라 부르고 자음이 파열음을 표시하는 것을 약다게쉬(dagesh lene)라고 부른다. 약다게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마찰음이 된다.

자음의 중복은 동일한 자음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예문, 1-1), 다른 자음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예문, 1-2). 다른 자음이 중복되는 경우는 두 자음 사이에 오는 ֿ이 그 다음에 오는 자음과 결합하여 사라지고 다음에 오는 자음에 다게쉬가 붙는다. 강다게쉬는 לֵב, בֵּית, עֵם과 같이 단어 끝에서 사라진다.

발음의 구별을 위해 사용하는 약다게쉬은 브가드크파트 글자에서 발생한다.

(1) 강다게쉬의 예

(1-1) 동일한 자음의 중복: עֵמֶם, דָּבָר

(1-2) 다른 자음의 중복: יִמְצֵא, נִתְּנִי

(2) 약다게쉬의 예

תּוֹרָה, כִּי, פְּרִי־

≡ 브가드크파트(begadkefat)

– 강다게쉬, 약다게쉬

특성 강다게쉬, 특성 강점(特性 強點)

dagesh characteristicum

히브리어에서 문법적 형태의 한 특징으로 쓰이는 강다게쉬

히브리어에서 어떤 자음 앞에 나오는 ‘모음을 단모음으로 유지하기 위하여’(to keep the preceeding vowel short) 강다게쉬를 세 번째 자음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단모음이 개음절 앞에 올 때 장모음화 되어야 하는데, 그 단모음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자음에 다게쉬를 붙이는 것을 특성 강다게쉬라고 한다(참. GKCS §20.a.1.c, 93.ee).

창 24:10

וַיֵּקַח הָעֶבֶד עֲשָׂרָה גְמָלִים מִגְמְלֵי אֲדֹנָיו וַיֵּלֶךְ

종이 그 주인의 낙타 가운데 열마리를 끌고 떠나서

왕하 2:23

וַיָּבֹאוּ קְטָנִים וְגִּזְיֹת מִן־הָעִיר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 다게쉬(dagesh)

보상 강다게쉬, 보상 강점(報償 強點)

dagesh compensativum

히브리어에서 자음의 중복이나 동화로 인해 사용하는 강다게쉬.

보상 강점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한다.

(1) 동일한 두 개의 자음이 단어 중간에 유성슈바 없이 연속으로 나타날 때(예. אֶסֶף).

(2) 두 자음 사이에서 특정한 자음이 동화될 때(예. אֶסֶף) (참 GKCS § 20.1.a-b).

+ 다게쉬(dagesh)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滑音調 強點)

dagesh euphonicum, euphonic dagesh

히브리어에서 원활한 발음을 위해 사용되는 강다게쉬.

활음(滑音)이란 “조음 기관이 한 음의 위치에서 다른 음의 위치로 옮겨 갈 때에, 그 자체의 소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인접한 소리에 곁들여 나타나는 소리. 국어의 반모음 따위이다. 과도음·글라이드라고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활음조의 강점은 발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연결 중복과 분리 중복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어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슈바를 포함하는 자음이 강화되거나, 악센트에 의해 강세를 갖는 모음이 뒤따르는 경강점 때문에 강조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나타난다(참. GKCS §20c-k; JMK §82h-k).

창 2:23

כִּי מֵאִישׁ לְקַחָהּ זָאֵת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민 22:6

וְעַתָּה לִכְהֶנָּה זָא אֶרְה־לִּי אֶת־הָעַם הַזֶּה

이제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시 91:11

כִּי מְלֹאכָיו יַצִּיחֶנּוּ לָדָד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셔서

잠 15:1

מִעֲנֵה־דָד יֵשִׁיב חֲמָ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하지만

+ 다게쉬(dagesh)

강다게쉬(硬強點)

dagesh forte

히브리어에서 자음의 중복을 표시하는 점.

강다게쉬는 경강점(硬強點)이라고도 부른다. 강다게쉬에는 (1) 필수 (necessary and essential) 강다게쉬와 (2) 활음조(euphonic)의 강다게쉬가 있다(GKCS § 20).

필수 강다게쉬에는 (1) 동일한 자음이 중간에 모음이나 유성 슈바 없이 연속해서 두 번 사용되는 경우, (2) 동화되는 보상 강다게쉬, (3) 문법적 형태의 특징으로 사용되는 특성 강다게쉬가 있다.

활음조의 강다게쉬에는 (1) 연결 강다게쉬, (2) 분리 강다게쉬, (3) 작용 강다게쉬, (4) 고착 강다게쉬의 네 가지가 있다.

주용-무라오까는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이유 없이 나타나는 중복을 자발적인 중복이라고 말한다: 활음조의 강다게쉬에 포함되는 것인가? (JMK §18).

+ 다게쉬(dagesh)

↔ 약다게쉬

작용 강다게쉬, 작용 경강점(作用 硬強點)

dagesh forte affectuosum

히브리어에서 강세가 있는 모음 다음에 오는 자음에 사용되는 경강점.

작용 강다게쉬는 발음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활음조의 강다게쉬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요 휴지의 다음에 나오는 자음에 나타난다. 이 때 주요 휴지와 함께 나오는 모음은 바로 그 뒤따라 나오는 자음의 강다게쉬(작용 강다게쉬)에 의하여 강조된다. 보통 그 자음은 유성음이다. (참. GKCS §20i).

삿 5:7

חָדְלוּ פְּרוֹזִין בְּיִשְׂרָאֵל חָדְלוּ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치고 그쳤더니

욥 22:12

הֲלֹא-אֵלֹהִים גְּבוּהַ שָׁמַיִם וּרְאָהָ הָאֵשׁ בּוֹכְבִּים בִּירְמֹוֹ: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가

욥 29:21

לִי-שָׁמְעוּ וְיִחַלּוּ וְיִדְמֻ לְמוֹ עֲצָתִי: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며 내가 권면할 때 잠잠하였다

+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dagesh euphonicum)

+ 강다게쉬, 경강점(dagesh forte)

+ 다게쉬(dagesh)

연결 강다게쉬, 연결 경강점(連結 硬強點)

dagesh forte conjunctivum

연결 강다게쉬는 발음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활음조의 강다게쉬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1) 앞 단어가 강세를 가진 카메쯔(הֿ)나 셰골(הֿ)로 끝나고 뒤따르는 단어가 첫 음절에 강세를 가질 때(예. לִכְה־נָא). 그러나 הֿ와 함께 올 때 강다게쉬는 강세와 상관 없이 나타난다. (참. GKCS § 20c).

민 13:27

הוא הָה־פְּרָה־הָ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렘 23:6

הָה־שְׁמוֹ אֲשֶׁר־יִקְרָא יְהוָה צְדָקָנוּ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 라고 불릴 것이다.

(2) 단음절의 첫 글자나 혹은 카메쯔(הֿ)나 셰골(הֿ)로 끝나는 밀렐 뒤에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에서 나타난다 (참. GKCS § 20f).

시 68:19

שְׁבִיתִי שְׁבִי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시 118:25

הוֹשִׁיעָה נָא

구원하소서

+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dagesh euphonicum)

+ 강다게쉬, 경강점(dagesh forte)

+ 다게쉬(dagesh)

분리 강다게쉬, 분리 경강점(分離 硬強點)

dagesh forte dirimens

히브리어에서 슈바를 갖는 자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강다게쉬.

분리 강다게쉬는 발음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활음조의 강다게쉬에 속하는 것으로 슈바를 갖는 자음의 슈바가 보다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부분 유성음, 치찰음, 연구개음 ק, 그리고 ב, פ, ר 앞에서 주로 사용된다(참. GKCS §20h; JMK §18k).

레 25:5

וְאֶת־עֲבִי נִזְרָה לֹא תִבְעָר

가꾸지아니하고 저절로 열린 포도

삿 5:22

אִז הָלְמוּ עֲקֵבֵי־סוֹס

그 때에 말발굽소리가 요란하였다

- +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dagesh euphonic)
- + 강다게쉬, 경강점(dagesh forte)
- + 다게쉬(dagesh)

고착 강다게쉬, 고착 경강점(固着 硬強點)

dagesh forte firmativum

히브리어에서 낭독을 보다 장엄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강점.

고착 강다게쉬는 발음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활음조의 강다게쉬에 속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강세 모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유성음인 ל, מ, נ에서 주로 나타난다(예. הַמָּה, אֱלֹהֵי, כִּמְהָ)(참. GKCS §20k).

- +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dagesh euphonic)
- + 강다게쉬, 경강점(dagesh forte)
- + 다게쉬(dagesh)

함축 강다게쉬, 함축 경강점(含蓄 硬強點)

dagesh forte implicitum

히브리어에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질적(함축적)으로는 강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강다게쉬.

함축 강다게쉬는 유성 슈바를 갖는 자음에서 강다게쉬가 표면적으로 생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약한 모음인 슈바에 긴 자음이 의존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참. GKCS §20m; JMK §18m).

삿 8:2

מִבְּצִיר

הָלֹא טוֹב עַלְלוֹת אֶפְרַיִם מִבְּצִיר אֲבִיעֶזֶר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겔 32:30

בְּחַתִּיתָם מִבּוֹרְתָם בּוֹשִׁים

그들이 세상에서는 두렵게하고 힘을 자랑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시 147:2

נִדְּחֵי יִשְׂרָאֵל יִבְנֶם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 강다게쉬, 경강점(dagesh forte)

+ 다게쉬(dagesh)

약다게쉬, 연강점(軟強點)

dagesh lene

브가드크파트에서 파열음이나 즉각적인 단순 파열음(simple plosion)을 나타내는 다게쉬(JMK §10a).

약다게쉬는 연강점이라고도 부른다. 약다게쉬는 단어의 처음에서 예외 없이 나온다(예, 1). 그리고 한 단락의 처음(예, 2), 한 문장의 처음, 또는 분리 악센트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의 작은 구절에 나온다. 이 때는 강한 파열음의 발음을 유지한다(예, 3). 그러나 모음이나 유성 슈바 다음에 올 때는 마찰음의 발음으로 부드러워진다(참. GKCS §21; JMK §10a).

(1)

창 2:24

עַל־כֵּן יִעֲזֹב־אִישׁ אֶת־אָבִיו וְאֶת־אִמּוֹ וְדָבַק בְּאִשְׁתּוֹ וְהָיוּ לְבָשָׂר אֶחָד: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창 1:11

וַיֹּאמֶר אֱלֹהִים תְּדַשָּׂא הָאָרֶץ דָּשָׂא עֲשֹׂב מִזֵּרַע זָרַע עֵץ פֶּלִי עֲשֵׂה פְרִי לְמִינֹ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식물과 각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2)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

삿 11:5

וַיְהִי כִּאֲשֶׁר־גָּלְתָּמוּ בְּנֵי־עַמּוֹן

암몬 자손이 치려고 할 때에

≡ 브가드크파트(begadkefat)

+ 다게쉬(dagesh)

↔ 강다게쉬

달레트

Dalet

22 개의 히브리어 자음 중 네 번째 문자.

달레트는 집의 문(door) 모양에서 그 문자가 유래하였다. 달레트는 네 번째 문자이므로 4 의 수값을 가지며 ו, ן와 함께 치음(dental)에 속한다. 또한 브가드크파트 문자에 속하여 파열 음과 마찰음의 이중적 음가를 가진다. 약 다게쉬(연강점)을 포함한 달레트는 영어의 d 와 동일한 음가를 가지며 약 다게쉬가 없는 달레트는 아랍어의 د, 영어의 the 에서 th 의 음가를 가진다(참. GKCS §60-p; JMK §5c, h, o).

+ 문자(letter)

여격(與格)

dative (dativus)

행위 주체가 수행하는 동작으로 인해 수여, 영향 등의 작용을 받는 간접목적어로서 명사나 대명사의 격.

한자어 ‘여격’(與格)에서 ‘여’(與)는 일차적으로 ‘더불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수여(授與)와 여탈(與奪)에서와 같이 ‘주다’라는 뜻이 있다. 영어 dative도 ‘주어진’(given)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datum)에서 나왔다. 따라서 여격은 기본적으로 “수여, 이해, 영향 등의 작용을 받는” 격이며(조성식 외),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이 무엇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보이는 격”이다(표준국어대사전).

주격, 속격, 대격, 호격 등과 같은 명사의 격 중 하나이다. 라틴어나 헬라어에서는 여격의 형태가 남아 있으나, 히브리어는 현대 영어와 같이 여격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히브리어에서는 전치사 ל를 통해 주로 여격을 표현하기도 하나 때로는 전치사 없이 표현하기도 한다(참. 조성식 외).

수 15:16

וְנָתַתִּי לָךְ אֶת־עַבְדְּךָ בְּתִי לְאִשָּׁ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줄 것이다.

신 5:24

הָרָאָנוּ יְהוָה אֱלֹהֵינוּ אֶת־כְּבוֹדוֹ וְאֶת־גְּדֻלּוֹ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 주셨다.

히브리어와 달리 헬라어는 격이 세분화되어 있고 여격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헬라어의 여격은 크게 순수 여격(pure dative), 장소의 여격(local dative), 수단의 여격(instrumental dative)으로 나뉜다. 순수 여격은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위해’라는 질문과, 장소의 여격은 ‘어디에서’라는 질문과, 수단의 여격은 ‘어떻게’라는 질문과 연관된다.

(1) 순수 여격에는 간접 목적 여격(dative indirect object), 이익과 불이익의 여격(dative of advantage and disadvantage), 세목의 여격(dative of reference/respect), 감성의 여격(dative of feeling), 도착지 여격(dative of destination), 수령인 여격(dative of recipient), 소유 여격(dative of possession), 소유물 여격(dative of thing possessed), 술어 여격(predicate dative), 단순 동격 여격(dative in simple apposition)이 있다(W 140-153). 간접 목적 여격의 예를 하나 살펴보자.

요 4:10(W 142)

καὶ ἔδωκεν ἄν σοι ὕδωρ ζῶν

그러면 그가 혹여 네게 생수를 줄 텐데.

(2) 장소의 여격에는 장소의 여격(dative of place), 영역의 여격(dative of sphere), 시간의 여격(dative of time), 규칙의 여격(dative of rule)이 있다(W 153-158). 영역의 여격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행 16:5

Αἱ μὲν οὖν ἐκκλησίαι ἐστερεοῦντο **τῇ πίστει** καὶ ἐπερίσσευον **τῷ ἀριθμῷ** καθ' ἡμέραν

그래서 교회들이 믿음 면에서 견고해지고, 그들이 숫자 면에서 날마다 늘어납니다.

(3) 수단의 여격에는 연합의 여격(dative of association), 태도의 여격(dative of manner, adverbial dative), 수단/도구의 여격(dative of means/instrument), 대리자 여격(dative of agency), 측량/차별성의 여격(dative of measure/degree of difference), 원인의 여격(dative of cause), 동족 여격(cognate dative), 재료의 여격(dative of material), 내용의 여격(dative of content)이 있다(W 158-171). 수단/도구의 여격의 예를 하나만 살펴보자.

행 12:2(W 163)

ἀνεῖλεν δὲ Ἰάκωβον τὸν ἀδελφὸν Ἰωάννου **μαχαίρῃ**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처단했습니다.

+ 격(case)

– 이익의 여격(dative of advantage), 불이익의 여격(dative of disadvantage), 감성의 여격(dative of feeling)

이익의 여격(利益與格)

dative of advantage, dativus commodi

특정한 주체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여격.

히브리어에서 이익의 여격은 주로 전치사 ל가 대명사접미사와 함께 ‘-을/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표현되며 대개 대화체에서 사용된다. 이익의 주체가 주어와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 해당하는 감성의 여격(dative of feeling, dativus ethicus)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제외시키기도 한다(참. GKCS § 119s; JMK § 133d).

민 22:6(JMK §133d)

וְעַתָּה לֵכָה-נָא אֶרְהֶלְי אֶת־הָעַם הַזֶּה

이제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시오.

사 6:8

מִי יֵלֶךְ-לָנוּ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헬라어에서 이익의 여격은 순수 여격(pure dative), 장소의 여격(local dative), 수단의 여격(instrumental dative) 가운데 순수 여격에 속한다. 또한 순수 여격 가운데에서 관심의 여격(dative of interest) 용법에 포함되는데, 관심의 여격에는 이익의 여격과 불이익의 여격(dative of disadvantage)이 포함된다. 관심의 여격과 간접 목적어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도 하지만(R 538), 간접 목적어를 관심의 여격보다 보다 더 큰 범주로 이해하기도 한다(W 143). “순수 여격(the pure dative)은 일반적으로 관심의 여격처럼 사용”되지만, 이익이나 불이익을 내포할 때만 관심의 여격이라 부른다(W 143). 불이익의 여격이 ‘맞서/대항하여/거역하여’라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이익의 여격은 ‘위하여’라는 개념을 가진다.

눅 18:31(R 539)

πάντα τὰ γεγραμμένα διὰ τῶν προφητῶν τῷ υἱῷ τοῦ ἀνθρώπου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은 인자를 위한 것이다.

고전 6:13(W 144)

τὰ βρώματα τῇ κοιλίᾳ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 여격(dative), 격(case)

↔ 불이익의 여격(dative of disadvantage, dative of incommodi)

불이익의 여격(不利益與格)

dative of disadvantage, dativus incommodi

특정한 주체의 불이익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여격.

히브리어에서 불이익의 여격은 이익의 여격처럼 주로 대화체에서 나타나며 전치사 ל가 대명사접미사와 함께 사용된다(참. GKCS §119s ; JMK §133d).

겔 37:11(GKCS § 119s)

וְאִבְדָּה תְּקוּתָנוּ בְּגִּרְנוּ לָנוּ: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며 우리는 끊어졌다.

렘 4:19(JMK § 133d)

הִמְהַלֵּי לִבִּי

나는, 내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헬라어에서 불이익의 여격은 순수 여격(pure dative), 장소의 여격(local dative), 수단의 여격(instrumental dative) 가운데 순수 여격에 속한다. 또한 순수 여격 가운데에서 관심의 여격(dative of interest) 용법에 포함되는데, 관심의 여격에는 불이익의 여격과 이익의 여격(dative of advantage)이 있다. 관심의 여격과 간접 목적어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도 하지만(R 538), 간접 목적어를 관심의 여격보다 보다 더 큰 범주로 이해하기도 한다(W 143). “순수 여격(the pure dative)은 일반적으로 관심의 여격처럼 사용”되지만, 이익이나 불이익을 내포할 때만 관심의 여격이라 부른다(W 143). 이익의 여격이 ‘위하여’라는 개념을 가지는 반면, 불이익의 여격은 ‘맞서, 대항하여, 거역하여’라는 의미를 가진다.

마 23:31(W 143; PDSNTG 41)

ὥστε μαρτυρεῖτε ἑαυτοῖς

결국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항하여 증언한다.

+ 여격(dative)

+ 격(case)

↔ 이익의 여격(dative of advantage, dative of commodi)

감성의 여격(感性與格)

dative of feeling, ethical dative, dativus ethicus

특정한 주체의 감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격.

히브리어에서 감성의 여격은 주로 동사 바로 다음에 대명사접미사를 갖는 전치사 ל의 구조로 나타난다. 이 때 사용하는 동사는 주로 명령형의 형태로 오며 전치사 ל와 함께 오는 대명사접미사는 대개 2 인칭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치사 ל와 함께 오는 대명사접미사는 주어와 동일인의 의미로 사용되어 주어를 부각시키거나 재귀적 뉘앙스로 사용한다(참. GKCS §119s; JMK §133d).

삼하 24:12

בְּחֵר־לְךָ אֶחַת־מֵהֶם

너는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

암 7:12

בָּרַח־לְךָ אֶל־אֶרֶץ יְהוּדָ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헬라어에서 감성의 여격은 순수 여격(pure dative), 장소의 여격(local dative), 수단의 여격(instrumental dative) 가운데 순수 여격에 속한다. 감성의 여격을 ethical dative 라고 부르기도 한다(W 146). 헬라어의 경우 감성의 여격 사용이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행 7:20(W 147)

Ἐν ᾧ καιρῷ ἐγεννήθη Μωϋσῆς καὶ ἦν ἁστεῖος τῷ θεῷ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돌보였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풍으로 보기도 한다(BDF §192).

갈 6:11(R 1378)

ἴδετε πηλικοὶς ὑμῖν γράμμασιν ἔγραψα τῇ ἐμῇ χειρὶ

내가 직접 얼마나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썼는지 보십시오.

+ 여격(dative), 격(case)

사해사본

Dead Sea Scrolls

사해의 북서쪽에 있는 쿨란에서 발견된 사본.

쿨란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쿨란사본이라고도 한다. 사해사본은 1947 년 사해 북서쪽, 여리고 남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쿨란에서 길잃은 염소를 찾아 다니던 베두인 목동(무하마드)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후 수 년 동안(1956 년까지) 집중 발굴하여 쿨란 일대에 있는 11 개의 동굴에서 여러 문서들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 히브리어로 된 문서들이 가장 많았고,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도 있었다. 히브리어(일부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 중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공동체 규율서, 구약 주석, 신학 사상과 공동 생활을 기록한 문서 등 성경 외의 문서들이 있었다. 그 중 구약 성경 문서를 사해사본이라 부르는데, 에스더서만 제외한 전 구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사야서는 전체가 발견되었다. 사해사본은 대부분 갈대를 깎아 만든 뾰족한 펜으로 양의 껍질을 압축시켜 만든 양피지로 된 긴 두루마리에 적어 조그만 항아리에 보관했으므로 사해 두루마리라고도 부른다. 두루마리의 폭은 평균 약 26cm 이며, 가장 긴 것의 길이는 약 9m 에 이른다. 고문서학이나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해 본 사해사본의 연대는 주전 3 세기-주후 2 세기이므로 현존하는 구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발견된 제 1 번 동굴에서는 이사야 본문이 발견되었고 다른 동굴들에서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가장 많은 사본이 발견된 곳은 제 4 번 동굴이다. 제 4 번 동굴에서는 최소한 15,000 조각들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1952 년부터 1960 년까지 이 조각들을 끼워 맞추는 결과 584 개의 텍스트가 확인되었고, 그 중 127 개가 성경 사본들이다. 사해사본 중 일부는 각종 오류, 수정, 첨가, 삭제 등 이차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여전히 사본학적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사해사본은 현재 예루살렘에 소재한 이스라엘 박물관 내의 사해사본 보관소(The Shrine of the Book)에 보관되어 있다(참. Skolnik F., *Encyclopaedia Judaica*, vol. 5,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LTD., 2007: 498-506;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149-174;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29-40).

≡ 알레포 사본(Aleppo Codex)

≡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선언적(宣言的)

declarative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조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유형

영어 declarative 는 ‘선언하다’는 라틴어 동사(declare)에서 나왔다. 말하다(say), 주장하다(assert, maintain)는 동사와 함께 강조하는 진술을 만들므로 직설법과 연관되지만, 의문문(question)이나 명령문(imperative)과 대비된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사물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무엇인가의 성격을 확인하여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קדק** 동사의 경우, 칼 유형으로 쓰이면 ‘의롭다’는 뜻이지만 피엘 형태로 쓰이면 선언적 의미가 되어 ‘의롭다고 선언하다’는 뜻을 갖게 된다. 즉 자신이 의로움을 증명하든지, 다른 이가 의롭게 보이게 하든지,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하든지 등으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를 선언적인 의미라고 지칭한다(참. IBHS § 21.1a; PDSBH, 54, 91).

렘 3:11

עֲדָקָה נִפְשָׁה מִשְׁכָּח יִשְׂרָאֵל מִבְּנֵיהֶּ יְהוּדָה

패역한 유다는 반역한 이스라엘보다 자신이 의로움을 나타냈다.

헬라의 경우, 선언적 진술은 주로 직설법을 통해 표현된다.

행 6:8(W 449)

Στέφανος δὲ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δυνάμεως **ἐποίει** τέρατα καὶ σημεῖα μεγάλα

한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이 대단한 기사들과 표적들을 행합니다.

선언적 진술은 담은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ὥς 와 ὅτι 가 있다(R 1032).

행 10:28(R 1032)

ὕμεῖς ἐπίστασθε **ὥς** ἀθέμιτόν ἐστιν ἀνδρὶ Ἰουδαίῳ κολλᾶσθαι ἢ προσέρχεσθαι ἀλλοφύλῳ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타민족에게 가까이하거나 다가가는 것이 유대 남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행 10:38(R 1032)

ὅτι ὁ θεὸς ἦν μετ’ αὐτοῦ.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 직설법(indicative)

곡용(曲用)

declension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서 성(性), 수(數), 격(格)에 따라 어미(語尾)가 굴절하는 방식

영어 declension 은 라틴어의 declinare (방향을 바꾸다, 굽히다)에서 나왔으므로, 굴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유럽어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따위의 격(格), 수(數), 성(性)에 의한 굴절을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의 경우, 명사, 대명사, 형용사에 어미(語尾), 즉 굴절접미사가 붙어서 성, 수, 격, 단수/복수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곡용’(曲用)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영어 declension, conjugation, inflection 은 모두 형태상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지만, 우리는 declension 은 곡용(曲用)으로, conjugation 은 활용(活用)으로, inflection 을 굴절(屈折)로 번역하였다.

신 6:18

וַיִּרְשֹׁתָּהּ אֶת־הָאָרֶץ הַטֹּבָה

너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어미변화는 1 변화, 2 변화, 3 변화가 있다. 1 변화는 여성명사가 많고, 2 변화는 남성과 중성명사가 많다. 3 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변화들은 관사, 형용사, 대명사, 분사 변화에 활용된다. 자세한 것은 각각의 경우를 보라.

≡ declension(곡용), conjugation(활용), inflection(굴절)

→ 1 변화(first declension), 2 변화(second declension), 3 변화(third declension)

심층구조

deep structure

심층구조란 언어적인 발화(utterance)의 기저에 있는 구조(underlying structure)를 설명하기 위해서, N.Chomsky 에 의해 제안된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의 용어로서,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와 대조된다(참. 최성식 외; RDLL 279).

심층구조란 실제 발화(utterance)의 배후에 있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인데, 언어수행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능력을 추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Chomsky 에 의하면, 심층구조는 기저부분(base component)에 의해서 생성되어, 기조 구 구조 표지(base phrase marker)로 나타나는데, 변형규칙이 한번도 적용되지 않은 구 구조표지가 그 문장의 심층구조가 된다.

심층구조는 변형들(transformations)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어휘소(lexemes)들을 포함하는 한 문장의 요소가 지니는 언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관계, 구문적인 요소들의 기능들을 설명한다. 언어 안에 있는 두 단계의 구조(심층구조: 표면구조)가 차이가 있다는 개념은 오랜 기간동안 복잡한 역사를 지닌다. 이것은 인도 문법학자인 Pāṇini(BC 4세기)의 연구에서, Port Royal의 17세기 문법에서, Humboldt, Wittgenstein, Hockett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변형문법에서 두 구조 단계들은 나무 도형(tree diagrams)으로 표현된다. Chomsky의 양상 모형(aspects model)에서, 의미 중립적인 변형들(meaning-neutral transformations)은 심층구조의 기저 나무 구조(the basic tree structure)와 표면 구조의 파생된 나무 구조(the derived tree structure) 사이를 중개해서, 의미구조가 음성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구문론적으로 발생된 개념은 기본 구조를 의미론적으로 간주하는 생성 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을 주창하는 자들과 Chomsky를 따르는 자들 간에 큰 논쟁을 시작하게 했다.

또한 표준 이론의 여러 차례 수정으로 인해, 의미론적인 해석과 연관되는 단계가 표면구조(지금은 S-structure)로 부호화되고 있는 심층구조(deep structure)의 구조적인 정보로 변화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의미론적인 정보는 수정확대표준이론(the 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 이후에 의미론적인 해석들을 위한 입력이 되는 S-structure로 남게 되었다(참. 최성식 외; RDLL 279; N.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2015).

+ 구조주의(structuralism)

↔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

불완전동사(不完全動詞)

defective verbs

활용 형태의 일부가 없는 불완전한 동사.

영문법에서는 결여동사(缺如動詞)라고도 하며, “대개의 동사들은 활용형을 갖지만, shall, will, can, may, must, ought 나 dare, need 등의 변칙동사(anomalous vb)는 활용형의 일부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조성식 외). 영어의 go-went-gone 과 같은 변화도 불완전 동사에 속한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한 동사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 형태는 하나의 동사 어근에서 빌려오고, 나머지는 다른 동사 어근에서 빌려오는 동사 형태이다”(JMK §85a).

서로 유사한 어근을 가졌고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실제적인 어형변화 과정 속에서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טוב וטוב ‘부끄러워하다’의 의미인 בוש ובוש, ‘두려워하다’의 의미인 יגר וגור가 있다(참. JMK §85a).

창 1:4

וַיֵּרָא אֱלֹהִים אֶת־הָאֹר כִּי־טוֹב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고 그 빛이 좋았다.

신 1:23

וַיֵּיטֵב בְּעֵינֵי הַדָּבָר

그 말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

렘 10:14

נִבְעַר כָּל־אָדָם מִדַּעַת הַבֵּישׁ כָּל־צֹרֶף מִפָּסֶל

모든 대장장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렘 22:25

וּבִיד אֲשֶׁר־אַתָּה יָגוּר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헬라어의 불완전동사로는 κείμαι 가 있는데, 현재와 미완료과거형으로만 쓰이면서 때로 τίθημι 의 수동형으로 쓰인다(R 316).

행 28:20(R 316)

ἐνεκεν γὰρ τῆς ἐλπίδος τοῦ Ἰσραὴλ τὴν ἄλυσιν ταύτην περίκειμαι.

O|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동여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περίκειμαι 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τίθημι 의 수동형으로 쓰였다.

불완전서법(不完全書法)

defective writing

히브리어의 몇몇 자음들이 모음을 표시하는데 사용된 글자.

히브리어 몇몇 자음들인 ו, י, ה와 가끔 א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특정한 모음들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히브리어로 이 자음들은 이모트 하크리(אִמוֹת־הַקֶּרִי)라고 불렸으며, 중세 라틴어에서는 mater lectionis (모음문자)로 번역하였다. 이 용어는 ‘도움을 주는 글자’라는 뜻으로서 “마치 아장거리는 아기를 돕는 어머니처럼 모음이 없는 본문에 첨가된 글자이다”(JMK 7a.n). 이 모음문자는 실제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묵음문자(默音文字)라고도 부른다.

“히브리어에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이 존재하던 때에 ה는 장모음 a, e, o 를, ו는 장모음 o, u 를, י는 장모음 e, i 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흔히 모음 글자와 함께 단어를 쓰는 것을 ‘완전서법’(plene spelling, full writing)이라고 하고, 모음 글자 없이 쓰는 것을 ‘불완전 서법’(defective spelling, defective writing)이라고 한다”(박미섭, 『성서히브리어 문법』 2.1.2).

신 6:18

וַיִּרְשֶׁתְּ אֶת־הָאָרֶץ הַטֹּבָה

너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완전서법/철자법(full writing)

한정성(限定性)

definiteness

비한정(indefinite)과 구별되는 것으로 대부분 관사와 함께 나오며, 맥락이나 상황에서 개체를 지정할 수 있는 특징적인 속성

한정성이란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 한정이 되는 정도나 등급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정적(definite)과 비한정적(indefinite)이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한정적인가, 혹은 비한정적인가’와 같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한정성은 ‘분명성’, ‘명료성’, ‘친숙성’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가 지시하는 것이 화자/저자나 청자/독자에게 얼마나 친숙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동사 없는 명사문장이 존재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한정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정성이 높은 것이 주어이며 한정성이 낮은 것이 술어이다.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의 한정성은 높으며 형용사, 부정사 등의 한정성은 낮다’와 같이 단어의 형태나 품사로 한정성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용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예로, וְאֵלֶּה שְׁמוֹת בְּנֵי-אַהֲרֹן(민 3:2,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에서 אֵלֶּה는 지시대명사이지만 한정성이 낮아서 주어가 아닌 술어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성의 등급 매김은 표면적인 형태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화자/저자와 청자/독자의 정체, 그들의 이전 대화(혹은 기록)와 공유된 지식,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

헬라어의 한정성은 주로 관사(article)로 표현된다. 이와 관계된 논의로 ‘아폴로니우스의 규범’(Apollonius’ canon)과 ‘콜웰의 법칙’(Colwell’s rule)이 있다. 아폴로니우스는 관사가 없다 하더라도 주 명사와 속격 명사 둘 다 관사를 가지지 않고, 속격 명사가 한정성을 가지면 주 명사도 한정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콜웰은 서술명사와 관련하여, 한정적 서술명사가 대개 관사를 가지지만, 동사 앞에 나올 때는 관사가 없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두 법칙을 참고하라.

+ 관사(article)

≡ 아폴로니우스의 규범(Apollonius’ canon), 콜웰의 법칙(Colwell’s rule)

↔ 비한정성(indefiniteness)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서의 퇴화

degeneration in LBH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서 고전 히브리어 시제체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되거나 와해되는 현상.

성서 히브리어의 발달사는 크게 포로 전기의 고전 히브리어(classical Hebrew) 시대와 포로 귀환 후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로 나눈다. 포로 전기 히브리어를 또 다른 말로 표준 성서 히브리어(Standard Biblical Hebrew)라고도 부른다.

“바빌론 포로기는 히브리어 발달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구어와 문어가 포로기 전에는 따로 표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제1 성전의 파괴가 가져온 사회·정치적 소요는 문헌 언어인 성서 히브리어를 손상시키며 중요한 언어변화를 가져왔다”(SBCP 131).

특히 표준 성서 히브리어(Standard Biblical Hebrew) 시대에서는 베카탈티(w-qatalí) 형태가 주로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나 후기 성서 히브리어 시대로 넘어가면서 미래가 아닌 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고전적 시제 체계가 미쉬나 히브리어 시대로 넘어가기 전, 후기 성서 히브리어 시대에서도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참. JMK §119z-zb).

대상 17:10(JMK § 119za)

וְאָנֹכִי לְךָ וּבֵית יִבְנֶה־לְךָ יְהוָה:

내가 네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집을 지을 것이다.

삼상 7:11(JMK § 119za)

וְהִגִּיד לְךָ יְהוָה כִּי־בֵית יַעֲשֶׂה־לְךָ יְהוָה: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집을 만들 것이다.

직시(直示), 직시소(直示素)

deixis, deictic

발화(utterance)나 담화(discourse)에서 지시사를 통하여 가리키는 언어 외적인 상황으로서 시간, 공간, 관계, 장소 등을 가리키는 어휘나 문법구조.

이 용어는 헬라어(δείκνυναι, 보여주다; δεικτικός, 보여줄 수 있다, 직접 보여주다; δειξις, reference)에서 나왔다.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this, these 와 that, those, here, there, now, then, today, yesterday, tomorrow, 그리고 인칭대명사들(I, we, you 등)이 있다. 영문법에서는 좀 더 세분하여 (1) 인칭직시(person deixis), (2) 시간직시(time deixis), (3)장소직시(place deixis), (4) 담화직시(discourse deixis), (5) 사회적 직시(social deixis)로서 지칭자 존대(referent honorifics), 청자존대(addressee honorifics), 제 삼자 존대(bystander honorifics)가 있다(조성식 외).

어떤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속한 담화의 맥락을 분석해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 그 담화의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장소, 관계 등이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예로, 대명사는 그 대명사 홀로 어떤 것을 지칭할 수 없으므로, 전방조응적(anaphoric) 혹은 후방조응적(cataphoric)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전방대용어 (anaphor, anaphora)

≡ 후방대용어 (cataphora)

탈언 동사(脫言動詞)

delocutive verb

어떤 동사가 형태론상으로 관계있는 형태에서 파생되었고 그것이 동사를 발화함으로써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를 수행하는 동사

탈언동사는 어근과 연결되는 어떤 상태를 발화과정을 통해 성취하는 동사이다. 예를 들면 라틴어 salutare(인사하다)의 단어는 salus 라는 형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Salus!라는 언어 발화 행위와 연관된다. 불어 remercier ('to thank)는 merci 라는 형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Merci! (thank you)라는 언어 발화행위와 연관된다. (참. 이정민 외).

히브리어의 **צדק** 동사와 **רשע** 동사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들은 각각의 어근이 ‘의롭다’ 과 ‘악하다’는 뜻인데, 히필 유형 동사로 쓰일 경우, 그 발화행위를 통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판단/평가/선언한다는 의미가 된다(JMK §117a; IBHS §32.1.1a).

신 25:1

וְהַצְדִּיקוּ אֶת־הַצִּדִּיק וְהַרְשִׁיעוּ אֶת־הָרָשָׁע

그들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해야 한다.

≡ factitive(작위동사, 작용동사)

Hillers, Delbert R., “Delocutive Verbs in Biblical Hebrew,” *JBL* 86 (1967), 320-324.

지시사(指示詞)

demonstrative

발화 상황이나 맥락에서 사람, 장소, 시간, 상황, 실체 등을 가리키거나 특정화하거나 한정시키는 문법적 요소(참. ODEG; PDSBH).

명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 관사가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영문법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지시대명사의 약칭이나 넓은 의미로는 (1) 지시형용사(this, that, these, those, such, the same), (2) 지시부사(hence, here, there, hence, thence, yonder 등), (3) 지시관사가 있다(I can't remember it for the moment 에서 the=this 로 지시적이다(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정관사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고 한정하고 특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PDSBH).

창 2:23

זֶה הָעֵץ מְצֻלָּה וְכָשָׁר מִבְּשָׂרִי

이것은 내 뼈들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창 19:14

קוּמוּ וְצֵאוּ מִן־הַמִּקְוֵה הַזֶּה

일어나라, 이 장소로부터 나가라.

헬라어의 경우, 지시대명사가 주로 지시사로 사용된다. 지시대명사로는 οὗτος, ἐκεῖνος 와 ὅδε 가 있다. 한편 αὐτός 가 지시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R 686).

행 4:11(W 326)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λίθος, ὁ ἐξουθενηθεὶς ὑφ' ὑμῶν τῶν οἰκοδόμων

이분은 돌입니다. 건축자들인 여러분에 의해 업신여김을 받은 그것입니다.

행 15:11(W 328)

ἀλλὰ διὰ τῆς χάριτο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πιστεύομεν σωθῆναι καθ' ὃν τρόπον καὶ ἐκεῖνοι.

오히려 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요.

행 21:11(W 328)

τάδε λέγει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거룩한 영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눅 2:38(R 686)

αὐτῇ τῇ ὥρᾳ

바로 그 시간에

명사 파생 동사(名詞派生動詞)

denominative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히브리어 명사들은 다른 명사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동사에서 파생된다. 명사 파생 명사는 동사 파생 명사보다는 훨씬 적다.

명사에서 파생되었거나 혹은 불변사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기본 형태일 수도 있고 파생된 형태일 수도 있다. 히브리어에서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들은 מָלַח(소금)에서 파생된 מָלַח(소금으로 간하다), שָׁשׁ(셋)에서 파생된 שָׁשׁ(셋으로 나누다), רָגַל(발)에서 파생된 תָּרַגַּל(길을 인도하다) 등이 있다(참. GKCS § 38c-d, 43c; JMK §34c, 41a, 59e).

헬라어의 경우, 명사 어간이나 부사에 어미를 붙여 만든 단어를 명사 파생 단어(denominative words)라고 부르고, 이 단어에 붙힌 어미를 명사 파생 어미(denominative suffixes)라고 부른다. 명사 파생 단어에는 동사뿐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 등이 포함된다. 예로, δουλό-ω(롬 6:22, 종으로 삼다), δικαιο-σύνη(마 5:20; 의), παλαι-ός(눅 5:39; 오래된) 등이 있다(W 828).

≡ 동사 파생 명사(deverbal), 원시(주된)(primitive, primary)

명사 파생 명사(名詞派生名詞)

denominative noun

명사에서 파생된 명사.

파생명사는 이차적 형태로서 원시 명사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모든 명사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에서 명사 파생 명사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פֶּרוֹם 포도나무 재배자(< פָּרָם), קֶשֶׁת 궁수(< קָשֶׁת), מַעֵין 샘이 있는 곳(< עֵין), חִיצוֹן 외부(< חוּץ), אִישׁוֹן 작은 사람(< אִישׁ), יִשְׂרָאֵלִי 이스라엘 사람(< יִשְׂרָאֵל), מַלְכוּת 왕국(< מֶלֶךְ), רִאשִׁית 처음(< רֹאשׁ)(참. GKCS § 86).

헬라어의 경우, 명사 어간이나 부사에 어미를 붙여 만든 단어를 명사 파생 단어(denominative words)라고 부르고, 이 단어에 붙힌 어미를 명사 파생 어미(denominative suffixes)라고 부른다. 명사 파생 단어에는 동사뿐 아니라 명사와 형용사 등이 포함된다. 명사 파생 명사의 예로, γραμ-ματ-εύς(고전 1:20; 서기관), δικαιο-σύνη(마 5:20; 의) 등이 있다(W 828).

≡ 원시(주된)(primitive, primary)

치음(齒音)

dental

혀끝과 윗니 또는 윗잇몸이 닿아서 혀를 안으로 당기며 내쉬는 숨의 흐름을 조금 세게 하였을 때는 나는 소리(참. 표준국어대사전, 조성식 외).

현대 국어에서 ‘ㄷ’, ‘ㅌ’, ‘ㄴ’, ‘ㄹ’ 따위를 이르며, 잇소리, 치리음, 치성이라고도 한다. 치음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으며, 자음 분류에 따라 언어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히브리어에서 치음은 $\daleth$, $\lsh$, $\lsh$, $\lsh$, $\lsh$ 다섯 개를 가리킨다(참. JMK §5c).

헬라어 자음 중에서, 치음이면서 폐쇄음은 τ , δ , θ 이고, 치음이면서 유음은 λ 이고, 치음이면서 비음은 ν 이며, 치음이면서 마찰음은 σ 이고, 치음이면서 파찰음은 ζ 이다. 이상이 잘 정리된 표는 S 22 에 있다.

+ 자음(consonant)

파생어간(派生語幹)

derived stem

히브리어에서 기본 어간으로부터 생성되어 변화된 어간.

‘어간’(語幹)의 ‘간’(幹)은 ‘몸, 줄기, 근본, 등뼈’ 등을 가리므로, ‘단어의 뼈대’를 뜻한다. 국어에서 파생어간이란,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어간. ‘짓누르다’의 ‘짓누르-’, ‘잡히다’의 ‘잡히-’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기본 어간(ground stem)은 칼이며, 파생 어간은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이다. 성경아람에서 기본 어간은 페알이며, 파생 어간은 페일, 히트페엘, 파엘, 하펠 등이다(참. IBHS §21.1.1a; PDSBH).

헬라어의 경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발견되는 파생어간이 없다.

↔ 기본어간(ground stem)

탈의미화(脫意味化)

desemanticization

어떤 단어나 형태가 원래의 형태론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현상.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 과정 중에서 원래 지니고 있던 형태론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오라!’를 뜻하는 **לָכָה**나 **הָלַךְ**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용례들은 감탄사처럼 쓰이면서 뒤에 따라나오는 문장의 주동사와 형태론적 불일치를 보이기도 한다(참. JMK §105e).

창 31:44

לָכָה נִכְרְתָה בְרִית

오라, 우리가 언약을 맺자.

창 11:3

הָבָה נִלְבְּנָה לִבְנֵי

오라,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헬라어의 예로는 *ἰδού*와 *δεῦρο*가 있다. *ἰδού*는 형태상으로 명령법 부정과거 중간태 2인칭 단수이지만 부사 혹은 감탄사로 쓰인다. ‘보라’를 의미한다. *δεῦρο*는 명령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 형태와 함께 쓰이는 감탄사로 ‘오라’를 의미한다.

행 1:10

ἰδοὺ ἄνδρες δύο παρειστήκεισαν αὐτοῖς ἐν ἐσθήσεσι λευκαῖς

보십시오. 두 남자가 흰옷을 두르고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행 7:3

καὶ **δεῦρο** εἰς τὴν γῆν ἣν ἄν σοι δείξω.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오너라.

기원문(祈願文)

desiderative sentence

의지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원을 표현하는 문장.

히브리어에서 의지법(volitive moods)에는 권유형, 지시형, 명령형이 있다. 의지법을 사용하여 기원을 표현하는 기원절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JMK §163).

첫째는 감탄 의문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의문사 뒤에 미완료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원을 나타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מִי־יֵתֵן 이라는 구문을 사용하는 것인데, ‘누가 줄 것인가?’라는 의미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으로 정형화되어 통용되었다. 둘째는 불변사 אִם 혹은 לוֹ를 사용하여 기원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다(GKC §151; JMK 163c). 세째는 명사절도 기원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JMK §163b).

삼하 19:1

מִי־יֵתֵן מוֹתִי אֶנִּי תַחֲלִיד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창 17:18

לוֹ יִשְׁמְעָאֵל יְחִיָּה לְפָנֶיךָ

이스마엘이 당신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삿 6:23

וַיֹּאמֶר לוֹ יְהוָה שְׁלֹמֹם לְךָ אֶל־תִּירָא לֹא תָמוּת: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기원문은 희구법(기원법, optative)를 통해 주로 표현된다. 직설법과 관련해서는 미완료과거형이 기원을 표현할 때가 있다(W 551-552).

행 25:22(W 552)

ἐβουλόμην καὶ αὐτ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ἀκοῦσαι.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 희구법(기원법, optative)

한정사(限定詞)

determinative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를 문장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품사

한정(限定)이란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혹은 “어떤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확실히 함”을 뜻한다(표준국어사전). 영문법에서 한정사는 한정대명사(determinative pronoun), 한정형용사(determinative adjective), 관사류(article and article-like determinative) 등이 있다(조성식외.).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등이 한정사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한정 명사(限定名詞)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정관사와 함께 한 명사(구), 고유명사(구), 대명사접미사와 함께 한 명사(구)에서 나타난다. 한정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목적격 불변사 **הַ**가 함께 사용된다(참. GKCS §125-127; JMK §137-140).

헬라어도, 관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한정사처럼 쓰인다. 형식은 관사+명사+지시대명사 혹은 지시대명사+관사+명사, 관사+명사+인칭대명사 혹은 인칭대명사+관사+명사와 같이 나타난다.

≡ 정관사(definite article),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

동사 파생 명사(動詞派生名詞)

deverbal noun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영어 deverbative 는 deverbal 에 대한 옛날 문법 용어이다(ODEG). 히브리어에서 명사는 기원에 따라서 원시명사와 파생명사로 나뉘어 있는데 동사파생명사는 명사파생명사와 더불어 파생 명사에 속한다. 동사파생명사는 명사 파생 명사 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사 형태와 관련된 명사와 분사 형태와 관련된 명사도 이 부류에 속한다. 동사에서 파생되었는지 명사에서 파생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명사들도 많다(참. GKCS §81, 83-85; JMK §34c, 87).

예로, מוֹדֵד 모욕은 피엘 מוֹדֵד 모욕하다와, תְּהִלָּה 찬양은 피엘 תְּהִלָּה 찬양하다와 관련된다.

헬라어의 경우, 어근이나 동사 어간에 어미를 붙여 만든 단어를 원시(primitive) 혹은 주된(primary) 단어라고 부른다.

+ 명사

≡ 원시(primitive) 단어

드히

Dhiq

히브리어의 특수한 자음중복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아람어 표현으로, ‘압축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단어가 모음문자 ה로 끝나고, 뒤따르는 단어가 강세를 지닌 단음절일 경우, 앞 단어는 악센트를 상실하고 막셉을 사용하여 뒷 단어와 결합하게 되며, 뒷 단어의 첫 자음이 중복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중점을 갖게 된다(JMK §18i; PDSBH).

민 22:6

לְכֶ-נָּא אֶרְהֶ-לִי אֶת־הָעַם הַזֶּה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통시태(通時態), 통시적인(通時的)

diachrony, diachronic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모습”(표준국어대사전).

언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하는 속성을 갖는다. 언어의 통시성이란 언어가 발전해 가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언어의 공시성은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언어사실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모든 통시태는 공시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시태 역시 통시태적인 관점의 이해가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소쉬르는 체스 게임을 통하여 통시성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체스에서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전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바둑에서는 복기를 통하여 현재 상황 진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진행된 과정을 찾는 복기를 자주 한다. 즉, 성경해석에는 통시성과 공시성이 둘 다 중요하다. 따라서 히브리어 연구에는 고대근동아시아의 언어 용법이 필요하고, 헬라어 연구에는 코이네 헬라어 이전의 언어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시태와 공시태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참. 이정민 외 235, 863).

↔ 공시태(synchrony), 공시적인(synchronic)

방언(方言)

dialect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표준국어대사전).

방언은 한 언어의 문법, 어휘, 발음의 영역 등에서 그 사용 지역이나 또는 사용 계층에 따라 다른 언어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협소한 의미에서 방언은 표준어와 구별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표준어도 하나의 방언이다.

방언을 연구하는 방언학(dialectology)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다. 첫째, 언어지리학(linguistic geography) 혹은 방언지리학(dialect geography)은 지역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방언들의 경계를 기술하고 확정짓는 학문이다. 이 경우는 방언들 사이의 차이 혹은 방언화 현상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둘째, 개체방언학은 어떤 방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을 말한다. 셋째, 사회 방언학은 방언을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의 한 분야로 연구하는 것이다(참. 이정민 외).

위의 세 가지 방언학 중에서 썸어와 히브리어 연구는 주로 방언지리학(dialect geography)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언어적 특징은 보통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며,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방언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과 동시에 일관된 등어선을 결과적으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 자체의 내적 발전 과정에서 생기지 않은 특징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언어에서 동시에 발견되면 그것은 보존된 공통 원시 요소로 여겨야 하는 한편, 새로운 언어적 특징들이 그러한 지역의 영토에 퍼져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SBCP 30).

등어선(isoglosses)이란 언어 특징을 따라 지역들을 다르게 분리하는 선으로서, 썸어에서 등어선은 “자음체계, 내적인 수동태, 깨어진 복수 형태(broken plural), 시제체계, 격체계 등과 같은 언어적인 특징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매우 복잡하며,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JMK §2aa).

이 구분에 의하면 “아카드어는 가장 오래된 고어에 속하며, 그 나머지들은 서부 썸어와 중부 썸어로 구분된다. 서부 썸어는 다시 에티오피아어를 포함한 남부 썸어와 남부 아랍어(비문과 현대문)로 나누어지며, 중부 썸어는 아랍어, 가나안어, 아람어로 구분된다”(JMK §2aa)

히브리어 방언에 대한 증거는 사사 시대의 ‘십볼렛’과 ‘썸볼렛’의 발음 차이에서 드러난다(삿 12:6).

히브리어 관계대명사 שֶׁ , ‘who, which’는 드보라의 노래(삿 5)와 아모리어 및 아카드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형태는 후대에 아쉐르(שֶׁר)로 변화된다(SBCP 201).

랍비 시대의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영향뿐 아니라 히브리어 자체의 내적인 발달 과정을 통한 것들과 여러 성서 히브리어 방언에서 파생된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다”(SBCP 199). 예로, 1인칭 대명사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אֲנִי (’ānōkī)가 אֲנִי (’anī)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1인칭 복수형은 אֲנַחְנִי (’anahnū)에서 אֲנִי (’ānū)로 대체되었다.

유윤종,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Variation and a Regional Dialect in the Biblical Hebrew)", 「구약논단」 9 (한국구약학회, 2000), 289-310.

사전적 형태(辭典的形態)

dictionary format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 형태.

단어 사전(lexicon)에 등장하는 단어 형태로, 접두사나 접미사 혹은 어형변화, 어미변화 등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용형태(citation form)라고 불리기도 한다(참. IBHS, glossary).

이중 문자(二重 文字), 두 글자 표기,

digraph

연달아 나오는 두 글자가 하나의 음을 나타내거나 반대로 두 개의 음이 하나의 글자로 표기되는 형태(참. JMK §7b).

영어 digraph는 헬라어에서 ‘둘’(2)을 뜻하는 δι-와 ‘글’을 뜻하는 γραφή를 합성한 것으로, 두 개의 글자가 하나의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독일어에는 세 개의 글자가 합하여 하나의 발음을 만드는 삼중자(trigraph)인 sch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영어에서 sh가 she에서 하나의 음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다(ch, th, dg도 마찬가지다). 영어는 드물게 쓰이는 분철기호로 na-ive 같은 것이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불필요한 알렙(א)이 끝 모음 다음에 첨가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후대에 콥란 히브리어와 아람어 철자법의 특징이 되었고 아랍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JMK §7b).

욥 1:14(JMK §7b)

וְאֶל־תִּתֶּן עָלֵינוּ דָּם נָקִי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죄한’을 뜻하는 히브리어(נָקִיא)는 어근에 ‘알렙’이 없으나(נָקִי) 여기에 첨가되어 나타난다.

스 2:64(JMK §7b)

כָּל־הַקֹּהֵל כָּאֶחָד אֲרֻבָּע רִבּוּא אֱלֹפִים שְׁלֹשׁ־מֵאוֹת שָׁשִׁים: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일만’을 뜻하는 히브리어(רִבּוּא)는 어근에 ‘알렙’이 없으나(רִבּוּ) 여기에 첨가되어 나타난다.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음가를 가진 것이 하나의 글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ζ, χ, ψ).

폭이 확장된 문자, 폭 확장 문자(幅 擴張 文字)

dilatable

글을 쓸 때 공백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폭을 넓게 기록한 문자(JMK §5e).

영어 *dilatable* 은 라틴어 *dilātus* (넓히다, 확장하다)에서 나왔다. 히브리어는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한 단어가 한 줄의 끝에 걸릴 때 영어처럼 단어를 분리하여 쓰는 대신에, 공백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글자들을 폭이 넓게 썼다. 예로, נ, ה, ל, מ, ת 는 한 줄의 끝에서 폭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지소사(指小辭)

diminutive

명사나 대명사의 어미(語尾)에 붙여 “원래의 뜻보다 더 작은 개념이나 친애(親愛)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나, 그런 종류의 접사가 첨가되어 만들어진 파생어(표준국어대사전).

영어 diminutive는 라틴어 *deminuere* (작게하다)에서 나왔다. 우리 말에서는 ‘망아지’에서 ‘-아지’, ‘꼬랑이’에서 ‘-앙이’, ‘꼬맹이’에서 ‘-맹이’ 따위이다. 지소사에서 ‘작다’는 개념에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움 외에도, 때로는 경멸감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영어에는 형태적으로 여섯 종류가 있다. (1) ~y (Billy, Annie, birdie), (2) ~ette (statuette), (3) ~let (anklet, booklet), (4) ~kin (lambkin, napkin), (5) ~ling (duckling, nurseling, suckling, weakling), 6) ~cule, ~cle (animalcule, obstacle, particle) (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에는 *אַיִשׁוֹן* 눈동자(< *אַיִשׁ*), *שְׂאֲרִית* 잔류자(< *שְׂאָר*) 등이 있다(참. JMK § 86g).

헬라어 지소사의 예로는 *παιδίον*(< *παῖς*; 마 2:11), *παιδίσκη*(< *παῖς*; 눅 22:56) 등이 있다(W 852).

↔ 증대사(augmentative).

Elliott, J K., “Nouns with Diminutive Endings in the New Testament,” *NT* 12 (1970), 391-398.

Swanson, Donald C., “Diminutiv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JBL* 77 (1958), 134-151.

이중모음(二重母音)

diphthong

두 개의 연속된 모음들이 하나의 음가를 단위를 가진 중모음(重母音)

영어 diphthong 은 헬라어에서 ‘둘’을 뜻하는 δι-와 ‘소리’(φθόγγος)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로서 중모음(重母音) 혹은 이중모음(二重母音)이라고 부른다. 우리 말에서 중모음은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단모음이고 다른 하나는 반모음이며, ‘ㅑ’, ‘ㅕ’, ‘ㅛ’, ‘ㅜ’, ‘ㅗ’, ‘ㅛ’, ‘ㅜ’, ‘ㅗ’, ‘ㅛ’, ‘ㅜ’, ‘ㅗ’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이중모음에 대해 (1) 한 개의 서서히 변화하는 모음 즉 전이모음(gliding vowel)으로 보는 것과 (2) 한 개의 완전한 모음(full vowel)과 한 개의 ‘전이음’(glide)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조성식 외). 또한 중모음은 전이음의 위치 및 두 음의 음량과 높이에 따라 하강 이중모음(falling diphthong; how, boil, boy)과 상승 이중모음(rising diphthong; piano)으로 나누어진다. 히브리어에서 중모음은 ~~ 것이 있다. 음절 구분에서 한 음절로 취급된다(참. JMK §8m; 이정민 외).

헬라어에서 중모음은 ou 와 ai, au, oi 그리고 ei 가 있으며, 오직 전자만이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된다.

Elliott, J K., “Temporal Augment in Verbs with Initial Diphthong in the Greek New Testament,” *NT* 22 (1980), 1-11.

Florentin, Moshe, “The Alternation u/o, Diphthongs, Pataḥ Furtivum and the 3m.s. Pronominal Suffix in Samaritan Hebrew and Aramaic Versus Tiberian Hebrew,” *JSS* 54 (2009), 365-381.

직접 목적어(直接目的語)

direct object

타동사의 동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실명사 단어, 구, 절.

목적어(object)를 뜻하는 영어는 원래 라틴어(objecta)에서 “시각이나 다른 감각 앞에 뭔가 놓여진 것”을 뜻한다(OED). 문법에서 동사의 동작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직접 목적어이며, 간접적으로 받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고 한다. 예로, She offered him a cup of coffee 에서 him 은 직접 목적어이며, a cup of coffee 는 간접 목적어이다. 영어에서는 대부분 직접 목적어는 사람이고, 간접 목적어는 사물이다.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에서 직접 목적어는 대부분은 대격(accusative case)으로, 간접 목적어는 여격(dative case)으로 각각 표현되었지만, 현대 영어의 격은 동작의 대상을 표현하는 대격과 여격을 통합한 목적격(objective case)으로 기술된다. 또한 대격과 여격은 형태상의 구별은 없어지고 간접 목적어 + 직접목적어의 어순으로 구별된다. 만일 직접 목적어가 앞설 경우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구로 형성된다. 따라서 대격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고찰에서나 목적격을 대신하는 학문적 명칭으로 사용된다(참. 조성식 외 7, 352).

히브리어도 역사적으로 격 어미가 거의 사라지고 구문론적인 범주들로 대체된 이후로, 직접 목적어는 직접 대격의 범주로서 직접적으로 동사에 종속되는 목적어를 나타낸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피동 목적어와 달성 목적어로 구성된다. (1) 피동 목적어(affected object)는 주어의 동작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동사적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작 대상 목적어이다. (2) 달성 목적어(effected object)는 주어의 동작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목적어로서 동사적 행동에 의하여 일이 일어나는 동작 결과 목적어이다(JMK § 125).

(1) 피동 목적어

대하 16:12(JMK §125b)

לֹא־דָרַשׁ אֶת־יְהוָה כִּי בָרָפְאִים

그가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여기서 ‘주님’과 ‘의사들’은 ‘찾는’ 동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신 11:10(JMK §125p)

תִּזְרַע אֶת־זֶרְעֶךָ

너는 너의 씨를 심다

여기서 ‘씨’는 ‘심는’ 동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 달성 목적어

율 3:1 [한 2:28](JMK §125a)

וְקִנְיָכֶם תִּלְמְזוּת יִתְלַמְזוּן

너희의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꿈’은 주어의 동작인 ‘꾸다’의 영향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창 1:29(JMK §125p)

אֶת־כָּל־עֵשֶׂב וְזֶרַע אֲשֶׁר־עַל־פְּנֵי כָל־הָאָרֶץ

온 땅 위에 있는 씨를 맺는 모든 식물
여기서 ‘씨’는 ‘맺는’ 동사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속격, 여격, 대격 모두 직접 목적어로 쓰인다.

속격이 직접 목적어로 쓰인 경우의 예: 행 9:7(W 133)
εἰστήκεισαν ἐνεοί, ἀκούοντες μὲν **τῆς φωνῆς** μηδένα δὲ θεωροῦντες.
그들이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는 듣지만 아무도 보지 못해서요.

여격이 직접 목적어로 쓰인 경우의 예: 행 24:23(R 540)
μηδένα κωλύειν τῶν ἰδίων αὐτοῦ ὑπηρετεῖν **αὐτῷ**.
그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마련해 주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격이 직접 목적어로 쓰인 경우의 예: 행 10:14(W 180)
οὐδέποτε ἔφαγον **πᾶν κοινὸν καὶ ἀκάθαρτον**.
저는 속되고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 + 목적어(object)
- 피동 목적어(affected object), 달성 목적어(effectuated object)
- ≡ 대격(accusative),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직접 화법(直接話法)

direct speech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되풀이하는 화법(표준국어대사전).

직접 화법이란 “실제로 사용된 말들에 대해 어떤 문법적 변화를 만들지 않고 반복하여 보고하는 것”이다(ODEG). 예로, “그는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다.”에서 “내가 보았다”는 직접 화법이다. 히브리어에서 직접화법은 대부분 말하는 동사(*verbum dicendi*)와 함께 나타난다.

창 12:12(참. JMK §157b)

וַיֹּאמְרוּ אִשְׁתּוֹ וְאָתָּה

그들이 "이 사람은 그의 아내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삿 6:16(참. JMK §157c)

וַיֹּאמֶר אֱלֹהֵי יְהוָה כִּי אֶהְיֶה עִמָּךְ וְהָפִיתִי אֶת־מִדְּיָן כְּאִישׁ אֶחָד: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참. JMK §157c)

וַיֹּאמֶר שְׁאוּל אֶל־שְׁמוּאֵל אִשָּׁר שְׁמַעְתִּי בְּקוֹל יְהוָה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헬라어의 경우, 접속사 ὅτι 와 함께 직접 화법이 쓰이기도 한다.

접속사 없는 예: 행 2:14

ἀπεφθέγγετο αὐτοῖς· ἄνδρες Ἰουδαῖοι καὶ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Ἱερουσαλὴμ πάντες τοῦτο ὑμῖν γνωστὸν ἔστω

그가 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대 남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러분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접속사 ὅτι 가 사용된 예: 행 2:13

ἕτεροι δὲ διαχλευάζοντες ἔλεγον ὅτι γλεύκους μεμεστωμένοι εἰσίν.

한편 다른 이들은 빈정대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새 포도주에 만취해 있다."

+ 화법(speech)

≡ 간접화법(indirect speech)

Pervo, Richard I., "Direct Speech in Acts and the Question of Genre," *JSNT* 28 (2006), 285-307.

직접 의지법(直接意志法)

direct volitive mood

화자의 의지나 심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서법(mood)으로서, 주로 명령, 소원, 기원을 나타내는 것.

히브리어에서 의지법에는 직접 의지법(JMK §114)과 간접 의지법(JMK §116)이 있다. 직접 의지법은 권유형(1 인칭), 명령형(2 인칭), 지시형(2 인칭, 3 인칭)을 표현하며, 간접 의지법은 직접 의지법 뒤에 따라 나오면서 논리적으로 종속되면서,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한다. 이러한 직접 의지법은 접속사 바브 없이도 사용되며, ‘그리고’를 뜻하는 단순 연결사 바브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JMK §114a). 간접 의지법에서 접속사 바브는 논리적으로 종속하는 가치를 지닌다.

(1) 권유형

창 45:28(JMK §114c)

אֶלְכֶּה וְאַרְאֶנּוּ בְּעֵינֵי אֶמּוֹתַי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가다’와 ‘보다’는 동사는 여기서 둘 다 권유형으로 야곱의 의지를 직접 표현하고 있다.

(2) 명령형

창 1:28b

וַיֹּאמֶר לָהֶם אֱלֹהִים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וּכְבֹּשׁוּהָ וּרְדּוּ בְּדֶגַת הַיָּם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다섯 개의 명령형은 직접 명령형이다(2 인칭 명령형).

(3) 명령형과 지시형이 함께 나오는 경우

창 47:6

הוֹשֵׁב אֶת־אֲבִיךָ וְאֶת־אֶתְיָךְ יֵשְׁבוּ בְּאֶרֶץ גִּשְׁן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라...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거주하게 하다’는 명령형이고, ‘거주하게 하라’는 지시형이다.

헬라어도 1 인칭, 2 인칭, 3 인칭 의지법이 있다. 다음은 가정법으로 표현된 의지법들이다.

(1) 1 인칭 의지법의 예: 눅 6:42(R 932)

ἄφες ἐκβάλλω τὸ κάρφος τὸ ἐν τῷ ὀφθαλμῷ σου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빠게 하라.

(2) 2 인칭 의지법의 예: 눅 21:8(R 932-933)

βλέπετε μὴ **πλανηθῇτε**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3) 3 인칭 의지법의 예: 마 24:4(R 933)

βλέπετε μή τις ὑμᾶς πλανήσῃ

누군가가 너희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의지법(volitive mood)

≡ 간접 의지법(indirect volitive mood)

방향(方向)의 헤

directional *he*

방향 개념이나 동작 개념으로서 ‘~을 향하여(towards)’, 또는 ‘~로(to)’에 주로 사용되는 הֶּ (JMK §93d).

성서 히브리어에서 접미사(sufformative) הֶּ는 어떤 장소나 대상을 향한 방향을 가리킨다. 초기의 문법학자들은 장소의 헤(he locale)라고 불렀다. 방향의 헤는 악센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여성형 어미와 구별된다. 이것은 복수 어미에도 붙을 수 있다(GKC §90c-i).

출 4:20(JMK §93d)

אַרְצָהּ מִצְרָיִם

이집트 땅으로

창 43:17(JMK §93d)

בְּיַתְּהָ יוֹסֵף

요셉의 집(안)으로

담화(談話)

discourse

문장 이상의 단위로서 독자적 의미 단위를 이루는 본문 안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 의미 전달을 하는 언어적 단위.

로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라는 의미를 갖는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 discourse는 라틴어 discursus (이리 저리 달림, 대화)에서 나왔다.

현대 언어학에서 담화는 문장 이상의 단위를 가진 것으로, 언어가 연결되고 이어져 “구성적이고 주제적인 통일성과 일관성 갖는 문학 작품의 덩어리”를 뜻한다(PDSBH). 달리 말하자면, 담화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의사소통의 단위를 가져야 한다.

하나의 담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이라고 한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본문을 담화로 인식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며, 담화언어학(discourse linguistics) 혹은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cs)이라고도 한다. 담화분석은 먼저 본문 자체의 구조, 문예적 기법, 모티프, 주제, 의미론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본문의 의미는 단지 단어나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이상의 단위를 가진 텍스트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담화 분석은 텍스트를 ‘사회적인 교환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나 발화(speech)가 사용된 사회언어학적인 맥락을 살피게 된다. 따라서 담화분석은 구문적(syntactic)-의미론적(semantic)-실용적(pragmatic) 관점에서 본문을 통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 및 담화 분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용어로서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는 “단어, 구, 절로서 대화의 흐름이나 언어적 교류의 다른 유형들을 지도하고, 변화하고, 끝내는 것. 어느 정도 특화된 용어이다. 그래도 절, 문장에서 구문적 구조의 일부가 아닌 단어들(예로, , ah, oh, well, you see, I mean)도 포함한다”(ODEG). 즉 다른 단어나 구절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지시사, 접속사, 대명사, 불변사 등이 담화 표지가 된다. 담화 분석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단어 및 구절들은 해석상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이제는 담화에 있어서 초점화, 강화, 주제전환 등의 중요한 기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담화분석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텍스트(text)

Jeffrey T. Reed, “Discourse Analysis as New Testament Hermeneutic: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ppraisal,” *JETS* 39 (1996), 223–240.

분리적(分離的), 이접사(離接詞)

disjunctive

문장 안에서 두 의미적 내용이 연결과 연관되는 요소로서, 대조(contrast), 분리(separation), 구별(distinction)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

영어 disjunctive 는 라틴어에서 ‘분절하다’(disjoint), ‘분리하다’(separate)를 뜻하는 동사(disjungere)에서 나왔다. 원래는 논리학의 용어였으나, 문법에서는 “어휘나 구문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ODEG) 혹은 “대안들 사이에 선택을 제시하는 대등적 구조(coordinated structure)”로 정의된다(CDEG).

히브리어에 ‘이접’(disjunctive) 요소는 분리 악센트(disjunctive accent), 분리절(disjunctive clause), 분리 접속사(disjunctive coordination, 영어의 but, yet), 분리 의문문(disjunctive question)으로 나타난다.

헬라어에서는 ἤ가 주요 이접 접속사로 사용되지만, καί도 가끔 대조적인 절을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 분리 악센트(disjunctive accent), 분리절(disjunctive clause), 분리 접속사(disjunctive coordination)

분리절(分離節), 이접절(離接節)

disjunctive clause

분리 접속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

분리(disjunction), 또는 이접은 “A 또는 B”와 같이 두 개의 단어, 구, 절을 대등하게 연결시키되 의미를 대조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의 경우, **או** 혹은 **אִם** 를 사용하여 분리(이접)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접속사 바브(**ו**)로 분리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JMK §175; 이정민 외). 이 분리절은 영어의 ‘혹은’(or: ~이나 ~ ; whether... or: ~이든... 아니든, ~이나... ~이나) 으로 번역된다.

삼하 2:21(JMK §175a)

וְנָטָה לָךְ עַל־יְמִינָךְ אוֹ עַל־שְׂמָאלָךְ

너는 오른 쪽으로나 왼쪽으로 돌려라

삼하 2:19(JMK §175a)

וְלֹא־נָטָה לְלִבָּת עַל־יְמִינִי וְעַל־שְׂמָאלִי

그는 오른 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출 21:16(JMK §175a)

וְגִבַּב אִישׁ וְיָמְכוֹ וְנִמְצָא בְיָדוֹ

사람을 유괴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겔 2:5(JMK §175a)

אִם־יִשְׁמְעוּ וְאִם־יִקְרְאוּ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삼하 15:21

אִם־לְמָוֶת אוֹ לְחַיִּים

죽든지 살든지 간에

헬라어의 경우 ἢ 와 μή 가 쓰인다.

ἢ 의 예: 마 5:17(W 672)

Μὴ νομίσητε ὅτι ἤλθον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όμον ἢ τοὺς προφῆτας.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μή 의 예: 행 18:9(W 1173)

μή φοβοῦ, ἀλλὰ λάλει καὶ μὴ σιωπήσης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얘기하고 침묵하지 말아라.

분리 의문문(分離 疑問文), 이접 의문문(離接 疑問文)

disjunctive question

한 문장이나 구에서 의미가 대조되거나 차이가 나는 요소, 즉 ‘예’(A)와 ‘아니오’(B)를 ‘혹은’으로 연결하여 분리하거나, 이접적인 접속 구조를 지닌 의문문.

영어에서 Is Caroline coming today? 혹은 Is Caroline coming tomorrow?는 두 개의 문장이지만, Is Caroline coming today or tomorrow?는 분리 의문문(이접 의문문)이다.

히브리어에서 분리의문문의 경우는 의문문에서 첫 항에 **ה**가 나오면, 두 번째 항에서는 주로 **אם**이 나온다(수 5:13). 또한 분리의문문은 유사적 평행법에 사용된 단순한 문체적 특징을 갖기도 한다(창 37:8)(참. JMK §161e).

수 5:13

הֲלֵנּוּ אִתָּהּ אִם-לְצָרֵינוּ

당신은 우리편입니까? 혹은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창 37:8

וַיֹּאמְרוּ לוֹ אֶחָיו הֲמֶלֶךְ תִּמְלֹךְ עָלֵינוּ אִם-מֶשׁוֹל תִּמְשָׁל בָּנוּ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정말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하고

이화(異化)

dissimilation

한 단어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이 연달아 나오거나 가까이 나올 때, 한 음이 유사성이 적거나 없는 음으로 바뀌는 현상

영어 dissimilation 은 라틴어 dissimilis (~같지 않다, unlike)에서 나왔다. 우리 말에서는 중세 국어의 ‘븘’, ‘거븘’이 현대 국어에서 ‘복’, ‘거복’으로 바뀐다. 영어의 pilgrim 은 라틴어 peregrinus 에서 나왔으며, 라틴어의 첫 r 이 영어에서는 l 로 바뀌었다.

히브리어에서는 연달아 나오는 모음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색을 가지고 있을 경우, 두 모음의 연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יְשׁוּעָה는 יְשׁוּעָה 에서 왔으며, 이때 첫 번째 모음 ‘이’(יְשׁוּעָה의 이)는 ‘오’(יְשׁוּעָה의 오)에서 변화된 것이다. יְצִיָּה는 יְצִיָּה에서 왔으며, 이때 첫 번째 모음 ‘이’(יְצִיָּה의 이)는 ‘우’(יְצִיָּה의 우)에서 변화된 것이다.

헬라어 이화의 예로, 같은 단어에 λ가 또 하나 있을 때 λ가 ρ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 신약성경에 쓰이지는 않지만 ‘고통’이라 의미를 가진 ἄλγος(애 1:12)의 형용사형이 ἀλγᾶλεος가 아니라 ἀργᾶλεος로 된다(S 129).

↔ 동화(assimilation)

Fassberg, Steven E., “Vowel Dissimilation in Plural Pronouns in Biblical Hebrew,” *Or* 78 (2009), 326-335.

이음절어(二音節語)

dissyllable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

영어 dissyllable 은 헬라어에서 ‘둘’(δι-)과 ‘음절’(συλλαβή)이 합하여진 단어(δισύλλαβος)에서 나왔다. 음절이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서,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는 מֶלֶךְ, דָּבָר, אִמֶּר 등이 이음절어에 속한다.

중복 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

서기관이 필사의 과정에서 “글자나 낱말이나 구나 절을 우연히 거듭 베껴 쓴 경우”(민영진, 24).

중복오사는 우연한 반복에 따르는 이독(異讀)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실수로 중복하여 기록한 것을 말하며, 본문비평의 전문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사야 30:30 의 마소라 사본에는 히슈미아(그가 들을 것이다)가 한 번 나온다. 그러나 사해 사본에는 같은 낱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온다. 이사야 38:20 의 경우는 사해 두루마리에서 한 절 전체가 반복되어 있다. 에스겔서 40:7-8 의 경우에도 마소라 본문에서 한 행 정도 길이의 중복 오사가 있다. 메하바이트 카네 에카드 와야마드 옛-올람 하샤아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온다”(민영진, 24).

사 35:1(GKCS §47n)

שְׁשׁוֹן מְדָבָר וְצִיָּ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빠하며

시 45:3[한 45:2](GKCS §55e)

יְפִי־יֶתֶר מִבְּלִי אָדָם הוֹצֵק הֵן בְּשִׁפְתוֹתָיִךְ

그는(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우며 당신의(왕의) 입술은 우아한 말로 은혜가 넘치니

יְפִי־יֶתֶר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יְפִי־יֶתֶר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헬라어 필사본의 경우 중복 오사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로, 눅 6:35 의 μηδέν ἀπελπίζοντες 가 시내산 사본을 포함한 몇몇 사본에는 μηδένα ἀπελπίζοντες 로 되어있다. 여기서 μηδένα 의 끝 글자가 중복 오사로 여겨진다.

≡ 중자 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

이중 대격(二重對格)

double accusative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경우 이 두 목적어가 갖는 격.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경우에, 하나는 직접 목적어가 되고 다른 하나는 간접 목적어가 된다. 영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ditransitive structure라고 부른다(R. Engel & R. E. Longacre [1963]의 용어, OED에서 인용함).

히브리어에서는 피엘과 히필형에 주로 나타나며, 칼형에도 나온다(GKC §117cc-II; IBHS §27.3a-c).

삼상 8:1

וַיִּשָּׂם אֶת-בָּנָיו שְׁפָטִים לְיִשְׂרָאֵ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들로 삼았다

여기서 וַיִּשָּׂם은 שָׁם의 칼 미완료형이다.

신 8:3

וַיֹּאכְלֶךָ אֶת הַמֶּן

그가 너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여기서 וַיֹּאכְלֶךָ은 אָכַל의 히필 미완료형이다.

헬라어의 경우, 이중 대격은 사람과 사물이 대격으로 나오는 경우와 목적어와 보어가 대격으로 쓰인 경우가 있다(W 181-189).

사람과 사물이 대격으로 쓰인 예: 요 14:26(W 182)

ἐκεῖνος ὑμᾶς διδάξει πάντα

저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ὑμᾶς는 사람을, πάντα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격이다.

목적어와 보어가 대격으로 쓰인 예: 마 4:19(W 186)

ποιήσω ὑμᾶς ἁλιεῖς ἀνθρώπων.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을 삼을 것이다.

ὑμᾶς는 목적어이고 ἁλιεῖς는 보어이다.

+ 대격

- 이중 목적어 접미사(double object suffixes)

중복 발음(重複 發音), 이중 조음(二重 調音)

double articulation

한 자음에 최소한 두 개의 음량이 있을 때, 중복하거나 연장하여 발음하는 경우..

히브리어에서 중복발음은 다게쉬(dagesh)가 있는 자음들을 발음하기 위해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강점(dagesh forte)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경강점은 하나의 자음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음이 두 번 반복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으며, 음성론적으로 자음의 완전한 반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중복자음이란 오히려 형태-음소론적으로 볼 때, 모음의 삽입 없이 단어 중간에 나오는 자음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강점으로 표시되는 중복에는 완전 중복으로서 강한 중복(strong gemination)과 후음이 아닌 자음의 자발적인 중복(spontaneous gemination)이 있으며, 완전 중복과 대비되는 가상중복으로 반-중복(semi-gemination)과 약한 중복(weak gemination)이 있다(JMK §18a-m).

강한 중복

יִפּוֹל /ʔap-pol/

נִתְּנָה /naʔtaĕn/ + /n̩u/

자발적 중복

עֲגָלָה

הַדְּמָה

이중 목적어 접미사(二重目的語 接尾辭)

double object suffix

하나의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지배할 때 이 목적어 각각에 붙는 접미사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목적어 접미사를 이중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아카드어, 고전 아랍어, 게이즈어(Geez, 고대 에디오피아어)에서는 이중 목적어 접미사가 나온다(JMK §61j). 이중 목적어는 사역 동사에서 ‘~으로 하여금’, ‘~을 하게 하다’와 같은 경우에 나온다.

신 31:7(JMK §61j)

תִּנְחִילָנָה אוֹתָם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는 동사의 목적어인 ‘그것’은 동사에 붙어 나오나, 또 다른 목적어인 ‘그들로 하여금’은 떨어져 독립적으로 나온다.

신 30:12(JMK §61j)

וְיִשְׁמַעְנֵנוּ אוֹתָהּ וְנִשְׁמָנָהּ

그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하라

왕하 8:13(JMK §61j)

הִרְאֵנִי יְהוָה אוֹתָךְ

주께서 너를 나로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다

+ 대격(accusative), 목적어(object), 접미사(suffix)

≡ 이중목적어(double object)

이중 기능 전치사

double-duty preposition

인접한 시행의 한 행에서 목적어를 지배하는 한 전치사가 다음 행에 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전치사(IBHS §11.4.2b)..

사 48:14(IBHS §11.4.2b)

יְהוָה אֱהָבֹו יַעֲשֶׂה תַּפְצֹו' בְּבָבֶל וּזְרָעוֹ בְּשָׂדִים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그의 기뻐하는 뜻을 바빌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을 칠 것이라

전치사 베(ב)는 ‘바벨’(בָּבֶל)과 ‘카스딤’(כַּשְׁדִּים)에게 둘 다 걸리고 있다. 즉, ‘갈대아인’ 앞에는 전치사가 나오지 않지만, 앞에 나오는 전치사가 이중 기능을 한다.

시 89:3(한 89:2)

עוֹלָם תִּסְדָּד יִבְנֶה שָׁמַיִם | תִּכֶּן אֱמוּנָתְךָ בָּהֶם

인자하심은 하늘에 영원토록 세우시며

당신의 성실하심은 그곳에서 견고히 하실 것이다

제 2 행에 나오는 전치사 베(ב)는 제 1 행의 ‘하늘’(שָׁמַיִם)에도 걸린다.

+ 전치사(preposition)

Dahood and T. Penar, “The Grammar of the Psalter,” in M. Dahood, Psalms III (Anchor Bible 17A;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0), 361–456, 435-437

이중어(二重語)

doublet

원래는 동일한 하나의 어원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그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이룬 한 쌍의 단어들.

이중어는 우리 말로 ‘쌍형어’(雙形語)라고 하며, “형태는 다르나 동일한 어원에서 변화한 한 묶음의 단어로서, ‘머리’와 ‘마리’, ‘낱다’와 ‘늪다’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언어학에서 이중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단어가 두 개의 쌍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동일한 단어는 ‘동일어’로 불리기도 하며(조성식 외), 삼중어(triplet), 또는 사중어(quadruplet)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중어는 동일한 어원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의미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경우가 많다”(조성식 외). 예로, 영어에서 human, humane; metal, mettle; mood, mode; shade, shadow. hotel, hostel; ration, reason 등이 나온다(ODEG).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추상명사의 이중어가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타나며(예. נָקֶם, נִקְמָה), 복수 여성형태의 이중어가 은유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JMK §134q, r). 즉, יוֹנֵק은 ‘젖먹이’이지만, תְּיוֹנֶקֶת는 ‘새 순’이 된다.

신 32:35

לִי נָקֶם וְשָׁלֹם לְעַת תִּמּוּט הַגִּלָּם

보복은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갚을 것이라

렘 46:10

וְהָיָה הָהוּא לְאֹדֶנִי יְהוָה צְבָאוֹת יוֹם נִקְמָה לְהִנָּקֵם מִצְרָיִם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신 32:25

יוֹנֵק עִם-אִישׁ שִׁיבָה

젖 먹는 아이와 노인까지

겔 17:22

מִרְאֵשׁ יִנְקוּתָיו רֹךְ אֶקְטֹף

나무의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새순을 꺾어

Marcus, David, “Nonrecurring Doublets in the Book of Joel,” *CBQ* 56 (1994), 56-67.

추상명사의 이중어(抽象名詞 二重語)

doublets of abstract noun

동일한 어근과 의미를 갖는 추상명사 중 남성형과 여성형을 동시에 갖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추상명사의 이중어는 많으며 נָקָם과 נִקְמָה 복수, עֵזֶר와 עֲזָרָה 도움, מְעֹזן과 מְעֹנָה 거쳐 등이 이에 해당한다(참. GKCS §122q; JMK §134r).

+ 추상명사(abstract noun), 이중어(doublet)

중복(重複), 장음화(長音化)

doubling or lengthening

히브리어에서 한 자음에 두 개의 음량이 있어 한 자음이 연장되는 현상.

표면적으로는 한 자음이나 실제로는 두 개의 자음이 중복되어 발음할 때 시간이 연장되며 **יִפְּ** 'ap-pə 와 같이 음역할 때도 반복하여 표기한다. 이 경우 중복된 자음을 한 자음만 쓰는 대신 그 자음에 경강점을 찍어 자음이 중복되었음을 표시한다(참. JMK §18).

자음이 중복된 헬라어의 예로는 **πράσσω**(‘행하다’), **κρίπτω**(‘더 강한’)과 같은 것이 있다(S 78). 헬라어에서 기식음은 중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중복된 형태가 있는 사본들도 있다(예. 베자사본의 **μον** 2; R 215). 또한 헬라어의 경우 음절이 반복되는 어간중복(reduplication) 현상이 완료에서 발견된다.

≡ 어간중복(reduplication), 중복발음, 이중조음(double articulation)

쌍수(雙數)

dual

두 개의 개체나 또는 한 쌍이나 짝을 나타내는 수.

영어 dual은 라틴어 dualis (두 개를 담고 있는 것)에서 나왔다. 문법용어로서 쌍수는 수사의 하부 범주이다. 원래 인도-유럽어에는 쌍수가 있었으며, 그 흔적들이 헬라어, 인도-이란어, 슬라브어, 고딕어에서 인칭대명사에 나온다(고딕어, 1인칭 복수 주격은 *weis* ‘we’ 였으며, *wit* 는 ‘we two’를 가리킨다, 부쉬만). 영어에서는 형용사, 명사가 두 개 혹은 한 쌍을 표현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쌍수는 국문법에서 “두 개 또는 한 쌍의 것을 세 개 이상의 복수(複數)와 구별하여 이르는 것으로서, 두 손, 두 발, 부모 따위를 나타낼 때 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수는 단수, 복수, 쌍수가 있다. 그렇지만 쌍수는 드물게 나타나고 ‘아임’(אֶיִם)이라는 형태소를 단수에 추가하여 만들며, 특히 신체의 일부로서 쌍을 이루는 것들에 나타난다(참. JMK §91).

삼상 2:13

וְהַמִּזְלָג שֶׁל־שְׁנַיִם בְּיָדוֹ:

손에 갈고리의 세 개의 살들이 있는 갈고리를

겔 7:17

כָּל־הַיָּדַיִם תִּרְפָּנָה וְכָל־בְּרָכָיִם תִּלְכָּנָה מֵיִם:

모든 손들은 힘이 풀리고 모든 무릎들은 물처럼 약할 것이다.

헬라어에도 쌍수가 있으나(S 195) 코이네에는 거의 사라졌다(R 61). 이는 아티 방언의 구어에서 쌍수가 주전 300년경에 사라졌기 때문이다(S 999). 본래 *ὀφθαλμῶν*는 두 개의 눈을 의미했으나(S 999), 코이네에서 두 개의 눈은 복수 형태인 *ὀφθαλμοί*(마 9:30)로 표현한다.

≡ 단수(singular), 복수(plural)

대역적(代役的)

dummy

문장에서 “주어가 모호하거나 분명히 정의되지 않거나 미상인 경우에”(PDSBS),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의 대역을 하는 것.

대역(代役)은 “강조나 수사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수사학적 기법인 용어법”(冗語法, Pleonasm)의 일종이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 dummy subject 라고 하면, 주어가 불분명한 경우에 습관적으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man, people), 대명사(they, your), 혹은 형용사(one)를 말한다. 영어의 예를 들면, Men fight and die for freedom; They told me you had an accident; You can only hope and wait; One looks for rain. 등이 있다.

히브리어에서 이런 대역의 역할은 정동사(finite verb)가 3 인칭 단수 대명사와 함께 표현되며, 그 정동사는 단수, 복수, 능동, 수동의 형태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복수 능동의 형태가 된다. 만일 분사가 대역의 역할을 한다면 그 분사는 항상 복수형으로 나온다 (IBHS §4.4.2.a).

창 11:9

עַל־כֵּן קָרָא שְׁמָהּ בָּבֶל

그러므로 (사람이 부르기를)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3 인칭 단수 대명사, 능동 동사형태

출 10:5

וְלֹא יוּכַל לִרְאוֹת אֶת־הָאָרֶץ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다

3 인칭 단수 대명사

창 4:26

אִז הוֹתֵל לְקָרָא בְּשֵׁם יְהוָה

그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3 인칭 수동 동사형태

창 29:2

כִּי מִן־הַבֹּאֶר הָלוֹא יִשְׁקוּ הָעֶדְרִים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다

3 인칭 복수 대명사 능동 동사형태

렘 38:23

וְאֶת־כָּל־נַשְׂיָךְ וְאֶת־בְּנֵיךְ מוֹצֵאִים אֶל־הַכְּשָׁדִים

그들은 네 아내들과 자녀를 갈대아인에게로 끌어갈 것이다

복수형태의 분사

헬라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지속성

durative

동사가 만드는 동작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과정이나 끝나거나 완성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상적(相的) 속성

영어 durative 는 라틴어에서 ‘견고함’을 뜻하는 duritia 와 ‘견고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는 durare 에서 나왔다. 문법에서 durative 는 시상(시상)과 연관된 단어로서, 즉각상(punctual)과 대비된다. 영어에서 이 속성은 주로 동작, 변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들에 나온다(develop, dive, increase, laugh, point, run, swim; CDEG). 지속상은 일정 기간의 시간을 표현하는 수식어(for two hours or for a long time)와 함께 나올 수 있지만, ‘한 시간 안에’와 함께 나올 수는 없다. 예로, *The house has been burning for two hours* 는 가능하지만, *The house has been burning for an hour* 는 안 된다(부쉬만). 반복성을 표현하는 동사들(breathe, flutter)은 기본적으로 지속상을 갖고 있다.

히브리어에서 시상(aspect)은 한 동작이 (1) 단독적(solitary)이나, 반복적(repeated)이나, (2) 즉각적(instantaneous)이나, 지속적(durative)이나에 따라 결정된다(참. JMK §111c). 어떤 동사들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시상을 갖는다(בָּקֵשׁ). 히브리어에서 동작 동사나 과정(fientive) 동사들의 익톨형은 현재와 과거의 영역에서 시간성과 시상성이 함께 사용되어 반복적 동작이나 지속적 동작의 가치를 갖는다(참. JMK §113c-f).

(1) בָּקֵשׁ 동사의 지속성

삼상 13:14

בָּקֵשׁ יְהוָה לֹא אִישׁ כְּלָבָבוֹ

주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여기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찾은 것이다

삼상 9:3

וְקוֹם לְךָ בָּקֵשׁ אֶת־הָאֲתָנָת:

너는 일어나서 나귀를 찾으라

여기서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동작은 지속적이다.

(2) 익톨형의 현재 영역에서 지속적 동작

창 37:15-16

מֶה־תִּבְקֹשׁ: אֶת־אֲחִי אֲנֹכִי מִבְּקֶשׁ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나는 나의 형제들을 찾고 있다.

창 24:31

לָמָּה תַעֲמֹד בְּחוּץ

당신은 왜 밖에 머물고 있느냐?

삼상 1:8

תָּנָה לָמָּה תִּבְלִי

그대는 왜 울고 있느냐?

(3) 익톨형의 과거 영역에서 지속적 동작

창 2:6

וַיִּבֹרֶךְ אֱלֹהִים מִן־הָאָרֶץ

시냇물이 땅에서(지속적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창 37:7

וַהֲנִיחַ תְּסֻפֶּינָהּ אֶל־מִתְחִילָם

당신네들의 벋단이 (나의 벋단을) 둘러싸고 있었다.

헬라어의 경우, 지속성이 있는 행동은 현재와 미완료과거를 통해 표현된다(R 879-892).

현재의 예: 행 21:31(R 879)

ὅλη συγχύννεται Ἱερουσαλήμ.

예루살렘 전체가 소란하다.

미완료과거의 예: 행 21:3(R 883)

ἐπλέομεν εἰς Συρίαν καὶ κατήλθομεν εἰς Τύρον.

우리가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 다다랐습니다.

≡ 계속성, 지속성(durativity)

이분화(二分化)

dyad

한 쌍을 명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자주 함께 나오는 것.

한 쌍을 이루는 생명체들이 문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분화한 현상이다. 이 용어는 원래 피타고라스가 자존재(自存在)로서 단자(monad), 이가(dyad)를 제시하였고, 숫자 시스템을 만들 때 단자(monad), 이가(dyad), 삼가(triad) 등으로 사용하였다.

히브리어에서 남성과 여성은 전혀 관련 없는 단어로서 이분화를 이루기도 하며, 단어의 끝에 남성형은 무표적(unmarked), 여성형은 여성형 어미를 붙여 표기하여 단어쌍을 이루기도 한다(IBHS §6.5.1.a).

관련 없는 단어의 이분화

אִישׁ 남자, **אִשָּׁה** 여자

אָב 아버지, **אִם** 어머니

תֵּשֶׁב 숫 염소, **עֵז** 암 염소

תָּמֹר 숫 나귀, **אֲתוֹן** 암 나귀

אֶרֶץ , **אֶרֶץ** 숫 사자, **לְבִיא** 암 사자

관련 있는 단어의 이분화

אֵיל 숫 사슴, **אֵילָה**, **אֵילָת** 암 사슴

עֵגֶל 숫소(calf), **עֵגְלָה** 암소(heifer)

עָלָם 젊은 남자, **עֵלְמָה** 젊은 여자

פָּר 숫소(bull, ox), **פָּרָה** 암소(cow)

에블라어

Eblaite

주전 2500-2300년 경에 고대 도시 국가인 에블라(현대 시리아의 텔 마르디흐)에서 사용한 고대 셈어의 하나.

에블라는 시리아 서북부의 알레포에서 남쪽으로 약 70km에 위치한 오늘날 텔 마르디흐에 있었던 고대의 대도시 국가로서 주전 3000년대에 약 26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인종적으로는 이 도시에는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아카드의 왕 나람 신의 통치 때에 에블라에 정복되었다. 에블라의 만신전에는 수메르 신들이 있었다. 에블라는 구약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주후 1964년부터 이탈리아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하였고, 1975년과 1976년에 15,000개의 토판들이 에블라의 왕실 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되었다. 그 내용들은 주로 행정 및 상업적인 것들이다. 이 서판들의 80%는 수메르의 췌기문자로 되어 있다. 나머지 20%는 서북 셈어와 아주 유사하여 원-가나안어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언어의 발견자 중 한 명인 페티나토(G. Pettinato)는 에블라어를 서북 셈어의 세 번째 그룹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북 셈어나 북 셈어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고(Hecker), ‘경계 언어’(border language)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Gordon)(SBCP 31-32). 따라서 에블라어의 계통과 분류는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이다(참. SBCP 31-32; Rabin 1991, 34; Naveh 1987, 28).

+ 셈어(Semitic, semitic language)

Dahood, M. J., “Eblaite and Biblical Hebrew,” *CBQ* 44 (1982), 1-24.

Rabin C.,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1: 34.

Naveh J.,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Magnes Press, 1987: 28.

에돔어

Edomite

주전 8-5세기에 요르단 산지 남부 지역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사용된 셈어.

에돔어는 주전 8-5세기에 요르단 산지 남부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사용한 다양한 인장들(최소 여섯 개에서 여덟 개)과 항아리에 새겨진 비문들과 토기 조각들에 에돔 왕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에돔 족속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에돔어라 부른다. 서체는 고대 가나안 알파벳 서체와 아람어 서체로 기록되었다. 에돔어가 서북 셈어에 속한다는 주장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참. SBCP 60; Rabin 1991, 76-77; Ahituv 1987, 213-218).

주전 8-7세기 켄기문자로 기록된 본문에 나타나는 에돔의 신명 Qauš의 음역은 이중모음 aw가 한동안 축약되지 않은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5세기 본문에 이르러서야 Quš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또한 눈의 다음 자음으로의 동화, 정관사 h-와 bd ‘손에’(ba-yad에서 음)에서 y의 중간음 탈락 현상 등이 나타난다. 주전 5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라기스의 향료 제단 비문은 이 언어의 또 다른 예일 가능성이 있다(참. SBCP 60-61).

+ 셈어(Semitic, semitic language)

Torrey, Charles Cutler, “The Edomites in Southern Judah,” *JBL* 17 (1898), 16-20.

Rabin C.,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1: 76-77.

Ahituv S., *Handbook of Ancient Hebrew Inscriptions*(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2: 213-218.

달성 목적어(達成目的語)

effected object

주어의 동작으로 말미암아 그 동작 자체에 의해 어떤 결과가 발생한 목적어(JMK §125a, p)

우리 말 ‘달성’(達成)은 ‘목적한 것을 이룬다’는 뜻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어 ‘effected’는 라틴어에서 ‘일어나게 하다’(to cause, to bring about)는 뜻의 동사(efficere)에서 나왔다. 따라서 ‘달성목적어’는 동사의 동작이 만들어낸 결과가 된다. 예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서 ‘천지’는 ‘창조하다’는 동사의 ‘결과’가 된다.

영어의 예를 들면 달성 목적어는 paint a painting, build a house, draw a line, make a mistake 등에서 주어의 동작으로 발생한 결과가 되는 목적어를 말한다.

히브리어에서 달성 목적어는 동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외적이다. 이것은 동작의 추상 명사로 동사가 표현한 동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적 목적어인 동족 목적어와는 구분된다. 그리고 이 목적어는 동사적 행동에 의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동작 결과 목적어’라고 말할 수 있다.

창 1:11

עָשָׂב מִזֶּרַע זֶרַע

씨 맺는 채소

창 30:37

וַיַּפֵּץ בָּתָן פְּצִילֹת לְבָנָיו

그가 그것들(가지들)에서 겉질을 벗겨 흰무늬를 냈다

욥 3:1[한 2:28]

וְקִנְיָכֶם תִּלְמְּוֹת יִתְלַמְּוּ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달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로 αἴρω, διδάσκω, τρέφω, παιδεύω 등이 제시된다(W 1579).

행 4:24

οἱ δὲ ἀκούσα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 ἤραν φωνήν πρὸ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ἶπαν·

하니 들은 자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행 12:20

ἤτοῦντο εἰρήνην διὰ τὸ τρέφεσθαι αὐτῶν τὴν χώραν ἀπὸ τῆς βασιλικῆς.

그들 지역의 먹을거리가 왕실 토지로부터 장만되기 때문에 화평을 청합니다.

τρέφεσθαι 가 수동태이므로 달성 목적어 αὐτῶν τὴν χώραν 이 부정사의 주어로 쓰였다.

≡ 피동 목적어(affected object)

Levinson, Bernard M., “The ‘effected object’ in contractual legal language: the semantics of ‘if you purchase a Hebrew slave’ (Exod xxi 2),” *VT* 56 (2006), 485-504.

이집트어

Egyptian

대표적인 함어 중 하나로서 주전 약 3200년경부터 주후 4세기까지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공용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중해 출신으로서, 키가 작았고 뼈대도 작았다. 구석기 시대에도 나일 골짜기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 농경 문화를 이루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농사 달력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번 존재했던 유일한 지적인 캘렌더”라고 한다(R. J. Williams, “the Egyptinas,” POTT, 79-99). 나일강 상류와 하류의 남북 통합은 주전 3,100년부터 이루어졌다. 헬라의 역사가인 마네토(Manetho)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알렉산더 대제 때까지 모두 30 왕조가 있었다고 한다. 알렉산더 이후에 다시 31개의 왕조로 불어났다. 이집트어는 대표적인 함어 중 하나이지만, 셈어와의 유사성 때문에 함셈어(Hamito-Semitic)로 부르기도 하며 아프리카-아시아어로 부르기도 한다. 이집트어는 시대에 따라 고대 이집트어(주전 32-23세기), 중기 이집트어(주전 23-16세기), 후기 이집트어(주전 17-8세기), 민중 이집트어(주전 8세기-주후 3세기), 콥트어(주후 3-7세기)로 나눈다. 이집트어의 문자는 그림을 문자로 사용한 상형문자에서 출발하여 기호를 사용한 표의문자의 과정을 거쳐 알파벳으로 구성된 표음문자로 발전하였다(참. PC 45-47; Rabin 1991, 143-144; Gardiner 1957, 5; Naveh 1987, 16; Moscati 16).

+ 함어(Hamitic)

엘 아마르나

el Amarna

주전 14세기 중엽 아멘호텝 4세인 아크나톤이 세운 수도 아메노피스가 있던 곳으로 가나안의 왕들이 보낸 350개의 서신과 여러가지 문서가 발견된 곳.

엘 아마르나는 고대의 도시인 ‘언덕(Tel)’으로 되어 있어 ‘텔 엘 아마르나’로 부르며,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엘 아마르나 문서는 1887 년 베두인 부족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부족의 이름을 따라 ‘엘 아마르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문서는 주전 1365-1335 년 동안 쓰여진 것으로 대부분이 당시 국제공용어인 아카드어 췌기문자로 기록되었다. 382 개의 문서 중 350 개가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들이 아멘호텝 3 세와 4 세에게 보낸 서신이므로 엘 아마르나 문서는 엘 아마르나 서신으로 부르기도 한다. 서신의 내용은 주로 정략결혼에 관한 것이나 선물 교환, 외교적 문제, 군사 원조 등이며, 가나안 도시국가들과 이집트 왕의 관계가 주종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서신 외의 32 개의 기타 문서는 서기관들의 연습, 단어집, 신화와 서사시에 관한 기록 등으로 되어 있다(참. 김영진 2006, 108-109, 136-142; 김구원 2010, 202-214; JMK §2e).

고양형(高揚形)

elative

어떤 성질이나 속성의 급수를 고도로 강렬하게 높이는 비교 형태

영어 elative 는 라틴어 elatio (높이는 행위, 높임)에서 나왔다. 우리 말로 ‘고양’(高揚)이란 “높이 쳐들어 올림”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어떤 특징의 높은 빈도를 시사하고, 상대적인 최상급과 대조된다. 비교 요소가 없어서 절대적 최상급이라고 한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비교급의 표현이 극도로 단순하다. 히브리어의 고양형은 주로 추상명사가 지배명사일 때 나오는 속격구로 표현된다(JMK §129k).

창 23:6(JMK § 129k)

בְּמִבְחָר קְבָרֵינוּ우리 묘지에서 선택된 것(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것)

삼상 17:40(JMK § 141d)

חֲמִשָּׁה חֲלָקִי־אֲבָנִים다섯개 돌의 매끄러움(다섯개의 아주 매끄러운 돌)

민 26:54(JMK § 141g)

לְרֹב תְּרֻבָּהּ נִתְּלָהּ

수가 (더) 많은 자에게는 (더) 큰 몫을 주어야 한다.

창 1:31

וְהָיָה טוֹב מְאֹד보라, 그것은 심히 좋았다.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형용사 뒤에 **מְאֹד**가 뒤따라 나온다.

헬라어에서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표현하는 형용사나 부사로 나오며 긍정적인 주장을 담아낸다(참. PDSNTG). 예로, 마 11:20 의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αἱ πλεῖσται δυνάμεις)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개역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의 탈락(音 脫落)

elision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음소(모음, 자음)나 음절이 탈락되는 현상.

영어 elision 은 라틴어 elidere (밀어내다, to force out)에서 나왔다. 음의 탈락이란 음소가 특정한 음성 환경에서 탈락하여, 단어의 어떤 부분이 소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어의 자음군에서(clothes ~[klo:z]), 악센트가 있거나 없을 때(probably [prabli]), 음이 탈락하여 구문론적으로(you and me→you 'n' me) 구를 이루는 단어들에서, 음소들이 탈락된다(RDLL). 성경 히브리어에서 시문의 운율이나 리듬을 맞추기 위해 음소가 생략되거나(PDSBH), 말의 연결에서 발음 편의상 생략되거나, 어형이 변화되는 형태 가운데 짧은 /a/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JMK §96Ab).

כִּי אֶרְלִי עֲשֶׂה בְּכַעַס עֵינִי וּבְטָנִי:에 나오는 슈바

강세 전에 오는 카메쯔의 잔재로서 짧은 /a/가 탈락된 경우

즉 **כִּי אֶרְלִי**에서 **כִּי אֶרְלִי**가 된 것이다.

시 31:10[한 31:9](JMK §96Ac)

כִּי אֶרְלִי עֲשֶׂה בְּכַעַס עֵינִי וּבְטָנִי:

내가 고통 중에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까.

여기서 **כִּי אֶרְלִי**에서 변화된 **כִּי אֶרְלִי**는 원시 a 가 어형이 변화된 형태에서 자주 i 로 약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qatl 형태가 qitl 형태와 융합된 것이다.

헬라어에서 전치사나 불변화사(접두사, 접미사)가 모음과 함께 시작되는 단어 앞에 나올 때, 마지막 짧은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골 1:16, 4:15)에 아포스트로피(δι'αὐτοῦ)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PDSNTG).

생략(省略)

ellipse, ellipsis

형식적으로 완전한 문장에서 의미가 문맥상 분명하여 단어나 어군이 표현되지 않는 현상.

영어 ellipse 는 헬라어 ἔλλειψις (줄이다, 짧게하다, comes short of)와 라틴어 ellipsis 에서 나왔다. 생략법은 “말이나 글에서 단어나 단어들이 빠져도 청중이나 독자는 문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ODEG). 예로, (Are you) coming?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영문법에서는 (1) 품사의 생략으로서, 명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동사 등이 있고, (2) 문장의 요소 생략으로서 주어, 술어, 주어와 술어, 목적어, 종속절, 주절의 생략이 있다(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어떤 동작동사는 그 재귀적 의미가 생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JMK §41a). 드물지만 동사수식적 피엘은 생략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JMK §52, 54d). 관용적으로 고유명사로 취급되는 명사들이 속격과 결합되어 나올 때 생략된다. 그 속격을 지배하는 명사, 즉 그 고유명사에 내포된 보통 명사적 개념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GKCS §125h).

(1) 재귀적 의미가 생략된 예

삿 20:39

וַיִּהְיֶה אִישׁ־יִשְׂרָאֵל בְּמִלְחָמָה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에서 물러났다

여기서 **וַיִּהְיֶה**는 ‘스스로 물러났다’는 재귀적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왕상 13:7

בְּאֶהֱאֹתִי הַבֵּיתָהּ וְסִעְדָּהּ וְאַתָּנָהּ לָךְ מַתָּ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힘을 복돋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וְסִעְדָּהּ**는 ‘사람의 마음이나 힘을 스스로 복돋우다’의 재귀적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2) 동사수식적 피엘의 경우

출 32:7

כִּי שָׁחַת עַמְּךָ אֲשֶׁר הָעֵלִיתָ מֵאֶרֶץ מִצְרָיִם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기서 **שָׁחַת**는 동사수식적 피엘로서 ‘죄를 짓다’의 의미이며 목적어인 ‘죄’가 생략되어 있다. 즉 동사수식적 히필의 **הִשְׁחִית**처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JMK § 52d, 54d). 동사수식적 히필은 성취된 결과가 동작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3) 관용적으로 고유명사로 취급되는 명사들이 속격과 결합되어 나올 때

삼하 7:26

יְהוָה צְבָאוֹת

만군의 야웨

이 구에는 아래의 두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다.

삼하 5:10

יְהוָה אֱלֹהֵי צְבָאוֹת עִמּ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사 9:18

תְּבַרַּךְ יְהוָה אֱלֹהֵינוּ

만군의 여호와와의 진노로 인해

헬라어에서는 대명사 생략의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한다. 재귀대명사 생략은 S 1199 2 N.을, 시상접두모음 생략은 S 438 을 보라.

지시대명사 생략의 예: 행 8:24(R 706)

δεήθητε ὑμεῖς ὑπὲρ ἐμοῦ πρὸς τὸν κύριον ὅπως μηδὲν ἐπέλθῃ ἐπ' ἐμὲ ὧν εἰρήκατε.

너희가 말한 것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 내게 닥치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 주님께 구하여라.

τούτων ᾧ 가 견인 및 생략되어 ὧν 이 되었다.

인칭대명사 생략의 예: 행 5:29(R 747)

ἀποκριθεὶς δὲ Πέτρος καὶ οἱ ἀπόστολοι εἶπαν·

하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로 대꾸하였습니다.

ἄλλοι 가 οἱ ἀπόστολοι 앞에서 생략되었을 수 있다.

→ 견인(attraction)

Miller, Cynthia L., "A Linguistic Approach to Ellipsis in Biblical Poetry (or, what to do when exegesis of what is there depends on what isn't)," *BBR* 13 (2003), 251-270.

생략된 비교(省略된 比較)

elliptical comparison

비교하는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것.

비교하는 두 가지 사항을 다 가져오기보다 ‘하나의 사항’(object)과 ‘또 다른 사항이 할 수 있는 것’(what another object can do)을 비교하여 정작 비교 대상을 생략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보다 더 무겁다”의 문장은 “그것은 나에게 너무 무겁다”(too much for) 혹은 “그것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를 뜻한다(JMK §141i).

창 26:16(JMK §141i)

עֲצַמְתָּ־מִמֶּנּוּ מְאֹד

너는 우리들보다 매우 강하다

즉 “너는 우리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다”는 뜻이다.

룻 1:13

כִּי־מֵרֶ־לִי מְאֹד מְאֹד

내 고통이 너희에게 너무 심하다

즉 “내 고통은 너희들이 (지고 가기에) 너무 무겁다”는 뜻이다.

출 18:18(JMK §141i)

כִּי־כָבֵד מְמֹד תִּדְבָּר

그 일은 너에게 너무 벅차다

“그 일은 네가 (지고 가기에) 너무 벅차다”는 뜻이다.

+ 생략(ellipse, ellipsis)

강세음(強勢音), 강조음(強調音)

emphatic sound

입 안의 뒤쪽 부분인 연구개에서 나오는 음(JMK §5i).

히브리어에서는 세 개의 연구개 자음 **ט**, **צ**, **ק**가 강세음이라고 불리며, 이 강세음들은 비강세음보다 발음기관이 더욱 긴장하면서 발음된다. 또한 이것들은 비강세음인 세 개의 자음 **ת**, **ד**, **ג**와 대응된다.

전접어(前接語)

enclitic

한 단어의 끝이나 혹은 앞선 주단어에 부착되어 그 자체에 강세를 상실하고 앞 단어에 의존하는 문법 형태.

영어 enclitic 은 헬라어에서 ἐν (위에, on)과 κλίνειν(기대다, to lean)를 합성한 단어 ἐγκλιτικός 와 라틴어 encliticus 에서 나왔다. 영어에서 전접어는 대표적으로 -n't, there're, I'm, he's, we've; 'll, Let's go 와 같은 것이다(ODEG).

전접어는 셈어와 히브리어에 빈번하게 나오는 문법적인 요소이다(JMK §37d). 그리스어나 라틴어 문법에서도 나오며, 영어에서 발음상 선행하는 직전어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을 나타낸다(이정민 외). 그리고 전접어는 자체의 악센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앞의 단어와 함께 한 단어로 발음된다(PDSBH).

전접어 מה는 전치사 뒤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מה로 나오며, במה, במה, מה, יען가 있다(학 1:9). מה는 후음 앞이나 주된 휴지에서 사용된다(왕상 22:21, 창 15:8). 그리고 ל (라메드)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서 למה(삼상 1:8)가 있으며, למה 형태는 후음(א, ה, ע) 앞에서 למה형태로 나타난다(삼하 19:11, 사 21:3). 또한 הוא가 전접어로 쓰이는 경우는 הוא מי로서 '그 누가'(who ever?)의 의미(사 50:9; 욥 4:7; 렘 30:21)로 나오며, 이것은 시 24:10 의 הוא מי 와 다르다(JMK §144, aN.1).

(1) 전접어 מה의 경우

학 1:9

יען מה

무엇 때문이냐?

전접어 מה는 전치사 뒤에 나올 때,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מה로 나온다.

왕상 22:21

וַיֹּאמֶר יְהוָה אֵלָיו בְּמָ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피어내겠느냐?)

מה는 후음 앞이나 주된 휴지에서 사용된다

창 15:8

בְּמָה אֶדְעֶ כִּי אֵירְשָׁנָהּ

제가 이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מה는 후음 앞이나 주된 휴지에서 사용된다

삼상 1:8

וַיֹּאמֶר לָהּ אֱלֹקִים אִשָּׁה חֲנָה לְמָה תִּבְכִּי וְלְמָה לֹא תֹאכְלִי וְלְמָה יָרַע לְבָבְךָ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냐

전접어 מה가 ל (라메드)와 함께 나타난다.

삼하 19:11

וַעֲתָה לָמָּה אַתֶּם מַתְרָשִׁים לְהָשִׁיב אֶת־הַמֶּלֶךְ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전접어 **מה**가 **ל** (라메드)와 함께 나타나며, 후음(א) 앞에서 **לָמָּה** 형태가 **לָמָּה** 형태로 나타난다.

삿 21:3

וַיֹּאמְרוּ לָמָּה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הֵיחָתָה זֹאת בְּיִשְׂרָאֵל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전접어 **מה**가 **ל** (라메드)와 함께 나타나며, 후음(ה) 앞에서 **לָמָּה** 형태가 **לָמָּה** 형태로 나타난다.

(2) 전접어 **הוא**의 경우

사 50:9

הֲנִי אֲדֹנִי יְהוָה יַעֲזֹר־לִי מִי־הוּא יִרְשָׁעַנִי הֲנִי כָלִם כְּבֹנֵד יָבִלֹ עָשׂ יֹאכְלִים: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들은 모두 웃처럼
해어지고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מִי־הוּא**는 전접어 **הוא**와 함께 사용되어 ‘그 누가(who ever?)’의 의미를 지닌다.

욥 4:7

זָכַרְנָא מִי הוּא נָקִי אָבֹד

생각해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그 누구인가?

렘 30:21

כִּי־מִי הוּא אֲתָּה עֶרְבָ אֶת־לְבֹ לְנֶשֶׁת אֵלַי

그 누가 감히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오겠느냐?

시 24:10

מִי הוּא זֶה מֶלֶךְ הַכְּבוֹד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참고로 여기서 **זֶה מִי הוּא**에서 **זֶה**는 영광의 왕과 동격으로서 렘 30:21 의 **מִי הוּא־זֶה** 와는 의미가 다르다.

헬라어의 전접어는 (1) 인칭대명사 1 인칭과 2 인칭의 속격, 여격, 대격, (2) 부정대명사의 모든 격, (3) 두 음절로 구성된 *εἰμι* 와 *φημι* 의 현재 직설법 형태(예외: *εἶ*), (4) 불변화사가 있다 (W 181). 전접어는 대부분 악센트를 상실하나 강조될 때나 다른 전접어를 이어질 때는 악센트가 남는다.

행 18:10

διότι ἐγὼ *εἰμι* μετὰ σοῦ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ιθήσεται σοὶ τοῦ κακῶσαι σε, διότι λαὸς *ἐστί μοι* πολὺς ἐν τῇ πόλει ταύτῃ.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네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 내게 속한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εἰμι 는 전접어로 악센트를 상실했다(3 의 경우). 인칭대명사 *σοι*, *σε* 와 *μοι* 도 전접어이다(1 의 경우). *σοῦ* 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강조되어 악센트가 남았고, *ἐστί* 는 이어지는 인칭대명사 *μοι* 로 인해 악센트가 남았다.

행 3:5

ὁ δὲ ἐπεῖχεν αὐτοῖς προσδοκῶν τι παρ' αὐτῶν λαβεῖν.

하여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그가 그들을 쳐다봅니다.

τι 는 부정대명사로 악센트를 상실하였다(2 의 경우).

행 1:7

οὐχ ὑμῶν ἐστιν γινῶναι χρόνους ἢ καιροὺς

기간들과 시기들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다.

ἐστιν 이 전접어로 악센트를 상실했다(3 의 경우).

행 2:18

καὶ γε ἐπὶ τοὺς δούλους μου καὶ ἐπὶ τὰς δούλας μου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ἐκείναις ἐκχεῶ ἀπὸ τοῦ πνεύματός μου, καὶ προφητεύσουσιν.

그러니 적어도 내 종들 위에 또한 내 여종들 위에,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리부를 것이고,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γε 는 불변화사로 전접어이다(4 의 경우). 세 번 쓰인 μου 는 인칭대명사로 전접어이다(1 의 경우).

+ 접어(clitic)

≡ 전접어 멤(enclitic mem)

↔ 후접어(proclitic)

전접어 멤(前接語 מ)

enclitic Mem

히브리어에서 **מ**이라는 글자가 한 단어의 끝에 부착된 문법 형태.

성서 히브리어에서 전접어 멤(**מ**)은 그 기능이 불확실한 원시적인 문법 형태이다. 히브리어의 연계형 구문에서는 연계 고리를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일반 원칙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접어 멤이 첫 번째 명사에 붙여져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JMK §129u).

창 14:6

בְּהַרְרֵי שְׁעִיר

세일의 산들

정상적으로는 **בְּהַרְרֵי שְׁעִיר** 여야 하지만, 전접어 **מ**이 붙어 연계 고리를 깨뜨리고 있다.

민 21:14

וְאֶת־הַנְּחָלִים אֲרָנוֹן

아르논의 개울들

시 18:16

אֶפְקֵי מַיִם

바다의 물길들

이 구와 평행을 이루는 삼하 22:16 에서 **אֶפְקֵי יָם** ‘강(바다)의 밑바닥’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시 18:16 의 ‘물’에 있는 첫 멤은 전접어로서 **אֶפְקֵי יָם** 에 붙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 110:3

מִרְחֹם מִשְׁתָּר

새벽의 모태로부터

강승일, “구약성경 고대 시가에 나타나는 전접 멤(前接語, enclitic mem) 연구,” 「구약논단」 33 (2009), 151-164.

Hummel, Horace D., “Enclitic mem in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JBL* 76 (1957), 85-104.

강세의 눈(強勢의 נ)

energetic Nun

고대 히브리어에서 강세적 의미를 표시했다고 여겨지는 נ

히브리어에서는 ‘강세의 נ’ 또는 ‘어중삽입의 נ’ (epenthetic נ)으로 불리는 일련의 접미사들이 미완료형과 명령형에 나타난다. 이 נ은 원래 아랍어에서처럼 어떤 강세적 의미를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의미론적인 가치를 갖지 않으며, 그 강조적 효과는 단지 음성적일 뿐이다(JMK §61f).

נִּנְּה, נִּנְּה, נִּנְּה, נִּנְּה

신 8:5

יְהוָה אֱלֹהֶיךָ מִסְכָּרְךָ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너를’ 안에 있는 다게쉬가 강세의 눈이다.

삼상 16:11

שְׁלַחְהָ וְקַחְנָהּ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를’ 안에 있는 다게쉬가 강세의 눈이다.

욥 5:1

קְרֹא־נָא הַיֵּשׁ עִוְנֶךָ

부르짖으라, 누가 네게 응답할까?
‘네게’ 안에 있는 다게쉬가 강세의 눈이다.

매우 드물지만 자유롭게 나타나는 강세 형태들

출 1:10

כִּי־תִקְרָאֲנָה מִלְחָמָה

전쟁이 일어난다면

삿 5:26

יָדָהּ לִיתֵד תְּשַׁלְּחָנָה

그녀는 말뚝에 손을 뻗쳤다

= 삽입의 눈(epenthetic נ)

≡ paragodic nun (첨가의 נ)

Rainey, Anson F., “The Energetic in Northwest Semitic,” *Or* 77 (2008), 79-83.

강세의 바브(強勢의 1)

energetic vav

정동사형(카탈, 익톨, 지시형, 권유형, 명령형) 앞에 나오는 바브가 ‘그리고’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계승(succession), 결과(consecution), 목적(purpose)을 뜻하는 바브(JMK §115a).

‘강세의 바브’는 주용-무라오까의 개념으로서, 게제니우스에게는 나오지 않으며, 왈키는 ‘상대적 바브’(vav-relative)로 표현된다. 무라오까에 따르면 히브리어에서 정동사형 앞에 나오는 바브는 ‘단순 바브’와 ‘강세의 바브’가 있다. 단순 바브는 ‘그리고’라는 뜻으로 문장을 단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병렬의 바브). 강세의 바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강세 바브로 연결된 동사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1) 계승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설법의 형태가 도치 바브와 함께 사용된다(도치 바브+직설법): 바익톨, 베카탈티; (2) 결과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설법 다음에 직설법이, 의지법 다음에 의지법이 사용된다(서법의 바브와 함께); (3) 목적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지법이 사용된다(서법의 바브와 함께) (JMK §115a, 120).

(1) 계승

신 22:13(JMK §117d)

כִּי־יִקַּח אִישׁ אִשָּׁה וְבָא אֵלֶיהָ וְשָׁנְאָהּ:

어떤 사람이든지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계승은 시간적으로 결혼식 다음에 이루어진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다. 문법적으로는 도치 바브와 직설법으로 표현된다.

왕상 14:28(JMK §117d)

יִשְׂאוּם הָרָצִים וְהַשִּׁבּוּם

그들이 그것(낚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그리고 그 후에 도로 갔다 두었다.

(2) 결과

창 23:4(JMK §116b)

תָּנוּ לִי אֶחָזֶת־קֶבֶר עִמָּכֶם וְאֶקְבְּרָה מְתִי מִלְפָּנַי

나에게 매장지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죽은 아내를 문ге 해주십시오.

결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매장지를 먼저 주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말 3:7(JMK §116b)

שׁוּבוּ אֵלַי וְאֶשׁוּבָה אֵלֵיכֶם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 목적

창 27:4(JMK §116b)

וְהָבִי־אָה לִי וְאֵכְלָה

그것을 내게 가져와 나로 먹게 하라.

목적은 ‘~하도록, ~하기 위하여’로서, 이삭은 예서에게 “내가 먹도록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즉, 결과보다는 목적이다.

≡ 단순바브(simple vav), 도치바브(inverted vav)

어중 삽입(語中插入)

epenthesis, epenthetic

단어 속에 음, 글자, 혹은 음절을 삽입하는 것.

이 용어는 헬라어에서 온 것으로(*ἐπεν*, ‘위로, up in’ + *τίθημι*, ‘내가 두다, I place’), 음성학적 효과를 위하여 음을 추가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강세의 눈(energic נּ)으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어중 삽입의 눈(epenthetic נּ)이 있다.

헬라어의 경우 이오타(ι)가 *av*, *ov*, *ap*, *op* 다음에 올 때 앞으로 이동하여 *av*, *ov*, *ai*, *oi* 가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S 111).

– 강세의 눈(energic Nun)

≡ 어미음 첨가(paragogic), 첨가의 눈(paragogic Nun)

≡ 보조모음 첨가(anaptyxis)

설명의 속격

epexegetical genitive, genitive explicativus

설명적 관계를 나타내는 속격.

지배하는 명사와 지배받는 명사 간의 관계 중 두 명사가 서로 설명적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속격이다. 즉, 지배하는 명사가 지배받는 명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때 지배하는 명사에 속격이 사용된다. 동격의 속격이라고도 한다(참. GKCS §128f, k-q).

ἡ δὲ τῆς

돌(로 된) 판들

헬라어의 경우는 동격의 속격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예를 하나 살펴보자.

행 2:38(Z 45)

καὶ βαπτισθήτω ἕκαστος ὑμῶν ἐπὶ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καὶ λήμψεσθε τὴν δωρεὰ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영이란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영의 선물’이란 ‘거룩한 영에 의해 주어질 선물’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선물을 설명한다(Z 45).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 ‘거룩한 영’이 언급된 것이다.

= 동격의 속격(genitive of apposition, genitive appositionis)

+ 속격(genitive)

에브라임 방언

Ephraimite dialect

에브라임 자손들이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어 방언.

사사기 12장 6절에 근거하여 고대 히브리어에는 지역에 따른 방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에브라임 자손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차이는 ש을 ס로 발음한 것으로서 שְׂבַלֶּת(물줄기)를 סְבַלֶּת(곡식의 이삭)로 발음했다(참. GKCS §2 w; IBHS §3.4 e).

삿 12:6

וַיֹּאמְרוּ לוֹ אֶמְרָנָא שְׂבַלֶּת וַיֹּאמֶר סְבַלֶּת וְלֹא יָכִין לְדָבָר כֵּן וַיֹּאחֲזוּ אוֹתוֹ וַיִּשְׁחָטוּהוּ אֶל-מַעְבְּרוֹת הַיַּרְדֵּן
그들은 그에게(에브라임 사람에게) 'שבֹּלֶט'라고 말해 보라고 했고, 똑같이 말을 하지 않고
'שבֹּלֶט' 라고 말하면 그를 잡아서 요르단 강 나루에서 죽였다.

공성명사(共性名詞)

epicene noun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사용되는 명사.

문법적으로 공성명사는 그 명사와 연결된 형용사, 분사, 동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허용한다. 공성명사는 דֶּרֶךְ(길), שֶׁמֶשׁ(태양)와 같은 일반명사에서도 나타나지만 בֶּקֶר(소), דָּב(곰), זָאֵב(늑대) 등과 같이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גְּמָלִים과 같이 단수에서는 남성으로만 사용되다가 복수에서는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참. GKCS §122 b, e-g; IBHS §6.5.2 a).

(1) 남성으로 사용된 예

렘 31:9

בְּדֶרֶךְ יֵשֶׁר לֹא יִפְשְׁלוּ בָהּ

그들은 곧은 길에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전 1:5

וְזָרַח הַשֶּׁמֶשׁ וּבָא הַשֶּׁמֶשׁ

해는 뜨고 진다

(2) 여성으로 사용된 예

시 107:7

וַיְדַרְיָם בְּדֶרֶךְ יִשְׂרָאֵל

그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미 3:6

וּבִאָהּ הַשֶּׁמֶשׁ עַל-הַגְּבִיאִים

선지자들 위에서 해가 질 것이다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가 남성과 여성을 함께 표현할 때는 공성(common gender)이라고 부른다. 예로는 παῖς(아끼는 종), ὄνος(나귀), θεός(하나님, 신)가 있다(R 252). 자세한 것은 ‘공성(common gender)’을 보라. ‘공성명사(epicene noun)’에 해당되는 단어로는 ἄλωπηξ가 있다(R 252). 이 단어는 여성명사이지만 두 가지 성에 모두 사용된다.

눅 13:32

πορευθέντες εἶπατε τῇ ἄλωπεκι ταύτη·

너희는 가서 이 여우에게 말하라.

+ 명사(noun)

비명학

epigraphy

토판이나 도자기나 돌 위에 쓰여진 고대의 기록물을 연구하는 학문.

비명학(epigraphy)이란 용어는 고문서학(paleography)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고문서학은 잉크로 필사한 필사본(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필사본)을 취급하는 것이고, 비명학은 단단한 재료에 새겨진 기록물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쉼어 연구에서는 기록된 재료에 따라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영역에 따라 구분한다. 문자 형태의 발달을 추적하여 바르게 해독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를 측정하는 일을 취급하는 분야를 고문서학이라 부르고, 비명학은 고고학 발굴물 중 기록물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비명학은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사본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비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주전 약 3200년 경의 수메르어 그림문자이며, 성경 외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비문은 주전 10세기경 게셀에서 발견된 달력이다(참. Naveh 5-6; 김영진 1995, 6, 22).

≡ 고문서학(paleography)

Hamilton, Gordon J., "W. F. Albright and Early Alphabetic Epigraphy," *Near Eastern Archaeology* 65 (2002), 35-42.

Younger, K. Lawson, Jr., "Some of What's New in Old Aramaic Epigraphy," *Near Eastern Archaeology* 70 (2007), 139-146.

별칭

epithet

고유한 이름을 지닌 명사를 달리 부르는 이름.

히브리어에는 자주 나오는 칭호들을 달리 부르는 경우가 있다.

삼상 4:4(JMK §121n)

אֶרֶן בְּרִית־יְהוָה צָבָאוֹת יֵשֵׁב הַכִּרְבָּיִם

그룹 위에 앉으신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그룹 위에 앉으신 분은 만군의 주님의 별칭이다.

출 15:17(IBHS §7.4.3.f)

מִכּוֹן לְשִׁבְתָּךְ פָּעֻלָּתְךָ יְהוָה מִקְדָּשׁ אֲדֹנִי כּוֹנֵן יְדִיד

주님, 이곳은 당신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여,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아도나이)는 주님(야웨)의 별칭이다.

창 11:29(IBHS §8.2.d.n.7)

וְשֵׁם אִשְׁתּוֹ נִחוֹר מֶלֶכָּה בַּת־הָרָן אֲבִי־מֶלֶכָּ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며, 그는 ‘아비 밀가’(אֲבִי־מֶלֶכָּה)인 하란의 딸이다.

여기서 ‘아비-밀가’(אֲבִי־מֶלֶכָּה)는 하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밀가의 아버지’라는 별칭이다.

헬라어의 경우, ἀληθινὸς θεὸς(요일 5:20)가 하나님의 별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W 326).

Chirichigno, Gregory C., “The Use of the Epithet in the Characterization of Joshua,” *TJ* 8 (1987), 69-79.

Hamilton, Gordon J., “New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bšt* in Hebrew Personal Names and for Its Use as a Divine Epithet in Biblical Texts,” *CBQ* 60 (1998), 228-250.

Jacobson, Howard, “Moses as Alpha,” *JTS* 50 (1999), 626-627.

Lutzky, Harriet, “Shadday as Goddess Epithet,” *VT* 48 (1998), 15-36.

Smelik, Klaas A. D., “My Servant Nebuchadnezzar: the Use of the Epithet “my servant” for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n the Book of Jeremiah,” *VT* 64 (2014), 109-134.

Ziffer, Walter, “Two Epithets for Jesus of Nazareth in Talmud and Midrash,” *JBL* 85 (1966), 356-357.

전형(典型)

epitome

한 작품이나 본문에서 핵심 내용이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제시하는 본보기.

영어 epitome 는 헬라어 ἐπί, ‘~위에’(upon)와 τέμνειν, ‘자르다’(to cut)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에서 나왔다. 즉 “문학작품에서 핵심 사안을 짧게 진술하는 것”으로서, 어떤 내용을 압축한 것을 말한다(OED).

히브리어에서 ‘전형’(epitome)은 왈키-오코너가 사용하는 문법 용어로서, 유사 지시어(quasi-demonstrative)인 הָהוּא가 “특별한 날에 대해 그 특징을 요약하거나, 가까운 과거(recent past)에 대한 경고나 권고한 것을 회상할 때 동시성을 표현하는 경우(민 32:6, 10), 혹은 미래(future)에 대한 본보기(신 31:18)”로 사용된다”(IBHS 17.5b).

민 32:6, 민 32:10

וַיֹּאמֶר מֹשֶׁה לְבָנֵי־גָד וּלְבָנֵי רְאוּבֵן (민 32:6)... וַיַּחֲרֹאֲף יְהוָה בְּיָוִם הַהוּא וַיִּשָּׁבַע לֵאמֹר: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기를(민 32:6).....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이르기기를(민 32:10)

민 32:10 의 ‘그 때에’는 가까운 과거인 민 32:6 을 회상할 때 동시성을 표현하는 구이다.

신 31:18

וְאַנֹכִי הַסֵּתֶר אֶסְתִּיר פָּנַי בְּיָוִם הַהוּא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나의 얼굴을 숨길 것이라.

여기서 ‘그 때에’는 미래에 대한 본본기가 된다.

능동격(能動格)

ergative

대격이 동사의 주어로 사용되는 언어들에 나타나며, 동사의 동작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명사를 강조하는 격.

영어 ergative 는 헬라어 *érgon* (일, work)에 어근을 둔 *ἐργάτης* (일꾼, workman)에서 나왔다. 즉, 일하는 격이다. 그래서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로 정의되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능동격은 라틴어, 바스크어, 유럽 언어들에 사용되며, 특히 에스키모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어에서는 능동격 동사들로 ‘cause, bring about, create’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오고 있다. 예로, ‘move’라는 동사는 “The stone moved”와 “John moved the stone”에 둘 다 사용된다. 격과 연관하여서는 “The key opened the door. The door opened...”에서 key 는 능동격이 된다

좀 더 언어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이 용어는 동사와 연관하여 ‘언어를 완결된 동작’(completed action)으로 보는 훔볼트가 사용한 것이다(Wilhelm von Humboldt, 1767–1835). 그는 “언어를 ‘정적 실재’(static entity)로 보는 견해와 대조적으로 ‘동작’ 혹은 ‘효율적 에너지’ 즉, 힘(energeia)으로 보는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였다”(RDLL).

성경 히브리어의 경우에 능동격은 일반적인 문법사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라오까에 따르면 이 견해는 뮐러(Müller H. P., “Ergativelemente im akkadischen und althebräischen Verbalsystem,” *Biblica* 66, 1985: 404-10)와 미그쉬(Migsch H., “Gibt es im Bibelhebräischen eine unpersönliche Passivkonstruktion mit direktem Objekt?”, *BN* 102, 2000:14-21)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수 의견으로 취급된다(JMK §128bN.4). 능동격으로 여겨지는 구문을 보면, 니팔 형 구문에서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표지인 **אֵת**가 주어로 사용된다. 이것은 능동격이라기보다 니팔의 용법에서 능동격과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참. PDSBH).

출 21:28

וְלֹא יֵאָכֵל אֶת־בְּשָׂרוֹ

그 고기는 먹지말 것이며

여기서 ‘고기’는 직접 목적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어이므로 능동격으로 설명된다.

민 14:21(=시 72:19, JMK §128cN.2)

וַיִּמְלֹא כְבוֹד־יְהוָה אֶת־כָּל־הָאָרֶץ: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찰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사역적 능동태(causative active)의 대체개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W 411). ‘사역적(causative)’를 보라.

행 21:11(W 412)

τὸν ἄνδρα οὗ ἔστιν ἡ ζώνη αὕτη, οὕτως **δήσουσιν** ἐν Ἱερουσαλὴμ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παραδώσουσιν** εἰς χεῖρας ἐθνῶν.

이 때가 속한 남자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묶어[묶이게 하여], 다른 민족들의 손에 넘겨줄[넘겨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δήσουσιν* 과 *παραδώσουσιν* 을 능동격으로 볼 수 있다.

+ 격(case)

→ 사역적(causative)

에티오피아어

Ethiopic

남부 셈어(혹은 남서부 셈어)에 속하는 에티오피아의 공용어.

에티오피아어는 주후 13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사용했던 고대 에티오피아어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는 암하라어로 구분된다. 고대 에티오피아어는 게에즈어로 불리는데 주전 1천년 경 아라비아 남부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언어를 기원으로 두므로 남부 아랍어의 분파로 볼 수 있다. 게에즈어는 주후 4세기경 기독교를 도입한 악숨 왕조의 공식어로, 그 왕조가 몰락했던 11세기 이후 13세기까지도 일상어로 사용되었다. 13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암하라어가 에티오피아의 공용어로 사용되며 암하라어는 자음만 표기하던 게에즈어 문자에 모음부호를 덧붙여 사용한다(참. GKCS §1b; Naveh J., 1987: 15; SBCP 35-36; TJ 2010: 24).

+ 셈어(Semitic, semitic language)

Bausi, Alessandro and Camplani, Alberto, "New Ethiopic documents for the History of Christian Egypt," *ZAC* 17 (2013), 215-247.

Naveh J.,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Magnes Press, 1987.

Weninger, Stefan, "On Performatives in Classical Ethiopic," *JSS* 45 (2000), 91-101.

어원(학)(語源學)

etymology

언어에서 단어들의 형태 및 의미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그 기원, 파생, 변화, 퇴보 등으로 추적하고 기술하는 언어학적 연구나 그 방법론.

어원학 혹은 어원론을 뜻하는 영어 etymology는 헬라어 *étymos* (참된, true)와 (말씀, word)을 합성한 *ἐτυμολογία*에서 나왔다. 이 방법론은 단어의 어근(root) 및 파생관계(derivation)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능한 한 가장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오래된 어형,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단어의 의미, 용법의 발달사, 다른 단어와의 관계까지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다. 어근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언어의 역사적인 연구와 비교언어학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민족학과 역사, 고고학의 성과도 이용한다. 영어의 경우 중세 영어 혹은 고대 영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며 불어의 경우 라틴어나 게르만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의 어근이 명사에서 유래하였든 동사에서 유래하였든 간에 세 개의 자음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두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경우도 있다.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경우는 대개 세 자음 어근의 확대에서 생긴다. 원시 셈어의 알파벳은 모두 29개였으나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므로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어근을 파악하려면 사라진(혹은 동화된) 일곱 개를 찾아야 한다. 아랍어는 고전 아랍어와 현대 아랍어가 모두 28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므로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어근을 파악하는데 있어 아랍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 ‘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כֶּהָן**이며 아랍어 단어는 **كَهَن**이지만 히브리어의 **ה**와 아랍어의 **ه**는 실질적인 어근이 아니며, 아랍어 단어 **كَهَن**에서 실제 어근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나 빈도수가 매우 낮은 단어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셈어에 나타난 문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가장 오래된 셈어인 아카드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GKCS §30; JMK §34, 60, 88K).

Huehnergard, John and Olyan, Saul M., “The etymology of Hebrew and Aramaic ykl ‘to be able,’” *JSS* 58 (2013), 13-19.

완곡어법(婉曲語法)

euphemism

듣는 사람의 정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강하거나 조잡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고 완화된 단어나 구로 대체하는 수사적 기법

영어 euphemism 은 헬라어 εὐφημίζειν (좋게 말하다, to speak fair)에서 나왔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 듣는 사람이 부담을 갖거나 불쾌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완곡한 말로 애둘러 말하는 것이다.

우리 말로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하는 것처럼(참. 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는 ‘발을 가리다’는 ‘용변을 보다’에 대한 완곡어법이다.

삿 3:24

אֵךְ מַסִּיד הוּא אֶת־רַגְלָיו בַּתְּדָר הַמִּקְרָה:

그가 분명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있다.

여기서 ‘발을 가리다’는 ‘용변을 본다’는 뜻이다(삼상 24:3).

삼하 11:8

כִּד לְבִיתָהּ וּרְתִיזָהּ רַגְלֶיהָ

너의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여기서 ‘발을 씻다’는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완곡어법이다.

욥 2:9

בָּרַךְ אֱלֹהִים וְנָמַת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서 **בָּרַךְ**(축복하다)의 어휘가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다’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완곡어법에 해당한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완곡어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의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

헬라어와 관계해서는 ‘밤’(νύξ) 대신에 ‘부드러운 시간’(εὐφρόνη)을, ‘좋지 않음’을 ‘그렇지 않으면’(ἐτέρως)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다(S 3024). 또한, ἕτερος 의 몇몇 용례를 완곡어법으로 보기도 한다(R 748-749).

행 2:4(R 748)

ἐπλήσθησαν πάντε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καὶ ἤρξαντο λαλεῖν **ἐτέραις** γλώσσαις

그들 모두가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Tal, Abraham, “Euphemisms in the Samaritan Targum of the Pentateuch,” *Aramaic Studies* 1 (2003), 109-129.

White, Stephen L., “Angel of the LORD: Messenger or Euphemism?” *TynBul* 50 (1999), 299-305.

활음조(滑音調)

euphony

한 단어나 인접한 단어들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음소들 사이에, 거친 발음을 피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나도록 발음을 부드럽게 하는 음운 현상.

영어 euphony는 헬라어 εὐφωνία (멋진 소리, excellence of sounds)에서 나왔다. 우리말 활음조(滑音調)는 소리가 듣기 좋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것은 호음조(好音調) 혹은 미음조(美音調)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모음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l, r 등의 유음과 m, n 등의 비음의 연속에서도 나타난다. 동화(assimilation)나 이화(dissimilation) 현상도 활음조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모음이든 자음이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활음조는 경강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작용 경강점, 연결 경강점, 분리 경강점, 고착 경강점 등이 활음조의 경강점에 속하는 것들이다. תָּנָה와 같이 명령형 뒤에 הָ가 붙는 형태는 대부분 활음조가 그 요인이다. בְּרוּמָם 대신에 בְּרוּמָם이 사용된 것(겔10:17), מַצִּבְתֵּיהֶם 대신에 מַצִּבְתָּם이 사용된 것(신7:5) 등도 이 현상에 속한다(참. 조성식 외; 이정민 외; JMK §48d, 80k).

헬라어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활음조 현상이 있다. 모음의 경우, 축약(contraction), 음의 탈락(elision), 첫음 탈락(aphaeresis) 등이 있다(S 46-76). 해당 용어를 참고하라. 자음의 경우, 중복(doubling), 기식음(aspiration), 자음 도치(metathesis of consonant), 이화(dissimilation) 등이 있다(S 77-132). 해당 용어를 참고하라.

- 축약(contraction), 음의 탈락(elision), 첫음 탈락(aphaeresis), 중복(doubling), 기식음(aspiration), 자음 도치(metathesis of consonant), 이화(dissimilation)
- ≡ 경강점(dagesh forte), 활음조의 강점(dagesh euphonicum), 작용 경강점(dagesh forte affectuosum), 연결 경강점(dagesh forte conjunctivum), 분리 경강점(dagesh forte dirimens), 고착 경강점(dagesh forte firmativum)

예외절(例外節)

exceptive clause

주절의 진술에 대하여 예외가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종속절.

일반적으로 조건절의 일부로 만드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를 제외하고’의 의미를 가지는 절이다. 히브리어에서는 긍정적 진술 다음에 예외사항이 올 때는 **כִּי אֲפֹס**, **בְּלֹתִי**, **אֲפֹס בְּלֹתִי**를 사용하고, 부정적 진술 뒤에 예외사항이 나올 때는 **אֲפֹס כִּי**를 사용한다(JMK §173; PDSBH).

삿 4:9

הָלַךְ אֵלַי עִמָּךְ אֲפֹס כִּי לֹא תִהְיֶה תַּפְאֲרָתְךָ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창 32:27

לֹא אֶשְׁלַחְךָ אִם-בְּרַכְתָּנִי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예외절로 *εἰ μὴ* 와 *πλὴν* 이 사용된다(참. R 1024).

행 11:19

διῆλθον ἕως Φοινίκης καὶ Κύπρου καὶ Ἀντιοχείας μηδενὶ λαλοῦντες τὸν λόγον **εἰ μὴ** μόνον Ἰουδαίοις.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면서, 다만 유대인들 외에는, 말씀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 8:1

πάντες δὲ διεσπάρησαν κατὰ τὰς χώρας τῆς Ἰουδαίας καὶ Σαμαρείας **πλὴν** τῶν ἀποστόλων.

그 바람에 사도들 말고는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저주문서(詛呪文書)

execration text

개인이나 장소, 집단, 단체, 나라 등을 심하게 비난하거나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저주하는 어휘들로 특징지어지는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일반적인 장르의 문서.

영어 execration 은 ‘저주하다’는 라틴어(execrātiōn)에서 나왔다. 주전 2 천년 대에 서북 셈어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 왕국시대(주전 약 2100–1800)의 자료들 중 특히 저주문서들(Execration Texts)이 깨어진 토기에서 발견되었다. 이 저주는 그 당시 이집트와 적대 관계가 있던 가나안 지역의 여러 도시들(아스글론, 에그론, 하술, 예루살렘)의 이름이 토기에 새겨져 있으며, 그 토기를 깨뜨림으로써 도시들을 저주하였다(참. PDSBH).

이 저주문서들은 주전 18세기 이후, 일부 원시 가나안어 비문과 인장들, 14세기의 엘-아마르나(El-Amarna) 서신(므깃도, 예루살렘), 2000 년대 전반부 비블로스(Byblos)의 유사 상형문자 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다(SBCP 53).

시편 2:9

תָּרַעַם בְּשִׁבְטֵי בְרֹזָל כִּכְלִי יוֹצֵר תַּנְפָּצִים:

당신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 같이 부수어 버릴 것이다.

시인은 새로 등극한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열국의 왕들과 장군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깨어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고대의 저주비문에 나타난 문화적 배경을 보여준다. 아마 토기에는 열국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존재의(存在의)

existential

초자연적인 존재나 사람, 사물 등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

존재(存在)라는 말은 “(1) 현실에 실제로 있음. 또는 그런 대상, (2)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 만한 두드러진 품위나 처지. 또는 그런 대상, (3) 철학에서,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외계(外界)에 객관적으로 실재함. 또는 그 일, (4) 형이상학적 의미로, 현상 변화의 기반이 되는 근원적인 실재, (5)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객관적인 물질의 세계를 이르는 말. 실재보다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문법적으로 ‘존재’(existence) 혹은 ‘존재적’(existential)이란 위의 정의 가운데 (1), (2)와 연관된 것이며,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표현하는 것”이다(ODEG). 영어에서는 ‘존재 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으로서 there+(조동사)+ be + 개념적 주어와 같은 형태가 있다(예, There is an emergency. 이 때 there 는 대역의 주어이다.

성경 히브리어에는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나 불변화사, 그리고 절이 있다. 존재의 불변화사에는 ‘있다’(there is, **יש**)와 ‘없다’(there is not, **אין**; 연계형 **אין**)가 있다. 이 불변화사는 원래 명사였으며 두 성(both genders)과 수(numbers)에 모두 사용될 수 있고, 그 기능은 영어의 연결사(copulative)의 역할을 한다. 또한 존재절에는 위의 존재 불변화사로 가장 자주 나오지만, 가끔 **היה** 동사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성경 아람어에는 이와 유사한 존재 불변화사로서 **אִיתִי**와 **לֹא אִיתִי**가 있다(참. PDSBH).

창 18:24

אוֹלֵי יֵשׁ תַּמְשִׁים צְדִיקִים בְּתוֹךְ הָעִיר

이 성 안에 의인 오십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 20:11

וַיֹּאמֶר אַבְרָהָם כִּי אֶמְרָתִי רַק אֵין יְרָאֶת אֱלֹהִים בְּמָקוֹם הַזֶּ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헬라어의 경우, 존재는 주로 *εἰμι* 동사로 표현된다.

설명절(說明節)

explicative clause

주절의 내용에 대해 그 원인이나 이유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종속절.

히브리어 구문에서 설명절은 대개 논리적인 인과성을 의미하여, 주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 혹은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설명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כִּי이다. 또한 관계접속사 אֲשֶׁר나 접속사 אֲשֶׁר אֵין도 설명절을 이끌 수 있다(JMK §170; PDSBH, 71).

창 3:17

כִּי־תִמְשַׁח לְקֹדֶשׁ אֶתְּךָ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삼상 30:22

אֲשֶׁר אֵין אִתָּנוּ לְהִלָּחֵם עִמָּו

그들이 나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어의 경우, ὅτι 를 주로 사용하여 설명절을 구성한다. 이 경우 ὅτι 앞에는 콤마가 있다.

행 2:6

συνῆλθεν τὸ πλῆθος καὶ συνεχύθη, ὅτι ἤκουον εἰς ἕκαστος τῇ ἰδίᾳ διαλέκτῳ λαλούντων αὐτῶν.

회중이 함께 왔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제각기 자기 언어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점(外部點)

external point

히브리어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자음 위에 붙이는 점.

이러한 점은 그 모양이 히브리어 악센트 기호중 ‘레비아(רֵבִיעַ)’와 매우 흡사하지만 악센트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나 여러 개의 문자를 생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여진 것이다. 예로, וְבִינָהּ(창 16:5), וְיִשְׁקָהּ(창 33:4) (참. JMK §16h).

헬라어 사본에서도 글자 위에 점을 찍어 문자를 생략할 것을 표시하였다. 예로, 시내산 사본의 눅 11:3을 보면, οὕτω에 해당되는 글자 위에 외부 점이 찍혀있다.

추가배치(追加配置)

extraposition

문장 안에서 명사나 구, 절을 원래의 제 위치에서 이동시켜 의미를 강조하거나 분명하게 하는 통사적 기법

영문법에서는 외치(外置) 혹은 외치변형(外置變形)이라고도 한다. 영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를 문장 끝에 두는 보어 절의 위치 바꿈이며, 주절의 자리에 비-지시적인 it를 재배치 하는 것이다”(CDEG).

히브리어에서는 고리형(casus pendens)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일부 히브리어 학자들은 casus pendence (hanging case)가 ‘격’(格)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추가배치’(extraposition)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히브리어 고리형 구조에서 문두에 위치하는 추가배치는 문장에서 속격, 목적어, 보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추가배치는 세구성소 명사문장(tripartite nominal sentence)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세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를 제외한 제3의 구성소를 계사(copula)로 보거나 강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추가배치란 용어 사용을 반대하지만, 제3의 구성소를 계사나 강조의 역할로 보지 않은 이들 가운데 문두에 위치한 요소를 추가배치로 보고 제3의 구성소인 대명사는 앞에 위치한 추가배치를 되찾는 대명사로 보는 이들이 있다. 가령 **הוא הִנֵּה הָאֱלֹהִים**(신4:35)이라는 세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추가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הִנֵּה**가 추가배치이며 제3구성소인 **הוא**는 그것을 되찾는 대명사로 보는 것이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JMK §156; Muraoka 1985, 17-18, 67-82; Muraoka 1999, 203-205; Zewi 1994, 153, 162-163).

≡ 고리형(casus pendens)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Muraoka, T.,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Zewi, T.,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작용적(作用的)

factitive

동사의 동작을 통하여 목적어의 상태나 특성이 실질적이거나 개념적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지속하게 하는(참. JMK §52d).

영어 factitive는 라틴어 facere (만들다, to make)에서 왔으며, 사역적(causative)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문법에서 ‘작용적’이란 개념은 주로 동사에 사용되며, “뭔가를 만들거나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개념을 가진다. create, make, produce, kill과 같은 동사이다”(ODEG). 한국의 영문법에서 factitive verb는 ‘작위동사’(作爲動詞)로 번역되며, 대체로 cause, get, have, let, make 등으로 끝는다(조성식 외).

그렇지만, ‘작위’(作爲)는 우리 말에서 “(1)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2) 법률 용어로서, 일정한 신체 운동을 하는 적극적 태도. 법적·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므로(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멀다. 따라서 우리 말로는 ‘작용’(作用)이 더 가깝다. 작용이란 “(1)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침, (2) 물리학에서 어떠한 물리적 원인이나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원인에 기여함”을 뜻하기 때문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작용동사(factitive verb)는 상태를 바꾼다는 점에서 동작이 일어나게 하는 사역동사와 구별된다. 예로, ‘거룩하게 하다’는 작용적 의미를 가지며, ‘그를 걷게 하다’는 사역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작용적 의미의 피엘은 칼형 자동사의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에 대응된다. 즉, 히브리어 ‘라마드’(לָמַד)는 ‘배우다’라는 타동사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에 익숙해지다”는 자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피엘형(לָמַד)에서는 “~에 익숙해지게 하다”가 되어 ‘가르치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IBHS §24.2.c). 또한 피엘형은 대부분 형용사나 분사의 결과적(resultative) 용법으로 나타난다. 예로서, ‘זָרַח’는 칼 형에서 ‘뿌리다’이지만 피엘형은 ‘흩어지게 하다’이며, ‘שָׁבַר’는 ‘깨뜨리다’이지만 피엘형은 ‘부수어지다’이다. 즉 상태가 변한 결과가 발생한다(IBHS §24.3b).

출 28:41

וְקִדְשָׁתָּ אֹתָם וְכִתְּנִי לִי

너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으로 행하게 하라

‘거룩하다’는 상태동사이지만(출 29:21), 피엘형이 되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작위적 동작을 통하여 상태가 변화된다.

렘 51:55

כִּי־שָׁדָד יְהוָה אֶת־בָּבֶל וְאַבְדָּ מִמֶּנָּה קוֹל גְּדוֹ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큰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사 49:21

וְאַלֶּה מִי גִלְלִי

누가 이들(이 아이들)을 키웠는가?

시 73:13

אֲדַרְיִק וְכִיתִי לְבָבִי

내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 용어를 헬라어에서 쓰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하다’(ἀγιάζω)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요 17:17

ἀγίασον αὐτοὺ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 피엘(piel), 사역적(causative)

Held, Moshe, “Action-result (factive-passive) Sequence of Identical Verbs in Biblical Hebrew and Ugaritic,” *JBL* 84 (1965), 272-282.

여성(女性)

feminine

문법적으로 남성과 대조되며, 경우에 따라 중성과 구별되는 성.

우리말 문법에는 여성이 없고, 셈어와 인도-유럽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으로 단어를 성(性)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문법적인 성이 꼭 자연적인 생물 성(性)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의 구별이 나온다. 영어에서 여성은 주로 사람이나 암컷을 가리킨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문법적 성 구별이 오직 3 인칭, 단수, 복수에만 나오며, 접미사-ess (lioness, hostess)도 명사에서 여성 표지이다.

문법적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꼭 실제적인 여성은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여성형은 어미 הָ로 표현된다. 그러나 모든 여성 어미 הָ는 여성이 아니며, 남성 명사에 나타나는 הָ가 여성 어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מִזְרָה 면도칼, שְׂדֵה 들판; קְהֵלָה 전도자, סִפְרָה 서기관). 히브리어 명사의 주된 여성 어미는 원래 תָּ였고, 그것은 연계형에서 보존된다. 반대로 여성 어미를 갖지 않은 여성 명사도 있다(אִם 어머니, אֶתֶן 암나귀, עֵז 암염소, רֶחֶל 암양)

헬라어의 경우, 1 변화(first declension) 명사가 주로 여성 명사이다. α 형, η 형, α 와 η 의 혼합형이 있다. 여성명사이지만 2 변화(second declension)를 따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단어로 ὁδός(길)가 있다.

+ 성(gender)

↔ 남성(masculine)

≡ 중성(neuter)

→ 1 변화(first declension), 2 변화(second declension)

여성 집합명사(女性集合名詞)

feminine collective noun

여성 단수의 형태의 집합명사.

히브리어에서 집합명사는 남정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חַיִּים(생명체), דָּגִים(물고기), בְּהֵמָה(가축), לָלֵה(가난한 백성)와 같이 명사나 형용사 형태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גּוֹלָה(포로된 백성), אֲרֻחָה(대상)와 같이 분사 여성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여성 집합명사는 형용사, 대명사,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대개 여성단수로 취급되나 복수로 취급되기도 한다(참. GKCS §122s; JMK §134o, 135b; IBHS §6.4.2c).

여성 집합명사가 복수로 취급되는 예

전 3:18

וְלִרְאוֹת שְׂהֵם־בְּהֵמָה תִּמָּה לָהֶם:

그들이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고

헬라어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여성 집합명사’는 없지만, ‘말, 기병’(ἵππος), ‘소나무’(δαῖς), ‘연령’(ἡλικία), ‘위협’(ἀρειά)을 의미하는 여성 집합명사가 있다(LSJ).

+ 집합명사(collective noun)

과정동사(過程動詞)

fientive verb

상태보다는 동작(action)이나 과정(process)을 표시하는 동사(참. JMK §40bN, 111fN).

영어에서 fientive 는 라틴어 ‘되다’(fieri, to become)에서 왔다.

히브리어에서 이 과정동사는 상태동사(stative verb)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능동동사(active verb)라고도 하며, 동사의 능동태가 아닌 ‘동작’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동작동사(action verb)들이나 과정동사들의 익톨형과 베카탈티형은 시간성과 시상성이 함께 사용되며, 반복적 동작이나 지속적 동작으로서 가치를 지닌다(참. JMK §40bN, 113c, 119a).

창 12:12(JMK §119a)

וְרָאוּ אֹתְךָ הַמִּצְרִים וְאָמְרוּ אִשְׁתּוֹ זֹאת וְהָרְגוּ אֹתָּהּ

그들이 당신을 보고...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지속적 동작으로서 ‘보면서,’ ‘말하면서,’ 그리고 ‘죽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왕상 9:8(JMK §82h)

כָּל־עֶבֶר עָלָיו יֵשֶׁם וְשָׂרָק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여기서 ‘놀라다’는 상태가 아니라 놀라면서 쉬쉬하는 동작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욥 17:8(JMK §82h)

יִשְׁמוּ יִשְׂרָאֵל עַל־זֹאת

정직한 자는 이것을 보고 놀라며

위의 왕상 9:8 예문과 동일한 상황을 묘사한다.

과정동사는 자동사나 타동사에 둘 다 나타날 수 있다(IBHS §22.2.1.b).

시 18:9[한 18:8]

גַּחְלִים בִּעְרוּ מִמֶּנּוּ

타는 숯불이 그것(그의 입)으로부터 타올랐다(자동사)

즉, 숯불이 타오르는 과정이 있다.

시 83:15

כָּאֵשׁ תִּבְעַר־יָעַר

불이 숲을 사름 같이(타동사)

불이 숲을 태우는 과정이 있다.

= 동작동사(action verb), 능동동사(active verb)

↔ 상태동사(stative verb)

목적절(目的節)

final clause

주절의 동작에 의도나 목적을 표현하는 종속절.

영어 final은 라틴어 finis (끝, end)와 finalis (끝에 관한 것)에서 나왔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지향하는 동작과 연관되며, 영어에서는 주로 in order that, so that, as as to 등으로 시작되는 절이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목적절은 결과절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목적과 결과의 관계는 순수한 바브(mere vav, vav-conjunctive)에 의해 부드럽고 세련되게 표현되거나, 혹은 다른 불변사들(לְ, לְמַעַן, בְּעֵבוּר, אֲשֶׁר, פֶּן, לְבִלְתִּי)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특히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하는 바브와 함께 나올 때 간접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종속 의지법이 되며, 목적이나 결과를 가리키는 간접의지법은 1 인칭에서는 권유형, 2 인칭에서는 명령형, 3 인칭에서는 지시형이 사용된다(참. JMK §168a, 116a, h; PDSBH).

(1) 목적

창 27:4(JMK §116b)

וְהָבִי־אָהָ לִּי וְאֵכְלָ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 나로 먹게 하라.

신 17:17(JMK §116j)

וְלֹא יִסּוּר לְבָבוֹ

그의 마음이 결길로 가지 않도록 그는 아내를 많이 주지 말 것이다.

(2) 결과

창 12:1f-2(JMK §116h)

וְאַעֲשֶׂה לְגִי' גְדוֹל וְאַבְרָהָם וְאַנְדְּלָה שְׁמִי וְהָיָה בְרָכָה: ... לְדֹלֶךְ מֵאַרְצָ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권유형)... 그리고 복을 주게 하고 그리고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명령형).

삼상 28:22(JMK §116h)

גַּם־אֶתָּה בְּקוֹל שִׁפְחָתְךָ וְאַשְׁמָה לְפָנַי פַּת־לֶחֶם וְאֶכֹּל וְיָתִי בָּךְ כַּח כִּי תִלָּךְ בַּדֶּחַד:

주의 여종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나서 제가 음식을 조금 드리게 하시고 왕은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말 3:7(JMK §116b)

שׁוּבוּ אֵלַי וְאַשׁוּבָה אֲלֵכֶם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헬라어의 경우, 목적절은 주로 ἵνα절로 나타난다. 결과는 ὥστε+부정사 형태로 나타난다.

결과절(consecutive clause)을 보라.

목적으로 쓰인 ἵνα의 예: 행 2:25

ἐκ δεξιῶν μου ἐστὶν ἵνα μὴ σαλευθῶ.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은 저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번역에 쓰인 ‘도록’은 가정법을 표현한 것이지만, 접속사와도 관련되어 있기에 밑줄을 그었다.

결과으로 쓰인 ὥστε의 예: 행 1:19

γνωστὸν ἐγένετο πᾶσι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ὴμ, ὥστε κληθῆναι τὸ χωρίον ἐκεῖνο τῇ ἰδίᾳ
διαλέκτῳ αὐτῶν Ἀκελδαμάχ

이 일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토지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아겔다마라고 불립니다.

→ 결과절(consecutive clause)

끝 문자

final letter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문자가 단어 끝에 올 때 모양이 달라지는 문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자는 주전 3-4세기 경에 시작된 정방형의 문자이며 끝 문자는 이 정방형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어 끝에 올 때 달라지는 문자는 다음 5개이다: כ → ך, מ → ם, ל → ך, פ → ף, צ → ץ

단어 끝에 כ가 올 때는 ך와 구분하기 위해 ך로 표시한다. 히브리어로 ‘마지막/끝’을 의미하는 단어인 ‘סוף’의 형용사 여성형인 ‘סופית’를 붙여서 끝에 오는 문자를 지칭할 때 ‘카프 쏘피트’, ‘멤 쏘피트’와 같이 부른다. 고대 서체들과 비교해 볼 때 ‘멤 쏘피트’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끝 문자들(ך, ם, ף, ץ)은 끝 문자가 아닌 형태들(כ, ל, פ, צ)보다 오래된 서체에 더 가깝다(참. GKCS §5c; JMK §5d).

헬라어에는 끝 문자로만 사용되는 대문자는 없고 소문자에만 ‘시그마’ 하나가 있기 때문에, 끝 문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시그마’가 대문자로 쓰일 때는 위치에 관계 없이 C 혹은 Σ 형태를 가진다. 시그마가 소문자로, 단어 끝에 나올 때는 ς를, 그 외의 경우에는 σ를 쓴다.

정동사(定動詞), 한정동사(限定動詞)

finite verb

주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법, 인칭, 시제의 한정이 있는 동사

영어 finite 는 라틴어 finis (끝, 한계)와 finire (끝내다, 한정짓다)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인도 유럽어에서는 “인칭, 수 따위를 표시하여 동사가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 정동사는 명백한 주어를 가지며, 시제가 표시된다. 예로, 3 인칭 단수, 현재 시제는 -s 형태이다(looks, sees). 과거형도 looked, saw 등으로 완전히 한정된다. 그렇지만, 부정사, 현재분사 -ing(looking, seeing), 과거분사 -ed/-en(looked, seen)은 비한정이다(참. ODEG).

정동사는 어떤 주어에 대한 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제(tense), 상(aspect), 법(mood), 태(voice), 인칭(person), 수(number)에 따라 어미 변화가 가능한 동사이다. 술어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어미변화가 없는 동사는 정동사가 아니다.

히브리어의 경우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정동사이며, 부정사나 분사는 정동사가 아니다.

헬라어의 경우,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을 가진 동사가 정동사이고(S 357), 부정사와 분사는 정동사가 아니다.

초점 구문(焦點 構文)

focus construction

“초점 위치(focus slot)에 나타나는 구성소에 명백한 문법적 초점을 부여하는 구조”(조성식 외).

초점 구문은 문장이나 절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대조되는 부분을 특별히 초점화하는 문법적인 구조를 말한다. 문장에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기술하는 부분과 그 부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정보를 기술하는 부분이 있다. It was Mary who cooked the dinner; in the morning John leaves 에서 이탤릭 부분은 강세를 가진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초점 구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 안에서 초점을 맞추어 다시 설명되는 주어가 주로 나타나며, 독립 주격(nominative absolute)이나 고리형(casus pendens), 단어 순서와 초점을 맞추는 불변화사로 표현된다(PDSBH 115, 38).

시 50:1a(PDSBH 38)

אַל אֱלֹהִים יְהוָה דִּבֶּר

전능하신 하나님 아웨께서 말씀하셨다.

출 12:15

כִּי כָל-אֹכֵל תִּמְצָא וְנִבְרָתָה הַנֶּפֶשׁ הַהוּא מִיִּשְׂרָאֵ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왕상 15:13(JMK §156l)

וְגַם אֶת-מַעְבְּדָה אִמּוֹ וְיִסְרָהָּ מִגְבִּילָ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까지도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헬라이어 문법학자들은 고리형(casus pendens; ‘hanging case’, 매달린 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왈리스는 독립 주격(nominative absolute)과 불완전 구문의 주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W 49-53), 로버트슨은 독립 주격이라는 용어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R 459-460). 왈리스에 따르면 독립 주격은 문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불완전 구문의 주격은 문장을 구성한다는 차이가 있다(W 49).

행 7:40(불완전 구문의 주격, W 52; 독립 주격, R 459)

ὁ γὰρ Μωϋσῆς οὗτος, ὃς ἐξήγαγεν ἡμᾶς ἐκ γῆς Αἰγύπτου, οὐκ οἶδαμεν τί ἐγένετο αὐτῷ.

왜냐하면 이 사람 모세는, (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냈죠.)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 모세’가 주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관계대명사 는 주격이지만 주문장에서 모세를 가리키는 단어는 3 인칭 대명사 여격 가 쓰였다. 이 경우 ‘이 사람 모세’는 강조를 위해 불완전 구문의 주격[혹은 고리형](W 52) 혹은 독립 주격으로(R 459) 쓰인 것이다. 한편, ‘이 사람 모세’를 매달린 주어(suspended subject)로 보기도 한다.

막 1:1(독립 주격, W 50)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이 표현을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보면 위와 같이 번역할 수 있다. 또한, 독립 주격의 예로 볼 수 있다.

≡ 고리형(casus pendens), 독립 주격(nominative absolute), 불완전 구문의 주격(pendent nominative, nominativus pendens)

형성소 글자(形性素 綴字)

formative letter

“단어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로서 의미 있고 실제적인 글자”(ODEG).

일반적으로 어미변화(flectional)와 파생 접미사나 접두사에 나오는 것으로, 형태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문법에서는 어휘 형성소(예, ~ful)와 활용 형성소(예, ~ing)의 두 종류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어떤 품사이든지 간에 하나의 형태소에서 어근이 되는 기본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음을 가리킨다. 가령 동사의 **הִתְלַחֵץ**라는 형태소에서 어근을 구성하는 자음인 **ה, ל, צ**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인 **ה, ת, נ, ו** 등은 형태소 자음이다. 명사의 **מַלְחָמוֹת**는 형태소에서는 어근 **ל, ח, מ**를 제외한 나머지 **ה, מ, ו, ת** 등이 형태소 자음들이다. 이러한 형태소 자음들은 **לְהִתְלַחֵץ**에서의 **י**와 같이 형태소의 중간에 붙기도 하지만 대개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는데, 이러한 형태소 자음들은 7개로 문법학자들이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 **וִיחִמְנִי**(내가 그를 믿었다)로 불렀다(참. GKCS §30 c, 81 b; JMK §34 a).

헬라어는 형태소를 만드는 어미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이 어미에는 자음과 모음이 모두 포함됨으로 ‘형태소 자음’이라 부르지 않고, ‘형태소 접미사’(formative suffix)라 부른다. 형태소 접미사가 어근에 바로 붙는 단어들을 원시어(primitives)라 부르고, 형태소 접미사가 어근과 다른 어간에 붙는 단어들은 파생어(derivatives)라 부른다(R 146).

헬라어의 형태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하나는 시상 접두모음 ϵ 로, 미완료와 부정과거와 과거완료에 붙는다. 시상 접두모음(augment)이 붙는 시제를 제2시상[혹은 제2시제]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어간중복(reduplication)으로, 어간의 첫자음에 모음 엡실론(ϵ)을 더한 형태가 완료시상 어두에 붙는다. 이 가운데 자음과 관계된 것은 어간중복에 사용되는 어간의 첫자음이다.

행 17:23

$\epsilon\upsilon\sigma\tau\omicron\nu\ \kappa\alpha\iota\ \beta\omega\mu\omicron\nu\ \epsilon\acute{\nu}\ \tilde{\omega}\ \epsilon\pi\epsilon\gamma\acute{\epsilon}\gamma\gamma\rho\alpha\pi\tau\omicron\cdot\ \acute{\Lambda}\gamma\nu\acute{\omega}\sigma\tau\omega\ \theta\epsilon\tilde{\omega}\cdot$

내가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ϵ 는 ‘시상접두모음’이고 $\gamma\acute{\epsilon}$ 는 ‘어간중복’이며 $\tau\omicron$ 는 ‘형태소 접미사’이다. 굳이 ‘형태소 자음’을 따진다면, γ 와 τ 가 있다.

≡ 시상접두모음(augment), 어간중복(reduplication)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free-standing

형태가 본래의 역할을 하는

히브리어에서 바브연속법(바브도치법, 바브전환법)으로 사용된 바이크톨 형태나 베카탈 형태에 대조되는 이크톨이나 카탈 형태를 말한다. 베카탈의 경우 바브연속법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형태 사이의 구분이 3 인칭인 경우 불가능하나 1 인칭과 2 인칭에서는 강세에 의해 가능하며, 강세가 끝음절에 오면 바브연속법이고 끝음절 전에 오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다(참. JMK §117b, 118a, 119a).

출 3:16

לֵךְ וְאָסַפְתָּ אֶת־זִקְנֵי יִשְׂרָאֵל וְאָמַרְתָּ אֲלֵהֶם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라.

전 2:15

וְאָמַרְתִּי אֲנִי בְלִבִּי

나는 내 마음으로 말했다.

불어(프랑스어)

French

로망스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프랑스, 모나코, 벨지움, 스위스 및 캐나다의 퀘벡등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

불어는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언어 중의 하나로서, 프랑스, 모나코, 벨지움, 스위스 및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중 약 1 억 2000 만 명이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성서학에 있어서 불어는 영어 및 독어와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의 하나이다.

빈번상(頻繁相)

frequentative

어떤 행동을 빈번하게 반복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의 상(相).

일반적으로 동작의 빈번한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나 동사 형태로서, 동작의 강의를 표현하며, 반복상(repetitive)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라틴어 *rogito*, (내가 반복적으로 묻다, I ask repeatedly)는 *rogo*, (내가 묻다, I ask)에서 나왔다. 영어 ‘떨럭이다’는 뜻을 가진 *flutter* 와 동일한 *flutter* 는 *flit*(움직이다, 스쳐가다)에서 나왔다.

히브리어에서 **צחק** 동사는 칼(Qal)로 사용되면 '웃다'의 의미이지만, 피엘로 사용되어 반복성을 드러내게 될 경우 '조롱하다, 희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JMK §52d).

창 17:17

וַיִּפֹּל אֲבֹרָהֶם עַל־פָּנָיו וַיִּצְחָק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웃었다.

창 21:9

וַתֵּרָא שָׂרָה אֶת־בְּנוֹהֶגֶר הַמִּצְרַיִת אֲשֶׁר־יָלְדָה לְאַבְרָהָם מִצְחָק

사라가 보니 애굽여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었다.

헬라어에서는 반복성을 표현할 때 반복상(iterative)을 더 많이 사용한다. ‘반복의(iterative)’ 항목을 참고하라.

= 반복상(repetitive), 반복상(iterative)

마찰음(摩擦音)

fricative

내쉬는 숨이 입안이나 목청의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을 일으켜 생기는 음.

일반적으로 마찰음은 “폐쇄음(stop)과 같이 공기의 통로를 완전히 폐쇄하였다가 파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접근한 두 조음기관의 틈을 빠져 나가는 기류가 방해받아서 마찰할 때 생기는 소리이다. f, v, th, the, s, z, h 등에서 h를 제외하고 전부 무성과 유성의 짝이 있다”(조성식 외). 국어에서는 ㅅ, ㅆ, ㅎ 등이 있다.

히브리어에서 마찰음은 주로 순음의 마찰음(א, א)과 치음의 마찰음(פ, פ, ס, ס, ט, ט, צ, צ), 그리고 연구개음의 마찰음(ך, ך)이 있다(JMK §5c).

헬라어의 마찰음을로는 시그마(σ)가 있다(S 17). 이를 spirants 라고 부르기도 한다.

완전서법/철자법

full writing

히브리어의 모음문자를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는 서법.

히브리어에서 i, o, u 모음을 표기할 때 모음문자(matres lectionis) 중 'י와 ו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철자법이다. 예로서, 다윗을 표기할 때 דָּוִד로 하지 않고 דְּוִיד로 표기하든지, קָל로 표기하지 않고 קִיל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 단어의 복수를 표기할 경우는 קולות와 같이 이어지는 두 음절에서 홀람이 모두 완전서법/철자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קולות, קולת와 같이 어느 한쪽만 완전서법/철자법을 사용하든지(전자가 선호됨), קלת와 같이 모두 불완전서법/철자법으로 사용한다. 완전서법/철자법은 바벨론 유수 이후에 기록된 후기성경히브리어에서 보다 더 선호된다(GKCS §8i-l, 25b; JMK §7c, 82h-k; PDSBH 56).

↔ 불완전서법/철자법(defective writing)

기능(機能)

function

언어의 기능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 언어 단위가 다른 언어 단위와 결합하여 생기는 역할.

언어 사용의 일차적 목적은 의미전달에 있으므로 언어의 기능은 의미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각 층위에 따라 여러종류의 기능이 나타며, 그 기능은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된다. 발화 기능, 음소 기능, 품사 기능, 문법 범주의 기능, 어의 의미 기능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정보전달의 기능, 지시(directive) 기능, 교감(phatic) 기능, (감정)표현적 기능, 미적 기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기능어(機能語)

function word

내용적인 의미보다는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

Fries(1940a, 1952)에 의해 도입된 용어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 즉 실어(full word)나 주요어(principal words)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허어(empty word), 형식어(form word)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능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전치사,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관계사 등이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틈입(闖入) 파타흐, 도입 파타흐

furtive patah

히브리어에서 /o, i, u/ 모음 뒤에 나오면서 강세가 있는 끝음절을 닫아주는 후음 앞에 ‘몰래 틈을 타서’(furtively)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닌 모음(◌◌)(JMK §21c).

틈입 파타흐는 도입(導入), 삽입(插入), 혹은 선입(先入) 파타흐라고도 한다. 이 부호는 모음과 마지막 후음 사이에 또는 후음의 오른쪽에 약간 떨어져 기록된다. 그리고 이 부호는 일반적으로 도입 파타흐, 선입 파타흐 등으로 불려지지만, 강세가 있는 끝 음절을 닫아주는 후음 앞에 틈을 파고 들어가므로 ‘틈입 파타흐’로 부를 수 있다. 틈입 파타흐가 나오는 /o, i, u/ 모음은 후음과는 이질적이어서,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틈입 파타흐가 /e/ 모음 뒤에 올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틈입 파타흐의 ◌◌ 모음은 매우 짧은 /aĕ/이지만, 일종의 자음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선행하는 모음과 함께 중앙의 이중 모음이 된다(JMK §21c, 21cN).

욥 15:30b

יִסְּוֹר בִּרְיֹת פִּי:

그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려가리라.

잠 23:29a

לְמִי שִׁיחַ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욥 30:4a

הִקְטַפְתִּים מִלֹּחַ עַל־שִׁיחַ

덤불 속에서 쓴 나물을 뜯으며

Florentin, Moshe, “The Alternation u/o, Diphthongs, Pataḥ Furtivum and the 3m.s. Pronominal Suffix in Samaritan Hebrew and Aramaic versus Tiberian Hebrew,” *JSS* 54 (2009), 365-381.

미래(未來)

future

현재 시간 다음에 나오는 불확정한 시간의 기간이지만(ODEG), 문법에서는 “발화(發話) 순간이나 일정한 기준적 시간보다 나중에 오는 행동,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시제”(표준국어대사전).

시제의 관점에 볼 때 미래란 “화자나 저자가 말하는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동사의 동작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PDSNTG). 그리고 미래 시제는 맥락에 따라 추측, 능력, 경향, 습관과 필연, 강제, 의지, 격언의 용법으로 사용된다.

히브리어 동사체계를 시제(tense)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완료형은 과거를 나타내고 미완료형은 미래를 나타낸다. 동사체계를 상(aspect)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료형 동사와 미완료형 동사가 모두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이 미래시제를 표현할 때, “이것은 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문장이나 예언적 표현에서 나타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확신과 예언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간주될 때 사용된다”(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10.3.5).

(1) 완료형은 소원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박미섭, 10.3. 6).

민 17:27

הֲלוֹ גִּנְעֵנוּ אֲבֹדֵנוּ

보소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예 4:16

וּבְאִשֶּׁר אֲבֹדָתִי אֲבֹדָתִי

죽으면 죽으리라

(2) 미완료형은 미래시제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용법으로 사용지만, 화자의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동작을 표현한다”(박미섭, 12.2.1).

삼상 24:16

וְהָיָה יְהוָה לְדָבָרְךָ וְשִׁפְטִי בֵּינִי וּבֵינֶךָ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나와 당신 사이에 판결하시기를 (원합니다)

(3) 미완료형은 “과거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동작이나 미래의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박미섭, 12.2.2).

겔 20:33

בְּיָד תִּזְקָה אֲמַלֹּךְ עֲלֵיכֶם

내가 너희를 강한 손으로 다스릴 것이다

창 2:5

וְכָל-עֵשֶׂב הַשָּׂדֶה טָרָם יֵצֵא

들에는 아무런 초목도 아직 자라지 않았다

헬라어 미래시제(헬라어로 ὁ μέλλων χρόνος)는 시간상으로 미래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동작양태(Aktionsart[en]) 면에서는 지속되거나 선형적인(durative or linear) 동작보다는 부정과거적이거나 즉각적인(aoristic or punctiliar) 동작을 표현한다(R 353). 더불어, ‘전체적인 외견적 관점’(W 566)을 내포하기도 한다.

헬라어의 미래형태는 현재어미에 σ 를 붙여서 만든다. 이 점에서 부정과거와 연결되는 면이 없지 않다(참. R 353). 수동태 어미도 부정과거와 유사하다. 단, 부정과거와 달리 시상 접두모음은 붙지 않는다.

미래시제의 용법으로는 예언적 미래(predictive future), 명령적 미래(imperative future), 심의를 위한 미래(deliberative future), 격언적 미래(gnomic future)가 있다(W 568-571).

(1) 예언적 미래의 예(W 568)

행 1:8

ἀλλὰ **λήμψεσθε** δύνανται ἐπελθόν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φ’ ὑμᾶς καὶ **ἔσεσθέ** μου μάρτυρες ἐν τε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ἐν] πάσῃ τῇ Ἰουδαίᾳ καὶ Σαμαρείᾳ καὶ ἕως ἐσχάτου τῆς γῆς.

도리어 너희는 거룩한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아 가질 것이다. 또한 너희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과 땅 끝까지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λήμψεσθε 와 ἔσεσθέ 는 예언적 미래이다.

(2) 명령적 미래의 예(W 570)

행 18:15

εἰ δὲ ζητήματά ἐστιν περὶ λόγου καὶ ὀνομάτων καὶ νόμου τοῦ καθ’ ὑμᾶς, **ὁψεσθε** αὐτοί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이름들과 여러분이 따르는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살피십시오.

(3) 심의를 위한 미래의 예(W 570)

롬 6:2

οἵτινες ἀπεθάνομεν τῇ ἁμαρτίᾳ, πῶς ἔτι **ζήσομεν** ἐν αὐτῇ;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 살겠는가?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 안에 사는 방법’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W 570),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 안에 살 수 없음을 미래시제로 표현한다.

(4) 격언적 미래의 예(W 571)

마 6:24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δυσὶ κυρίοις δουλεύειν· ἢ γὰρ τὸν ἓνα **μισήσει** καὶ τὸν ἕτερον **ἀγαπήσει**, ἢ ἐνὸς **ἀνθέξεται** καὶ τοῦ ἑτέρου **καταφρονήσει**.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할 것이 기대되고, 하나에 달라붙으면 다른 하나는 멸시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W 571).

(5) 신약성경에는 분사의 미래형태가 모두 13 회 나온다(마 27:49; 눅 22:49; 요 6:64; 행 8:27; 20:22; 22:5; 24:11, 17; 롬 8:34; 고전 15:37; 히 3:5; 13:17; 벧전 3:13). 이 가운데 한 가지 예만 살펴보자.

행 8:27

καὶ ἰδοὺ ἀνὴρ Αἰθίοψ εὐνοῦχος δυνάστης Κανδάκης βασιλίσσης Αἰθιοπῶν, ὃς ἦν ἐπὶ πάσης τῆς γάζης αὐτῆς, ὃς ἐληλύθει **προσκυνήσων**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그런데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남자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 베헤슬아치입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귀중품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 시제(tense), 상(aspect)

≡ 과거(past), 현재(present), 완료(perfect), 미완료(imperfect),

참. 동작양태(Aktionsart[en])

미래완료(未來完了)

future perfect, futurum exactum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동작이나 사건이 이미 완료된 것을 나타내는 시상.

국문법에서 미래완료란 “미래의 동작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을 표현하는 시제 동작상(動作相)으로, 현재완료에 ‘-겠-’을 더하여 쓴다. ‘그 시간이면 학교를 갔겠다.’”(표준국어대사전). 영문법에서는 “주절이 과거(또는 과거완료) 시제일 때에, 시제의 일치에 따라 ‘would/should +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는 동작이나 사건이 문맥 안에서 어떤 미래의 시점을 언급하는 경우, 그 미래적 시점 이전에 완료될 것을 표현하는 시제이다. 히브리어 동사체계에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모두 미래완료를 나타낼 수 있다(GKC §106o, 107l).

사 6:11

הַיְמָרָא דְּאַשְׁמֵס-אַשְׁמֵס עָלֵי מַאֲן יִשָּׁבּ וּבְתִים מַאֲן אֲדָם וְהָאֲדָמָה תִּשָּׁאָה שְׂמָמָה

그가 이르되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고 집에 사람이 없게 되고 땅이 황무하게 될 때까지이다."

헬라어 미래완료 시제(헬라어로 ὁ μέλλων συντελικός)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히 8:11; 이것도 단순미래일 수 있다) 쓰였다. 완곡어법인 εἶμι 동사 미래+현재완료 형태로도 6 회만 나온다(마 16:19[2 회]; 18:18[2 회]; 눅 1:45; 히 2:13). 칠십인 역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요세푸스의 글에도 없다. 필로의 글에만 45 회로 자주 나타난다.

미래완료 형태는 어간 앞에 어간중복(reduplication, 어간의 첫자음+ε)을 하고, 어간 뒤에 σ+능동태 어미를 붙여 만든다.

신약성경에서 한 번 쓰인 직설법 미래완료의 예와 완곡어법 형태로 쓰인 것 가운데 하나만 살펴보자.

(1) 직설법 미래완료의 예(R 906)

히 8:11

οἱ πάντες εἰδήσουσίν με ἀπὸ μικροῦ ἕως μεγάλου αὐτῶν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하찮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완곡어법 형태(εἶμι 동사 미래+현재완료 형태)로 쓰인 예

마 16:19

καὶ ὁ ἐὰν δέσσης ἐπὶ τῆς γῆς ἔσται δεδεμένον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καὶ ὁ ἐὰν λύσῃς ἐπὶ τῆς γῆς ἔσται λελυμένον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그러면 네가 땅에서 묶은 것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 뉘일 것이요, 또한 네가 땅에서 푼 것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 시제(tense), 상(aspect),

≡ 미래(future)

가아야

ga'ya

히브리어 기호인 메텍(meteg)을 가리키는 용어.

가아야는 메텍 및 마아리크와 동의어이다. 메텍(meteg)은 ‘재갈’을 의미하고, 가아야(ga'ya)는 ‘높임’을 뜻하며, 마아리크(ma'arik)는 ‘연장부호’를 의미한다. 가아야는 히브리어 자음 아래 모음의 왼쪽에 놓이는 짧은 수직선인데, 대개는 제 2 강세 내지는 부강세를 가리킨다. 또한 이 기호는 해당 모음이 급하게 발음되면 안되고, 완전한 음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모음기호에서 장모음인 카마쯔와 단모음인 카마쯔 하툼은 그 기호의 모양새가 같은데, 메텍을 사용하여 장모음 카마쯔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אָכְלָהּ의 경우는 알렙 밑에 메텍이 있으므로 장모음 카마쯔이며, 따라서 칼 3 인칭 여성 단수를 표현하는 동사로 ‘그녀가 먹었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메텍 없는 אָכְלָה는 ‘음식’을 뜻하는 명사이다. 단, אָכְלָה가 칼 3 인칭 여성단수 동사의 경우로 메텍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GKC §16; PDSBH 108).

욥 1:19

אִשׁ אָכְלָהּ נָאֹת מִדְּבָר

불이 광야의 초장을 삼켰다.

= 메텍(meteg), 마아리크(ma'arik)

게이즈어

Ge'ez

고대 남부 셈어 중 하나로서 초기 남부 아랍어 글자에서 발전된 서체를 사용하며, 주후 4-9세기 성경과 예배 문헌에 나오는 고전 에티오피아어.

고대 남부의 셈어에는 남부 아랍어와 에티오피아어가 있었다. 주전 1000년경에 남부 아랍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프리카 동쪽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에티오피아어를 이루게 되었다. 게이즈어(Ge'ez)는 북부 에티오피아어 중 고전 에티오피아어이며, 주로 주후 5-10세기의 교회 문헌에 사용되었고, 남쪽 에티오피아어 중 하나는 16세기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는 현대 에티오피아어의 국가 공용어인 암하르어(Amharic)이다(박미섭, 부록 1.2.1.). 게이즈어 구약성경은 에스더서를 제외한 전권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 교회에서는 여전히 예배 의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복(重複)

gemination

원래 하나의 자음을 가진 소리가 중복되어 발음되거나 글자 자체를 중복하는 것.

일반적으로 중복(gemination)은 단자음을 중복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자음중복이라고도 한다. 인도유럽어에서 중복은 (1) 동화작용(assimilation)으로 일어나는 경우 (*bhartum* > *bhattum* ‘carry,’ *svapna* > *soppa* ‘sleep,’ *sahasra* > *sahassa* ‘thousand’와 (2) 자음군이 있을 때 음절 구조가 변화되는 경우(**sitjan* > **sittjan* > OE *sittan* ‘sit’)가 있다(RDLL).

히브리어에서 중복(gemination)은 주로 자음중복(doubling, prolongation)을 일컫는 것으로, 한 자음이 연장될 때 내파(implosion, 공기가 안쪽으로 파열하는 것)와 외파(explosion, 폐로부터 공기가 밖으로 빠지는 것)가 중복된 자음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상당한 간격으로 구분되고, 긴 자음이거나 중복된 자음은 주로 그 글자를 반복하여 음역이 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히브리어에서 자음중복은 다게쉬가 있는 자음의 발음을 위해 널리 실행되고 있다. 경강점으로 표시되는 완전하고 필수적인 중복은 강한 중복(strong gemination)과 자발적 중복(spontaneous gemination)으로, 그리고 연결 다게쉬와 분리 다게쉬로 구별할 수 있는 유음적 중복(euphonic gemination)은 연결 중복(conjunctive gemination)과 분리 중복(dirimens or separating gemin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히브리어는 경강점으로 표시하는 완전한 중복 외에도 가상 중복(virtual gemination)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상중복은 반-중복(semi-gemination), 약한 중복(weak gemination)으로 불린다(참. JMK §18a-m).

삿 19:13(참. JMK §18c)

וָלָנוּ בִּגְבֻעָה אִזְּ בְּרִמָּה:

우리가 기브야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자

강한 중복: 강 다게쉬에 의해 표시되며, 두 개의 n 사이에 모음적인 요소가 없다.

창 12:16(참. JMK §18d, f)

וַיְהִי לוֹ צֹאן־וּבָקָר וַחֲמִלִים וְעִבְדִּים וְשִׁפְחָת וְאִתָּנָת וְגַמְלִים:

그가(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자발적 중복: 낙타 גַּמְלָּ의 복수형; 이 중복이 자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동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중복과는 달리, 외부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강의형의 경우처럼 내부적인 이유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레 25:5(참. JMK §18k)

וְאֶת־עֵנְבֵי נִזְיָרָךְ לֹא תִבְעֵר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포도 열매

유음적 중복-분리 중복: 유음적 자음 n 은 b 앞에 나타나며, 음절들 사이에 분리를 만드는 분리 다게쉬가 나온다. 포도의 복수 연계형으로 예상되는 형태인 עֵנְבֵי 대신에 עֵנְבֵי로 나타난다.

성(姓)

gender

문법 범주의 하나로서 자연적인 성(性)과는 다른 문법적인 성(性)으로 주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한정사 등에 성 표시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며, 단수와 복수에 따라 형태가 구별된다. 명사와 형용사의 남성과 여성은 각자 그 어미에 따라 구별되며, 남성의 어미는 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표기되지 않으나 복수형은 일반적으로 ׀을 취한다. 여성의 어미는 단수에서 ׀로, 복수에서 ׀로 나온다. 극히 소수의 남성 명사가 여성어미를 갖기도 한다(강조의 낚아스: 전도자 קהֵלָה) (참. JMK §89a). 히브리어에서 대명사는 독립적으로 남성, 여성이 구별될 뿐 아니라, 동사나 명사의 접미사로서도 성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인칭으로 말하자면, 1 인칭에서는 성의 구별이 없지만, 2, 3 인칭에서는 구별이 된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는 남성, 여성, 공성으로 구성되며, 단수와 복수에 따라 형태가 구별된다(참. JMK 패러다임 2).

헬라어 명사는, 공성을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참. ‘공성’), 남성, 여성, 중성 가운데 한 가지 성(헬라어로 γένος)을 가진다. 무생물의 성은 “초기 언중의 시적 상상(the poetic imagination of early peoples)에 기초하는데, 헬라어의 성은 이 언어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되지 않고 일관성을 가졌다(R 252). 헬라어 명사 어미 변화(곡용)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눈다. α 변화 혹은 1 변화라 불리는 변화에는 여성 명사가 대부분이다. ο 변화 혹은 2 변화라 불리는 변화에는 남성과 중성이 대부분을 이룬다. 자음과 폐모음 ι와 υ으로 어간이 끝나는 명사의 변화를 3 변화라 부르는데, 세 가지 성 모두가 연관된다. 형용사와 관사는 관계된 명사와 성을 일치시킨다. 형용사 가운데 일부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변한다. 대명사 가운데 인칭 대명사는 3 인칭만 성이 있고 1 인칭과 2 인칭은 성이 없다. 지시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에는 성이 있다. 의문 대명사와 부정 대명사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변하고 중성만 다르게 변한다. 동사 가운데에서는 분사만 성이 표시된다.

– 남성(masculine), 여성(feminine), 중성(neuter), 공성(common gender, communia)

≡ 곡용(declension)

총칭적 용법(總稱用法)

generic usage, generic statement

어떤 부류, 계층, 범주를 총괄하여 지칭하는 용법.

영어 generic 은 라틴어 genus (부류, 종류)에서 나왔다. 따라서 총칭은 특정한 개체나 집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류나 종류를 뜻한다. 영문학에서는 통칭(通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1) 통칭관사(general article), (2) 통칭수(generic number, (3) 통칭인칭(generic person), (4) 통칭시(generic time) 등의 용법이 나온다.

히브리어에서 총칭은 어떤 실체나 사건들 전체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실체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태나 어떤 시점에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건과 실체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다. 구약의 경우, 형용사를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하여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잠 10:6

בְּרִכּוֹת לְרֹאשׁ צַדִּיק וּפִי רָשָׁעִים יִכְסֶּה חָמָס: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춘다.

헬라어 명사는 관사와 함께 총칭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관사 없이 총칭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는 관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형용사의 성격을 지닌 분사도 관사와 함께 총칭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1) 관사와 함께 쓰인 명사

눅 10:7(W 228)

ἀξίος γὰρ ὁ ἐργάτης τοῦ μισθοῦ αὐτοῦ.

일꾼이 자기 값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사 ‘일꾼’은 총칭적 표현이다.

(2) 관사 없이 쓰인 명사

고전 1:20(R 757; W 253)

ποῦ σοφός; ποῦ γραμματεὺς;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명사 ‘지혜자’와 ‘서기관’은 총칭적 용법으로 쓰였다.

(3) 관사와 함께 쓰인 형용사

눅 6:45(R 763)

ὁ ἀγαθὸς ἄνθρωπος ἐκ τοῦ ἀγαθοῦ θησαυροῦ τῆς καρδίας προφέρει τὸ ἀγαθόν, καὶ ὁ πονηρὸς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προφέρει τὸ πονηρόν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으로부터 악한 것을 낸다.

관사와 함께 쓰인 형용사 ‘선한’과 ‘악한’이 총칭적 용법으로 쓰였다.

(4) 관사와 함께 쓰인 분사

마 13:3(R 764)

ἰδοὺ ἐξῆλθεν **ὁ σπείρων** τοῦ σπείρειν.

보아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관사와 함께 쓰인 분사 ‘뿌리는’이 총칭적 용법으로 쓰였다.

속격(屬格)

genitive

인도-유럽어족(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슬라브어 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인정되는 격의 하나로 기원, 소유, 소속 등을 나타내는 격.

영어 genitive는 라틴어 genetivus(출생, 세대)에서 나왔다(genere, ‘낳다’). 라틴어 문법학자들은 헬라어 γενική를 genetivus로 번역하였다. 즉, 원래 헬라어에서는 종류를 표현하는 격을 의미했지만, 라틴어에서는 기원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고대 영어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격표시에 뚜렷한 구별이 있었지만, 중세 영어에서 형용사의 격변화어미가 소멸되었으며, 근대 영어에서는 명사에서는 속격 ~'s를 제외하고는 다른 격변화 어미가 상실되었다. 현대 영문법에서 소유격(possessive case)으로 부르는 것은 원래 속격이 가지고 있는 기원의 의미보다 소유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다(참. 조성식 외).

속격은 그것이 나타내는 뜻이나 문법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소유나 소속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그 외에도 기원 속격, 주어 속격, 목적어 속격, 동격 속격, 부분 속격, 부사적 속격, 이중 속격, 군어 속격, 독립 속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참. 조성식 외).

원시셈어에서는 격체계를 사용했으며, 아랍어에서는 아직도 격체계를 사용한다. 히브리어에서는 격변화의 어미가 상실되었고, 일부 고유명사나 명사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원시셈어의 속격어미는 ‘-i’였다. 히브리어에서는 격변화의 어미가 상실되었으나 지배하는 명사(절대형)와 지배받는 명사(연계형)의 결합에 의해 속격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 명사의 끝에 대명사 접미사를 붙여 표현하기도 한다.

אָבִימֶלֶךְ 아비멜렉 - 왕의 아버지

פְּנֵי־אֵל 브니엘 - 하나님의 얼굴

בְּנֵי אֲחֵנִּי (창 49:11) 그의 암나귀의 새끼

בָּנוֹת יְרוּשָׁלַם 예루살렘의 딸들

אֱלֹהֵינוּ 우리의 하나님

헬라어의 경우, 속격은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속격부정사나 속격 독립 분사구문에서 사용된다. 속격부정사(genitive infinitive)와 속격 독립 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은 해당용어를 보라.

행 3:2

καί τις ἀνὴρ χωλὸς ἐκ κοιλία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ὑπάρχων ἐβαστάζετο

어떤 남자도,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못 걷던 이가 떼메어 옮겨집니다.

αὐτοῦ는 인칭대명사로 속격이다. μητρὸς를 수식한다.

μητρὸς는 명사로 속격이다. κοιλίας를 수식한다.

κοιλίας는 명사로 속격이다. 전치사 ἐκ의 목적어이다.

+ 격(case)

≡ 연계형(annexation), 주격(nominative), 여격(dative), 대격(accusative), 탈격(ablative)

→ 속격부정사(genitive infinitive), 속격 독립 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

속격 독립 분사구문(屬格獨立分詞構文)

genitive absolute participle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종속절의 주어를 속격으로 바꾸고 술어도 속격분사로 바꾸어, 주절의 상황을 표현하는 분사구문.

헬라어 분사의 절대형(participle absolute)에는 주격 절대형(nominative absolute)과 속격 절대형(genitive absolute)이 있다(W 653-655). 이 가운데 속격 절대형을 사용한 분사구문을 속격독립 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이라 부른다. 용법으로는, 시간(temporal; 1:4; 7:45; 8:40; 11:26; 14:18), 태도(manner; 2:13; 5:41), 수단(means; 9:8, 22; 16:16; 27:38), 원인(cause; 2:30; 7:9; 16:34), 조건(condition; 15:29 [혹은 수단]; 18:21 [독립 소유격분사]), 양보(concession; 5:7), 목적(purpose; telic; 3:26; 8:27; 22:5; 24:11, 17; 25:13), 결과(result)가 있다(W 622-640).

(1) 시간

행 19:6

καὶ ἐπιθέντος αὐτοῖς τοῦ Παύλου [τάς] χεῖρας ἦλθε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ἐπ’ αὐτούς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2) 원인

행 18:27

βουλομένου δὲ αὐτοῦ δι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Ἀχαΐαν, προτρεψάμενοι οἱ ἀδελφοὶ ἔγραψα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그런데 그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 싶어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3) 조건

행 18:21(W 633)

πάλιν ἀνακάμψω πρὸς ὑμᾶς τοῦ θεοῦ θέλοντος
“제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4) 양보

행 18:20

ἑρωτῶντων δὲ αὐτῶν ἐπὶ πλείονα χρόνον μέναι οὐκ ἐπένευσεν
그들이 더 오랜 기간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으나[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절(circumstantial clause)

속격 부정사(屬格 不定詞)

genitive infinitive

속격으로 사용되는 부정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속격의 역할을 하는 부정사를 말한다.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부정사도 여기에 속한다(참. JMK §124d, k; GKCS §114b).

창 5:1

בְּיֹם בְּרָא אֱלֹהִים אֱדָ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창 27: 45

וְעַד שׁוּב

돌아올 때까지

히브리어와 달리 격이 발달한 헬라어에는 실제로 속격 관사와 함께 부정사가 쓰인다. 이 경우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위의 히브리어와 같은 종류의 예는 신약성경에 많지 않다.

행 10:25(R 393)

Ὡς δὲ ἐγένετο τοῦ εἰσελθεῖν τὸν Πέτρον, συναντήσας αὐτῷ ὁ Κορνήλιος πεσὼν ἐπὶ τοὺς πόδας προσεκύνησεν.

하여 베드로가 들어서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더니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행 20:3

γενομένης ἐπιβουλῆς αὐτῷ ὑπὸ τῶν Ἰουδαίων μέλλοντι ἀνάγεσθαι εἰς τὴν Συρίαν, ἐγένετο γνώμης τοῦ ὑποστρέφειν διὰ Μακεδονίας.

수리아로 향해하려는 그에 대한 음모가 유대인들에 의해 진행되자, 마게도냐로 우회하여 귀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결정이 있었습니다].

+ 부정사(infinitive)

동격의 속격(同格的 屬格)

genitive of apposition, genitive appositionis

동일한 지칭을 하는 병치된 두 명사 중, 수식하는 동격의 명사가 갖는 격

지배하는 명사와 지배받는 명사 간의 관계 중 두 명사가 서로 동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설명의 속격이라고도 한다(참. GKCS §128f, k-q).

נְהַר־פָּרָת

유프라테스 강

אֶרֶץ כְּנָעַן

가나안 땅

헬라어에서 동격의 속격은 형용사적 속격(adjectival genitive)의 일종이다.

마 12:39(Z §45)

σημείον οὐ δοθήσεται αὐτῇ εἰ μὴ τὸ σημεῖον Ἰωάν̃ τοῦ προφήτου.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그것[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에 의해 주어진 표적’도 아니고, ‘요나에게 주어진 표적’도 아니다. ‘요나’가 곧 ‘표적’이다(Z § 45).

왈리스는 단순동격의 속격(genitive in simple apposition)과 동격 속격(genitive of apposition)을 구분한다.

(1) 단순동격의 속격의 예

딤후 2:13(W 99)

σωτήρ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다른 대상을 생각할 수 없기에, ‘우리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동격’ 관계이다.

행 22:20(W 99)

καὶ ὅτε ἐξεχύννετο τὸ αἷμα Στεφάνου τοῦ μάρτυρός σου, καὶ αὐτὸς ἤμην ἐφεστῶς καὶ συνευδοκῶν καὶ φυλάσσω τὰ ἱμάτια τῶν ἀναιρούντων αὐτόν.

“또한 그 당신의 증인 스테반의 피가 쏟아질 때 저 자신도 곁에 서서 동의하고 그를 처단하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요.”

‘당신의 증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증인’과 ‘스테반’은 ‘단순동격’ 관계일 수도 있고 ‘동격’ 관계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증인이 스테반 한 사람만은 아니기 때문에 ‘동격의 속격’으로 볼 수 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당시 ‘그 당신의 증인’이라고 부를 사람으로 스테반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동격의 속격’으로 볼 수도 있다.

(2) 동격의 속격의 예

행 2:33(W 99)

τῇ δεξιᾷ οὖν τοῦ θεοῦ ὑψωθείς, τὴν τε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λαβὼν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ἐξέχεεν τοῦτο ὁ ὑμεῖς [καὶ] βλέπετε καὶ ἀκούετε.

“그러니 하나님의 오른쪽에까지 높아지셔서 거룩한 영의 약속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내려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룩한 영’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거룩한 영의 약속’에서 ‘거룩한 영’은 동격의 속격이다.

= 설명의 속격(epexegetical genitive, genitive explicativus)

+ 속격(genitive)

Roberts, J. W., “Exegetical Helps-the Genitive of Apposition,” *ResQ* 3 (1959), 36-37.

Stinespring, William Franklin, “N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Appositional Genitive in Hebrew Grammar,” *Enc* 26 (1965), 133-141.

장르(形式)

genre

여러 개의 다양한 본문들이 그 삶의 정황, 본문의 사상과 분위기, 형식과 관계된 언어, 모티프를 공통적으로 가져 하나의 기본 범주를 이루는 것.

양식이란 “문에 양식의 갈래로서,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표준국어대사전).

하나의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일차적인 단초(端初)가 된다. 허쉬(Hirsch)는 양식(genre)과 본문(text) 해석의 상호관계를 ‘숲’과 ‘나무’의 비유로 파악하며, “전체는 오직 부분을 통하여 이해되며, 부분도 오직 전체를 통하여 이해된다”고 말한다(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1967, 76).

궁켈은 문학에서 형식을 결정하는 네 가지 중심 요소로서 (1) 삶의 정황(Sitz im Leben), (2) 본문의 사상(thoughts)과 분위기(moods), (3) ‘형식과 관련된 언어’(language related to the form), 그리고 (4) 모티프(motif)를 제시하였다(김정우, 『히브리 시학』, 129). 그는 “시편에서 양식 연구는 타협이 불가능한 것이며(non-negotiable), 해석자의 기호(嗜好)에 따라 시행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나머지 (해석)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근본적인 작업(the fundamental work)”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렇지만, 양식에 대한 결정은 모든 문학작품의 해석에서 근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루터가 잘 말하였다. “거룩한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는 자들은… 꼭 ‘문학적 형식’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본문이 어떤 형태의 역사인지, 그 형태가 예언인지, 시인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말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거룩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바로 이해하려면, 거룩한 저자 당시에 유행한 인식 체계와 말과 서술의 습관과 특징적인 문체를 관찰해야 한다” (김정우, 『히브리 시학』, 127).

E. D. Hirsch,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 Press, 1967).

족속명(족속명의)

gentilic

어떤 족속(민족)의 고유 명칭.

어떤 민족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를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관사와 더불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JMK §137c).

창 14:13

וַיָּגֵד לְאַבְרָם הֶעֱבֵרִי

그는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렸다.

룻 1:4

וַיֵּשְׂאוּ לָהֶם נָשִׁים מֵאֲבִיּוֹת

그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헬라어의 경우, 족속명을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하고 격변화를 한다. 형용사인 경우 성에 따라변화되는데, 명사의 경우 여성을 표현할 때 다른 단어를 쓰거나 공성(common gender, communia)으로 표현한다. 히브리어처럼 관사와 함께 쓰이는 특징을 가지지는 않는다.

(1) 명사의 예

행 16:9

ἀνὴρ Μακεδὼν τις ἦν ἐστὼς καὶ παρακαλῶν αὐτὸν καὶ λέγων· διαβάς εἰς Μακεδονίαν βοήθησον ἡμῖν.

어떤 마게도냐 남자가 서서 그를 설득하며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가 이 본문에서는 남성이다. 여성의 경우 같은 단어를 쓰고 성만 여성으로 바꾸는 공성으로 표현하거나, Μακεδόνισσα 라는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한다.

(2) 형용사의 예

행 12:20

Ἦν δὲ θυμομαχῶν Τυρίοις καὶ Σιδωνίοις

그러다가 그가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 격노합니다.

‘두로 사람’은 형용사가 족속명을 표현한 경우이다. ‘시돈 사람’은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족속명이 표현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형용사로 족속명이 표현되었다.

≡ 공성(common gender, communia)

게레쉬

geresh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disjunctive accent) 중의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 라는 표기를 함으로 표현한다.

창 1:9(JMK §15g)

וַיֹּאמֶר אֱלֹהִים יְקוֹוֹ הַמַּיִם מִתַּחַת הַשָּׁמַיִם אֶל-מָקוֹם אֶחָד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밑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 악센트(accent),

= 분리 악센트(disjunctive accent)

≡ 연결 악센트(conjunctive accent)

독일어(獨逸語)

German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언어로서, 원래 곁 지역을 정복한 튜튼족이 사용한 언어

독일어는 현재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지역의 사람들과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원래 ‘독일’(라틴어, Germanus)이라는 말은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스스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웃들이 곁에 살던 사람들(Gauls)을 부를 때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뮐렌호프(Müllenhoff)에 따르면, 이 명칭(Germani)은 원래 동북 곁에 살고 있던 켈틱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한 것이었는데, 이후 그들을 정복한 튜튼족이 스스로를 부르는 것이 되었으며, 이후 모든 튜튼족에까지 확장되었다고 한다(OED).

독일어는 크게 고지(高地) 독일어와 저지(低地) 독일어로 나뉘는데, 복잡한 어형변화(곡용)와 다양한 복합어 형성 따위가 특징이다.

히브리어와 독일어의 만남은 12-13 세기에 중부 유럽에서 기록된 Sefer Ḥasidim 에 나타난다. 이 책에는 전치사, 일상 어휘, 다양한 번역 차용어의 사용과 독일어 표현에 일치하도록 단어 의미를 자주 확장하는 것이 나타나며, 중세 고지 독일어(Middle High German)와 이디쉬어의 영향이 눈에 띈다. 18-19 세기 유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성서 히브리어와 랍비 시대 히브리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고, 히브리어와 독일어가 혼합된 이디쉬어 문헌들도 나타났다. 현대히브리어는 히브리어를 살아 있는 언어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일어와 다른 서양 언어에서 번역 차용어구를 만들었으며, 히브리어 부활의 여러 단계에 따라 처음에는 주로 슬라브족(Slavic) 언어의 영향을 받았고, 그 후에는 독일어, 그리고 마침내는 결정적으로 영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어휘론과 문장론이다(참. SBCP 277).

게르샤임(그라샤임)

gershayim, grashayim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disjunctive accent) 중의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이다. 분리악센트인 게레쉬를 중복표기하는 악센트이기에, ‘중복게르샤’라고 불리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 라는 표기를 함으로 표현한다. 강세가 끝 음절에 올 때, 그리고 연결 악센트 아즐라(azla)가 앞에 나오지 않을 때, 게레쉬 대신 사용된다(JMK §15g).

창 1:9(JMK §15g)

וַיֹּאמֶר אֱלֹהִים תְּדַשָּׂא הָאָרֶץ דָּשָׂא עֲשֹׁב מִזֵּרַע זֶרַע עֵץ פָּרִי עֵשֶׂה פָּרִי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 악센트(accent),

= 분리 악센트(disjunctive accent)

≡ 연결 악센트(conjunctive accent)

동명사(動名詞)

gerund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로서 동사와 명사의 역할을 하는 형태.

영어 gerund 는 라틴어 gerere (수행하다, 행하다)에서 나왔으며, 라틴어 문법 용어이기도 하다. 우리 말 동명사(動名詞)는 동사(動詞)가 명사(名詞)로 만들어진 것을 내포하므로, 동사적 명사(verbal noun)이기도 하다. 영어에서 동명사는 주로 동사의 어미에 ~ing 를 붙여 만들며, 분사, 부정사와 함께 준동사(verbal)의 일종으로 부르고 있다.

동명사는 명사와 같이 주어, 보어, 목적어가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며, 복수형을 취할 수 있고, 속격형과 관사를 취할 수 있다(조성식 외). 또한 동명사는 동사와 같이 목적어를 취할 뿐 아니라 부사구의 수식을 받기도 한다.

현대히브리어에서는 동명사가 빈번히 사용되나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피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칼과 히필에서만 드물게 나타나는데, 칼에서는 הִלִּיכָה(동사 הִלִּיךְ), אֲכִילָה(동사 אָכַל), מְרִיבָה(동사 רִיב) 등이 있으며 히필에서는 אֲזַכֵּרָה(동사 זָכַר)가 있다. 그렇지만, 성경 히브리어의 동명사적 용법은 꼭 영어의 동명사적 용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PDSBH).

신약성경에서 동명사로 인정되는 예는 아래 구절의 βλητέον 하나뿐이다. 이는 ‘분사(participle)’ 혹은 ‘동사적 형용사(verbal adjectives)’에서 다뤄진다.

눅 5:38(R 372-373, 1097)

ἀλλὰ οἶνον νέον εἰς ἀσκοὺς καινοὺς βλητέον.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부대들에 부어지는 것이다.

≡ 동명사적(gerundive)

비. 분사(participle), 동사적 형용사(verbal adjectives)

동명사적(動名詞的)

gerundive

형태적으로는 동명사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동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사가 동명사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사 연계형이 단독으로, 혹은 전치사 ל와 함께 동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부정사 절대형이 동명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참. GKCS §45 f-g).

창 2:18

לֹא־טוֹב הָיְיֹתָ הָאָדָם לְבַדּוֹ

사람이 자기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대하 20:17

לֹא לָכֶם לְהִלָּחֵם בְּנֹאֲתָא

이 싸움에서는 너희에게 싸울 것이(필요가) 없다.

잠 25:27

אֲכָל דְּבַשׁ הִרְבֵּיתָ לֹא־טוֹב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헬라어에는 동명사가 없다. 하지만, 히브리어 전치사 ל+부정사 연계형이 동명사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때(JMK § 124o; GKC § 45f), 칠십인역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있다. 코니베어와 스톡은 헬라어 λέγων 이 히브리어 לֹא־אָמַר를 일관성 있게 표현한 것을 통해, 히브리어 동명사가 헬라어 분사로 표현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C § 112).

≡ 동명사(gerund), 분사(participle)

게제르 달력

Gezer calender

슈펠라 지역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의 게제르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 석판 달력.

성경에서 게제르(개역개정: 게셀)는 이집트 왕 바로가 자신의 딸을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보낼 때 지참금으로 준 성이다(왕상 9:15-17). 게제르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에 있었으므로, 슈펠라의 해안 도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 10:33; 12:12; 16:3, 10; 21:21; 삿 1:29; 삼하 5:25; 대상 6:52; 7:28; 14:16; 20:4)

게제르 달력은 1908 년 텔 게제르의 고고학 발굴 중 발견된 것으로 가로 7.2cm, 세로 11.1cm 되는 조그만 석회암 석판이다. 연대측정 결과 이 석판은 주전 10 세기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실로암 비문과 함께 이스탄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돌판은 7 행은 수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아래 한 행은 수직으로 기록되어 있다. 돌판의 표면은 지워지고 굵혀진 흔적들이 보이며 모음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중 모음이 발견된다. 곡식, 과일, 나무 등의 재배 및 추수와 관련된 농사력이 내용으로 담겨있으므로 게제르 달력이라 부른다. 그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 two months are ingathering.	두 달은 수확하고
2. two months are planting(grains).	두 달은 (씨) 뿌리고
3. a month of harvesting flax.	한 달은 아마를 거두고
4. a month of barley harvest.	한 달은 보리를 거두고
5. month of harvest and storing.	추수와 저정을 하는 달
6. months of pruning.	가지치기를 하는 달들
7. month of summer fruit.	여름 과일을 거두는 달.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달력체계와 제의력,” 『사회과학논총』 27 (2008), 79-94.

Young, Ian, “The Style of the Gezer Calendar and Some ‘Archaic biblical Hebrew’ Passages,” *VT* 42 (1992), 362-375.

가인

Ghain

셈어에서 유성 후음(voiced guttural)인 ɣ 과 구별되는 음

가인(Ghain) 음은 원시 셈어에서 순수한 독자적 음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인(ʕ)과 가까운 유성 후음이다. 아랍어에서는 아인과 가인이 구별되어 발음되고 표기된다. 칠십인역에 일관되지는 않지만 הַי 가 Γαζα 로 음역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원래 g 음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JMK §51N).

길르앗 방언

Gileadite dialect

사사시대에 길르앗 지역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방언.

사사시대에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서쪽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방언이 존재했다. 가장 큰 차이는 /sh/에 대한 발음 차이로 길르앗 방언에는 /sh/ 발음이 있었으나 에브라임 방언에는 없었다. 에브라임 자손과 입다의 전쟁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쉽볼레트’(שְׁבִלֵּת - 물줄기라는 뜻)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셉볼레트’(סְבִלֵּת - 이삭이라는 뜻)라고 발음하여 4 만 2000 명이나 죽었다(참. 사 12:6).

+ 방언(dialect)

김멜

Gimel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

.

전반적(全般的), 술정적(述定的)

global, constative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작을 시상의 관점에서 완료된 동작처럼 전체적으로 보고 표현하는 방식.

히브리어에서 시상은 동작의 성격에 따라 (1) 단독적이거나 반복적인지, (2) 한 순간에 즉각적 이루어지는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작이 마치 유일하거나 즉각적인 것으로 취급될 때 ‘전반적’(global)이라고 한다(참. JMK §111c).

(1) 반복적 관점

왕하 3:4(JMK §111e)

וַתָּשִׁיב לַמֶּלֶךְ-יִשְׂרָאֵ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개역개정, 표준).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조공을 바쳐 왔는데, 바브와 완료형을 통해 요약적으로(summarizing) 마치 한 번 바친 것처럼 ‘전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바친 것이다.

(2) 전반적 관점

왕하 17:3(JMK §111e)

וַיָּשֶׁב לוֹ מִנְחָה:

그리고 그는 조공을 바쳤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앗시리아의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바쳤지만, 마치 한번 바친 것처럼 전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바브와 미완료형으로서).

(3) 반복적 동작이 전반적 관점으로 제시됨

삼상 18:13(JMK §111e)

וַיֵּצֵא וְיָבֵא לִפְנֵי הָעָם: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출입(출전)하였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백성들 앞에 출입하였지만, 마치 한번 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묘사한다.

(4) 전반적 관점

욥 4:3(JMK §112dN)

הִנֵּה יִסְרֹתָ רַבִּים וַיְדִים רַפּוֹת תְּחִיָּק:

보라 전에 너는 많은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들을 강하게 하곤 하였다.

욥은 완료형이 말하는 것처럼 단 한번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친 것을 전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헬라어에서는 술정적(constative)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된다. 이외에도, 즉각적인(punctiliar), 순간적인(momentary), 완결적인(perfective)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R 831-832). 이는 시작과 끝, 또한 내부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행동을 전체적으로 또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정과거용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동작이 반복적인지, 계속적인지, 순간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둔다(W 557). 로버트슨은 동작을 크게 즉각적인(punctiliar) 동작과 계속적인 혹은 선형적인(durative or linear) 동작으로 나누고, 즉각적인 동작의 동작양태를 술정적(constative) 양태, 기동상의(ingressive) 양태, 효과적인(effective) 양태,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R 830-889). 헬라어 부정과거가 즉각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술정적인 혹은 전반적인’ 경우로 기동상의(ingressive) 용법이나 효과적인(effective) 용법보다 훨씬 더 빈번히 쓰인다(R 833).

행 9:40(W 558)

ἡ δὲ ἤνοιξε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αὐτῆς, καὶ ἰδοῦσα τὸν Πέτρον ἀνεκάθισεν.
하니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이어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앉습니다.

행 10:22-23(R 833)

οἱ δὲ εἶπαν· Κορνήλιος ἑκατοντάρχης, ἀνὴρ δίκαιος καὶ φοβούμενος τὸν θεόν, μαρτυρούμενός τε ὑπὸ ὄλου τοῦ ἔθνους τῶν Ἰουδαίων, ἐχρηματίσθη ὑπὸ ἀγγέλου ἁγίου μεταπέμψασθαί σε εἰς τὸν οἶκο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ῦσαι ῥήματα παρὰ σοῦ. εἰσκαλεσάμενος οὖν αὐτοὺς ἐξένισεν. Τῇ δὲ ἐπαύριον ἀναστὰς ἐξῆλθεν σὺν αὐτοῖς καὶ τινες τῶν ἀδελφῶν τῶν ἀπὸ Ἰόππης συνῆλθον αὐτῷ.
하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남자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로부터 당신을 그의 집으로 모셔 당신에게서 한 말씀 들으라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출발하는데, 옴바 출신 몇몇 형제들이 그와 함께 갔습니다.

+ 부정과거(aorist)

격언적(格言的)

gnomic

어떤 원리, 경험, 통찰을 일반적인 명제로 기술하는 방식.

어떤 사실을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명제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대개는 무(無)시간적이거나 혹은 전(全)시간적으로 기술한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현재로 번역하는 것이 부드럽고, 부정어와 함께 쓰일 경우 ‘~한 적이 없다’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렘 8:7(IBHS §30b)

וְתָר וְסִיס' וְעָגוֹר שְׁמֶרֶךְ אֶת־עֵת בְּאַנְהָ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자기가 올 때를 지킨다.

시 9:11(JMK §112d)

לֹא־עֲזַבְתָּ דֶּרֶשׁ־יְהוָה

여호와여 주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격언적인’ 용법과 관련하여 살펴볼 헬라어의 예는 부정과거, 현재, 미래, 완료이다.

(1) 우선,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격언적인 용법의 예가 부정과거에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현재이다. 왈리스는 격언적인 현재, 부정과거가 초 시간적이고 일반적인 사실(a timeless, general fact)을 표현한다고 보았다(W 523, 562).

로버트슨은 격언적인 부정과거를 즉각적인(punctiliar) 동작 가운데 하나로 다룬다. 특별히, 이는 직설법의 용법 가운데 하나이다(R 8360-837). 로버트슨은 격언적인 현재도 즉각적인 동작 가운데 하나로 다루면서 ‘격언적인 현재’를 ‘격언적인 부정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

마 23:2(R 837; W 562)

ἐπὶ τῆς Μωϋσέως καθέδρας ἐκάθισαν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

마 23:3(R 866)

λέγουσιν γὰρ καὶ οὐ ποιοῦσιν.

그들이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 절의 ‘격언적인 부정과거’(ἐκάθισαν)에 이어 격언적인 현재(λέγουσιν, ποιοῦσιν)가 이어진다.

(2) 격언적인 미래는 격언적인 부정과거나 현재가 ‘초시간적인’(timeless) 것과는 달리 ‘어떤 시간대라도’(of any time)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W 876, W 571). 이는 미래라는 시제 자체가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롬 5:7(R 876; W 571)

μόλις γὰρ ὑπὲρ δικαίου τις ἀποθανεῖται

누군가 의인을 위해 죽는 일은 거의 없다.

(3) 부정과거 및 현재 및 미래와 함께, 헬라어 동사 가운데 완료도 격언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다른 시제와 차이가 있다면, 부정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즉각적인’(punctiliar) 상을 가지는 반면, 완료는 ‘완결 상태’(perfected state) 상을 가진다는 것이다(R 830-910). 완료의 격언적인 용법이 많지는 않다. ‘격언적인 완료’는 “관례적인 진리”(customary truths, R 897)나 “충칭적이거나 잠언적인 사건”(a generic or proverbial occurrence, W 580)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요 3:18(R 897; W 580)

ὁ δὲ μὴ πιστεύων ἤδη **κέχρηται**, ὅτι μὴ **πεπίστευκε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μονογενοῦς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하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판단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문법(文法)

grammar

언어에 대한 총체적 기술과 이론으로서, 언어의 체계 및 운용 규칙을 연구하는 언어학 분야이며, 주로 형태론과 구문론을 포함한다.

영어 grammar 는 헬라어 γράφειν (쓰다)에서 나온 γράμμα (글자, letter), 그람마티케(γραμματική), γραμματικός (글자를 알다)와 연관된 단어이다. 영어에서 grammar 는 어원적으로 glamour 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ODEG, Preface). 아무도 문법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소리와 글자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볼 때, 매력적일 수 있다.

히브리어 문법의 구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게제니우스-카우치-코울리(독일어/영어, 28 판, 1909 [1910])는 히브리어 문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음운론, 품사론, 구문론으로 나누어 전개한다. 그는 음운론에서 여러 가지 음들의 성격과 관계를 기술하고, 표기된 부호들을 발음하는 법(정음법, orthoepy)과 바르게 쓰는 법(정서법, orthography)을 설명한다. 그리고 음절이나 단어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발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결합이 일어나는 법칙과 조건을 기술한다. 품사론 또는 형태론에서는 (1) 단어들을 품사로서의 성격에 따라 논하며, 단어 형성의 원리, 혹은 어근으로부터 여러가지 품사의 파생, 품사 상호간의 파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2) 굴절의 원리, 즉 단어가 다른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갖는 관계에 따라 취하는 여러가지 형태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다. 구문론에서는 (1)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단어 형성이나 굴절의 원리를 이용하여 미묘한 차이가 나는 의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한 그 언어가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의미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완곡어법(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지를 보여주며, (2) 품사들이 문장 안에서 결합되는 법칙을 기술한다(GKCS §4).

할러데이(M. A. K. Holliday, 1961)는 언어의 조직을 다루는 형식을 어휘론(lexis)과 문법(grammar)의 층으로 나누며, 문법은 폐쇄체계(close system)에 속한 언어형식으로 본다. 그는 문법을 다룰 때 네 개의 범주인 단위(unit), 구조(structure), 부류(類, class), 체계(system)와 세 개의 추상적 척도로서 계층(rank), 정밀도(delicacy), 구현(exponence)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문법을 언어작용에 대한 연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범주를 설정하게 되었다(이정민 외; IBHS §3.2.2a, 3.5.d).

왈키와 오코너(Bruce K. Waltke & M. O'Connor, 1990)도 할러데이와 같이 언어의 조직을 다루는 형식을 어휘론(lexis)과 문법(grammar)의 두 층으로 나누면서도, 문법은 어휘들의 관계로 본다. 그들에 따르면 어휘들(words)이란 언어적 실재 밖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기호들이다(signs pointing to extra-linguistic reality). 문법이란 언어적 기호의 내적 관계(intra-linguistic signs)로서 규약(code)에 의해 인식되는 한정된 체계의 폐쇄 집합(the closed set of determined systems)이다. 따라서 왈키와 오코너에게 있어서 문법이란 언어의 규약(language's code), 혹은 적어도 세 가지 체계로서 음성론, 형태론, 통합론(syntagms, 말의 흐름에 있어서 서로의 어휘 관계)로 구성된다(IBHS §3.2.2.a).

주옹-무라오카(T. Muraoka)는 히브리어 문법을 주후 7 세기경에 티베리아 학파의 유대인 학자들이 확립한 마소라 사본의 문법으로 설정하고, 절 단위(clause-level)를 넘어서는 거대 구문론인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 혹은 담화문법(discourse grammar)을 히브리어 문법의 범주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JMK xxxiii-iv, 1.). 그는 히브리어 문법구조를 음성론, 형태론, 구문론의 세 범주로 나눈다. 특히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tense)와 시상(aspect)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게제니우스는 시상을 다루지 않고, 왈키-오코너는 시상으로 설명하지만, 무라오키는 시제(tense), 시상(aspect), 법(mood)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JMK §111).

- 문법학자(grammarian),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문법학자(文法學子)

grammarian

문법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이론을 확립한 학자.

히브리어 문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주후 7 세기 경의 티베리아 학파가 전통적인 성경 원문에서 문법을 확립하였다. 그 후 10 세기에 아랍 문법의 영향을 받은 파옴(Fayyum) 출신의 사아디아 가온(Saadia Gaon, 942 년 사망)이 문법에 대한 가장 초기의 저술을 하였다. 이후 하유즈(Hayyuj, 약 1000 년), 아불 왈리드 메르완 이브 자나흐(AbuAl Walid Merwan Ibn Janah, 약 1030 년),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Abraham Ibn Ezra, 1167 년 사망), 다비드 킴히(David Qimhi [=Radaq] 약 1235 년 사망)와 그의 부친 요셉(Joseph) 및 형제 모세(Moshe) 등을 주요 문법학자로 꼽을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아람어와 아랍어 문법의 도움을 받았다. 기독교인 문법학자로서 존 로이홀린(John Reuchlin)은 첫 문법책으로 『히브리어 기초』(De rudimentis hebraicis, 1506)를 썼다. 유대인 문법학자 엘리야스 레비타(Elias Levita, 1549 년 사망)는 기독교학자들에게 히브리어 지식을 보급하였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숄텐스(Schultens, 1750 년 사망)는 18 세기에 히브리어를 설명하기 위해 아랍어 지식을 잘 활용하였다.

히브리어 문법의 고전으로 꼽히면서 구약 성서 주석가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를 제공한 게제니우스(Gesenius, 1842 년 사망)와 게제니우스의 책을 꾸준히 발전시킨 뢰디거(Rödiger, 14-21 판)와 카우취(Kautzsch, 22-28 판, 1910 년 사망), 베르그스트래서(Bergsträsser, 29 판)가 있다. 에발트(Ewald, 1875 년 사망)는 문법적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기 위하여 『종합 히브리어 교재(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제 8 판[마지막판] 1870)을 썼으며, 올스 하우스엔(Olshausen, 1882 년 사망)은 음성론과 형태론만을 다룬 『히브리어 교본(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을 썼다. 뢰처(Böttcher, 1863 년 사망)는 뮐라우(Mühlau)가 편집한 책인 『종합 히브리어 교재(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에서 음성론과 형태론만을 다루고 형태론은 불완전하지만 가장 완전한 목록을 수록하였으며, 슈타데(Stade, 1906 년 사망) 역시 음성론과 형태론 부분만 출판했지만, 동사 형태의 비교 연구인 『히브리어 문법 교재(Lehrbuch der hebräischen Grammatik)』, (1879)을 썼다. 쾨니히(König)는 세 권으로 된 종합적인 문법책, 『히브리어 교본(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1881, 1895, 1897)을 저술하였으며, 바우어와 레안더(Bauer and Leander)는 서술적 문법이기도 하지만 구문론이 미완성된 『히브리어의 역사적 문법(Historische Grammatik der hebräischen Sprache)』, (1922)을 썼다. 랑베르(Lambert)는 종합적인 문법책인 주옹의 불어판 문법책과는 대조적으로 구문론에서보다 형태론에서 독창적인 『히브리어 문법개론(Traité de la grammaire hébraïque)』을 출판하였으며, 브로켈만(Brockelmann)은 『히브리어 구문론(Hebräische Syntax)』, (1956)을 저술하였다. 마이어(Meyer)는 최근의 종합적인 문법책인 『괴센 시리즈(Hebräische Grammatik)』, (4 vols.)를 썼으며, 리히터(Richter)는 고대 히브리어 문법의 기초로서 세 권인 『고대 히브리어 문법의 기초(Grundlagen einer althebräischen Grammatik)』, (1978-1980)을 썼다. 깁슨(Gibson)은 데이비슨(Davidson)의 초기 저작(1912)을 완전히 개정한 데이비슨의 히브리어 문법 서론에서 구문론까지(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1994)을 썼으며, 드라이버(S.R. Driver)는 『히브리어의 시제 사용에 관한 논문과 구문론적인 다른 논의들(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1892)을 썼다. 왈키와 오코너(Waltke and O'Connor)는 『오경 안에 나타난 히브리어 무 동사절(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1970)과 『성서 히브리어 구문론의 서론(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1989)을 썼으며, 타까미추

무라오까(T. Muraoka)는 주옹의 『성서 히브리어 문법』을 개정 보완하여 『Paul Jouon-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2006을 저술하였고, 김정우는 이 책을 『주옹 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으로 번역하고 문법 용어의 개념을 한국어로 새롭게 개정하였다(참. JMK i12-17).

문법적 단어(文法的單語)

grammatical word

단어의 형태(word types)에 근거하여 문법과 어휘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어휘적 의미를 지닌 개방적인 부류의 단어들과는 대조적으로, 문법적 기능만을 지닌 폐쇄 부류의 단어들

언어학자들은 문법과 단어가 어느 정도 정확히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왈키 오크너에 따르면, 문법적 단어는 때때로 ‘실어’(full words)와 ‘형식어’(form words)로 나눈다. ‘실어(full words)’는 명사(nouns, 나무들, 아저씨들, 이빨들, 동물들); 동사(verbs, 자라다, 달리다, 물다, 방황하다), 한정어(qualifiers, 큰, 좋은, 건강한, 위험한), 그리고 연결사(relators, 위로, 아래로, 넘어, 통해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문장 ‘The cow jumped over the moon’ 과 ‘The sow stomped through the room’은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식(정관사, 과거시제의 -ed)과 동일한 구문(주어+술어+부사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들은 아주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한편 언어 내적 단어(Intra-linguistic code words)나 ‘형식어(form words)’는 ‘He wanted to run,’ 문장에서 ‘to’에 의해 그리고 ‘I did not go.’에서 ‘did’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화자는 그런 단어들을 자유롭게 택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문법적 장치로서 어휘소의 관계로 나타낸다. 그러나 형식어와 실어 간의 구별은 사실 절대적이지 않다. 위의 문장에서 ‘not’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형식어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실어로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הָ, אֵשֶׁר, אֵת와 같은 단어들이 이 체계에 속하며, 이것들은 사전 목록에서보다 문법에서 더 잘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IBHS §3.2.2).

문법화(文法化)

grammaticalization

어떤 어휘소나 어휘적 형태가 그 의미가 약해지면서 문법적 단어나 형태로 변화되는 현상

히브리어에서는 시간 지시어를 어휘화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다(그때, 지금, 이전에).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문법학들은 동사의 형태 속에 시제가 문법화되었다고 믿어 왔다. 그래서 동사 형태로서 카탈, 코텔, 익톨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왈키와 오코너(Bruce K. Waltke & M. O'Connor)는 전통적 견해가 기본적으로 시제 언어인 미슈나 히브리어(후기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므로, 성경 히브리어의 문법화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완료와 미완료를 각각 완료성(perfective)과 비완료성(non-perfective)으로 보며, 접속사 바브와의 연결 관계를 통하여 시상이 결정된다고 보았다(참. IBHS, §29.2).

이와는 달리 무라오까(T. Muraoka)는 ‘문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고대의 문법학자들이 동사의 형태들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가치(시제)에 대하여 지식보다는 직감을 따라 결정했다고 본다. 그는 성서 히브리어에 있어서 시제의 용법이 절대적으로 엄격한 규칙에 속하지 않지만, 동사 형태 자체로도 문법적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제와 시상과 법이 동사 체계 속에 모두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참. JMK, xxxiii-iv, 383-390).

그랜빌 샵 법칙

Granville Sharp rule

계합 접속사 *καί* 가 격이 같은 두 개의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연결할 때 관사가 첫째 명사에만 붙고 둘째 명사에 붙지 않으면 둘째 단어는 첫째 단어와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는 법칙.

‘영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불리는 그랜빌 샵(Granville Sharp, 1735-1813)은 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글로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헬라어 관사에 대한 6 개의 법칙이다(Sharp 1798, 8, 14, 19, 21, 23, 25). 이 가운데 첫째 원칙이 ‘그랜빌 샵 법칙’으로 알려졌다. 그의 법칙에 근거하여 관사+실명사+카이+실명사를 그랜빌 샵 구문(Granville Sharp’s construction; 약어로 TSKS)이라고 부른다. 왈리스는 그랜빌 샵 법칙이 명사뿐 아니라 분사, 형용사 및 여러 형태가 섞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W 270-290). 관사를 ‘거 있잖아’와 같이 이해하면 그랜빌 샵이 주장한 것보다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 16:21 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또한 행 17:12 에서 부인들과 남자들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행 3:14(W 275)

ὁμοῖς δὲ τὸν ἅγιον καὶ δίκαιον ἡρνήσασθε

그 바람에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였습니다.

τὸν ἅγιον καὶ δίκαιον 을 보면 첫번째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있고 두번째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없으며 두 형용사의 격은 같다. 그러므로 두 형용사는 같은 대상을 수식한다.

+ 관사(article)

Sharp, Granville, *Remarks on the Uses of the Definitive Article in the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Containing Many New Proofs of the Divinity of Christ from Passages Which Are Wrongly Translated in the Common English Version*, L. Pennington: Durham, 1798.

낱글자, 자소(子素), 문자소(文字素)

grapheme

“한 언어의 문자체계에서 음소를 표시하는 최소의 변별적 단위로서의 문자 혹은 문자 결합. 예를 들어 음소 /p/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pin의 p, hopping의 pp, hiccough의 gh는 모두 한 자소의 구성원이다”(표준국어대사전).

낱글자는 약호(logogram), 그림문자(pictogram), 표의문자(ideogram), 이문자(allography)와 같은 종류가 있다. ‘약호’는 달러를 \$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다. ‘그림 문자’는 이집트 문자와 같이 그림들로 개념을 표현하고 조합한 문자를 가리킨다. ‘표의문자’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문자’는 어떤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약호나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관해 언급된 바는 נֶאֱמַר이 낱글자로 נֶאֱמַר(목, 렘 28:10, 11, 12, 14)를 가리킨다는 것과(HALOT), מֵי이 표의문자로 ‘물고기’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HALOT).

헬라어

Greek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한 언어로서 고전 헬라어, 성경 헬라어 코이네 헬라어로 대표되는 언어.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헬라 사람들은 자신을 ‘헬라인’(Ἕλληνες)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로마인들이 그들을 ‘그리스인’(Græcus, 복수형 Græci)으로 불렀다.

레만(W. P. Lehmann, 1962)에 따르면, 그리스 지역에는 주전 2,000 년 경 전에 비-인도 유럽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헬라인들은 2,000 년 경에 남쪽으로 이주와 침입을 하면서 현재 그리스 지역과 지중해의 여러 섬들 및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자리잡게 되었다. 도리아 사람들(Doric)은 1,200 년경에 이주를 왔다.

헬라어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는 미케네 헬라어(주전 1500-1150 년)이다. 이 언어는 크레테에서 사용한 선형문자 A (Linear A, 18~15 세기, Arthur Evan 경이 해독함)와 크레테와 필로스에서 사용한 선형문자 B (Linear B, 1450-1200, Michael Ventris 가 해독함)로 구분되는 음절 문자이다. 싸이러스 고턴(C. Gordon)에 따르면, 우가랏에 살고 있던 셈족들이 크레테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알파벳 문자를 전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케네 헬라어 이후에는 고전 헬라어가 사용되었다(주전 800-300 년). 이 시기에 수많은 방언들이 있었으며, 동부어(아티카와 이오니아), 서부어(서북과 도리아), 이올리아(Aeolic, 보에티아, 데살리, 레스보스), 아카도-키프루스(Arcado-Cyprian, 펠로폰네스와 키프루스) 등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는 코이네 헬라어 시대가 열리게 된다(주전 300 년-주후 300 년). 알렉산더 대제는 당시 지식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아티카 방언(Attic Greek)을 그리스 반도뿐 아니라 그의 제국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의 공통어로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네라고 한다. 코이네 헬라어는 신약성경의 언어이다.

이후에 비잔틴 헬라어(주후 300-1100 년)와 중세 헬라어(1100-1600 년), 그리고 현대 헬라어로 이어지게 되었다(참. RDLL).

≡ 히브리어(Hebrew), 아람어(Aramaic)

+ 인도 유럽어(Indo-European languages)

- 코이네 헬라어(Koine Greek)

Lehmann, Winfred P. Linguistics: an Introduction, New Yor, et al: Holt et al, 1962.

Palmer, L. The Greek language. Atlantic Heights, NJ. 1980.

기본어간(基本語幹)

ground stem

파생어간의 기초가 되는 기저 어간.

어간(語幹)이란 국어에서 “활용어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먹다’, ‘먹니’, ‘먹고’에서 ‘먹-’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파생어간들의 기초가 되는 어간으로, 히브리어의 경우는 칼 유형, 성경아람어의 경우 폐알이 기본어간이다. 독일어로 Grundstamm 이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base stem* 이라고도 지칭한다. 문법서에서 흔히 *G stem* 으로 명명되어 사용된다.

헬라어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이다.

+ 어간(stem)

↔ 파생어간(derived stem)

후음(喉音)

guttural

목구멍(성문)의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

영어 guttural 은 라틴어 guttur (목구멍)에서 나왔다.

히브리어에서 후음은 자음 문자 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후음 문자(guttral letter)’라고도 부른다. 음의 강도에 따라 약한 후음과 강한 후음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세부 위치에 따라 후두음(laryngals)과 인두음(pharyngals)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참. GKCS §22a; JMK §5j-1a). 히브리어에서 후음은 א, ח, כ, ע 네 개이며, ך는 후음이 아니지만 종종 후음으로 취급한다. 히브리어에서 후음은 대개 다게쉬(경강점과 연강점)를 취하지 않는다.

헬라어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이다.

+ 문자(letter)

≡ 후음문자(guttral letter)

후음과 보조 하텍

guttural and auxiliary ḥaṭef

히브리어의 보조 하텍은 후음과 함께 사용되는 모음으로 합성 슈바 옆에 덧붙여 사용하며 후음 뒤의 자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매우 짧은 모음.

단순 슈바가 와야 할 자리에 후음이 있는 경우 단순 슈바를 붙이지 않고 단순 슈바 옆에 보조 하텍을 덧붙인 복합 슈바를 사용한다. א는 단순 슈바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보조 하텍을 사용한 복합 슈바와 함께 오거나(אֱלֹהִים) 모음 없이 오고(בְּרֵאשִׁית), ע는 아주 드문 경우(יְדַעְתִּי) 외에는 대개 복합 슈바와 함께 오며(מוֹעֲדִים), ה와 ח는 복합 슈바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תְּזַקֶּה, תְּבַלִּים) 단순 슈바와 함께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לֶחֶשֶׁב, יִהְיֶה)(참. JMK §22a-d).

후음과 모음(喉音과 母音)

guttural and vowel

목구멍소리인 후음과 그 음의 독특한 성질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음.

후음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이므로 혀의 위치가 높은 곳에서 발음되는 ‘이’나 ‘우’ 모음을 선호하지 않으며, 반대로 혀의 위치가 낮은 곳에서 나오는 ‘아’ 모음을 선호한다. 히브리어에서 후음이 ‘아’ 모음을 선호하는 정도는 하향 순으로 $\text{ע} > \text{ח} > \text{ה} > \text{א}$ 이다(참. JMK §21a). 히브리어에서 후음은 단순 슈바 대신에 복합 슈바를 취하며 후음 전의 모음은 종종 장모음을 취한다. 예로, הָעָם 대신 הֶעָם , חֲבֵרִים 대신 חִבְרִים .

습관상(習慣相)

habitual

규칙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와 상황을 가리키는 상.

시상의 관점에서 습관적인 시상은 즉각적인 시상과 대비된다. 영어에서는 습관상(예. used to drink)과 반복상(iteratives, 예. flutter 펄럭이다)을 구별한다. 즉각적인 시상으로는 ‘전소하다, 불타버리다’(burn down)을 들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동사의 형태가 동작의 규칙적인 반복을 묘사하는 것이다”(IBHS §33.3.3c, 33.4b).

사 44:12

חָרַשׁ בְּרָזָל מְעַצֵּד וּפָעֵל בַּפָּחַם וּבַמִּקְבּוֹת יֵצֵרָ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

여기서 **יצר**는 습관적인 시상이다

출 23:8

כִּי הַשּׁוֹתֵד יֵעוֹר פִּקְחִים וְיִסְלֵף דְּבָרֵי צַדִּיקִים: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굽게 한다

여기서 **עור**와 **סלף**는 습관적인 시상이다

함어

Hamitic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프로 아시아어족에 속하는 베르베르어, 쿠치어, 콥트어, 이집트어 등을 총칭하는 언어.

함어와 셈어라는 용어는 구약성경의 노아의 두 아들인 함과 셈에서 나온 어족에 대한 명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함어와 셈어가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해 있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함어 안의 다양성을 간과하였다.

모스카티는 함어의 고유한 특징이 없다고 본다(Moscatti 1980: 16). 또한 학자들은 함어가 셈어와 함께 가지고 있는 유사성 때문에 함-셈어(Hamito-Semitic)로 부르기도 한다(참. JMK § 2k; SBCP 26-27, 45-48; Rabin 1991: 143-148).

최근에는 학자들이 함어-셈어를 아프리카-아시아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 명칭은 그린버그(J. H. Greenberg)가 1952 년 처음으로 제안했고, 현재 영어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함어로는 주전 약 32 세기부터 사용된 이집트어와 주후 3-7 세기에 사용된 콥트어가 있으며, 그 외에도 리비아-베르베르어(Libyco-Berber), 쿠치어 등이 있고 차드어(Chadic)를 함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 아프로 아시아어족

– 콥트어(Coptic), 이집트어(Egyptian)

≡ 셈어(Semitic)

Greenberg, J. H., “The Afro-Asiatic (Hamito-Semitic) Present,” *JAOS* 72 (1952), 1-9.

Moscatti S.,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16

Rabin C.,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1: 143-148.

유일어구(唯一語句)

hapax legomenon

어떤 담론, 본문, 사본, 모음집에서 오직 한 번 나오는 단어, 구, 형태.

‘하팍스 레고메논’(ἁπαξ λεγόμενον)은 그리스어로 ‘한 번 말해지는 것(once said, 혹은 once read)’이라는 의미이며 단축하여 ‘하팍스’(hapax)로 사용하기도 한다.

히브리어의 유일어구는 대개 히브리어 성경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약 1,300개의 유일어구가 있다. 그 중 약 900개는 어근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으나, 약 400개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있다. 주후 10세기 초에 살았던 유대 학자들은 ‘하팍스’를 아람어나 아랍어 같은 다른 인접 언어들과 비교하며 의미를 추론하였다. 예로, הַחֵטָא(sūtō) ‘그의 의복’(창 49:11)이라는 명사는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지만(하팍스 레고메나), 다른 서북 셈어에서 발견된다(SBCP, 78).

성경 히브리어 텍스트 중에서는 특히 율기서(145개)와 이사야서(201개)에서 유일어구가 많이 발견된다. BHS 히브리어 성경 양쪽 여백에 있는 작은 마소라(masora parva)에서는 유일어구를 לְ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아람어 לְ(없다)의 약어로 ‘이곳 외에 다른 곳에는 없다’는 의미이다.

사마리아 오경의 어휘를 살펴보면 하팍스 레고메나를 더 친숙한 표현들로 대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SBCP 175). 어떤 경우에는 아람어의 영향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벤-예후다는 “미슈나, 탈무드, 미드라쉬에서 잠재적으로 유용한 히브리어와 아람어 표현은 어느 것이나 수용하고, 심지어 헬라어와 라틴어 차용어도 받아들였다. 아람어 형태의 유형과 접미어가 사용되고, 특히 하팍스 레고메나 같이 본문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성서의 회귀한 단어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했다”(SBCP 282). Accordance 11 에 따르면, 신약성경에 사용된 5422 개의 단어 가운데 한 번만 나오는 단어는 모두 1942 개이다. 36%에 가까운 분량이다. 그럼에도, 신약성경에 한 번만 쓰이는 단어들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당대 문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BDAG 에서 유일어구로 표시된 단어는 64 개에 불과하다.

바울 서신의 경우 저자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유일어구가 저자를 밝히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울 서신 자체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많으면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되는 것이다(PDSBS).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Blau, Joshua, “Hapax Legomena,” *Encyclopaedia Judaica*. Ed.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2nd ed. Vol. 8,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337.

Cohen, H. R., *Biblical Hapax Legomena in the Light of Akkadian and Ugaritic*, California: Scholars Press, 1978.

Greenspahn, F., *Hapax Legomena in Biblical Hebrew*,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4.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Jerusalem: Carta, 1987.

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

서기관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글자, 연속된 글자, 중복하여 써야 할 글자나 음절을 특별한 의도 없이 한 번만 기록하여 글자나 음절이 탈락하는 현상.

영어 haplography는 헬라어 haplóos (한 번, single)과 gráphein (쓰다, to write')를 합성한 단어로서 서기관의 대표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영어를 쓸 때에도 예로, tagmeme(문법소)을 tagme로 사용하거나, idolatry (우상숭배)가 헬라어의 ειδωλολατρεία(eidololatreia)에서 파생된 단어이지만, 한 음절이 중자 탈락을 통해 생략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포로기 이전 히브리어에서 hy yhwh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 대신에 hyhwh로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인 중자탈락이다(SBCP 85). 히브리어에서 중자탈락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삼상 19:10 (JMK §138h)

וַיִּדְדֵּךְ נָס וַיִּמְלֹט בַּלַּיְלָה הַהוּא:

다윗은 그 날 밤에 사울에게서 도망쳤다.

ההוא 대신 הוא가 나온 것은 ההוא에서 ה가 중자탈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 7:27(한 8:2) (JMK §52c)

וְאַם־מֶאֱן אֶתָּה לְשַׁלַּח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피엘 분사형 מֶאֱן은 원래 מֶאֱן에서 중자탈락이 된 것이다.

렘 19:15 (JMK §78f)

אֶל־הָעִיר הַזֹּאת וְעַל־כָּל־עֲרִיָּהּ אֵת כָּל־הַקֶּהֱמָה מְבִי הַנְּגִי

보라 내가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א이 발음되지 않으면서 א자체가 생략되어서, **מְבִיא**가 **מְבִי**로 중자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헬라어에서는 중자탈락이 본문비평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즉, 필사자들이 글자나 어구를 실수로 빠트리는 것을 가리킨다. 대개 인접해 있는 유사한 글자나 단어나 어구 때문에 잘못 보아 빠트리게 된다(PDSBS 54).

요 10:39 (Metzger 2005, 191-192)

Ἐξήτουν [**οὐν**]

매우 다양한 사용과 역본들이 접속사 οὐν 을 본문으로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사본상의 차이가 중자탈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 유사문미(homoioteleuton)

↔ 중복오사(dittography)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중음탈락(重音脫落)

haplology

한 단어 안에서 동일한 음소나 형태소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두 개의 동일한 음소나 형태소가 한 단어 안에서 나오게 되면 발음이 중첩되어 불편해지므로, 그 중 하나 혹은 둘을 탈락시키게 된다. 시리아어에서 ‘aryaya는 ‘arya가 되며, 바스크어에서 *sagar-ardo 는 중간에 -ar-가 탈락하여 sagardo가 된다. 여기서 sagar는 ‘사과’이며, ardo는 ‘와인’이어서 sagardo는 ‘사이다’(cider)가 된다(참. DGTL).

히브리어에서 그 실례를 설명하자면, 장소의 한정적 대격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있는 장소 앞에 오는 전치사 **ב**는 가끔 다른 **ב**앞이나(특히 **בֵּית**), 다른 순음 앞에서 중음탈락이 된다(JMK §126h).

욥 1:4

וְהָלְכוּ בָנָיו וְעָשׂוּ מִשְׁתָּה בֵּית אִישׁ יוֹמוֹ

그의 아들들이 각각 그 생일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 경우는 전치사 **ב**가 다른 **ב**앞에서 생략된 경우이다.

신약성경과 관련된 중음탈락의 예는 없다. 다만, 신약성경에서 쓰이지 않은 단어와 관련하여 LSJ에서 중음탈락의 예로 제시된 것은 다섯 개이다. 예로, *ἀντίτοκος* (‘보복을 당한’)는 *ἀντίτιτος* 에서 *τι* 가 생략되었다. 한편, Thackeray 는 시내산 사본의 출애굽기 11 장 5 절에 *πρωτοτοκον* 이 아니라 *πρωτοτον* 이 쓰인 것을 중음탈락으로 설명한다(Thackeray 1909: 115).

Thackeray, Henry St. John,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하타프 파타흐

hataf (hatef) patah

히브리어의 모음 중 복합 슈바의 하나로 짧은 아(ă)음가를 갖는 것.

하타프 파타흐(◌ֿ)는 하타프 카마쯔(◌ֿ)나 하타프 세골(◌ֿ)에 비해 출현 빈도수(25,696회)가 가장 높다. 다른 복합 슈바와 마찬가지로 하타프 파타흐 역시 대개 후음(א, ה, ח, ע)과 함께 온다. 하타프 파타흐의 빈도수가 다른 복합 슈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후음을 발음할 때 혀가 가장 많이 열린 모음(개구모음)인 ‘아’소리가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후음과 함께 사용되는 복합 슈바에 ‘이’와 ‘우’모음이 없는 것도 그 두 모음은 혀가 닫힌 모음(폐구모음)이기 때문이다. שָׁבָלִי, וְהָאֲלִיָּהּ, סוֹרְרִים, תְּאֵכְלֶנָּה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타프 파타흐는 하타프 카마쯔나 하타프 세골에 비해 후음이 아닌 자음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하다(참. JMK § 9c; GKCS § 10f-g).

+ 복합 슈바(hataf shva), 하타프 슈바(hataf shva)

≡ 하타프 카마쯔(hataf kamatz, ◌ֿ), 하타프 세골(hataf segol, ◌ֿ)

= 하타프 파타흐(hatef patah)

하타프 세골

hataf (hatef) segol

히브리어의 모음 중 복합 슈바의 하나로 짧은 에(ֶ) 음가를 갖는 것.

다른 복합 슈바와 마찬가지로 하타프 세골 역시 대개 후음(א, ה, ח, ע)과 함께 오는데 אֱלֹהִים 과 같이 후음 중 א와 함께 가장 많이 온다. 대개 단순 슈바(ִ)가 와야 할 곳에 후음(א, ה, ח, ע)이 있으면 복합 슈바가 온다. הָאֱמִין, אֲנִישָׁה 등과 같이 세골 뒤에 세골과 함께 ‘-ִֿֿ’와 같이 쌍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אֱלֹהִים, הָיִיתָ의 경우와 같이 강세 전전음절에 오는 경우가 있으며, אֲנִישׁ, אֲמַת의 경우와 같이 강세 전음절에 오는 경우도 있다(참. JMK § 9a-b; GKCS §10f).

+ 복합 슈바(hataf shva), 하타프 슈바(hataf shva)

≡ 하타프 카마쯔(hataf kamatz , ִֿֿ), 하타프 파타흐(hataf patah, ֲֿֿ)

= 하타프 세골(hatef segol)

복합 슈바, 하타프 슈바

hataf (hatef) shva

히브리어의 모음 중 단순 슈바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슈바.

복합 슈바는 하타프 슈바 혹은 합성 슈바로도 부른다. 복합 슈바는 히브리어의 기본 모음 7개 외에 짧은 음가를 갖는 모음으로 대개 후음(א, ה, ו, י)에 붙는다. 복합 슈바는 하타프 파타흐(ֿ), 하타프 카마쯔(ֿ), 하타프 세골(ֿ)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슈바는 발음의 유무와 관련하여 유성 슈바와 무성 슈바로 나누지만, 복합 슈바는 항상 유성으로 a(하타프 파타흐), o(하타프 카마쯔), e(하타프 세골)의 음가를 갖는다(참. JMK § 9a-d; GKCS § 10f-h).

- 하타프 카마쯔(hataf kamatz), 하타프 파타흐(hataf patah), 하타프 세골(hataf segol)
- = 하타프 슈바(hataf shva), 하타프 슈바(hatef shva), 합성슈바

하타프 카마쯔

hataf kamatz (hatef qames)

히브리어의 모음 중 복합 슈바의 하나로 짧은 오(δ) 음가를 갖는 것.

하타프 카마쯔(◌ֿ)는 하타프 파타흐(◌ֿ)나 하타프 세골(◌ֿ)에 비해 출현 빈도수(642회)가 가장 낮다. 대개 단순 슈바(◌)가 와야 할 곳에 후음(א, ה, ח, ע)이 있으면 복합 슈바가 온다. 노오미(נוֹעֲמִי), 오홀로(אוֹהֶלֶה)의 경우와 같이 카마쯔 뒤에서 쌍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타프 카마쯔는 קִדְּשִׁים, רִאֲיוֹ와 같이 후음이 아닌 곳에서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원적인 이유로 보기도 하나(JMK § 9d), בָּקָר의 복수가 בָּקָרִים이 아닌 בָּקָרִים인 것을 보면 ק와 ר의 본래 발음이 아랍어의 ق, غ와 같이 목에서 가까운 깊숙한 곳에서 나는 것이어서 후음처럼 취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참. JMK § 9d; GKCS § 10f-h).

+ 복합 슈바(hataf shva), 하타프 슈바(hataf shva)

≡ 하타프 파타흐(hataf patah, ◌ֿ), 하타프 세골(hataf segol, ◌ֿ)

= 하타프 카마쯔(hatef qames)

헤

He

히브리어 알파벳의 다섯 번째 문자.

헤는 두 손을 들고 어떤 사람(혹은 신)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모양에서 그 문자가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E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대개 ‘헤이’라고 부른다. 헤는 다섯 번째 문자이므로 ‘5’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헤는 무성 후음의 마찰음에 속한다. 헤는 단어 중간에서는(모음 앞에서는) 음가를 가지나, 단어 끝에서는 대개 음가를 가지지 않는다. 헤가 단어 끝에서 음가를 가질 경우에는 ‘גְּהִי’와 같이 헤에 점(마픽)을 붙인다(참. GKCS § 5d; JMK § 6j; Yardeni, 31-33).

+ 문자(letter)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31-33.

주 명사(主 名詞)

head noun

명사구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

언어학에서 ‘머리’(head)란 하나의 구(句)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구 전체를 지배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구와 절에는 중심이 되면서 꼭 있어야 되는 요소를 ‘머리’라고 한다.

주 명사는 ‘머리 명사’라고도 부른다. 예로, 명사구 very fresh milk 에서 ‘milk’는 어떤 우유인지, the hot day 에서 day 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적시(指示)하므로 ‘머리’가 된다. 형용사구 very misleading indeed 에서는 misleading 이 머리이다. 부사구 some-what superficially 에서는 superficially 이다(ODEG).

주 명사는 대개 한정 관계에서는 피한정 명사이며, 수식 관계에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로 나타난다. 또한 Their glorious house on the hilltop has been sold 라는 절에서 명사구 Their glorious house on the hilltop 의 핵심인 ‘house’가 명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CDEG; 참. PDSBH; Rodrigue 95; 서정수 105, 1260).

히브리어에서 주 명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명사와 형용사의 조합에서

신 9:2

עַם-גָּדוֹל וְרַם

크고 많은 백성

(2) 명사와 전치사구의 조합에서

룻 1:1

אִישׁ מִבֵּית לָחֶם יְהוּדָ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

(3) 연계형에서

삿 19:2

בֵּית אֲבִיהָ

그녀의 아버지의 집

(4) 관계절에서

a. 관계 대명사와 함께

삼상 12:13

הַמֶּלֶךְ אֲשֶׁר בָּחַרְתָּם

너희가 선택한 왕

b. 분사와 함께

삿 18:14

הָאֲנָשִׁים הַהֵלָכִים לְרַגֵּל אֶת-הָאָרֶץ לַיִשׁ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헬라어에서의 용례는 명사와 형용사의 조합, 명사와 전치사구의 조합, 주격 명사와 소유격 명사의 조합, 그리고 분사구가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참. PDSNTG 65-66).

(1) 명사와 형용사의 조합에서

히 4:14

ἔχοντες ἀρχιερέα μέγαν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형용사 μέγαν 이 명사 ἀρχιερέα 를 수식한다.

(2) 명사와 전치사구의 조합에서

막 7:28

καὶ τὰ κυνάρια ὑποκάτω τῆς τραπέζης ἐσθίουσιν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먹는다

전치사구인 ὑποκάτω τῆς τραπέζης 가 명사 τὰ κυνάρια 를 수식한다.

(3) 주격 명사와 소유격 명사의 조합에서

롬 4:13

διὰ δικαιοσύνης πίστεως

믿음의 의를 통하여

δικαιοσύνης 는 주격명사이고 πίστεως 는 소유격 명사로 πίστεως 가 δικαιοσύνης 를 수식한다.

(4) 분사구가 수식하는 경우

벧전 1:13

ἐλπίζατε ἐπὶ τὴν φερομένην ὑμῖν χάριν

너희들은 너희에게 가지고 올 은혜를 소망하라

τὴν φερομένην 라는 분사구가 명사 χάριν 를 수식한다.

히브리어

Hebrew

아프로 아시아어족에 속하는 서북 셈어에 속하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살던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사용한 가나안의 방언.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원래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창 14:13), 요셉(창 40:15), 요셉의 형제들(창 43:32)을 부를 때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주로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출 1:15-10:3), 사무엘서에서 주로 나온다(삼상 4:6-29:3).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다’(아바르)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 자’(창 14:13)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 강은 요단 강도 될 수 있고, 유프라테스 강도 될 수 있다(참. ISBE).

히브리어어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당시 고대 아카드어나 초기 바빌론어를 사용했고(참. ISBE).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는 고대 아람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창 31:47; 신 26:5).

고대 가나안어에 속하는 히브리어는 “페니키아어와 고대 아람어(Old Aramaic)의 거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고, 변화의 중심지로서 주변에 영향을 끼쳤다”(SBCP, 62). 원시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후기 청동기의 중초기(1600-1400 년)의 문서는 별로 없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본문들은 기원전 12 세기로 추정되는 대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로, 모세의 노래(출 15)나 드보라의 노래(삿 5)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비문들은 주전 10 세기의 이전의 것들이다. 소위 원-시내산 비문은 Serabit el-Khadem 의 벽에서 발견된 것으로, 주전 1475 년경의 글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수평 알파벳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이것은 가장 초기의 히브리어 형태를 보여준다. 철기시대(주전 1200-540 년)는 시리아-팔레스타인어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된다. 이 시대의 히브리어는 여러 비문들에 나오므로, 비문 히브리어(inscriptional Hebrew)라고 부른다. 초기의 서북 비문들인 게제르 율력, 히스기야의 터널 비문, 라기스 파편들은 포로 이전의 히브리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재의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사야 19:18에서는 히브리어를 ‘가나안어’(sepat kena'an)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히브리인’로 불리는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성경 외의 문헌에서는 hab[p]jiru는 편견이 가득 담긴 단어로서 ‘용병’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라는 단어를 인종적인 지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열왕기하 18:26에서 히스기야의 궁내 대신 엘리야 김과 썩나와 요아는 앗시리아 왕의 군대장관으로서 전령으로 온 랍사게에게 “청컨대 아람 방언(aramit)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서 유다 방언(yehudit)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한다(사 36:11, 13). 여기에서 ‘유다 방언’이 바로 ‘히브리어’이다. 즉, 이 당시 유다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히브리어는 지난 3,500여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학자들은 히브리어 발달의 역사를 크게 고전 히브리어, 포로 후기의 히브리어, 랍비 시대의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로 나눈다(참. SBCP).

히브리어 서체

Hebrew script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유래된 원래의 히브리어 문자로서 이후에 아람어의 영향으로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로 발전한 히브리어를 표기한 서체.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 사용하는 서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유대 서체(Jewish script)라고도 부른다. 최초의 알파벳이 사용되었던 원시 가나안어(주전 18-17세기)에서 발전하여 고대 히브리어 서체(Paleo Hebrew script)로 불리는 서체가 사용되었다. 게셀 달력, 실로암 비문, 메사 비문 등에서 이 서체가 나타난다. 이 서체는 제 1성전 시대 동안 사용되었으며, 크로스(F. M. Cross)는 이것을 고대-히브리어(Paleo-Hebrew script)라고 한다. 제 2성전시대인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이 서체를 회복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인 주전 5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아람어 서체에서 유대인들이 채택하여 사용한 것이다. 구약 성경의 사본들과 단편들(예로서 쿰란과 나쉬 파피루스)은 주로 이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 서체는 바르 코크바 반란 때의 동전에서 마지막으로 고증되고 있다(주후 132-135).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 서체를 여전히 인쇄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히브리어는 기록의 편의를 위해 필기체를 쓰기도 한다(참. GKCS § 5a; JMK § 5b).

- 고대 히브리 서체(Paleo-Hebrew script),
- ≡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

Cross, Frank Moore,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Scripts,"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w East.

헤에만틱 자음

He'emantic consonants

히브리어의 어근에서 파생되었거나 어형 변화에서 사용하는 일곱 개의 자음 **ו, י, ת, נ, מ, א, ה**.

일곱 개의 히브리어 자음을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헤에만티브’(הֶאֱמַנְתִּיו), 내가 그를 믿었다.)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음이다. 이 일곱 개의 자음은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을 파악할 때 필요한 것이며, 이 자음들은 어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로, **מַדְבֵּר**라는 단어의 어근은 **מ**을 제외한 **דבר**이며 **אִמְרָתָם**의 어근은 **תָּם**을 제외한 **אמר**이다. 이 자음들은 주로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주로 동사의 어근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만, 명사, 형용사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예, **מָקוֹם**의 어근은 **קום, סִפְרָיִם**의 어근은 **ספר, גְּדוּלָּה**의 어근은 **גדל**). 또한 대명사접미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ב**(예, **דְּבָרֶיְכֶם**의 어근은 **דבר**)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어근을 파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시 셈어의 알파벳은 모두 29개였으나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에서 히브리어 자음이 동일하다고 해서 어근도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세 자음 어근뿐 아니라 두 자음 어근, 네 자음 어근 등도 있기 때문이다(참. GKCS § 30a-s; JMK §34a-e).

≡ 어원학(etymology)

이사일의(二詞一意), 중언법(重言法)

hendiadys

의미론적으로 서로 유사한 두 단어들을 접속사로 연결하여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단어의 표현.

영어 hendiadys 는 헬라어 ἐν διὰ δυοῖν 에서 나왔으며, ‘두 개로써 하나를’(one by means of two)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헬라 문법학자들이 사용한 것은 아니며, 라틴 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였다(버질에 대한 Servius, Papias; OED).

영어에서 이사일의는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통하여 표현된다(조성식 외). (1) 명사+and+명사(=형용사+명사): joy and tiding (=joyfull tiding). (2) 형용사+and+형용사: nice and warm(=nicely warm, quite warm), (3) 동사+and+동사, come and see (=come to see).

히브리어에서 이사일의는 운문체뿐 아니라 산문체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대개 명사로 나타나지만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된다. 접속사로 연결되기도 하며, 접속사 없이 병치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이사일의는 단어쌍(word pair), 평행법(parallelism), 부사적인 표현, 과장법 등에서 나타난다(참. IBHS § 4.4.1b, 32.3b; PDSBH 83; Watson 324-328).

(1) 접속사와 함께

창 6:9

נָח אִישׁ צִדִּיק תָּמִים הָיָה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삼상 12:2

וְאֲנִי זָקְנָתִי וְשֹׁבְתִי

나는 늙었으며 백발이 되었다.

(2) 접속사 없이

창 3:16

הָרָבָה אֲרָבָה עֲצָבוֹנָךְ וְהָרָבָ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너의 고통스런 임신)을 더할 것이다.

사 29:7

וְהָיָה כְּחֹלֶם תִּנּוֹן לַיְלָה

그것은 꿈과 같이, 밤의 환상과 같이 될 것이다.

헬라어도 같은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다(참. PDSNTG 66; LSNTG 219-220)

골 1:9 (PDSNTG 66)

ὑπὲρ ὑμῶν προσευχόμενοι καὶ αἰτούμενοι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한다

προσευχόμενοι 와 αἰτούμενοι 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기도한다라는 의미이다.

눅 2:47 (LSNTG 219-220)

ἐξίσταντο...ἐπὶ τῇ συνέσει καὶ ταῖς ἀποκρίσεσιν αὐτοῦ

그들이 그의 통찰력있는 대답들로 인해서 놀라고있었다.

통찰력과 대답들이 아니라 통찰력있는 대답들이라는 의미이다.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Watson, Wilfred G. E., *Classical Hebrew Poet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324-328.

헤트

Ḥet

히브리어 알파벳의 여덟 번째 문자.

헤는 울타리 모양에서 그 문자가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H가 여기에 해당된다. 헤는 여덟 번째 문자이므로 ‘8’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헤트는 무성 후음의 치찰음에 속한다. 후음 중에서 가장 강한 후음이며, 독일어 Buch의 ch, 그리고 아랍어의 خ와 비슷한 소리이다(참. GKCS § 6f; JMK § 5b, k; Yardeni 40-42).

+ 문자(letter)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40-42.

헥사플라

Hexapla

주후 3 세기 중엽에 오리겐이 완성한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역본의 본문을 대조한 성경으로서 여섯 가지의 본문을 열로 구성하여 비교한 판본.

성경 본문비평의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인 오리겐의 헥사플라는 주후 230년과 238년 사이에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가이사랴에서 끝마쳤다. 당시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헬라어 사본들이 돌아다님으로 혼란이 있었고, 기독교 변증가들은 특히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오리겐은 230-240년 사이에 구약성경의 본문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헥사플라를 만들었다. 오리겐은 원본에 호소하는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크리스찬들이 확실한 지식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70인역이 본문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했지만,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것을 억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역시 70인역이 영감된 것이라고 믿었는지 모른다.

헥사플라는 6개의 평행으로 이루어진 6개의 열(column)로 이루어져 있다. (1) 히브리어 본문, (2) 헬라어 음역, (3) 아퀼라역, (4) 심마쿠스역, (5) 오리겐의 70인역 개정역, (6) 데오도션 개정역. 여기서 두 번째 열의 헬라어 음역은 당시 히브리어의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이다.

오리겐의 주요 관심사는 5번째 열에 있었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을 비교하면서, 두 본문 사이의 모든 차이점을 특별한 기호로 표시해 두었다.

그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데 70인역에 있는 ‘첨가된 본문’에는 ‘의구표’를 붙였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헬라어 번역에서 그 부분을 가져와 70인역에 삽입시키고, 앞뒤에 ‘의구표’를 붙였다. ‘의구표’란 고사본의 의심스러운 본문이나, 재생시킨 본문을 표시하는 단점표(+), 마이너스표(-), 나누기표(÷), 별표(*) 등을 일컫는다. 헥사플라 원문은 600년경까지 존속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단편만 남아 있다(참. 김경래, 45-47; 민영진, 66-67; 엘리스 알 브로츠만,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역, 72-73; Emanuel Tov, 145-146).

대한성서공회 자료실은 1875년 프레드릭 필드(Frederick Field)가 편집한 헥사플라의 영인본을 소장하고 있다.

Field, Frederick, *Frederick Field's prolegomena to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Paris: J. Gabalda, 2005.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대학교출판부, 199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두란노, 1996.

엘리스 알 브로츠만,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revised and expande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모음연속(母音連續)

hiatus

연달아 나오는 단어들이나 음절들 사이에 두 개의 모음이 이어져 나올 때 모음 충돌을 피하는 자음을 삽입하지 않고, 휴지를 두어 두 모음이 분리되게 하는 음운 현상.

영어 hiatus는 라틴어 hiatus (틈)와 동사형 hiare (벌리다)에서 나왔다. 한 단어 안에서 두 개의 모음이 연달아 나오는 모음연속이 일어날 때 중간에 그 둘을 분리시키는 자음을 삽입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두 모음이 분리되어 들리도록 하는 현상이다.

영어에서는 re-evaluate와 같이 중간에 불임표(-)를 넣는 경우도 있고, cooperation과 같이 불임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발음상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an ant와 같이 부정관사(a) 다음에 자음 n을 넣기도 한다.

히브리어에서 이 현상은 주로 두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א, ה, ע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올 때 강세가 마지막 음절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לָמָּה가 אֲתָם לָמָּה(삼하 19:11)과 같이 마지막 음절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אֲלֵם פְּדָנָה(창 28:2)과 같이 이 현상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현상을 피하기 위해 יִכְרְעוּן אֲחֵרָין(욥 31:10)과 같이 ו를 넣기도 한다(참. GKCS § 16h, 159cN; JMK § 33a; Rodrigue 96).

헬라어의 경우, 다른 여러 방언들보다 아티 방언에서 모음연속현상을 피하려고 축약, 음의 탈락, 움직이는 자음 ν, 첫음 탈락과 같은 여러 수단들을 활용하였다.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이 현상을 많이 피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편지의 길이에 비해서 모음연속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저자가 모음이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 S §46; BDF §486; PDSNTG 67).

눅 6:10

ὁ δὲ ἐποίησεν

그리고 그가 했다.

빌 2:16

εἰς καύχημα ἑμοὶ εἰς ἡμέραν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있을] 자랑을 위하여

계층(階層)

hierarchy

통사론에서 문장을 하위성분으로 분석할 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가 이루는 상하위 구조로서, 문장을 구로, 구는 단어로, 단어는 형태소로 차례로 분석되는 것.

어휘 의미론에서 어휘들이나 개념들이 상하위를 이루면서 구성하는 구조도 위계구조이다. 예컨대, 가구에 대한 용어들을 furniture, chair, armchair, wing armchair와 같이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도 계층 구조를 보여준다. 음운론에서는 음절(syllable), 음소(phoneme),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 등의 계층적 단위로 배열된다. 음성학(phonetics)에서도 공명이 되는 정도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접근음 등의 계층이 있으며, 이 계층의 배열 순서에 따라 발음의 용이도가 결정된다. 예로, 파열음인 p와 마찰음인 r의 순서, 즉 pr로 배열되면 그 사이에 모음이 없어도 발음이 용이하여 program, prefer와 같은 단어가 형성되지만, 그 반대 순서인 rp는 그 사이에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rp로 시작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단어 처음에 오는 슈바가 유성 슈바인지 무성 슈바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פֶּרִי(열매)라는 단어는 ‘페리’가 아닌 ‘프리’로 발음한다. 성경 히브리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사론(또는 구문론)에서 계층구조는 대개 수형도(tree-diagram)로 나타내며 성분 구조(constituent structure)라고도 부른다.

계층이라는 용어는 텍스트언어학에서도 사용되는데, 절, 단락, 담화의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롱에이커(Longacre)는 히브리어 문장의 다양한 구조와 성격에 따라 히브리어 문장을 5 개(세부적으로는 11 개)의 계층구조로 나눈다(참. Longacre, 79; Heimerdinger, 이정민 외, 조성식 외, 남기심 외, 65)

헬라어에서도 층위별로 계층을 볼 수 있다. 음운 층위에서 볼 때, 자음군의 형성은 마찰음 + 파열음의 구조와 파열음 + 굴림음 혹은 설측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형도에 의한 구성성분구조분석은 영어의 예와 유사하다(참. LSNTG 166-168).

(1) 마찰음 + 파열음의 경우

σβέσων
σπαρῆ
σκάνδαλον

(2) 파열음 + 굴림음의 경우

πρόβατα
Χριστοῦ

(3) 파열음 + 설측음의 경우

πλήρης

Longacre, Robert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79.

그러나 하이머딩어는 롱에이커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Heimerdinger, Jean-Marc, *Topic, Focus and Foreground in Ancient Hebrew Narrativ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남기심 외, 『언어학개론』, 탐출판사, 1979: 65.

상형문자(象形文字)

hieroglyph, hieroglyphics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서, 글자의 모양에서 물건의 원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참. 표준국어대사전).

영어 hieroglyphics 는 헬라어 *ἱερός* (거룩한)와 *γραφος* (기록된)가 합성된 단어이다. 헬라인들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인 글들을 ‘신성문자’로 불렀다. 상형문자는 처음에는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므로 회화문자(繪畵文字) 혹은 그림문자(pictograph)라고 부른다. 고대 수메르 문자, 이집트의 신성문자, 초기의 한자가 모두 상형문자이다. 상형문자는 처음에는 그림문자(pictograph)로 시작하였으나 표의문자(ideogram)로 발전한다. 예로, 딱장벌레는 처음에 그림문자였지만, 이후에 그 그림이 낱말을 뜻하게 되었다. 또한 그림 문자는 표음문자(phonogram)로서 음가를 표현하게 되었다. 예로, 이집트인들은 입(ro)을 그려놓고 ro 로 읽게 하였다. 그리고 ‘신, 도시, 사람, 여자, 어린이, 옷하게 나오는 용어들이나 문법적 형태들(복수형 등)은 은 단축하여 한정시키는 한정문자(determinatives)로 발전하게 되었다.

히필

hiphi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하나로 사역 능동을 가리키는 범주 또는 유형.

히필은 기본형 **פעל**의 앞에 **ה**를 붙이고 마지막 음절에 **י**를 붙여 만든(**הפעיל**)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이다. 성경에 총 9,303번 출현하는데(약 13%), 동사의 일곱 유형 중 칼 다음으로 많이 출현한다. 히필의 기본 의미는 사역이다(예, 보여주다, 입히다, 꺼내다 등). 사역 외에 히필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참. GKCS § 53a-g; JMK §34a-e; IBHS §27.1-27.5; WHSK §147-151).

(1) 히필 자동사: 자동사로 사용되는 히필은 직접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주어의 상태나 특성을 드러내거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히필에서 자동사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칼에서는 상태동사(stative verb)의 의미를 갖는다.

잠 22:6

גַּם כִּי־יִזְקֶיךָ לֹא־יִסְוֶה מִמֶּנָּה:

그가 높은 상태에 이를 때에도 그는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2) 명사에서 파생한 히필

사 27:6

יִשְׂרָאֵל יִעֲקֹב וְיִצְיָן וּפְרָחַ יִשְׂרָאֵ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다.

יִשְׂרָאֵל는 명사 **שָׂרַשׁ**(뿌리)에서 파생한 히필 동사이다.

로버트슨은 히브리어 히필의 영향으로 칠십인역에 사역적 능동태(causative active)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본다(R 801; 예. 삿 9:6 등의 βασιλεύω).

≡ 호팔(hofal)

히렉

hireq

히브리어의 모음 중 이(i) 음가를 갖는 모음.

יִי와 같이 요드와 함께 יִ로 사용하기도 하고(완전철자법), יִ와 같이 요드 없이 י로 사용하기도 한다(불완전철자법). 요드와 함께 사용되는 히렉은 항상 장모음 ‘이’(i)를 나타내지만, 요드 없이 사용되는 히렉은 장모음(i)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모음(i)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음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티베리아의 모음 체계에서는 그 둘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그 둘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한다. ‘이’ 모음은 입이 닫힌 모음(폐모음)이므로 일반적으로 후음은 ‘이’ 모음을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음과 함께 사용되는 하탐 파타흐, 하탐 카마쯔, 하탐 셰골 등은 있으나 하탐 히렉은 없다(참. GKCS § 8b; JMK § 6a-i).

히슈타펠

hishtape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하나인 히트파엘과 관련된 특수한 유형.

히브리어에서 이 유형과 관련된 동사는 **השתחוה**이다. 이 동사는 형태가 매우 특이해서 유형과 기본형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견해로 뚜렷이 나뉜다(참. IBHS § 21.2.3d; 권성달, 126-127).

(1) 기본형이 **חיה**이며, 히슈타펠(**השתפעל**) 유형이다.

1929년 우가릿 문서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기본형이 **שחה**인 히트파엘 유형으로 보았으나 우가릿 문서에서 ‘히슈타펠’ 유형이 발견되었으므로 기본형은 **שחה**가 아닌 **חיה**이며 유형도 히슈타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Koehler-Baumgartner 사전과 Holliday 사전, Lambdin(1971: 254), Merwe(1999: 139), 무라오까(JMK § 59g) 등이다.

(2) 기본형이 **שחה**이며 히트팔렐(**התפעלל**) 유형이다.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 우가릿어보다 더 오래된 아카드어에 이 어원은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BDB 사전, TWOT 사전, 어원학사전(E. Klein, 648), 바르일란 사전, 에벤쇼샨사전, 게제니우스(GKCS § 75kk), Blau(1993: 64) 등에 나온다.

≡ 히트파엘(hithpael), 히트파알(hithpaal), 히트팔렐(hithpapel), 히트포엘(hithpoel), 히트폴렐(hithpolel)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Carta, 1987: 648.

히트파알

hithpaa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히트파엘에 속하는 유형으로 마지막 모음이 a 인 유형.

히트파엘의 마지막 음절에서 e 모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히트파알은 마지막 음절에서 a 모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히트파알 유형도 분사나 부정사에서는 여전히 마지막 음절이 e 모음이며, 완료, 미완료, 명령형에서만 마지막 음절에 a 모음을 갖는다. 이 형태는 성서 아람어에서는 표준적인 형태이므로 히브리어에서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은 아람어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히브리어에서 이 형태가 나타나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הִתְאַנַּף**, **הִתְאַפֵּק**, **הִתְנַפֵּל**, **הִתְעַנֵּן**, **הִתְחַטֵּא**, **הִטְמֵא**, **הִתְפַּלֵּא**, **הִתְחַזֵּק**, **הִתְחַכֵּם**(참. GKCS § 54k; JMK § 53b; IBHS § 26.1.1c).

≡ 히트파엘(hithpaal), 히트팔펠(hithpalpel), 히트포엘(hithpoel), 히트폴렐(hithpolel), 히슈타펠(hishtapel).

히트파엘

hithpae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피엘의 재귀형에 속하는 유형.

히트파엘의 특징은 어간의 첫 자음 앞, 즉 두 번째 자리에 **ת**가 붙는다는 것이며, 피엘 및 푸알과 마찬가지로 어간의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히트파엘의 어간이 거센 치찰음인 **ס, צ, ש** 중 하나로 시작될 때 발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치찰음은 **ת**와 자리를 바꾸어 **הַשְׁתַּמֵּר**가 아닌 **הַשְׁתַּמֵּר**의 형태가 된다. 또한 **צ**와 자리를 바꾼 **ת**는 **ט**가 되고(예, **נִצְטָדֵק**), 어간이 d-나 t-음으로 시작될 때는 두 번째 자리에 붙는 **ת**는 다음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어 **מְדַבֵּר, הַטָּמָא**와 같이 된다. 히트파엘은 기본적으로 재귀의 의미를 갖지만, 때로는 상호적인 동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수동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히트파엘 유형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호트파알, 히트포엘, 히트팔렐, 히트팔펠, 히트폴렐, 니트파엘, 히슈타펠 등이 있다(참. GKCS § 54; JMK § 53; IBHS § 26).

≡ 히트파알(hithpaal), 히트팔펠(hithpalpel), 히트포엘(hithpoel), 히트폴렐(hithpolel), 히슈타펠(hishtapel)

히트팔펠

hithpalpe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히트파엘과 관련된 유형으로 어간의 두 자음이 중복되는 유형.

성서 히브리어에서 이 유형은 총 21회 등장한다. 히트파엘이 피엘의 재귀형인 것과 같이 히트팔펠은 필펠(pilpel)의 재귀형이다. 이 유형은 아인 중복 동사(ע"ע 동사), 아인-바브 동사(ע"ו 동사)에서 나타난다(참. GKCS § 55f; JMK § 59c; IBHS § 26.1.1c).

(1) 아인 중복 동사(ע"ע 동사)의 예.

단 11:11

וַיִּתְּמַרְמֹר מֶלֶךְ הַנֹּגֵב וַיֵּצֵא וְנִלְחַם עִמּוֹ עַם-מֶלֶךְ הָעַפְזִין

남쪽 왕이 매우 원통해 하며 나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וַיִּתְּמַרְמֹר의 어간은 מִרְמֵר이다.

(2) 아인-바브 동사(ע"ו 동사)의 예.

예 4:4

נִתְחַלְחַל הַמֶּלֶכָה מְאֹד

그 왕후는 매우 근심했다.

נִתְחַלְחַל의 어간은 חוּל이다.

≡ 히트파엘(hithpaal), 히트파알(hithpaal), 히트포엘(hithpoel), 히트폴렐(hithpolel), 히슈타펠(hishtapel)

히트포엘

hithpoe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히트파엘과 관련된 유형으로 어간의 첫 음절의 모음이 o 인 유형.

성서 히브리어에서 이 유형은 총 49회 등장하는데, **לְהִתְפַּלֵּל**과 같이 대부분 어간의 두 자음이 중복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특히 히트포엘 중 어간의 두 자음이 중복되는 유형을 히트폴렐이라 부른다. 히트파엘이 피엘의 재귀형이라면 히트포엘은 포엘(poel)의 재귀형이다. 어간의 두 자음이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는 예레미야 25:16(**וְהִתְפַּלֵּל**)과 예레미야 46:8(**וְהִתְפַּלֵּל**)에 단 두 차례만 나타난다(참. GKCS § 55b; JMK § 59a; IBHS § 26.1.1c).

≡ 히트파엘(hithpael), 히트파알(hithpaal), 히트팔펠(hithpalpel), 히트폴렐(hithpolel), 히슈타펠(hishtapel)

히트폴렐

hithpole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히트파엘과 관련된 유형으로 어간의 첫 음절의 모음이 o 이면서 어간의 두 자음이 중복되는 유형.

히트포엘에 속하는 유형으로서 성서히브리어에서는 총 47회 등장한다. 히트폴렐은 폴렐(polel)의 재귀형이며 아인 중복 동사(ע"ע 동사), 아인-요드 동사(י"ע 동사), 아인-바브 동사(ו"ע 동사)에서 나타난다(참. GKCS § 55b; JMK § 59a; IBHS § 26.1.1c).

(1) 아인 중복 동사(ע"ע 동사)의 예.

민 11:1

וַיְהִי הָעָם כְּמִתְאַנְּנִים רַע בְּאַזְנוֹיָהוּ וַיִּשְׁמַע יְהוָה וַיִּחַר אַפּוֹ

여호와께서 듣기에 백성이 악하게 불평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분노하셨다.

מִתְאַנְּנִים의 어간은 אָנַן이다.

(2) 아인-바브 동사(ו"ע 동사)의 예.

나 1:5

הָרִים רָעָשׁוּ מִלְּנֹו וְהַגְּבָעוֹת הִתְמַנְּנוּ

산들은 그로 인해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는다.

הִתְמַנְּנוּ의 어간은 מוּג이다.

(3) 아인-요드 동사(י"ע 동사)의 예

사 1:3

יִשְׂרָאֵל לֹא יָדַע עַמִּי לֹא הִתְבּוֹנֵן: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הִתְבּוֹנֵן의 어간은 בִּין이다.

≡ 히트파엘(hithpaal), 히트파알(hithpaal), 히트팔렐(hithpalpel), 히트포엘(hithpoel), 히슈타펠(hishtapel)

홀람

holam

히브리어의 모음 중 자음의 왼쪽 위에 점을 붙여 오(o) 음가를 갖는 모음.

לִּip과 같이 바브와 함께 i로 사용하기도 하고(완전철자법), לִּק과 같이 바브 없이 ִ로 사용하기도 한다(불완전철자법). קוֹלִית과 같이 이어지는 두 음절에서 홀람이 모두 완전철자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קוֹלִית, קוֹלִית과 같이 어느 한쪽만 완전철자법을 사용하든지(전자가 선호됨), קוֹלִית과 같이 모두 불완전철자법으로 사용한다. 홀람이 바브와 함께 사용되든지 그렇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대개 장모음 ‘오’(ō 혹은 ֹ)를 나타낸다. 그러나 음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티베리아의 모음체계에서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현대히브리어에서도 그 둘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한다(참. GKCS § 8c, k-l; JMK § 6a-i).

동질적 자음(同質的 子音)

homogeneous consonant

조음 방법이 동일하여 동일한 성질의 발음을 갖는 자음.

동일한 발성기관, 즉 동일한 조음위치에서 발생되는 자음인 동기관적(homorganic) 자음과는 구분된다. 동기관적 자음의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순음, 치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치찰음, 설음, 비음 등을 말한다. 반면 동질적 자음이란 조음하는 방법이 동일한 자음을 말하는 것이다. 혀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입안의 어디에서 막느냐 하는 것이 조음의 위치라면, 조음 위치를 폐쇄하느냐 마찰하느냐, 또는 공기 통로가 구강이나 미강이나에 따른 구분등 얼마나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조음 방법이다.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에도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파열음(plosive), 파찰음(affricate), 마찰음(fricative), 비음(nasal), 접근음(approximant) 등으로 나눈다. 히브리어에서 파열음은 פ, ב, ת, ט, ק, ד, ג, ג'등이며, 파찰음은 צ이며, 마찰음은 ש, ז, ח, ט', ש', צ'등이며, 비음은 מ, נ이며, 접근음은 ל, י이다(참. GKCS § 6q; JMK § 5h-s; 김진우 58-83; 김방한 외 51-57).

헬라어를 동질적 자음으로 분류할 경우 공명 정도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굴림음, 설측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파열음에는 유성파열음인 β δ γ가 있고, 유성무기파열음인 π τ κ가 있고, 무성유기파열음에는 φ θ χ가 있다. 파찰음에는 ψ ζ ξ, 마찰음에는 σ, 비음에는 μ ν, 굴림음에는 ρ, 설측음에는 λ가 있다.

+ 자음(consonant)

≡ 동기관적 자음(homorganic consonant)

김진우, 『언어』, 탑출판사, 1990.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형설출판사, 1991.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homonym

철자(동철어)와 발음(동음어)은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동음이의어는 원래 어근이 서로 다른 단어에서 나왔다. 영어에서 예로, bill은 (1) 계산서, (2) 부리, 주둥이(beak)를 뜻한다. Fair는 (1) 공평한, (2) ‘판매, 유흥에서 나왔다. Row는 (1) 명사로서 ‘줄, 선’과 동사로서 (2) 배를 젓다는 뜻이다(ODEG). 그렇지만, 동일한 어근에서 온 동음이의어도 있다. 예로, ‘주시하다’(to watch)와 ‘시계’(watch), ‘물 받이 통’(tank)와 전투용 전차(tank)를 들 수 있다(CDEG).

동철(형)이의어(homograph)와 동음어(homophone)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동철(형)이의어(homograph)는 영어 read의 현재형과 과거형에서와 같이 동일한 철자를 갖지만 발음과 뜻이 다른 것을 말한다. 동음어(homophone)는 night와 knight와 같이 발음은 같으나 철자와 뜻이 다른 것을 말한다. 동음이의어에 동음어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동철(형)이의어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는 **אדם**이 아담(고유명사)과 사람(보통명사)으로 동음이의어라 할 수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97-98).

≡ 동음어(homophone)

동음어(同音語)

homophone

발음은 같으나 철자와 뜻이 다른 단어.

동음어는 이철자(異綴字)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meet-meat, raise-raze, rite-right 등과 같이 발음은 같으나 철자와 뜻이 다른 것을 말한다. 동음어를 동음이의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는 קרא(읽다, 부르다)와 קרה(일어나다, 만나다)가 동음어라 할 수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97-98).

≡ 동음이의어(homonym)

동기관적 자음(同器官的 子音)

homorganic consonant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

동일한 조음방법을 갖는 자음인 동질적(homogeneous) 자음과는 구분된다. 동질적 자음의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파열음(plosive), 파찰음(affricate), 마찰음(fricative), 비음(nasal), 접근음(approximant) 등을 말한다. 반면 동기관적 자음은 동일한 조음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을 가리킨다. 혀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입안의 어디에서 막느냐 하는 것이 조음 위치라면, 얼마나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조음 방법이다. 조음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도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순음, 치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치찰음, 설음, 비음 등으로 분류한다.

조음 위치에 따른 히브리어 자음 분류는 다음과 같다(참. GKCS § 6q; JMK §5h-s; 김진우 58-83; 김방한 외 51-57).

순음 - א, ו, מ, פ
 치음 - ד, ת, ט(연구개음)
 구개음 - ג, כ, ך
 연구개음 - ט(치음), צ(치찰음), ק
 후음 - כּ, ה, ח, ע
 치찰음 - ז, ס, צ(연구개음), שׁ, שׂ
 설음[유음?] - ל, ר
 비음 - מ, נ

조음 위치에 따라 헬라어 자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참. S §22; M-T II, 41).

순음 - π, β, φ, ψ
 치음 - τ, δ, θ, ζ
 구개음 - κ, γ, χ, ξ
 후음 - χ
 유음 - λ, ρ
 비음 - μ, ν

+ 자음(consonant)

≡ 동질적 자음(homogeneous consonant)

호팔

hopha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하나로 사역 수동을 가리키는 유형.

호팔은 기본형 **פעל** 앞에 **ה**를 붙여 만든(**הפעל**) 완료 3인칭 남성단수 형태이다. 성경에 총 356번 출현하는데(약 0.5%) 동사의 일곱 가지 유형 중 가장 적게 나타난다. 호팔의 기본 의미는 사역의 수동이다. 호팔의 첫 모음은 규칙동사, 불규칙동사를 막론하고 ‘오’뿐만 아니라 ‘우’ 모음도 많이 등장하는데, ‘오’보다는 ‘우’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고대 셈어의 기본 모음이 ‘아’, ‘이’, ‘우’였으며, 히브리어에서 ‘우’ 모음은 푸알과 칼 분사수동에서 수동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므로 호팔의 원래 모음은 ‘우’였을 가능성이 있어 높다. 현대히브리어 문법서에서는 ‘후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참. GKCS § 53b, h, s-u; JMK §57; IBHS §28; Coffin 119).

≡ 히필(hifil)

Coffin, E. A., *A Reference Grammar of Modern Hebr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19.

호트파엘

hothpael

히브리어 동사의 7 유형 중 히트파엘에 속하는 유형으로 첫째 모음이 o나 u인 유형.

이 유형은 히트파알과 같이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e가 아닌 a 모음을 갖는 것으로 보아 ‘호트파알’(hothpaal)로 부르기도 하나, 이 유형에 속하는 형태 중 레위기 13장 55절과 56절에서 마지막 모음이 e를 가지므로 호트파엘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형의 특징은 첫 번째 모음이 i가 아닌 o나 u를 가져 ‘히트’ 대신에 ‘호트’, 혹은 ‘후트’를 갖는다. 이 유형은 성경에 총 8번 나타난다. **הִתְפַּקְדוּ**와 같은 형태로 4번(민 1:47, 2:33, 26:62, 왕상 20:27) 나타나며, 나머지 4번은 모두 첫 번째 모음이 o가 아닌 u이며 **ת**가 동화된 형태로 **הִתְפַּקְדוּ**(레 13:55, 13:56), **הִתְפַּקְדוּ**(신 24:4), **הִתְפַּקְדוּ**(사 34:6)와 같이 나타난다(참. IBHS § 26.1.1d).

≡ 히트파엘(hithpael), 히트파알(hithpaal)

혼성어(混成語)

hybrid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하는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나 어구, 하나의 새로운 단어, 어구도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어에서 수많은 접두사들이 라틴어와 헬라어에서 나왔다. 그것들은 쉽게 고대 영어에서 결합되어 파생어나 합성어를 만들었다.

영어에서 혼성어(混成語)로서는 *champion-ship*, *super-man*, *round-about* 등과 같이 접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tele*(그리스어)와 *vision*(라틴어)의 합성어 *television*과 같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경우도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니팔의 **נִיפּוֹל**이 히트파엘에 첨가되어 '니트파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니트파엘은 미슈나 히브리어(주전 약 400년 - 주후 약 400년)에서는 일반적으로 피엘의 재귀 형태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נִיפּוֹל**가 동화된 형태로 두 차례만(**נִיפּוֹל**- 신 21:8, **נִיפּוֹל**- 겔 23:48) 나타난다(참. GKCS §55k; JMK §59f;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98; M. H. Segal 1, 64).

헬라어 문법에서 '혼성적인(hybrid)'란 표현은 '합성(compound)'이라는 용어로 주로 표현된다. 따라서 헬라어의 혼성어는 합성명사(compound noun)와 합성동사(compound verb)들이다.

→ 합성명사(compound noun), 합성동사(compound verb)

Segal, M. H.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1, 64.

동일 단어 반복(同一單語反復)

idem per idem

주절과 종속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방식.

라틴어 *idem*은 ‘동일한’이란 뜻이다. 앞에서 언급된 단어, 이름, 칭호, 저자 등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어이다.

히브리어에서는 대개 주절과 종속절에서 동일한 어원의 동사가 사용되나, 명사화된 분사가 주절에서 선행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한정성(*indeterminateness*)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참. GKCS §158o), 때로는 한정적인 기능을 가질 때도 있다.

(1) 동일한 어원의 동사가 사용되는 예

겔 12:25

אֲדַבֵּר אֶת־אֲשֶׁר אֲדַבֵּר דְּבָרִי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겔 24:22

וַעֲשִׂיתֶם כְּאֲשֶׁר עָשִׂיתִי

내가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할 것이다.

(2) 명사화된 분사가 선행사로 사용되는 예

민 1:44

אֵלֶּה הַפְּקָדִים אֲשֶׁר־פָּקַד מֹשֶׁה וְאַהֲרֹן וְנָשִׂאִי יִשְׂרָאֵל שְׁנַיִם עָשָׂר אִישׁ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12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계수한 계수된 이들이었다.

왕하 23:22

מִימֵי הַשְּׁפָטִים אֲשֶׁר שָׁפְטוּ אֶת־יִשְׂרָאֵ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들의 날들(시대)로부터

헬라어의 경우, 주절과 종속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예들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를 ‘동일 단어 반복’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요 3:2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ἂν σὺ ποιεῖς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사가 주절과 종속절에 함께 사용되었다.

명령형(命令形)

imperative

명령이나 금지, 요구 등의 서법을 표현하는 동사의 활용형.

영어 imperative는 라틴어 imperativus (명령)와 imperare (지시하다, 명령하다)에서 나왔다. 동사를 시제(tense), 시상(aspect), 법(mood)으로 표현할 때 명령형은 화자나 저자의 심적 태도나 의도를 나타내는 법(또는 서법)에 속하므로 명령법(命令法, imperative mood)이라고도 한다. 명령형에서는 명령뿐 아니라 금지, 요청, 간청 등을 표현한다. 명령형은 조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로, “내 책을 잃어버리면, 너는 새 책을 사주어야 한다”. 또한 선포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로, “입을 닫고 있어라”. 또한 의문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로, “왜 입을 닫고 있지 않는가?”(참. 조성식 외; Rodrigue 101).

히브리어에서 명령형은 능동 명령형만 있고 수동 명령형은 없으므로 푸알과 호팔에서는 명령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명령형은 2인칭에서만 나타나므로 2인칭 의지법이라고도 한다. 명령형은 미완료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시형(혹은 회구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정의 명령을 표현할 때는 'לא שְׁמַר' 혹은 'אַל שְׁמַר'와 같이 명령형 형태가 아닌 'לא תְּשַׁמַּר' 혹은 'אַל תְּשַׁמַּר'와 같은 지시형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참. GKCS § 46; JMK §48).

헬라어에서 명령법은 시제, 태, 인칭, 수에 따라 다르게 활용한다. 시제에서 시간의 기능은 없고 시상(aspect)의 기능만 있다. 따라서 현재 명령법은 동작의 반복이나 계속을 의미하는 반면에, 과거 명령법은 동작의 단순 발생을 뜻한다. 태는 다른 서법과 마찬가지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있다. 인칭은 2인칭과 3인칭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단수나 복수에게 명령할 수 있다. 명령법은 명령에 사용되지만 간구나 기원에도 사용된다. 명령법의 부정은 μή를 사용한다.

마 7:76:10

ζητείτε καὶ εὐρήσετε

너희들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2인칭 명령법으로 사용되었다.

마 6:10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당신의 나라가 오게 되기를

기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 7:1

Μὴ κρίνετε

비판하지 말라

명령법에서 부정할 때는 μή를 사용한다.

≡ 명령(command, commandment), 명령법(imperative mood), 직접 의지법(direct volitive mood)

미완료(未完了)

imperfect

동작이 지속되거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 의미.

영어 imperfect는 라틴어 imperfectus (완결되지 않은, 미결의)에서 나왔다. 영문법에서는 시제를 표현하는 전통문법의 용어로서, “동작이 지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마치지 않은(not complete) 과거 상황”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다(ODEG). 영어에서 이 용어는 과거 미완료에 적용되었다(They were waiting). 오늘날에는 미완료라는 용어 대신에 과거 진행형 혹은 과거 지속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시제(tense)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시상(aspect 혹은 aspekt)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는 어간에 접두사가 추가된 동사 형태와 어미에 접미사가 추가된 동사 형태로 뚜렷이 나뉘어 있다. 동사 어간에 접두사가 추가된 동사 형태를 대개 미완료 동사라 부른다(참. 이정민 외 407, 634; Rodrigue 97-98; B. Comrie, 12-20).

헬라어 문법에서는 시제에 따라 시상의 분류가 다르다.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의 경우 시상의 차이가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과거 시제의 경우 미완료 과거 시제와 단순 과거 시제로 나누어지는데 동사의 활용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미완료는 진행의 의미로 '~하고 있었다'로 해석하는 반면에, 단순 과거는 '~했다'로 해석한다.

막 8:7

εἶχον ἰχθύδια ὀλίγα

그들이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미완료 과거의 경우,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한다.

요 8:1

Ἰησοῦς ... ἐπορεύθη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예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단순 과거의 경우, 단순 발생으로 해석한다

+ 상(aspect), 시제(tense)

↔ 완료(perfect)

Comrie, B., *Aspec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2-20.

미완료상(未完了相)

Imperfective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 완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거나 반복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상 혹은 시상.

미완료상은 동작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건이나 상황을 시제의 관점이 아니라, 내적으로 볼 때 ‘지속되고 있는’(ongoingness)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시상의 관점에서 동사를 보는 학자들은 사건을 전체로 보는 관점(event as a whole)을 완료상이라고 하며, 시작과 끝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것을 미완료상이라고 한다.

슬라브어는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형태소를 통하여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예로, 러시아어 pisał은 ‘쓰다’(write)이며 napisal은 ‘다 썼다’(finish writing)이다. Čital은 ‘읽다’(read)이고, pročital은 ‘읽기를 마치다’(finish reading)이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미완료상을 진행, 계속, 반복, 시동, 결과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기도 한다.

+ 상(aspect),

≡ 시제(tense)

비인칭의(非人稱的)

impersonal

문장이나 절에서 동사의 문법적 주어가 인칭을 대치하지 않고 3 인칭 단수로만 사용되는 것.

전후 문맥에서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므로 비인칭 주어(impersonal subject)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며, 그러한 문장에서의 동사를 비인칭 동사(impersonal verb)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한 구조의 문장을 비인칭구문(impersonal construction)이라 한다.

영어에서는 비인칭 주어로서 it 는 시간, 날씨나 기후,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조성식 외). 또한 비인칭 동사로서 appear, happen, seem 등이 있으며, 기후와 날씨 동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It is raining.'과 같이 it 라는 형식적인 주어가 있으나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경우도 있고, 'It's good to see you.'와 같이 뒤에 나오는 진주어를 가리키는 가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영어에서는 it 와 같은 형식적인 주어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서는 형식적인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주로 3 인칭남성단수나 가끔 3 인칭 여성 단수의 동사가 사용된다. 히브리어에서 **וְהָיָה**나 **וְהָיָה** 다음에 시간 표현이 사용되는 특수 구문도 비인칭 구문에 속한다(참. GKCS § 144b; IBHS § 4.4.2; PDSBH; 이정민 외; 조성식 외).

슌 3:16

בַּיּוֹם הַהוּא יֹאמַר לְיְרוּשָׁלַם אֶל־תִּירָאִי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 말해질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창 25:30

עַל־כֵּן קָרָא שְׁמוֹ אֶדְוִם: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불렀다.

삼상 4:5

וַיְהִי כַּבּוֹא אֲרֹן בְּרִית־יְהוָה אֶל־הַמִּתְנָה וַיִּרְעוּ כָל־יִשְׂרָאֵל תְּרוּעָה גְדוֹלָה

여호와와 언약궤가 그 진영으로 올 때, 모든 이스라엘이 크게 외쳤다.

헬라어에서 비인칭 구문은 영어만큼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사용된다. 그 구문들은 특정한 형용사나 동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비인칭 구문을 이끄는 형용사에는 *δῆλος*(고전 15:27), *δυνατός*(딤후 1:12)와 같은 형용사가 있고, 동사에는 *δεῖ*, *ἔξεστι*, *Ἐγένετο* 와 같은 동사들이 있다. 이러한 형용사나 동사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형용사나 동사의 인칭 변화가 없다. 둘째, 부정사를 의미상의 주어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참. R 658; S 260; PGSNTG 70).

딤후 1:12

δυνατός ἐστιν τὴν παραθήκην μου φυλάξαι

나의 신뢰를 지키는 것을 확신한다.

비인칭 구문을 이끄는 형용사 *δυνατός* 의 의미상의 주어로 부정사 *φυλάξαι* 가 사용되었다.

막 9:11

Ἠλίαν **δεῖ** ἐλθεῖν πρῶτον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

비인칭 구문을 이끄는 동사 δεῖ의 의미상의 주어로 부정사 ἐλθεῖν이 사용되었다.

마 14:4

οὐκ **ἔξεστίν** σοι ἔχειν αὐτήν.

그녀를 가지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비인칭 구문을 이끄는 동사 ἔξεστίν의 의미상의 주어로 부정사 ἔχειν이 사용되었다.

눅 1:8 (R 514)

Ἐγένετο δὲ ἐν τῷ ἱερατεύειν αὐτὸν

그리고 그가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구문으로 Ἐγένετο 다음에 분사 구문이나 전치사 구문이 같이 나올 경우, Ἐγένετο의 해석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 인칭의(personal)

저주문(詛呪文)

imprecation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

히브리어에서 저주문은 대개 맹세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며, 주로 **אם, אם-לא, כִּי, אם** 등의 불변사와 함께 사용된다(참. GKCS § 149a-d; JMK § 165a).

왕하 6:31 (JMK § 165a)

כִּה־יַעֲשֶׂה־לִּי אֱלֹהִים וְכִה־יִסְקֶף אִם־יַעֲמֹד רֹאשׁ אֱלִישָׁע בֶּן־שַׁפְט עָלָיו הַיּוֹם:

만일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행하시고 또 행하시기를 원한다.

삼하 19:13 (히, 삼하 19:14) (JMK § 165a)

כִּה־יַעֲשֶׂה־לִּי אֱלֹהִים וְכִה־יִסְקֶף אִם־לֹא שׂר־צָבָא תְּהִיָּה לִפְנֵי כָל־הַיָּמִים תַּחַת יוֹאָב:

만일 네가 내 앞에서 항상 요압 아래에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행하시고 또 행하시기를 원한다.

민 36:31

כִּי־מוֹת יוֹמָת: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삼하 3:35 (GKCS § 149d)

כִּי אִם־לִפְנֵי בּוֹא־הַשֹּׁמֶשׁ אֶטְעַם־לֶחֶם אוֹ כָל־מַאֲמָה:

해가 가기(지기) 전에 만일 내가 빵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먹는다면 ...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헬라어는 저주 회구법(curse optative [imprecation optative])을 보라.

→ 저주 회구법(curse optative [imprecation optative])

부적절한 어구(不適切語句)

improper annexation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나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어구.

영어에서 ‘good of eye’, ‘hard of heart’ 등과 같이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말한다.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와 명사 가운데 형용사가 위치하여 어색한 구조를 이루어 명사와 명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연계형 구조를 깨뜨리기도 하며, 실제로는 명사와 형용사가 조합되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명사와 명사의 구조로 나타나 어색한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참. JMK §129i, ia; IBHS § 9.5.3c; PDSBH).

(1) 명사+형용사+명사의 구조

출 33:5

אַתֶּם עִם־קִשְׁה־עֹרֶף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문법적으로 어색하지 않으려면 **עִם־קִשְׁה־עֹרֶף** 대신에 **עִם־עֹרֶף־קִשָּׁה**(명사+명사+형용사, 곧은 목의 백성)와 같은 구조가 되어야 한다.

창 12:11

אִשָּׁה יִפְתָּ־מִרְאָה אָתָּ:

너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다.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어색하지 않으려면 **אִשָּׁה יִפְתָּ־מִרְאָה** 대신에 **יִפָּה אִשָּׁה מִרְאָה**(명사+명사+형용사, 아름다운 용모의 여자)와 같은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יִפָּה**라는 형용사(여성단수)를 마치 명사와 같이 취급하여 **יִפָּה**와 같이 연계형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2) 명사+명사의 구조

나 1:3

יְהוָה אֶרֶךְ אַפַּיִם

여호와와 코가 기신(=화를 천천히 내시는) 분이시다.

יְהוָה אֶרֶךְ는 직역하면 '코(구멍들)의 김(긴 것)'이다. 이것은 긴 코를 의미하므로 문법적으로 어색하지 않으려면 **אֶרֶךְ אַפַּיִם**(명사+형용사, 긴 코)이 되어야 한다.

기동상(起動相)

inchoative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점에 중점을 둔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상.

우리말로 ‘기동’(起動)은 ‘차의 시동(始動)을 걸다’에서와 같이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표현한다. 기동상(inchoative)은 시작상(ingressive)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지속상(durative)과는 반의어이다. 슬라브어에는 기동상이 형태소로 명시되지만, 영어에는 그런 형태소가 없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begin, start, open 등과 같이 단일 동사로 기동적 동작을 표현하기도 하고, be about to, begin to 등과 같은 우언 형식(periphrastic form)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동적 시상을 표현하는 동사를 기동동사(inchoative verb)라 한다. 기동동사에 동작뿐 아니라 상태의 개시나 변화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become, come, grow 등도 기동동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02-103).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기동동사는 **התחיל**이며, 그 외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기동적 동작을 표현하기도 한다.

창 6:1

וַיְהִי כִּי־הִתְחִל הָאָדָם לְרֹב עַל־פְּנֵי הָאֲדָמָה וּבָנֹת יָדָו לְהָם: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느 6:6

וְאַתָּה הִנֵּה לָהֶם לְמֶלֶךְ כְּדִבְרֵים הָאֵלֶּה:

너는 이 말들과 같이 그들에게 왕이 되려고 한다.

사 1:18

אִם־יִהְיוּ חֲטָאֵיכֶם כְּשָׁנִים כְּשֶׁלֶג לְבַיְנוּ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헬라어에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시작을 의미하는 ἀρχομαι, μέλλω 와 같은 동사들을 사용한다. 둘째, γίνομαι 와 같은 동사가 기동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셋째, 선행하는 단순 과거형의 동작과 대조적인 동작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동작이 다른 동작에 의해서 중단될 때 두번째 동작에 기동상의 의미가 발생한다(참 R 885).

고후 3:1

Ἀρχόμεθα πάλιν ἑαυτοὺς συνιστάνειν;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부정사 συνιστάνειν 가 시작 동사의 목적어로 와서 추천하는 것을 시작하다의 의미가 되었다.

막 2:15

γίνεται κατακεῖσθαι αὐτὸν ἐν τῇ οἰκίᾳ αὐτοῦ

그가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였다.

앉아 있을 때 되어진 일이라는 문장의 시상적 의미는 기동상을 암시한다

마 5:2 (R.885)

ἀνοίξας τὸ στόμα αὐτοῦ,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ύς

그의 입을 연 후에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순과거 분사 ἀνοίξας τὸ 의 동작이 그와 다른 동작인 ἐδίδασκεν 라는 동작에 의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동상으로 본다.

+ 상, 시상(aspect)

↔ 지속상(durative)

= 시작상(ingressive)

부정 관사(不定 冠詞)

indefinite article

불특정한 개체나 비한정의 개체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사.

영어 indefinite는 라틴어 indefinitus (무제한, unlimited)에서 왔다. 고대 영어에서는 수사인 an (= one)에서 왔다. 영어에서는 a, an과 같은 것이고, 우리 말에서는 ‘하나의’ 또는 ‘어느’, ‘어떤’ 따위의 뜻이다. “주로 인도유럽어에서, 명사가 불특정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 앞에 덧붙여지는 관사(冠詞)”(표준국어대사전). 성경 히브리어에는 부정관사가 없으므로 명사의 한정 여부는 문맥으로 결정한다.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고 정관사만 있다. 비한정 주어 사용되기도 한다(참. R 720).

막 4:25(R 720)

ὅ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대명사 ὅς가 복합관계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 관사(article), 한정사(determinative)

↔ 정관사(definite article)

비한정 대명사(非限定 代名詞), 부정 대명사(不定 代名詞)

indefinite pronoun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서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지 않는 비한정의 대명사(일반적인 것으로 사람, 사물 등).

영어에서는 (1) one, (2) all, both, (3) each, every, (4) some, any, (4) no, none, (5) either, neither, (6) other(s), another, (7) each other, one another 등이 있다(참. 조성식 외; RDLL).

히브리어에서 부정 대명사는 영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영어에서 부정 대명사로 취급하는 것 중 all, every 등과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כָּל은 명사로 분류되므로 히브리어에서는 부정 대명사가 아니다.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부정 대명사는 כִּלְמִי(어떤)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수사에 속하는 אֶחָד라는 단어가 부정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04).

삼상 21:2 (히, 21:3)

וְאַתְּ-הִנֵּנִי יוֹדְעֵתִי אֶל-מְקוֹם כִּלְמִי אֶלְמוֹנִי

내가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장소로 (오라고) 알렸다.

창 29:20

וַיְהִי בְעֵינָיו כְּיָמִים אֶתְלָּים בְּאַהֲבָתוֹ אֶתָּהּ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것은(7 년은) 그의 눈에 며칠과 같았다.

헬라어는 $\pi\alpha\varsigma$, $\tau\iota\varsigma$ 와 같은 부정대명사가 있다. $\pi\alpha\varsigma$ 의 경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모두', '전체'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각각'의 뜻이 되기도 한다(참. R 720; BDF §130; W 347). $\tau\iota\varsigma$ 의 경우, 액센트가 있으면 의문대명사가 되고, 액센트가 없으면 부정대명사가 된다.

마 27:25

$\pi\alpha\varsigma$ ὁ λαὸς εἶπεν

모든 백성이 말했다

$\pi\alpha\varsigma$ 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요 2:10

$\pi\alpha\varsigma$ ἄνθρωπος πρῶτον τὸν καλὸν οἶνον τίθησιν

모든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놓는다

$\pi\alpha\varsigma$ 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은 '모두'의 의미이다.

롬 10:11

$\pi\alpha\varsigma$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κατασχυνοθήσεται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pi\alpha\varsigma$ 는 믿는 모든 각각의 사람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의미이다.

요이 1:10

Εἰ **τις** ἔρχεται πρὸς ὑμᾶς, καὶ ταύτην τὴν διδαχὴν οὐ φέρει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 온다면

τις 가 비한정적인 사람인 '어떤'의 의미를 가리킨다.

비한정 주어(非限定主語)

indefinite subject

특정한 언어 외적 지시물이 없는 명사 혹은 대명사(PDSBH).

문법적으로는 주어이지만,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Soldiers are trained for combat,”에서 주어인 soldiers 는 문법적인 주어로서 ‘군인 일반’이지, 특정한 군인을 가리키지 않는다(포히). 문장에서 주어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거나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 않을 때 그것을 비한정주어(indefinite subject)라 부르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02-103).

대하 15:5

וּבְעֵתָם הָיָה אֵין שְׁלוֹם לְיוֹצֵא וּלְבָא

그 때에 나가는 자나 들어가는 자에게 평화가 없었다.

수 1:5

לֹא־יִתְּנָב אִישׁ לְפָנָיִךְ

네 앞에 사람이 서지 않을 것이다.

↔ 한정적(definite)

비한정성(非限定性)

indefiniteness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서 정의할 수 있는 특정한 혹은 배타적인 지시물(사람, 장소, 사물 등)을 가리키지 않는 성질.

비한정성(indefiniteness)이란 “단어, 구, 구문 등에서, 특정하게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identifiable) 지시어(reference)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ODEG). 비한정성은 한정성과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한정적인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한정성이란 한정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을 말한다. 한정성은 '분명성', '명료성', '친숙성' 등과 비슷한 개념이므로 비한정성이란 화자/저자나 청자/독자에게 친숙하지 않으며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정적(definite)인 것과 대조되는 비한정적인(indefinite) 것을 가리켜 비한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참. Rodrigue 104).

동사 없는 명사문장이 존재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한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정성이 높은 것이 주어이며, 한정성이 낮은 것이 술어이다.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는 한정성이 높으며, 형용사, 부정사 등의 한정성이 낮다'와 같이 단어의 형태나 품사로 한정성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용하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비한정성은 표면적인 형태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화자/저자와 청자/독자의 정체, 그들의 이전 대화(혹은 기록)와 공유된 지식,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과 맥락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로, **אֱנֹכִי הַמֶּלֶךְ**라는 구는 정관사가 포함된 명사구이므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한정적인 명사구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열왕기상 9:22 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문맥이므로 비한정적인 명사로 분류해야 하고 여호수아 10:24 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문맥이므로 한정적인 명사로 분류해야 한다

↔ 한정성 (definiteness)

Hawkins, J. A.,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1978.

직설법(直說法)

indicative

화자가 발화 내용(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을 실제적이고(actual), 사실적인(real) 것으로 판단하여 표현하는 서법.

동사를 시제(tense), 시상(aspect), 법(mood)으로 표현할 때 직설법은 법(서법)에 속한다. 영어의 전통 문법은 라틴 문법을 따라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의 세 가지로 구분해 왔다(ODEG). 직설법은 이 세가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RDLL).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서법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서법(fact-mood)이라 부르기도 한다. 명령법, 가정법, 기원법 등과는 달리 직설법은 화자의 심리 상태나 태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많으므로 중립서법(neutral mood)이라 부르기도 한다(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의 활용에서 직설법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완료형, 미완료형, 도치바브(바브연속) 미완료형, 도치바브(바브연속) 완료형으로 나타난다(참. 조성식 외; PDSBH; Rodrigue, 105).

요 15:1

Ἐγὼ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동사 εἰμι 는 직설법으로 계사로 사용되었다.

히 4:9

ἀπολείπεται σαββατισμὸς τῷ λαῷ τοῦ θεοῦ.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져있다.

동사 ἀπολείπεται 는 직설법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 서법(mood)

≡ 가정법(subjunctive mood), 명령법(imperative mood), 기원법(optative mood)

간접 화법(間接話法)

indirect speech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화자의 말을 화법 동사를 이용하여 종속절로 전달하는 발화 행위

‘oratio obliqua’라고도 한다. 간접 화법은 화자의 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화자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따위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으로 발화자와 전달자가 뚜렷이 구분된다. 직접 화법에서의 동사는 발화자와 일치하나 간접 화법에서의 동사는 전달자와 일치한다. 직접 화법은 대개 큰따옴표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표현하나, 간접 화법은 그러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간접 화법에서 동사는 주절을 이끌고 화자의 말은 종속절로 취급되며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예로 아래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CDEG).

직접 화법: Captain Oates said as he went out into the blizzard: “I may be away for some time.”

간접 화법: Oates said as he went out into the blizzard that he might be away for some time.

직접 화법은 화자의 말을 가장 직접적이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말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 화법은 간접적으로 화자의 말을 전달한다. 이 때 주어의 인칭, 시제, 시간과 장소 부사 및 대명사등의 발화지시사가 바뀐다.

히브리어의 경우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생략된(asyndetic) 문장도 있고,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간접 화법을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직접 발화를 표현하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인지를 문맥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참. 이정민 외; Rodriguez 105).

창 36:33

אָמַר מֶה־מַּעֲשִׂיָּם:

그는 너희의 일이 무엇이냐고 말할 것이다.

출 6:6

לֵבֹן אָמַר לְבְנֵי־יִשְׂרָאֵל אֲנִי יְהוָ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라.

왕상 18:8

לָךְ אָמַר לְאֶדְנֶיךָ הִנֵּה אֵלֵיהֶו:

너는 가서 너의 주인에게 엘리아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헬라어에서 간접화법은 주로 두 가지 용법에서 사용된다. 지각 동사나 의사소통 동사와 같이 부정사가 나올 때와 지각 동사나 의사소통 동사 다음에 ὅτι 목적절이 나올 때이다 (참. W 456-458, 603-605). 헬라어의 경우 간접화법을 위해 접속사 가 사용된다(R 1027). 그런데 직접 화법인 경우에도 접속사 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용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R 1028).

막 8:29 (W 604)

ὁμοῖς δὲ τίνα με λέγετε εἶναι;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직접화법으로는 '내가 누구냐?'이지만 이것을 간접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5:17 (W 457)

Μὴ νομίσητε **ὅτι** ἦλθον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όμον ἢ τοὺς προφῆτας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지하러 왔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간접화법에 사용된 경우: 행 9:38

οἱ μαθηταὶ ἀκούσαντες **ὅτι** Πέτρος ἐστὶν ἐν αὐτῇ ἀπέστειλαν δύο ἄνδρας πρὸς αὐτὸν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안에 있다고 전해 듣고 남자 둘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직접화법에 사용된 경우: 행 25:8(R 1028)

τοῦ Παύλου ἀπολογουμένου **ὅτι** οὔτε εἰς τὸν νόμ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οὔτε εἰς τὸ ἱερὸν οὔτε εἰς Καίσαρά τι ἥμαρτον.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든, 성전에 대해서든, 가이사에게든,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화법(speech)

↔ 직접 화법(direct speech)

인도유럽어(印歐語)

Indo-European languages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아시아 일부, 인도 중부까지 사용되는 거대한 동족어에 속하는 언어군

인구어(印歐語)라고도 부르는 이 언어에는 헝가리어와 핀란드어와 터키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언어들과 인도어가 속한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절반 정도인 약 30억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유럽어라는 용어는 언어들 간의 친족 관계를 연구하는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을 다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18세기말 영국의 문헌학 학자인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가 산스크리트어를 발견하고, 이를 유럽의 언어들과 비교하여 친족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19세기초 덴마크의 라스무스 라스크(Rasmus Rask)와 독일의 야콥 그림(Jakob Grimm) 등의 노력으로 이 용어가 확립되었다. 이 용어는 비교언어학에서 사용되었다(참. 조성식 외).

인도유럽어족은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하위 어군으로 분류된다. (1) 인도-이란어파(혹은 아리안어파. 인도계로서 베다의 찬미가, 고전 산스크리트어. 이란계로서, 현대 페르시아어, 다리우스 왕의 비문), (2) 아르메니아어파, (3) 알바니아어파, (4) 토카리아어파, (5) 아나톨리아어파(히타이트어), (6) 발트-슬라브어파, (7) 그리스어파(Hellenic, 미케네어, 이올리아어, 도리아어, 애티어-이오니아어), (8) 이탈리아어파, (9) 켈트어파, (10) 게르만어파가 있다(참. 조성식 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도유럽어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인도어 등이다(참. 김진우 249-261; 김방한 외 226-234; Theodora Bynon 262;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05).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등이 인칭, 성, 수에 따라 활용된다. (2) 격에는 8개까지 재구성될 수 있다. (3) 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단수, 쌍수, 복수). (4) 형용사와 명사의 일치,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있다. (5) 시제, 서법, 시상이 활용에 따라 변화한다(RDLL; LSNTG 233-241).

김진우, 『언어』, 서울: 탐출판사, 1990.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1.

Bynon, Theodora,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부정사(不定詞)

infinitive

인칭, 시제, 시상(상), 서법, 수의 범주로 한정되지 않는 비한정의 동사형.

부정사라는 영어 infinitive는 라틴어에서 ‘무제한적, 불확정적’을 뜻하는 infinitivus에서 나왔다. 영어에서는 동명사, 분사와 더불어 준동사(verbal)의 하나이며, ‘to’와 함께 쓰기도 하고 ‘to’ 없이 단독으로 쓰기도 한다. 단독으로 쓰는 부정사를 원형부정사(또는 ‘to’ 없는 부정사)라 부르는데, 원형부정사보다는 ‘to’ 부정사가 많이 사용된다.

부정사는 동사적인 성격과 명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동사적 성격으로는 목적어, 부사를 취할 수 있다. 명사적 성격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다.

부정사의 용법에는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 있을 수 있다(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05).

히브리어에서 부정사는 연계형과 절대형으로 나뉘어지며, 부정사 연계형은 일반적인 부정사와 용법이 거의 같고 부정사 절대형은 보다 특이한 것으로 여러가지 특별한 기능을 한다(참. GKCS § 45a; JMK § 49a).

헬라어에서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실명사적 용법, 독립적 용법이 있다. 부사적 용법에는 목적, 결과, 시간, 이유, 수단, 보어적 용법이 있고, 실명사적 용법에는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동격, 주해격(epexegetical)이 있으며, 독립적 용법으로는 명령법과 절대법이 있다. 부정사이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며 관사가 올 때는 중성 취급한다. 특별히, 부사적 용법에서 전치사와 부정사가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참. W 587-611; R 1051-1095; S 437-454).

(1) 부사적 용법

마 5:17 (W 591)

ἦλθον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όμον

내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왔다.

부정사 καταλῦσαι 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마 27:31 (W 591)

ἀπήγαγον αὐτὸν εἰς τὸ σταυρῶσαι

십자가에 못박기 위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갔다.

전치사 εἰς 와 부정사 σταυρῶσαι 가 같이 사용되면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다.

눅 5:7 (W 593)

ἐπλησαν ἀμφοτέρα τὰ πλοῖα ὥστε βυθίζεσθαι αὐτά

그들이 두 배들을 채웠다. 그래서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접속사 ὥστε 와 부정사 βυθίζεσθαι 는 결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 26:32 (W 595)

μετὰ δὲ τὸ ἐγερθῆναι με προάξω ὑμᾶ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전치사 *μετά* 목적격과 부정사가 같이 사용되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목적어 *με* 가 부정사 *ἐγερθῆναι* 의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된다.

눅 3:21 (W 595)

ἐν τῷ *βαπτισθῆναι* ἅπαντα τὸν λαόν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전치사 *ἐν* 과 부정사 *βαπτισθῆναι* 가 같이 사용되어 같은 시간을 나타낸다.

막 4:6 (W 597)

διὰ τὸ μὴ *ἔχειν* ῥίζαν ἐξηράνθη

그것이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랐다.

전치사 *διὰ* 와 부정사가 같이 사용되어 이유를 나타낸다.

빌 1:12 (W 599)

Γινώσκειν δὲ ὑμᾶς βούλομαι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목적어 *ὑμᾶς* 의 목적보어로 부정사 *Γινώσκειν* 가 사용되었다.

(2) 실명사적 용법

빌 1:21 (W 601)

Ἔμοι γὰρ τὸ *ζῆν* Χριστὸς καὶ τὸ *ἀποθανεῖν* κέρδος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은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되었고 둘 다 주어로 사용되었다.

요 4:32 (W 607)

ἐγὼ βρῶσιν ἔχω φαγεῖν ἣ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주해적 용법으로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이라는 목적 보어를 취하는데 이 목적보어는 목적어가 어떤 양식인지를 설명해준다.

(3) 독립적 용법

롬 12:15 (W 608)

χαίρειν μετὰ χαιρόντων, *κλαίειν* μετὰ κλαιόντων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드물지만, 부정사가 명령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χαίρειν* 와 *κλαίειν* 둘 다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

약 1:1 (W 609)

Ἰάκωβος, ... *χαίρειν*

야고보는 ... 문안한다

드물게 부정사가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의미가 된다.

부정사 절대형(不定詞 絕對形)

infinitive absolute

오직 히브리어에만 나오는 형태로서, 불변사와 같이 형태의 변화가 없다. 접미사나 접두사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되는 부정사.

부정사 절대형은 영어의 부정사처럼 시제, 시상, 법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태적으로는 동사에 속하나 동사의 활용을 하지 않는다. 부정사 절대형은 부정사 연계형에 비해 빈도수가 매우 낮으며(약 11%) 매우 다양한 용법을 갖는다.

(1) 부정사 절대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법은 동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동사와 동일한 어간을 사용하여 표현하며, 동사 뒤에서 사용되는 경우(약 9%)보다는 동사 앞에서 사용되는 경우(약 91%)가 훨씬 더 많다.

(2) 부정사 절대형은 동사의 행동이 지속되거나 점진적, 연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3) 부정사 절대형이 다른 동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의 역할을 한다.

(4) 단독으로 사용되면서 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동사의 명령형, 완료, 미완료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정동사를 사용하는 대신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한다면 명령형, 완료, 미완료의 기능을 가지면서 강조 등의 기능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참. GKCS § 113; JMK § 123; WSK 201-212; Rodrigue 105-106).

(1) 동사 앞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예

삿 13:22

וַיֹּאמֶר מִנּוּחַ אֶל-אִשְׁתּוֹ מוֹת נָמוּת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2) 동사 뒤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예

민 23:11

וְהָיָה בִּרְכָתְךָ בְּרָךְ:

보라, 너는 정말 축복했다.

(3) 동사의 점진적, 지속적 행동을 가리키는 예

삼상 19:23

וַיֵּלֶךְ הָלוֹךְ וַיִּתְנַבֵּא

그는 계속해서 걸어가며 예언했다.

(4) 주어로 사용된 예

잠 25:27

אֲכָל דְּבַשׁ הָרִבּוֹת לֹא-טוֹב (GKCS § 113b)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5) 목적어로 사용된 예

삼상 1:9

וַתֵּקֶם חָנָה אַחֲרַי אֲכָלָה בְּשִׁלָּה וְאַחֲרַי שָׁתָה
 한나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

(6) 부사로 사용된 예

수 11:11

וַיָּבֹאוּ אֶת-כָּל-הַנֶּפֶשׁ אֲשֶׁר-בָּהָּ לְפִי-חֶרֶב הַתָּלָם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기까지 칼로 쳤다.

(7) 명령으로 사용된 예

신 5:12

שָׁמֹ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8) 완료로 사용된 예

창 41:43

וַיִּתֵּן אֹתוֹ עַל כָּל-אֶרֶץ מִצְרָיִם
 그는 그를 온 이집트 땅 위에 (지도자로) 주었다(임명했다).

(9) 미완료로 사용된 예(WHSK 209)

민 30:2 (히, 30:3)

אִישׁ כִּי-יֵדֹר נָדָר לַיהוָה אוֹ-הַשָּׁבַע שְׁבַעָה לְאַסֵּר אֶסֶר עַל-נַפְשׁוֹ
 남자가 여호와께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하여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하자.

+ 부정사(infinitive)

↔ 부정사 연계형(infinitive construct)

부정사 연계형(不定詞 連繫形)

infinitive construct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infinitive absolute)과 대비되는 부정사의 종류로서, 인칭대명사의 소유격과 함께 나오거나, 대개는 전치사 뒤에 나타나지만, 전치사 없이도 사용되는 부정사.

부정사 연계형은 영어의 부정사처럼 시제, 시상, 법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형태적으로 동사에 속하나 동사의 활용을 하지 않는다. 부정사 연계형은 부정사 절대형에 비해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약 89%), 일반적인 부정사의 용법을 갖는다. 부정사 연계형은 독립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전치사와 함께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92%). 전치사와 함께 오는 경우 **לְ**와 함께 오는 것이 가장 많고(74%), 그 외에 **בְּ**, **כְּ** 등 다른 전치사와 함께 온다. 부정사 연계형은 대명사 접미사를 갖기도 하는데, 그 경우 대명사 접미사는 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정사 연계형 바로 앞에 **כְּ**, **כִּי** 등의 전치사가 올 때는 종종 '할 때'라는 부사구로 해석되며, 대명사 접미사와 함께 온다면 **בְּזִכְרֵנוּ**(우리가 기억할 때)와 같이 대명사 접미사는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한다. 부정사 연계형은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부사어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며, 동명사가 없는 히브리어에서 동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참. 권성달, 『성경히브리어학』, 93-94; 『구약성경히브리어』, 103-104; GKCS § 114; JMK § 124; WHSK 192-200; Rodrigue 106).

(1) 주어로 사용된 예

창 2:18

לֹא-טוֹב הָיְוָה הָאָדָם לְבַדּוֹ

그 사람이 그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2) 목적어로 사용된 예

신 5:25

אֲנִי-יֹסֵפִים אֲנַחְנוּ לְשִׁמְעַת אֶת-קוֹל יְהוָה אֱלֹהֵינוּ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듣기를 더한다면

(3) 형용사로 사용된 예

수 10:12

בַּיּוֹם תָּתַ יְהוָה אֶת־הָאֹמֶל לִפְנֵי בְנֵי יִשְׂרָאֵ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주시던 날에

(4) 부사로 사용된 예

삿 10:1

וַיָּקָם אַחֲרָי אַבְיִמֶלֶךְ לְהוֹשִׁיעַ אֶת־יִשְׂרָאֵל תּוֹלַע בֶּן־פוֹאָה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아비멜렉 뒤에 일어났다.

(5) 동명사로 사용된 예

창 2:16

וַיִּצַּח יְהוָה אֱלֹהִים עַל־הָאָדָם לֵאמֹר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 부정사(infinitive)

↔ 부정사 절대형(infinitive absolute)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율판』, 목양, 2015.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 그리심, 2015.

삽입사(插入辭), 접요사(接腰辭)

infix

어근(root)이나 어간(stem)의 중간에 첨가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거나 파생어를 만드는 형태소.

영어 infix는 라틴어 *infigere* (견고하게 삽입하다, 'to set firmly into')에서 나왔다. 국어 문법에서는 접요사 혹은 삽입사라고 부른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는 접미사와 접두사가 대부분 사용되지만, 삽입사는 피엘형에서 중앙자음을 중복할 때 나타난다(포켓히브리어). 셈어 중에서 삽입사가 나타나는 언어는 대표적으로 아랍어와 우가리트어가 있다. 아랍어에서는 동사의 10가지 유형 중 제8형에서 'ت(t)'라는 삽입사가 들어간다. 우가리트어에서도 동사의 유형에서 아랍어와 같이 't'라는 삽입사가 들어가는 것이 발견된다. 셈어 외에 삽입사가 발견되는 언어로는 캄보디아어, 수단어, 타갈로그어 등이 있다. 헬라어에는 삽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이종택 81; 요제프 트롭퍼 101; Rodrigue 106).

+ 접사(affix)

이종택, 『현대표준아랍어』, 서울: 찰람, 2014.

요제프 트롭퍼, 『우가리트어 문법』, 주원준개역,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0.

굴절(屈折)

inflection

단어의 어미를 변화시켜 문장의 문법기능을 표시하는 굴절어에서, 명사의 성, 수, 격을 나타내는 곡용(declension)과 동사의 시제, 수, 인칭, 태를 나타내는 활용(conjugation)을 가리키는 현상.

영어 inflection 은 라틴어 inflexio (구부리다, ‘bending, modification’)에서 나왔으며, 영문법에서 ‘굴절’이라고 부른다(조성식 외). 굴절은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인도유럽어족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굴절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명사, 대명사, 형용사의 성, 수, 격을 나타내기 위한 굴절은 곡용(declension)라고 한다. (2) 주로 동사의 시제, 수, 인칭, 태를 나타내는 굴절은 활용(conjugation)이라고 한다(조성식 외).

– 곡용(declension), 활용(conjugation)

시작상(始作相)

ingressive

기동상과 동일하게 동작이나 상태가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작의 양태나 시상.

영어 *ingressive* 는 라틴어 *ingredi* (시작하다, 들어가다)에서 나왔다. 문법에서 시작상은 기동상(*inchoative*)과 동의어이며, 동작이나 상태가 갑자기 시작됨을 나타낸다. 히브리어에서 시작상은 피엘과 히필형에서 동작의 대상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참. IBHS §11c, 11d.). 니팔형은 재귀와 수동의 의미를 가지므로, 시작상을 표현하기도 한다. 준-상태동사들은 상태뿐 아니라,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묘사하므로 시작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작상의 동사들은 상태의 개시나 변화의 동사들(*become, come, grow*)을 포함한다(참. PDSBH)

즉각상(卽刻相), 순간상(瞬間相)

instantaneous

동사의 시상(상)에서 습관적, 지속적, 무시간적인 동작과는 반대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을 가리키는 상.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에서 명령형, 분사, 부정사를 제외한 정동사의 형태는 어간에 접두사를 첨가한 형태와 접미사를 첨가한 형태로 뚜렷이 나뉘어진다. 이 두 형태를 카탈, 익톨로 부르기도 하고 완료, 미완료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완료, 미완료에 해당하지 않는 동작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 때는 즉각적인 시상과 지속적인 시상을 추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카탈에 해당하는 시상은 완료뿐 아니라 즉각적인(혹은 순간적인) 시상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익톨에 해당하는 시상은 미완료뿐 아니라 지속적인 시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카탈은 그 시상의 성격상 과거시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현재나 미래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때는 완료의 개념보다는 즉각적인 시상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작이 임박했음을 시사해 주거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참. GKCS § 106m-n; JMK § 111c-e).

신 2:24

רָאָה נְתַתִּי בְיָדְךָ אֶת־סִיחֹן מֶלֶךְ־חֲשֹׁבֹן הָאֲמֹרִי וְאֶת־אֲרָצוֹ

보라, 내가 네 손에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 형태(נְתַתִּי)는 어간에 접미사를 추가하여 만들어진 카탈형으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기 보다는 시혼과 그의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이나 다름 없이 즉각적으로 줄 것임을 가리키거나 시혼과 그의 땅을 반드시 주고야 말 것이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삼하 15:33

אִם עֲבַרְתָּ אִתִּי וְהָיְתָ עָלַי לְמַשָּׂא:

만일 네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 형태(עֲבַרְתָּ) 역시 카탈형으로 완료를 나타내는 동작이라기 보다는 즉각적인 동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지속적인(durative)

도구격(道具格)

instrument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거기에 참여하는 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표현하는 격.

격체계를 가지고 있는 인도유럽어에서는 원래 수단, 도구, 재료, 정도 등을 나타내는 격이 있었으며, 그것을 조격(助格)이라고 부른다. 산스크리트어나 슬라브어에는 조격이 나타난다. 헬라어, 라틴어, 게르만어 등에서는 조격이 여격이나 탈격과 융합되었다. 고대 영어에서는 이러한 여격을 수단의 여격이라고 부른다(조성식 외). 일반적으로 도구뿐 아니라 수단, 재료, 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주로 여격(dative case)이다.

격체계가 없는 언어에서는 주로 전치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 도구를 표현한다.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전치사 with 나 by 로 도구를 표현한다.

성경 히브리어는 격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현대 영어에서와 같이 전치사(주로 כּ)로 도구를 표현하며, 때로는 전치사 없이 표현하기도 한다. (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09).

(1) 전치사가 사용된 예

민 31:8

וְאֵת בְּלָעַם בֶּן-בְּעֹזַר הָרֶגְוּ בַּחֶרֶב:

그들은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레 9:11

וְאֵת-הַבָּשָׂר וְאֵת-הָעוֹר שָׂרָף בְּאֵשׁ מְחוּץ לַמִּתְנָה:

그는 그 고기와 가죽을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다.

(2) 전치사 없이 사용된 예

왕상 12:18

וַיִּהְיוּ כָּל-יִשְׂרָאֵל בּוֹ אֶבֶן וַיָּמָת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으며 그는 죽었다.

수단이나 방법을 표현하는 방식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전치사나 여격을 통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표현한다(참. R 582; W 162-163).

(1) 전치사가 사용된 예

엡 1:1 (R. 582)

Παῦλος, ἀπόστολο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ιὰ θελήματος θεοῦ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전치사 διὰ 와 소유격은 수단을 나타낸다.

마 1:22 (W 164)

ἵνα πληρωθῇ τὸ ῥηθὲν ὑπὸ κυρίου διὰ τοῦ προφήτου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 의해서 말씀되어진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전치사 *διά* 와 소유격은 중간에 매개하는 행위자를 가리키고, 전치사 *ὑπο* 와 소유격은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행위자를 가리킨다(참. W 164).

(2) 격이 사용된 예

마 8:16 (W 162)

ἐξέβαλεν τὰ πνεύματα λόγῳ

그가 말씀으로 영들을 쫓아내었다.

여격인 *λόγῳ* 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강의형(强意形)

intensive

히브리어 동사형에서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형태소적 구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강의’(强意, intensive)는 ‘강의어’ 强義語라는 명칭으로, “서술의 내용이나 특성의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로 정의된다(조성식 외). 따라서 정도(程度)의 부사(adverb of degree)가 대표적인 강의어이다. 예로, “Pretty good, quite strong, so large, rather quiet, highly desirable, terribly cold, amazingly calm, dreadfully tired, simply ridiculous”를 들 수 있다(조성식 외).

그렇지만, 히브리어 문법에서 ‘강의형’이란 ‘강조’(emphasis)와는 다른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 히브리어 피엘형은 세 어근 동사에서 두 번째 자음을 중복하고 있다. 전통적인 문법학자들은 이 형태소가 동사의 기본 의미(칼형, Qal)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강의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로, ‘죽이다(קטל)’의 피엘형은 ‘강렬하게 죽이다’(קטל), ‘깨뜨리다’(שבר)의 피엘형은 ‘박살내다’(שבר)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더 이상 피엘을 강의형으로 보지 않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적’(factitive)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헬라어의 ‘강의형’은 히브리어와 기본적으로 의미가 다르고 영문법의 ‘강조’(emphasis)와 유사하며, 구체적으로 불변사와 대명사들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강의형 완료’(intensive perfect)는 “동사적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는 완료 시제 동사를 뜻한다”(PDSNTG). 그렇지만, 이것은 ‘강조적 용법’(emphasis)에 관한 것이므로 히브리어의 소위 ‘강의형’과는 개념이 다르다.

+ 동사(verb)

≡ 강조(emphasis)

= 피엘형(piel)

강의형 복수(强意形複數)

intensive plural

히브리어에서 명사의 의미나 개념에 확장, 위엄, 장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복수

영어에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지는 복수형으로서 시문(詩文)에 많이 나오며, 문법적으로 강의 복수(强義複數)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단수(policeman)로 사용하지 않고, 복수형(police)으로 사용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단지 개체의 복수성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공간적인 확장(확장의 복수, plurals of local extension), 어간에 내포된 개념의 특징의 초점화(추상 개념의 복수, abstract plurals), 그리고 ‘위엄, 장엄함’을 드러내는 기능(위엄의 복수, plural of majesty) 등을 갖고 있다(GKC §124a). ‘확장의 복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늘’(שָׁמַיִם), ‘물’(מַיִם, יַמִּים), ‘얼굴’(פְּנִים) 등이 있다(GKC §124b). ‘추상개념의 복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젊음’(בְּחוּרִים), ‘늙음’(זְקֵנִים), ‘처녀성’(בְּתוּלִים) 등이 있다(GKC §124d). ‘위엄의 복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나님’(אֱלֹהִים), ‘거룩한 자’(קְדוּשִׁים) 등이 있다(GKC §124g).

+ 복수형(plural)

= 존칭(honorific)

감탄사(感歎詞), 간투사(間投詞)

interjection

화자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

영어의 감탄사(interjection)는 라틴어에서 ‘사이에 던지다’(to throw between)라는 동사(intericere)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국어와 영어에서 감탄사는 하나의 품사로 간주되지만, 다른 품사들과는 달리 문장 안에서 다른 품사들과 통사적 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독립어로 분류한다.

영어에서 감탄사는 고전문법에서 8품사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감탄사는 ‘작은 단어 계열’에 속하며, ‘정상적인 절의 구조 밖에 있고’, 또한 ‘다른 단어들과 구문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ODEG), 문법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화법 문법’(grammar of speech)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CDEG).

문법에서 감탄사를 간투사(間投詞)라고도 부른다. 이 둘은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 둘을 구별하는 경우 ‘아이쿠’, ‘참’ 등을 감탄사로, ‘예’, ‘아니요’ 등을 간투사로 구분한다. 감탄사의 범위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감탄사를 간투사와 구별하는 이들은 감탄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려 하고, 그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들은 you know, bless me! 등과 같은 문장까지 감탄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이정민 외; 조성식 외; 서정수 138; Rodrigue 105).

히브리어 감탄사에는 의성어인 **הֵם**(헛!), **אָהָה**(아!), **אוי**(아이고!) 등과 같은 단어, 동사의 명령형인 **רֵאָה**, **הִבֵּה** 등과 같은 단어, **נָא**, **אָנָּא**, **בִּי** 등과 같이 간청을 표현하는 단어, **הִנֵּה**와 같이 주목을 끌기 위한 단어, **לָכֵה**와 같이 용기를 북돋우는 단어 등 다양하다. 또한 대개 의문대명사로 사용되는 **מָה**가 **מַה־טּוֹב וּמַה־נָּעִים**(시 133:1,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와 같이 감탄사로 사용되기도 한다(참. GKCS § 105; JMK § 105).

헬라어에서 감탄사는 의성어인 **ἔα**(아! 눅 4:34), **οὐα**(아하! 막 15:29), **οὐαι**(화로다! 계 8:13), **ὦ**(마 15:28) 등과 동사의 명령형인 **ἄγε**(들으라! 약 4:13, 5:1), **θεῦρο**(와라! 막 10:21, 요 11:43), **ἴδε**(보라! 요 1:29), **ἰδοὺ**(보라! 마 11:10, 계 14:14)와 같은 것들이 있다(참. R 302, 1193)

내적 수동태(內的受動態)

internal passive

성서 히브리어에서 동사 어간의 내부적인 요소로 표현되는 수동태.

히브리어에서 수동을 나타내는 모음은 원래 ‘u’였다. 피엘의 수동인 푸알과 히필의 수동인 호팔(원래는 후팔이었을 것으로 고려됨)에서는 완료와 미완료와 분사에서 ‘u’가 나타나며, 칼 분사 수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푸알과 호팔이 아닌 니팔과 히트파엘도 수동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래 수동을 나타내는 원시 모음 ‘u’를 통해 수동태를 표시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이를 내적 수동태라 부른다(참. JMK § 55b).

+ 수동태(passive)

의문사(疑問詞)

interrogative

질문(question)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질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단어

영어에서 의문사는 대부분 wh-로 시작된다(ODEG). 의문사에는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등이 있다. (1) who, what, which가 의문대명사로 사용되고, (2) whose, what, which가 의문형용사로 쓰이며, (3) when, where, why, how가 의문부사로 사용된다(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11).

히브리어에서 의문대명사는 **מִי**와 **מַה**이며, 의문부사는 **לָמָּה**, **אֵיךְ**, **כַּמָּה**, **אֵיפֶה**, **מָתַי**, **מָאֵז** 등이다. 히브리어 의문대명사 **מִי**는 'בְּרִמְיָהּ'(삼상 17:55,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와 같이 의문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히브리어 **מַה**는 전치사 **בְּ**와 함께 'בְּמָה אוֹשִׁיעַ אֶת־יִשְׂרָאֵל'(삿 6:15,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와 같이 의문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서 항상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의문불변사 해'를 의문부사의 범주에 넣기도 하나(GKCS § 100k; JMK §102i), 의문 불변사는 의문사 없는 yes/no 의문문 앞에 붙이는 것이어서 의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참. GKCS § 37, 100k, 137a-c; JMK § 37, 102i).

τίς 가 의문대명사나 의문형용사로 사용되며 가끔씩 의문 부사로 사용된다. 또한 양을 나타내는 πόσος 와 질을 나타내는 ποῖος 가 있다(참. W 345-346).

막 1:27(W 346)

τί ἐστὶν τοῦτο;

이것이 무엇이냐?

τί 가 의문대명사로 사용되었다.

마 5:46 (W 345)

τίνα μισθὸν ἔχετε;

너희가 어떤 상을 받겠느냐?

의문사 τίνα 가 명사를 수식하여 의문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행 1:11 (W 346)

τί ἐστήκατε [ἐμ]βλέποντες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왜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τί 가 의문 부사로 사용되었다.

눅 16:7 (W 346)

σὺ δὲ πόσον ὀφείλεις;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πόσον 이 양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로 사용되었다.

막 11:28 (W 346)

ἐν *ποίη* ἐξουσία ταῦτα ποιεῖς;

어떤 종류의 권세로 너는 이것들을 하느냐?

ποίη 가 질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로 사용되었다.

의문절(疑問節)

interrogative clause

주로 의문사를 이용하여 질문(question)을 표현하는 절이나 문장.

독립절과 종속절을 구분하기 위해 의문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둘의 구분 없이 의문문(interrogative sent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의문절이 독립절로 사용될 때는 대개 직접 의문문이라 부르고, 종속절로 사용될 때는 간접 의문문이라 부른다.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 의문절도 있으며,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문절도 있다. 대답을 필요로 하는 의문절이 있는가 하면, 대답이 필요 없는 수사적인 의문절도 있다(Rodrigue 111). 히브리어에서 의문절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불변사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אם**을 사용하여 의문절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간접 의문문에서 종속절로 사용되지만, 드물게 직접 의문문에서 독립절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사 앞에 의문절과 연관된 어떤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의문절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참. GKCS § 150; JMK § 161).

(1) **אם** 이 간접 의문문에서 사용된 예

창 15:5

וְסֵפֶר הַכּוֹכָבִים אִם־תּוּכַל לִסְפֹּר אֹתָם

네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지 세어 보라.

(2) **אם** 이 직접의문문에서 사용된 예

민 11:12

אִם־אֶנֶכִּי יִלְדֶּתִיהוּ

내가 그를 낳았습니까?

(3) 동사 앞에 의문절과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의문절의 예

창 50:15

וְהָשִׁיב יְשִׁיב' לָנוּ אֵת כָּל־הָרָעָה

그가 그 모든 악을 우리에게 정말 돌릴 것인가?

헬라어에서 의문절은 직접 의문절과 간접 의문절이 있다(참. W 345-346).

마 15:34(W 346)

πόσους ἄρτους ἔχετε;

너희가 몇 개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

πόσους 절은 독립절로 직접 의문문이다.

막 9:34(W 345)

γὰρ διελέχθησαν ἐν τῇ ὁδῷ **τίς** μείζων

왜냐하면 누가 가장 큰 지를 그들이 길에서 논쟁했기 때문이다.

τίς 절은 종속절로 간접 의문문이다.

의문불변사 헤(疑問不變辭 헤)

interrogative He

히브리어에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yes/no 의문문) 앞에 붙여 의문문을 만드는 헤.

의문불변사 헤를 의문사나 의문 부사로 부르기도 하나, מִי, מַה와 같은 의문 대명사나 לְמַה, אֵיךְ, כַּמָּה와 같은 의문 부사와의 구분을 위해 의문불변사(interrogative particle)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참. Blau 93). 의문불변사 헤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항상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며 그 단어 바로 앞에 붙는다. 특히 문두에서 사용되어 물음표 ‘?’와 같은 역할을 한다. 히브리어 의문불변사 헤의 본래 형태는 הָ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아랍어의 의문불변사 할(ه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참. 이종택, 현대표준아랍어, 도서출판 찰람, 2014: 163). 의문불변사 헤의 기본 모음은 하텡-파타흐로 הָ의 형태를 가지며 다음에 오는 문자에 점(다게쉬)을 붙이지 않는다. 의문불변사 헤 다음에 후음 문자가 오거나 합성슈바가 오는 경우, 헤의 모음은 הֶ, הֵ, הִ등을 갖는다(참. JMK §100i-n; GKCS §102i; 이종택, 163).

렘 37:17

הֵישׁ דְּבַר

말씀이 있는가?

삿 13:11

הֲאִתָּה הָאִישׁ

너는 그 사람인가?

+ 헤 (He)

+ 의문사(interrogative)

Blau, J.,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Wiesbaden: Harrassowitz, 1976.

이종택, 『현대표준아랍어』, 서울: 도서출판 찰람, 2014.

억양(抑揚)

intonation

문장의 문법 구조에 따라서 또는 서법에 따라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소리의 높낮이의 변조.

일반적으로 억양이라는 용어는 문장에서 연속된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강세(stress) 역시 음의 높낮이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억양과 연관되어 있으나, 한 단어 내에서 발생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음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상승음조 또는 오름음조(rising tone)라 하고, 내려가는 것을 하강음조 또는 내림음조(falling tone)라 하며, 같은 음으로 유지되는 것을 평음조(level tone)라 한다. 내림과 오름이 한 음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음절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리오름조라 한다. 억양은 단어의 강조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강세음절에 나타나는 음조를 핵음조(nuclear tone)라 한다. 음의 높낮이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나 대부분의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인 억양은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예로, 평서문이나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내림음조를 이루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오름음조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참. Wells & Colson, 65-66, 107, 120-121, 129;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12).

성서 히브리어는 기록된 문서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억양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5-10세기 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 우리에게 전수해 준 26개의 악센트 기호를 통해서 각각의 단어는 물론 한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억양을 짐작할 수 있다. 26개의 악센트 기호는 각각 음악의 악보와 같은 역할을 하며 매우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 부호와 악센트 기호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읽기의 전통은 오래동안 이어져 왔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오래 전부터 다양한 억양을 사용하여 읽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출신지에 따라 악센트의 악보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 회당에서 부르는 유대인들의 영창을 통해 성서 히브리어의 억양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참. JMK § 150; Joshua R. Jacobson, *Chanting the Hebrew Bible*).

+ 운율(metre)

Wells & Colson, 『음성학』, 이현복 편역, 서울: 탐구당, 1987.

Jacobson, Joshua R., *Chanting the Hebrew Bible*,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5.

자동사(自動詞)

intransitive verb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로서(표준국어대사전), 직접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영어 intransitive 는 라틴어 intransitivus (넘기지 않다, not passing over)에서 나왔다. 즉, 동사의 영향력이 목적어에 ‘넘어가지 않거나’ 혹은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꼭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타동사(transitive verb)와 대조된다. 예로, “뛰다, 죽다, 흐르다, 앓다, 돌다, 피다, 솟다” 등은 자동사이다.

그렇지만, 어떤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목적어를 갖지 않더라도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가다'(학교에 간다 / 학교를 간다), '타다'(비행기에 탄다 / 비행기를 탄다)와 같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멈추다'(차가 멈춘다 / 차를 멈춘다)와 같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참. 송창선 23-29; 이정민 외; 서정수 683; Rodrigue 112; PDSBH).

히브리어에서 טוב(좋다), קָיָם(강하다), קָמַל(크다), קָבַד(무겁다), יָטַק(작다), יָבֵה(높다) 등과 같이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상태동사(stative verb)는 모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에 분류된다.

헬라어에서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 없을 경우 자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필요할 경우 타동사가 된다.

막 5:42

ἀνέστη τὸ κοράσιον καὶ περιπατεῖ

그 소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걷고 있었다.

‘일어나다’와 ‘걷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이다.

행 3:15

τὸν δὲ ἀρχηγὸν τῆς ζωῆς ἀπεκτείνετε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주관자를 죽였다.

‘죽이다’라는 동사는 목적어 ἀρχηγὸν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동사이다.

+ 동사(verb)

≡ 상태동사(stative verb)

↔ 타동사(transitive verb)

송창선, 『국어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0.

도치(倒置)

inversion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나 문체 수사학적으로 정상적인 어순에 변화를 주는 것.

도치법의 영어 inversion 은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vertere, to turn)에서 나왔으며, 접두어 in이 붙어, ‘바깥 것을 안으로 바꾸다, 순서를 바꾸다’는 뜻을 가진 동사(invertere)에서 나왔다. 문법에서 도치법(倒置法) 혹은 어순 도치 라고도 하며, 문장 안에서 단어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기본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어순 도치를 통하여 강조하는 사항이 부각된다.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서의 정상 어순은 주어-동사이므로 동사-주어의 어순을 갖는 것은 전형적인 도치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도치는 의문문과 같이 문법적인 필요에 의한 필수적인 도치의 경우도 있고, 문체적이거나 표현의 강도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임의적인 도치의 경우도 있다. 정상 어순에서 어순이 바뀐 것이 도치이므로 도치된 문장을 파악하려면 정상 어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말은 자유 어순(free word order)의 특성을 가진 언어이고 격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도치의 범위가 매우 넓다(서정수, 1348-1359;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13). 예로, ‘나는 어제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라는 문장에서 가능한 도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를 새로운’과 같이 자유 어순의 언어에서도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사-주어-목적어의 어순을 가지므로 이에서 벗어난 것은 도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차대구법과 같은 평행법을 많이 사용하는 운문체에서는 도치가 자주 발생한다. 히브리어의 명사문장이나, 분사가 술어로 사용된 문장에서는 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정상적인 어순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통일된 견해가 없으며, 주어와 술어의 품사에 따라 어순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참. GKCS §142; JMK § 155k;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170-194).

헬라어의 문장의 순서도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사-주어-목적어/보어의 순서이다. 주어가 동사 앞으로 나오면 주어가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히 4:12

Zῶν ...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현재분사 **Zῶν** 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에 배치하였다.

≡ 어순(word order)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5 (2014), 170-194.

도치의 눈(倒置의 눈)

inverted Nuns

성서 히브리어의 본문비평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נ**을 뒤집어 표시해 놓은 것.

BHS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표시는 9번 나오는데, **נ**을 뒤집어 놓은 후 그 위에 점을 찍은 형태(**נ**)로 나타난다. **נ**을 사용하는 것은 **נקוד**(점이 있는)의 첫 자음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문에서의 **נ**과 구분하기 위해 뒤집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뒤집힌 눈의 역할은 성서 히브리어 본문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예로, 민수기 10장 34절 끝부분과 10장 36절 끝부분에 뒤집힌 눈이 있는데,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본문이 원래의 위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칠십인역의 경우 히브리어 본문의 민수기 10장 35-36절이 10장 33절과 34절 사이에 들어가 있다(참. 강성열 역 41-43; Tov 2012: 51; PDSBH).

민 10:34-36

וַעֲנֵן יְהוָה עָלֵיהֶם יוֹמָם בְּנִסְעָם מִן־הַמִּחָנֶה: **נ** ס
וַיְהִי בְנִסְעֵה הָאָרֶץ וַיֹּאמֶר מֹשֶׁה קוֹמָה | יְהוָה וַיַּפְצֹל אֶבְיָדָּהּ וַיִּגְסֹ מִשְׁנֵאֲיָדָּהּ מִפְּנֵי־
וּבְנֵהָ יֹאמֶר שׁוּבָה יְהוָה רַבְבוֹת אֱלֹפֵי יִשְׂרָאֵל: **נ** ס

불규칙(不規則)

irregular

표준형태나 규칙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현상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을 모두 불규칙이라 한다. 불규칙 동사 또는 변칙 동사(irregular verb), 불규칙 용언 또는 변칙 용언, 불규칙 형태 또는 변칙 형태 등과 같이 불규칙은 주로 형태론에서 많이 취급되고 있으나, 형태론은 물론 음운론, 통사론 등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참. 서정수, 604-611; Rodrigue 113). 영어에서 동사는 다양한 불규칙 형태를 가진다. 불규칙 명사는 복수형에서 나타난다(men, women, children, mice, teeth 등).

히브리어에서도 불규칙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전반에서 나타난다. **הַקְדָּשִׁים**과 같이 후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복합 슈바가 **ק** 밑에 붙는 현상은 음운론에서의 불규칙이라 할 수 있다. **יְהִי קֳאֲרָתִי**(창 1:14, 발광체들이 있기를 원하노라)와 같이 주어(발광체들)는 복수이지만 술어(있기를 원하노라)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통사론에서의 불규칙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형태론에서 불규칙이 많이 발생한다. **אִשָּׁה**(여자)의 복수형이 **אִשּׁוֹת**이 아닌 **אִשָּׁם**인 것은 명사에서의 불규칙 현상이다.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동사에서 불규칙이 많이 일어난다. 히브리어의 불규칙 동사는 약동사(weak verb)라고도 부르며, 성서 히브리어에 출현하는 모든 동사 중 빈도수 60위권 가운데 불규칙 동사는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또한 히브리어 동사의 7가지 유형에 대한 명칭이 불규칙동사인 **פָּעַל**을 어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을 보면, 히브리어의 불규칙 동사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언어는 불규칙이 있다. 헬라어는 품사별로 볼 때, 명사와 동사에서 불규칙이 많다. 제 3 변화 명사에 속하는 모든 명사는 불규칙이다. 제 3 변화 명사에 속하는 명사 **νύξ**의 소유격은 **νυκτὸς**이며 주격만 빼고 단수 복수의 모든 격 변화에서 불규칙한 소유격의 어근을 가진다. 동사의 경우, 제 2 단순과거에 속하는 동사들은 모두 불규칙이다. 동사 **βλέπω**의 제 2 단순과거는 **εἶδον**이다. 동사 **σπείρω**의 과거형은 **ἔσπειρα**인데 **σ** 대신에 **ρ**로 대체되어 불규칙이다. 동사의 태도 불규칙이 많다. 현재형 **ἔρχομαι**의 과거는 **ἔλθον**이다. 현재형에서는 디포넛트 동사이지만 과거에서는 디포넛트 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규칙이다.

≡ 변칙형태(anomaly)

반복상(反復相)

iterative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의 시상(相).

영어 iterative는 ‘다시, 두번’을 뜻하는 라틴어 iterum에서 나왔다. 문법에서 ‘반복적’이라는 용어는 동사의 시상과 연관된 것으로, 동사적 동작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다. 문법학자들에 따라 반복적인 동작을 습관적인 동작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PDSBH), 구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She kept hugging her cats*는 반복적이지만, *She likes to hug her cat*는 습관적이다.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는 습관과 반복이 겹쳐 있다(참. Rodrigue 115; PDSBH; Comrie 27-28).

우리 말에서는 “복수를 나타내거나 강조하기 위하여, 같은 어기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 음상을 조금씩 바꾸어 반복하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예로, ‘집집’, ‘방방곡곡’, ‘순간순간’, ‘하느작하느작’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복합 단어 유형(knock-knock, tick-tock)을 반복법(reduplicative)이라고 한다(ODEG).

히브리어에서 반복적인 동작은 어간에 접두사를 첨가한 익톨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의 시상을 완료/미완료, 즉각/지속 등으로 구분할 때 반복상은 지속상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이거나 순간적인 동작이 아니므로 지속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참. GKCS § 107b-g, 112e-o).

수 1:16

כָּל אֲשֶׁר-צִוִּיתֵנוּ נַעֲשֶׂה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학 2:19

מִן הַיּוֹם הַזֶּה אֶבְרָדָ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창 2:6

וְאֵד יַעֲלֶה מִן הָאָרֶץ וְהַשֶּׁקֶה אֶת-כָּל-פְּנֵי הָאֲדָמָה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며 모든 땅의 표면을 적시고 있었다.

헬라어 동사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에 대한 함의가 있다. 동사의 현재형이나 미래형은 반복상이나 지속상과 단순 발생 둘 다 의미한다. 그러나 동사 과거형의 경우 상이 나누어져 있는데, 미완료과거는 반복상이나 지속상을 뜻하고 단순과거는 단순 발생을 뜻한다(참. PDSNTG 76; W 520-521).

마 17:14 (W 521)

πολλάκις γὰρ **πίπτει** εἰς τὸ πῦρ

왜냐하면 종종 그가 불 가운데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시제인 **πίπτει** 는 반복상을 의미한다.

≡ 지속상(durative), 즉각상(순간상, instantaneous), 습관상(habitual)

Comrie, B., *Aspect—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여호와, 야웨

Jehovah

네 문자로 구성된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

‘여호와’라는 명칭은 주후 16세기부터 영국의 성경 번역(틴데일역, 위클리프역, KJV)에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기된 히브리어 יהוה를 음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네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룩한 네 글자’(tetragrammton, YHWH)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יהוה는 출애굽기 3:14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이름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약 6800번 이상 출현하는 이 단어는 주후 600-1000년경 활동하였던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부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모음과 함께 יהוה로 기록되었다(실제로 BHS 성경에는 총 6828번 중 31번만이 יהוה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797번은 자음 '헤' 위에 '오'(홀람) 모음이 누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사용된 모음은 원래의 모음이 아니고, אֲדֹנָי(아도나이, 나의 주님)라는 단어에서 모음만을 יהוה에 붙힌 것이다(알레프 아래에 있는 복합슈바는 후음 때문에 붙은 것이므로 후음이 아닌 요드 아래에는 단순슈바가 붙게 된 것임). 본래의 모음을 붙이지 않고 다른 단어의 모음을 붙인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만일 창세기 15:2과 같이 이 단어 앞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와서 יהוה אֲדֹנָי로 기록되어 있다면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는다). 이 단어의 원래 형태는 יהוה(야흐웨 또는 야흐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롬은 구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יהוה를 Adonai로 표기하였다(출 6:3). 우리말 번역에서는 ‘야훼’(공동), ‘주, 주님’(표준)으로 나온다. 최근의 영어 번역에서는 Yahweh가 주로 나오고 있다(참. GKCS § 17c, 102m; JMK §16f; Tov, 1992, 59; 장영일, “‘야웨’ 이름의 기원과 의미”, 104-136.).

장영일, “‘야웨’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2 (1996), 104-136.

지시형(指示形), 지시법(指示法)

jussive

화자의 의지, 바람, 소원, 요청 등을 표현하는 서법이나 그 형태

히브리어에서 지시형은 주로 2인칭과 3인칭에서 사용된다. 동사의 법에 속하여 지시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특히 3인칭에서는 ‘3인칭 의지법’으로 불린다(JMK §114g). 형태가 짧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주로 기본형 세 번째 자리에 헤가 오는 제3해 혹은 라메드-헤 동사에서) 단축형, 혹은 단축 미완료형이라고도 하며, 화자의 바람이나 소원을 표현하므로 회구법이라고도 부른다. 강동사의 지시형은 미완료형과 동일하므로 문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약동사에서는 끝음 탈락(apocopation)이 발생하므로, 끝에 나오는 후음 (대부분 ה)이 탈락한다. 보다 간결한 바람이나 요청을 할 때는 נָא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지시형의 부정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לֹא가 사용되지 않고 אַל이 사용된다. 지시형과 일반 미완료형이 서로 다른 형태보다는 동일한 형태를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으므로 일반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인지, 지시형으로 사용된 것인지는 문맥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참. GKCS §109; JMK §114 g-l; 박미섭 145-147).

왕상 8:57

יְהִי יְהוָה אֱלֹהֵינוּ עִמָּנוּ כְּאִשֶּׁר הָיָה עִם־אֲבוֹתֵינוּ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삿 18:25

אֶל־תְּשַׁמַּע קוֹלְךָ עִמָּנוּ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 44:33

יֵשֶׁב־נָא עִבְדְּךָ תַּחַת הַנֶּזֶר

부디 당신은 그 아이 대신에 당신의 종을(저를) 머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 12:11

אֶל־נָא תְּשֵׁת עָלֵינוּ חֲטָאת אֲשֶׁר נוֹאֲלָנוּ וְאֲשֶׁר חָטָאנוּ:

부디 당신은 우리가 어리석게 저지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에서는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관련이 없으나, 후기 호머 헬라어에서 미래 2 인칭이 지시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S 1917).

+ 직접 의지법 (direct volitive mood)

무시된 지시형

jussive neglected

히브리어에서 문맥상 지시형이 와야 할 곳에 사용된 일반 미완료형

히브리어에서 지시형은 일반 미완료형과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지시형과 일반 미완료형의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시된 지시형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시된 지시형은 제3해 동사(혹은 라메드-해 동사)나 제1요드 동사(혹은 페-요드 동사), 제2바브/요드 동사(혹은 아인-바브/요드 동사) 등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무시된 지시형이 사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앞이나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명령형이나 지시형이 사용될 경우 동일한 형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시형이 무시되기도 하고, 발음상의 문제, 운율상의 문제 등으로 지시형 대신 일반 미완료형을 쓰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참. GKCS §109 aN; JMK §114 gN).

창 19:17

הַמֶּלֶט עַל־נַפְשְׁךָ אֶל־תְּבִיט אַחֲרָיִךְ

너는 너의 생명을 피하라. 너는 네 뒤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תְּבִיט**는 기본형이 **נָבַט**인 히필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형태로 일반적인 미완료 형태이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시형인 **תְּבִיט**와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지시형 형태가 무시되었다. 지시형 형태가 무시되고 일반 미완료 형태를 취한 것은 아마도 앞에 나온 명령형 **הַמֶּלֶט**의 영향으로 보인다. 즉 ‘너는 피하라’와 연계하여 해석할 경우 굳이 지시형 형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화자의 의지와 바람을 표명하는 문맥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삿 11:37

וַתֹּאמֶר אֶל־אֲבִיהָ יַעֲשֶׂה לִּי הַדָּבָר הַזֶּה הַרְפָּה מִמֶּנִּי שְׁנָיִם חֳדָשִׁים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이 일이 제게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달간 저를 놓아 주십시오.

여기서 **יַעֲשֶׂה**는 ‘행해지기를 바랍니다’로 문맥상 지시형의 의미를 가지는데 형태적으로는 무시되었으며 뒤에 나오는 명령형인 **הַרְפָּה**(놓아 주십시오)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다.

창 41:33-34

וַעֲתָה יֵרָא פֶרְעָה אִישׁ נְבוֹן וְחָכָם וַיִּשְׁתַּחֲוּ עַל־אֶרֶץ מִצְרָיִם:

יַעֲשֶׂה פֶרְעָה וַיִּפְקֹד פְּקָדִים עַל־הָאָרֶץ וְחֹמֶשׁ אֶת־אֶרֶץ מִצְרָיִם בְּשָׁבַע שָׁנֵי הַשָּׁבַע: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식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 땅 위에 그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바로께서는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감독관들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이집트 땅을 정비하시기를 원합니다(혹은 이집트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 장 33 절의 동사 **וַיִּשְׁתַּחֲוּ**와 34 절의 동사 **יַעֲשֶׂה**는 일반적인 미완료 형태이지만 문맥상 ‘두시기를 원합니다’와 ‘행하시기를 원합니다’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각각 지시형 형태인 **וַיִּשְׁתַּחֲוּ**와 **יַעֲשֶׂה**가 되어야 하는데 그 형태가 무시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두 동사의

전후에 나오는 다른 동사와 평행적인 짝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즉
 33 절: 지시형(יָרָא)-일반형(וַיִּשְׁתְּהוּ), 34 절: 일반형(וַיַּעֲשֶׂה)-지시형(וַיִּפְקֹד).

ㄴ 지시형(jussive)

병치(並置), 병렬(並列)

juxtaposition

두 가지 이상의 단어, 구 문장을 연결이나 접속 표현 없이 나란히 배열하는 것.

‘연결 표현’이란 단순한 대등접속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과 같은 인과관계와 같은 표현이나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미 논리적 관계의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문장 단위에서의 병치는 모든 종류의 종속절을 배제한다. 병치는 명사나 형용사와 같은 단어뿐 아니라 구, 문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병치란 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나 문장에서 적용되나, unwillingness(un+ will+ing+ness)와 같이 한 단어에서 발생하는 것도 병치라 부르기도 한다(Rodrigue 116).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로 표현될 때만 병치라 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의 병치는 주로 단순접속사인 וְ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접속사 없이 표현되기도 한다. אֲשֶׁר, כַּאֲשֶׁר, בַּאֲשֶׁר, כִּי, אִם, טָרָם, בְּטָרָם, אֲזַי, כֵּן, כִּמוֹ, לְמַעַן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것은 병치라 할 수 없지만, יְהוָה אֱלֹהֵינוּ(우리 하나님 여호와), הַמֶּלֶךְ דָּוִד(다윗 왕)과 같은 동격은 병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두 문장의 병치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히브리어에서 וְ가 문장 사이에서 사용될 때 단순한 접속사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וְ로 연결되어 대등문으로 보이는 문장이라도, 심층적으로는 두 문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여러 종류의 종속절로 사용될 경우가 있으므로 표면적인 형태만으로 대등절과 종속절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브연속법과 함께 사용되는 문장을 병치로 보기도 하지만(GKCS §164 b), 계승, 결과,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병치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JMK §115 a). 바브연속법으로 사용된 것 중에 וַיֹּאכַל וַיִּשָּׂא(먹고 마셨다), וַיַּעַן וַיֹּאמֶר(대답하여 말했다), וַיִּבֶן ... וַיִּשָּׂא(소리높여 울었다) 등의 경우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병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참. 조성식 외; Rodrigue 116; GKCS §164 a-b; JMK §115 a, 118 k, 120 a, 131 a, 167 a, 170 c, 171 f).

삼상 19:3 (WHSK §512)

וְרֵאִיתִי מָה וְהִגַּדְתִּי לְךָ:

만일 내가 무엇을 본다면 나는 네게 말하겠네.

여기서 두 문장은 וְ만으로 연결되어 대등문으로 보이나, 첫째 문장을 조건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우므로 심층적으로는 대등문이 아닌 복합문으로 보아야 한다.

창 22:12 (JMK §170 c)

כִּי עָתָה יָדַעְתִּי כִּי־יְרָא אֱלֹהִים אֶתָּה וְלֹא חֲשַׁבְתָּ אֶת־בְּנֶךָ אֶת־יְחִידְךָ מִמֶּנִּי:

네가 네 유일한 자, 네 아들을 내게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기서 두 문장도 וְ만으로 연결되어 대등문으로 보이나, 둘째 문장이 첫째 문장에 대한 목적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단순 병치에 의한 대등문이라 볼 수 없다.

헬라어에서 병치는 단어조합(R 72, 163-165) 외에 문장과 관련해서는 부정과거시제와 미완료과거시제가 병치된 문장에 대해 언급된다. “부정과거시제가 막을 열고 미완료과거시제는 극을 진행시킨다”는 설명이다(R 838).

마 25:5 (R 838)

χρονίζοντος δὲ τοῦ νυμφίου ἐνύσταξαν πᾶσαι καὶ ἐκάθευδον

한데 신랑이 지체하자, 모두가 졸려서 잠을 자고 있었다.

는 부정과거 시제로 막을 열고, 은 미완료과거 시제로 극을 진행시킨다.

– 동격(apposition)

카드마

kadm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기, 시편,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생긴 모양이지만 לְאוֹרִי(창 1:5)과 같이 단어 끝에 오는 것은 연결 악센트가 아닌 파쉬타라 부르는 분리 악센트이다. 카드마는 파쉬타와 모양은 동일하나 וְקוֹ(창 1:9)와 같이 단어의 끝이 아닌 단어의 중간에 와야 한다. תְּהוֹ(창 1:2)와 같이 동일한 모양이 한 단어에 두 개가 표시되는 경우는 둘 중 왼쪽에 있는 것이 카드마가 아닌 파쉬타이며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강세의 표시이다(참. GKCS §15 g; JMK §15 g; 권성달 2015: 177.)

+ 악센트(accent)

카프

kaf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한 번째 문자.

카프는 손바닥(palm) 모양에서 그 문자가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K 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초기 가나안 문자에서는 다섯 개의 손가락이 포함된 모양이었으나,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영어는 네 개의 손가락만 흔적으로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정착된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는 손가락 모양을 볼 수 없고 손바닥 모양만 남아 있다. 카프는 열한 번째 글자이며, '2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자음 분류에서 카프는 무성 구개음에 속한다. 다게쉬의 유무에 따라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나누는데, 카프에 다게쉬가 있으면 파열음으로 영어의 [k] 소리가 나며, 다게쉬가 없으면 마찰음으로 아랍어의 'ح', 독일어 'buch' 에서 'ch'의 음가를 가진다(참. GKCS §5 b-d, §6 o-p; JMK §5 c-d, h, o; Yardeni 49-51).

+ 문자(letter)

카마쯔

kamatz

히브리어의 모음 중 장모음 아(ā) 음가를 갖는 것으로 자음의 아래에 ֿ로 표기한 것.

성경 시대에는 히브리어 모음의 음량이 달랐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를 때 카마쯔는 장모음 아(ā) 음가를 가졌을 것이며, 반면 파타흐(◌)는 단모음 아(a) 음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음량의 차이가 아닌 음색(혹은 음질)의 차이를 가진 티베리아의 모음 체계에서는 파타흐가 ‘아’ 음가를 가졌으며 카마쯔는 ‘아’와 ‘오’의 중간 음가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 현대히브리어에서는 카마쯔와 파타흐의 음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한다. 두 종류의 카마쯔가 있는데 본래부터 장모음이었던 것이 있고(예, אָבָה), 강세와 위치로 인해 본래는 단모음이었던 것이 장모음화 된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짧아지거나 소실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는 אָבָה에서 אִבְרָהִים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짧아질 수 있다(참. GKCS §8 a, §9 a-d; JMK §6 a-n; SBCP 88, 128).

+ 모음(vowel)

카마쯔-하툼

kamatz-hatuf

히브리어의 모음 중 오(o) 음가를 갖는 것으로 자음의 아래에 ֿ로 표기한 것.

카마쯔-하툼은 카마쯔와 같은 모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 둘의 음가는 각각 오(o)와 아(ā)를 가진다. 이런 현상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원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카마쯔는 원시모음 u와 a로 나뉜다고 본다. 전자를 카마쯔-하툼(낚아채어진 카마쯔), 혹은 카마쯔 카탄(작은 카마쯔)라고 부르고, 후자를 카마쯔, 혹은 카마쯔 가돌(큰 카마쯔), 혹은 카마쯔 라함(넓은 카마쯔)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경우에는 카마쯔-하툼이며, 그 외의 경우는 카마쯔로 볼 수 있다. 1) 강세가 없는 폐음절에 오는 경우. 예로 חִכְמָה(호흐마), וְיָקֻם(바야쿰). 각 음절에서 강세의 유무는 악센트 기호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악센트 기호가 있는 곳에 강세가 있다. 2) 하툼-카마쯔 앞에서. 예로, נֶעְמִי(노오미), צִהְרִים(조호라임)(참. GKCS §8 a, c, §9 s-u; JMK §6 j-n).

+ 모음(vowel)

카르네이 파라

karnei par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카르네이 파라는 ‘소의 뿔들’이라는 뜻인데 이 악센트의 모양이 소의 뿔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틀리샤 그돌라, 파제르, 게레쉬, 게르샤임, 무나흐 레가르메 등과 함께 제 4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악센트는 어절 수가 적은 짧은 절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며 긴 절에서만 등장하는데, 긴 절 중에서도 이 악센트의 출현 횟수는 매우 적다. 예로, 모세오경에서는 민수기 35 장 5 절 한 절에서만 등장한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2015, 171-176).

민 35:5

וּמִדָּתָם מִחוּץ לְעִיר אֶת־פֶּאֶת־קִדְמָהּ אֲלֵפִים בָּאֲמָהּ וְאֶת־פֶּאֶת־נֶגְבָּהּ אֲלֵפִים בָּאֲמָהּ וְאֶת־פֶּאֶת־יָם | אֲלֵפִים
בָּאֲמָהּ וְאֶת־פֶּאֶת־צָפוֹן אֲלֵפִים בָּאֲמָהּ וְהָעִיר בְּתוֹךְ זֶה יִהְיֶה לָהֶם מִגְרָשׁ הָעָרִים:

너희는 성에서 밖을 향해 동쪽으로 2000 규빗, 남쪽으로 2000 규빗, 서쪽으로 2000 규빗, 북쪽으로 2000 규빗을 재고 성은 가운데 있도록 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성읍 주변 땅이 될 것이다.

+ 악센트(accent)

키부쯔

kibutz

히브리어의 모음 중 우(u) 음가를 갖는 것으로 자음의 아래에 ֹ로 표기한 것.

입의 모양과 관련하여 볼 때 a가 가장 많이 열린 모음인 반면, u는 가장 적게 열린 모음, 혹은 가장 많이 닫힌 모음이다. 모음의 음량과 관련하여 슈렉(1)은 장모음, 키부쯔는 단모음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Weingreen 5; Pratico 25)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שְׁׁוֹׁת וּשְׁׁוֹת וּשְׁׁׁוֹת וּשְׁׁׁׁוֹת 처럼 슈렉과 키부쯔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슈렉은 항상 장모음으로 사용되었으나 키부쯔는 장모음과 단모음에서 모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음량의 차이가 아닌 음색(혹은 음질)의 차이를 가진 티베리아의 모음 체계에서는 그 둘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현대히브리어에서도 그 둘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한다(참. GKCS §8 c, §9 n-o; JMK §6 a-n).

+ 모음(vowel)

Weingreen, J., 『히브리어 문법』 류근상 역, 고양: 크리스찬 출판사, 2002.

Pratico, Gary Davis,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변순복 역, 서울: 대서, 2009.

크티브

ktiv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에 특별한 표시를 해 놓은 것.

크티브(קְטִיב)라는 형태는 아람어 폐알 수동분사 남성 단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크티브 작업은 크레(Qre) 작업과 함께 주후 600-1000 년 사이에 활동했던 마소라 학자들이 한 것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전수하고 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기록된 모든 단어와 문자들의 횡수를 파악한 것, 모음 부호와 악센트 부호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크티브와 크레의 작업 또한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크티브는 전통적으로 읽혀 내려오던 본문의 기록과 달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위에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한편 크레는 수정해서 읽어야 할 것을 말하며 본문이 있는 해당 페이지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즉,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보이더라도 기록된 본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로, 열왕기하 22 장 5 절의 וַיִּתְּנֵהּ는 크티브이며, 그에 대한 크레는 וַיִּתְּנֵהּ이다. 예에서와 같이 크레의 형태가 크티브의 형태보다 문법적으로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항상 크레가 크티브보다 올바른 형태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정확한 문법적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크티브는 거의 대부분 보다 오래된 형태들을 보존하고 있으며, 마소라 학자들은 최대한 오래된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사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크티브와 크레는 1000 번 이상 나타난다.

때로 본문에 기록된 것이 꼭 오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읽기에 거북하거나 독자들이 기피해야 할 표현일 경우에는 난외에 크레를 첨가한 경우가 있다(예로, 신 28:30; 사 13:16; 숙 14:2 의 히브리어 샤겔(shagel, 강간하다)에는 샤카브(shakab, 동침하다)라는 크레가 붙어 있다. (참. GKCS §17 a-c; JMK §16 e; Kelly 13-14; Brotzman 49-50; Cohen).

≡ 크레(Qre)

Kelly, P. H.,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13-14.

Brotzman, Elis R.,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49-50.

Cohen, M., *The Kethib and Qeri System in the Biblical Text* [i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7.

순음(脣音)

labial

입술을 사용하여 내는 소리.

순음의 ‘순’(脣)은 ‘입술 순’으로 입의 가장 자리를 뜻한다. 영어 labial은 라틴어에서 ‘입술’을 뜻하는 단어인 labium에서 나왔다.

순음은 양순음(bilabial 또는 labio-labial)과 순치음(labio-dental)으로 나눈다. 전자는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접촉하여 파열시켜 내는 소리이고, 후자는 아랫입술과 잇니가 접촉하여 마찰시켜 내는 소리이다. 우리말의 **ㅂ**, **ㅍ**, **ㅃ**, **ㅍ**, 영어의 [p], [b], [m]가 양순음이고, 영어의 [f]와 [v]가 순치음이다. 히브리어에서는 **פּ**, **בּ**, **מּ**가 양순음이고, **פּ**와 **בּ**가 순치음이다(이정민 외 455; 조성식 외 637; 김방한 외, 『일반 언어학』 51).

히브리어의 접속사 **ן**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순음 바로 앞에서는 **בּנּן**, **וּמּן**, **וּפּרּי**등과 같이 **בּ**가 된다(참. GKCS §6 n-p; JMK §5c, h).

헬라어에서 순음은 양순 유성 파열음인 β , 양순 유성무기 파열음인 π , 양순 유성유기 파열음인 ϕ , 양순 비음인 μ 이 있다. 다른 학자들은 π 를 양순 유성유기 파열음으로, ϕ 를 순치 마찰음으로 보기도 한다(참. LSNTG 54-65).

+ 발음(pronunciation)

라기스 문서

Lachish inscription

이스라엘 남부의 주요 성인 라기스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문서들로서, 대부분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빌론 군대가 라기스 정복 직전(주전 589 년)에 쓰여진 글들.

이 문서들은 주로 라기스의 두번째 발굴 지층(地層)에서 발견되었는데 오스트라카(깨어진 도자기 파편에 새겨진 글들), 불래(bullae, 진흙에 찍힌 도장 자국), 인장들, 새겨진 저울추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트라카로서 그 내용이 편지이므로 라기스 편지라고 부른다. 라기스 편지들은 성문에 붙어 있는 방의 폐허 밑에서 발견된 것이다.

스타키(J. L. Starkey)는 1932-1938년에 18개의 오스트라카를 발굴하였으며, 아하로니는 1966년에 3개의 오스트라카를 추가로 발견하여 총 21개의 오스트라카를 발견하였다.

이 오스트라카는 모두 두번째 발굴 지층 의 마지막 시대인 주전 589-586년 느부갓네살의 정복 이전 시기의 것들이다. 이 편지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아세가와 라기스 사이의 한 요새에 살던 호세아가 라기스 사령관에게 보낸 본래의 편지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이갈 야딘의 견해로 원래의 파피루스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이며 라기스에 살고 있던 호세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예우쉬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는 영국의 고고학자, 우시쉬킨 등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이다. 라기스 편지는 다양한 인사말, 맹세, 여러 종류의 공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대 히브리어 연구(고문서학, 철자법, 문법, 구문)에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다. 그 편지에 사용된 언어는 주전 6세기 유다에서 사용된 대중적인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편지들은 대부분 대영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소수만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참. Stem 897-910; Ahituv 31-52; Cline 124-130).

Stem, E.,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3, Jerusalem: Carta, 1993.

Ahituv, S. *Handbook of Ancient Hebrew Inscriptions* [in Hebrew], Jerusalem: Bialik publishing, 1992.

Cline, Eric H., 『성서고고학』, 류광현 역, 서울: CLC, 2003.

라메드

lamed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두 번째 문자.

라메드는 소 모는 막대기 모양에서 그 문자가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L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사사기 3장 31절의 소 모는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מֵלֶךְ**가 이 문자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 라메드는 열두 번째 글자이며 '3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자음 분류에서 라메드는 유성 설음에 속한다. (참. GKCS §5 b, d, §6 o-p; JMK §5 c, h; Yardeni 52-54).

+ 문자(letter)

저자 표시 라메드

lamed auctoris

히브리어에서 저자나 소유자를 가리키는 전치사 라메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전치사 라메드는 소속의 전치사 ל라고도 부른다. מִזְמוֹר לְדָוִד에서의 라메드가 여기에 해당하며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의미로 다윗이 저자인 시, 혹은 다윗에게 속한 시라는 의미이다(참. GKCS §129 c-d; JMK §130 b;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 40).

삼상 16:18 (GKCS §129 c; JMK §130 b)

וַיֵּצֵא אֶחָד מֵהַנְּעָרִים וַיֹּאמֶר הִנֵּה רְאִיתִי בֶן לְיִשַׁי בֵּית הַלְחָמִי

그 소년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했다.“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בֶּן לְיִשַׁי와 בֶּן לְיִשַׁי는 둘 다 이새의 아들로 번역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아들이라는 명사가 한정되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한정되지 않았다. 즉 בֶּן לְיִשַׁי에서 전치사 ל의 역할은 첫 번째 오는 명사가 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GKCS §129 c; JMK §130 b). 만일 이 구절에서 전치사 ל가 빠진 בֶּן יִשַׁי를 사용한다면 וַיֵּצֵא אֶחָד מֵהַנְּעָרִים וַיֹּאמֶר הִנֵּה רְאִיתִי אֶת בֶּן יִשַׁיבֵּית הַלְחָמִי와 같이 한정명사 앞에 붙는 불변사 אֶת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전치사(preposition)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 서울: 그리심, 2015.

후기 성서히브리어

late biblical Hebrew

바빌론 유수(주전 586 년) 이후의 성서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 성서히브리어, 표준 성서히브리어, 후기 성서히브리어의 세 시대로 구분하기도 하고(Hurvitz 2006:127; 1999: 137-138, Kutscher 12, SBCP 71), 바빌론 유수 이전의 히브리어와 유수 이후의 히브리어의 두 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GKCS §2 l; JMK §3 b). 또한 성서가 기록된 이후의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말인 Post-biblical Hebrew 로서 랍비시대 히브리어, 중세시대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등의 시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도 있다.

이 견해들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바빌론 유수라는 역사적 사건은 언어의 발전 및 변화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바빌론 유수 이전의 성서 히브리어와 이후의 성서 히브리어가 언어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학자들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저자의 분명한 증언이나 내적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책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역대하,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다. 한편, 언어학적 연대구분에 비평적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참. 김동혁 2015: 213-243).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다른 시대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서 내에서의 증거들이다.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속하는 책들과 그 외의 책들에서 사용된 형태, 어휘, 구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서/열왕기서와 역대서 등에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병행구절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큰 도움이 된다.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은 성서 외적인 기준이다. 고려할 만한 문서로는 사해문서, 미슈나, 토셉타, 씨프라, 씨프레이, 메힐타, 탈무드 등이다. 아람어의 영향력 여부의 파악을 위해 엘레판틴 문서와 아람어 타르굼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언어적인 기준 외에도 고고학, 역사학, 사본학, 고문서학 등도 성서 히브리어의 연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장의 구조가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Polzin, 2)와 단어와 형태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견해(Hurvitz 1999: 140-155)로 나뉘어 지기도 한다. 또한 성서 히브리어를 구분할 때 연대기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저자의 언어적 경향, 특성 및 장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Hurvitz 1982: 48).

바빌론 유수 이전의 히브리어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언어적 변화는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 단어나 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다른 단어나 구로 대체되는 경우, 한 단어나 구가 함께 사용되지만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 명사나 동사의 형태 변화, 동일한 단어나 구가 협소한 뜻으로 사용되다가 보다 확장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단어나 구가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참. GKCS §2 l-o, t-v; JMK §3 a-f; SBCP 71, 131-147; Hurvitz 2006: 127-133; Hurvitz 1982; Kutscher 1982; Plozin 1976; 아비 후르비츠,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본질 및 특징”, 『성서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박미섭 역, 136-155).

Hurvitz, A., “Continuity and Change in Biblical Hebrew: The Linguistic History of a Formulaic Idiom from the Realm of the Royal Court,” in *Biblical Hebrew in Its Northwest Semitic Setting: Ty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edited by Fassberg S. E.,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6, 127-133.

Hurvitz, A.,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Code and the Book of Ezekiel -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Paris: Gabalda, 1982;

Kutscher, Eduard Yechezkel,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1982.

Plozin, R. *Late Biblical Hebrew - 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76.

아비 후르비츠,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본질 및 특징,” 「성서시대와 성서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박미섭 역, 서울: 한들출판사, 1999.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결정 연구사,” 「구약논단」 21 (2015), 213-243.

라틴어

Latin

“인도유럽어족의 하나인 이탤릭어파(語派)에 속하며”(표준국어대사전), 이탈리아의 중부 라티움(Latium)에서 시작되어 로마 제국시대의 세계 공용어(lingua franca)가 된 언어.

라틴어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등의 언어와 함께 인도유럽어족 중 이탤릭어파(혹은 로만스제어)에 속한다. 주전 3-4세기경 이탈리아의 라티움(Latium)에서 시작된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는 물론 아프리카 북부와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일상 언어로 사용되다가 로마 제국이 붕괴하던 주후 4세기부터 구어 라틴어는 각 지역의 여러 언어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주후 10세기가 되면서 라틴어와는 완전히 다른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등의 언어가 나타나게 된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라틴어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위의 죄패에 기록된 세 언어 중 하나도 라틴어였다(요 19:20). 1961년에는 가이사랴의 원형극장에서 제5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당시 황제였던 ‘디베료’의 이름이 라틴어로 새겨진 돌판이 발견되었다. 제롬(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은 주후 384년부터 404년까지 베들레헬에 머물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하는 일에 몰두하였다(참. 김방한 외 220-221, 231; 남기심 외 293; 김진우 252; 김경래 1991: 48-52; Murphy-O’Connor 232-233; Ephraim 273.).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1.

Murphy-O’Connor, J.,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phraim, S.,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1, Jerusalem: Carta, 1993.

혼합된 쓰기

lectiones mixtae

히브리어에서 특이한 모음 표기를 하여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

게제니우스와 무라오까에 의하면 이것은 가설이다. 게제니우스는 ‘혼합 형태들’(mixed forms/formae mixtae)로 지칭하고, 무라오까는 ‘혼합된 읽기’보다는 ‘혼합된 쓰기’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시편 7편 6절의 동사 **יִרְדֹּף**는 칼 동사 **יָרַח**, 혹은 피엘 동사 **יִרְדֹּף**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22절의 **וַיִּדְבֹּקוּ**는 히필 동사인 **וַיִּדְבְּקוּ**, 혹은 칼 동사인 **וַיִּדְבְּקוּ**로 읽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참. GKCS §78 c; JMK §16 g, 54 c, 75 g, 89 j, 91 b).

레닌그라드 사본

Leningrad codex

현재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으로 사용되는 마소라 사본 중 하나로 1008 년에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사본.

이 사본은 벤 아셀 가문의 마소라 사본 중 하나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성경은 이 사본을 채택하여 사용하는데, BHS 의 전신인 BHK(Kittel's Biblia Hebraica) 3 판(1937 년)부터 이 사본을 채택하였다. 이 사본은 구약 전체를 보여주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레닌그라드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김경래 70-71; 민영진 76-77).

≡ 알레포 사본(Aleppo Codex)

≡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

어휘소 (語彙素)

lexeme

일반적으로 사전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표제어 혹은 주요어(head word)가 되는 단어로서, 어휘 형태소를 가리킨다.

사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이다. 예로, 영어에서 어휘소 see (보다)는 sees, seeing, saw, seen 의 동일 어휘소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다른 의미를 갖는 ‘분리된 어휘소’로 See 는 교회 역사에서 ‘교좌’(敎坐)라는 뜻을 갖는다(ODEG). 구조언어학에서 어휘소는 구성 형태소의 의미의 결합으로서, 그 구성 단어 의미와 문법적 의미와의 결합이다. 예로, understand 는 두 개의 형태소,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어휘소로 되어 있고, put up with 는 세 개의 형태소, 세 개의 단어, 하나의 어휘소로 되어 있다(조성식 외).

어휘론(語彙論, 語彙學)

lexicology

“단어의 총체인 어휘의 형성, 구조, 의미, 용법 따위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

영어 lexis 는 ‘단어, 용어’를 뜻하는 헬라어 ‘렉시스’(λέξις)에서 왔다. 어휘론에 기반하여 사전을 만들 때는 어휘(vocabularies), 단어(words), 속어(idioms), 어구(phraseologies)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사전 편찬을 연구하는 분야를 사전편찬학(lexicography)이라고 한다. 특히 런던 어학과에서는 언어형을 어휘형(lexical pattern)과 문법형(grammatical pattern)으로 대별한다. “양자는 문장 가운데서 전후관계(즉 연쇄, chain)와 대립관계(즉 선택, choice)라는 두 개의 원칙을 공유한다. 그래서 문법에서의 연쇄 관계를 구조라 부르고 어휘에서의 연쇄 관계를 언어(collocation)라고 한다”(참. 조성식 외).

어휘목록(語彙目錄)

lexicon

한 언어의 모든 어휘 집합이나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목록으로서 알파벳 순이나 의미론적 순서를 따라 배열한 것.

영어 lexicon 은 헬라어 ‘렉시콘’(단어를 가리키는 *λεξικός* 의 중성단수인 *λεξικόν*)에서 왔다. 이것은 “언어에서 단어 목록의 완전한 세트이며”(ODEG), “한 언어의 어휘적 자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CDEG).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어휘, 단어집의 뜻으로 사용된다. 특히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 시리아어 등의 사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며 셰익스피어에 대한 용어사전 등 백과사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구체적인 어휘목록의 내용과 속성에 대해서는 구조 언어학, 촘스키(Chomsky), 그루버(Gruber) 등 학자들에 따라 여러 이론으로 나뉘어진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23-124).

연음(連音)

liaison

음소가 인접한 음소와 연결하여 발음하는 현상. 동화(同化), 탈락(脫落), 첨가(添加) 따위의 음운 현상은 연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프랑스어에서 음성을 연달아 읽거나, 연달아 소리를 낼 때, 묵음된 마지막 자음이 뒤따라오는 모음에 연결되어 한 음절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로, 복수 정관사 les는 단독일 때는 [le]이지만, 다음에 enfants이 오면 [lez anfang]처럼 [lez]로 발음된다(참. 조성식 외).

행(行)

line (verse)

시문에서 문장의 가치와 동등한 최소 단위.

일반적으로 시의 구조를 분석할 때 큰 단위에서부터 연(stanza), 절(strophe), 행(colon/line)의 순서로 구분하는데 행은 가장 문장의 가치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에 속한다.

히브리어 시에서 절은 하나의 행으로만 구성된 것(monocolon), 두 개의 행으로 구성된 것(bicolon), 세 개의 행으로 구성된 것(tricolon), 네 개의 행으로 구성된 것(tetracolon), 다섯 개의 행으로 구성된 것(pentacolon)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행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므로 두 행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많으며, 세 행으로 구성된 것이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다(참, Watson W. G. E., 이희성 역, 12-14).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2-14;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그리심, 2012.

설음(舌音)

lingual

혀끝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우리 말에서는 ‘ㄴ’, ‘ㄷ’, ‘ㄹ’ 따위가 있으며, 히브리어에서는 **ל**와 **ר**가 있다. 이것들은 아랍어의 **r** 과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의 **r** 처럼 한 번, 혹은 여러 번 혀를 진동시켜 조음한다(JMK, 5 n).

언어변화(言語變化)

linguistic change

시간의 흐름과 지리적인 요인들에 따라 생겨나는 언어의 다양한 변동과 차이.

언어변화는 여러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소리가 변하는 음운변화(phonological change),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형태변화(morphological change), 문장의 구성 차원에서 발생하는 통사변화(syntactic change)가 있으며 어휘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미변화(semantic change)도 있다. 이러한 언어변화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구성원의 변화, 역사적, 지정학적인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언어변화가 일어나는 요인과 어떤 방향으로 언어가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성경 히브리어의 경우 약 1,000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록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변화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언어이다. 바빌론 유수 이전의 히브리어와 유수 이후의 히브리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큰 변화가 발견되는데 통사변화를 주된 변화로 보기도 하고 의미변화를 주된 변화로 보기도 한다. 그 두가지 변화 외에도 일반적인 언어변화에서 보이는 음운변화와 형태변화도 발견된다. 언어변화의 양상 및 원인, 규칙 등을 연구하는 분야를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 혹은 역사-비교언어학(historic-comparative linguistics)이라고 한다(참. 이정민 외 489-491; 조성식 외 675-677; 김방한 외 217-218; Sampson, 권연진 역, 13-31).

김방한 외, 『일반 언어학』 217-218;

Sampson, G., *Schools of Linguistics*, 권연진역, 『현대 언어학의 흐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9.

Campbell, Lyle,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Bowern, Claire & Bethwyn Evan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5.

Crowley, Terry & Claire Bowern (eds)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Joseph, Brian D. & Richard d.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2003.

언어변이(言語變異)

linguistic variation

한 언어의 공시태에서 여러 사회 언어학적 요인으로 다양한 형태로 언어가 유동하는 현상

언어변이는 어휘론뿐 아니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언어변이는 우선 지역에 따른 방언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연령 및 세대적 요인, 교육, 종교, 직업, 성별, 문학 장르 등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언어든지 간에 언어변이는 존재한다. 그 변이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분포와 영향을 정연하게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언어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밝히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회언어학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며, 공시적인 현상뿐 아니라 통시적인 언어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참. 전정례, “언어는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311; 정진강, “중국어에 보이는 언어변이,” 491-509; 성일호, “사회언어학의 변이에 대한 개념 연구,” 55-77; 김진우 327).

겔 37:16

וְאַתָּה בֶּן-אָדָם קָח־לָךְ עֵץ אֶחָד וּכְתֹב עָלָיו לִיהוּדָה וּלְבִנֵּי יִשְׂרָאֵל (תְּבָרֵיו) וּלְקָח עֵץ אֶחָד
וּכְתֹב עָלָיו לְיוֹסֵף עֵץ אֶפְרַיִם וְכָל־בֵּית יִשְׂרָאֵל (תְּבָרֵיו):

너, 사람아, 너는 나무 하나를 취하라.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쓰라. 그리고 너는 나무 하나를 취하라. 그 위에 요셉 중 에브라임과 그의 동료 모든 이스라엘 집의 나무라고 쓰라.

여기서 ‘취하라’로 번역된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어원의 단어를 사용하여 칼 명령형 형태로 기록되었으나 첫 번째 것은 ‘라메드’가 생략된 형태(קח)이고 두 번째 것은 ‘라메드’가 포함된 형태(קָח)로서 전자는 대부분의 성경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남 유다의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북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역적인 차이에 따른 언어변이라 할 수 있다(참. 유윤중,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변이들과 문체 전환,” 158-159).

헬라어도 층위 별로 언어 변이를 가지고 있다. 음운론 층위에서 지역 고유명사인 나사렛의 경우, 6개의 변이형(Ναζαρέθ, Ναζαρέτ, Ναζαρέδ, Ναζαράθ, Ναζαράτ, Ναζαρά)을 가진다. 부사 중에 εὐθύς는 εὐθέως를 변이형으로 가지고 있다. 의미론 층위에서 ἄγγελος는 원래 전달자의 의미였으나 칠십인경 이래로 천사의 의미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전정례, “언어는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한말연구」 19 (2006), 301-321.

정진강, “중국어에 보이는 언어변이,” 「중국언어연구」 19 (2004), 491-509.

성일호, “사회언어학의 변이에 대한 개념 연구,” 「역사와 사회」 2 (1989), 55-77.

김진우, 『언어』, 서울: 탐출판사, 1990: 327.

유윤중,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변이들과 문체 전환,” 「한국개혁신학」 10 (2001), 143-161.

언어학(言語學)

linguistics

인간의 언어능력과 자연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인문학 분야로서, 언어의 본질, 기능, 체계, 역사, 변이 등에 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한다.

언어학이라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문헌학(philology)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언어학’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자연언어를 연구하는 ‘기술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과 언어능력을 연구하는 이론 언어학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이는 전통 문법(classical grammar)으로 알려진 ‘규범 문법’(prescriptive linguistics)과 대조된다. 전통 문법에서는 법칙에 따라 문법의 정오(正誤)를 판단하지만, 현대의 기술언어학에서는 언어 구조의 기술에 주로 관심을 둔다(참. PDSBH).

언어학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 이론언어학과 응용언어학으로 분류된다. 관련 분야에 따라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 전산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 수리언어학(mathematical linguistics)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언어학의 하위 분야로는 소리 자체를 연구하는 음성학(phonetics), 소리를 개별 언어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음운론(phonology), 단어의 형태를 연구하는 형태론(morphology), 문장 내에서 단어의 관계 및 문장 구조를 연구하는 통사론(syntax), 어휘의 의미와 어휘의 구조론을 연구하는 의미론(semantics)과 어휘론 등이 있다. 최근에 등장한 언어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문장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텍스트언어학(text linguistics), 문장의 맥락과 화자와 청자의 상황 등을 연구하는 화용론(pragmatics)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언어의 통시적 연구와 개별 언어들을 비교 연구하는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 혹은 역사-비교언어학(historic-comparative linguistics), 사전편찬학(lexicography) 등이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김방한 외 30-33; J. Verschueren, *Understanding Pragmatics*, 김영순 외 역, 『화용론의 이해』).

Verschueren, J. *Understanding Pragmatics*, 김영순 외 역, 『화용론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

김방한 외, 『일반 언어학』, 30-33

유음적 자음(流音的子音)

liquid consonant

“발음할 때 혀를 굴려서 조음하는 음소 계열”(PDSBH)에 속하는 자음.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댔다가 떼거나 또는 댄 채 날숨을 양옆으로 흘려보내며 내는 소리이다. 구강에 기류의 막힘이 있으나, 마찰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계속음(continuant)이다. 유음은 음이 듣기 좋고(smooth), 쉽게 흐르며(flows easily), 자음과 모음의 자질을 모두 공유한다(조성식 외). 한글의 자음에서는 ‘ㄴ’에 해당되며, 영어 자음으로는 ‘r’과 ‘l’이 있고, 히브리어의 자음으로는 ‘ר’와 ‘ל’가 있으며, 헬라어에는 λ와 ρ가 있다.

헬라어에서 유음적 자음은 λ와 ρ가 있다.

+ 음성학(phonetics)

→ 유음에 대한 설명은 Crystal의 책 286 페이지와 Davenport의 책 31 페이지.

Crystal, David.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Oxford: Blackwell, 2008, 6th edn)

Davenport, Mike & S. J. Hannahs. *Introducing Phonetics & Phonology* (London: Hodder Arnold, 2005, 2nd edn)

유음 동사

liquid verb

헬라어에서는 어간이 λ, μ, ν, ρ 로 끝나는 동사를 유음동사라고 한다. 유음동사는 미래 변화에서 미래 시제 표지인 σ 대신에 ε 를 넣어서 만든다. 단순과거 시제의 경우에도 σ 가 탈락한다. 예를 들면, $\mu\acute{\epsilon}\nu\omega$ 의 미래는 $\mu\epsilon\nu\tilde{\omega}$ 이다.

연결문자(連結文字)

litterae compaginis

한 명사와 다른 명사와의 밀접한 연결을 강조하기 위한 글자로서, 연계형의 단어에 붙여져 연결의 접미사 역할을 한다.

יְ와 יִ는 연결의 문자들로서, 연계형을 특별한 어미로 강조하는 형태가 된다. יִ의 형태는 매우 희소하지만, 히렉 연결문자인 יְ의 형태는 대부분 시문에 나타난다. 이 어미들이 격어미로서 사용되었다면, יְ는 속격으로 יִ는 대격이나 주격이었을 것이나, 어떤 형태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히렉 연결문자는 연계형에서 (1) 남성형과 (2) 여성형으로 나타나고 밀접하게 연결된 (3) 전치사구와 (4) 부사구 바로 앞에 나온다(참. GKCS §90k; IBHS §8.2.e).

(1)

창 49:11

בְּנֵי אֶחָיו

그의 암나귀 새끼

신 33:16

שִׁכְנֵי סֵנָ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

히렉 연결문자가 연계형에서 남성형으로 쓰인 경우이다

(2)

창 31:39

וַיִּגְבְּתִי יוֹם וַיִּגְבְּתִי לַיְלָה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히렉 연결문자가 연계형에서 여성형으로 쓰인 경우이다

(3)

출 15:6

נִאֲדָרִי בַּבַּחַ

권능으로 영광을

히렉 연결문자가 전치사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4)

רַבְּתִי בְּגוֹיִם כְּאַלְמָנָ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처럼 되었고

히렉 연결문자가 부사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확장 가능 자음(擴張可能子音)

litterae dilatabile

필사본이나 인쇄본에서 줄에 빈 칸이 남지 않도록 줄의 끝이나 중간에서 폭을 옆으로 늘여 쓸 수 있는 글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쓴다. 그리고 줄의 끝에서 단어가 나뉘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사본이나 인쇄본에서 몇몇 글자들은 줄에 빈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줄의 끝이나 중간에서 옆으로 늘어난다. 인쇄된 본문에서 늘여 쓸 수 있는 글자들은 א, ה, ל, ת, ם이며, 어떤 필사본에서는 ד, כ, ך도 사용된다(GKCS § 5d).

차용어(借用語)

loan-word

언어 접촉이나 교류로 인해 다른 언어에서 차용하거나 들여온 단어.

본래어(native word)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흔히 외래어라고 부른다. 차용어는 주로 언어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발음이나 형태가 다소 수정되기도 한다. 히브리어는 수메르어,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이집트어, 아람어, 헬라어(다니엘서) 등의 수많은 언어들에서 단어를 차용하였다.

히브리어 형태소에 다양하게 자리잡은 차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아카드어 *egertu* 에서 온 히브리어 **תַּגְּרִי**(편지)는 유사 세골 명사처럼 *g* 를 이차적으로 중복하여 만들어졌다. 그 복수형은 마치 **מַלְכָּה**(여왕)에서 온 **מַלְכוּת**처럼 복수 연계형 **מַלְכוּתִים**로 만들었다. 이와 반면에 **תַּבְּשִׁ**(안식일)은 *qattal* 형태를 가진 히브리어 명사처럼 보이지만 아카드어 *šab/pattu* 에서 빌려온 것으로서 원래 이 명사의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다(JMK §87d).

차용에는 단어 차용과 번역 차용이 있다. 헬라어 단어 차용의 예로는 셈어에서 차용한 *ῥαχά* (마 5:22), *μαμωνας* (마 6:24), *πάσχα* (막 14:1) 등이 있고, 번역 차용의 예로는 히브리어에서 차용한 *λαμβάνειν πρόσωπον* 이 있다. 그 의미는 편애하다(직역하면 얼굴을 받다)이다(참. LSNTG 224; Lee 2012: 334-349)

Lee, Sang-Il,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erlin and 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처격(處格)

locative

장소 및 위치를 표시하는 격.

처격은 처소, 시간적·공간적 범위, 지향점 따위를 나타내는 격이다. 헬라어에는 8 개의 격 체계에서 처격은 장소, 영역, 방향을 가리킨다(PDSNTG). 아리안어에는 장소를 표현하는 처격이 있었으며, 고대 페르시아어에는 -ya 혹은 -iya 가 처격을 표시하였다(옥스딕 ODE). 터키어에서는 ev 이 ‘집’을 뜻하지만, evde 는 ‘집에서’를 뜻한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방향의 헤’가 있고, 전치사 및 문맥으로 장소나 위치를 처격으로 표시한다(PDSBH).

헬라어에서는 여격이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불변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참. W 153-155).

요 21:8 (W 155)

τῷ **πλοιαρίῳ** ἦλθον

그들이 배 안에 갔다

여격 πλοιαρίῳ 는 장소를 의미한다.

마 5:8 (W 154)

μακάριοι οἱ καθαροὶ τῇ **καρδίᾳ**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은 복되다

여격 καρδίᾳ 가 장소를 의미한다.

마 13:15

ἐκ τῆς οἰκίας αὐτοῦ

그의 집으로부터

전치사 ἐκ 와 소유격은 '~로부터'의 의미이다.

마 10:23

ἐν τῇ πόλει ταύτῃ

이 도시 안에서

전치사 ἐν 과 여격은 '~ 안에서'의 의미이다.

눅 8:31

εἰς τὴν ἄβυσσον

그 무저갱 안으로

전치사 εἰς 와 목적격은 '~ 안으로'의 의미이다.

+ 격(case)

방향(方向)의 헤

locative He (He locale)

히브리어에서 단어 끝에 붙어서 장소나 대상을 향한 방향을 가리키는 헤.

방향의 헤는 고대의 대격 어미인 a의 흔적으로 단어 끝에서 헤 바로 앞의 아(a) 모음과 함께 ‘ֹה’와 같이 사용되는데, **בְּבִלְיָה**(바빌론으로), **בֵּיתָה**(집으로), **הַשָּׁמַיְמָה**(하늘로)와 같이 대개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 뒤에 붙어서 ‘-로’, ‘-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다. 방향의 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합성명사에서 사용될 때는 **בֵּיתָה יוֹסֵף**(요셉의 집으로), **אֶרֶץ הַנֶּגֶב**(네게브 땅으로)와 같이 연계형에 붙는다. (2) **לְמַעַלָּה**(위로), **לְשֹׁאֲלָה**(스올로)와 같이 간혹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3) 가끔 동작의 개념이 약화된 의미로 **מִתְנַיְמָה**(마하나임에서), **שָׁמָּה**(거기에서)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4) **אֵין יְשׁוּעָתָהּ לּוֹ**(시 3:3,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와 같이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5) 대부분 장소와 관련하여 나타나지만, 드물게 **מִיָּמִים יָמִימָה**(날들에서 날들까지=해마다)와 같이 시간에도 사용된다(참. JMK § 93c-j; GKCS § 90a-i).

+ 헤(He)

처격 불변사(處格不變詞)

locative particle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 행위의 장소 및 위치를 표시하는 격을 구성하는 불변사(참. 이정민 외).

격 문법에서 격의 하나로 전치사 at, in 등을 나타낸다. 히브리어에서 장소의 격을 일컫는 처격에는 장소의 *he* 가 있다. 이 장소의 *he* 는 처격 불변사로서 사물을 향한 장소와 방향을 가르키는 접미사 **הֶ**를 가리킨다. 장소와 방향을 가리키는 처격 불변사는 악센트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여성형 어미 *he* 와 구별할 수 있으며, 복수형 어미에 붙기도 한다(GKCS §90h).

창 18:6

וַיִּמְהַר אַבְרָהָם הָאֵלֶּ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신 4:41

מִזֶּרֶחַ

해 뜨는 편에서

수 18:12

מִדְבָּרָה

광야에까지

왕상 2:40

וַיֵּלֶךְ גִּתְיָה

가드로 가서

+ 처격(locative)

+ 불변사(particle)

긴 휴지 형태

long (forms) in pause

휴지 형태 앞에서 더 길게 늦추어지는 형태

히브리어에서 פֿ"ד동사의 휴지 형태에서는 נ의 동화는 생략되고 더 긴 형태들이 휴지에서 선호되는 것을 말한다(יִנְקָפוּ, יִנְאָרוּ). 그리고 첨가된(paragogic) 눈(נ)과 함께 오는 미완료 어미 וֹן과 וֹן은 특히 휴지 형태에서 긴 휴지 형태로 발견된다.

신 33:9

וּבְרִיתָהּ יִנְאָרוּ:

주의 언약을 지키다

욥 31:10

וְעָלֶיהָ יִכְרַעוּ אֲחֵרִין: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도

사 26:11

בְּלִי־יָחִיוּ: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룻 3:4

אֶת אֲשֶׁר תַּעֲשֶׂי:

네 할 일을

마흐파흐

mahpah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 시편,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밑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생긴 모양이지만 אֱלֹהִים(창 46:22)와 같이 단어 처음에 오는 것은 연결 악센트가 아닌 예티브라 부르는 분리 악센트이다. 마흐파흐는 예티브와 모양은 동일하나 רָאוּ(출 10:6)와 같이 단어의 처음이 아닌 단어의 중간에 와야 한다. 이 악센트는 다른 연결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할 때 다음에 오는 단어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참. GKCS §15 g; JMK §15 g; 권성달 2015: 177.)

+ 악센트(accent)

만다어

Mandaean

동부 아람어에 속하며,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영지주의의 방언.

‘만다’(mandā)라는 아람어는 ‘지식’을 뜻하며, 영지주의자들(γνωστικοί)이라는 헬라어의 아람어 대응어인 만다야(mandayyā)에서 나왔다. 후대 히브리어에서 지식을 뜻하는 ‘마다’(madda)와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다어를 쓰는 영지주의자들은 티그리스강 지역에서 살았으며, 사도 요한의 후예들로 알려져 있으며 급속히 사라졌다. 그들은 만다어로 된 성경 필사본을 갖고 있었다(대영박물관 소장). 이 언어는 바빌론 탈무드의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하다(참. OED).

+ 아람어(Aramaic)

마픽

mappiq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에서 단어 끝에 나오는 **ה**가 자음 음가 /h/를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안에 붙인 점.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에서 마픽(**מִפִּיק**)은 **גָּבַהּ**/gabah/ “그가 높아졌다, 키가 커졌다”에서와 같이 단어 끝에 오는 **ה**가 모음 글자나 묵음이 아니라 자음 음가 /h/를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붙는 점이다. 따라서 마픽은 강 다게쉬나 약 다게쉬와 구분해야 한다(참. GKC §14, JMK §11a).

삼상 9:2

מְשַׁכְּמוֹ וְמַעֲלָה גָּבַהּ מִכָּל־הָעָם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만큼 더 컸다

욥 22:28

וְעַל־דִּרְכָּיִךְ נִגְהָ אֹר

네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렘 51:2

וַיִּבְקְקוּ אֶת־אֶרֶץ־הָ

그(녀)의 땅을 비게 할 것이다

마캡

maqgef

히브리어에서 관계가 밀접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연결하는 ‘-’ 모양의 부호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에서 마캡(מקף)은 - (dash)와 같은 비슷한 작은 획으로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매우 밀접한 결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 서너개의 단어가 마캡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마캡으로 연결된 일련의 단어들은 하나의 음성적인 단위를 이루고, 이 결합은 연결 악센트로 표시되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다. 첫 번째 단어는 그것의 주된 강세를 잃어버리고 단지 부차적인 강세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두 단어가 이 부호로 연결될 경우 악센트는 두 번째 단어에 오며, 앞 단어의 모음이 바뀌기도 한다. 마캡으로 연결된 첫 단어는 후접어(proclitic)가 되고, 단음절 단어나 불변화사로서 그 뒤에 오는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발음 단위를 형성하고 약간 더 짧은 모음을 갖는 경향이 있다. 절대형 명사와 부정사 절대형도 마캡 이전에 올 수 있다(참. JMK §13a-c, 박미섭, 성서히브리어 문법, 서울: 도서출판기혼, 2005, 44-45).

창 11:31

וַיִּקַּח תָּרַח אֶת־אַבְרָם בְּנוֹ וְאֶת־לֹוֹט בְּנוֹ־הָרֵלָךְ בְּנוֹ־בְנֵי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갔다.

마캡이 단음절 단어들 뒤에 자주 나온다.

창 25:5

וַיִּתֵּן אַבְרָהָם אֶת־כָּל־אֲשֶׁר־לּוֹ לְיִצְחָק׃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마캡이 두개 이상 나오는 경우이다.

출 2:18

וַתָּבֹאנָה אֶל־רַעְוָאֵל אֲבִיהֶן

그녀들이 그녀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다

불변화사들은 거의 항상 마캡과 함께 나온다.

민 24:5

מִה־טָבוֹ אֶהְיֶה יַעֲקֹב

야곱아, 네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 27:19

אֲרוּר מִטָּה מִשְׁפָּט גֵּר־יָתוּם וְאִלְמָנָה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절대형 명사가 마캡 이전에 오는 경우이다.

잠 28:21

הָכֵר־פָּנִים לֹא־טוֹב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은 옳지 않다

부정사 절대형이 마캅 이전에 오는 경우이다.

박미섭, 『성서히브리어 문법』, 서울: 도서출판기혼, 2005.

유표(有標)

marked

대립하는 언어 형태(linguistic form) 중에서 구별 표지 또는 식별 표지를 지닌 형..

단어의 기본 형태인 무표(unmarked)와 대조되는 것(CDEG)으로서 한 단어의 어휘 형태(lexical form)에서 형태 변화가 일어나서 기본 형태와 구별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표적인 것인 무표적인 것보다 “복잡하거나 특수하고 덜 일반적이다”(조성식 외). 예로서, 영어에서 명사의 수를 표현할 때, 단수는 무표적인 것으로 그리고 복수를 유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무표/유표는 prince-princess 와 같은 성(gender), happy-unhappy 같은 긍정 부정의 관계, walk-walked 같은 시제(tense)에 적용될 수 있다(참. 조성식 외).

↔ 무표(unmarked)

남성(男性)

masculine

문법적으로 언어의 성 범주 중 남성을 나타내는 범주.

문법적으로 남성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자연계의 생물성인 남성은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단수에서 남성형은 일반적으로는 표기되지 않으며, 특정한 어미를 갖지 않는다. 극히 소수의 남성 명사는 여성 어미를 갖는다(**קַהֲלָת** 전도자, **סִפְרָת** 서기관, **מִזְרַעַת** 친척(룻 3:2), **מִזְרָה** 면도칼, **פְּחָה** 총독, **שָׁדָה** 들판, **מַעְלָה** 오르막길). 복수에서 남성형 어미는 **ִים**이다. 이것은 모든 남성 형용사와 많은 남성 실명사와에 나타난다. 그러나 히브리어 복수의 남성명사 어미 **ִים**은 몇 개의 여성 실명사들(**שָׁנִים** 해들, **רְחֵלִים** 암양들, **אֲבָנִים** 돌들, **שְׁעוּרִים** 보리들, **דְּבָרִים** 벌들)에도 나타난다(참. JMK §89ab, §90b).

+ 성(gender)

↔ 여성(feminine)

≡ 중성(neutral), 공성(common gender)

권말(卷末) 마소라, 끝 마소라

Masora finalis

마소라 사본의 낱권(예, 창세기)의 끝, 책 묶음(예, 토라)의 끝, 또는 성경 전체의 끝 부분에 나타나는 마소라 주.

‘끝 마소라’고도 한다. 원래 이것은 “야곱 벤하임 랍비 성경의 끝에 있는 대마소라에서 취한 알파벳 목록이었으나, 최근에는 히브리성경 각권 끝에 나오는 마소라 통계를 가리킨다”(PDSBH). 창세기의 권말 마소라 주에는 “이 책의 전체 절 수는 1534절이다”가 나온다(민영진 22). 오경의 권말 마소라 주에는 전체 절수, 책 중앙의 표시, 전체 단락(세데림)의 숫자가 나온다.

+ 마소라(Massorah)

≡ 대 마소라(Masora magna), 난외 마소라(Masora marginalis), 소 마소라(Masora parva),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대(大) 마소라

Masora magna

마소라 사본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난외주들로서 “마소라 본문의 확대된 주석과 본문비평 노트”(PDSBH).

큰 마소라라고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큰 마소라 참조체계(장수와 절수)는 마소라 학파의 작업의 결실로서, 당대 여러 필사본들에 있던 참조 체계를 사용한 것이었다.

작은 마소라 난외주가 필사본의 양쪽 여백에 기록된 것에 반하여 큰 마소라는 필사본의 상하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큰 마소라는 작은 마소라를 확장한 것으로, (1) 작은 마소라가 특정 본문의 특징이 나타나는 회수를 알려주지만, 큰 마소라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 모든 절들을 찾아내서 제공한다. 즉, 작은 마소라가 낱말이나 어구를 찾을 수 있는 참고 색인 번호를 나열했다면, 큰 마소라는 그 빈도수에 관한 정보를 한층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큰 마소라 난외주는 서로 다르면서도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낱말들, 어구들, 절들의 목록을 제공한다(참. 강성열, 62-63). 예로, 창 1:1 의 ‘태초에’와 상관되는 다섯 곳의 근거 구절(창 1:1; 램 26:1; 27:1; 28:1; 49:34)을 밝혀 놓았다(민영진, 22; 참. Kelly, 강성열 역: 62-63).

+ 마소라(Masora)

≡ 권말(끝) 마소라(Masora finalis), 소 마소라(Masora parva), 난외 마소라(Masora marginalis),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난외(欄外) 마소라

Masora marginalis

마소라 학자들이 집대성한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이 필사본의 모든 페이지의 가장 자리에 나타나는 것.

마소라 학자들이 필사본의 네 개의 여백(상하좌우)에 써놓은 것을 말하며, 이것은 옆의 여백에 쓰여진 Masora parva(소마소라), 위와 아래에 쓰여진 Masora magna(대 마소라)로 나뉘어진다. 마소라 학자들이 사용한 이 전문용어들은 성서 히브리어 시대 이후의 히브리어이거나 아람어이며, 이것들은 종종 약어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인쇄본들은 난외 마소라의 일부만을 제공해줄 뿐이다(참. JMK §16d).

+ 마소라(Masora)

≡ 권말(끝) 마소라(Masora finalis), 대 마소라(Masora magna), 소 마소라(Masora parva),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소(小) 마소라

Masora parva

필사본의 양쪽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난외주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작은 마소라의 난외주는 특정 본문의 특징을 말해준다. 예로, 창 1:1 의 ‘태초에’라는 낱말의 작은 마소라 주에는 “이 표현이 구약 전체에서 다섯 번 나타나며, 그 중 세 번은 절이 시작되는 첫 머리에 나온다”고 써여 있다(민영진, 22). 또한 작은 마소라는 전수된 본문이 생략되거나 혹은 새롭게 추가하지 못하도록 본문은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만약 본문이 작은 마소라와 다를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예로, 그 대표적인 것인 크레와 크티브이다(참. Kelly, 강성열 역: 55-56).

+ 마소라(Masora)

≡ 권말(끝) 마소라(Masora finalis), 대 마소라(Masora magna), 난외 마소라(Masora marginalis),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마소라

Massorah

원래의 자음 본문으로 인하여 다양한 독법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성경에 표준 본문을 확정하여 후대에 전수한 학파 및 그 독법.

‘마소라’라는 히브리어는 미슈나 히브리어 **מָסָר**(전수하다)에서 파생된 **מְסֹרָה**에서 나왔으며, ‘전통’이란 뜻을 갖고 있다(JMK §16aN). 넓은 의미에서 마소라는 ‘마소라 학파’(Masoretes, **מְסֹרֶת**)를 뜻한다. 그들은 전통으로 전수된 성서 필사본들의 독법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규칙들을 결정하고 표준 본문을 전수하였다. 그들은 표준 본문의 전승을 전달자한 자들(transmitters)로서 성경을 필사만 하던 서기관들을 대체하고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전한 사람들이다. 마소라 학파는 그들의 작업을 갈릴리 호변의 티베리아에서 주후 8-10 세기에 걸쳐 완성하였다. 일찍이 랍비 아키바(주후 135 년)는 “정확한 본문 전수는 토라의 율타리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론 벤 아세르(10 세기초)는 5 대에 걸친 본문 연구를 전수하였으며, 우리에게 ‘벤 아세르 본문’을 전수하였다.

좁은 의미에서 마소라는 (1) 자음 본문에 모음 보호를 첨가한 것과 (2) 본문의 난외(欄外)나 행간(行間)에 주를 달아 설명을 한 것이 있다. 후자에는 난외 마소라(masora marginalis)로서 작은 마소라(소 마소라, masora parva)와 큰 마소라(대 마소라, masora magna)가 있으며, 또한 권말(卷末) 마소라(끝 마소라, masora finalis)가 있다. “특히 마소라 주(註)는 오늘날 관주 성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민영진 21; 참. JMK §16; Kelly, 강성열 역, 2005: 1; Ernst Würthwein 12).

- 권말(끝) 마소라(Masora finalis), 대 마소라(Masora magna), 난외 마소라(Masora marginalis), 소 마소라(Masora parva)
- ≡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Kelly, P. H.,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Würthwein, Ernst,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translated by Erroll F. Rhode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4.

김정우, 『구약통전 상』, 서울: 이레서원, 2002, 138.

마소라 본문

Massoretic texts

마소라 학파들이 구약의 본문 전통을 전달하면서 표준 본문을 확정하여 후대에 전수한 성경 인쇄본들의 히브리어 본문으로서 그 안의 모든 세부사항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도 하나가 아니며, 다양한 전통들이 있었다. 먼저 카이로 게니자에 따르면 마소라에 세 학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후 6-8 세기의 서부 팔레스타인 학파, 6-9 세기의 동방학파, 9-10 세기의 티베리아 학파가 있다. 카이로 게니자는 주후 9 세기에 콥트 정교 회당에서 사들인 유대인 회당이었으며, 게니자는 오래되고 오류가 있는 사본들을 공식적으로 제거할 때까지 비밀리에 보관하는 창고였다. 이 안에서 약 200,000 개의 히브리어 필사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마소라 학파의 이전에도 다양한 사본들 전수의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마소라 본문들은 마소라 학파의 작업보다 앞서는 것들도 있고 후대에 속하는 것들도 있다. 마소라 학파의 작업은 나크다님의 작업보다 후대의 것으로서 그들의 작업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마소라 학파는 그들의 작업을 8-10 세기에 걸쳐 완성하였으며, 그들의 공인 본문은 일반적으로 벤 아셰르(10 세기)의 작업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던 벤 납달리의 것보다 선호되었다(JMK §16a).

마소라 학파의 주요 사본들은 다음과 같다(참. 김정우, 『구약통전』, 141-143; Ernst Würthwein, 12).

(1) 카이렌시스 사본(the Codex Cairensis)은 마소라 사본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으로 아론 모세 벤 아셰르가 895년 필사하였고, 대소선지서를 담고 있다. 사본의 끝에 있는 기록인 콜로폰을 보면 이것은 모세 벤 아셰르가 쓰고 부점을 찍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카라이테(Karaite) 공동체에게 헌사한 것이다.

(2) 페테르스부르크 후기 선지서 사본(Petersburg Codex of the Prophets) 주후 916년의 것으로 추정되며 페테르스부르크의 한 회당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벤 아셰르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바빌론 모음 체계를 처음으로 삽입한 것이다.

(3) 알레포 사본은 마소라 학파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주후 930년경에 솔로몬 벤 부야아(Solomon Ben Buy'a)가 필사한 것이며, 아론 벤 모세 벤 아셰르 (Aron Ben Moses Ben Asher)가 수정을 가하여 모음 기호를 조정하고 마소라 주 등을 고쳐서 만든 것이다. 구약 전권을 다 담고 있다. 이 사본은 아주 아름답게 제본되었으며, 유월절, 오순절, 혹은 장막절과 같은 특정한 절기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알레포의 옛 회당에 보존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왔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 약 1/4이 유실되었고 지금은 선지서만 남아있다.

(4) 레닌그라덴시스 사본(B19a)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구약사본으로,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레닌그라드 구약사본이다. 사본의 제작 년도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지만 주후 1008년이 가장 신뢰할 만한것으로 알려졌다. 콜로폰에 따르면, 이 본문은 아론 벤 모세 벤 아셰르(Aaron ben Moshe ben Asher)가 만든 것으로서 1008/9년에 완성되었다. 이것은 필코비치가 1839년 오렝사로 가져갔고, 다시 거기서 레닌그라드로 가져갔다. 알레포 본문이 부분적으로 유실되었으므로, 벤 아셰르 전통을 지닌 레닌그라덴시스 사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이

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구약 전권 필사본이다. 바빌론 부점이 찍혀 있고, 이 사본은 그것은 레닌그라드 B19a로 알려져 있으며, 알트와 아이스펠트(A. Alt and O. Eissfeldt)가 완성한 히브리어 성서(Biblia Hebraica)의 본문으로 사용되었고, 루돌프 키틀(R. Kittel)의 Biblia Hebraica 3판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현대 마소라 사본 연구에 기초가 된다. 이것은 "히브리성경 전권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

(4) 에르푸르트 사본(Codices Erfurtensis)은 벤 납탈리 필사본(Ben Naphtali mss)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에르푸르트에 있는 프루시아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

(5) 대영박물관 오리엔탈 4445(주후 850년)에는 창세기와 신명기가 유실되었으며, 모음부호가 첨가되어 있다.

≡ 마소라(Masora)

Würthwein, Ernst,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translated by Erroll F. Rhode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4.

모음문자(母音文字)

matres lectionis

모음의 음색이나 음량을 표시하는 자음.

모음문자라는 용어는 도움을 주는 글자라는 뜻으로 마치 아장거리는 아기를 돕는 어머니처럼 모음이 없는 본문에 첨가된 글자를 말한다(참. JMK §7a-d). 몇몇 자음들인 **ו**, **י**, **ה**와 가끔 **א**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특정한 모음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자음들은 ‘이모트 하크리’(תּוֹת אִמּוֹת)를 중세 라틴어(mater lectionis)로 번역한 것으로서 모음문자라고 불리며, 또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묵음 문자라고도 부른다(이것은 유성음과 대비된다).

(1) 음색 표시로서 모음문자는 특정한 자음으로 특정한 모음을 표시하는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음성적이거나 어원적 또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일 수 있으며, 그것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를 수 있다. 모음문자의 기원은 그것이 최우선적인 요인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음성적 고려 때문에 생겼다는 데 있다. 이 점은 모음문자들이 고대 비문들에서 고유명사나 외래어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ו**는 u, o 모음들을 표시할 수 있고, **י**는 i, e, ē 모음들을 표시할 수 있다. 단어 끝에 오는 **ה**는 ā, ē, ē 모음들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소 드물게 o 모음을 표시한다. **א**는 어떤 모음과 결합될 때에는 묵음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알렙은 끝모음 다음에 첨가되며, 불변화사 **אֵל**은 **א**와 함께 쓰여서 **הָאֵל**과 구별된다. 이처럼 **א**는 어떤 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모음문자로서 **ו**, **י**, **ה**와 구별되어 나타난다.

(2) 역사적인 모음의 음량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모음문자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특정한 음색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어원적으로 장모음들을 표시한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아랍어 문자와 달리 묵음 문자(즉 모음문자)들이 이런 모든 장모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장모음들은 자주 모음문자로 나타나지 않는다(불완전 철자법). 이와 반대로 비록 완전 철자법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단모음들이 가끔 모음문자로 표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ו**는 어원적으로 장모음 **וּ**와 **יּ**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 반면, **י**는 어원적으로 장모음 **יֹ**와 **יִ**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장모음 ā 모음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ā 모음 이 길게 발음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원시음 ā는 대부분 ō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들은 종종 불완전하게 기록되며 반면에 어원적으로 단모음들이 가끔 모음 문자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완전철자법은 후대 문헌에서 더욱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들은 사해사본들이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것들은 성서 히브리어 시대 이후의 히브리어 문헌들 속에서 매우 발달하였고, 모음 기호들을 보충하게 되었다. 한편 모음문자는 단어 끝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단어의 중간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주장되어 왔으나, 주전 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아랍어 문헌 중 하나인 앗수르-아랍어의 이중언어로 기록된 비문(1979년에 발견)에는 요드와 바브가 단어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것들이 항상 장모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게 되었다(참. JMK §7a-d).

중세(中世) 히브리어

Medieval Hebrew

중세 시대(주후 6-15 세기)에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와 주석들을 위하여 사용한 문헌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성경 히브리어 및 랍비 히브리어와 확실하게 구분된다. 사실 성경 히브리어와 랍비 히브리어는 하나의 언어체계를 완전히 구비하였지만, 중세 히브리어는 아랍어를 공통 언어로 사용하는 시대의 유대인들의 언어였으므로, 독자적인 언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세 히브리어는 대략 주후 6-7 세기부터 팔레스타인과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이 예배, 기도, 성경 주석 등에 사용한 문헌 언어와 회당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 미드라쉬가 편집되고, 마소라 학파의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주후 9세기말과 10세기 초에는 사아디아 가온(Saadia Gaon)이 언어와 철학적인 글들을 히브리어로 쓰면서 히브리어의 부활을 예고하였고, 9세기경에 종교 예식시(宗教 禮式詩)인 ‘피유티’(piyyut)를 쓴 시인들인 파이타님(paytanim)이 중세 히브리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중세 히브리어는 지역적으로 볼 때, 동부의 팔레스타인, 바빌론, 이집트, 서부의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그리고 중부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동유럽을 포괄하고 있다. 흩어진 유대인들 작가들은 그들이 살던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히브리어를 융합하여 사용하였다. 중세 히브리어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진다(참. SBCP 217-22).

≡ 미슈나 히브리어(Mishnaic Hebrew)

메흐리어

mehri

메흐리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남아랍어에 속하는 언어.

셈어권에 속하는 언어로서, 예먼의 동부 및 오만의 서부에서 살고 있는 메흐라인들의 언어로서, 남부 아랍어에 속하는 언어이다(maharee, mahari, maherry, mehara, meheri 등으로 표기된다, 참. OED). 히브리어 3인칭 여성단수형의 원시형태인 *šî'a는 메흐리어의 š 형태와 연관된다(JMK §39a). 오늘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메흐리어(Mehri)와 슈하우리어(Shḥawri) 등의 언어들은 고대 아랍어로서, 주후 천 년경에 사라진 사바어(Sabaeen, 아라비아의 옛 왕국 사바의 언어), 미네아어(Miaean), 하드람어(Hādrāmī)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 언어들은 주전 8-5세기의 아랍어 비문들의 언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참. SBCP 35).

+ 셈어(Semetic), 아랍어(Arabic)

≡ 히브리어(Hebrew)

멤

Mem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세 번째 문자.

히브리어 문자 멤은 물결 모양(아마도 파도의 출렁거리는 모양)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M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주전 13-12세기 초기 가나안 문자와 고대 페니키아 문자에서는 지그재그 모양이 좌우가 아닌 수직방향(위 아래 방향)으로 나타난다. 초기 그리스어 문자에서 좌우 모양으로 나타나며 세월이 흐르면서 지그재그 모양이 짧아졌으며 영어의 M과 같이 네 개의 선으로 나타났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지금의 멤과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된 것은 주전 6세기경으로 본다. 멤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이며 ‘4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멤은 유성 양순음의 비음에 속한다. 또한 멤은 단어 끝에 올 때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필사본이나 인쇄본에서 빈 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여 쓸 수 있는 문자들 중 하나이다(참. GKCS §5 b-d, §6 o-p; JMK §5 c-d, h; Yardeni 55-57).

+ 문자(letter)

메라히

merahiq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가 연결될 때 자음이 중복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히브리어 자음중복 현상에서 두 단어가 연결될 때, 앞의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뒤의 단어 첫자음에 연결다게쉬로 연강점(dagesh lene)가 올 때가 있다. 이런 연결 중복 현상에는 드히(dhiq)과 메라히(merahiq)이 있다. 메라히는 아람어 표현으로, ‘멀리서 온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단어가 강세가 종음절 이전에 있고 끝모음이 세골이나 카마쯔하툼이며, 뒤따르는 단어의 강세가 첫음절에 올 경우, 뒷 단어의 첫 자음이 중복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연강점을 갖게 된다. (JMK §18j).

창 1:11

תִּדְשֵׂא הָאָרֶץ דָּשָׂא עֲשֵׂב מִזֶּרַע זָרַע עֵץ פָּרִי עֵשָׂה פָּרִי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맺는 과일나무를 내라.

두번째 단어인 פָּרִי의 첫 자음인 페(פ)에 연강점이 발생하였다.

≡ 드히(dhiq)

메르하

merh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밑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메르하는 분리 악센트 앞에서 음을 길게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마아리흐”(מְאֲרִיחַ, 길게 해주는)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메르하는 연결 악센트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아무리 간단한 절이라도 모든 절에 등장하며 두 개 이상씩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אֵת הַשָּׁמַיִם’(창 1:1), ‘אֱלֹהִים וַיֵּאמֶר’(창 1:3) 등과 같이 분리 악센트 중 제2급 악센트인 ‘티프하’ 앞에서 자주 등장하여 그 모양을 볼 때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악센트는 다른 연결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할 때 다음에 오는 단어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참. GKCS §15 g; JMK §15 g; 권성달 2015: 177).

+ 악센트(accent)

메르하 흐폴라

merha hful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밑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메르하 흐폴라는 두 개의 메르하라는 뜻으로 메르하() 모양이 두개로 겹쳐 있는 모양이다. 이 악센트 역시 메르하와 마찬가지로 분리 악센트 앞에서 음을 길게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분리 악센트 중 제 2 급 악센트인 ‘티프하’ 앞에서 등장하나 메르하는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메르하 흐폴라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 악센트 역시 다른 연결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할 때 다음에 오는 단어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참. GKCS §15 g; JMK §15 g; 권성달 2015: 177).

+ 악센트(accent)

은유적 용법(隱喻的 用法)

metaphorical usage

비유(figure of speech)의 일종으로 두 대상이나 개념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한 ‘언어적 이미지’(linguistic image)(RDLL)를 가리키는 은유의 용법.

“은유(metaphor, 隱喻)는 헬라어(Metaphorá)에서 ‘전달, 이동, 이월’(transference)을 뜻하며, 비교되는 두 개체의 유사성(similarity, resemblance)에 근거하여, 하나를 다른 것과 일치시킴으로써(equation), 다른 것의 속성을 취하는 비유법(figure of speech)이다. 즉, 은유란 한 주제를 유추(analogy)로 연결되는 상징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예로, 주님이 ‘목자’(시 23:1), ‘용사’(출 15:3)라고 할 때, 목자와 용사의 중심 특성을 가져 오는 것이다”(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10.).

구약성경에는 다양한 은유적 용법들이 나타나지만,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은 ‘요새, 반석, 피난처’와 같은 자연적 은유, ‘방패, 칼, 병거’와 같은 군사적 은유, ‘목자, 용사, 왕’ 같은 사람의 은유로 나타난다. 문법적 관점에서 ‘은유적 용법’은 특히 ‘성’(gender)의 사용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비생물을 자연적 성에 일치하게 표현한다. 예로, ‘요청’(שְׁאֵלָה)과 ‘맹세’(אֵלָה)는 여성형으로, ‘힘’(חֵיל)과 ‘영광’(כְּבוֹד)은 남성으로 표현된다. *편집: שְׁאֵלָה 요청, אֵלָה 맹세) 나머지는 남성으로 취급한다(חֵיל 힘, כְּבוֹד 영광).

물길을 나타내는 명사들(נָהָר 강, יְאֹזֵר 수로, נָחַל 개천), 물과 연관된 명사들(מַיִם 물, יָם 바다), 비를 가리키는 명사들(מָטָר, גֶּשֶׁם, זָרוֹם)은 일반적으로 남성을 유추하여 남성형이 된다.

이와 반면에 구상명사의 몇 범주들은 여성을 유추하여 여성형으로 표현된다(나라 이름: בָּבֶל 바벨, צִידוֹן 시돈/ 땅과 그 지역들: אֶרֶץ 땅, 육지, 나라, עִיר 도시/ 도구의 명사와 다른 물체들: חָרֶב 칼, יָתֵד 말뚝, כּוֹס 컵/ 몸의 지체를 가리키는 명사나 쌍으로 나오는 것들: עֵינַי 눈, שֶׁם, אָזְן 귀, שֵׁן 이)이 있다(참. JMK §134e-k).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16 (2014), 5-40.

어형 변이(語形變異)

metaplasism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나 운율을 위해 소리를 바꾸거나, 혹은 부주위로 인하여 인접한 글자가 뒤바뀌며 발생하는 한 단어의 어형 변화.

영어 metaplasism은 ‘형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헬라어 ‘메타플라스모스’(μεταπλασμός)에서 나왔다. 문법 용어로서 어형 변이는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하여 혹은 운율을 위하여 소리의 변화를 만드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를 가리킨다”(부시만). 영어에서는 I cannot가 I can’t로, I do not know가 I don’t know로 변하는 것도 어형 변이에 속한다. 또한 어형 변이는 음운 전환(metathesis)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히브리어에서는 인접하고 있는 유사한 자음들이 서로 도치되는 경우들이 가끔 나온다.

레 3:7

אִם-כֶּשֶׁב הוּא-מִקְרִיב אֶת-קִרְבָּנוֹ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어린 양이면

레 4:32

וְאִם-כֶּבֶשׂ יָבִיא קִרְבָּנוֹ לְחֻטָּאת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כֶּשֶׁב**, **כֶּבֶשׂ**로 사용되고 있다.

음운 전환(音韻轉換)

metathesis

한 단어 안에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음이 그 위치를 전환하는 것.

음운 전환을 뜻하는 영어 metathesis 는 헬라어에서 ‘전환, 변화’를 뜻하는 단어인 ‘메타데시스’(metáthesis)에서 나왔다. 우리 말에서 ‘음운’은 한자의 음(音)과 운(韻)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로, ‘님’과 ‘남’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ㅣ’와 ‘ㅏ’, ‘물’과 ‘불’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ㄱ’과 ‘ㅂ’ 따위를 이른다”(표준국어대사전). 영문법에서 음운 전환은 ‘음위 전환’(音位轉換)으로 부른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는 발음을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음운 전환이 일어난다. 예로, 히트파엘 형에서 치찰음으로 시작하는 자음은 음운 전환을 이루게 된다. 예로, שָׁמַר + הָתָּה 는 השתמר가 된다(포히, Joüon §17b; GKC §19m).

헬라어에서도 사본의 복사 과정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로, 막 14:65 의 elabon (“took”) 은 몇몇 사본에서 ebalon (“threw”)으로 나온다(PDSNTG).

≡ 어형 변이(metaplasma)

– 자음 도치(metathesis of consonant), 음량 도치(metathesis of quantity)

자음 도치(子音倒置)

metathesis of consonant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자음을 바꾸어 음운을 전환하는 것.

히브리어는 특히 히트파엘 동사의 활용에서 /t/는 그 다음에 나오는 치찰음과 즉각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자음도치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 1 자음이 치찰음 중 **ש**, **שׁ**, **ס**일 경우, 원활한 발음을 위해 이 자음들 바로 앞의 접두사의 마지막 자음 **הֶת**중 **ת**와 어근의 첫 자음이 치환된다. 즉 **שָׁמַר** + **הֶת**은 **הִשְׁמַר**가 된다. 그리고 제 1 자음이 **צ**일 경우 자음의 치환과 함께 **ת**가 **ט**로 바뀐다(**הִצְטַדֵּק**). 따라서 ts, tʃ, tʂ와 같은 자음군을 피하게 된다.

시 54:2

הֲלֹא לֹדֹם מִסִּתְּרָ עִמָּנוּ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않았습니까?

סִתְּרָ의 히트파엘 분사형인 **מִסִּתְּרָ**가 **מִשְׁתְּרָ**로 **ת**와 **ס**의 자음이 도치되었다

창 44:16

וְמִה־נִּצְטַדֵּק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נִצְטַדֵּק의 히트파엘 미완료형 1 인칭 복수형태인 **נִתְצַדֵּק**가 **נִטְצַדֵּק**으로, 그리고 **נִצְטַדֵּק**으로 변환된 것이다

음량 도치(音量倒置)

metathesis of quantity

음량이 도치된 것

히브리어에서 어근의 두 번째 자음이 **צ**인 여섯개의 **צ״ח**동사는 모음 다음에 오는 **צ**가 특정 형태들에서 중복된다. 강세 치찰음 **צ**는 그것의 성격상 쉽게 중복된다. 이 현상은 **ש** 앞에 장모음이 있는 형태들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칼 미완료형 *yīṣaṭ* > *yīṣṣaṭ* 이나 호팔 미완료형 *yūṣaṭ* > *yūṣṣaṭ*는 음량이 도치된 경우이다. 즉 길이가 모음에서 **ש**로 옮겨진 것이다(JMK §77a).

렘 51:58

וְשִׁעָרֶיהָ תִּגְבְּהוּ בְּאֵשׁ יִצְתָּו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메테그

metheg

히브리어에서 모음의 왼쪽에 붙은 작은 세로 줄.

메테그(metheg, מֶתֶג)는 해당 모음을 충분히 발음하라는 표시나 또는 음절 구분 표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메테그를 음절의 발음에 잠깐 휴지 상태를 주는 부차적인 강세를 표시하는 부호로 보기도 한다. 또한 카메쯔와 카메쯔 하툼의 모음을 구분하게 해준다. 이 부호는 문장 끝에 오는 분리 악센트 쉐룩과 모양이 같으므로 두 부호를 구분해야 한다.

욥 17:10

וְלֹא־אֶמְצָא בָכֶם חַיִּים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사 66:13

כִּי אֶנְכִּי אֶנְחַמְכֶם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환유(換喩)

metonymy

한 사물을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전형적인 명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한 사물의 속성이나 연상되는 다른 명칭으로 말하는 수사법.

가장 기본적인 비유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작은 일부를 통하여 전체를 가리키는 기법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전체로서 부분을 말하는 제유(synecdoche)와 대조를 이룬다. 환유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표현하는 부분이 전체의 어떤 속성이나 본질을 생생하게 잘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로, 청와대, 백악관과 같은 것이 있고, ‘글이 칼보다 강하다’고 할 때의 글과 칼과 같은 것이 있다.

창 41:57

וְכָל-הָאָרֶץ בָּאוּ מִצִּיִּקְרָה

모든 땅이 이집트로 왔다

여기에서 ‘모든 땅’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 환유적으로 사용되었다.

≡ 은유(metaphor)

운율(韻律)

metre/meter

한 시행 안에서 장단, 고저, 강약, 운(韻)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시적 기법.

운율(metre, meter)은 원래 ‘measure’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트론’(μέτρον)에서 나온 용어로서 시의 리듬과 같은 것이다. 운율은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만, 주로 단어의 장단, 강약, 각운과 두운 등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히브리 시는 한시(漢詩), 그리스 시와 로마 시나 영시(英詩)처럼 일정한 운율(meter)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히브리 시에는 두운(頭韻)과 각운(脚韻)이 가끔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수사적인 장치로서 장식물(trophe)이지, 히브리시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히브리 시에서 운율(meter)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악센트 음절 계산법’(accent counting; K. Budde, A. Cooper)은 마소라 사본에 찍힌 강세를 음절로 계산한다(IDBS, “Poetry: Meter”를 보라). (2) ‘음절계산법’(syllable counting; W. Albright, F. M. Cross, N. Freedman, D. K. Stuart)은 마소라 이전의 히브리어 발음을 재구성하여 음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예, melek [2 음절]은 원래 malk [1 음절]이었다). (3) ‘장단 모음 음가 계산법’(mora counting; D. L. Christensen)은 모음과 단모음의 음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옹, 무라오까는 히브리어의 장단 모음은 음가가 아니라 음색이라고 한다. 히브리 시에 절대적인 운율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인 운율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참. 김정우, 『시편주석 1』, 121-22, 김정우, 『히브리 시학』 2013, 12).

중간태(中間態)

middle voice

문장의 어떤 요소가 문장의 주어인 동시에 동사의 영향을 받는 객체가 되는 것.

중간태는 능동태 및 수동태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태이다. 중간태는 산스크리트어와 고전 헬라어에서 형태소로 나온다. 헬라어에서 ‘내가 씻다’(lóúo)는 능동태는 중간태에서 ‘내가 스스로 씻다’(lóúomai), ‘내가 가르치다’(didáskō)는 ‘내가 스스로 학습하다’(didáskomai)가 된다(참. 부시만).

히브리어에 있어서 중간태는 채귀태와 유사한 용어이다. 문장의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언어학사전; PDSBH). 다만, 이런 중간태를 채귀태와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중간태는 수동태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수동태는 능동태의 동작동사의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뀐 경우를 말하는데, 중간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는 주어로 취하지만 능동태의 주어는 생략시킨다. 즉 주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처럼 기술된다. 이 때 중간태와 채귀태의 차이는 채귀태는 동사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데 비해 중간태는 동사의 동작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기술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중간태는 히브리어에서는 니팔 유형을 통해 나타난다(IBHS §23.2).

창 7:11

בְּקֶעוּ כָּל־מַעֲיִנֹת תְּהוֹם רָבָה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히브리어 동사 **בִּקַּע**의 니팔 형태로 중간태로 사용되었다.

출 23:13

וּבְכָל אֲשֶׁר-אֶמְרָאִי אֵלֵיכֶם תִּשְׁמְרוּ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에서 너희는 스스로를 지키라.

히브리어 동사 **שָׁמַר**의 니팔 형태로 채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태(voice)

≡ 중간태(middle)

↔ 수동태(passive voice)

미드라쉬

Midrash

중세 랍비들의 성경 주해와 설교의 방법으로서, 본문의 문학적 및 역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비유적인 방법을 통하여 때로는 ‘기발하게’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한 것을 모아둔 책.

랍비들은 성경의 인명, 지명 등이 비유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근거하여,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상상에 근거하여 도덕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신약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구약성경을 미드라쉬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타르굼에 미드라쉬적 해석이 시작되며, 이후의 탈무드에서는 미드라쉬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중세의 유대 공동체는 이런 해석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미드라쉬는 주후 6-7 세기에 아랍어 통치를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과아타님들을 통하여 구현되었고, 책으로 편집되기 시작하였다.

≡ 미슈나(Mishnah)

밀엘(끝 음절 전 강세)

mil'el

끝 음절 이전에 오는 히브리어 강세.

히브리어의 강세로서 밀엘(מִלְעֵל)은 아람어 מן + לְ + עֵל = 라틴어의 desuper, “위에서부터”, 즉 단어의 처음 쪽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וַיָּאָמֶר wāyyā'-qom은 밀엘 강세를 지닌다(JMK §15b).

헬라어에서는 끝 음절 전 강세를 ‘페널트’(penult [penultima])라고 부른다.

→ 끝 이전 음절(penult [penultima])

밀라(끝 음절 강세)

mil'ra

끝 음절에 오는 히브리어 강세

히브리어의 강세로서 밀엘(מִלְעַל)은 아람어 מִן + לְ + אֲרַע = 라틴어의 deorsum, “아래에서”, 즉 단어의 끝쪽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וַיַּאֲקֹם wayyāqom 은 주된 휴지 부분에서 밀라 강세를 지닌다(JMK §15b).

헬라어에서는 끝 음절 강세를 ‘울티마’ (ultima)라고 부른다.

→ 끝음절(ultima)

미네아어

Minaean

고대 남부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고대 마인(Ma'in) 왕국의 사람들의 언어로서, 아프로아시아어족의 남서부 셈어 방언 중 하나.

미네아어는 현대의 예멘 지역에 해당하는 남부 아라비아 방언 중의 하나로 마인 왕국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마인 왕국과 함께 고대 예멘 지역에 있던 족속들로 는 시바인, 카타반인, 하드라마티안인 등이 있다. 올브라이트에 따르면, 마네어와 사바어의 차이로서, 마네어는 원-사역형(s-causative)을 사용하지만, 사바어는 헤-사역형(h-causative)을 사용하였다고 한다(H. H. Rowley, *Old Testament & Mod. Study* ii. 32). 히브리어 3인칭 여성 단수형의 원시형태인 *šî'a는 미네아어의 š 형태와 연관된다(JMK §39a).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초기의 비문들은 주로 주전 8-5세기의 것들로서, 마네어, 사바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대립쌍

minimal pair

한 음소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한 쌍의 단어.

음소는 뜻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이며, 그것은 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에서 ‘pit’ 와 ‘pin’은 마지막 음(t 와 n)만 다르다. 영어에서는 이것들(t 와 n)을 음소라고 말한다. 단어 쌍인 ‘bit’ 와 ‘pit’는 b 와 p 가 음소들임을 보여준다. 어떤 언어에서 한 말소리에 음운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한 쌍의 단어를 말하며, 이런 한 쌍을 우리는 최소 대립쌍이라고 부른다(IBHS §3.3.1).

미슈나

Mishnah

랍비 유대교 문헌 중 구전 율법을 모아 집대성해 놓은 문헌.

주후 2세기에서 7세기까지 형성된 랍비 유대교의 문헌을 ‘랍비 문헌’(Rabbinic Literature)이라 하는데, 미슈나 역시 랍비 문헌 중 하나로 주후 200년경에 가말리엘의 증손자인 유다 하나시(Judah Ha-Nasi)가 편집한 것으로 본다. 유대 랍비들은 미슈나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구약을 ‘기록된 토라’라 하고, 미슈나를 ‘구전 토라’라 부르며 그 둘은 모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아마도 바빌론 포로 유수기에 기록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장소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규범과 조례들의 제정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그때부터 새로운 구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미슈나에 대한 체계적인 주석서가 바로 탈무드이다. 미슈나는 총 6권(סֵדֶ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7-12개의 부(מַסְקֵת)로 되어 있고 부는 다시 장(פֶּרָק)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은 다시 절(מְשָׁנָה)로 구성되어 있다. 미슈나는 총 62부 523-5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씨앗’(농경법과 관련된 종교적 의무), 제2권은 ‘절기’(안식일이나 종교적인 절기), 제3권은 ‘여자’(혼인, 이혼, 간통 등), 제4권은 ‘손해’(민사, 형사 등의 문제), 제5권은 ‘성물’(희생 제물에 대한 문제), 제6권은 ‘정결’(사람이나 물건의 정결)로 구성되어 있다(참.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 110-127; 배철현, “호로즈: 미슈나 경전해석의 원칙”, 1-17).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배철현, “호로즈: 미슈나 경전해석의 원칙,” 『종교학연구』 30 (2012), 1-17.

미슈나 히브리어

Mishnaic Hebrew

주전 약 400-300 년부터 주후 약 400 년 사이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를 성경 히브리어, 미슈나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네 시대로 구분하는데 미슈나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와 중세 히브리어 사이의 히브리어이다. 그러나 미슈나 히브리어가 사용되던 주전 약 400-300 년 경에는 성경 히브리어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두 언어가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본다. 미슈나 히브리어는 미슈나에 기록된 히브리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 이후 시대부터 유대인들의 토착어로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를 포함하여 토세프타, 미드라쉬, 탈무드 등 다양한 유대 문헌에 나타난 히브리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슈나와 토세프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탈무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문서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미슈나 히브리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슈나 히브리어는 크게 타나임(미슈나 시대에 속하는 랍비들) 시대(주후 200 년까지)와 아모라임(타나임 이후 시대의 랍비들) 시대(주후 200 년 이후)의 히브리어로 나뉜다. 성경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는 어휘뿐 아니라 문법, 문장의 구조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드물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도 발견된다. 미슈나 히브리어에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차용된 단어도 많이 발견된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수없이 사용되는 바브연속(도치바브)이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슈나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사이에 아람어가 통속어로 사용되던 시기에 사용된 언어였으므로 아람어와의 유사성이 매우 많이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참. M. H. Segal; F. Skolnik, vol. 8: 639-650;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 129).

Segal, M. H.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Skolnik, F., *Encyclopaedia Judaica*, 2nd edit., vol.8, Detroit: Thomson Gale, 2007: 639-650.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혼합언어(混合言語)

mixed language

한 언어가 인접하는 다른 언어들과 장기간 접촉하거나 교류하면서, 사용이나 발달에 있어서 다른 언어들의 발음, 어휘, 형태, 구문 등의 영향을 받아 어휘가 차용되어 언어체계의 일부로 구성된 언어.

히브리어어는 오랜 세월 동안 단일 언어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으나, 한스 바우어는 히브리어가 “아카드어에 매우 가까운 초기 가나안어 층과 아람어와 남쪽 셈어에 더 가까운 보다 후대의 다른 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혼합언어(Mischsprache)”라는 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참. H. Bauer and Leander, *Historische Grammatik*, 1922; SBCP 72). 또한 드라이버(G. R. Driver, 1936, 151)도 “분명히 히브리어를 직조한 두 개의 주된 끈은 아카드어와 아람어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이후에(1953)는 “일부 아람어 형태들이 공통 셈어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히브리어 운문에 대한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강조하였다”(SBCP 73).

“최근의 다양한 연구는 히브리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세기 후에, 기원전 천 년대 후반부에서 기원후 초기에 이르기까지 아람어가 히브리어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랍비 시대 히브리어뿐 아니라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음성론·형태론·어휘에 상당한 아람어 요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찬가지로 마소라 학파의 언어 체계에도 아람어 발음의 특징들이 히브리어에 나타난다”(SBCP 74).

모압어

Moabite

고대 모압 왕국의 모압인들의 언어로서, 서북 셈어에 속하는 가나안 방언으로 그 어휘, 형태, 구문구조가 성서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

모압인들은 요단 강 동편에 터전을 잡고 이스라엘과 동맹과 적대 관계를 반복하며 역사를 이어갔다. 언어로서 모압어는 1868 년에 모압 땅(현 요르단)의 케락(Kerak)에서 발견된 모압 왕 메샤의 비문(주전 약 835 년 작품)에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도편들과 일곱개 내지 아홉 개의 인장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메샤 비문의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와 너무나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모압어는 원시 셈어처럼 한정되지 않은 단수 명사는 뱀으로 끝나고, 복수와 쌍수 명사는 눈으로 끝나는 형태(nunation)를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눈은 다음 자음에 동화되고, 이중모음 aw 와 ay 가 일반적으로 축약되었다(lelah, 밤). 강세가 있는 장모음 ā 는 강세 있는 장모음 ō 로 바뀌었을 수 있으며, 치찰음 앞에 알렙 첨가어가 왔다. 남성 복수 연계형이 -ay 로 끝나고, 여성 단수 표지는 -t 이다(bmt, 히브리어 bamah, 높은 장소, 신전). 접미형 동사 형태에서 1 인칭 단수가 -ti 로 끝난다. 여성 지시대명사는 히브리어처럼 z't ‘이것’인데 이 형태에서 알렙이 모음글자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처럼 모압어의 관계사는 šr 이고, 정관사는 h-이다. hlk ‘가다’ 동사의 접두형 변화에서 h 를 생략하지 않는다. 히브리어처럼 불변화사 t 를 직접 목적어와 함께 사용하지만(초기 페니키아어의 yt), 목적어가 인명이나 지명일 때만 그렇다(SBCP 61).

유성 슈바와 무성 슈바

mobile shva and quiescens shva

히브리어에서 슈바 기호는 모음이 없음을 표시하며, 아랍어의 스쿰(sukūn)과 비교된다. 그 형태는 절의 끝을 표시하는 기호인데 습 파속과 매우 비슷하다. 습 파속은 절의 끝에 음이 없음을 뜻하는 반면, 슈바는 שְׁמַרְתָּ처럼 자음 다음에 모음이 없는 것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슈바는 유성 슈바(vocalic [mobile] shva)와 무성 슈바(silent [quiescens] shva)의 두 종류로 구분되지만, 이 슈바는 본질적으로 모음 음가가 없는 제로 모음을 표시한다고 생각된다. 유성 슈바는 빠르고 중얼거리는 듯한 모음을 표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통 e 나 ə, 영어에서 about 의 a 와 같은 것으로 음역된다. 통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성 슈바는 한 때 모음이 있었다가 강세의 이동으로 없어진 곳에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원래의 모음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원래의 모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동족 언어들과 비교함으로써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슈바가 확실히 모호하다는 사실은 히브리어 문법의 주요 쟁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무성 슈바와 e 로 발음되는 유성 슈바 사이에는 음소적인 구분이 없다. e 로 발음되는 유성 슈바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변이 음소라고 할 수 있다(참. JMK §9a-f).

서법 조동사(敍法 助動詞)

modal auxiliary

서법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본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본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에 대해 화자나 저자가 갖는 여러 가지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조동사(이정민 외).

영어에서 서법 조동사에는 can, may, must, shall, will, could, might, should, would, ought 등이 있다. 이것들은 크게 (1) 가능성 혹은 의심(suspicion: may, might, can, could), (2) 필요(necessity) 혹은 의무(should, ought, must), (3) 허락(permission: may, might, can, could, must (not)), (4) 습관적 행위(would), (5) 예측(should, must, would), (6) 소망, 의지(may, would)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참조. 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는 형태론적으로 서법조동사는 없지만, ‘의톨’로서 can/may, must 와 같은 서법 조동사를 나타낸다. 예로, 가능성으로서 허용의 서법(can, may), 당위의 서법(must)과 같은 뉘앙스를 나타낸다(참. JMK §113 l-n).

창 42:37

אֶת־שְׁנֵי בָנֵי תַמְיִת אִם־לֹא אֶבְיְאֶנּוּ אֵלָיְךָ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이 용법은 의톨을 사용하여 허용의 서법을 나타낸다.

왕하 5:12

הֲלֹא־אַרְחֶזֶן בָּהֶם וְטָהַרְתִּי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허용)

레 19:32

מִפְּנֵי שִׁיבָה תִּקְוִים

너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야 한다
이 용법은 의톨을 사용하여 당위의 서법을 나타낸다.

창 15:13

דָּעַ תֵּלַע

너는 확실히 알아라
여기서 의미는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로서 부정사 절대형 다음에는 명령형이 사용되지 않고 의톨이 사용되어 당위의 서법을 나타내고 있다

출 21:28

קָקוּל יִסְקַל הַשּׁוֹר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당위)

서법성(敘法性)

modality

화자나 저자가 서술하거나 발화하는 내용에 관해 화자나 저자가 나타내는 관점이나 심적 태도로서 어휘적 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참. 조성식 외).

학자들에 따라 mood 와 modality 를 ‘법’과 ‘서법’이라는 서로 다른 범주로 구별하기도 하고(ODEG, CDEG), 같은 범주로 보기도 한다(조성식 외, RDLL).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법은 동사의 문법적 형태와 연관되며, 서법은 의미의 뉘앙스와 연관된다”(CDEG).

영문법에서 서법성은 일차적으로 “서술 내용에 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하는 것을 서법성이라 한다”(조성식 외). 즉, 서법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다. (1) 서법성에서 심적 태도란 화자가 서술 내용에 대해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필연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2) 서법성에서 문법적 수단에 대한 취급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법 조동사, 서법 동사, 서법적 과거, 서법적 과거완료, 서법적 완료 어간, 서법 부사 등 순수하게 형태적인 것에서부터 상당히 의미적인 것에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의 형태들이 동작의 서법을 표현한다. 히브리어에서 법성은 시제 형태(접두사 변화, 접미사 변화)로 표현되며, 문맥에 따라 이 형태들이 준 조동사(semi-auxiliaries)의 역할로서 ‘할 수 있다’(can), ‘해야 한다’(must), ‘할 것이다’(will) 등을 표현한다(참. JMK §111c, 113l, m, n, 114, 116).

현대 그리스어

Modern Greek

동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1453 년부터 현대까지의 그리스어를 현대 그리스어라고 한다. 그리스와 키프러스에 살고있는 약 천만명 정도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 그리스어는 사회언어학적으로 볼 때, 양층언어(diglossia)이다. H-language 인 카타레부사(Katharevousa)는 문어로 의사소통의 표준언어이고, 그리스의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L-language 에 해당하는 민용어(demotic)는 구어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된다. 현대 그리스어는 통시 언어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음성학적으로 철자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발음은 많이 달라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β 가 영어의 b 에서 v 로 바뀌었다. 또한 문법 변화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표지가 바뀌었다. 코이네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 σ 를 첨가하여 미래를 나타내었지만,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동사의 현재형 앞에 불변화사 $\theta\acute{\alpha}$ 를 둠으로써 미래를 나타낸다(참. LSNTG 248-249; HS 205-216).

현대 히브리어

modern Hebrew

주후 약 18 세기초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의 시대를 18 세기부터로 보는 이유는 18 세기에 히브리어 신문과 잡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자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랍비 시대의 히브리어와 중세 히브리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살아있는 언어로 회복시키려는 운동이 시작된 것도 18 세기였다. 이스라엘 땅에서 현대 히브리어를 부활시킨 선구자는 러시아계 유대인인 엘리에젤 벤 예후다(Eliezer Ben-Yehuda 1857-1922)였다. 그는 파리에 있을 때부터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1879 년 ‘긴급한 문제(A Burning Question)’ 라는 제목의 히브리어 소논문을 비엔나의 계간지에 실으면서 히브리어의 부활을 준비했다. 1881 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벤예후다는 1882 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30 년간 신문사에서 편집인으로 근무한다. 그는 모든 시대의 히브리어 문헌에서 단어를 발췌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새로운 히브리어 단어를 만드는 등 사전 편찬을 준비한다.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마침내 ‘고대 및 현대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한다. 그는 유대인이란 마땅히 일상생활 언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사람들은 집에서 그의 가족과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것, 둘째, 히브리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교육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경 히브리어는 그 어휘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히브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히브리어학원(울판)에서 나열하고 있는 가장 필수적인 히브리어 단어 1,000 개 중 800 개가 성경 히브리어 단어이다. 신문 분석가에 의하면 신문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60-70%가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하며, 20%만이 미슈나 문학에서 발견되며 중세 혹은 현대 히브리어 어휘는 소수만이 발견될 뿐이라고 한다(참. SBCP 279-298; 권성달 2015: 246-249; 권성달, “히브리어 중심의 이스라엘 언어정책,” 164-179).

≡ 고전 히브리어(classic Hebrew), 랍비 히브리어(rabbinic Hebrew), 중세 히브리어(medieval Hebrew),

+ 히브리어(Hebrew), 서북 셈어(northwest Semitic)

권성달, “히브리어 중심의 이스라엘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25 (2015), 164-179.

수식어(修飾語)

modifier

다른 단어, 구, 절을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단어나 구, 절.

전통문법의 구 구조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이 수식어는 (1) 형용사적 수식어(adjectival modifier)로서, 명사(구)를 주요어(head-word)로 하고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 분사, 대명사접미사, 연계형, 동격, 중언법, 관계절 등과 (2) 동사수식적 수식어(adverial modifier)로서, 형용사, 부사, 동사 및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수식하는 어(구)나 절로 분류된다(참. IBHS, §4.6.1, 4.6.2).

형용사적 수식어(IBHS, §4.6.1)

신 8:19

וְהִלַּכְתָּ אַחֲרַי אֱלֹהִים אֲחֵרִים

네가 만일 다른 신들을 따라
수식어가 형용사인 경우이다.

신 4:24

יְהוָה אֱלֹהֶיךָ אֵשׁ אֲכָלָהּ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수식어가 분사인 경우이다

창 6:18

וּבְנֶיךָ וְאִשְׁתְּךָ וְנָשֵׁי־בְנֶיךָ אִתָּךְ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수식어가 대명사 접미사인 경우이다.

시 23:2

בְּנֵאֲוֹת דָּשָׁא יִרְבִּיעֲנִי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수식어가 연계형인 경우이다.

대상 28:18

הַכֶּרֶבִּים זָהָב

금으로 된 그룹들(금 그룹들)

수식어가 동사수식적인 동격인 경우로서, 금을 입히다. 금을 칠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수식적 어구가 그룹이라는 동격의 명사를 수식한다.

창 4:8

וַיֹּאמֶר קַן אֶל־הָבֶל אָחִיו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수식어가 동격인 경우이다.

삼하 7:6

בְּאֶהָל וּבְמִשְׁכָּן

나의 장막과 성막에서

수식어가 중언법인 경우이다.

민 19:14

וְכָל-אִשָּׁר בְּאֶהָל יִטְמֵא שִׁבְעַת יָמִים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동안 부정할 것이다

수식어가 관계절인 경우이다.

동사수식적 수식어(IBHS, §4.6.2)

창 1:27

וַיְבָרֵא אֱלֹהִים | אֶת-הָאָדָם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수식어가 직접 대격인 직접 목적어인 경우로 동사를 한정한다

창 41:40

רַק תִּכְסֶּא אֲנִי מִמֶּךָ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수식어가 동사수식적인 대격의 경우로 동사를 수식한다.

왕상 3:7

לֹא אֵדַע צֵאת וְבֹא

나는 나가고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고

수식어가 부정사 연계형의 경우로, 목적어로서 동사를 한정한다.

민 22:6

אוֹלִי אוֹכֵל נֶפֶחַ-בּוֹ

혹시 내가 그것을 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수식어가 부정사 연계형의 경우로, 보어로서 동사를 수식한다.

민 35:19

בְּפָגְעוֹ-בּוֹ הוּא יְמִיתֵנּוּ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수식어가 부정사 연계형의 경우로, 전치사구로서 동사를 수식한다.

사 1:17

לִמְדוּ הִיטֵב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수식어가 부정사 절대형의 경우로, 목적어로서 동사를 수식한다.

렘 22:19

קְבוּרַת תָּמּוֹר יִקְבֹּר סְחוּב וְהִשְׁלָךְ

그는 끌려가서 내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라

수식어가 부정사 절대형의 경우로,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한다.

창 2:17

לֹא תֹאכַל מִמֶּנּוּ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수식어가 부사의 경우로 동사를 수식한다.

창 27:33

גַּם־בְּרוּךְ יְהוָה

반드시 그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수식어가 불변화사의 경우로 동사를 수식한다.

창 3:14

עַל־גְּחֹנֶךָ תֵּלֵךְ

너는 너의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수식어가 전치사구의 경우로 동사를 수식한다.

욥 9:15

אֲשֶׁר אִם־אֶדְקֵי לֹא אֶעֱנֶה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수식어가 종속절의 경우로 동사를 수식한다.

단음절(單音節)

monosyllable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되거나 하나의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

음절은 몇 개의 음소들(phonemes)로 구성되어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를 가리킨다(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모음은 단어는 아니지만 단음절이 될 수 있다. 예로, ‘아침’이란 단어는 ‘아’와 ‘침’이란 두 개의 단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에는 단음절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단음절 단어들이 복수형을 이룰 때 두 개의 형태로 구별되는 점이다. 즉, 한 유형은 마지막 자음이 중복되지 않는 것들(שִׁיר가 복수형이 되면 שִׁירִים이 된다)이고 또 다른 유형은 마지막 자음이 중복되는 것들(עַם이 복수형이 되면 עַמִּים이 된다)이다(PDSBH 110).

삿 5:12

עֹרִי עֹרִי דְבַר־שִׁיר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아 1:1

שִׁיר הַשִּׁירִים אֲשֶׁר לְשִׁלְמֹה: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의 노래(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창 11:6

עַם אֶחָד וְשָׁפָה אֶחָת לְכָל־הֶן

보라 이 사람들이 한 백성이요 그들의 모든 언어도 하나이다

창 17:16

מֶלֶכִּי עַמִּים מִמְּנֶה יְהוָה

백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

+ 음절(syllable)

≡ 개음절(open syllable), 폐음절(closed syllable)

법((法), 서법(敍法)

mood

일차적으로 “동사의 동작이 실제적인 시공과 맺는 관계”(PDSBH)를 결정하는 ‘동사의 형태’(verb forms), 즉 ‘활용’(conjugation)에 대한 ‘문법적 범주’(ODEG, RDLL, 표준국어대사전).

법 또는 서법으로 번역되는 영어 moods 는 라틴어 modus (즉, manner)에서 나왔다. 학자들에 따라 moods 는 ‘법’과 ‘서법’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별하기도 하고(ODEG, CDEG), 같은 범주로 보기도 한다(조성식 외, RDLL). 원래 전통 영문법에서는 라틴어 문법을 따라서, ‘법’을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으로 구분하였다. 직설법은 동사의 동작이 실제적인 시공 속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고, 명령법은 의지를, 가정법은 가능성을 표현한다. 따라서 동사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는 ‘어형 변화’를 갖는다. ‘법’을 ‘서법’과 같은 범주로 보는 학자들은 ‘형태적인 것(활용)’, ‘어휘적인 것’(RDLL), ‘구문적인 것’(RDLL), ‘의미적인 것’(화자의 심적태도, 조성식외, 이정민 외, RDLL)을 포함하여 보기도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의 형태들이 동작의 시제와 서법을 동시에 표현한다. 히브리어는 많은 언어에서처럼 시간 형태들을 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시제로 표현하지만, 자주 동작의 서법이나 시상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언어들보다는 시제를 좀 불완전하게 표현한다. 히브리어에서 서법은 직설법과 의지법(직접의지법, 간접의지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의지법에는 권유형(cohortative), 지시형(jussive), 명령형(imperative)등이 있다. 또한 어떤 시제 형태(접두사 변화, 접미사 변화)는 어느 정도의 서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준 조동사(semi-auxiliaries)의 역할로서 ‘할 수 있다’(can), ‘해야 한다’(must), ‘할 것이다’(will) 등으로 표현된다(참. JMK §111c, 113l, m, n, 114, 116).

창 32:21(한 32:20) (JMK §114c)

כִּי־אֶמָּר אֲכַפְּרָה פָּנָיו בְּמַנְחָה הַהִלְכֶּת לִפְנָי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진정시킬 것이다

권유형

출 5:8 (JMK §114e)

גִּלְכָּה נִזְבְּחָה לְאֱלֹהֵינוּ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한다

권유형, 우리로 가게 하라가 아니다

창 47:6(JMK §114g)

הוֹשֵׁב אֶת־אֲבִיד וְאֶת־אֶתִיד יֵשְׁבוּ בְּאֶרֶץ גִּשֹׁן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게 하라 그들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라

지시형

룻 2:14(JMK §114m)

גֹּשְׁי הָלֵם

여기로 가까이 오라

명령형

ㄴ ㄹ 서법의(modal), 서법 조동사(modal auxiliary)

형태(形態)

morph

형태소보다 더 작은 개념으로, “형태소를 음운적으로 또는 철자상으로 표시한 것”(조성식 외).

문법용어로서 형태(morph)는 일차적으로 모든 변이 형태소(allomorph)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즉, ‘형태’는 ‘변할 수 있는 여러 형태들’(변이 형태소) 중 음운적으로나 하나의 철자로 구현된 것이다. 형태는 형태소(morpheme) 보다 하위의 개념이다. 형태소는 ‘문법의 가장 작은 의미 있는 단위’를 가리키는데, 기본적으로 추상적이며(abstract) 이론적인(theoretical) 단위이다. 이에 반하여 형태는 구체적 환경에서 형태소를 구현한 것이다. 예로, 영어 복수 형태는 /s/, /z/, /ɪz/ 등으로 구현된다. 또한 ‘~을 할 수 있다’(able)는 형태소는 conceivable(생각할 수 있는)에서는 -able 로, edible(먹을 수 있는)에서는 -ible 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 + 형태소(morpheme),
- ≡ 음소(phoneme), 형태론(morphology)
- = 변이 형태소(allomorph)

형태소(形態素)

morpheme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

영어 morpheme 은 헬라어에서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μορφή)에서 나왔다. 형태소는 언어 체계 안에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로서 더 이상 작은 분할체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단어들은 형태소들이지만, 모든 형태소들이 단어들은 아니다”(PDSBH). 예로, 영어의 boys 는 boy 라는 형태소와 -s 라는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s 는 문법 형태소이고, boy 는 어휘형태소이다. 형태소는 다시 두 부류로 구분된다. (1) 자유 형태소(free morphemes)는 단독으로 하나의 독립된 단어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예로, ‘이야기책’의 ‘이야기’와 ‘책’은 각각 독립된 형태소이다. (2) 구속 형태소(bound morphemes)는 또 다른 단어에 붙어져야만 하는 단위이다. 예로, boy 는 자유형이지만, boish 는 결속형이다(참. 조성식 외, 이정민 외; PDSBH).

+ 어휘소 (lexeme)

≡ 음소(phoneme), 형태론(morphology)

형태론(形態論)

morphology

단어들이 형성되는 구성 원리와 그 구조를 다루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

형태론이란 용어는 폰 괴테(J.W.von Goethe)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언어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것으로 처음 만들었다. 이후 19 세기의 언어학자들이 단어의 형성과 굴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한다(RDLL). 형태론은 음운론(phonology), 통사론(syntax)과 함께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삼대 분야 중 하나를 이루며, 형태론은 통사론을 합하여 문법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특히 히브리어에서 대부분의 단어들과 단어 형태들은 어근 자음들과 그것에 덧붙여진 형태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단어 형태(word-form)는 모음이나 자음 접사들(affixes),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로 구성되며, 이 두 요소들은 불연속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편의상 3 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을 어근이라고 말한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히브리어 어근들은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자음,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그 어근을 분명히 밝힐 수 있지만 상당수의 어근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단어들의 어근은 음성학적 규칙들과 유추를 통하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외형적인 어근(이차적 어근)과 실제적 어근(일차적 어근)이 있다. 또한 동일한 어근이 동사나 명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명사가 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면 그것은 동사 파생 명사라고 부른다. 반면에 어떤 동사가 명사에서 파생되었으면 명사 파생 동사라고 부른다. 품사들은 대명사(정관사 포함), 명사(실명사와 형용사), 동사, 그리고 불변화사(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구성된다. 한 음소가 여러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일정한 어형 변화 범주인 형태소도 여러가지 변이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참. JMK §34).

– 형태(morph), 형태소(morpheme), 변이 형태소(allomorph)

≡ 음운론(phonology), 통사론(syntax)

움직이는 ν

movable nu

헬라어에서 단어가 σι로 끝날 경우, 그 다음 단어와의 음절 경계표시로 ι 다음에 ν와 같은 자음을 덧붙이는 현상.

고전 헬라어에서 그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음절 경계표시로 ν를 덧붙이기도 한다(참. S §134).

막 11:7

φέρουσιν ν τὸν πῶλον

그들이 그 나귀새끼를 가지고 온다

φέρουσι가 ι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ν를 첨가하고 있다.

배수사(倍數詞)

multiplicative

수나 양의 갑절이나 많음을 가리키는 단어나 표현.

배수사는 문자적으로 수나 양의 갑절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다’는 점을 강조해준다 (예로, 창 26:12, ‘백배’; 삼상 18:7, ‘천천, 만만’; 시 119:72, ‘천천’ 등).

히브리어에서 배수사란 두배, 네배, 일곱배, 백배처럼 **מֵאִים** 어미를 가진 여성 형태(기본 형태)이다. 이 형태는 쌍수로 보이지만 사실상 부사 어미이다(아마 **מֵ**에서 분리된 형태일 것이다)(JMK §100o).

삼하 12:6

וְאַתְּ־הַכְבֵּשָׁה יְשׁוּלִים אַרְבַּעַתַּיִם

암양을 네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

창 4:15

כָּל־הַרְגֵּ לֹץ שְׁבַעַתַּיִם יָקָם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을 것이다

창 26:12

וַיִּמְצָא בְשָׁנָה הַהִוא מֵאָה שְׁעָרִים

그는 그 해에 백배를 얻었다.

무나흐

munah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 시편,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밑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무나흐는 “쇼파르(양각나팔) 무타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나팔을 불 때의 나팔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무나흐는 다음에 분리 악센트가 올 때까지 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다음에 오는 분리 악센트의 종류에 따라 세 종류의 음을 가진다. 이 악센트는 다른 연결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할 때 다음에 오는 단어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참. GKCS §15 g; JMK §15 g; 권성달 2015: 177).

+ 악센트(accent)

무나흐 레가르메

munah legarme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 시편,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밑에  라는 표기와 어절 끝에 세로로 된 선(l)까지 합하여 ‘    ’ 모양을 갖는다. 따라서 세로로 된 선을 제외하면 무나흐와 동일한데, 무나흐는 연결(비분리) 악센트이고 무나흐 레가르메는 분리 악센트이므로 그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틀리샤 그돌라, 카르네이 파라, 파제르, 게레쉬, 게르샤임 등과 함께 제 4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악센트는 어절 수가 적은 짧은 절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며, 긴 절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악센트의 출현 횟수는 매우 적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2015: 171-176).

+ 악센트(accent)

나크다님(모음 첨가자들, 母音添加者)

Naqdanim

점을 찍는(pointing, punctuation) 자들, 혹은 모음을 첨가하는 사람들.

히브리어 문법은 일반적으로 주후 7 세기경에 티베리아 학파의 유대인 학자들이 확립하였던 전통적인 성경 원문 언어의 문법으로 이해된다. 티베리아 학자들은 성경 독법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 있어서 시리아 문법학자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당시 시리아 학자들은 바빌론의 히브리어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다시 티베리아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에 괄목할 만한 작업으로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본문에 모음을 표기하는 수많은 기호들이 붙여진 것이다. 또한 자음 발음, 음절 구분, 강세, 단어들 간의 연결, 휴지, 억양 등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호들, 특히 모음 기호들은 주로 점들(points, נִקְּטָה)로 이루어져 있어서 흔히 자음 본문에 ‘점찍기’(pointing, 혹은 punctuation)라고 한다. 그리고 이 체계의 창안자들을 ‘나크다님’(Naqdanim, 점 찍는 자들, 모음 첨가자들)이라고 부른다. 이 나크다님들은 매우 정밀하게 발음을 결정하였으며, 이 발음은 당시 회당의 예배의식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엄숙하고도 아름답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느정도 우아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꾸며 만든 이 발음은 분명히 인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은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다. 나크다님은 그들의 전통이 위태로워졌을 때 당대의 발음을 충실하게 기록하기 원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것은 그 체계가 지닌 내적인 일관성에 있어서나 다른 종족 언어들과 비교해볼 때 더욱 잘 증명될 수 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특히 형태론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크다님이 기록한 모음 표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은 그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믿을 만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어 체계가 언제 어디서 통용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며, 나크다님은 성경의 특정한 읽기 전통을 기록했다고 추정된다(JMK §1a, b).

+ 마소라 학파(massorete)

≡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내러티브(敘事物)

narrative

기본적으로 연대적인 줄거리나 연대적인 순서(chronological order)를 가진 이야기와 그것을 예술적으로 배열한(artistic order) 담론으로 구성된 문학적 작품.

우리 말에서 서사(narrative)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며(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는 ‘사실’ (혹은 ‘사건’)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으므로, 학자들은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채트만에 따르면, “이야기란 내러티브에 묘사된 내용(what)이며, 담론이란 묘사된 방식(how)을 가리킨다.”(S. Chatman, 27). 즈네트는 내러티브에 대한 오늘날 학계의 일반적인 의미로서, (1)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이 서술적으로 진술된 것”이며, (2) “그 사건들은 사실적이거나 허구일 수 있으며, 그것들은 연결되거나, 대립되거나 반복되는 여러 관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G. Genette, 1980, 제라드 즈네트 『서사담론』 권택영 역, 1992, 25). 정리하자면, 서사물이란 저자가 이야기의 소재(사건, 인물, 배경, 플롯)를 자신의 관점으로 새롭게 배열하고, 서술을 하는 주체(화자)와 듣는 객체(수화자)를 만들어 화자의 어조와 시점과 관점을 통하여 자신의 관점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우, “서사분석방법론,” 『히브리시학』, 243).

내러티브는 구약 성경에서 ‘시’와 함께 중심 소통 장르를 구성하고 있다. 문법적 관점에서 내러티브를 살펴 볼 때, 성경 저자는 ‘바브 도치’(wayyiqtol, weqatal 등)를 통하여 시제와 주제 및 단락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욥 1:1

אִישׁ הָיָה בְּאֶרֶץ-עֹזַן אִיּוֹב שְׁמוֹ הָיָה | הָאִישׁ הַהוּא תָם וְיָשָׁר וְיָרָא אֱלֹהִים וְסָר מֵרָע: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 1:2

וַיֹּלְדוּ לוֹ שִׁבְעָה בָנִים וְשְׁלֹשׁ בָּנוֹת: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욥 1:3

וַיִּהְיֶה מִקְנֵהוּ שִׁבְעַת אֲלָפֵי-צֹאן וּשְׁלֹשָׁת אֲלָפֵי גְמָלִים וְחֲמִשׁ מֵאוֹת צֶמֶד-בָּקָר וְחֲמִשׁ מֵאוֹת אֲתוֹנוֹת וַעֲבָדָה רַבָּה מְאֹד וַיְהִי הָאִישׁ הַהוּא גָדוֹל מִכָּל-בְּנֵי-קֶדֶם:

그는 양이 칠천마리, 낙타가 삼천 마리, 겨릿소가 오백쌍, 암나귀가 오백 마리가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으며,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자였다.

헬라의 경우 일반적인 내러티브 서술은 직설법 부정과거 형태로 이뤄진다(R, 835-836). 그리고 병치(병렬, juxtaposition)에서 설명했듯이 “부정과거 시제가 막을 열고 미완료과거시제는 극을 진행”시키다보니(R, 838). 히브리어에서 카탈형태에 이어 바익톨 형태를 사용하듯 부정과거 시제에 이어 미완료과거 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완료과거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R 883).

행 13:13(R 836)

Ἀναχθέντες δὲ ἀπὸ τῆς Πάφου οἱ περὶ Παῦλον ἦλθον εἰς Πέργην τῆς Παμφυλίας, Ἰωάννης δὲ ἀποχωρήσας ἀπ' αὐτῶν ὑπέστρεψε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후에 바보에서 출항한 바울 일행은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한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의 흐름을 서술하면서 부정과거분사(Ἀναχθέντες), 부정과거 직설법(ἦλθον), 부정과거분사(ἀποχωρήσας), 부정과거 직설법(ὑπέστρεψεν)을 사용하였다.

마 13:8(R 883)

ἄλλα δὲ ἔπεσεν ἐπὶ τὴν γῆν τὴν καλὴν καὶ ἐδίδου καρπὸν

한데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부정과거 ἔπεσεν 이 사용된 다음 미완료과거 ἐδίδου 가 καὶ 와 함께 사용되었다.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 1978.

Genette, G.,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Ithaca: Cornell Uni., 1980; 『서사담론』 권택영 역, 서울: 교보문고, 1992.

강세의 후퇴(強勢後退)

nasog ahor

강세의 후퇴를 히브리어로 일컫는 문법 용어.

히브리어로 **אָחור נָסוּג**는 강세가 후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 강세를 받게 되는 제 2 끝음절이 개음절(장모음을 갖는)일 때에만 허용된다. 강세를 잃게 되는 끝음절은 장모음을 갖는 개음절이거나 단모음을 갖는 폐음절이어야 한다(GKCS §29e).

창 1:5

קָרָא לַיְלָה וּלְחֹשֶׁךְ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강세를 잃게 되는 끝음절이 장모음을 갖는 개음절인 경우

창 3:19

תֹּאכַל לֶחֶם

먹을 것을 먹으리니

강세를 잃게 되는 끝음절이 단모음을 갖는 폐음절인 경우

부정(否定)

negation

부정어(negative)를 사용하여 문장이나 절의 진술이나 주장의 진위를 강하게 부정하는 것.

영어 negation 은 라틴어 negare, ‘~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부정하는 것’에서 나왔다. 따라서 부정이란 부정어(negative)를 덧붙여 본래의 문장에 표현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참. 조성식 외). 이와 대비되는 것은 긍정(affirmation)이다. 부정은 그것이 미치는 작용 범위(scope)에 의해 (1) 문장 부정(sentence negation), 또는 연계 부정(nexal [nexus] negation), (2) 단어 부정(word negation), 또는 특수 부정(special negation)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참. 조성식 외).

≡ 부정어(negative), 부정절(negative clause)

부정어(否定語)

negative

절이나 문장의 진술이나 주장의 진위를 강하게 부정하는 문법적 요소.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no’, ‘not’, ‘never’와 같은 것이 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인 부정어들(negatives)은 다음과 같다. (1) **לֹא**: 주로 동사절에서 사용되며, 가끔 명사절에서도 사용되고, 고립된 명사의 부정어로도 사용된다. (2) **אַל**: 금지의 부정어로서 명령형이 아닌 지시형과 권유형의 직접적인 의지법 형태와 함께 사용된다. (3) **אֵין, אין**: ‘거기에 없다(there is not),’ ‘그것은 없다(it is not)’는 존재를 부정하는 부사로 사용된다. (4) **לֹבֶלְתִּי**: 부정사 연계형을 부정할 때 주로 쓰인다. (5) **בִּל**: 시문에서 **לֹא**의 유사어로 사용된다 (6) **בְּלִי**: **לֹא**의 상당히 희소한 유사어이다. (7) **בְּלֶחְתִּי**: 사 14:6 에서 **בְּלִי**의 의미로 나온다. (8) **טַרְם**: 아직(not yet)의 의미로 거의 대부분 과거의 의미를 가진 익톨과 함께 나타난다. (9) **אִפְסֵס**: ‘더 이상 없다’의 의미로 산문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이것은 비존재의 개념을 전달하는 **אֵין**과 같은 부정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still more)라는 뉘앙스를 첨가한다(참. JMK §160).

(1)-1 동사절에 사용된 것으로 완료와 미완료 직설법의 직설법의 정동사 앞에서 사용된다 왕하 17:26a(JMK §160b).

לֹא יָדְעוּ

그들은 알지 못한다

(1)-2 명사절에 사용된 것으로 특히 강조나 부정이 문법적 술어외의 단어와 연결될 때 사용되며, 강조의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창 7:2

וּמִן־הַבְּהֵמָה אֲשֶׁר לֹא טָהָרָה הוּא

정결하지 않은 짐승으로부터

(1)-3 고립된 명사의 부정어로 사용된 것으로, 수식적 분사가 사용되었다.

렘 2:2(JMK §160d).

בְּאֶרֶץ לֹא זָרוּעָה

씨를 심을 수 없는 땅에서

(2)-1 직접적인 의지법 형태인 지시형과 함께 사용되었다.

출 34:3(JMK §160f).

אִישׁ אֶל־יֵרָא

아무도 나타나서는 안된다

(2)-2 직접적인 의지법 형태인 지시형과 함께 사용되었다

왕상 13:22

אֶל־תֵּאכַל

먹지 마라

(3)-1 어떤 것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할 때 사용된다.

창 37:29(JMK §160g).

וְהָיָה אִי-יוֹסֵף בְּבוֹר

요셉이 구덩이에 없었다

(3)-2 명사절로 표현된 진술의 진실성을 부정할 때 사용된다.

삿 16:15

וְלִבְךָ אֵין אִתִּי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4) 부정사 연계형을 사용하여 부정할 때 사용되며, 이것을 직역하면 ‘결핍된, 존재하지 않는 아무 것도 아닌’의 의미를 지닌다. 이 부정은 근원에 있어서 명사적이며, 그 명사적 성격 때문에 부정사 연계형을 선호하게 되었다. **ל**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며 때로는 아주 약한 뜻을 갖는다.

창 3:11(JMK §124e).

צוֹחִידְךָ לִבְלֹתִי אֶכְל־מִמֶּנּוּ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5) 시문에서 **לֹא**의 유사어로 사용된다.

사 26:10

בַּל־לָמַד צֶדֶק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6) **לֹא**의 상당히 희소한 유사어로서 사용된다.

욥 41:18

מִשְׁיָגְהוּ חָרָב בְּלִי תְקוּם

칼이 그에게 꽃혀도 일어나지 않으며

(7) 여기에서 **בְּלִי**는 **בְּלִי**의 의미로 나온다

사 14:6

מִכַּת בְּלֹתִי סָרָה רָדָה בְּאֶף גּוֹלִים מִרְדֵּךְ בְּלִי חֲשָׁד

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화가 나서 열방을 억압하여도 막을 자가 없었더니

(8) ‘아직~하지 않다(not yet)’의 의미로 사용된다

출 9:30

כִּי טָרָם תִּירָאוּן מִפְּנֵי יְהוָה אֱלֹהִים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9) ‘더 이상 없다(still more)’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사 5:8

עַד אֶפֶס מְקוֹם

더 이상 빈 틈이 없도록

– 부정절(negative clause)

부정절(否定節)

negative clause

부정어(negative)를 통하여 부정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절.

히브리어에서 부정어들(negatives)을 포함하는 절(clause)로서, 명사절이나 동사절에 다 함께 나타난다(JMK 161).

+ 부정어, 부정요소(negative)

중성(中性)

neuter

일반적으로 명사 범주인 성(gender)의 일종으로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으로, 인도 유럽 어족이나 셈 어족에서 사용되는 문법적인 성(性)이다.

히브리어에서 중성의 개념은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 동사에서 사용되며,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중성의 개념은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으로 표현된다. 지시 대명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성의 개념은 **זאת**로 사용되며, 인칭 대명사에서는 의미가 모호할 때 여성형을 사용하고, 동사에서도 여성형 대명사로 표현된다. 또한 기수는 여성형 명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 외에 비인칭적 구문을 주하는 동사에서는 남성형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이것은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들에 잘 나타난다. 그리고 기상학적 현상은 남성형으로 나온다(참. JMK §152).

창 42:18(JMK §152a).

זאת עשו

이것을 하라

지시대명사로서 중성의 개념이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암 7:6(JMK §152b).

גם-היא לא תהי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미가 모호한 인칭대명사 ‘이것’이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사 7:7(JMK §152c).

לא תקום ולא תהיה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동사에서 대명사는 여성으로 표현된다.

대상 21:10(JMK §152g).

אחת מהנה

이것들 중 하나

기수가 여성형 명사와 함께 사용된 형태이다.

왕상 1:1(JMK §152d).

ולא יחם לו

그것은 그에게 따뜻하지 않았다

비인칭적 구문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남성으로 표현되었다.

삼상 29:10(JMK §152e).

ואנור לקם ולכו

너희는 밝아지면 떠나라

기상학적 현상이 남성형으로 표현되었다.

니팔

nipha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유형 중의 하나로 동사의 재귀적 동작을 표현하는 유형.

니팔은 주로 재귀의 개념을 표현하는 동사 유형이다. 그리고 또한 수동태 및 중간태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형태적인 특징은 동사 앞에 접두사 눈(**נ**)이 오며, 이 눈은 그 다음 자음에 동화되기에, 니팔 형태에서는 동사 어근의 첫 자음이 항상 중복되게 된다. (JMK §51; WHSB 135-139; GKC §51; IBHS§23).

사 36:6

יִסְמַךְ אִישׁ עָלָיו

사람이 그에게 의지한다면

히브리어 יִסְמַךְ 동사가 ‘자신을 붙들다’라는 재귀적 의미로 사용되어 ‘기대다’ 혹은 ‘의지하다’라는 뜻이 된다.

출 14:21

וַיִּבְקַעַ הַיָּם

그 물이 나뉘어졌다.

히브리어 וַיִּבְקַע 동사가 ‘나뉘지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니트파엘

nithpael

미슈나 히브리어의 피엘 재귀 유형.

니팔 유형의 접두어인 눈(נ)이 히트파엘 유형과 혼합된 형태로서, 수동의 뜻을 지닌다(JMK §59f; GKC §55k).

겔 23:48

וְנִסְרוּ כָּל־הַנָּשִׁים

그 모든 여자들은 경고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ניסר 동사의 니트파엘 형태이다.

≡ 피엘(piel), 히트파엘(hithpael)

행위수행 명사(行爲遂行名詞)

nomen agentis

행위를 수행하는 명사.

분사가 명사와 연결된 절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관이 있을 때, 그 분사는 행위를 수행하는 명사로서 기능한다(IBHS §37.2.a).

신 16:18

שָׁפְטִים וְשִׁטְרִים תִּתֶּן־לִי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네게 둘 것이라

지배 명사(支配名詞)와 피지배 명사(被支配名詞)

nomen regens and rectum

히브리어에서 의미적으로나 표시적으로 관계가 밀접한 두 개의 명사가 함께 나올 때, 후행하는 명사를 지배하는 선행명사를 지배명사라 하고, 뒤따르는 명사를 피지배명사라고 함.

히브리어에서 두 개 혹은 세 개의 명사나 단어들이 하나의 고리를 이루며 연결되어 나올 때, 앞에 나온 요소가 뒤 따르는 요소를 지배하게 된다. 명사는 소유나 소속등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명사와 밀접히 결합되어 사용된다. 두 개의 명사는 하나의 논리 의미적인 단위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음성론적 단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명사는 지배 명사(nomen regens)라고 부르고, 두 번째 명사는 피지배 명사(nomen rectum)라고 부른다. 또한 첫 번째 명사(지배 명사, nomen regens)는 음성론적으로 두 번째 명사(피지배 명사, nomen rectum)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 건물이 동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참. JMK §86a, 92a).

출 15:19

הַיָּם מֵאֵי

바로의 말

여기에서 ‘말’은 지배 명사(nomen regens)이며 ‘바로’는 피지배 명사(nomen rectum)이다. 지배 명사를 ‘주 명사’(head nou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헬라어에서 피지배명사는 속격을 가진다. 반면 지배명사는 격을 다양하게 취할 수 있다. 한편 관사와 대명사가 ‘지배 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PDSNTG 88).

마 1:1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의 책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에서는 Βίβλος 가 지배 명사이고, 속격인 γενέσεως 가 피지배 명사이다.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에서는 γενέσεως 가 속격이지만 지배 명사이고, 속격인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가 피지배 명사이다.

– 지배 명사(nomen regens), 피지배 명사(nomen rectum)

≡ 주 명사(head noun)

집합적 단일명사

nomen unitatis (nomina unitatis)

문법적 형태에서 성(남성, 여성) 수(단수, 쌍수, 복수)와 상관 없이 개체나 집단에 적용되는 명사.

집합적 단일명사는 “유표적인 복수(marked plural)일지라도 본질적으로 단수이거나 전체적으로 집합체를 가리킨다(שָׁמַיִם, 하늘). 또한 이 집합 명사는 무표적일 수 있으며(אֲנִי, 함대), 이에 대응하는 유표적인 단수 명사(אִנְיָה, 배)이다.” (PDSBH, 114)

(1)

요 2:2[한 2:1] (GKC §122s)

וַיַּתְּפִל יוֹנָה אֶל־יְהוָה אֱלֹהָיו מִמַּעַי הַדָּגָה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기서 **הַדָּגָה**는 여성 단수 명사로서 개체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 명사이다.

요 2:1[한 1:17] (GKC §122s)

וַיִּמְן יְהוָה דָּג גָּדוֹ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기서 **דָּג**는 남성 단수 명사로서 개체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 명사이다.

요 2:11[한 2:10] (GKC §122s)

וַיֹּאמֶר יְהוָה לְדָג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요 2:2[한 2:1]에서 **הַדָּגָה**(여성 단수 명사)와 과 요 2:1[한 1:17], 11[한 2:10] 에서 **דָּג**(남성 단수 명사)는 성에 상관없이 모두 집합적 단일 명사이다.

(2)

왕상 9:26

וַאֲנִי עָשָׂה הַמֶּלֶךְ שְׁלֹמֹה

솔로몬 왕이 배들을 만들었다

여기서 **אֲנִי**는 배들(a fleet)로서 집합적 단일명사이다

욥 1:3

וַיִּמָּצֵא אֲנִיָּה | בָּאָה תְּרִשִׁישׁ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여기서 **אֲנִיָּה**는 배(a single ship)로서 개체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명사이다

따라서 왕상 9:26 에서 **אֲנִי** 배들(a fleet)과 **אֲנִיָּה** 배(a single ship)는 수에 상관없이 모두 집합적 단일 명사이다.

(3)

삼상 15:29 (GKC §123b)

כִּי לֹא אֲדָם הוּא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여기서 **אָדָם**은 형태상으로 단수형이며 개체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명사이다

렘 47:2 (GKC §123b)

וַיִּעֲקוּ הָאָדָם וְהַיֵּל לְכָל יוֹשֵׁב הָאָרֶץ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서 **אָדָם**은 형태상으로는 단수형이지만 집합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명사이다

[4]

삿 21:16(GKC §123b)

כִּי־נִשְׁמְדָה מִבְּנֵי־מִן אִשָּׁה

베냐민의 여인이 모두 죽었으니

여기서 **אִשָּׁה**는 형태상으로는 단수형이지만 집합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명사이다

삼상 21:6(GKC §123b)

כִּי אִם־אִשָּׁה עָצְרָה־לָנוּ כְּתָמוּל שְׁלֹשָׁם

참으로 우리가 삼일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도 **אִשָּׁה**는 형태상으로는 단수형이지만 집합적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단일명사이다.

종족명

nomina gentilitia

종족의 이름

창 10:16

וְאַתְּ־הַיְבוּסִי וְאַתְּ־הָאַמֹּלִי וְאַתְּ הַגִּרְגָּשִׁי:

그리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행 2:11

Ἰουδαῖοί τε καὶ προσήλυτοι, Κρήτες καὶ Ἀραβες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자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명사류(名詞類)

nominal

명사와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품사.

옛날 영문법에서는 명사와 형용사를 통틀어 명사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세분화하여, 명사를 실명사(noun substantive)라고 하였고, 형용사를 형용사적 명사(noun adjective)라 하였다(참조성식 외). 즉, 형용사는 명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실명사화 되어 명사처럼 주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The best is yet to be; CDEG). 따라서 ‘명사류’는 ‘명사적’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명사-구-같은’ 단어, 구, 절을 포함하게 된다(ODEG).

명사절(名詞節)

nominal clause

술어가 명사이거나 명사류를 포함하는 절로서 통사적으로 명사구처럼 기능하는 절.

명사절은 명사, 형용사, 명사류로 구성되며, “다른 명사구를 수식하지 않는 자충족적인 관계절이다”(CDEG). 가끔 동사 없는 절(verbless clause), 술어 주격(predicate nominative), 주격 보어(subject complement)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영어의 명사절에는 “That-clause, 의문사절, 감탄절, 부정사절, 동명사절 등이 있고, 명사절은 주어, 직접목적어, 혹은 부사로 기능한다”(ODEG).

영어에서 명사절은 is, are, am, were 와 같은 연결 동사(연결사, copula)를 통해 형성되지만, 히브리어에서 명사절은 단순한 병렬로 만들어진다(예. 출 3:6: **אֲנֹכִי אֱלֹהֵי אֲבִיךָ**,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PDSBH). 즉 히브리어에서 명사절의 범주는 동사 없는 절, 그 술어가 동사가 아닌 모든 절(to be 의 뜻을 가진 **הָיָה**를 제외하고), 명사이거나 명사와 동등한(분사, 명사, 대명사와 함께 나오는 전치사) 모든 절을 말한다(JMK §154a).

(1) 명사절의 술어가 명사인 경우

창 45:3

אֲנִי יוֹסֵף

나는 요셉이다

(2) 명사절의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삼하 14:20

וְאֵלֶיךָ תָּחִי

내 주는 지혜롭다

(3) 명사절의 술어가 분사인 경우

창 2:10

וַיֵּצֵא

강이 나왔다

명사화(名詞化)

nominalization

동사나 형용사, 다른 품사들로부터 형태론적 조작에 의해 명사를 파생시키는 것

명사는 온갖 다양한 품사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영어에서 동사에서 온 것(drive/ driver, buy/buyer), 형용사에서 온 것(accurate/accuracy, kind/kindness), 다른 명사에서 온 것(man/manhood, woman/womanhood) 뿐 아니라, 접속사(no ifs, ands, or buts), 부사(the here and now), 불변사(a resounding no) 등에서 올 수도 있다(참. 무시만).

히브리어에서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와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예들을 들 수 있다

창 12:4

וַיֵּלֶךְ אַבְרָם בְּאֶשֶׁר דִּבֶּר אֱלֹהֵי יְהוָה וַיֵּלֶךְ אִתּוֹ לוֹט

아브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대로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서 דִּבֶּר는 피엘 완료형 3 인칭 남성 단수로서 דִּבֵּר의 동사 형태이다

창 15:1

אַתָּה | הַדְּבָרִים הָאֵלֶּה הֵנָּה דְּבַר־יְהוָה אֶל־אַבְרָם בְּמַתְנָה לְאַמֶּר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הַדְּבָרִים는 דְּבַר의 남성 복수형태이며, דְּבַר는 남성 단수 형태로서 דִּבֵּR의 동사형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삿 19:16

וַהֲנִיָּה | אִישׁ זָקֵן בָּא מִן־מַעֲשָׂהוּ מִן־הַשָּׂדֶה בְּעֶרְ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여기서 זָקֵן은 ‘늙은’ 이라는 형용사이다

출 19:7

וַיָּבֹא מֹשֶׁה וַיְקַרָּא לְזִקְנֵי הָעָם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זִקְנֵי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특별한 사회적 계층인 장로들을 가리키며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주격(主格)

nominative

명사, 대명사가 술어의 주체(즉, 주어)가 되거나, 서술 대상의 주체(즉, 주격 보어)의 구실을 할 때 사용되는 격(참. 조성식 외).

주격(nominative)은 17 세기의 영국 문법학자들이 라틴어 문법에서 취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subjective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도유럽어에서 명사는 예전에 격변화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 명사는 격변화를 상실하였다. 국어에서는 격 조사(‘이’, ‘가’, ‘께서’, ‘에서’ 등)가 술어의 주어를 표시하여 준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명사는 격들(주격, 대격, 속격)을 표시하는 끝모음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격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격, 대격, 속격으로 표현되는 문법의미적 관계들은 구나 문장 안에서 명사의 위치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나타난다(참. JMK §86). 한편 동사적 성격의 부정사 연계형은 동작의 주어가 일반적으로 주격이다. 일반적으로 동작의 주어는 주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원시 셈어의 구문 구조이며, 어떤 경우에는 모음 표기가 주격임을 나타낸다(참. JMK §124g).

민 35:6

לֹאִישׁ שָׂמָּה הָרָצָח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동작의 주어는 부정사가 실명사에서 분리되었을 때 명백하게 주격이다. 이것은 부정사 바로 뒤에 그 목적어가 나올 때 더욱 분명해진다

창 4:15

לְבִלְתִּי הַכּוֹת־אֹתוֹ כָּל-מַצָּאוֹ

그를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비정동사(非定動詞)

nonfinite verb

인칭, 수, 시제, 법, 태 등의 한정 없이 있는 동사.

영어에서는 비정형 동사라고도 부른다(조성식 외). 정동사란 “인도유럽어에서는 인칭, 수 따위를 표시하여 동사가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국어에서는 청자와 화자의 높고 낮음의 관계에 따라 상대 높임법,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서법(敍法) 따위의 체계가 나타난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세 가지 비정형동사 형태로서 (1) 부정사(to forget), (2) 분사(forgetting), (3) 과거분사(forgotten)가 있다(CDEG).

히브리어에서 비정동사는 동사적인 인칭을 취하지 않는 동사로서, 발화 시공간에서 일어난 동작이 아닌 잠재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또한 비정동사는 동사적인 명사들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분사와 부정사를 포함한다(PDSBH, 115).

속 2:6 [한 2:2]

וַיֹּאמֶר אֲנִי אֵתָּה הֲלֹךְ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비 정동사로서 분사의 경우

삼상 2:11

וְהַנֶּעֱר הָיָה מְשֻׁרֵת אֶת־יְהוָה

그리고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비 정동사로서 분사의 경우

창 2:18

וַיֹּאמֶר יְהוָה אֱלֹהִים לֹא־טוֹב הָיִיתָ הָאָדָם לְבַדּוֹ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비 정동사로서 부정사 연계형의 경우

창 2:17

כִּי בַיּוֹם אֲכָלְךָ מִמֶּנּוּ מוֹת תָּמוּת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비 정동사로서 부정사 절대형의 경우

서북 셈어

northwest Semitic

아프로 아시아어족의 셈어군에 속하는 언어들 중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 속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언어들

서북 셈어는 셈어에 대한 분류중 지리적인 구분법에 의해 부르는 용어이다.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셈어를 분류하는 구분에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은 특히 동부 셈어, 동북 셈어, 남부 셈어 혹은 서남 셈어 등에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서북 셈어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서북 셈어에는 아모리어, 우가리트어, 아람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암몬어, 에돔어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언어들은 20세기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언어적인 공통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서북 셈어의 세부 목록에서는 학자들 간에 차이가 발견된다. 특히 서북 셈어를 가나안어와 아람어 두 언어로만 이분화시키는 분류법과 가나안어에 포함되는 언어의 범위에서 주된 차이가 발견되는데, 가나안어와 아람어 두 언어로만 이분화시키는 분류법은 주전 1000년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체로 받아들여진다(참. JMK § 2a-fa; PC 49-63; Rabin 1991: 33-109; Moscati 3-10; Naveh 1987: 8-12).

대격 표지(對格標紙)

nota accusativi

명사 앞에서 그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불변화사의 기능으로서 대격임을 나타내는 표지.

성경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대격 표지(sign of the accusative)”로 일컬어지며, **אֶת**와 같이 한정된 직접 목적어 앞에서 자주 사용된다. 대격의 역할 안에서 한정 명사들과 함께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강조의 표지로도 간주된다(참. IBHS §10.3.b). 이 불변화사는 격의 기능을 하므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대격 표지는 목적어 앞에서 홀로 놓일 때에는 위와 같이 사용되며 마픽으로 연결될 때에는 악센트를 잃게 되고 모음이 축약된다(**אֶת־הַשָּׁמַיִם**). 또한 ‘~와 함께’의 의미를 지닌 전치사 **אֵת**는 대격표지의 **אֶת**와 형태가 동일하지만, 대격 표지와 혼동되지 않는다. 한편 전치사 **לְ**와 같은 기능을 하는 **יָת**의 아람어 사용은 단 3:12 에서 단 한번 나타난다(PDSBH 61, 116).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욥 1:20

וַיָּקָם אִיּוֹב וַיִּקְרַע אֶת־מָעְלוֹ וַיִּגְזַ אֶת־רֹאשׁוֹ

욥이 일어나서 겹옷을 찢고 그의 머리털을 밀고

전 1:14

רָאִיתִי אֶת־כָּל־הַמַּעֲשִׂים

내가 모든 일들을 보았다

명사(名詞)

noun

개체, 물질, 사람, 장소 등을 가리키는 어휘 부류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표준국어대사전)로서, 명사구의 머리 역할을 하며, 형태론적 한정과 통사론적 기능을 갖는다.

명사를 뜻하는 영어 noun 은 라틴어에서 ‘이름’을 가리키는 nomen 에서 나왔다. 명사는 특정한 “사람, 사물, 장소, 질, 상태나 동작”을 뜻하는 단어이다(PDSNTG). 인도유럽어에서 명사는 형태소적으로 성, 수, 격을 갖는다. 명사는 문법 속성과 의미 속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명사, 집합명사, 복합명사, 합성명사의 네 가지 문법적인 형태들이 있으며, 생물(animates), 무생물(inanimates), 비생물(nonanimates)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인 형태들이 있다. 모든 명사들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들 중 하나에 속한다: 다른 한 단어로부터 나오지 않는 원시적인 형태와 다른 한 단어로부터 나오는 파생적인 형태로서 명사나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있다(PDSBH).

특히 히브리어와 셈어 문법에서 명사는 실명사뿐 아니라 형용사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그 형태나 어형 변화가 실명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명사는 격들(주격, 대격, 속격)을 표시하는 끝모음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격 변화가 없다. 주격, 대격, 그리고 속격으로 표현되는 논리적인 관계들과 같은 명사의 기능은 구나 문장 안에서 명사의 위치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나타난다. 히브리어의 명사는 속격에서 소유나 소속의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명사와 밀접히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명사는 지배명사(nomen regens)라고 부르고, 두 번째 명사는 피지배명사(nomen rectum)라고 부른다. 첫 번째 명사는 음성론적으로 두 번째 명사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한 건물이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연계형의 반대는 절대형이다. 연계형에서 명사의 모음 표기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복수, 쌍수, 여성 어미 및 대명사 접미사가 첨가됨으로써 명사가 길어질 때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강세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모음 표기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들이 명사의 형태를 바꾸어준다. 이 어형 변화는 매우 섬세하며 동사의 어형 변화보다 덜 규칙적이다. 이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규칙들뿐 아니라 히브리어의 여러 명사들이 가진 원시 형태들을 알 필요가 있다(JMK §86, 92).

히브리어 명사 형태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명사들은 원시적이거나(primitive), 파생적(derivative)이다. 이 명사들은 다른 명사에서 파생되었거나 동사에서 파생된다. 많은 어근들에서 명사나 동사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명사 형태들은 특정한 동사 형태들과 관련되고 동사적 형태들은 소수인 반면, 명사적 형태들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하다. 동사의 형태는 각각의 하나 이상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다. 반면에 많은 명사 형태들은 하나 이상의 특정한 개념과 관련된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셈어에서처럼 유사한 것을 가리키는 명사들이 동일한 형태소의 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추상명사뿐 아니라 구상명사도 특정한 형태로만 사용되며, 형용사들도 특정한 형태로만 사용된다. 복합 명사들은 자주 고유명사로서 사용되고, 차용어들은 다양하게 히브리어 형태소에 자리잡아 왔다.

히브리어 명사들을 형태론적 구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1) 하나의 자음을 가진 형태 (2) 두 개의 자음을 가진 형태, (3) 세 개의 자음을 가진 형태, (4)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 세개의 자음을 가진 형태, (5) 반복되는 자음을 가진 형태, (6) 네 개의 자음을 가진 형태, (7)

접두사를 가진 형태, (8) 접미사를 가진 형태(참. JMK §87-88)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명사는 남성이거나 여성이고 가끔 두 성을 함께 가지며, 단수와 복수, 쌍수에서 성과 성의 어미를 주의깊게 구별하여야 한다(참. JMK §89-91).

시 97:1

לְשִׁמְחוּ אֵיִם רַבִּים: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אֵיִם은 (1) 하나의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인 **אֵי**의 복수형이다

욥 12:9

כִּי יַד־יְהוָה עָשְׂתָה זֹאת:

여호와와 손이 이것을 행하신 것을

יַד는 (2) 두 개의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이다

시 10:16

יְהוָה מֶלֶךְ עוֹלָם וָעֶד

여호와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מֶלֶךְ은 (3) 세 개의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이다

욥 1:3

וַתִּמַּשׁ מֵאוֹת אֲתוֹנוֹת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אֲתוֹנוֹת는 (3) 세 개의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인 **אֲתוֹן**의 복수형이다.

출 4:11

אֲנִי מִיִּשְׁשׁוֹם אֶלֶם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으며

אֶלֶם은 (4) 두 번째 자음이 중복된 세개의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이다.

사 28:28

וְהָמָם גִּלְגַּל עֲגֻלָּתוֹ

수레 바퀴를 굴리다

גִּלְגַּל은 (5) 반복되는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이다.

출 22:21[한 22:22]

כָּל־אֱלֻמְנָה וַיְתוֹם לֹא תַעֲנוּן: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אֱלֻמְנָה는 (6) 네 개의 자음을 가진 명사 형태이다

창 6:21

וְאַתָּה קַח־לָךְ מִכָּל־מֵאֲכָל'

מֵאֲכָל'은 (7) 접두사를 가진 명사 형태이다.

레 1:2

כִּי־קָרִיב מִכֶּם קָרָן לִיהוָ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קָרָן은 (8) 겹미사를 가진 명사 형태이다

종의 명사(種名詞)

Noun of species

종이나 범주 전체를 의미하는 단수 명사.

단수 명사는 그 명사가 대표하는 종이나 범주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실상의 복수성을 띠면서 그 종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JMK §135c).

삿 21:16

נְשִׁמָּדָה מִבְּנֵי־אִשָּׁה

여자가 베냐민 지파로부터 멸절되었다. (JMK §135c)

이 문장에서 ‘여자가 멸절되었다’는 것은 ‘모든 여자가 멸절되었다’는 의미이다. 단수명사인 **אִשָּׁה**는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종의 명사로 사용되었다.

출 1:22

כָּל־הַבָּנִים הַיְּלֻדִים הָאֵלֶּה תִּשְׁלַחַהוּ

태어난 모든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JMK §135c)

종의 명사는 ‘모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와 같이 자주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כָּל־הַבָּנִים** ‘모든 아들’은 ‘모든 아들들’을 의미한다.

명사구(名詞句)

noun phrase

명사나 대명사가 주요어(head)가 되어 명사의 구실을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식되거나 한정될 수 있는 것.

명사구는 문장에서 주된 통사적 단위를 이루며, 주어나 목적어 등의 특별한 기능을 한다(ODEG). 영어에서 명사구를 수식하는 것으로는 (1) 부가어(adjuncts, very good beer)와 동격(appositions, my friend Phil), (2) 수식적 형용사(genitive attribute, Phil's house), 전치사구(the house on the hill), 관계절(the family that lives next door)이 있다(RDLL).

예를 들면, “The red-brick building with white pillars was built in 1806” 에서 머리 명사 building 은 정관사 “the,” 수식명사 “red brick,” 전치사구인 “with white pillars”에 의해 수식되면서 이 모든 것은 “The red-brick building with white pillars”라는 명사구를 구성한다(PDSBH).

삼상 18:23 (참. JMK §154b).

וַיֹּאמֶר דָּוִד הֲנִקְלָה בְּעֵינֵיכֶם הַתְּחַתָּן בְּמֶלֶךְ

다윗은 당신들의 눈에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대상 9:28 (참. JMK §154b).

וּמֵהֶם עַל־כָּלִי הָעֲבוֹדָ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제사 기구들을 맡아서

측량 명사(測量名詞)

nouns of Measure

무게, 분량, 길이, 넓이, 높이, 깊이, 모양, 면적 등의 척도를 가리키는 명사(참. JMK §142.n).

창 23:15

אֶרֶץ אַרְבֶּעַ מֵאֹת שְׁקָל־כֶּסֶף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사 5:10

וְזָרַע חֶמֶר יַעֲשֶׂה אִיפָה:
씨앗 한 호멜에서 한 에바가 나올 것이다

출 26:2

אֶרְדּוּ | הַיְרִיעָה הָאֵלֶּה שְׁמֹנֶה וְעֶשְׂרִים בָּאַמָּה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으로 하고

하텡 슈바, 복합 슈바, 합성 슈바

nuanced shvas

ֶּ, ֶֿ, ֶֿֿ의 세 부호는 하텡(hatef; 아람어로 חֲטֵף는 낚아챌, 잡아챌, 단축하는) 슈바, 혹은 복합 슈바, 합성 슈바라고 불린다.

이것들은 변화되지 않은(unnuanced) 단순 슈바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변화된(nuanced) 슈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매우 짧은 모음으로서 완전 모음들과 비교해서 반모음들로 부를 수 있다. 세 개의 하텡 슈바는 종종 후음들과 함께 나타난다(JMK §9a).

삿 16:16

וַיְהִי כִּי־הִצִּיקָהּ לֹא בְדַבָּרָהּ כְּלִהְיָמִים וַתֵּאֱלָצֶהּ

날마다 그녀는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놀라웠다

하텡 파타흐가 발견된다.

욥 2:7

וַיִּךְ אֶת־אִיּוֹב בַּשֶּׁתִּין לְעַ מִכַּף הַגֹּלֹ (עַד) [וְעַד] קְדָדָּו: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하텡 카메쯔가 발견된다.

누팔

nufal

히브리어의 규칙적인 동사 형태들 외에 드문 동사변화 형태들 가운데 하나

대상 3:5

וְאַלֶּה נִלְדוּ לוֹ בִּירוּשָׁלַיִם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대상 20:8

אֶל נִלְדוּ לְהֶרְפָּא בֶּנֶת

이들은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수(數)

number

“개수의 개념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조성식 외).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지시사, 정동사 형태 등에서 수의 개념이 나타난다(참. 표준국어대사전). 가장 일반적인 수의 범주로서, 단수와 복수가 있으며, 언어에 따라 둘이 한 단위가 되는 쌍수(히브리어, 헬라어, 산스크리트어), 셋이 한 단위가 되는 삼수(몇몇 서남 아시아어)가 있다(참. RDLL).

– 단수(singular), 복수(plural), 쌍수(dual)

≡ 수사(numeral)

수사(數詞)

numeral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단어나 품사.

수사는 독립된 품사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품사와 함께 나오는 단어의 종류에 소속시킨다(참. 조성식 외). 영문법에서 수사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눈다. (1) 서수(cardinals: one, two, three), (2) 기수(ordinals: first, second, third), (3) 배분사(distributives: six each), (4) 반복수(iteratives: once, twice, thrice), (5) 배수(multiples: eightfold), (6) 집합수(collective numerals: a dozen), (7) 분수(fractions: a tenth)이다(참. RDLL).

히브리어에서 수사는 서수와 기수로 구분된다. 첫째, 기수에서 숫자를 표시하는 히브리어 명사들은 원래 실명사 또는 형용사였으나, 그것들은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일부는 실명사적이고 일부는 형용사적으로서 혼합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첫 두 개의 수, 1 과 2 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욱 더 형용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에서부터 10 까지의 숫자는 집합적인 실명사 그룹으로서 동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11 에서 19 까지는 밀접하게 짜인 두 개의 명사 군으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것은 단위 수를, 두 번째 것은 숫자 10 을 표현한다. 이 중 11 과 12 는 하나의 군으로서(1 과 2 처럼) 몇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20 에서 90 까지 십 단위를 표현하는 숫자들은 특별한 군을 이룬다. 둘째, 서수에서 서수 형용사들은 처음 열 개의 숫자에만 존재한다. 열 번째 위의 숫자는 기수를 사용한다(참. JMK §100-101).

헬라어에서는 수사를 형용사로 분류한다. 우선 기수의 경우, 1 은 단수로 성(남성, 중성, 여성)과 격(주격, 속격, 여격, 대격)에 따라 변화한다(남성과 중성은 3 변화, 여성은 1 변화). 2 는 복수 여격만 다른 형태를 가진다. 3 과 4 는 성과 수를 따라 변화되, 남성과 여성의 형태는 같다. 1 에서 4 까지만 변화되는 이유는 아마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 281). 5 에서 199 까지는 한 가지 형태만 사용된다. 200 부터는 일반적인 형용사 변화(1, 2 변화)를 한다. 또한,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알파벳이 숫자로 사용된다. 서수의 경우, 첫째와 둘째만 비교급 형태를 가지고, 나머지는 최상급 형태를 가진다(R 283).

– 서수(ordinal), 기수(cardinal)

≡ 수(number)

목적어(目的語)

object

동사가 만드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서 실명사적 단어, 구, 절을 가리킨다.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보어, 동사 수식어와 함께 문장 구조의 다섯 요소 중 하나이다(ODEG).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의 어순(SVO sequence)에서 일반적으로 정동사 뒤에 나온다(CDEG).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분사, 동명사, 부정사, 구, 절, 인용어구가 있으며, 동사 외에도 형용사나 전치사 뒤에 와서 이들을 지배하는 명사류를 목적어라고 부른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의 목적어는 달성 목적어와 피동 목적어로 구분된다. 달성 목적어는 주어의 동작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목적어로서, 동작 결과 목적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사적 행동에 의해 사태가 발생한다. 피동 목적어는 주어의 동작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동작 대상 목적어라고 할 수 있고, 동사적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JMK §125a).

욥 3:1[한 2:28] (JMK §125a)

וְקִנְיָם תְּלִמּוֹת יִתְּלֶמֶן

늙은 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어의 동작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목적어로서, 동작결과 목적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사적 행동에 의해 일이 일어나는 달성 목적어에 해당한다.

창 37:9 (JMK §125a)

וַיְסַפֵּר אֵתוֹ לְאֶתְרוֹ

그는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주어의 동작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서, 동작대상 목적어라고 할 수 있고, 동사적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동 목적어에 해당한다.

- 직접목적어(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달성 목적어(effected object), 피동 목적어(affected object)
- ≡ 목적격(objective case)

목적격 접미사(目的格接尾辭)

object suffix

히브리어에서 목적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 형태에 첨가되는 접미사

히브리어에서 목적격 접미사의 형태는 동사에 붙여지는 것으로, 그 동사 형태가 모음으로 끝나는지 혹은 자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동사에 목적격 접미사가 붙을 때는 강세의 위치에 따라 모음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ל**동사에 목적격 접미사가 붙을 때는 마지막 **ה**가 탈락되기도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완료형에는 동사와 목적격 접미사 사이에 **וְ**의 보조모음이 오고, 미완료형에는 **וֹ/וּ**의 보조모음이 온다. 그리고 미완료형에서 동사와 목적격 접미사 사이에 강조의 눈(energetic Nu)이라고 불리는 **נ**이 첨가된 형태들이 나타나곤 하며, 이 **נ**은 목적격 접미사의 자음에 동화되곤 한다(**נ**). 강세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격 접미사 가운데 무거운 접미사들인 **כֶּם**, **הֶם**, **כֹּן**, **הֵן**은 항상 강세를 갖지만, **נִי**, **נוּ**, **הוּ**, **הָ**와 같은 목적격 접미사들은 강세를 결코 갖지 않는다(JMK §61a, c; 참. 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235-238).

신 31:7(JMK §61j).

וְאַתָּה תִּנְחַלֶּנָּה אוֹתָם:

너는 그들에게 그 땅을 상속받게 하라(JMK §61j).

왕하 8:13

וַיֹּאמֶר אֶלְיָשָׁע הָרֹאִי יְהוָה אֱתָךְ מָלֵךְ עַל־אֲרָם: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삼하 15:25

וְהָרֹאִי אֹתוֹ וְאַת־נָהוּ:

내게 그 궤와 그 궤가 머무는 곳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목적격(目的格)

objective case

동사가 수행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표시하는 격.

영어의 경우, 고대영어 시대에는 목적어가 등장하면 대격, 여격, 속격 등의 격형을 취하여 대격 목적어, 여격 목적어, 속격 목적어 등으로 불리었다. 중세 영어시대에 와서는 굴절형이 평준화되어 일부 대명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격형이 상실되었으며, 현대 영어에 들어와서는 주격과 일부의 인칭대명사와 의문대명사만 격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목적어가 전치사와 결합하는 구문에서 이것을 전치사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 목적어를 대격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개의 목적어가 등장할 때에는 여격 목적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히브리어의 경우, 대격은 동사적인 격이거나 부사적인 격이다. 그것은 목적어의 대격으로서 동사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직접 대격으로 동사의 목적어가 있으며, 동사와 관련된 한정어 대격이나 동사 수식적 대격으로 동사에 간접적으로 종속하는 간접 대격으로 동사적 술어를 한정시킨다.

≡ 목적어(object), 대격(accusative), 여격(dative)

목적격 속격(目的格屬格)

objective genitive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명사가 연속될 때, 앞의 지배 명사가 뒤의 피지배 명사를 대상으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명사적 구조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명사가 동시에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명사는 ‘지배 명사’(nomen regens)가 되며, 두 번째 나오는 명사는 ‘피지배 명사’(nomen rectum)가 된다. 이 때 지배 명사는 피지배 명사의 “동작, 상태, 혹은 마음의 상태등을 표현하게 된다”(PDSBH 118). 이것을 목적격 속격이라 한다.

잠 20:2 (JMK §129e).

אַיִמַּת מֶלֶךְ

왕의 두려움

왕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을 말한다.

암 8:10

וְשִׁמְתִּיהָ כְּאַבְלָה יָחִיד

독자에 대한 애곡처럼

외아들의 죽음 때문에,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게 한다는 것으로 독자를 위한 애곡을 의미한다.

읍 1:10

מִתְמַס אֶתִּיד

네 형제에 대한 불의

네 형제에게 행한 포학, 폭력을 말한다.

창 24:8

וְנָקִיתָ מִשְׁבָּעְתִּי זֹאת

네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나를 위하여 한 맹세를 말한다.

시 56:13

עָלִי אֱלֹהִים נִדְרִיךָ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서원함이 있으니

당신(주님)에게 드린 서원을 의미한다.

의성어(擬聲語)

onomatopoeia

언어에서 자연계의 소리를 흉내내어 만든 단어로서, 음성과 의미사이에 유연성이 매우 크다.

의성어를 뜻하는 영어 onomatopoeia 는 헬라어에서 ‘이름을 만들다’는 단어인 ὀνομασποιία 에서 나왔다.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어 만든 말로서, 소리와 의미 사이에 연관성을 만든 것이다. 우리 말로서, ‘씩씩’, ‘멍멍’, ‘땡땡’, ‘우당탕’, ‘퍼덕퍼덕’, 꼬끼오, 멍멍 (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choo-choo, cuckoo, hiss, neigh, miaow, tick-tock 등이 있다(ODEG)

왕하 1:2

בְּבַעַל זְבוּב' אֱלֹהֵי עֲקָרוֹן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בְּבַעַל는 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름은 아마도 곤충의 소리를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

삼상 2:10

[עָלִיוֹן] בְּשָׁמַיִם יִרְעַם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치실 것이다

‘벼락’(רָעַם)과 ‘벼락치다’(רָעַם)는 천둥치는 소리에서 나왔다.

개음절(開音節), 열린 음절

open syllable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들처럼 음절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 음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그 음절들이 규칙적일 때이다. 그러나 음절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는 음절들이 규칙에 맞지 않거나 불규칙적일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적인 음절은 열린 음절이거나 닫힌 음절이다. 개음절은 ‘열린 음절’을 말하는 것으로 모음으로 끝나며, 일반적으로 장모음을 취한다. 예로서 **תָּלַח**(그녀가 죽었다) 에서 /qa/와 /tla/는 열린 음절이다(참. JMK §27a, b; PDSBH 119).

+ 음절(syllable)

↔ 폐음절, 닫힌 음절 (closed syllable)

기원절(祈願節)

optative clause

바램이나 소원을 나타내는 법(mood)을 담고 있는 절

히브리어에서 기원의 표현은 가끔 감탄이나 질문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러한 기원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의지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1 인칭 권유형으로 **נָה**와 함께 사용되거나, 2 인칭과 3 인칭 지시형에서 **אַל** 혹은 **נָה**와 함께 사용되며, 명령형도 **נָה**와 함께 사용된다. 또한 기원은 가끔 감탄 의문(**מִי**)으로 표현된다(참. JMK §163a-d).

신 3:25 (JMK §163a)

אֶעֱבְרָה-נָא

부디(제발)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너가고 싶습니다,’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다

신 9:26 (JMK §163a)

אֲדֹנִי יְהוָה אֵל-תִּשְׁחַח

주 하나님 멀하지 마옵소서

창 26:28 (JMK §163a)

תְּהִי נָא אֱלֹהִי

이제 제발 맹세하여

삼하 15:4 (JMK §163d)

מִי־יִשְׁמְנֵי שֹׁפֵט בְּאַרְץ

누가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세워 주기만 하면

‘누가 나를 이 땅에서 재판관으로 임명해 줄 것인가?’ 혹은 ‘나는 재판관으로 임명되길 얼마나 원하는지’의 의미가 된다

기원법(祈願法)

optative mood

“확실하거나 불확실한 조건들, 혹은 의심스러운 바램이나 소원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바램이나 소원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의지법”(PDSBH).

기원법은 라틴 문법에서 빌린 용어이다. 인도유럽어에서는 원래 기원법을 표현하는 굴절(inflexion)의 패러다임이 있었다(CDEG). 영문법에서는 would 로 만든다(예로, *Would that they had spoken up sooner!*). 기원법은 주로 기도문에서 사용된다. 히브리어에서 기원법은 가끔 가정법과 대조되며, 높은 정도의 가능성을 지닌 바램이나 소원을 나타낸다.

– 기원절(optative clause)

서수(序數)

ordinal

순서를 나타내는 수.

히브리어에서 수사의 범주 안에 있는 서수는 서수 형용사들로서 처음 열 개의 숫자에만 존재한다. 열 번째 위의 숫자는 기수를 사용한다. 첫 번째는 형용사 ראשון(ראש머리에서 옴)로, 두 번째는 기수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שני(여성 שנת, 복수 שנים)로 표현된다; 유사하게 שישי 여섯 번째는 שש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숫자들은 qarili > קטילי 형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qatil 형태와 יִ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는 שלישי, 네 번째는 רביעי(ארבע의 알레프 없이 옴), 다섯 번째는 חמישי(חמשה를 유추하여 중복된 חמי 형태는 의심스럽다), 일곱 번째는 שביעי, 여덟 번째는 שמיני, 아홉 번째는 תשיעי, 열 번째는 עשירי이다. 여성 형태들은 יִת로 끝난다. 예로서, 세 번째 שלישית가 있으며 매우 드물게 יִה의 어미가 나타난다: שלישיה. 그리고 같은 형태들이 분수를 표현한다. 예로서, תצי는 세 번째 부분, 삼분의 일이다. 분수를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들도 존재하는데, 1/2 은 תצי 다소 드물게 מהצת, מחצה(민 31:36, 43), 1/3 은 שליש, 1/4 은 רבע, רבע, 1/5 은 חמש, 1/10 은 עשרון, 복수인 עשרונים가 나오고, 열번째 부분, 십일조로 מעשר가 사용된다.

+ 수(numeral)

= 서수(ordinal number, [ordinal numeral])

≡ 기수(cardinal)

오로모어

Oromo

아프로 아시아어족의 쿠치어과에 속하는 언어

에디오피아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며(약 85%), 케냐, 소말리아, 이집트 등에서 약 1750만명 정도가 사용한다. 오로모족은 이집트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 <http://www.omniglot.com/writing/oromo.htm>).

정음학(正音學)

orthoepy

올바른 발음법 및 발음과 기록 체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

올바른 철자법을 다루는 문법분야인 정자법(正字法)과 구별되는 학문의 분야이다. 이 분야는 영국에서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의 음성학, 음운론에 해당하는 옛 용어이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을 정음학자(orthoepist)라고 부르며, 역사적으로 세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철자 개혁론자(spelling reformer)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서법자들(orthographer)과 정음학자들은 발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두 번째 그룹은 당시의 외국어 연구자들로서 외국어 발음을 영어로 나타내고, 영어 발음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음의 표기에 노력한 자들이다. 세 번째 그룹의 정음학자들은 2개국어 사전의 편집자들로서 17세기에 이르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음성학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정음학자들(orthoepist)이란 명칭은 음성학자, 음운학자(netician, phonologist)로 바뀌게 되었다(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정음학과 정자법을 발전시키고 표준화한 학자들은 바로 마소라 학파이다.

≡ 마소라 학파(Masoretes)

정서법(正書法)

orthography

철자를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쓰고, 또는 철자의 표준화 및 철자법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

철자법(綴字法), 정자법(正字法)이라고도 한다. 정서법은 “철자법, 발음, 문법과 형태론 등 전문적으로는 글쓰는 체계 전부를 포함한다”(CDEG). 이 작업을 위하여 (1) 음성적 원칙, (2) 음운적 원칙, (3) 어원적 원칙, (4) 역사적 원칙, (5) 동음이어 원칙, (6) 실용적 원칙, (7) 심미적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 정서은 마소라 학파의 학자들이 긴 세월을 통하여 완성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어의 경우, 음소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되며, 어떤 모음들(히브리어의 i와 u)은 자음(y ' , w ')이 되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알파벳은 대부분 셈어의 알파벳처럼 자음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인쇄본의 글자들은 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정방형 서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는 22 개이며 **ש**와 **ז**를 각각 글자로 세면 23 개가 된다. 그리고 다섯 개의 끝 글자는 단어 끝에 올 때 특별한 형태를 취한다. 히브리어는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쓰며, 공백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글자들은 폭이 넓게 기록된다. 모든 알파벳 글자는 수 값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약어를 표시하기 위해 약어 끝에 생략 기호와 비슷한 기호를 사용하거나 두 글자 사이에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

히브리어의 모음들은 음색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티베리아 나크다님들이 표기한 히브리어 모음의 음계는 **א, ו, ח, ט, ק, ר, ש**의 7 개의 음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크다님은 매우 정교한 청각을 사용하여 위에 제시된 일곱개의 음색들을 표기하는 기호로써 완전한 체계를 만들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주후 7 세기경 티베리아에 존재했던 모든 모음들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크다님의 이 체계는 단지 음색만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음 음량(길이)과 그 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 역사는 무시되어 있다. 티베리아 발음에서 모음의 음량을 추측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일한 구분은 7 개의 완전 모음 중 3 개의 모음과 그에 대응하는 3 개의 단모음인 하텡으로 구분된다(**א**, 하텡 파타흐; **ו**, 하텡 셰골; **ח**, 하텡 카메쯔). 몇몇 자음들인 **כ, פ, צ**와 가끔 **ס**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특정한 모음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자음들은 모음 문자(mater lectionis)라고도 불리며, 또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묵음 문자라고도 부른다.

히브리어의 기호에는 모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슈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슈바는 유성 슈바와 무성 슈바의 두 종류로 구분되지만 이 슈바는 본질적으로 모음 음가가 없는 제로 모음을 표시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하텡 슈바(**◌◌**, 하텡 파타흐; **◌◌**, 하텡 셰골; **◌◌**, 하텡 카메쯔), 다게쉬(자음 중복을 표시하는 강다게쉬, 브가드크파트에서 파열음이나 즉각적인 음을 나타내는 약 다게쉬), 단어 끝에 오는 **ן**에만 나타나서 발음되어야 함을 표시하는 마픽(**ן**), 자음 글자 위에 있는 가로 획인 라페,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매우 밀접한 결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마캅(-), 발음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텍(**◌◌**)이 있다. 모든 히브리어의 단어는 그것이 후접어(proclitic)가 아닐 때, 즉 뒤 따라오는 단어에 밀접하게 의존하지 않을 때, 그 단어가 지닌 다른 모음들 보다 더 크게 강조하여 발음하는 강세 모음을 갖는다. 그리고 그 강세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악센트라고 부르는 기호로 표시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두 개의 악센트 체계(표준 악센트 체계, 시가서 악센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간 휴지를 표시하는 악센트들을 분리 악센트, 한 단어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악센트들을 연결 악센트라고 부른다.

≡ 마소라 학파(Masoretes),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프알랄

p'al'a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

동사 어근의 두번째 자음과 세번째 자음이 반복되어 표현되는 형태로, 어떤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피엘의 또다른 불규칙 형변화 형태로는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알렐, 푸알랄, 필펠, 풀팔, 히트팔렐 등이 있다(GKC §55e; JMK §59d).

시 38:11

לִבִּי סִתְּחָתָר עֲגֹבִי כַחֲזִי

내 심장은 뛰고 내 힘을 나를 버렸다

히브리어 동사 סחר(스하르)의 기본적 의미는 ‘지나가다’인데 프알랄 형태로 사용되어 ‘반복하여 자주 지나가다’라는 뜻이 되며 본문의 경우에는 심장이 뛰는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렐, 푸랄, 필펠, 풀팔, 히트팔렐

구개음(口蓋音)

palatal

혀가 입천장(구개)을 폐쇄하거나, 파열하거나, 마찰시켜 내는 소리

구개(口蓋)는 입천장을 뜻하며, 영어 palatal 은 라틴어에서 ‘입의 천장’(roof of the mouth)을 뜻하는 palatum 에서 나왔다. 구개음은 언어에 따라 조음 위치가 약간씩 달라진다. 우리 말에서는 “혓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ㅉ’, ‘ㅊ’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전설면이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경구개음과 후설음이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연구개음(velar) 혹은 후음(gutturals)으로 다시 구분이 된다. 경구개음의 대표적인 것은 ‘sh’ 소리이다.

히브리어에서 구개음은 혀끝이나 혀 앞부분(전설)을 잇몸 바로 뒤에 있는 경구개 쪽으로 들어올리거나 경구개에 대고 발음하는 자음 음소로서 **ק**(강한 q), **ג**(g), **כ**(k)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연구개음의 치음(**ט**)과 치찰음(**צ**)과 비교될 수 있다(참. PDSBH).

+ 음성학(phonetics)

≡ 음소(phoneme)

파알렐

pa'le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

동사 어근의 세번째 자음이 반복되어 표현되는 형태이다. 수동태는 푸랄이다. 첫 모음이 약화된 형태로는 피알렐이 있다. 피엘의 또다른 불규칙 형변화 형태로는 포엘, 포알, 히트포엘, 필펠, 풀팔, 히트팔펠, 프알랄 등이 있다(GKC §55d; JMK §59b).

렘 48:11

שָׁנָן מוֹאֵב מְנַעֲרִין

모압은 자신의 청년기부터 평안하였다.

히브리어 동사 **שָׁנָן**의 기본적 의미는 ‘조용하다,’ ‘평안하다’인데, 마지막 자음인 ‘눈’이 반복되어 파알렐 형태로 사용되었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프알랄, 필펠, 풀팔, 히트팔렐

고문서학(古文書學)

paleography

고대의 텍스트에 담겨 있는 문자, 서체, 연대 및 재료 등에 관한 연구

영어 **paleo** 는 헬라어에서 ‘고대’(ancient)를 뜻하는 단어인 *παλαιός* 에서 나온 것이다. 고문서학은 학자들과 학문 분야에 따라 비문학(epigraphy)과 다른 뜻으로 혹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성경의 본문들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여러 비문들 및 사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고대 언어들이나 성경 언어들을 연구하고, 본문들의 연대를 결정하고, 또한 본문들을 판독하기 위하여 고문서학이라는 분야의 연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사본이나 비문들의 기록 시기, 도구, 재료, 필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 비문학(epigraphy)

- 고대 히브리어 서체(paleo-Hebrew script)

고대 히브리어 서체

paleo-Hebrew script

정방형의 아람어 서체를 채택했던 주전 5세기 이전까지 사용했던 히브리어 서체.

고대 가나안 땅이었던 세겔, 게셀, 라기스 등에서 발견된 최초의 알파벳을 원시 가나안어(proto-Canaanite)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주전 17세기이다. 이 원시 가나안 서체는 페니키아인들이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페니키아인들로부터 문자를 받아들였다고 하나 원시 가나안 서체를 사용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히브리인들이 원시 가나안 서체를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성경 이외의 문서 중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문서는 게셀에서 발견된 달력으로 주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외에 실로암 못에서 발견된 실로암 석비(주전 8세기), 왕궁 관리의 비문들(주전 8세기), 사해 주변의 동굴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두루마리(주전 7세기), 라기스와 아랏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깨어진 도자기 파편에 기록된 문서, 주전 6세기), 기브온에서 발견된 포도주 항아리 손잡이에 새겨진 사람 이름(주전 6세기) 등의 문서가 모두 흘림체로 된 고대 히브리어 서체에 속한다. 고대 히브리어 서체는 원시 가나안 서체 및 페니키아 서체와도 매우 흡사하다. 이 서체는 주전 5세기까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서체였다. 주전 3세기경 그리스인들이 근동지역을 지배하게 되자 아람어가 국제어에서 지방어로 전락되었는데, 이 때부터 정방형의 아람어 서체를 유대인 서체(Jewish script)로 불렀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 서체를 사용하게 된 후에도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과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고대 히브리어 서체를 사용했으나 바르코크바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주후 135년부터 이 고대 히브리어 서체는 사용이 중단되었다(참. Naveh 1994: 112-124; Yardeni 15-17).

Naveh, J., *Origins of the Alphabets. Introduction to Archaeology*, Herzlia: Palphot LTD, 1994.

어형 변화표(語形變化標)

paradigm

단어의 어미가 굴절(inflexion)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의 성, 수, 격의 곡용(declension)과 동사의 형태 변화를 뜻하는 활용(conjugation)을 문법적인 특성에 따라 배열한 체계.

영어 paradigm 은 헬라어에서 ‘패턴, 모범’을 뜻하는 단어인 ‘파라데이그마’(παράδειγμα)와 그것을 음역한 라틴어 ‘파라디그마’(paradigma)에서 나왔다.

히브리어에는 인칭 대명사의 어형 변화, 규칙 동사(칼형, 니팔형, 피엘형, 푸알형, 히필형, 호팔형, 히트파엘형)와 후음 동사(제 1 후음 동사, 제 2 후음 동사, 제 3 후음 동사)의 어형 변화, 그리고 불규칙 동사인 **יָצַח** 동사, **פָּחַד** 동사, **לָחַץ** 동사, **לָחַץ** 동사, **עָצַח** 동사, **עָצַח** 동사, **עָצַח** 동사의 어형 변화, 명사의 어형 변화, 불규칙 명사의 어형 변화, 대명사 접미사의 어형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어형 변화를 그 이론적인 틀이나 법칙을 따라 만든 도표를 어형 변화표(패러다임)라고 부른다.

헬라어의 경우, 명사 변화로 1, 2, 3 변화가 있다. 명사 변화는 관사 및 형용사와 대명사에 적용된다. 동사는 어미가 ω 로 끝나는 규칙동사 혹은 어간형성모음 동사(thematic verb)와 어미가 μ 로 끝나는 동사 혹은 비어간형성모음 동사(non-thematic verb, athematic verb)의 어형변화표가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네 개의 법(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회구법), 여섯 개의 시제(제 1 시제인 현재, 미래, 현재완료와 제 2 시제인 미완료과거, 부정과거, 과거완료), 세 개의 태(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인칭(1 인칭, 2 인칭, 3 인칭), 수(단수, 복수)에 따라 변화표가 만들어진다. 동사 가운데 부정사와 분사는 다른 네 개의 법과 약간 다르다. 부정사는 시제와 태에 따라서만 형태가 변하고, 분사는 시제 및 태와 함께 성과 수와 격이 고려된다.

≡ 굴절(inflexion), 곡용(declension), 활용(conjugation)

계열관계(系列關係)

paradigmatic relation

문장 안에서 동일한 분포를 하는 단어들이나 문법적 기능이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요소들이 맺는, 서로 대치할 수 있는 관계

계열관계는 어휘의미론(lexical semantics)의 핵심 용어로서, 단어들이 서로 맺는 다양한 의미관계를 구성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 중에서 수직축(vertical axis)에 속한다. 수직축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어휘 요소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예로, “그는 오늘 올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그’는 ‘나, 너, 그들’ 등으로, ‘오늘’은 ‘어제, 내일’ 등으로, ‘올 것이다’는 ‘왔다, 갔다, 온다, 간다’ 등으로 대치될 수 있다. 이것을 계열관계라고 한다. 즉, 계열관계는 잠재적인 비교-대조의 관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평축(horizontal axis)이다. 수평축이란 문장의 구문 관계 및 어휘들의 ‘연관어’로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명제를 만들게 된다(CDEG). 이것을 결합관계라고 하며, 상호 연관성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

어미음 첨가 헤(語尾音添加)

paragogic He

히브리어에서 단어의 끝에 첨가한 자음 헤(ה).

영어 paragoge는 헬라어에서 ‘더 멀리’(παρα-)와 ‘끌고 간다’(ἀγωγή)를 합성한 단어인 ‘파라고게’(παραγωγή)에서 나왔다. 즉, 끝이 났는데도 더 멀리 끌고 가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어미음 첨가는 보통 문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영어에서 이것은 (1) 역사적인 발전 과정(예, 중세 영어의 *ernes* > 현대영어 *earnest*로 ; 중세영어의 *soun* > 현대영어 *sound*로 변함), (2) 구어적 요인, (3) 운율적 요인(예, *still* > *stilly*; *steep* > *steepy*가 있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어미음 첨가 헤(ה)는 단어 끝에서 헤(ה) 바로 앞에 아(a) 모음과 함께 ‘הַ-’와 같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발음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운문체에서 많이 사용되며, 단어의 의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עֲזָבָה(너는 버려라, 렘 49:11)와 같이 동사의 명령형 뒤에 첨가하는 헤(ה)가 대표적이다. 명령형에 첨가하는 헤(ה)는 원래 강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헤(ה)를 첨가하지 않은 명령형과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동사의 1인칭 미완료 뒤에 헤(ה)를 붙이는 권유형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방향의 헤(ה)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참. JMK §45a, 48d, 93; GKCS §48i).

+ 헤(He)

≡ 첨가의 눈(Paragogic Nun)

첨가의 ㄴ(눈)

paragogic Nun (נ)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ㄴ

첨가의 ㄴ은 언어의 초기 단계로부터 남아 있는 부분으로서 원시 형태에 속하며, 우가릿어, 아랍어, 아람어와 다른 종족 언어등에 나타난다. 특히 접미사 ㄴ에 붙은 ㄴ의 형태는 총 305 개의 예들이 구약 성경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으며, 그 대부분은 신명기(56), 이사야(37), 욥(23), 그리고 시편 104(15)에 나타난다. ㄴ을 가진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본문의 고대성, 의도적인 고어체의 사용이나 운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일반적인 이유는 서기관들이 더 완전하고 더 강조적이거나 두드러진 형태를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ㄴ을 가진 형태가 특히 휴지 위치(주된, 그리고 중간 휴지 위치들)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휴지 위치에서 선행하는 모음은 유지되고 가끔 이차적인 장모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의미가 분명히 지시형 일 때, ㄴ을 가진 형태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또한 가끔 2 인칭 여성단수 ִּנְּ(접미사에 ㄴ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이 ㄴ은 역시 원시 형태로서 아랍어와 아람어에 나타난다(참. JMK §44e-f).

시 104:28 (JMK §44e)

תִּתֶּן לָהֶם יִלְקֹטוּן

주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는다

신 13:5[한 13:4] (JMK §44e)

וְבוֹ תִדְבְּקוּן:

그를 의지하며

사 26:11 (JMK §44e)

יְהוָה רָמָה יָדָךְ בְּלִיַּתוּיָן

주님, 당신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룻 2:21 (JMK §44f)

עַם-הַנְּעָרִים אֲשֶׁר-לִי תִדְבְּקוּן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평행법(平行法)

parallelism

일반적으로 두 행으로 구성된 절에서 의미론적으로나 구문론적으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의미론적 단위를 구성하는 작시법의 기법.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특징인 평행법은 로버트 로우스(Robert Lowth, 1778)에 의하여 첫 행과 둘째 행이 서로 유사한 의미로 진술 될 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평행법에 대한 로우스의 접근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작업이었으며, 평행법을 의미론적 관점과 구문(통사)론적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제안으로 학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첫째로 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평행법은 “A 가 주어지고 B 는 뭔가를 더 말하고 있다” (A, what’s more B), 혹은 “A 는 진술하며, B 는 연관된 강조 진술이다” (statement A, related emphatic statement B)이라는 쿨걸의 입장과 이러한 쿨걸의 입장을 보충하여 히브리 시의 행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story)로 넘어가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시 속에서도 서사적 움직임(narrative movement)을 찾아내려고 했던 알터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구문(통사)론적 관점에서 본 평행법은 히브리 시를 문법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중심 요소들(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수식어)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 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한 콜린스의 입장, 독자적인 연구로서 로만 야콥슨의 영향을 받아 특히 문법적이고 의미론적인 평행법에 중점을 두지만, 콜린스와는 달리 문장의 표면구조만이 아니라 심층구조를 살피는 겔러의 주장, 히브리 시의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단어의 쌍과 행의 차원에서 문법적 평행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기본적으로 짝과 수식 문구를 통하여 표현하고 한 단어가 앞서고 다른 것이 뒤따르는 것은 음성학적인 이유를 비롯한 언어의 법칙 때문임을 강조하는 오코너의 관점, 히브리 시의 평행법은 단어와 행 혹은 절의 차원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으며,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문법적, 어휘-의미론적, 음성학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법은 이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벌린의 입장들이 있다(참. 김정우, 『히브리시학』, 71-97)

병렬(並列)

parataxis

문장 안에서 두 개의 언어적 단위들을 접속이나 연결 장치없이 대등한 관계로 나열하는 방식

우리 말로 ‘병렬’이란 ‘나란히 늘어선 것’이다. 영어 parataxis 는 헬라어 ‘파라타시스’(παράταξις)에서 ‘서로 곁에 두는 것’(a placing side by side)을 뜻한다. 문법에서 병렬은 접속사 없이 단순히 병치시키는 것이다(juxtaposition). 병렬은 문장 성분의 연결에 있어서 종속(subordination, hypotaxis)이나 등위(coordination)보다 그 연결의 정도가 약하다. 예로서 I'll be there, I promise you 에서와 같이 접속사가 없이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참. 이정민 외). 병렬의 기법은 히브리 시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시 3:3(히 4 절)

וְאַתָּה יְהוָה מִןּ בְּעָדִי כְבוֹדִי וּמְרִים רִאשִׁי: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병렬되어 나온다.

시 15:3

לֹא-רָגַל עַל-לִשְׁנוֹ לֹא-עָשָׂה לְרַעְיָהוּ רָעָה

그의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1,2행은 접속사 없이 연결되며 병렬되어 나온다.

↔ 종속(subordination, hypotaxis)

= 등위(coordination), 병치(juxtaposition)

삽입어구(插入語句)

parenthesis

앞뒤의 요소들과 동시적인 관계가 없이, 문장의 중간에 끼어드는 문법적으로 독립된 언어 단위(단어, 구, 절 등).

삽입이란 영어 paraenthesis 는 헬라어에서 ‘곁에 두다’(to put in beside)는 뜻을 가진 파렌세시스(παρένθεσις)에서 나왔다. 삽입어구는 병렬어구의 일종으로 문법적인 관계가 서로 필요하지 않지만, 본문 속에 설명이나 한정을 위하여 삽입된 것이다. 돈절법(aposiopesis)이나 파격구문(ancoluthon)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참. 조성식 외).

대상 26:25-26 (IBHS §16.3c)

וְזִכְרִי בְנֵי (וְשְׁלֹמֹת) [וְשְׁלֹמִית] בְּנֵי:²⁵
הוא שְׁלֹמֹת וְאָחִיו²⁶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그와)과 그의 형제는...
같은 슬로못이 이전 절에서 언급되었고, 다음절에서 설명적인 삽입어구로 소개된 것이다.

창 12:12 (GKCS §112y)

וְהָיָה כִּי־יֵרָאוּ אֹתָךְ הַמִּצְרַיִם וְאָמְרוּ אֵשֶׁתְּךָ וְהָרְגוּ אֹתָי וְאָתָּךְ יִחְיֶי:

애굽사람이 당신을 보면, 이는 그의 아내라고 그들은 말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니

≡ 돈절법(aposiopesis), 파격구문(ancoluthon)

유사음 놀이(類似音遊戲)

paronomasia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말을 통하여 만들어 내는 언어의 유희의 일종.

영어 paronomasia는 헬라어에서 ‘결에’(παρά-)와 ‘이름짓기’(ὀνομασία)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 ‘파로노마시아’(παρονομασία)를 음역한 것이다. 일종의 말 장난(pun)이다. 특히 음이 유사하고 의미가 다른 말을 연관지은 것이다. 예컨대, ‘금이 간 인생이 ‘금’(金)이 되다’가 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유사음 놀이(paronomasia)는 두음법(alliteration)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그 외의 유사음 놀이의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 (1) 히브리어에서 미묘한 유사음(assonance)은 자음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1-1, 1-2).
- (2) 수 많은 운율(rime)의 실례는 비교적 적게 나오지만, 그것은 항상 전체 단어의 유사음(assonance)과 연결되어 있다
- (3) 마지막 음절의 단어를 재현하여 바로 다음 글 앞 단어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경우(epanastrophe, anadiplosis)로서, 선행 구의 마지막 낱말을 후행 구의 머리에 반복하기도 한다.
- (4) 한 단어가 발음으로 그것과 비슷한 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의 형태를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있으며(4-1),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4-2).
- (5)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리스어보다 더욱 실제성을 나타낸다. 적합한 이름과 그것을 설명해야하는 통칭사이의 관계는 어원적이라기보다는 이름과 연관되는 사건이나 어떤 감정에 의한 발음의 유사함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참. Casanowicz, Immanuel M., 105-167)

(1-1)

신21:18

בְּנֵי סוֹרֵר וּמוֹלָ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1-2)

신28:22

וּבְשָׂדֵמָן וּבְיַרְקָן

가물과 썩는 병

(2)

사 24:4

אֲבֵלָה נִבְלָה נִבְלָה הָאָרֶץ

땅이 메마르고 시든다

시 18:8

וַתִּגָּעַשׁ וַתִּרְעַשׁ הָאָרֶץ

땅이 떨리고 뒤흔들린다

(3)

겔 17:20

וּפְרִשְׁתִּי עָלָיו רִשְׁתִּי

그 위에 나의 그물을 치며

(4-1)

겔 30:17

בְּחֹרֵי אֲנֹן וּפִי־בִסֵּת בְּחֹרֵב יִפְּלוּ

아웬(헬리오폴리스)와 비베셋(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며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의 히브리어 이름인 אֲנֹן이 악의적인 의미인 우상숭배, 사악함이라는 אֲנֹן으로 변경된 것이다.

(4-2)

렘 34:17

לֹא־שָׁמַעְתֶּם אֵלַי לְקֹרֵא דָרֹד אִישׁ לְאַחִיו וְאִישׁ לְרֵעֵהוּ הִנְנִי קֹרֵא לָכֶם דָּרֹד נְאֻם־יְהוָה אֱלֹהֵי־הַחֲרֹב וְאֱלֹהֵי־הָרָעָב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 자유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5)

창 27:36

הִכִּי קָרָא שְׁמוֹ יַעֲקֹב וַיַּעֲקֹבֵנִי זֶה פָּעֻמִּים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여기서 עקב동사(속이다)는 יעקב야곱(속이는 자)이라는 이름의 고유 명사로부터 발전된 유사음 놀이라고 할 수 있다.

헬라어의 경우 두음법(alliteration)과 유사음 현상(assonance)의 항목을 참고하라.

헬라어의 유사음놀이의 예: 마 21:41(R 119)

κακούς κακῶς ἀπολέσει αὐτούς그가 악한 그들을 심하게 멸할 것이다.

어근이 같은 κακούς 와 κακῶς 가 사용되었다.

– 두음법(alliteration)

≡ 유사음 현상(assonance)

Casanowicz, Immanuel M. "Paronomasia in the Old Testament." *JBL* 12 (1893), 105-167.

품사(品詞)

part of speech

낱말을 일정한 문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한 부류.

한자로 ‘품’(品)이란 ‘가지, 종류, 가지런히 함’이란 뜻을 갖고 있다. 물품(物品), 품목(品目), 품종(品種) 등에 쓰이는 단어이다. 원래 언어에서 품사를 구분할 때는 실제 세계와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갈수록 그 연관성은 희미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품사의 분류는 꼭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낱말을 품사로 분류하는 목적은 “수많은 언어의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에 한 문장의 구조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조성식 외).

언어를 품사로 구별하는 작업은 플라토(Plato)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헬라어 ‘오노마’(onoma)의 두 가지 특성으로서 (1) 이름, 즉 명사와 주어 (2) 진술, 즉 동사와 술어로 구별하였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불변화사(indeclinables)를 추가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8 품사 체계는 드라케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Thrax, Διονύσιος ὁ Θρᾷξ 주전 1 세기, 그의 아버지가 드라케 출신이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였다)와 아폴로니우스로 거슬러 올라간다(참. RDLL).

오늘날 품사는 전통적으로 대개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가 문장 중에서 갖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명사(noun), 대명사(pronoun), 형용사(adjective), 동사(verb), 부사(adverb), 접속사(conjunction), 전치사(preposition), 감탄사(interjection)의 여덟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또한 이러한 8 품사를 인정하고 이 분류법을 정리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분류법으로서 형태적인 특징에 입각한 형태류(morphological class)와 통사적인 특징을 토대로 한 통사류(syntactic class)의 분류법이 있다. 이것은 형태적인 특징에 입각하여 각 품사의 핵심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검토하는 분류법이 된다(참. 조성식 외).

우리 말에서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 문법에서 게제니우스는 전통적인 문법을 따라 대명사, 관사, 동사, 명사, 수사, 불변사(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주옹-무라오파는 정관사와 대명사, 동사, 명사, 수사, 불변화사(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위의 학자들은 동일한 체계로 히브리어 문법을 서술하고 있다.

항구적 분사(恒久的分詞)

participium tantum

오직 분사의 형태로만 나오고 다른 형태는 나오지 않는 형태

히브리어에서 오직 분사형(קטל)의 형태로만 나오고 다른 정동사의 형태로는 나오지 않는 동사를 말한다.

출 6:29

אֶת כָּל־אֲשֶׁר אֲנִי דֹבֵר אֵלֶיךָ: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두

시 25:3

גַּם כָּל־קִנְיָן לֹא יִבָּשׁוּ

주를 바라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출 18:10

וַיֹּאמֶר יְהוָה בְּרִיךְ הוּא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분사(分詞)

participle

동사나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동사 형태

한자어 분사(分詞)는 동사와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으로 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participle 은 ‘참여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particeps)에서 나왔으므로, 동사로서 형용사의 성격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준다.

영어의 경우, 분사형(participle form)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사는 준동사(verb)의 일종으로, 때로는 서법(mood)의 일종으로 보아서 분사법(participial mood)이라고도 부른다. 동사로서 형용사의 기능을 맡는 것이므로, 동사적 형용사(verb adjective)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형용사적 성질이 강한 것은 형용사적 분사(adjectival participle), 동사적 성질이 강하는 것은 동사적 분사(verb participle)라고도 부른다. 또한 분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로 구분된다(참조. 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경우, 분사는 능동형(active)이거나 수동형(passive)이다. 능동 분사(active participle)는 능동형과 채귀형의 동사변화에서 발견된다. 수동 분사는 수동 동사의 변화에 나타난다. 또한 칼 동사에서 상태동사들은 동사적 형용사를 가질 수 있다(JMK §50).

원래 셈어에서처럼 분사는 비시간적(atemporal) 형태로서, 현재, 미래, 과거라는 세 개의 시간적 영역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분사가 (1) 술어적으로 사용될 때 히브리어에서는 시간적 형태를 지니게 되며, 그것은 익톨을 대신한다. 술어(predicative)로 사용된 분사는 형용사의 성질과 공유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에 분사는 상태로서의 행동을 나타내며, 시상으로 보자면 지속성을 표현한다. 분사의 시제적 가치는 주로 자연스럽게 현재적이 된다. 분사는 그 현재적 의미가 확정되면서 상당히 자주 가까운 미래나 일반적인 미래에 사용된다. 또한 분사는 익톨처럼 과거의 문맥에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술적으로 사용된 분사는 거의 익톨과 일치한다. 많은 경우에 분사나 익톨은 뒤섞여 사용된다. 가끔 익톨은 분사를 이어간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사는 익톨보다 지속적 시상을 더 강하게 표현해준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절과 상황절에서 동사적이며 지속적인 동작은 익톨이 아니라 분사로 표현된다. 분사나 익톨이 나올 수 있는 문맥에서 주어가 표현된 경우에는 분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익톨이 우선적으로 선호된다. 시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분사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데 더 적절하며, 익톨은 미래를 표현하는데 더 적절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의 분사는 지속성이 없이 사용되며, 이런 현상은 이미 고전 내러티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 수식적(attributive)으로 사용될 때, 즉 준-형용사 기능을 가질 때 분사는 비시간적이 된다. 이것은 능동 분사와 수동 분사는 동일한 시제적 가치와 시상을 가진다. 차이점이 있다면 수동 분사들의 용례가 능동 분사들의 용례보다 더 적게 나타난다는 점뿐이다. 이 수식적 분사는 술어적(predicative) 분사와 대립되며 그 자체로 시간이나 시상을 표현하지 않는다. 시간과 시상은 오직 문맥에서만 추론할 수 있다(참. JMK §121).

(1) 현재 영역의 분사 (JMK §121d)

슌 2:6 [한 2:2]

וְאֵלֶּיךָ אָנֹכִי אֵתָּה הָלָךְ

내가 너는 어디로 가느냐고 말하였다

창 37:16

וַיֹּאמֶר אֶת־אֲחִי אֲנֹכִי מִבְּקֶשׁ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영역의 분사 (JMK §121e)

신 28:31

שׁוֹרֵף טְבוּחַת לְעֵינֶיךָ וְלֹא תֹאכַל מִמֶּנּוּ

너희 소는 너희 눈 앞에서 잡힐 것이나 그것을 먹지 말것이다

과거 영역의 분사 (JMK §121f)

왕상 17:6

והַעֲרָבִים מִבְּיָאִים לוֹ לֶחֶם וּבָשָׂר בַּבֶּקֶר וּלְחֶם וּבָשָׂר בַּעֲרָב וּמִן־הַנָּחַל יִשְׁתָּהּ: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

(2)

출 11:5 (JMK §121i)

מִבְּקֹר פֶּרְעֶה הַיָּשֵׁב עַל־כִּסְאוֹ

왕위에 앉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창 35:3 (JMK §121i)

לְאֵל הָעֵנָה אֲחִי בְנוֹם צָרְתִּי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 동사(verb), 형용사(adjective)

불변화사(不變化詞)

particle

문법기능이나 관계에 따라 어형변화(굴절)를 하지 않는 단어나 품사.

‘불변화사’는 어형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영어 **particle** 은 라틴어에서 ‘작은 부분’을 뜻하는 단어 **particula** 에서 나왔다. 즉, 소사(小辭)를 뜻한다. 인도유럽 어에서는 “어형 변화를 하지 않는 단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사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 대등 접속사들, 감탄사들이 포함되고, 낱말로서, 관사, 접두사, 접미사 등까지도 포함되기도 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경우, 명사, 대명사, 동사 외의 모든 품사, 즉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불변화사라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불변화사의 부류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히브리어의 부사에는 원시 형태를 갖는 부사, 파생된 부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여러 품사로서 보충의 부사, 남성 형용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동사 수식적 대격인 실명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동사 수식적으로 사용된 부정사 절대형, 횃수를 표현하는 수를 위해 동사 수식적으로 사용되는 기수, 횃수를 표현하기 위해 동사 수식적으로 사용된 서수, 동사 수식적 개념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들, 지시 부사, 의문 부사, 부정 부사, 인칭 접미사와 함께 오는 부사, 놀람의 **Heh** 로 불리는 의문사 **ה**가 있다(참. JMK §102).

히브리어의 전치사는 하나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전치사 **ב, כ, ל**와 그 외에 기원이 불분명하며 다소 오래된 것으로 처음에는 부사로 사용되던 고대의 명사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후대에 명사와 또는 명사 기능을 지닌 요소 앞에서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특히 단어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에는 **ב, כ, ל, מן**이 있으며, 전치사들은 명사로 간주되어 명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칭 접미사를 취하여 어형변화를 한다. 이 전치사들의 인칭 접미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의 접미사들과 같다. 그러나 상당수의 예외가 있으며 특히 이 예외는 원시적인 전치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대부분의 전치사는 단수 명사가 인칭대명사를 취하는 방식대로 접미사를 취하고(**ב, כ, ל, מן, עם, את**, 대격 불변화사 **את**), 일부는 복수 명사의 방식대로 취한다(**על, עד, אל, אחר, בין, סביב, תחת**). (참. JMK §103).

히브리어의 접속사에는 등위(또는 병렬) 접속사인, **ו**(그리고), **אף**(또한), **גם**(또한), **או**(또한)과 종속 접속사인 **אשר**와 **ש**, **כי**(~는 것, ~때, ~라면, 때문에, 그러나 등등), **פן**(~하는 경우에, in case; ~하지 않도록, lest), **אם**(~라면, if), **לו**(~라면, if 비현실), **לולי**와 **לולא**(~가 아니라면, if...not)가 있다. 그리고 **אשר**와 **כי**의 종속 접속사는 결합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참. JMK §104).

히브리어의 감탄사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부르짖음, 의성어 같은 순수 감정 용어들과 특별한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기쁨의 외침(**הֵאָח**), 슬픔의 외침(**הֵאָה, הָה, אָח**), 위협과 두려움의 외침(**הוּי, אוּי, אוּיָה, אֵי, אֱלִי**), 침묵을 요청하는 외침(**הִם, הָם, הָסו**), 간청의 감탄사(**נָא, בִּי**), 강력한 간청을 표현하는 감탄사(**אֲנָה, אָנָה**), 한 이야기에서 화자나 내레이터, 그리고 등장 인물이 무언가 새롭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으로 인식한 것에 대하여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시적인 부사인 감탄사(**הִנֵּה, הִנָּה, הִנֵּה**), 고무하거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특히 명령형으로 사용하는 감탄사(**לָכֵה, תָּבֵה**), 소원을 표현하는 감탄사(**אֲחֻלִּי, אֲחֻלִּי**), 부정적인 소원이나 거절을 표현하는 감탄사(**תָּלִילָה**)가 있다(참. JMK §105).

헬라어의 경우, 관사는 성과 수와 격에 따라 변화한다. 부사도 변화될 때가 있다. 전치사는 자음접변 등의 이유로 형태가 변화된다. 접속사는 변화되지 않으나 접속사로 분류된다. 감탄사도 변화되지 않으나 감탄사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헬라어에서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사’를 뺀 나머지 불변화사만 ‘불변화사’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예로, ἄν, ἄρα, ἄρα, γέ, δή, ἦ, μέν, μή, μήτι, ναί, οὐ, οὐχί, πού, πῶς, πῶς, ὥς, ὥσει, ὥσπερ가 있다(박형대, 『사도행전 원문강독』, 서울: 그리심, 2015 참고).

ἄν 은 ‘혹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혹시 1[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어쩌다가 우연히, 짐작대로 어쩌면,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다소 미심쩍은 데가 있어 말하기를 주저할 때 쓰는 말], 혹 5, 혹야, 혹여, 혹자 1 와 같이 번역할 수 있지만 번역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

ἄρα 는 걱정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거나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에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말 ‘겠[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ἄρα 는 추론을 이끄는 단어로, “그리하여, 그렇다면, 도대체”로 표현할 수 있다.

γέ 는 “적어도”로 표현할 수 있다.

δή 는 “각설[각설 2: 말이나 글 따위에서,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림]하고, 정말[정말 1: 거짓이 없이 말 그대로임, 또는 그런 말]이지”로 표현할 수 있다.

ἦ 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아니하면, 바꿔 말하면, ~외에, 그것보다, 아니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μέν 은 교체하여 바꾸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접속사로, “혹은[더러는] - 혹은, 한편[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말] - 또 한편, 일단 1[우선 먼저] - 그리고”로 표현할 수 있다.

μή 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말다 3[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 않다[앞 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금하다 2[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리다]”로 표현할 수 있다.

μήτι 는 “누가 1[‘누구가’가 줄어든 말] 있겠느냐/하겠느냐?”로 표현할 수 있다.

ναί 는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맞다 1[(앞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데 쓰여) ‘그렇다’ 또는 ‘옳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οὐ 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니다[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않다[어떤 행동을 아니 하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안 될 말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οὐχί 는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닌가[-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않느냐[-냐: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않았느냐”로 표현할 수 있다.

πού 는 “어떤 곳”으로 표현할 수 있다.

πῶς 는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떻게, 얼마나[동작의 강도나 상태의 정도가 대단함을 나타내는 말], [~할] 거리 2[내용이 될 만한 재료]”로 표현할 수 있다.

πῶς 는 “어떻게든”으로 표현할 수 있다.

ὥς 는 불변화사로 시간과 비교를 의미하는 종위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쯤 2[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쯤, 무렵[대략 어떤 시기와 일치하는 즈음]에, 정도 11[그만큼가량의 분량], 가량 5[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한 계산은 아니나 얼마쯤이나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하여 봄], 그때[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 ㄹ 때, 하자[자 26: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매우 1[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같은, 처럼[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마치 3[거의 비슷하게] 처럼, 바와 같다[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로 표현할 수 있다.

ὡσεὶ 는 “약 3[‘대강’, ‘대략’의 뜻으로, 그 수량에 가까운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대략[대충 어림잡아서], 어림잡아[어림잡다: 대강 짐작으로 헤아려 보다; 어림치다], 같이[‘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표현할 수 있다.

ὡσπε 는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로, “마찬가지[사물의 모양이나 일의 형편이 서로 같음]로, 같은[같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분적(部分的)

partitive

집합적인 전체 중에서 오직 그 일부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구조나 표현.

문법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는 “전체에 대하여 부분의 관계를 표현하는 구 혹은 구문”을 이룬다(ODEG). 영어에는 (1) 부분 관사(any, some), (2) 부분 속격(고대 영어의 속격), (3) 부분의 of, (4) 부분 수사(one half, one third 등)가 있다(참. 조성식 외). 핀란드어에는 ‘부분’을 나타내는 형태소 격이 있다고 한다(RDLL).

히브리어에서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은 (1) 연계구 (2) מן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나타낸다(JMK §142 m).

(1)

삼상 17:13 (JMK §142 m)

שְׁלֹשֶׁת בְּנֵי־יִשְׂרָאֵל הַגְּדֹלִים

이새의 큰(장성한) 아들 중 셋

(2)

레 4:2 (JMK §133e)

מֵאַחַת מֵהֵנָּה: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삼상 14:45 (JMK §133e)

מִשְׁעָרַת רֹאשׁוֹ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 부분의 속격(partitive genitive)

부분의 속격 (部分的屬格)

partitive genitive

한 명사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명사들 간에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의 속격 구문.

히브리어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속격이 있다. 이 속격의 종류들에는 주어의 속격, 목적어의 속격, 추상명사로 표현된 성질의 속격, 전체의 속격, 부류의 속격, 종류의 속격, 재료의 속격, 단위의 속격, 고유명사의 속격, 부분의 속격, 관계의 속격, 기원의 속격, 시간과 장소의 속격, 소속의 속격, 동작의 속격, 주제의 속격, 목적의 속격이 있으며, 전체 중에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된다(참. JMK §129 d-f).

대하 21:17 (JMK §129f)

קָטַן בְּנָיו:

그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창 22:2 (JMK §129f)

אֶתֶּד הַקָּלִים

산들 중 하나

삿 5:29 (JMK §129f)

חֲכָמוֹת שְׁרוּתֶיהָ

그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시녀

+ 부분적(partitive), 속격(genitive)

파세크

paseq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 사이에 일시적 휴지를 두기 위해 표시한 수직선 부호

히브리어에서 파세크(פסק)는 아람어 현재 분사형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단어의 왼쪽에 위치하는 세로 획이다. 이 부호가 항상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같은 자음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그 사이에 온다. 이 기호는 르가르메나 주된 샬레트처럼 그림상 악센트의 세로 획과 유사하다. 파세크는 후대에 도입되었으며 다른 악센트보다 일관성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그 용법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약 480 개의 예들중 이 기호들의 대부분은 두 단어가 어떤 경우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렘 51:37 에서처럼, 같은 자음이 한 단어의 끝과 다른 단어의 처음에 나타날 때 사용된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들은 이런 정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여러가지 가능한 몇몇 가설들이 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 실례로 파세크는 발음을 구별하는 기호이거나, 혹은 고대의 축약을 표시하거나 짧은 주석을 삽입하기 위한 기호로 설명된다(JMK §70).

렘 51:37 (JMK §70)

וְהִיָּתָה בָּבֶל׃ לְגִלְיָם׃ מְעוֹרְתָנִים׃

바빌론이 폐허 더미가 되어서 여우 떼의 거처가 되고

느 2:12 (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45)

וְאֶקוּם׃ לִילָה׃ אֲנִי נֹאנְשִׁים׃ מִטַּטְעִמִּי וְלֹא־הִגַּדְתִּי לְאָדָם׃

내가 밤에 일어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몇 사람과 함께

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서울: 기혼, 2012.

파쉬타

pashit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생긴 모양이지만 קָאִישׁ(삼상 1:3)와 같이 단어 중간에 오는 것은 분리 악센트가 아닌 카드마라 부르는 연결 악센트이다. 파쉬타는 카드마와 모양은 동일하나 הָעֵי(수 8:1)와 같이 단어의 중간이 아닌 끝에 와야 한다. תְּהוֹ(창 1:2)와 같이 동일한 모양이 한 단어에 두 개가 표시되는 경우는 둘 중 왼쪽에 있는 것이 파쉬타이며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강세의 표시이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예티브, 트비르, 자르카, 르비아 등과 함께 제3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4급보다는 힘이 크지만 제1급, 제2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적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2015: 171-176).

+ 악센트(accent)

수동태(受動態)

passive

문법적 주어가 행위자(agent)가 아니라 어떤 동작의 대상(patient)이 되어 그 작용을 받을 때 술어나 문장이 갖는 형식.

태(voice)의 문법적 범주로서, 주어가 동작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로서, 능동태와 대립된다(참. 조성식 외). 능동태에서 동사의 주어는 그 동작을 수행하지만,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동사적 동작의 “포커스가 되거나 혹은 영향(impact)을 받는다”(CDEG). 히브리어에서 수동태의 동사 변화에는 피엘형의 수동태 **קטל**과 히필형의 수동태 **הקטל**을 가지고 있다. 칼형은 한 때 수동태(qatal)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완료형에서 푸알과 혼동되고, 미완료형에서 호팔과 혼동되었다. 수동태 동사 변화(칼 수동태 포함)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의 첫째 모음은 원시 모음 u 이다(qatal, yuqtal). 미완료형의 둘째 모음은 상태 동사에서처럼 원시 모음 a 인데, 이것은 아마도 이 동사들을 유추한 것일 수 있다. 완료형의 둘째 모음은 첫 번째 그룹의 상태 동사들에서처럼 원래 i 였으며, 아마도 이 동사들을 유추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이 i 모음은 미완료형을 유추하여 a 모음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수동태의 활용들은 모음 변화로써 그에 대응되는 능동태 동사들과 대조된다. 이와는 달리 니팔과 히트파엘의 두 형태는 원래 재귀적인 용법외에도 수동태의 활용들로서 사용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적 수동태(internal passive)라는 용어는 가끔 순수한 수동태의 활용들에 적용되며, 그 수동태의 특징은 접두사나 접미사가 아닌 동사 어간의 내부적인 요소로 표기된다. 영어와 같은 몇몇 비 셈어들과 비교해볼 때, 히브리어는 수동태 동사변화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푸알의 40%는 분사이며, 호팔에서 분사 비율은 푸알의 분사 비율보다 더 낮다. 이것들은 행동보다는 상태를 가리킨다(JMK §55).

출 25:5 (JMK §56).

וְעָרַת אֵילִם מְאֻדָּמִים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푸알 동사의 변화이다

시 72:20 (JMK §56).

כָּלוּ תַּפְלֹת דָּוִד בְּיָשׁוּי: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푸알 동사의 변화이다

단 8:11 (JMK §57)

וְהִשְׁלָךְ מִכּוֹן מִקְדָּשׁוֹ: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호팔 동사의 변화이다

렐 19:12 (JMK §57).

וַתִּתֵּשׁ בְּחֶמְהָ לְאַרְצָהּ הַשְּׁלֵכָהּ

분노 가운데 뱉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호팔 동사의 변화이다

+ 태(voice)

↔ 능동태(active)

≡ 중간태(middle voice)

칼의 수동태

passive of qal

단순 동작(칼동사)의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완료형(qutil), 미완료형(yuqtal(u))으로 남아있는 형태(JMK §58a).

히브리어에서 우선 칼 동사의 미완료형은 원시 형태가 **יִקְטַל**로 남아있다. 이 형태는 호팔의 미완료형(**יִקְטַל**)이 중간음 **ה**의 탈락으로 나오는 것(**יִקְטַל**)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칼 동사의 완료형은 원시 형태 *qutil*은 다른 수동태 동사 변화들에서처럼 미완료형을 유추하여 두 번째 모음으로 *a*를 갖는 *qutal*이 되었다. *u*는 열린 음절(개음절)에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음절이 닫혀져야 하며 이것은 비후음 자음의 이차적인 중복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qutal*은 *quttal*이 되어야 한다. 이 형태는 푸알 완료형 **קָטַל**과 형태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완료형에서 칼 수동태는 푸알과 같게 되고 미완료형에서는 호팔과 동일하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옛날 문법학자들은 모든 **קָטַל**형태들을 푸알로 보고 모든 **יִקְטַל**형태들을 호팔로 보았다. 그러나 이 형태들은 그 자체로 칼 수동태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칼 수동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각각 그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יִקְטַל**형태가 능동의 피엘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칼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형태의 의미가 피엘의 수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칼 수동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יִקְטַל**형태가 능동의 히필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칼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의 의미가 히필의 수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칼 수동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JMK §58a).

욥 28:2

בְּרָזָל מִעֵפֶר יָקַח וְאֵבֶן יָצוּק נְחוֹשֶׁה:

철은 흙에서 취해지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여기서 **יָקַח**는 칼 수동태 미완료형이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피엘형이나 히필형의 수동이 아니라 단순 동작의 수동이기 때문이다. 이 동사는 피엘 형태나 히필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창 4:26

וּלְשֵׁת גַּם-הוּא יָלַד-בָּנוֹ

셋도 역시 아들을 얻었고

여기서 **יָלַד**는 칼 수동태 완료형이다. 그 의미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로서 칼형의 수동태이며, 분만하다를 뜻하는 피엘형이 수동이 아니다.

+칼(Qal), 능동태(active)

능동 의미를 갖는 수동 분사

passive participle with active meaning

능동의 의미를 갖는 수동형의 분사

히브리어의 경우, 분사는 능동형이거나 수동형이다. 능동 분사는 능동형과 채귀형의 동사 변화에서 발견된다. 수동 분사는 수동 동사의 변화에 나타난다. 그리고 능동 분사의 원시 형태는 *qātil*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qatil* 의 첫 모음이 길어져서 확장된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 *qōṭel* 이 왔으며 종종 불완전한 철자법 קטל로 기록된다. 수동 분사의 원시 형태는 *qatūl*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qatul* 의 둘째 모음이 길어져서 확장된 형태이며 קטול이 왔다. 그런데 어떤 קטול 분사들은 능동의 의미 또는 능동의 의미에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람어에는 능동 의미를 가진 몇몇 קטיל 수동 분사들이 있다(참. JMK §50).

아 3:8 (JMK §50e)

כָּלֵם אֶתְּוֹ חֶרֶב

모두 칼을 잡고

여기서 수동 분사형태인 אֶתְּוֹ는 ‘칼을 쥐고 있는’, ‘칼로 무장된’ 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상 5:18 (JMK §50e)

וּלְמוֹדֵי מִלְחָמָה

싸울 만한

여기서 수동 분사형태인 לְמוֹדֵי는 ‘싸움에 익숙한’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지닌다

신 1:13

הָבוּ לָכֶם אֲנָשִׁים חֲכָמִים וְנִבְנִים וְיָדְעִים לְשִׁבְטֵיכֶם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택하라

여기서 수동 분사형태인 יָדְעִים은 ‘인정 받는자’, ‘경험이 많은 자’, ‘현명한자’, ‘전문가’, ‘권위자’라는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사 53:3 (JMK §50e)

יָדוּעַ חָלִי

질고(질병, 병고, 고통)를 아는 자

여기서 수동 분사형태인 יָדוּעַ는 ‘질병에 익숙한’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지닌다.

헬라어의 경우, ‘능동 의미를 갖는 수동 분사’라는 개념을 이태동사의 수동태형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의 경우와 달라, 이태동사(deponent verb)에서 다뤄지는 것이 좋다.

→ 이태동사(deponent verb)

과거(속의) 미래

past future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내러티브 속에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볼 때 그보다 후행해서 장차 일어날 행동을 문법적으로 미래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시제

히브리어에서 동작 동사들의 카탈형은 대부분 과거로 사용되며, 몇몇 특별한 경우는 현재형으로, 가끔은 미래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카탈형은 다른 행동보다 앞서어난 행동을 미래 영역으로 표시할 때 사용된다. 이 용법에서 카탈 자체는 동작의 선행성(anteriority)을 표현할 뿐이며, 미래의 영역은 문맥에 의하여 시사되고, 대부분 선행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인 과거를 나타내게 된다(JMK §112i).

신 8:10 (JMK §112i)

וּבִרְכַּתְּ אֶת־יְהוָה אֱלֹהֶיךָ עַל־הָאָרֶץ הַטֹּבָה אֲשֶׁר נָתַן לָךְ:

너에게 주실 좋은 땅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נָתַן**은 카탈형으로서 과거 속의 미래를 나타낸다(will have given you)

렘 8:3 (JMK §112i)

בְּכָל־הַמְּקוֹמוֹת הַנְּשֹׂאֲרִים אֲשֶׁר הִדְחִיתִים שָׁם

내가 그들을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will have driven)

+ 시제(tense), 과거(past), 미래(future)

파타흐

pathah

히브리어에서 마소라의 모음 기호 중 하나로서 발음은 열린 a 음이다(JMK §6g).

◊

수동자(受動者)

patient

의미적으로 동작의 영향을 받아 어떤 상태나 자리에 놓여지는 대상

수동자는 행위의 대상자이다. 영어 patient 는 라틴어에서 ‘짐을 지고 떠말다’(bearing, suffering)를 뜻하는 단어인 paitiens 에서 나왔다. 즉 타동사의 목적어나 자동사의 주어로 동사의 동작을 받는 것이다. 예로, “We cooked the meat on the barbecue. The meat cooked quicky”에서 meat 를 가리킨다(CDEG).

히브리어의 경우, 시제와 법(또는 인칭)과 상관 없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들은 부정사와 분사로서 동사와 명사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다. 부정사는 동사적인 힘을 가진 동작 명사(action noun)로서 부정사 절대형과 부정사 연계형으로 구분된다. 한편 분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며, 분사에는 동작을 실행하는 행위자(agent, 능동 분사)와 동작의 영향을 받는 수동자(patient, 수동 분사)가 있다(JMK §40b).

삼상 25:18

[עֲשִׂיתָ] (עָשִׂיתָ) אֵין שְׁמֵךְ

요리한 양 다섯 마리

여기서 **עָשִׂיתָ**은 칼 수동 분사로서 완결된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키며 동작의 영향을 받은 대상자로서 요리된 양 다섯마리를 말한다.

조상명(祖上名)

patronymics

조상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인명이나 지명.

영어에서는 보통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만든다. 예로, 접미사로 -ing (Brwoning), -son (Nelson, Wilson), 접두사로 Mac- (Macbeth), O- (O'Brien) 등이 있다.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접미사 **יָד**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형성된 형용사이다. 특히 서수, 종족, ‘조상의 이름을 딴 형용사’에 나타난다(JMK §88g).

창 14:13

וַיָּבֹא הַפְּלִיט וַיֵּגַד לְאַבְרָם הָעִבְרִי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창 24:37

לֹא־תִקַּח אִשָּׁה לְבָנִי מִבְּנוֹת הַכְּנַעֲנִי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헬라어 접미어들은 S 845-850 을 보라. 신약성경에서 조상의 이름을 표현하는 접미어가 사용된 단어로는 Χριστιανός(그리스도인)이 있다.

행 11:26(R 155)

χρηματίσαι τε πρώτως ἐν Ἀντιοχείᾳ τοὺς μαθητὰς **Χριστιανούς**.

마침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되었습니다.

휴지(休止)

pause

본문을 읽는 중에 잠시 숨을 돌리거나 발음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참. 조성식 외).

영어 pause 는 헬라어에서 ‘멈춤’(παῦσις)을 뜻하는 명사와 ‘멈추다’(παύ-ειν)는 동사에서 나왔다. 사람들은 대화나 독서에서 리듬을 만들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사이에 멈추게 된다.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에는 두 가지 형태의 휴지가 있다. 첫째로는 문장 끝에 오는 실룩(silluq)이며, 두 번째로는 문장의 중간에 오는 아트나흐(atnah)이다. 절에 끝에 오는 실룩은 어느 정도 앞에서 멈추거나 예비적으로 늘이는 것(연장)을 포함한다. 이것은 자동차가 미리 멈추려고 준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휴지 형태의 단어를 발음할 때에는 문장 속에 나타나는 형태보다 더 느리고 완전하며 강조적이다. 이러한 연장의 결과로 (1) 강세가 있는 모음은 그것의 음색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본문에 나올 때보다 원래 더 길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2) 휴지 형태들은 자주 원시 형태나 그것과 가까운 형태들이 되어서 일부 생략된 모음들이 다시 나타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재생된 모음이 강세를 갖는다. 또한 휴지 형태에서는 음량의 차이와는 별개로 모음 음색의 변화가 자주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음량(장단)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이며, 결국 어떤 경우에는 강세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JMK §32a).

+ 악센트(accent)

- 실룩(silluq), 아트나흐(atnah)

≡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파제르

pazer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 시편, 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틀리샤 그돌라, 카르네이 파라, 게레쉬, 게르샤임, 무나흐 레가르메 등과 함께 제 4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악센트는 어절 수가 적은 짧은 절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며 긴 절에서만 등장하는데, 긴 절에서도 이 악센트의 출현 횟수는 적은 편이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2015, 171-176).

+ 악센트(accent)

פע

Pe

22 개의 히브리어 자음 중 17 번째 문자.

페는 히브리어 숫자로 80 의 의미를 가진다. 브가드크파트(bgadkfat) 문자 중의 하나로서, 다게쉬 포르테(이중점)나 다게쉬 레네(경강점)을 가졌을 때는 파열음의 소리값(p)을 가지고, 다게쉬가 없을 때는 마찰음의 소리값(f)을 가진다.

끝 직전 음절

penultima

한 단어의 마지막 음절 직전의 음절.

영어 penultima (penult)는 라틴어에서 ‘거의’를 뜻하는 단어(pæne)와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ultimus)가 합성한 것이다. 즉 한 단어의 끝에서부터 두 번째 나오는 음절이다. 나크다님이 기록한 히브리어 본문에서 주된 강세는 주로 끝음절인 얼티마(ultima)와 그 직전의 펜얼티마(penultima)에 흔히 나타난다. 히브리어 강세는 점차 발전하면서, 단어의 끝 쪽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 끝 이전의 음절 강세는 מְלֵעִל 밀엘이라고 부르며, 끝 음절의 강세는 מְלָרַע 밀라 라고 부른다.

מְלֵעִל

밀엘(끝 이전의 음절에 강세가 있다)

מְלָרַע

밀라(끝 음절에 강세가 있다)

헬라어에서는 penult 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οἰκουμένην, πέμψαι 와 같은 단어는 끝 이전 음절에 악센트가 있다. 어미변화를 하지 않는 히브리어 음역 이름 중에 끝 이전 음절에 악센트를 갖는 경우가 있다(Ἐλιέζερ[눅 3:29], Φάλεκ[눅 3:35], Λάμεχ[눅 3:36]; R 236).

+ 음절(syllable), 강세(stress)

≡ 나크다님(Naqdanim)

완료(完了)

perfect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진술되는 상황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가리키는 시제나 시상

영어 perfect 는 라틴어에서 ‘성취하다, 완결하다’를 뜻하는 동사(perficere, 명사형은 pefectum)에서 나왔다. 따라서 ‘완료’란 기본적으로 ‘완전히 끝마침’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완료가 시제의 관점에서 사용될 때는 사건이나 상태가 진술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완결되었음’을 뜻하며, 미래완료, 현재완료, 과거완로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완료가 시상의 관점에서 사용될 때는 진행상을 가리키는 ‘미완료’와 대조적으로 ‘완결된 동작’(completed action)을 ‘전반적으로’(globally) 보는 관점이 된다.

히브리어에서 시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이 두 개의 정시제(finite tense)에 내포된 복잡성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쉽게 설명하자면, 히브리어 정시제에는 접미사 형태의 완료형과 그리고 접두사 및 접미사 형태를 갖는 미완료형이 있다. 먼저 접미사 동사 형태는 대부분 서술 시점에서 ‘완료된 과거’에 사용되고, 몇몇 특별한 경우에 현재(수행적 완료형, performative perfect)와 미래(예언적 완료, 과거 속의 미래)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상의 관점에서 볼 때 완료형은 과거에 유일하고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이나 즉각적인 행동에도 사용된다. 나아가 완료형은 현재 순간이나 과거 순간으로부터 조금 전(최근 과거)이나 상당히 먼 시간(먼 과거), 과거에 있었던 순간(과거 완료, 대과거), 경험적 진리, 과거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일어난 행동에 사용된다(참. JMK §112).

창 27:4 (JMK §112a).

וַעֲשֵׂה-לִּי מִטַּעֲמִים בְּאֶשֶׁר אֶתְבַּתִּי וְהָבִיֵּאָה לִּי וְאֶכְלָ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אֶתְבַּתִּי’는 카탈형의 상태동사이다

삿 19:30 (JMK §112d).

וְלֹא-נִרְאָתָהּ כְּזֹאת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였다

‘נִרְאָתָהּ’는 카탈형으로 단 하나의 동작이나 순간적인 동작으로서 유일한 것을 나타낸다

창 18:15 (JMK §112c).

לֹא צָחַקְתִּי

나는 웃지 않았다

조금 전, 최근 과거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카탈형이다

창 1:5 (JMK §112c).

וּלְחָשֶׁךְ קָרָא לַיְלָה

그는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קָרָא’는 먼 과거의 과거 사건을 서술할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카탈형이다

창 31:32 (JMK §112c).

וְלֹא-יָדַע יַעֲקֹב כִּי רָחֵל גִּבְתָּהֶם: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음을 몰랐다

נָבְגָתָם은 과거에 있었던 순간으로, 과거보다 앞선 행동을 표현하는 이전의 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를 나타내는 카탈형이다

사 1:4 (JMK §112e).

עָזְבוּ אֶת־יְהוָה

그들은 여호와(주님)를 버렸다(계속 버리고 있다)

עָזְבוּ은 과거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가정될 때 사용된 카탈형이다

삼하 19:30[한 19:29] (JMK §112f).

אֶמְרָתִי אֶתְּךָ תְּחַלֵּקוּ וְצִבָּאָה תְּחַלֵּקוּ אֶת־הַשָּׂדֶה:

내가 말한다 너와 시바는 그 밭을 나누어라

순간적인 행동에 사용되는 카탈은 말하는 순간에 수행되므로 현재로서 과거에 속한 것이다

렘 40:4 (JMK §112g).

וְעַתָּה הִנֵּה פְתַח־דִּלְךָ הֵאָחֵז בְּיָדִי אֲשֶׁר עַל־דָּךְ

보라 이제 내가 오늘 네 손에 있는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줄 것이라

미래에 속하는 행동에 사용된 카탈형이다

헬라어에서 완료는 상태상(stative)으로 상태와 조건을 의미한다. 미래완료, 현재완료, 과거완료 있다. 직설법, 부정사, 분사에서 나타난다.

(1) 직설법 현재완료의 예: 행 4:9

εἰ ἡμεῖς σήμερον ἀνακρινόμεθα ἐπὶ εὐεργεσίᾳ ἀνθρώπου ἀσθενοῦς ἐν τίνι οὗτος **σέσωται**,

약해진 사람에게 베푼 착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이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사를 받는다면

(2) 직설법 과거완료의 예: 행 7:18

ἄχρι οὗ ἀνέστη βασιλεὺς ἕτερος [ἐπ' Αἴγυπτον] ὃς οὐκ **ᾔδει** τὸν Ἰωσήφ.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왕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3) 직설법 미래완료의 예: 히 8:11

πάντες **εἰδήσουσιν** με ἀπὸ μικροῦ ἕως μεγάλου αὐτῶν

모든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작은 이로부터 큰 이들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4) 부정사 현재완료의 예: 행 8:11

προσεῖχον δὲ αὐτῷ διὰ τὸ ἰκανῶ χρόνῳ ταῖς μαγείαις **ἐξεστακέσαι** αὐτούς.

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마술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5) 분사 현재완료의 예: 행 4:14

τόν τε ἄνθρωπον βλέποντες σὺν αὐτοῖς **ἐστῶτα** τὸν **τεθεραπευμένον** οὐδὲν εἶχον ἀντειπεῖν.

결과적으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 그들이 따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미완료(imperfect)

+ 시제(tense), 시상(aspect)

≡ 동사(verb)

접미사를 가진 완료형

perfect with suffixes

접미사가 추가된 완료형의 동사 형태

히브리어의 경우, 접미사 앞에서 완료의 어떤 인칭들은 오히려 원시 형태에 가까운 형태를 갖는다. 3인칭 여성 단수 **קָטְלָה**(원시 형태: *qatalat*); 2인칭 여성 단수 **קָטַלְתִּי**(원시 형태: *qatalti*); 2인칭 남성 복수 **קָטַלְתֶּם**(원시 형태: *qataltum*).

접미사가 추가된 동사 형태는 모음의 배열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3인칭 여성 단수 **קָטְלָה**는 **קָטַלְתָּ**가 된다. 새로운 모음의 배열은 접미사를 갖는 명사들을 유추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음들은 그 위치나 길이에 의해 보호될 때, 자연스럽게 그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히필은 모든 인칭에서 모음 배열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몇 가지 인칭들을 관찰해보면, 3인칭 남성 단수에서는 문장 속에서 규칙과는 달리 열린 음절에 **ו**를 갖는 **קָטַלְתָּ**와 휴지 위치의 **קָטַלְתִּי**를 발견하게 된다. 3인칭 여성 단수에서는 **קָטַלְתָּ**동사 형태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취급된다. (1) 그것은 항상 **-lat**에 강세를 갖는다. (2)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그것은 연결 모음을 받지 않는다 (3) 다른 접미사들 앞에서 **קָטַלְתָּ**, **קָטַלְתֶּם**들이 나타난다. 2인칭 남성 단수에서는 문장 중에서 **קָטַלְתִּי**와 휴지 위치에서 **קָטַלְתָּ**가 나타난다.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와 함께 올 때 고대 형태 **קָטַלְתָּהוּ**는 강동사에서 단 한번 나타난다. 2인칭 여성 단수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와 함께 올 때, 자음이 탈락되지 않은 **קָטַלְתִּיהוּ** 형태만 발견된다. 1인칭 단수에서는 **ה**가 탈락된 **קָטַלְתִּיו** 형태는 **קָטַלְתִּיהוּ**보다 더 일반적이다.

확신의 완료(確信의 完了)

perfective of confidence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태나 사건을 표현하는 완료.

히브리어에는 완료형이 미래시제에 사용된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이것을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라고 하였다. 예언자들과 시인들은 미래의 사건을 완료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미래가 이미 성취되고 완결된 것처럼 말하였다. 오늘날의 문법학자들은 더 이상 ‘예언적 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 9:1 (JMK §112h).

הָעַם הַהֲלָכִים בְּחֹשֶׁךְ רָאוּ אֹר גָּדוֹל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ראו는 예언적 완료로서, 예언에서 미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카탈형이 사용된다

+ 완료형(perfect)

기원의 완료(祈願의 完了)

perfective of prayer

기원적 의미(禱望스)를 가지는 카탈형

히브리어에서 의지법 대신에 간청, 소원, 바람을 표현하는 카탈형은 시문(시편, 욥기)과 세련된 산문에서 기원의 의미(禱望스)를 지닌다(JMK §112k).

삼상 24:15 [한 24:15] (JMK §112k).

וְהָיָה יְהוָה לְדָלַי וְשָׁפַט בֵּינִי וּבֵינְךָ וְיֵלֵא יְיָ אֶת־רִיבִי וְיִשְׁפָּטֵנִי מִיָּדָּךְ: פ

야웨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결해주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서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17:27 (JMK §112k).

וְעָתָה הוּאֵלֶּתְ לְבָרְךְ אֶת־בֵּית עַבְדְּךָ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 끝부분이다

시 57:7 (JMK §112k).

נִפְּלוּ בְּתוֹכָהּ סֵלָה:

그들이 그곳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욥 22:18 (JMK §112k).

וְעֲצַת רָשָׁעִים כְּתֻקָּה מִנִּי: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완료형(perfect)

수행적(遂行的)

performative

특정한 상황에서 발화가 그 안에 의미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그 안에 담겨있는 동작을 실행하는 것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선언하는 말이 일과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치 합법적인 결혼의 주례자가 “이제 신랑신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실제로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은 선언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J. L. Austin(1962)이 처음 만든 개념으로서 ‘발화 행위 이론’(speech act theory)에서 나온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순간적인 행동에 사용되는 카탈로 말하는 순간에 수행되므로, 이런 형태의 완료 용법을 수행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수행적 완료형은 부정적 절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 형태는 특히 말하는 동사들과 그 유사어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JMK §112f).

신 26:3 (JMK §112f)

וְאָמַרְתָּ אֵלָיו הִגַּדְתִּי הַיּוֹם לַיהוָה אֱלֹהֶיךָ

네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삼하 17:11 (JMK §112f)

כִּי יַעֲצֵתִי הָאִסָּף יֵאָסֵף עָלֶיךָ כָּל־יִשְׂרָאֵל

나는 조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모으고

신 8:19 (JMK §112f)

הַעֲדָתִי בְכֶם הַיּוֹם כִּי אֶבְדְּ תַאבִּדּוּן:

내가 엄숙하게 선포한다(증거한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창 22:16 (JMK §112f)

וַיֹּאמֶר בִּי נִשְׁבַּעְתִּי נָא־יְהוָה

그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헬라어의 경우, 이 용어는 ‘즉각적인 현재’(instantaneous present)와 관련하여 사용된다(W 517-518). 발화되는 그 순간에 발화된 말이 수행된다.

요 3:3(W 518)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행 9:34(W 518)

Αἰνέα, **ἰάται** σε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애니아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우언법(迂言法)

periphrastic

한 마디나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를 위하여 여러 말을 덧붙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참. 조성식 외).

우언법은 완곡한(euphemistic) 것과 기술적인(descriptive)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완곡어법(euphemism)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금기시된 사항이나 불유쾌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었다’를 ‘떠나셨다’(pass away), 혹은 ‘소천하셨다’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 우언법은 이와 달리, 어떤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 특수한 개념의 말과 일반적인 개념의 말을 결합시키는 방식이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완곡한 표현의 구문은 불필요해 보이며 특히 후대의 책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문맥은 그리스어의 기동동사 미완료나 생생한 역사적 현재의 의미에 아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JMK §121g).

느 2:13 (JMK §121g).

וַאֲהִי שֹׁבֵר בְּחוֹמֹת יְרוּשָׁלַם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겔 43:6 (JMK §121g).

וְאֶשְׁמַע מִדְּבַר אֱלֹהֵי מִתְּבֵיט וְאִישׁ הָיָה עֹמֵד אֵצֶלִי:

나는 누군가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었다

대하 24:12 (JMK §121g).

וַיִּתְּנֵהוּ הַמֶּלֶךְ יְהוֹיָדָע אֶל-עוֹשֶׂה מְלָאכָתָּ עֲבוֹדַת בֵּית-יְהוָה וַיְהִי שֹׁבְרִים חֲצָבִים וְתֹרָשִׁים

왕과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였다

헬라어의 경우, 완곡어법은 εἶμι 혹은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ὑπάρχω 와 같은 단어+분사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회구법과 완료분사의 예: 행 21:33(R 375)

ἐπισυθάνετο τις εἶη καὶ τί ἐστὶν πεποιηκώς.

그가 누구인지를, 또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가 질문합니다.

완료분사와 부정사의 예: 행 19:36(R 375)

δέον ἐστὶν ὑμᾶς κατεσταλμένους ὑπάρχειν καὶ μηδὲν προπετὲς πράσσειν.

너희는 진정하고 어떤 경솔한 짓도 해서는 안 된다.

명령법과 현재분사의 예: 눅 19:17(R 375)

ἴσθι ἐξουσίαν ἔχων ἐπάνω δέκα πόλεων.

너는 열 개의 성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되어라.

허용 중간태

permissive middle

주어가 어떤 것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을 위해 이뤄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의 태(W 425).

허용 중간태는 사역적(causative) 중간태로 불리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역적(causative)’ 항목의 ‘사역적 중간태’를 보라.

→ 사역적(causative)

페르시아어

Persian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

주전 1,700 여년부터 고대근동아시아에는 고대 인도유럽인들이 등장하였다. 미타니 왕국에는 아리안의 이름을 가진 용사들이 등장하였고, 우가릿에는 전차를 몰고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봉건 영주들(maryanni)이 있었다. 이들은 페르시아 계통의 용사들이었다. 우가릿어 maryanni는 고대 페르시아어(OP)에서는 bandaka였으며, 아시리아어에서는 ardani가 되었다(참. G. Widengren, 313-357). 고대 페르시아어는 페르시아인들이 살고 있던 페르시스 지역의 방언이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아리아(Ariya)라고 불렀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초원 지역을 떠나 페르시아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며, 서부 지역은 메데인들을 중심으로 메디아에, 페르시아 인들은 파르스(Fars)에 정착하였고, 파르스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언어는 국제 공용어나 행정 언어가 아니었고, 다만 왕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참. R. Schmitt, 717-41). 다리우스 1 세는 고대 페르시아어를 문자로 기하기 위하여 쉐기 문자체계를 도입하였다. 그의 업적은 ‘베히스툼 비문’에 기록되었다(주전 518 년). 베히스툼은 ‘신의 장소’(the place of god)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Bisotun, Bistun, Bisutun 으로 표기된다(OP, Bagastana). 이 비문은 쉐기문자를 사용하여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바빌론어로 기록되었다. 또 다른 고대 페르시아어 비문들로서는 크세르크세스 1 세(486-462)와 아닥사스다 3 세(Artaxerxes III, 359/8-338/7)의 비문이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정원’은 대표적인 페르시아 어휘이며(아가 4:13), 랍비 문헌에는 4 개의 페르시아어가 발견된다고 한다(히브리어 발달사, 213). 아람어에는 페르시아어에서 차용한 수많은 어휘들이 나온다(G. Widengren, 353-356). 현대의 페르시아어는 주후 8 세기 문헌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페르시아어는 중세의 이란어를 직접 계승한 것이 아니다. 주후 1300 년부터 이란어는 오토만제국의 공궐 언어가 되었다(참. RDLL). 현재 페르시아어는 약 5200 만명이 사용하는 이란의 공용어이며,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쓰며, 아랍어로 표기되고 있다.

Widengren, G., “The Persians,” in POTT, 313-357

Schmitt, R., “Old Persian,” in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ed. By R. D. Woodard, Cambridge Uni. Press, 2015, 717-741.

인칭(人稱)

person

발화에 참여하는 화자, 청자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법적 범주

영어 person 은 헬라어에서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인 ‘프로소폰’(πρόσωπον)에서 나왔으며, 디오니시우스가 인칭을 가리키는 문법 용어로 만들었고, 라틴어 문법에서는 바로(Varro)가 *persōna* 로 번역하였다(참. OED).

문법 용어에서 인칭은 주로 명사, 대명사, 동사로 표현된다. 담화나 발화에서 1 인칭은 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2 인칭은 청자를, 3 인칭은 발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칭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이 중에서 3 인칭은 사람 외에 동물, 사물, 또는 개념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며, 한정된 것 또는 비한정된 것등을 나타내는 다른 문법 범주와 결합할 수도 있다.(참. 이정민 외).

의인법

personification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

마치 ‘꽃이 웃는다’,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처럼(표준국어),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생명체나 개념에 사람의 감정과 속성과 형태를 부여하여 표현하는 수사적 기법이다. 따라서 의인법은 은유 및 비유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사 12:6 (JMK §134o)

צְהִי וְהִנֵּי יוֹשֶׁבֶת צִיּוֹן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쳐 부르라

여기서 **יוֹשֶׁבֶת**는 직역하면 여자 거민이지만, 집합명사라기 보다는 의인화로서 시온에 사는 사람들, 시온의 거민으로 표현된다

미 7:8 (JMK §134o)

אֶל־תִּשְׁמְחִי אִיבָתִּי לִי

나의 원수야, 나를 인해 기뻐하지 말아라

여기서 **אִיבָתִּי**는 직역하면 여자 원수이지만, 의인화로 볼 수 있다

페쉬타

Peshitta

고대 시리아어로 번역된 동방 기독교의 성경

‘페쉬타’는 시리아어로 ‘단순한’(plain) 혹은 ‘평이한’(plain)을 뜻한다. 시리아어는 동방 기독교의 중심을 이룬 에데사(Edessa, 오늘날의 터키 동남쪽에 있는 우르파 Urfā) 지역의 ‘아람어 방언’이었다(참. 이수민). 시리아어로 ‘페쉬타’는 p'shītā, p'shītō, p'shītā, p'shītō 로 표기되는데, 끝모음 a 와 o 는 동일하게 a 로 발음이 된다(OED). 현재까지 입증된 바로는 ‘페쉬타’라는 명칭은 주후 9 세기 ‘모세스 바르 케파’(Moses Bar Kepha, 813–903)가 쓴 글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쉬타 구약성경은 70 인경처럼, 초기에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었을 것이다. 페쉬타는 유대인들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히브리어에서 번역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페쉬타는 마소라 전통과 일치하며, 특히 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 현상은 뚜렷하다. 그렇지만, 룻기에서는 번역이 상당히 자유롭다. 시편과 열두 선지에서는 70 인경과 상당히 가깝다. 잠언에서는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본문을 쉽게 풀어쓴 현상이 나타난다(현창학). 신약성경 페쉬타도 안디옥 교회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초기에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페쉬타 신약성경은 주후 5 세기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시리아 교회에 정경으로 여기지 않는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두 22 권의 책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페쉬타에 대한 종합적인 비평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파리의 다국적언어판(Parisian Polyglot, 1645)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P.A.H. de Boer 가 페쉬타 비평본을 다듬고 있다(참. 이수민,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구약 성경,” 105-124; 현창학, “잠언 페쉬타의 번역기법 연구,” 6-23).

≡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 쿰란 텍스트(Qumran text), 70 인경(Septuagint)

이수민,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구약 성경,” 『Canon&Culture』 1 (2007), 105-124.

현창학, “잠언 페쉬타의 번역기법 연구,”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0 (2002), 6-23.

필리피 법칙

Philippi's law

셈어에서 강세가 있는 닫힌 음절(폐음절)에서 /i/가 /a/로 바뀌는 규칙

필리피(F.W.M. Philippi)는 성경 히브리어에 발음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램딘(Thomas O. Lambdin)이 상세하게 다듬어 내었다. 그렇지만, 휴네가드(John Huehnergard)는 이것이 히브리어의 발음 법칙이 아니고, 아람어의 발음규칙이며, 원시셈어(Proto-Semitic)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히브리어에서 강세가 있는 닫힌 음절에서 /i/가 /a/로 바뀐다(bint > bant > בַּנְת) (참. Thomas O. Lambdin, “Philippi's Law Reconsidered,” 135–145; John Huehnergard, “Philippi's Law,”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edited by Geoffrey Khan).

창 21:8

וַיִּזְכֹּר

젓을 떼다

미완료형의 두 번째 모음은 특히 휴지 형태에서 /a/가 된 것으로, 필리피 법칙의 결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Lambdin, Thomas O., “Philippi's Law Reconsidered,” In Ann Kort (ed.).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Presented to Samuel Iwry*, Eisenbrauns, 1985, 135–145.

Huehnergard, John, “Philippi's Law,”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edited by Geoffrey Khan, Brill Online, 2013.

+음성론(phonology)

페니키아어

Phoenician

아프로 아시아어족의 서북 셈어군에 속하는 언어로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한 언어.

페니키아어는 고대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활동한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한 언어로 히브리어, 아람어, 우가리트어와 함께 셈어의 서북 어군에 속한다. 페니키아어 문자는 알파벳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원시 가나안어로 알려진 최초의 알파벳은 주전 17세기경 현재의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되었다. 원시 가나안 알파벳은 27개에서 30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록 방향도 수직, 수평, 혹은 지그재그 방향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주전 13세기경 22개의 문자로 축소되었고 주전 11세기경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 방향이 확정되었다. 원시 가나안어로 불리던 것이 이 시기에 페니키아어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던 무역상들이었는데, 그들이 초기 알파벳인 원시 가나안 알파벳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페니키아 알파벳 문자는 주전 11세기경 최초의 그리스어 알파벳 문자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은 모든 유럽 문자의 기원이 되었다. 페니키아어는 주전 10세기부터 주전 5세기까지 수 천개의 비문으로 남아 있는데 두로와 시돈과 같은 고대 레바논 해안 도시들은 물론 키프로스, 카르타고와 지중해 동쪽 전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이라크와 대서양 연안으로 퍼졌다. 카르타고와 지중해 서쪽의 페니키아 식민지에서 발견된 비문들의 언어를 포에니어(Punic)라 부르며 포에니어의 형태로 북부 아프리카로 퍼지기도 했는데 그곳에서는 주후 2세기까지 문헌 언어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페니키아어를 페니키아-포에닉어(Phoenicio-Punic)라고도 부른다(참. Naveh 1994: 1-42; Yardeni 15-17; Moscati 10; SBCP 57-60).

+ 셈어(Semitic, semitic language)

≡ 히브리어(Hebrew), 우가리트어(Ugaritics), 모압어(Moabite), 암몬어(Ammonite)

음소(音素)

phoneme

한 언어에서 뜻을 구별하는 소리체계의 최소단위로서, 다른 것과 구별되면서 의미를 갖는 것.

영어 phoneme 은 헬라어에서 ‘소리’(φωνήμα)를 뜻하는 명사와 ‘소리 내다’(φωνεῖν)는 동사에서 나왔다. 음소의 ‘소’(素)는 갑골문에서 ‘누에고치에서 갓 자아낸 원래의 하얀 실’에서 유래하였으며, ‘본디, 본바탕’이란 뜻을 갖는다. 즉, 음의 본바탕이 되는 것이 음소이다. 언어학에서 음소는 음들의 공통 분모와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공유하는 실제 소리이다. 그렇지만, 한 언어에서 사람들은 주어진 음소를 약간씩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발음할 때가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표준 영어는 두 개의 다른 발음을 가진 /l/ 음소가 있는 데, 이것은 가끔 *keel* 의 ‘탁한, 불분명한 l’과 *leek* 의 ‘맑은, 분명한 l’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들은 소리가 매우 다르다. 만일 불어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자가 *keel* 을 ‘맑은 l’로 발음한다면 자신이 비영어권 출신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는 그 단어를 어려움 없이 이해할 것이다. 전문적으로 변이음(allophone)으로 불리는 두 종류의 l 은 한 단어 안에서 각각 그들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다. 분명한 l 은 모음 앞에 나타나는 반면, 불분명한 l 은 자음 앞이나 단어의 끝에 나타난다(JMK §5a).. 다시말해 이것들은 위치에 따라 발음이 변형되는 것이다. 더욱이 음소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분화시킨다. 한자어에서 정(正)과 정(情)은 소리의 고저에 있어서 다를 뿐 아니라 의미도 다르다.

히브리어에서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로, תָּשַׁח(그는 망했다, 부패했다) 와 טָשַׁח(그는 도살 당했다)에서 의미상의 차이는 단지 ת와 ט의 음소의 대조로만 나타난다. 비록 그런 음성적인 차이가 아주 사소하게 보여도 그것들은 두 개의 다른 음소들이다. 둘째로, 이와는 달리 תָּשַׁח와 תָּשַׁח לֹא에서 타브에 다게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동사의 의미와는 상관없으며 이것들이 /t/ 음소에 대한 두 개의 변이 음소들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고대 언어에서는 음들보다 음소들을 다루는 것이 더 쉽다(JMK §5gb). 따라서 음소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충분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모음들(히브리어의 i 와 u)은 자음(y ‘, w ‘)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음들은 모음이 될 수 있다(히브리어의 실레는 없다)(JMK §5a).

+ 음운론(phonology)

≡ 단음(phone)

음성학(音聲學)

phonetics

발음기관을 통하여 말소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귀로 지각되는 것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

음성학은 세 가지 중심 분야를 가진다. (1) 말소리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다루는 ‘조음 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 또는 ‘생리 음성학’(physiological phonetics), (2) 말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다루는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 또는 ‘물리 음성학’(physical phonetics), (3) 말소리가 실제적으로 귀를 통해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다루는 ‘청각 음성학’(auditory phonetics), 또는 ‘지각 음성학’(perceptual phonetics)이다(조성식 외).

= 음운론(phonology)

- 음소(phoneme)

음운론(音韻論)

phonology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말소리인 음운을 대상으로 음운의 목록과 음운체계를 밝히고, 음운 결합을 지배하는 규칙과 그 역사적 변천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

음운론은 뜻을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지닌 언어의 모든 소리들과 소리 형태들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이 과정을 통해 음소 목록과 그 음소들을 구성하는 음운체계를 찾아낸다. 음운론이란 시대와 학파에 따라서 가리키는 내용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 어떤 특정 언어의 음운 발달의 역사적 연구를 가리키거나 음성학(phonetics)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음성학이 음성의 생리적,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라면, 음운론은 음성의 체계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참. 조성식 외)

≡ 음성학(phonetics)

구 동사(句動詞)

phrasal verb

일반적으로 동사와 전치사, 부사 등이 서로 결합하여 구를 이루어 관용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

영어에서 동사가 불변사나 전치사와 결합하면서,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변할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 예로, catch on 은 ‘성공하다’(succeed), fall out 은 ‘싸우다’(quarrel), find out 은 ‘조사하다’(investigate), get up 은 ‘일어나다’, give up 은 ‘포기하다’, look up 은 ‘발견하다’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더 많은 동사구는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들이다. 예로, protect them *from* harm; apply *for* leave; remind us *of* the past 등을 들 수 있다(CDEG).

히브리어에서는 영어처럼 구로 이루어진 동사가 없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는 전치사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의미론적 내용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קָנָא אֶת-אִשְׁתּוֹ**, **בִּי-קָנָא**, 그리고 **לִי-קָנָא**는 모두 **קָנָא**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의미론적 내용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JMK §125bc).

민 5:14 (JMK §125bc)

וְקָנָא אֶת-אִשְׁתּוֹ

그가 그의 아내를 질투하여

창 30:1 (JMK §125bc)

וְתִקְנָא רָחֵל בְּאֶחָתָהּ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슥 1:14 (JMK §125bc)

קָנְאִי לִירוּשָׁלַם וּלְצִיּוֹן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

눅 5:31

οὐ χρείαν ἔχουσιν οἱ ὑγιαίνοντες ἰατροῦ ἀλλὰ οἱ **κακῶς ἔχοντες**.

건강한 이들은 의사에 대한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픈 자들이 [필요로 한다.]

ἔχω 가 부사 κακῶς 와 함께 쓰이면 ‘불편하다, 아프다’를 의미한다.

구(句)

phrase

문법적으로 상호 밀접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 통사적인 단위를 이루는 형식 또는 성분.

영어 phrase 는 헬라어에서 ‘말, 어법, 어구’를 뜻하는 명사(φράσις)와 ‘가리키다, 말하다, 선언하다’를 뜻하는 동사(φράζειν)에서 나왔다. 한문의 ‘구’(句)는 ‘구부러진 갈고리가 걸린 모양’으로 ‘구획’과 ‘토막’을 나타낸다. 문법에서 ‘구’는 단어와 절 사이에 있는 언어적 단위로서, 그 자체는 주어-술어를 갖지 않는다. 이 점에서 주어와 술어를 가진 ‘절’(clause)의 하위 단위이다. 구의 기본 형태에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전치사구, 부정사구, 분사구 등이 있다.

출 4:10

אִישׁ דְּבָרָיו

말의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창 37:19

בְּעַל הַחֲלֹמֹת

꿈 꾸는 자

헬라어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전치사구, 분사구, 부정사구가 문장에서 사용된다. 분사구의 대표적인 것은 속격 독립 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이다. 해당 항목을 보라. 이 외에도 전치사(preposition), 분사(participle), 부정사(infinitive) 항목을 보라.

전치사구의 예: 행 4:3

ἔθεντο εἰς τήρησιν εἰς τὴν αὐρίον

그들이 이튿날까지 구치소에 처넣어 두었습니다.

εἰς τήρησιν 과 εἰς τὴν αὐρίον 이 전치사구이다.

전치사구와 부정사구의 예: 행 3:2

τοῦ αἰτεῖν ἐλεημοσύνην παρὰ τῶν εἰσπορευομένων εἰς τὸ ἱερόν.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요청하도록

τοῦ αἰτεῖν ἐλεημοσύνην 은 부정사구, παρὰ τῶν εἰσπορευομένων 과 εἰς τὸ ἱερόν 은 전치사구이다.

+ 절(clause)

≡ 속격 독립 분사구문(genitive absolute participle), 전치사(preposition), 분사(participle),

부정사(infinitive)

피엘

piel

히브리어 동사의 7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기본형(Qal)에 포함된 동작에서 특히 ‘상태를 변화시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피엘 유형은 동사 어근의 두번째 자음이 중복되는 것을 그 형태적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인 문법학자들은 이 형태소가 동사의 기본 의미(칼형, Qal)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강의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피엘 형태의 의미는 작위적 의미, 선언-평가적 의미, 복수화의 의미, 명사파생 형태의 의미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JMK §52d).

왕하 11:1

וַתֵּאָבֵד אֶת כָּל-זֶרַע הַמֶּמְלָכָה

그 여자는 모든 왕족 후손을 멸망시켰다.

히브리어 동사 **אָבַד**의 칼 형태의 의미는 ‘멸망하다’인데, 피엘로 사용되면 작위적 의미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를 멸망하게 한다’는 뜻이 된다.

+ 동사

≡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알렐, 푸알랄, 필펠, 폴팔, 히트팔렐

= 강의형(intensive)

피렐

pi'le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인 파렐의 변화형태.

동사 어근의 세번째 자음이 반복되어 표현되는 형태인 파렐(Pa'lel)에서 첫 자음 '아'가 '이'로 약화된 형태이다. 수동으로는 푸랄(Pu'lal)이 있다. (GKC §55d; JMK §59b).

실례를 문법서나 히브리성경에서 찾아내기 어려움. 대개 본문비평상 혹은 형태론상의 논의가 복잡한 경우들이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렐, 푸랄, 필펠, 폴팔, 히트팔렐

필펠

pilpe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

아인 바브(ו"ב) 동사 혹은 아인 중복(ב"ב) 동사 등에서 두 자음이 반복되는 형태로서,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이다. 수통태는 폴팔(polpal) 혹은 풀팔(pulpal)이고 재귀형은 히트팔펠(hithpalpel)이다(GKC §55f; JMK §59c).

렘 51:25

וְגִלְגְּלִיתִי מִן־הַסֵּלַעִים

내가 너를 바위로부터 굴릴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 גלל의 기본적 의미는 ‘구르다’인데 필펠 형태로 사용되어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렐, 푸랄, 풀팔, 히트팔렐

용어법(冗語法), 중어법(重語法)

pleonasm

거의 같은 뜻의 말을 겹쳐쓰거나, 여분의 말을 중복하여 덧붙이는 일종의 강조법.

용어법 혹은 중어법은 동의어 반복 혹은 중복(tautology)이라고도 하고, 불필요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여분의 말로 중복하여 추가하기도 하며, 강조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참. PDSBH; 조성식 외).

전 1:16

דְּבַרְתִּי אֲנִי עִם־לִבִּי לְאִמֹּר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전 1:17

שָׁמַעְתָּ הָאֵל הוּא רִעְיוֹן רוּחַ: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헬라어에서도 중어법이 다양하게 쓰인다(R 1205).

행 10:15(R 1205)

καὶ φωνὴ *πάλιν ἐκ δευτέρου* πρὸς αὐτόν·

그러자 두번째로 다시 말소리가 그에게 [났습니다].

πάλιν 과 *ἐκ δευτέρου* 가 함께 쓰인 것은 중어법으로 볼 수 있다.

고전 14:5(R 640)

μείζων δὲ ὁ προφητεύων ἢ ὁ λαλῶν γλώσσαις *ἐκτὸς εἰ μὴ* διερμηνεύῃ

한데 예언하는 자는 방언으로 대화하는 자보다-그가 통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큼니다.

ἐκτὸς 와 *εἰ μὴ* 가 함께 쓰인 것은 중어법으로 볼 수 있다.

파열음(破裂音)

plosive

폐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성문 뒤의 입안 어느 위치에서 폐쇄되었다가(막았다가) 파열되면서(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나는 음성으로 ‘ㅂ’, ‘ㅃ’, ‘ㅍ’, ‘ㄷ’, ‘ㄸ’, ‘ㄲ’, ‘ㄴ’, ‘ㄷ’ 따위가 있다(참. 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파열음은 **כ, ג, ד, ט, צ, פ, ק, ת**, 등이 있으며, 특히 기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인 **תפוצה**에 포함된 여섯 자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이중적인 발음을 가진다. 이 가운데 파열음들은 영어에서 b, g, d, k, p, t에 해당하는 자음의 음가를 가지며, 이 파열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글자 안에 다게쉬(dagesh)라고 불리는 점을 찍는다(JMK §50).

헬라어 자음 가운데 파열음(폐쇄음)은 $\beta, \gamma, \delta, \theta, \kappa, \pi, \tau, \phi, \chi$ 이다. 양순음은 π, β, ϕ 이다. 이 가운데 π 는 무성음(voiceless), β 는 유성 자음(voiced), ϕ 는 기식음(aspirate)이다. 치음은 τ, δ, θ 이다. 이 가운데 τ 는 무성음, δ 는 유성음, θ 는 기식음이다. 구개음은 κ, γ, χ 이다. 이 가운데 κ 는 무성음, γ 는 유성음, χ 는 기식음이다. 이상 아홉 개는 조음 방법 분류상 파열음에 속한다.

+ 자음(consonant)

과거완료(過去完了)

pluperfect

과거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다 더 앞선 시점까지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시제(참. 표준국어대사전). 과거의 그 시점에서 동작이 완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완료’를 뜻하는 영어 pluperfect 란 ‘완료보다 더 이전 시제’(plus-quam-perfect)라는 헬라어([χρόνος] ὑπερσυντελικός)를 번역한 것이다(OED). 영어로는 past perfect, preterite perfect, ante-preterit 로 번역된다. 영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had 로 표시되며, had+과거분사의 형태를 취한다. 국어에서는 “작년에는 이곳에 나팔꽃이 피었었다”의 서술어 ‘피었었다’에서처럼 ‘-있었-’ 또는 ‘-았었-’으로 나타난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과거 완료는 조동사를 통하여 표현되지 않으며, ‘완료’를 표현하는 동사 형태를 문맥을 통하여 추론함으로써 그 보다 더 이전의 과거로부터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의 그 시점에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창 31:34 (JMK §118d)

וְרַחֵל לָקְחָהּ אֶת־הַתְּרָכִים וַחֲשֵׁמָם בֶּכָר הַגָּמֶל וַחֲשָׁב עָלֵיהֶם

라헬이 드라빔을 이미 취하여 낙타 안장 아래에 두었다

낙타 안장 속에 둔 마지막 행동은 마로 앞에 있는 드라빔을 취한 행동보다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자는 다시 바익톨형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לָקְחָהּ**는 과거 완료(대과거)에 해당한다

삼상 28:3 (JMK §118d)

וַשְּׁמוּאֵל מָת וַיִּסְפְּדוּ־לּוֹ כָּל־יִשְׂרָאֵל וַיִּקְבְּרוּהוּ בְרָקָהּ וּבְעִירוֹ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묻었다

+ 과거(preterite), 동사(verb), 시제(tense), 시상(aspect)

복수(複數)

plural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등의 개체를 나타내는 수, 또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형태(참. 표준국어대사전).

언어에 따라 복수는 명사 외에도, 대명사와 그것들을 받아주는 동사, 형용사 등에도 반영이 되며, 특히 “국어에서는 명사, 대명사에 ‘들’이 붙어 복수를 만든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 외에도 쌍수가 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단수와 마찬가지로 성에 따라 ‘어미’(語尾)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남성 복수 어미는 **יםִי**이고, 이것은 모든 남성 형용사와 많은 남성 실명사 및 몇 개의 여성 실명사들에 나타난다(가끔 **יםִי**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 복수 어미는 **ותִי**이며, 이것은 모든 형용사와 많은 여성 실명사 및 두 개의 남성 실명사(**אבותִי**, 아버지의 복수, **אבותִי**가죽 물병의 복수)에 나타난다. 일부 단어들은 오직 복수 형태로만 사용되며, 이것들은 대부분 추상 명사이거나 의미상 단수이다. 복수형은 개체적 존재의 복수성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어떤 것이 실제적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복수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합성물에서는 구성 요소를, 확장된 물체에서는 다양한 구성 부분을, 특별히 완전한 존재에서는 그 존재의 다양성이나 강렬성을, 추상적인 것에서는 그 표현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는 구성, 확장, 탁월성이나 장엄성, 강렬성, 추상성의 복수형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참. JMK §90, 136).

창 35:11

וּמַלְכִּים מִתְלַצֵּי יַעֲקֹב: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일반적인 복수 어미 **יםִי**을 가진 남성 복수형이다

출 3:18

אֵלֵינוּ יְהוָה אֱלֹהֵי הָעִבְרִיִּים נִקְרָה עָלֵינוּ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יםִי를 가진 명사의 경우 남성 복수는 **יםִי**이고, 더 단축되어 **יםִ**으로 나오기도 한다.

삿 6:25

וּפֶרֶךְ הַשָּׁנִי שֶׁבַע שָׁנִים

7년된 둘째 소

남성 복수 어미 **יםִ**을 가진 여성 복수형이다

왕하 11:13

וַחֲשַׁמֶּעַ עַתְלָהָ אֶת־קוֹל הַרָצִין הָעָם

아달랴가 달리는 자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남성 복수 어미 **יםִ**를 가진 남성 복수형이다.

레 26:46

אֵלֶּה הַחֻקִּים וְהַמִּשְׁפָּטִים וְהַתּוֹרָה

이것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여성 복수 어미 **ti**가 불완전 서법으로 **ti**로 쓰인 것이다

창 2:20

וַיִּקְרָא הָאֱלֹהִים **שְׁמוֹת** לְכָל-הַבְּהֵמָה וְלָעוֹף הַשָּׁמַיִם וּלְכָל חַיַּת הַשָּׂדֶ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여성 복수 어미 **ti**를 갖는 남성 복수형이다

율 2:10

לִפְנֵי רִגְזָה אֶרֶץ רָעָשׁוּ **שָׁמַיִם**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שָׁמַיִם은 항구적 복수형이다

헬라어 명사, 대명사, 형용사, 관사, 분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가진다.

(1) 명사, 관사, 분사 복수형의 예: 행 5:40

καὶ **προσκαλεσάμενοι τοὺς ἀποστόλους δείραντες** παρήγγειλαν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매질하며 지시했습니다.

ἀποστόλους 는 명사로 복수형이다. **τοὺς** 는 관사로 복수형이다. **προσκαλεσάμενοι** 와 **δείραντες** 는 분사로 복수형이다.

(2) 대명사, 형용사, 분사 복수형의 예: 행 28:25

ἀσύμφωνοι δὲ ὄντες πρὸς ἀλλήλους

그 바람에 서로서로 일치하지 않아

ἀσύμφωνοι 는 형용사로 복수형이다. **ἀλλήλους** 는 대명사로 복수형이다. **ὄντες** 는 분사로 복수형이다.

+ 수(number)

의미 강조의 복수(意味強調 複數)

plural of amplification

어간의 개념이나 의미를 강조하는 복수

히브리어에서 어간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복수형으로 주로 시문에 나타난다.

사 40:26

מְרַב אֲנִים' וְאִמְיָן כֹּחַ אִישׁ לֹא נִעְדָּר: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여기서 **אֲנִים'**은 **אִישׁ**의 복수형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복수형이다

시 68:7 [한 48:6]

מוֹצִיא אֲסִירִים בְּבוֹשָׁרוֹת

감힌자들은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기서 **בוֹשָׁרוֹת**은 완전하게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복수형이다

공간 확장의 복수(空間擴張 複數)

plural of local extension

공간의 표면적 구성 부분들이 여럿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복수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단지 다수의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 쓰일 뿐 아니라 그들을 집합적으로 총괄하여 나타내기 위해 쓰일 수 있다. 공간적 확장의 복수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가리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평평한 표면들(표면의 복수, the surface-plural)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에는 무수한 개별 부분들이나 점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한다는 개념이 매우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GKCS §124a, b).

욥 16:19

גַּם-עֲתָה הִנֵּה-בְשָׁמַיִם עָדִי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창 1:10

וּלְמִקְוֵה הַמַּיִם קָרָא יָמִים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헬라어에서 ‘하늘’은 복수형뿐 아니라 단수형으로도 쓰인다. 하늘의 복수형태는 히브리어의 영향일 수 있다(R 408).

행 2:34

οὐ γὰρ Δαυὶδ ἀνέβη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ύς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복수형태인 οὐρανούς 로 표현되었다.

행 3:21

ὃν δεῖ οὐρανὸν μὲν δέξασθαι

그런데 하늘이 이분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단수형태인 οὐρανὸν 으로 표현되었다.

위엄의 복수(威嚴複數)

plural of majesty

탁월성과 위엄, 존엄을 나타내는 복수

히브리어에서 위엄의 복수는 추상 개념의 복수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 개념의 강화라는 이차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개념에 속하는 여러 가지 특질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GKCS §124g). 이 탁월성과 위엄, 존엄을 나타내는 복수는 탁월의 복수(pluralis excellentiae), 존엄의 복수(pluralis maiestatis)라고도 하며, **אֱלֹהִים** 하나님(또한 일반적인 복수형: 신들)은 일반적으로 단수와 연결된다. 즉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복수정보다는 단수형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JMK §136d).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왕하 19:16 (JMK §148a)

אֱלֹהִים חַיִּ:

살아계신 하나님

대상 17:21

הָלַךְ הָאֱלֹהִים לַפְּדוּת לְוָעָ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가셔서

앞서 ‘공간적 확장, 연장의 복수’에서 다뤄진 ‘하늘’이 ‘위엄의 복수’로 인식되기도 한다(R 408).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이 위엄의 복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주’와 같은 단어들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항상 단수이다.

항구적 복수형(恒久的 複數形)

plurale tantum

오직 복수의 형태로만 사용되는 단어.

항구적 복수형을 가리키는 라틴어 *plurale tantum*(단수형)은 *pluralia tantum*(복수형)이라고도 한다. 영어에서 어떤 명사들은 하나의 대상이나 개념을 가리키지만, 항상 복수형으로만 나온다(glasses, odds, scissors, trousers 등, CDEG). “이론적으로는 people, police 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수형 -s 로 끝나는 단어이다(ODEG).

히브리어에서는 오직 복수형이나 단수형으로만 나오며, 그에 대응하는 단수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명사들이다. 이 단어들의 대부분은 추상명사이거나 의미상 단수이다(참. JMK §90f).

욥 11:3

בְּדִיּוֹת מִתִּים יְתָרִישׁוּ

너의 자랑하는 말이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왕하 6:18

וַיָּבֹאוּ בְּסַנְגָּרִים כְּדָבָר אֱלִישֶׁעַ

주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어둡게 하셨다

신 28:50

גִּזְיוֹן עַז פָּנִים אֲשֶׁר לֹא־יִשָּׂא פָּנִים לְקֵלוֹ

그 용모가 험악한 민족이며 노인을 돌보지 아니하고

헬라어에서 늘 복수형이 쓰이는 예로는 도시명이 있다(R 408).

행 1:4

ἀπὸ Ἱεροσολύμων μὴ χωρίζεσθαι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 것

행 17:16

Ἐν δὲ ταῖς Ἀθήναις ἐκδεχόμενου αὐτοῦς

이에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 복수(plural)

대과거(大過去)

plusquamperfect

일정한 과거의 사건이나 행동에 선행하여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

이 용어는 pluperfect 와 동의어로서, 이전의 과거, 즉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를 일컫는 용어로서, 과거보다 앞서 일어난 행동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시제이다(JMK §112c).

창 1:31 (JMK §112c)

וַיַּרְא אֱלֹהִים אֶת-כָּל-אֲשֶׁר עָשָׂה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았다

창 31:32 (JMK §112c)

וְלֹא-יָדַע יַעֲקֹב כִּי רָחֵל גִּבָּתָם: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음을 몰랐다

헬라어에서 대과거(pluperfect) 시제는 직설법에만 쓰인다(S 359).

행 1:10

καὶ ἰδού ἄνδρες δύο **παρειστήκεισαν** αὐτοῖς ἐν ἐσθήσεσι λευκαῖς

그런데 보십시오. 두 남자가 흰옷을 두르고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행 8:27

ὃς **ἐληλύθει** προσκυνήσων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그는 예베드리러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 과거완료(pluperfect)

포알
poa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

피엘의 불규칙 변화인 포엘의 수동 형태이다(GKC §55b; JMK §59a).

렘 12:2

וְשָׂרְשָׁם מִן הָאָרֶץ

네가 그들을 심었고 그들은 뿌리가 박혔다.

히브리어 동사 וְשָׂרָא가 포알 형태로 쓰여서 ‘뿌리가 내려지다’는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렐, 푸랄, 필펠, 폴팔, 히트팔렐

포엘

poe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

포엘은 피엘의 불규칙 변화 동사 유형들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다. 첫 자음의 모임인 ô는 모음 â가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포엘의 수동형은 포알(poal)이며, 재귀형은 히트포엘(hithpoel)이다. 포엘은 아인 바브(ע"ב) 동사의 경우에는 폴렐(polel)로 나타나게 된다. (GKC §55b; JMK §59a).

사 40:24

בְּלִישָׁרֵשׁ בְּאַרְצָן גִּזְמָם

그들의 줄기는 그 땅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히브리어 동사 שרש가 포엘 형태로 ‘뿌리를 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렐, 푸랄, 필렐, 폴팔, 히트팔렐

폴팔

polpal

피엘의 불규칙 변화 형태 중의 하나.

피엘의 불규칙 형태 중 하나인 필펠(pilpel)의 수동형임. 폴팔(pulal)로 불리기도 한다(GKC § 55f; JMK §59c).

왕상 20:27

וּבְנֵי יִשְׂרָאֵל הִתְפַּקְדּוּ וְכִלְכְּלוּ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집되었고 (양식을) 공급받았다

히브리어 동사 כּוּל이 폴팔 형태로 사용되어 ‘공급받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

≡ 피엘, 포엘, 포알, 히트포엘, 파알렐, 푸알랄, 필펠, 폴팔, 히트팔렐

다의성(多義性)

polysemy

하나의 단어나 구가 서로 관련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현상.

다의성은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단의성(monosemy)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또한 다의성은 음성적으로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homonym)와 구별된다.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는 발음은 같아도 원래 어원이 다르며 의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 다의성은 특정 단어의 의미가 시간이 가면서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원래의 기본적인 의미가 여러 개의 파생 의미로 분화된 것이다. 예로, 우리 말에서 ‘가다’가 장소의 이동을 뜻하지만, ‘맛이 갔다’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flat 이 ‘납작하다, 평평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파트’를 가리킨다. mouth(사람의 입)과 mouth(강 어귀)는 두 의미의 유사성 때문에 하나의 어휘, 즉 다의어로 간주된다(참. 조성식 외).

헬라어 ἀρχή 가 ‘시작’과 ‘통치자’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을 다의성의 예로 보기도 한다(PDSNTG 99).

= 동음이의어(homonym)

연속 접속(連續接續)

polysyndeton

필요 이상의 많은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하는 수사학적 기법.

연속 접속을 뜻하는 영어 polysyndeton 은 헬라어에서 ‘많다’(πολυ-)와 ‘묶다’(σύνδετος)를 합성한 단어(πολυσύνδετον)에서 나온 문법 용어이다. 언어 요소를 여럿 나열할 때 마지막 것만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영어(and)나 독어(und)에서의 용례와는 달리, 히브리어에서는 연결하는 모든 요소에 접속사를 추가하는 연속 접속을 만든다. 수사적으로 볼 때, 연속 접속은 단어 하나 하나를 심사숙고하여 사용한 느낌을 줌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만들어 준다.

창 12:16 (x 6)

וְלֹאֲבָרָם הִיטִיב בְּעִבּוּרָהּ וַיְהִי־לָּהּ צֹאן־וּבָקָר וַחֲמִלִים וְעִבְדִּים וְשִׁפְחָתָּהּ וְאַתְנָת וְגַמְלִים: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 떼와 소 떼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수 7:24 (x 10)

וַיִּקַּח יְהוֹשֻׁעַ אֶת־עֶכְוֹן בֶּן־זֶרַח וְאֶת־הַכִּסֵּף וְאֶת־הָאֲדָרָת וְאֶת־לְשׁוֹן הַזֹּהָב וְאֶת־כִּנְיֹוֹ וְאֶת־בְּנֵי־וְאֶת־שׁוֹרֹוֹ וְאֶת־חֲמֹרֹוֹ וְאֶת־צֹאֲנֹוֹ וְאֶת־אֹהֶלֹוֹ וְאֶת־כָּל־אֲשֶׁר־לֹוֹ וְכָל־יִשְׂרָאֵל עִמּוֹ וַיַּעֲלֵוּ אֹתָם עִמָּק עֲכוֹר: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헬라어에서도 접속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장엄함을 표현하기도 한다(R 427).

계 7:12(R 427)

ἀμήν, ἡ εὐλογία καὶ ἡ δόξα καὶ ἡ σοφία καὶ ἡ εὐχαριστία καὶ ἡ τιμὴ καὶ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ἰσχὺς τῷ θεῷ ἡμῶν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τῶν αἰώνων· ἀμήν.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아멘.

↔ 연결사 생략(asyndetic, asyndeton)

+ 접속사(conjunction)

원급

positive

형용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

헬라어에서 원급(positive)은 종류(kind)에, 비교급(comparative)과 최상급(superlative)은 정도(degree)에 초점이 있고, 비교급과 최상급의 차이는 수량(number)에 있다(W 296). 고양형(elative)은 원급을 강화(intensification)시킬 때 사용한다(W 296). “신약성경에는 대략 7399 개의 원급 형용사, 198 개의 비교급 형용사, 191 개의 최상급 형용사가 있다”(W 298). 헬라어의 경우, 원급인 형용사가 원급뿐 아니라,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쓰이기도 한다.

원급 형용사가 원급으로 사용된 예: 행 27:14(W 297)

μετ' οὐ πολὺ δὲ ἔβαλεν κατ' αὐτῆς ἄνεμος **τυφωνικὸς**

하나 오래지 않아 거센 바람이 섬 쪽으로 불어 닥쳤습니다.

원급 형용사가 비교급으로 사용된 예: 마 18:8(W 297)

καλόν σοί ἐστὶν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ζωὴν κυλλὸν ἢ χωλὸν **ἢ** δύο χεῖρας ἢ δύο πόδας ἔχοντα βληθῆναι εἰς τὸ πῦρ τὸ αἰώνιον.

내반측으로 걸거나 다리를 절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과 두 발을 가진 채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좋다. 불변화사 ἢ 다음이나 전치사 παρά 혹은 ὑπέρ 다음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나온다(W 299).

원급 형용사가 최상급으로 사용된 예: 마 22:38(W 298)

αὕτη ἐστὶν ἡ **μεγάλη** καὶ πρώτη ἐντολή.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 비교급(comparative), 최상급(superlative), 고양형(elative)

후행성(後行性)

posteriority

한 문장이나 내러티브에서 선행하는 동작이나 사태보다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동작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시간 순서.

히브리어에서 한 동작이 후행성을 나타내려면, 접속사의 용법 중에서 계승(succession)의 바브(wayyiqtol 과 w-qatali)가 사용된다. 만약 동작이 앞선 것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계승의 바브를 회피한다. 또한 바브 외에 불변사로도 후행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불변사들은 명사나 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로서 **אַחֲרַי**, **אַחֲרֵי**(뒤에, 이후에), 접속사로서 **אַחֲרֵי**, **אַחֲרֵי**(뒤에, 이후에), 부사로서 **בְּאַחֲרַי**, **בְּאַחֲרֵי**, **אַחֲרֵי**(그리고 나서), **הָאַחֲרֵי הַדְּבָרִים** (이 일들 후에)로 표현된다(JMK §166a).

창 44:4

וְהִשָּׁגְתָם וְאָמַרְתָּ

그리고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따라 잡았을 때에) 그리고 나서 너는 말할 것이다

왕상 20:36

הִנֵּה הוֹלֵךְ מֵאַחֲרַי הַקֶּזֶז הָאֲרִיָּה

보라 네가 나를 떠날 때에 그리고 나서 사자가 너를 칠 것이다

룻 2:9

וְצִמַּת וְהִלַּכְתָּ אֶל־הַכְּלִים וְשָׂתִית מֵאֲשֶׁר יִשְׁאָבוּן הַנְּעָרִים:

그리고 네가 목마를 때에 너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시간적으로 후행하는(그 뒤에 오는) 동작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μετά*+ 대격, 혹은 *μετά τὸ* + 부정사 형태가 사용된다.

μετά + 대격의 예: 행 15:16

μετά ταῦτα ἀναστρέψω

이 일들 뒤에 내가 되돌아올 것이다.

μετά τὸ + 부정사의 예: 행 15:13

Μετά δὲ τὸ σιγῆσαι αὐτοὺς ἀπεκρίθη Ἰάκωβος λέγων·

해서 그들이 조용해진 뒤에 야고보가 대꾸하며 말했습니다.

≡ 계승(succession)

후치(後置), 후치사(後置詞)

postpositive

단어의 끝에 위치하는 악센트나 문법적 요소.

히브리어에서 단어의 끝에 위치하는 마소라 악센트로서, 분리 악센트이든 연결 악센트이든 강세가 있는 음절에 놓이지 않는 몇몇 악센트가 단어 끝에 오는 경우를 후치 악센트라고 말한다(셰골타, sgolta; 자르카, zarqa; 파슈타, pashta; 틀리샤 크타나, tlisha qtanna; 쉰노르, šinnor). 일부 사본들에는 강세가 있는 음절에 후치 악센트가 반복하여 나오기도 하지만, 표준 인쇄본들에는 파슈타(pashta, 분리 악센트)라고 불리는 후치 악센트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JMK §15f).

또한 문법적인 요소로서 접미사나 성경 아람어의 정관사처럼 특별한 위치에 나오는 후치사를 말하기도 한다(PDSBH).

창 1:7

וַיַּעַשׂ אֱלֹהִים אֶת-הָרָקִיעַ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창 1:5

וַיִּקְרָא אֱלֹהִים לְאוֹר יוֹם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헬라어의 경우, Τοῦτου χάριν(이것 때문에)가 후치로 불리기도 한다(R 553).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세 번 나온다(엡 3:1, 14; 딤후 1:5).

술어(述語), 술부(述部)

predicate

문장(sentence)이나 절(clause)에서 주어 또는 주부를 서술하는 동사나 동사구

술어를 가리키는 영어 predicate 는 라틴어에서 ‘선언하다, 언급하다’를 뜻하는 동사(praedicare)에서 나왔다. 즉, 주어나 주부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서술을 하는 것이다. 술어는 주로 동사구(verb phrase)로 형성되며, “전통 문법에서 정동사 절의 명제적 부분을 차지한다”(CDEG). 술어는 정동사뿐 아니라, 그 보어(들)도 포함한다.

영어의 경우, 동사절 안의 술어는 동사와 그것을 수식(지배)하는 모든 논항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에서 이탤릭체의 부분은 술어 또는 술부가 된다. 그리고 술부에 핵이 되는 동사를 술어동사라고 부른다.

히브리어의 경우,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는 절이 술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명사절과 동사절이 된다. 동사절의 술어는 정동사 형태이며, 이때의 술어는 목적어와 같이 정동사와 연결된 요소들을 갖는다. 특히 술어가 동사가 아닌 명사절은 일반적으로 명사, 즉 실명사, 형용사나 분사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명사적 술어는 상당히 넓은 뜻으로 사용되며, 공간과 시간의 동작보다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1) 동사절

창 42:28 (JMK §155k)

הוֹשֵׁב בְּסֻבִּי

나의 돈을 도로 넣었도다

삿 7:14 (JMK §155k)

נָתַן הָאֱלֹהִים בְּיָדוֹ אֶת־מִדְּיָן וְאֶת־כָּל־הַמִּתְחַנֶּה: 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다

삼상 2:34 (JMK §155k)

בְּיוֹם אֶחָד יָמוּתוּ שְׁנֵיהֶם:

그들 둘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2) 명사절

창 45:3 (JMK §154d)

וַיֹּאמֶר יוֹסֵף אֶל־אֶחָיו אֲנִי יוֹסֵף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술어가 명사인 경우이다

삼하 14:20 (JMK §154d)

וַאֲדֹנִי חָלָם בְּחֶכְמַת מְלֶאךָ הָאֱלֹהִים

내 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지혜롭다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이다

창 2:10 (JMK §154d)

וְהָיָה אֵלֶיךָ מִן הַיָּדָיִם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왔다

술어가 분사인 경우이다

헬라어 문장도 주어(subject)와 술부로 구성된다(S 902).

(1) 대명사가 술어로 쓰인 예: 요 1:1(R 767)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2) 부정대명사가 술어로 쓰인 예: 행 5:36(R 743)

πρὸ γὰρ τούτων τῶν ἡμερῶν ἀνέστη Θεοῦ λέγων εἶναι **τινα** ἑαυτόν

이전에 드다가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3) 분사가 술어로 쓰인 예: 행 9:21(R 1108)

ἵνα **δεδεμένους** αὐτοὺς ἀγάγῃ ἐπὶ τοὺς ἀρχιερεῖς

어떻게든 묶인 채로 그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 주어(subject)

– 보어(complement), 술부 형용사(predicate adjective)

술어 형용사(述語 形容詞)

predicate adjective

술부에서 술어로 사용된 형용사

히브리어에 나오는 술어 형용사는 대체로 주어 명사와 성, 수를 일치시킨다.

출 17:12

וַיְדִי מִשָּׁה' פָּבַיִם

그리고 모세의 팔은 피곤하였다

시 119:72

טוֹב־לִי תוֹרַת־פִּי מֵאֲלֹפִי זָהָב וְנָסָף: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

전 7:8

טוֹב אַחֲרִית דְּבַר מְרֵאשִׁיתוֹ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헬라어의 경우 술어로 쓰인 형용사가 매우 많다(R 656).

행 4:10(R 656)

γινωσκόντες ἔστω

명심하십시오/그것이 알려지게 하십시오.

행 26:23(R 656)

εἰ **παθητὸς** ὁ χριστός

그리스도가 수난을 당하면

상태의 서술적 대격(狀態의 敘述的對格)

predicative accusative of state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에 종속되는 대격

히브리어에서 상태의 서술적(술어적) 대격은 간접 대격의 여러 종류들 가운데 하나이다. 간접 대격은 동사에 간접적으로 종속되며(동사수식적 대격), 동사적 술어를 한정시킨다. 간접 대격의 어떤 범주들에서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들에서는 구문 관계가 고유한 전치사 사용이나 어미음 첨가 모습과 함께 나오는 명사의 사용에 의하여 더욱 뚜렷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에 의해 명사절에도 나타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간접 대격은 명사의 수식어가 될 수 있다. 상태의 서술적 대격은 상태나 주어(혹은 목적어)의 특성을 표현하는 보충적 구가 동사절에 첨가될 때, 이 보충적 구는 뭔가 새로운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혹은 목적어)와 나란히 둘 수 없으며, 동사적 술어에 종속되는 동시에 대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부사와 마찬가지로 대격에 놓이게 된다.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대격은 간접대격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고대의 격 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한정성으로 알 수 있다. 상태의 대격은 형용사, 분사 혹은 실명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가리킬 수 있다(JMK§126a).

창 25:25

וַיֵּצֵא הָרִאשׁוֹן אֶדְמוֹנִי

먼저 나온 자는 살결이 붉었다

붉다(**אֶדְמוֹנִי**)는 주어를 가리키는 서술어로서 먼저 나온 자(**הָרִאשׁוֹן**)와 동격일 수 없으며, 뭔가 새로운 것을 표현하며 새로운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확증한다.

룻 1:21

אֲנִי מְלֵאָה הִלֵּכְתִּי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מְלֵאָה가 주어를 가리키는 서술어로서 동사 앞에 있는 것은 강조를 위함이다.

사 20:3

הָלַךְ עַבְדִּי יִשְׁעִיָּהוּ עֲרוֹם וְיָחַף

나의 종 이사야가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민 6:17

וְלָקַח הַכֹּהֵן אֶת־הַזֹּרֵעַ בְּשֵׁלָה מִזֶּה־אֵילִי

제사장이 숫양의 삶은 어깨고기를 취할 것이다

בְּשֵׁלָה는 목적어를 가리키는 서술어가 된다.

헬라어의 경우, 상태의 서술적 대격은 이중 대격 가운데 하나 즉, 사람과 사물이 대격으로 나오는 경우와 목적어와 보어가 대격으로 쓰인 경우 가운데 후자와 관계된다(W 182-189).

마 4:19(W 186)

ποιήσω ὑμᾶς ἀλιεῖς ἀνθρώπων.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을 삼을 것이다.

ὑμᾶς는 목적어이고 ἀλιεῖς는 보어이다.

행 10:28(W 187)

καὶ μοι ὁ θεὸς ἔδειξεν μηδένα κοινὸν ἢ ἀκάθαρτον λέγειν ἄνθρωπον.

그런데도 제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보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더럽다고 말하지 말 것어요.

≡ 이중 대격(double accusative)

술어적 분사(述語的 分詞)

predicative participle

술어로 사용된 분사

히브리어에서 술어로 사용된 분사는 형용사의 성질과 공유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에 분사는 상태로서의 행동을 나타내며, 즉 시상으로 보자면 지속성을 표현한다. 분사의 시간적(시제적) 가치는 주로 자연스럽게 현재적이다. 분사는 그 현재적 의미가 확장되면서 상당히 자주 가까운 미래나 일반적인 미래에 사용된다. 그리고 분사는 익톨처럼 과거의 문맥에서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어로 사용된 분사는 (1) 현재의 의미를 지닌 현재 영역의 분사, (2) 현재로서의 분사 용법이 확장되며 주로 일어나려는 미래의 동작으로서 이미 진행중인 상황을 표현하며, 미래의 익톨처럼 동작의 시상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 동작이 지속적이거나 즉각적인 미래나 일반적인 미래를 표현하는 미래 영역의 분사, (3) 익톨이 과거 영역에 사용될 때처럼 이 경우의 분사는 사실상 비시간적이며 그 시간적 가치를 문맥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과거 영역의 분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참. JMK§121c-f). 그러므로 술어적으로 사용된 분사는 거의 익톨과 일치한다. 많은 경우에 분사나 익톨은 뒤섞여 사용된다. 그리고 익톨은 분사를 이어간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사는 익톨보다 지속적 시상을 더 강하게 표현해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절과 상황절에서 동시적이며 지속적인 동작은 익톨이 아니라 분사로 표현된다. 분사나 익톨이 나올 수 있는 문맥에서 주어가 표현된 경우에는 분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익톨이 우선적으로 선호된다. 시간적 관점으로 볼 때 분사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데 더 적절하며, 익톨은 미래를 표현하는 데 더 적절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의 분사는 지속성이 없이 사용되며 이런 현상은 이미 고전 내러티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JMK§121h).

(1) 현재 영역의 분사

창 37:16

וַיֹּאמֶר אֶת־אֶחָיו אֲנֹכִי מִבְּקֶשׁ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형들을 찾고 있다

삿 9:36

הִנֵּה־עַם יוֹלֵד מֶרֶאשֵׁי הָהָרִים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 미래 영역의 분사

창 19:13

כִּי־מִשְׁחָתִים אֲנֻחֲנוּ

우리가 곧 멸하기 위하여

여기서 미래영역의 분사는 즉각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신 1:20

אֲשֶׁר־יְהוָה אֱלֹהֵינוּ נָתַן לָנוּ: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왕상 1:14

הָלַךְ עֹדֵד מְדַבֵּר שֵׁם עֲסֵה מֶלֶךְ

당신이 아직 거기서 왕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미래 영역의 분사는 지속적 동작을 나타낸다

(3) 과거 영역의 분사

왕상 17:6

וְהָעֲרָבִים מִבְּיָאִים לוֹ לֶחֶם וּבָשָׂר בְּבֹקֶר וּלְחֶם וּבָשָׂר בְּעָרֶ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그에게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여기서 과거 영역의 분사는 빈번성을 나타낸다

왕상 1:5

וְאֲדֹנֶיהָ בְּחִתָּית מִתְנַשֵּׂא לְאֶמֶר אֲנִי אֶמְלֹךְ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과거 영역의 분사는 지속성을 나타낸다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헬라어 분사는 한정적인 용법, 술어적인 용법, 독립적인 용법으로 나뉜다(W 617-621). 분사가 술어로 쓰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 7:56(W 618)

ἰδὸν θεωρῶ τοὺς οὐρανοὺς **διηνοιγμένους** καὶ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κ δεξιῶν **ἐστῶτα** τοῦ θεοῦ.
보십시오. 내가 목도합니다.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요. 또한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요.

행 9:21(R 1108)

ἵνα **δεδεμένους** αὐτοὺς ἀγάγῃ ἐπὶ τοὺς ἀρχιερεῖς

어떻게든 묶인 채로 그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 분사(participle), 술어(predicate)

접두사(接頭辭)

prefix

어근, 어간, 혹은 단어 앞에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조성시키는 접사.

영어 prefix 는 라틴어에서 ‘앞에 고정시키는 것’(to fix in front)이라는 단어(præfix-um)에서 나왔다.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나 기능을 변경시키기 위해 어근(root) 또는 어간(stem) 앞에 첨가하는 구속형태소(bound morpheme)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지시하지 않고 독립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조성식 외). 접미사가 단어 앞에 붙으면 새로운 단어가 된다. 예로,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등이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ante- ‘before’, anti- ‘against’, bi- ‘two’ 등이 있으며(CDEG), 단어로서는 예로, counter-productive, disconnect, international, miniskirt, unnatural 을 들 수 있다(ODEG).

헬라어의 경우, 부족이나 결핍을 의미하는 접두사 ἀ가 붙은 단어들이 많다(R 161-162).

행 17:23

εὗρον καὶ βωμὸν ἐν ᾧ ἐπεεγράπτο· Ἀγνώστῳ θεῷ. ὁ οὖν ἀγνοοῦντες εὐσεβεῖτε, τοῦτο ἐγὼ καταγγέλλω ὑμῖν.

내가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 어두 형태소

↔ 접미사

접두 활용(接頭活用)

prefix conjugation

히브리어 동사에 접두사가 붙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왈키와 오코너(Waltke & O'Connor)는 전통적인 히브리어 동사 변화 유형인 ‘완료형’을 ‘접미 활용’(suffix conjugation)으로, ‘미완료형’을 ‘접두 활용’(prefix conjugation)으로 부른다. 이는 완료형은 접미사를 붙여 성과 수를 나타내는데 반해 미완료형은 접두사를 붙여 성과 수를 주로 구분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다. 물론 미완료형 변화에도 접미사가 붙지만, 완료에 붙지 않는 접두사가 미완료에 붙기에 ‘접두 활용’으로 부르고 있다(IBHS §29.1b).

어두 형태소(語頭形態素)

preformative

단어나 어근의 첫 음절 앞에 붙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형태소.

어근이나 단어 앞에 두는 접두사(prefix)에 인칭, 성(性), 수(數)를 표시하는 자음으로 셈어의 중심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예로, 동사 어근 앞에 어두 형태소 **h**를 붙여 히필 동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나, 어두 형태소 **m**을 붙여 명사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JMK §88L). 어두 형태소 **m**은 동작의 수단(צוד, ‘사냥하다’; מצוד, ‘울무’), 추상화(אפל, ‘어둡다’; מאפל, ‘어둠’), 그리고 분사형(קטל, ‘죽이다’; מקטל, ‘살인자’)을 표현한다(PDSBH).

≡ 접두사

↔ 접미사

전치사(前置詞)

preposition

명사, 명사구, 대명사 앞에 사용되어 문장의 다른 구성요소와 연결해주는 단어.

영어 preposition 은 라틴어에서 ‘~앞에 두다’(to place in front of)라는 뜻을 가진 단어(praeponere)에서 나왔다. 국어에서는 ‘앞토씨’라고 부른다. 전치사는 전통적으로 8 품사 혹은 9 품사 중 하나로서, 흔히 명사(상당어구)에 ‘전치하여’ 부사구, 형용사구를 만든다(조성식 외). 즉, “전형적으로 명사구 앞에 나와서 두 개의 언어적 단위를 자주 서로 연결한다. The smile on your face” (ODEG). 원래 전치사는 장소(on, over, under), 시간(before, after, during), 인과성(because of), 그리고 양식(like)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RDLL).

히브리어의 전치사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명사구/대명사와 붙여서 사용하는 비분리 전치사와 분리 전치사로 나뉜다. 비분리 전치사는 **ב, ל, כ** 등이 있고 분리 전치사로는 **עד, על, אל** 등이 있다. **מן**은 비분리와 분리의 두 용법으로 모두 사용된다.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히브리어 전치사 **ב**가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어 ‘태초에’라는 부사구를 형성하였다.

헬라어의 경우, 전치사는 부가어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는 **ἐν**(2752 회)이다(전치사의 빈도수는 W 357 을 보라). **ἐν, εἰς, ἐκ** 와 같이 목적어로 하나의 격만 취하는 전치사도 있고, **διὰ** 나 **μετά** 처럼 목적어로 두 개의 격을 취하되 각각의 의미가 다른 전치사도 있고, **ἐπὶ** 처럼 세 개의 격을 목적어로 취하는 전치사도 있다. 또한 전치사 **διὰ, εἰς, ἐν, μετά** 등은 관사 및 부정사와 함께 숙어처럼 쓰이기도 한다(W 610-611).

숙어로 쓰인 예: 행 4:1-2

ἐπέστησαν αὐτοῖς οἱ ἱερεῖς καὶ ὁ στρατηγὸς τοῦ ἱεροῦ καὶ οἱ Σαδδουκαῖοι, διαπονούμενοι διὰ τὸ διδάσκειν αὐτοὺς τὸν λαόν

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경찰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난처해합니다.

διὰ τὸ+부정사는 이유를 의미한다.

언외의 전치사(言外前置詞)

preposition understood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암묵적인 의미를 발생시키는 전치사의 용법.

전치사가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그 명료성이 침해되지 않을 때 암묵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JMK §131i).

삼상 15:22

בְּשִׁמְעַ בְּקוֹל יְהוָה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처럼

‘듣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שמע** 뒤에 전치사 **בְּ**가 뒤따라 나와 ‘순종하다’라는 뜻을 형성하게 되었다.

+ 전치사

전치사구(前置詞句)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를 주부로 취하는 구로서, 그 구에서 전치사가 지배적 요소가 되는 것.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1) 동사수식어(Phil went hiking in the mountains), (2)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The cabin in the mountains), (3) 목적어(Phil thinks a lot about the mountains), 그리고 (4) 주어의 역할도 한다(Under the bed is a dusty spot). (참. ODEG, RDLL).

창 12:1

וַיֹּאמֶר יְהוָה אֶל־אַבְרָם לֵךְ־לְךָ מֵאֶרֶ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땅으로부터 가라.”

전치사 **מן**에 명사 **אֶרֶץ**가 결합되어 ‘땅으로부터’라는 전치사구를 형성하였고, ‘너는 가라’라는 명령형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사용되었다.

헬라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구로는 *διὰ τί*(무엇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이것 때문에), *εἰς τί*(어째서), *ἐκ τούτου*(이것의 결과로), *μετὰ τοῦτο*(이일 후에) 등이 있다(W 658).

행 5:3

Ἀνανία, *διὰ τί* ἐπλήρωσεν ὁ σατανᾶς τὴν καρδίαν σου

아나니아 씨, 어찌하여 사탄이 당신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행 2:26

διὰ τοῦτο ἠὺφράνθη ἡ καρδία μου καὶ ἠγαλλιάσατο ἡ γλῶσσά μου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 혀가 몹시 기뻐 날뛵니다.

전치(前置)

prepositive

어떤 단어나 접사가 그것이 수식하거나 지배하는 단어의 앞에 오는 경우.

전치를 뜻하는 영어 prepositive 는 라틴어에서 ‘~ 앞에 둔 것’(that is set before)을 뜻하는 단어(præpositivus)에서 나왔다. 모든 형태의 접두어는 접미사와 대조적으로 전치된 것이다. 마소라 사본에서 악센트는 단어가 시작하는 자리에 두는 데 이것을 ‘전치’라고 한다(PDSBH).

헬라어에서는 후치되는 불변화사(postpositive particles)가 후치되지 않을 때 전치되었다고 표현한다(R 1146).

↔ 후치(postpositive)

현재(現在)

present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시제.

시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과거시제와 함께 두 개의 주요 시제를 이룬다(CDEG).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형태이다. 즉, 현재 일어나는 단 하나의(single) 혹은 반복적인(repeated) 표현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수학이나 논리의 명제를 표현한다(1+2 는 3 이다). 또한 과거의 사건이나 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역사적인 시제를 현재로 표현하기도 한다(RDLL). 현재 시제는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We are leaving tomorrow; When you come next week, we will arrange everything; ODEG).

↔ 과거(past)

≡ 미래(future)

앞선 강세

prestress

악센트 바로 앞을 뜻하는 용어.

문장의 악센트 앞의 음절을 가리키는 말로, pretonic 혹은 prestress 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주용-무라오까는 히브리어는 악센트가 음정을 높이기보다는 힘을 주어 말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pretonic (앞선 어조) 보다 prestress(앞선 강세)라는 용어를 선호한다(JMK §15b).

+강세(stress)

전제(前提)

presupposition

어떤 진술 아래에 이미 함의되어 있는 가정.

철학 혹은 논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진술이나 담화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가정을 말하며, 진술이나 담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entailment)의 반의어이다(ODEG).

과거(過去)

preterite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문법적 형태.

영어 preterite 는 라틴어에서 ‘지나간 것, 과거에 일어난 것’을 뜻하는 단어(præteritus)에서 나왔다. 영어 preterite 는 ‘단순 과거’로도 번역이 되며, “단순 과거 시제(simple past tense)를 가리키는 용어이다”(CDEG). 즉, 부정과거(aorist), 미완료(imperfect), 완료(perfect)를 구분하지 않는 과거 시제를 가리킨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접미 활용 혹은 완료형(perfect)으로 표현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동사 형태가 가지고 있는 시제(tense) 및 상(aspect)에 대한 견해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조어(祖語)의, 원시의

primitive

다른 단어를 파생시키지만 다른 단어로부터 파생되지는 않은 기본적 형태.

기본적으로 주어져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다른 단어를 파생시키는 근간이 되는 형태를 가리킨다(ODEG).

헬라어 문법에서는 ‘어근이나 동사 어간에 어미를 붙여 만든 단어를 일컫는 말’로 primary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헬라어에서 원시 동사(primitive verb)에 해당되는 것은 비어간모음 동사(athematic verb), 음절이 두 개인 어간모음(thematic) 능동태 동사, 음절이 세 개인 어간모음(thematic) 중간태 동사이다(S 372).

→ 비어간모음 동사(athematic verb), 어간모음 동사(thematic verb)

결성어(缺性語)

privative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행위를 뜻하는 문법 용어(IBHS 693).

영어 privative 는 라틴어에서 ‘빼앗다, 제거하다’(to rob or deprive of)는 뜻을 가진 동사(privare)에서 나왔다. 즉,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없애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표현이다. 예로, detoxify, unburden, behead, disinfect 등을 들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을 제거한다’는 개념을 가진 전치사 **מן**과 함께 나오는 구와 피엘 형에서 주로 사용된다.

욥 21:9 (PDSBH).

בְּתֵיבָם שְׁלֹם מִפָּחַד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다

시 38:11

וַיִּעְזָבוּ וַיִּסְקְלוּהוּ

그는 그곳을 파고 그곳에서 돌을 제거하였다.

히브리어 동사 **סקל**의 기본적 의미는 ‘돌로 치다’인데 피엘 형태로 쓰이게 되면 ‘결성(privative)의 의미로 사용되어 ‘돌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런 용법을 ‘결성의 피엘’(privative piel)이라고 부른다(IBHS §25.4a).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용어가 결핍을 의미하는 접두사 **ἀ-**와 관련하여 사용된다(R 162, 171, 273 등).

행 17:23

εὔρον καὶ βωμὸν ἐν ᾧ ἐπεγέγραπτο· Ἀγνώστῳ θεῷ. ὁ οὖν ἀγνοοῦντες εὐσεβεῖτε, τοῦτο ἐγὼ καταγγέλλω ὑμῖν.

내가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Ἀγνώστῳ 는 γνωστός(알려진) 앞에 결핍을 의미하는 접두사 **ἀ-**가 붙어 ‘알려지지 않은’이란 의미를 갖는다.

≡ 접두사(prefix)

후접어(後接語)

proclitic

뒤 따라 나오는 단어와 결속되어 자체의 강세가 사라지는 형태.

영어 proclitic 은 원래 헬라어(προκλιτικός)에서 ‘앞으로 기울어진다’(leaning forward)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것을 음역한 라틴어(procliticus)에서 나왔으며, 헬라어 문법에서 단음절의 단어가 뒤따르는 단어에 밀접하게 붙어서 자체의 강세를 잃는 것을 말한다(OED). 영어에서는 ‘형태론’의 용어로서 “아주 약한 강조로 발음되며, 주로 단축되고, 음성적으로 뒤따르는 주 단어에 부착된다”(ODEG). 그렇지만 후접어는 영어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RDLL).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쓰기 때문에 후접어(proclitic)는 뒤 따라 나오는 단어에 의존한 상태를 뜻하게 되며, 따라서 후접어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후접어는 마꺼프(maqṣef)으로 연결되어 강세를 잃고 뒤의 단어에 의존하게 된 형태이다(IBHS §4.2.1a).

삿 20:26

וַיָּעַל כָּל-בְּנֵי שִׁשְׁנָאִ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갔다

히브리어 **כָּל**이 마꺼프 앞에 와서 강세를 잃어 **כָּלִ**이 되었고, 뒤에 나오는 **וַיָּעַל בְּנֵי שִׁשְׁנָאִל**에 의존하게 되었다.

헬라어의 경우, 단음절이면서 강세가 없는 단어들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관사(ὁ, ἡ, οἱ, αἱ), 전치사(ἐν, εἰς, ἐκ), 접속사(εἰ, ὥς), 부정어(οὐ)가 해당된다(S 179).

행 1:6

Οἱ μὲν οὖν συνελθόντες ἡ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κύριε, **εἰ ἐν** τῷ χρόνῳ τούτῳ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ῷ Ἰσραήλ;

그래서 모인 자들이 그분께 말로 요청합니다. «주님, 이참에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되돌려 주시렵니까?»

↔ 전접어 (enclitic)

진행형(進行形)

progressive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의 시제를 가리킴.

원래 진행형은 영문법에서 ‘동적인 동사’(dynamic verb)에 적용되어 “동작의 진행, 계속을 의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었으나 단순 동작에도 적용되고 확대되었다”(조성식 외). 영어에서는 **be+ing** 라는 특유한 문법형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시제로 이해되던 진행형은 시상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진행적인 조동사 **be** 와 함께 시상적 구문으로 형성되었다. 예로, *We are eating our breakfast. They were teasing you*”(ODEG). 시상적 관점에서 볼 때 진행형은 “암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진술된 지시어의 시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동작을 가리킨다”(RDLL). 영어문법에는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 등의 문법용어로 나타난다.

히브리어 동사를 상(aspect)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계속적인 이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IBHS §20.2g).

헬라어의 경우, 진행상은 현재 및 미완료과거 시제와 관련된다.

행 3:12(W 519)

ἢ ἡμῖν τί ἀτενίζετε

아니면,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행 3:2(W 544)

καί τις ἀνὴρ χωλὸς ἐκ κοιλία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ὑπάρχων ἐβαστάζετο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못 걷던 어떤 남자도 떠메어 옮겨집니다.

→ 동작양태(aktionsart), 상(aspect)

예변법(豫辯法)

prolepsis

뒤에 나오게 될 내용을 앞에서 미리 예상하도록 구문을 배열하는 방법

예변법을 가리키는 영어 prolepsis는 헬라어에서 ‘예상, 예측’을 뜻하는 단어(πρόληψις)에서 나왔으며 수사학에서 상대방이 반박할 내용을 미리 예상해서 논박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미리 취하다’(taking beforehand)는 뜻도 가지므로(RDLL), 히브리어에서는 장차 일어날 상태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암 5:1-3). 아모스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난 것으로 보고 애통한다(PDSBH).

히브리어 구문에서는 굳이 미리 예상해서 논박하는 수사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의 구절이나 내용이 뒤에 따라나오는 단어나 구절을 예상하도록 배열된 어법을 뜻한다(JMK §146e).

대상 9:26

בְּאַמוֹנָה הַמָּה אֲרַבְעַת גְּבֻרֵי הַשָּׁעָרִים הֵם הָלֻּיְוּ

그들, 네 명의 수문장은 성실하였다. 그들은 레위인들이었다.

히브리어 **הָמָה**(그들)이 먼저 등장하여 ‘그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뒤이어 나오게 될 ‘네 명의 수문장’을 예상하도록 문장의 논리를 구성해내고 있다.

신약성경 헬라어에도 예변법은 종종 사용된다(R 423).

행 3:12

ἄνδρες Ἰσραηλῖται, τί θαυμάζετε ἐπὶ τούτῳ ἢ **ἡμῖν** τί ἀτενίζετε ὡς ἰδίᾳ δυνάμει ἢ εὐσεβείᾳ πεποιηκόσιν τοῦ περιπατεῖν αὐτόν;

이스라엘 남자들,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가 걷는 것을 이룬 것처럼요.

여기서 **ἡμῖν**의 사용을 예변법으로 볼 수 있다.

≡ 후방대용어(cataphore, cataphoric)

연장(延長)

prolongation

자음이 중복되어 발음되는 현상.

연장(prolongation)은 자음중복(doubling)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미 중복(doubling)에서 다룬 항목이다. 중복(doubling)을 보라.

→ 중복(doubling)

대명사 규칙(代名詞規則)

pronominal regel

접미사가 붙은 전치사가 동사 직후 혹은 주어의 앞 위치까지 앞으로 나오는 현상.

히브리어 문장의 어순에 있어서, 전치사가 대명사 접미사를 붙인 형태로 나오게 될 때 문장의 앞 부분을 나오는 현상이다. 문장의 첫번째 위치에 놓인 동사 직후에 전치사가 나오게 되어 주어보다도 더 앞선 위치에 나오게 되며, 이런 현상은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현상의 원리가 깨어지는 경우는 이 원리를 깨뜨리는 문장 구문이 강조되어 표현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JMK §155t).

삼상 1:23

וַיֹּאמֶר לָהּ אֱלֹקֶיךָ אִשָּׁה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전치사 **ל**와 3 인칭 여성단수 대명접미사 **ָהּ**가 결합된 **לָהּ**가 동사인 **וַיֹּאמֶר**로 뒤에 나타난다.

+ 대명사(pronoun)

대명사적 대용어(代名詞的 代用語)

pronominal substitution

대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

대명사와 동일한 뜻으로 사물을 확실하게 지시하거나, 강조적으로 혹은 약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상호성을 표현하기 위해, 분배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대신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참. JMK i147).

출 24:10

וּבְעֵצָם הַשָּׁמַיִם לְטָהָר

하늘 그 자체와 같이

영어의 self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명사 뒤에서 더욱 확실하게 지시물(말해지고 있는 사물)을 표시한다

욥 21:23

זֶה יָמוּת בְּעֵצָם תָּמִיד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의 온전한 기력 그 자체로 있으며

창 7:13

בְּעֵצָם הַיּוֹם הַזֶּה

바로 그 날에

출 5:7

הֵם יָלְכוּ

그들 자신이 가서

+ 대명사(pronoun)

대명사적 접미사(代名詞的 接尾辭)

pronominal suffix

명사, 대명사, 불변사, 동사 등의 뒤에 붙어 인칭대명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대명사적’(pronominal)이란 ‘대명사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예로, “Dennis is *his* son”에서 *his* 는 대명사적 형용사이다(PDSNTG).

히브리어에서 대명사적 접미사는 명사 연계형의 끝에 붙어서, 접미사를 절대형으로 만든다. 또한 대명사적 접미사는 전치사와 같은 불변사에도 붙고, 동사에도 붙으며, 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는 **את**에도 붙는다(PDSBH).

동사에 붙일 때는 대격을, 실명사에 붙었을 때는 속격을, 불변사에 붙었을 때는 그 불변사의 의미에 따라 속격이나 대격을 나타내게 된다. 동사에 붙는 대명사접미사와 명사에 붙는 대명사 접미사는 많은 경우 일치하지만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GKC §33a, c, g).

삼상 1:3

וְעָלָה הָאִשָּׁה הַהוּא מֵעִיר

그 사람은 자신의 성읍으로부터 올라가곤 하였다.

3 인칭 남성단수 대명접미사 **ו**가 성읍을 뜻하는 명사 **עִיר** 뒤에 붙어 속격 즉 소유격의 의미를 취하여 ‘그의 성읍’의 의미가 되었다.

삼상 1:11

וַנִּתְּנֵהוּ לְיָהוָה כְּלִימִי חַיִּיו

내가 그의 모든 인생의 날들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3 인칭 남성단수 대명접미사 **ו**가 ‘주다’를 뜻하는 동사 **נָתַן** 뒤에 붙어 대격 즉 목적격의 의미를 취하여 ‘그를 드리다’의 의미가 되었다

헬라어의 경우, 동사 활용에 사용되는 인칭 어미를 이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나 혼하지 않다 (예. St).

+ 대명사(pronoun), 접미사(suffix)

대명사(代名詞)

pronoun

명사가 해야 할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품사.

영어 pronoun 은 문자 그대로 명사(noun)를 ‘위하는’(for), 즉 ‘대신하는’ 품사이다. 따라서 명사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의 부류(word class)이다. 문맥이나 용법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 이미 언급되었거나 지시되었거나 앞으로 나타날려고 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OED). 대명사에는 ‘저’, ‘너’, ‘우리’, ‘너희’, ‘자네’, ‘누구’ 따위의 인칭 대명사,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저기’ 따위의 지시 대명사가 있다(표준국어). 영어에는 이 둘 외에도 비한정 대명사(any, each, none, some 등), 의문 대명사, 소유 대명사, 재귀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있다(CDEG).

히브리어의 경우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등이 있다.

헬라어의 경우, 인칭, 지시, 의문, 관계, 부정대명사 외에도 상호 대명사, 상호 관계 혹은 상관 대명사, 소유 대명사, 재귀 대명사가 있다.

+ 품사(part of speech)

≡ 명사(noun), 동사(verb), 직시(deixis)

제 3 말음절(第 3 末音節)

proparoxytone

뒤에서부터 3 번째인 음절

끝음절(ultima)은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뜻하고, 끝 전 음절 (penult/penultima)는 뒤에서 두 번째인 음절을 말하며, 제 3 말음절은 뒤에서 세 번째인 음절을 말한다(GKC §15c).

헬라어에서는 끝 전전 음절(antepenult)에 있는 애큐트(acute)를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S 157). 예로, *ἄνθρωπος* 가 있다.

≡ 끝음절(ultima), 끝 전 음절(penult/penultima), 끝 전전 음절(antepenult)

고유 명사(固有名詞)

proper noun

날날의 유한 사물, 사람, 장소, 짐승 등을 가리키는 명사

보통 명사(common noun)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 달’ 따위는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에 속하지 않는 반면, ‘홍길동’과 같은 인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는 경우라도 고유 명사에 속한다. 한편 ‘홍길동’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라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

구약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여호와’는 일반 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특수한 이름이며 따라서 고유명사가 된다.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고유명사에는 대개 정관사를 붙일 수 없는데, 이는 고유명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이미 한정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헬라어의 경우,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관사가 붙을 수 있다. 이는 관사의 특성과 관련된다. 관사(article) 항목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pi\acute{\alpha}\varsigma$ 다음에 관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유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 관사 없이 사용되는 것이다. 예로, $\sigma\acute{\upsilon}\nu\ \pi\alpha\nu\tau\acute{\iota}\ \tau\acute{\omicron}\tilde{\nu}\ \omicron\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alpha\acute{\upsilon}\tau\omicron\upsilon$ (행 10:2, ‘그의 온 집안 식구’)와 $\pi\acute{\alpha}\varsigma\ \omicron\acute{\iota}\kappa\omicron\varsigma\ \text{Ἰσραὴλ}$ (행 2:36,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을 들 수 있다.

+ 명사(noun)

↔ 보통 명사(common noun)

예언적 완료(豫言的完了)

prophetic perfect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표현하는 완료형태의 용법.

예언적 완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래의 사건을 완료형태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수사적인 장치이다(JMK §112h).

사 9:5

וְיָדָהּ לָנוּ בֶּן נָתָן לָנוּ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완료형 동사인 וְיָדָהּ와 נָתָן은 사실상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아기에 대한 내용인데, 수사적으로 예언적 완료로 사용되어 이미 태어난 것처럼 표현되었다.

헬라어의 경우, 예언적 완료 형태가 쓰이지 않는다.

≡ 예변법(prolepsis)

어두음 알렙

prosthetic aleph

히브리어와 셈어에서 단어가 시작하는 지점에 알렙을 붙여 발음을 부드럽게 하는 형태소.

어두음을 뜻하는 영어 *prosthesis* 는 헬라어로 ‘함께 둔다, 추가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προσθετικός*)에서 나왔다(라틴어 *prostheticus*). 이 용어는 어떤 단어 앞에 시작하는 음절을 새로 추가하는 현상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을 붙이는 경우로 나타난다. 게제니우스는 **עֲרֵץ**가 **אֶרֶץ**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예를 들고 있다(GKC §19m; JMK §17a; IBHS 693).

조건절(條件節)

protasis

조건절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표현하는 절.

히브리어에서 조건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불변사는 **אם**과 **לו**가 있다. **אם**은 조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거나 그 조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되며, **לו**는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또는 현재나 미래에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GKC §159I).

창 43:4

אם-יִשְׁחַךְ מִשְׁלַח אֶת־אֶחָיו אִתּוֹ

만약 당신께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אם이 이끄는 절이 개연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삿 8:19

לוּ הִתְיַתָּם אוֹתָם

만약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לו가 이끄는 절이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헬라어에서 조건절은 *εἰ* 이나 *ἐάν* 과 같이 조건을 의미하는 접속사와 함께 쓰인다. 귀결절이 “문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의존적”인 것과는 달리, 조건절은 “문법적으로 의존적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독립적”이다(W 684). 조건절과 귀결절은 기본적으로 ‘원인-결과’(예. 롬 8:13; 마 4:9; 고전 2:8), ‘증거-추론’(예. 롬 8:17; 고전 15:44), ‘등가’(갈 2:18 약 2:11)의 관계를 가진다(W 682).

헬라어 조건문의 조건절과 귀결절의 문장형식에 대해 왈리스가 정리한 것을 번역하여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W 689, Table 12 “The Structure of Conditions”).

	조건절	귀결절
제 1 급	<i>εἰ</i> +직설법 어느 시제든 가능 (부정: οὐ)	아무 법이나 가능 어느 시제든 가능
제 2 급	<i>εἰ</i> +직설법 과거시제 부정 과거 ... 미완료과거 ... (부정: μή)	(<i>ἄν</i>)+직설법 과거시제 ... 부정 과거 ... 미완료과거
제 3 급	<i>ἐάν</i> +가정법 어느 시제든 가능 (부정: μή)	아무 법이나 가능 어느 시제든 가능
제 4 급	<i>εἰ</i> +회구법	<i>ἄν</i> + 회구법

현재 혹은 부정과거

현재 혹은 부정과거

제 1 급 조건절의 예: 행 5:39(W 694)

εἰ δὲ ἐκ θεοῦ ἐστίν, οὐ δυνήσεσθε καταλῦσαι αὐτούς

하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면 여러분이 그들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 2 급 조건절의 예: 행 18:14(W 696)

εἰ μὲν ἦν ἀδίκημά τι ἢ ῥαδιούργημα πονηρόν, ὦ Ἰουδαῖοι, κατὰ λόγον ἂν ἀνεσχόμεν ὑμῶν

만일 무슨 위반이나 나쁜 범행이 있다면, 오! 유대인이여, 나는 여러분의 고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제 3 급 조건절의 예: 행 9:2(W 699)

ὅπως ἑάν τις εὕρῃ τῆς ὁδοῦ ὄντας, ἀνδρας τε καὶ γυναῖκας, δεδεμένους ἀγάγῃ εἰς Ἱερουσαλὴμ.

누구든지 그 길로 접어든 것을 발견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묶인 채로 예루살렘에 끌어 오기 위함입니다.

제 4 급 조건절의 예: 행 5:24(W 701)

τί ἂν γένοιτο τοῦτο.

이것이 어찌 된 셈인가?

제 1-4 급 조건을 단순 조건(Simple conditions [요 15:20; 갈 5:18]; A type; First class condition), 비현실적 조건(Unreal conditions [요 18:36]; B type; Second class condition), 일어날 수 있는 조건(Eventual[Probable] conditions [마 21:3]; C type; Third class condition), 가능한 조건(Possible conditions [벧전 3:14]; D type; Fourth class condition), 보편적 조건(General[Universal] conditions both in the [atemporal] present [요 11:9] and in the past; E type; Cf. Third class condition)으로 분류하기도 한다(Z 303-328). 이에 대한 예문은 조건절(conditional clause) 항목을 보라.

↔ 귀결절(혹은 결과절, apodosis)

→ 조건절(conditional clause), 조건문(conditional sentence)

어두음 첨가(語頭音添加)

prothesis/prothetic

헬라어자음 λ, μ, ρ 등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모음 α, ϵ, o 이 첨가되는 현상(S 41).

모음변화의 한 종류로 발음이 어려운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모음 α, ϵ, o 를 어두음 첨가 모음(prothetic vowels)으로 부른다(S 41, R 1209). 예로, $\alpha\lambda\epsilon\iota\phi\omega$ (‘기름 붓다’), $\epsilon\chi\theta\acute{\epsilon}\varsigma$ (‘어제’)가 있다. 어두음 첨가를 첫음 탈락(어두음 탈락, aphaeresis)과 연결 짓기도 한다. 예로, $\theta\acute{\epsilon}\lambda\omega$ (‘원하다’)의 본래 형태를 $\acute{\epsilon}\theta\acute{\epsilon}\lambda\omega$ 로 보고 어두음이 탈락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어두음이 첨가된 예로 제시하기도 한다(R 205-206, 1209).

≡ 첫음 탈락, 어두음 탈락(aphaeresis)

원시 셈어

proto-Semitic

셈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의 조상 언어로 생각되는 가설상의 언어

셈족들이 단일 민족에서 기원하였다는 견해로부터 셈어들이 하나의 조상 언어 즉 원시 셈어로부터 발전해 나왔다는 가설이 생겨났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진 셈어 문헌들에서 원시적 공통성을 찾아내어 원시 셈어에 관한 논의를 해 왔다. 따라서 원시 셈어란 셈어군에 속하는 여러 언어들이 역사적 초기에 가졌을 공통 특징들의 모음으로 구성된 가설상의 언어 혹은 언어 관례라고 할 수 있다(SBCP 36-37).

유사 권유형(類似勸諭形)

pseudo-cohortative

동사의 형태는 권유형이나 그 의미는 상실된 용법.

권유형은 때때로 그 권유의 의미 즉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를 상실한다(IBHS §34.5.3).

욥 29:17

וְאֶשְׁכְּרָה מִתְּלַעוֹת עֵינִי

나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었다.

히브리어 **וְאֶשְׁכְּרָה**는 형태상 권유형이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일반적 의미의 ‘부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권유형(cohortative)

유사 직접화법(類似直接話法)

pseudo-direct speech

직접 화법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간접화법인 경우를 일컫는 용어

직접화법처럼 표현되었지만 접속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화자나 내레이터의 말로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JMK §157cb).

창 12:13

אַמְרֵינָא אֶחָדִי אֶתְּ

너는 네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직접화법이라면 “내가 그의 누이다”라고 되어야 하지만 “네가 나의 누이다”라고 말했기에, 직접화법이 아닌 유사 직접화법으로 이해된다.

↔ 직접화법(direct speech)

유사 히필

pseudo-hiphil

히필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의미상 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사히필 동사들은 히필의 의미가 아닌 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모음 *i* 를 가지고 있는 칼 미완료 형태에서 히필과 유사한 형태는 쉽게 히필로 변할 수 있었다(JMK §54f).

+ 히필(hifil)

유사 부정사(類似不定詞)

pseudo-infinitive

부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명사

부정사가 아니거나 혹은 부정사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동명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용법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에서의 주요한 예는 여성형 어미 הִ를 가진 칼 부정사 연계형의 경우, 접두사 מ과 함께 오는 부정사 형태의 경우를 들 수 있다(JMK §49c).

신 4:10

לְמַדּוֹן לִירָאָה אֲתִי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히브리어 יִרָאָה는 부정사 연계형에 여성형 어미 הִ를 붙인 형태인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יִרָאָה는 또한 완전한 명사로 ‘경외함’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 부정사(infinitive)

유사 수동태(類似受動態)

pseudo-passive

문장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채 동사가 사용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

문장에서 주어를 특정화하여 드러내지 않고 술어에 의해서 주어를 암시하는 용법이다. 대개는 칼 동사에서 많이 나타난다(IBHS §22.7a).

시 68:15

תִּשְׁלַח בְּצִלְמִי

짚몬산에 눈이 내린다.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고 오직 동사 **תִּשְׁלַח**만 있다. 이 동사의 의미는 ‘눈이 내리다’인데, 우리말 번역의 ‘눈이’에 해당되는 주어를 표현하지 않고서도 동사만으로 눈이 내린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수동태(passive)

유사 전치사(類似前置詞)

pseudo-preposition

히브리어 전치사가 실명사와 함께 묶여서 하나의 전치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전치사 **ב, כ, ל, מן, על** 중의 하나와 실명사를 묶어서 함께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עַל**처럼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유사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의 실명사는 대부분 그 신체로서의 일차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JMK §103o).

출 2: 5

וַנַּעֲרֹתֶיהָ הִלְכֹת עַל-יַד הַיָּאָר

그녀의 시녀들은 나일강 강변을 따라 거닐고 있었다

히브리어 **יָד**(손)이 전치사인 **עַל**과 결합하여 ‘손’이라는 의미 대신에 ‘~가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전치사(preposition)

푸알

pual

히브리어 동사의 7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강조형 중에서 수동의 뜻을 표현하는 형태.

푸알 유형은 동사 어근의 두번째 자음이 중복되는 것을 그 형태적 특징으로 하며, 능동의 뜻을 나타내는 피엘, 재귀의 뜻을 나타내는 히트파엘 형태와 더불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강조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피엘의 수동형이므로 그 구체적 의미는 피엘을 따라 작위적 의미, 선언-평가적 의미, 복수화의 의미, 명사파생 형태의 의미 등으로 세부화할 수 있다. 푸알의 첫 모음은 거의 항상 u 이다(JMK §52d, 56).

시 72:20

כָּלוּ תַּפְלוֹת דָּוִד בֶּן-יִשָּׁי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쳐졌다.

히브리어 동사 **כָּלוּ**는 푸알 형태로서 완성되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

≡ 피엘(piel), 포엘(poel), 포알(poal), 히트포엘(hithpoel), 파렐(pa'lel), 푸랄(pu'lal), 필펠(pilpel), 폴팔(polpal), 풀팔(pulpal).

푸랄

puˈlal

파렐(paˈlel)의 수동형.

파렐은 동사 어근의 세번째 자음이 반복되어 표현되는 형태인데, 그 파렐의 수동태가 푸랄이다(GKC §55d; JMK §59b).

렘 48:11

אַמְלֵל בְּשָׁן וּבְרָמָל

바산과 갈멜이 시들었다.

히브리어 동사 **אַמְלֵל**는 **אמל**동사의 푸랄 형태이다.

≡ 피엘(piel), 포엘(poel), 포알(poal), 히트포엘(hithpoel), 파렐(paˈlel), 필펠(pilpel), 폴팔(polpal), 푸알(pual), 풀팔(pulpal).

폴팔

pulpal

필펠(pilpel)의 수동태로 폴팔(polpal)로도 불린다. 설명을 위해서는 폴팔을 보라.

≡ 피엘(piel), 포엘(poel), 포알(poal), 히트포엘(hithpoel), 파렐(pa'lel), 푸랄(pu'lal), 필펠(pilpel), 폴팔(polpal), 푸알(pual).

포에니어

Punic

셈어군에 속하는 페니키아어의 후기 방언으로 북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

셈어군에 속하는 가나안어의 일종인 페니키아어의 후대 방언으로, 주전 800 년부터 주후 600 년 정도까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및 여러 지중해 섬들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카르타고어(Carthaginian) 혹은 페니키아-포에니어(Phoenicio-Punic)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전 포에니어(Classical Punic)은 로마제국이 카르타고를 점령한 주전 146 년까지 사용되었고, 그 후 주후 600 년 정도까지 신포에니어(Neo-Punic)가 사용되었다(PDSBH; IBHS §1.3.2.b).

+ 페니키아어(Phoenician), 가나안어(Cannanite)

목적(目的)

purpose

행동의 이유가 되는 동기나 의도.

부사나 접속사 등의 용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문법용어이다. 목적 즉 ‘~하기 위하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나 부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ODEG).

헬라어의 경우, 목적은 부정사와 ἵνα절로 나타난다.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사구의 예: 행 3:2

τοῦ αἰτεῖν ἐλεημοσύνην παρὰ τῶν εἰσπορευομένων εἰς τὸ ἱερόν·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요청하도록

목적으로 쓰인 ἵνα절의 예: 행 2:25

ἐκ δεξιῶν μου ἐστὶν ἵνα μὴ σαλευθῶ.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은 저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 목적절(final clause)

추정의(推定的)

putative

추정의 뜻을 드러내는 동사의 성격을 일컫는 말.

동사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미리 추정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를 뜻하는 문법 용어이다 (IBHS §20.2m). 영문법에는 ‘추정 미래’(putative future)가 있다. 이 때는 추리를 나타내는 will + 부정사 구문을 만든다. 이 구문은 현재에 관한 추측을 나타낸다. “That will be the milkman”은 현재의 추측이다. Would+부정사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조성식 외).

칼

qal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하나로 단순 능동을 가리키는 것.

히브리어 문법가들은 히브리어 동사를 일곱 유형으로 분류할 때 ‘파알’(פָּעַל)이라는 동사를 대표 동사로 삼아 니팔, 피엘, 히필 등의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이는 주후 10세기부터 시작된 일이며, 대부분 아랍 문법가들의 영향을 받아 그 동사를 대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자리에 ‘아인’이라는 후음이 있어서 대표 동사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나 아직 다른 동사로 대체되지는 못하고 있다. ‘파알’(פָּעַל)은 3인칭남성단수 형태로 히브리어 사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이 유형은 다른 모음이나 자음의 변화 없이 사용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므로 중세 초기 유대인 문법가들은 ‘가벼운’, ‘쉬운’이라는 뜻을 가진 ‘칼’(ק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칼 유형은 일곱 유형 약 70%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바이블웍스 10.0에 따르면 동사 총 71,997개 중 49,690개로 약 69%이며, 어코던스 10.0에 따르면 동사 총 73,481개 중 49,941개로 약 68%이다). 칼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와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 동작 동사는 ‘파알’(פָּעַל)과 같이 둘째 자리에 ‘아’ 모음을 가지나 상태 동사는 ‘카베드’(כָּבֵד), ‘카톤’(קָטַן) 등과 같이 둘째 자리에 ‘에’ 혹은 ‘오’ 모음을 갖는다(참. GKCS §39, 42; JMK §40-41; L. McFal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2: 5).

칼 수동

qal passive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형인 ‘칼형’(단수 능동태)의 수동태를 나타내는 형태.

이 형태는 빈도수가 매우 적으므로(바이블웍스 10.0 에서는 130 회, 어코던스 10.0 에서는 89 회로 나타남)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능동을 나타내는 칼의 경우 첫 번째 자리의 모음이 ‘카마쯔’(◌ִ)를 갖는 반면 칼 수동의 경우 ‘우’ 모음인 ‘키부츠’(◌ֹ)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히브리어에서 ‘우’ 모음은 ‘푸알’과 칼 분사수동(בְּרוּךְ 등)에서와 같이 수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음이며 이 모음은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음절이 길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칼 수동 형태가 있다는 것은 니팔 유형이 본래 칼의 수동을 나타내는 유형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칼 수동의 형태는 ‘푸알’ 형태와 동일하여 푸알 완료형(קָטַל)과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칼 미완료 수동태는 호팔 완료형(הִקְטִיל)과 동일하다. 그래서 본문에서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어근의 정상적인 능동태를 살펴서, 그에 상응하는 ‘피엘’이나 ‘히필’의 유형이 나타나지 않거나 의미적으로 볼 때 ‘푸알’이나 ‘호팔’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칼 수동으로 보아야 한다(참. GKCS §52g, 53u; JMK §58).

창 2:23

לֹאֲחַת יִקְרָא אִשָּׁה כִּי מֵאִשׁ לִקְחָהּ זָאת:

이것은 남자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여자라 불릴 것이다

여기서 לִקְחָהּ는 푸알 완료 3인칭여성단수 형태와 동일하지만 동사 לָקַח가 피엘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므로 푸알로 볼 수 없으며, 의미적으로도 칼일 때의 의미인 ‘취하다’의 수동이므로 칼 수동으로 보아야 한다.

렘 22:26

עַל הָאָרֶץ אֲחֶרֶת אֲשֶׁר לֹא-יִלְדֻם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에서

여기서 יִלְדֻם은 푸알 완료 2인칭남성복수 형태와 동일하지만 동사 יָלַד가 칼일 때는 ‘(아이를) 낳다’의 뜻이며, 피엘일 때는 ‘출산을 도와주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로서, 창세기 38장 28절의 מִיִּלְדָּת는 출산을 도와 주는 여자, 즉 산파의 뜻이다. 푸알은 피엘의 수동이므로 יִלְדֻם이 푸알이라면 ‘너희가 출산의 도움을 받았다’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형태는 칼일 때의 의미 ‘낳다’의 수동인 ‘태어나다’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어울리므로 칼 수동으로 보아야 한다.

키나 운율

qina-metre

성경 히브리어 운문체 중 애가에서 특히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나타나는 운율.

히브리 시의 애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삼하 19:1, 5; 겔 19:2-3; 예레미아 애가)에 나타나는 운율은 시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운율과는 다르게 앞 부분이 길고(3 단어) 뒷 부분이 짧은(2 단어) 운율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는 Budde 이다. Duhm 은 그것을 ‘장시’(long verse)로 불렀고 Sievers 는 ‘다섯 마디’(five-syllable)로 불렀다 (참. GKCS §2r; W.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363).

애 1:5

הָיוּ צָרִיחַ לְרֹאשׁ׃

אִבְיָהָ שָׁלוֹ

그것을 적대하는 자들은 머리가 되고

그들의 적들은 평온하게 된다

삼하 19:1

בְּנֵי אֲבִשָׁלוֹם בְּנֵי

בְּנֵי אֲבִשָׁלוֹם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 압살롬아

코프

Qof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아홉 번째 문자.

‘쿠프’로도 불리는 히브리어 문자 ‘코프’는 원숭이 모양에서 유래하였으며(바늘 귀를 기원으로 보기도 함), 영어의 Q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성경 히브리어에도 ‘코프’(קוף)는 두 차례 등장하는데(왕상 10:22, 대하9:21) 원숭이라는 뜻이다. 원시 가나안어 알파벳에서 코프는 눈 사람과 같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두 개의 원이 붙어 있는 모양이었다. 주전 12세기부터 세로로 된 긴 줄 위에 조그만 원이 붙여진 모양으로 사용되다가 히브리어는 주전 6세기부터 아람어와 같이 **q** 모양을 띠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의 Q와 같이 큰 원에 짧은 꼬리와 같은 모양이 사용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코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아홉 번째 글자이며 ‘10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코프는 무성 연구개 파열음에 속한다. 아람어의 ‘까프’(ܩ)와 대응되는 이 문자의 원래 발음은 목의 깊은 곳에서 내는 쌍기역(ㄲ) 소리였을 것으로 본다(참. GKCS §5b, 6o-p; JMK §5c-d, h; A. Yardeni 73-75).

+ 문자(letter)

A. Yardeni,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크레

Qre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기록된 단어 크티브(Ktiv)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르게 읽도록 수정을 제안한 것.

크레(קרי)라는 형태는 아람어 페알 수동분사 남성단수 형태로 ‘읽혀진 것’(to be read)이라는 의미이다. 크레 작업은 크티브(Ktiv) 작업과 함께 주후 600-1000 년 사이에 활동했던 마소라 학자들이 한 것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전수하고 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기록된 모든 단어와 문자들의 횡수를 파악한 것과 모음 부호 및 악센트 부호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크티브와 크레의 작업 또한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크티브는 전통적으로 전수된 본문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위에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한편 크레는 ‘수정해서 읽어야 할 것’을 말하며, 본문이 있는 해당 페이지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즉,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보이더라도 기록된 본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로, 열왕기하 22 장 5 절의 וַיִּחַזְקוּ는 크티브이며, 그에 대한 크레는 וַיִּחַזְקוּ이다. 이 본문에서와 같이 크레의 형태가 크티브의 형태보다 문법적으로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지만, 항상 크레가 크티브보다 올바른 형태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정확한 문법적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크티브는 거의 대부분 ‘보다 오래된 독법법들’을 보존하고 있으며, 마소라 학자들은 최대한 오래된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사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크티브와 크레는 1000 번 이상 나타난다.

(참. GKCS §17a-c; JMK §16e; P. H. Kelly,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13-14; E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49-50; M. Cohen, *The Kethib and Qeri System in the Biblical Text* [i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7).

≡ 크티브(Ktiv)

P. H. Kelly,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E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M. Cohen, *The Kethib and Qeri System in the Biblical Text* [i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7.

항구적 크레

Qre perpetuum

크레 중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자주 출현하여 좌우 여백에 특별히 기록하지 않는 것.

가장 많이 출현하는 대표적인 항구적 크레는 네 문자(יהוה)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크레는 히브리어 성경에 약 6800 번 이상 출현하여 매번 좌우 여백에 특별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 단어가 기록된 곳에서는 항상 ‘아도나이’(אֲדֹנָי)로 읽는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יהוה (또는 홀람 없이)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래는 יהוה이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많이 출현하는 항구적 크레는 יהושע인데 640 번 이상 나타난다. 이것의 크레는 성경에 단 네 차례 출현하는 יהושע일 것이다. 그 다음은 인칭대명사 중 3 인칭여성단수를 가리키는 הוא가 항구적 크레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만 136 회 나타나며, 이것의 크레는 היא이다. נָעַר(크레: נַעֲרָה), יִשְׁכָּר(크레: יִשְׁכָּר), שָׁנִים(크레: שָׁנִי) 등도 항구적 크레에 속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참. GKCS §17c; JMK §16f).

+ 크레(Qre)

네자음어

quadriliterals

히브리어 단어 중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것.

히브리어 단어(주로 명사나 동사)는 대개 세 개의 자음 어근을 가지나 드물지만 두 개의 자음 어근이나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가지기도 한다. 아주 드물게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경우도 있다.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경우 대개 세 자음 어근의 확대로 이루어지며 세 개의 자음 어근들의 결합이나 축약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כָּלָל과 같이 세 개의 자음 어근 중 두 자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은 네 개의 자음 어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이블웍스 10.0은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명사를 36,042개로 분류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세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것이다(예로서, רָקַע의 어근은 רָקַע임).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명사들은 עָקַב(전갈), אֱלֶמְנָה(과부), עֲכָבֶר(취), קָרָדִם(도끼), זָרְזִיף(소나기), שֶׁבֶלֶל(달팽이) 등이 있다.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동사는 명사에 비해서 그 수가 적은데, שָׁמַאל(왼쪽으로 가다), חִסְפָּס(매끄럽지 않다), כִּרְבֵּל(감싸다), תִּרְגַּם(번역하다), פִּרְשָׁז(펼치다) 등이 그것이다(참. GKCS §30s, 56; JMK §60, 88K).

양화사(量化詞)

quantifier

수량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

이 용어는 원래 의미론이나 논리학에서 쓰이는 말로 수량적 대립을 나타내는 말들을 가리킨다. 양화사는 수량사로 부르기도 한다. 양화사는 넓은 의미로 비한정 형용사들이나 대명사들(all, some, several, every 등)과 수사들(1, 2, 3 등) 및 명사구(a number of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협의적으로는 수사와 구분을 하기 위해 비한정 형용사들이나 대명사들만을 지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영어에서 ‘적은’(little)은 때로는 수식어(qualifier, ‘a little girl’)이며, 때로는 양화사(quantifier, ‘a little bread’)이다(OED).

히브리어에서는 **כָּל**, **רַב**, **מְעַט** 등이 양화사이다.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명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명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כָּל**의 경우 **כָּל-נֶפֶשׁ** (모든 생명)와 같이 연계형 명사처럼 명사 앞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רַב**나 **מְעַט**의 경우 **רַב-חֵטְא** (많은 인자), **מְעַט-מַיִם** (약간의 물) 등과 같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도 있고, **יָמִים רַבִּים** (많은 날들), **מְעַט אֲנָשִׁים** (약간의 사람들) 등과 같이 일반 형용사처럼 명사 뒤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참. 조성식 외; JMK §131e-g; IBHS §9.5.3f, 14.3.1b; 서정수, 『국어문법』, 524-525).

헬라어 양화사로는 *πᾶς, πολὺς, ὀλίγος* 가 있다. *πᾶς* 다음에 명사가 오면 ‘~ 마다(every)’의 의미가 되고, *πᾶς* 다음에 정관사 + 명사가 오면 ‘모든(all)’이 된다(참. R. 720; BDF §130; W 347).

눅 3:5

Πᾶσα φάραγξ πληρωθήσεται

골짜기마다 메워질 것이다.

양화사 *πᾶσα* 다음에 명사가 와서 ‘~마다’가 되었다.

마 27:25

ἀποκριθεὶς πᾶς ὁ λαὸς εἶπεν

모든 백성이 대답했다.

양화사 *πᾶς* 다음에 정관사 + 명사가 와서 ‘모든’이 되었다.

막 12:37

ὁ πολὺς ὄχλος ἤκουεν αὐτοῦ ἡδέως

많은 무리가 그를 즐겁게 듣고있었다.

양화사 *ὀλίγον* 이 사용되었다.

눅 7:47

ὃ δὲ ὀλίγον ἀφίεται, ὀλίγον ἀγαπᾷ.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가 적게 사랑한다.

양화사 *ὀλίγον* 이 사용되었다.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2006.

음량(音量)

quantity

한 음소가 갖는 상대적인 음의 지속 정도.

음의 길이 또는 장단(length of sound)이라고도 한다. 음량 또는 음의 장단은 주로 모음에서 나타나며, 장모음(long vowel), 단모음(short vowel) 등으로 구분한다. 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는 언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다. 동일한 언어에서도 음량의 차이인가 음질의 차이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로서, 영어에서 *it*[it]과 *eat*[i:t]에서의 모음 차이가 음량의 차이인지 음질의 차이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히브리어의 경우 성경 히브리어 시대에는 음량의 차이가 있었으나, 마소라 학자들이 사용했던 티베리아의 모음 체계나 현대 히브리어의 경우 음량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부터 음량의 구분을 하지 않고 음질의 구분으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김방한 외; GKCS §8; JMK §6).

헬라어 알파벳에는 일곱 개의 모음들 $\alpha, \epsilon, \eta, \iota, \omicron, \upsilon, \omega$ 가 있다. 이 중에서 α, ι, υ 는 단모음도 되고 장모음도 된다. 그러나 ϵ/η 와 $\omicron/\omega$ 는 단모음과 장모음이 알파벳이 다르다. 단모음 ϵ 의 장모음은 η 이며, 단모음 $\omicron$ 의 장모음은 ω 이다. 헬라어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스펠링의 차이와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준(유사)-형용사적

quasi-adjectival

형용사가 아닌 단어가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형용사처럼 명사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면서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준-형용사적이라 부른다. 히브리어에서는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할 때 준-형용사적 기능을 한다. 이 경우 서술적 기능을 하는 분사와 구별하기 위해 대개 분사 앞에 정관사를 사용한다(참. JMK §121a).

삼상 14:39

הִנֵּה הַמוֹשְׁעִי אֶת־יִשְׂרָאֵ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창 47:14

כָּל־הַכֶּסֶף הַנִּמְצָא בְּאֶרֶץ־מִצְרַיִם וּבְאֶרֶץ כְּנָעַן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은전

헬라의 준-형용사에는 분사의 관형적 용법, 부정사의 주해적 용법이 있다(참. W 607, 618).

마 2:7 (W 618)

τὸν χρόνον τοῦ **φαινομένου** ἀστέρος

빛나는 별의 시간을

분사 φαινομένου가 관형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그 다음 명사 ἀστέρος를 수식한다.

눅 10:19 (W 607)

τὴν ἐξουσίαν τοῦ **πατεῖν** ἐπάνω ὀφείων καὶ σκορπίων

뱀들과 전갈들 위에서 밟을 권세를

부정사 πατεῖν이 명사 ἐξουσίαν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

+ 형용사

준지시대명사

quasi-demonstrative

히브리어에서 3인칭대명사와 동일한 형태로 관사와 함께 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

히브리어의 3인칭대명사인 **הוא**, **היא**, **הֵמָּה**, **הֵנָּה** 등과 동일한 형태가 지시대명사와 같이 명사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준지시대명사 혹은 약한 지시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זֶה**, **זֹאת**, **אֵלֶּה** 등을 근칭지시대명사로, 준지시대명사를 원칭지시대명사로 부르기도 한다. 준지시대명사는 항상 관사와 함께 **ההוא**, **ההיא** 등과 같이 사용되며, 관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근칭지시대명사처럼 단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없으며, 항상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만 한다. 히브리어의 정관사와 같이 지시적인(deictic) 용법으로 과거나 미래의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בְּיוֹם הַהוּא** 사 4:2, 그 날에), ‘바로 그’, ‘동일한’ 등과 같은 의미로(**הַהוּא בְּעֵת** 수 5:2, 바로 그 시간에) 사용되기도 한다(참. JMK §143j; Merwe 257-259; IBHS §17.5;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판), 36-37).

+ 지시사(demonstrative)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판), 서울: 목양, 2015.

묵음(默音)

quiescent

표기는 하지만 발음되지 않는 것.

히브리어에서 묵음은 자음과 모음에서 모두 나타난다. 자음 중에서는 모음 문자라 부르는 **א, י, נ** 등이 모음으로 사용될 때 자음으로서의 소리를 상실하므로 묵음이라 할 수 있으며, **ס**이 모음 없이 사용되거나 단어 끝에 올 때 역시 묵음이 된다. 모음 중에서는 무성슈바 (silent shva)라 부르는 슈바가 자체 소리를 갖지 않으므로 묵음이라 할 수 있다(참. GKCS §7b, 10b; JMK §7, 8).

다섯 자음어

quinqueliteral

히브리어 단어 중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것.

히브리어 단어(주로 명사나 동사)는 대개 세 개의 자음 어근을 가지나, 드물지만 두 개나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기도 하며, 아주 드물게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다.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단어들은 네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이차적인 형성에 의한 것으로 본다. **סְחָרָהּר**, **שְׁלֶהֶבֶת** 등과 같은 단어들은 다섯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활용에 따른 형태이거나 접두어가 추가되어 나타난 형태이므로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단어로 보지 않는다. **עֲפָרְדֵּעַ**(개구리), **שְׁעָטָן**(혼합물) 등이 다섯 개의 자음 어근을 갖는 명사이며, 동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참. GKCS §30p; JMK §88K. f).

+ 문자(letter)

쿰란 히브리어

Qumran Hebrew

사해의 서북쪽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의 기록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쿰란 히브리어는 쿰란 문서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를 말한다. 쿰란 문서는 1947 년 사해 북서쪽, 여리고 남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쿰란에서 베두인 목동(Muhammed Elidib)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사해 근처에서 염소를 잃고 어느 동굴에서 돌을 던졌는데 향아리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안에 히브리어 사본들이 여러 개의 두루마리와 약간의 시편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1948 년 빛을 보게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마소라 사본의 고대성이 입증되고, 그것이 천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감을 알게 되었다. 히브리 대학교수 수케닉(E. L. Sukenik)은 6 개의 두루마리(이사야서 일부 [IQIsa^a]와 약간의 시편들),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의 전쟁”이라는 소책자 등을 샀다. 그의 아들 야딘(Yadib) 장군은 1950 년 이사야를 가진 사무엘(Y. Samuel)로 부터 \$250,000 에 샀다. 여러 사해사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교 근처에 있는 책의 전당에 있다. 이리하여 1947 년부터 1969 년까지 약 20 년 동안 “사해 두루마리”로 불리는 구약사본들이 발견되었으며, 모두 11 개의 동굴에서 에스더서만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사본들이 여러 종류 발견되었다. 이 사본들은 주전 2 세기부터 주후 1 세기의 것들로서, 현존하는 마소라 사본 보다 역사적으로는 약 천 년 이전의 것이므로, 현재의 구약본문이 확정되기 이전의 본문 상태를 비추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

쿰란 문서는 히브리어로 된 것이 가장 많았고,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도 있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문서 중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성경 외의 문서들이 있었다. 성경 문서는 쿰란사본(혹은 사해사본)이라 불리는데,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전 구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성경 외 문서는 공동체 규율서, 구약 주석, 신학 사상과 공동 생활을 기록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성경 문서와 성경 외 문서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를 통틀어 쿰란 히브리어라 한다.

히브리어를 네 시대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구분법을 따를 때 쿰란 히브리어는 미슈나 히브리어(주전 약 400-300 년에서 주후 약 400 년)에 속하지만, 그 시기가 주전 2 세기에서 주후 1 세기로 축소되며 쿰란이라는 지역에만 국한되므로 그 자체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쿰란 히브리어는 쿰란에 모여 생활했던 쿰란 공동체들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므로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특별한 문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쿰란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와도 차이가 있으며, 미슈나나 탈무드 등에서 발견되는 랍비 히브리어와도 차이가 있는 독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독특성은 철자법, 어휘, 형태론, 통사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심지어 성경 본문을 필사할 때도 그들 자신만의 언어 특징에 맞추어 작업했다. 쿰란 히브리어의 독특한 형태적인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칭대명사: הוא 대신 הואה, היא 대신 היאה, אתם 대신 אתמה, אנחנו 대신 אננו
2. 지시대명사: זאת 대신 זה
3. 대명사접미사: לך 대신 לכה
4. 명사: מעט 대신 מועט, כלים 대신 כאלין (강함), אימוץ (견실함)
5. 동사: לרשע 대신 לירוש, כתבו 대신 כתובו, נפעל 대신 נפעל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히트파알’ 유형을 사용: התקדש (거룩하게 되다)

(참. 하임 라빈, “쿰란 히브리어의 역사적 배경,”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156-182; 엘리샤 키르론,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한 유대광야 문서의 공

헌,” 최창모, 박미섭역음, 『고대 히브리어 연구』, 185-198;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엘리샤 키르론,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한 유대광야 문서의 공헌,” 최창모, 박미섭역음, 『고대 히브리어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하임 라빈, “콰란 히브리어의 역사적 배경,”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쿰란 철자법

Qumran orthography

쿰란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철자법.

쿰란 히브리어에 사용된 철자법 중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브를 완전철자법의 모음으로 사용:

כוהן (כֹּהֵן 대신), כול (כָּל 대신), חשוד(חֲשׂוּד 대신)

2. ‘에’ 모음을 갖는 명사 끝에 요드를 사용: מעשי (מַעֲשֵׂה 대신)

3. 단어 중간에 וא, או, יא, אי 등을 하나의 음을 갖는 이중글자(digraph)로 사용:

ראוש (ראש 대신), תואכל (תאכל 대신), ראישון (ראשין 대신)

4. 단어 끝에 יא, וא 등을 이중글자(digraph)로 사용:

כמוא (כמו 대신), לוא (לא 대신), כיא (כי 대신)

5. 단어 끝에 알레프를 탈락시킴:

נשי (נשיא 대신), חט (חטא 대신), להבי (להביא 대신)

6. ש(ש) 대신 ש(ש)를 사용:

סמחה (שמחה 대신), ספות (שפות 대신)

7. 자음 눈이 동화되지 않고 나타나기도 함:

יתן (יתן 대신)

(참. Qimron, E.,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17-24; 설로모 모라그, “유대광야 문서의 언어-그 구조와 특성,”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183-200)

+ 쿰란 히브리어(Qumran Hebrew)

Qimron, E.,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설로모 모라그, “유대광야 문서의 언어-그 구조와 특성,”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랍비 히브리어

rabbinic Hebrew

주후 1-5 세기 경 랍비 유대교 문학에 기록된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네 시대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구분법을 따를 때 랍비 히브리어는 미슈나 히브리어(주전 약 200 년에서 주후 약 400 년)에 속하는데, 그 중 특별히 타나임(미슈나 시대에 속하는 랍비들) 시대와 아모라임(타나임 이후 시대의 랍비들) 시대의 히브리어를 랍비 히브리어라 한다. 쿨란 히브리어와 랍비 히브리어를 모두 포함하여 미슈나 히브리어라 하는데, 주전 100 년에서 주후 100 년 사이에 사용된 쿨란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에 조금 더 가까운 반면, 랍비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좀 더 벗어난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랍비 히브리어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에서 히브리어가 주후 200 년경까지 구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랍비 히브리어가 제 2 성전시대(주전 6 세기-주후 1 세기)에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구어로 사용되던 언어였다고 본다. 그러나 소수의 학자들은 랍비 히브리어는 제 1 성전시대 말기에 기원을 둔다고 보고 성경 히브리어와의 연결점을 찾는 노력을 한다. 성경 히브리어와 랍비 히브리어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 두 언어의 형태론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성경 히브리어에 많이 나타나는 권유형(cohortative)과 지시형(jussive)이 랍비 히브리어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 (2) 랍비 히브리어에는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나지 않는 ‘니트파엘’ 형이 등장한다.
- (3) 남성복수 형태를 나타내는 접미어 ‘-ן’이 성경 히브리어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랍비 히브리어에 흔하게 사용된다.

어휘적인 차이는 형태론적인 차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들이 랍비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변하여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랍비 히브리어에는 성경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형태의 단어들이 발견되는 현상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랍비 히브리어가 단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성경 히브리어에서 발전이나 변화를 가져온 언어가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고 있던 서로 다른 언어 층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즉 랍비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직접 발전된 언어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와 가까운 방언으로부터 발달되었다는 것이다(참. M. H. Segal,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모셰 바르-아쉐르, “랍비시대 히브리어 개관,”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201-250)

Segal, M. H.,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모셰 바르-아쉐르, “랍비시대 히브리어 개관,”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라페

Rafé

히브리어에서 마찰음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 위에 붙이는 가로로 된 획.

라페(רָפֶ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는 폐알 유형의 분사능동남성단수 형태로 ‘풀린’, ‘느슨한’의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형용사 형태로 ‘약한’, ‘부드러운’의 뜻이다. 라페는 마찰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강점(dagesh forte), 연강점(dagesh lene) 등 어떤 종류의 다게쉬(글자 안의 점)도 허용하지 않는다. 사본들에서는 라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성경 인쇄본들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이 표시를 생략하므로 확인이 어렵다. 파열음과 마찰음을 갖는 ‘브가드크파트’ 문자에서는 다게쉬가 없으면 라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브가드크파트’ 문자에서 다게쉬가 없는 문자들의 발음은 **ב**(*b, bh* 현대 그리스어의 β, 영어의 v와 거의 같다), **ג**(*g, gh* 현대 그리스어의 γάλα 의 γ), **ד**(*d, dh* 현대 그리스어 δ (영어 this 의 th), **כ**(*k, kh* 현대 그리스어의 χάρις 의 χ), **פ**(*,ph* 현대 그리스어의 φ=영어의 f), **ט**(*t, th* 현대 그리스어의 θ=영어 thing 의 th) 등이다. 또한 라페는 ‘עוֹרִים’와 같이 자음이 중복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לֶה’와 같이 **ה**가 발음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참. GKCS §6n, 14e; JMK §5o, 12).

+ 알파벳

드문 유형들

rare patterns

히브리어 동사의 일곱 가지 기본 유형 및 아람어 동사의 여섯 가지 유형 외에 드물게 나타나는 다른 유형들.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일곱 가지 기본 유형(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외에 드물게 나타나는 다른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피엘과 관련된 유형이 가장 많고 푸알이나 히트파엘과 관련된 유형도 있다. 피엘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포엘(poel), 포알(poal), 필렐(pilel), 필펠(pilpel), 팔렐(palel), 페알칼(pealal) 등이며, 푸알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풀랄(pulal)과 폴팔(polpal)이 있고, 히트파엘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히트포엘(hithpoel), 히트폴렐(hithpolel), 히트팔렐(hithpalel), 히트팔펠(hithpalpel) 등이다. 그 외에 접두어가 붙은 티펠(tiphele) 유형이 있고,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샤펠(shaphele) 유형도 있으며, 니팔과 히트파엘의 결합형이며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는 매우 자주 출현하는 니트파엘(nithpael) 유형도 있다. 또한 니팔과 관련된 누팔(nuphal) 유형도 발견된다. 이러한 드문 유형들은 전체 동사를 통틀어 약 3% 정도에 해당한다. 성경 히브리어에서의 드문 유형들은 모음과 자음의 형태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성경 아람어의 드문 유형들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경 아람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נ**와 **ס**의 상호교환적인 사용이 여러 유형에서 나타나는데 히트페엘 유형에서는 ‘이트페엘’(ithpeel) 유형으로 나타나고, 히트파엘 유형에서는 ‘이트파알’(ithpaal) 유형으로 나타나며, 하펠 유형에서는 ‘아펠’(aphel)로 나타나는 것이 그와 같은 경우이다. 또한 하펠 유형에서 ‘샤펠’(shaphele)이 나타나는 것은 아카드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히슈타펠(hishtapele), 히트폴렐(hithpolele), 이슈타펠(ishtapele), 폴렐(polele) 등이 있다(참. GKCS §39g, §55b-k; JMK §59a-h;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68; 권성달, 『성경아람어울판』, 60-63)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서울: 목양, 2015.

권성달, 『성경아람어울판』, 서울: 목양, 2012.

읽기 전승

reading tradition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공동체 모임, 회당, 학교 등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왔던 전승.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과 악센트를 모두 포함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주후 600-1000 년 경 활동하였던 마소라 학자들이 완성한 것이다. 마소라 학자들은 성경 텍스트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성경 히브리어 텍스트의 알파벳 수까지 일일이 세는 작업을 했으며, 모음 부호와 악센트 부호를 만들어 오늘날의 완전한 텍스트로 만들었다. 특히 그들이 모음과 악센트 부호를 만들 때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이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온 읽기 전승이었다. 읽기전승의 기원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대개는 회당이나 학교 등 유대인들의 공공 장소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나 율법 낭독에 대한 성경구절들은(출 24:7, 신 31:11, 수 8:34, 스 4:18, 느 8:8, 렘 36:6 등) 읽기전승의 역사가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오래된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주후 70 년 이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면서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과 악센트 부호를 확정짓던 시기에는 읽기전승이 몇 개로 나뉘어 있었다. 먼저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동부학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서부학과로 나뉘어 있었다. 서부학과 중에서는 벤-납달리학과와 벤-아셀학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 본문은 서부학과 중 벤-아셀학파의 것이다(참. GKCS 17h-i; IBHS 1.6.4c; P. H. Kelly,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Kelly, P. H.,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상호적(相互的)

reciprocal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나 그룹들이 동시에 상호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

상호적인 것을 뜻하는 영어 reciprocity 는 라틴어에서 왔다(reciprocus, ‘앞 뒤로 오고 가다’[moving backwards and forwards]). 문법에서 상호적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요소들(사람, 그룹 등)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표현한다. 영어에서는 상호대용어(相互代用語, reciprocal anaphor), 상호대명(each other, one another), 상호동사가 있다. 예로, Philip and Caroline love each other. 상호적인 것과 재귀적인 것(reflexive)은 서로 다르다. 후자는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는 니팔 형과 히트파엘 형이 상호적인 행동을 표현한다(참. GKCS §51d, 54f; JMK §51c).

(1) 니팔에서

출 17:8

וַיָּבֹא עִמָּלֶק וַיִּלָּחֶם עִם־יִשְׂרָאֵל בְּרִפְדִּים: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서로) 싸웠다.

(2) 히트파엘에서

창 5:22

וַיִּתְּלֶץ תָּנֹךְ אֶת־הָאֱלֹהִים אֶתְרִי הוֹלִידוּ אֶת־מִתְוַשֵּׁלַח שְׁלֹשׁ מֵאוֹת שָׁנָה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게한 후 300 년 동안 하나님과 (서로) 동행했다.

헬라어는 상호적 용법은 상호대명사 ἀλλήλων, 상호 중간태, 그리고 간혹 재귀대명사가 상호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W 352; R 690, 810-811).

약 5:16

ἐξομολογεῖσθε οὖν ἀλλήλοις τὰς ἁμαρτίας

그러므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상호대명사 ἀλλήλοις 가 사용되었다.

마 26:4 (R 811)

συνεβούλευσαντο

그들이 서로 음모를 꾸몄다.

συνεβούλευσαντο 가 중간태로 사용되어 상호적 용법이 된다.

고전 6:7 (R 690)

κρίματα ἔχετε μεθ' ἑαυτῶν

너희가 서로를 고소한다.

재귀대명사 ἑαυτῶν 가 전치사 μεθ'와 함께 사용되어 상호적 의미를 가진다.

상호 대명사(相互代名詞)

reciprocal pronoun

둘 혹은 그 이상 요소들(사람, 그룹)의 상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대명사.

영어에서는 each other 와 one another 두 가지가 있다. each other 는 둘 사이에, one another 는 셋 이상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구별없이 사용된다. 히브리어에서는 **אִישׁ**가 상호 대명사로 사용되며, 그 때는 뒤에 **רֵעֵהוּ** (그의 동료)나 **אָחִיו** (그의 형제)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זֶה**가 상호 대명사로 사용될 때는 동일한 단어 **זֶה**를 다른 단어(주로 전치사)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사용하여 표현한다(참. GKCS §139e; JMK §147c; Rodrigue 189; 조성식 외).

삿 6:29

וַיֹּאמְרוּ אִישׁ אֶל-רֵעֵהוּ

그들이 서로 말했다.

출 16:15

וַיֹּאמְרוּ אִישׁ אֶל-אָחִיו

그들이 서로 말했다.

출 14:20

וְלֹא-קָרַב זֶה אֶל-זֶה כָּל-הַלַּיְלָה:

그들은 밤새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사 6:3

וְקָרָא זֶה אֶל-זֶה

그들은 서로 외쳤다.

어간중복(語幹重複), 중복(重複)

reduplication

두 개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형태소, 어근, 혹은 어간을 중복하여 운율을 맞추는 것.

어간 중복은 “많은 언어에서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의 하나로서”(CDEG), 언어에 따라 복수성이나 지시물의 크기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우리말에서는 ‘사랑사랑’, ‘보들보들’, ‘곳곳’, ‘방방곡곡’, ‘순간순간’, ‘하느작하느작’ 등이 있다. 영어에서는 완전반복으로 ‘papa’, ‘mama’, bye-bye, hush hush, pooh pooh, 반-운율로 wishy-washy, mumbo jumbo, tittle-tattle 애칭으로 gee-gee, pee-pee 등이 있다(ODEG, CDEG).

히브리어에서는 יום יום(날마다), לִלְלָל(부양하다), מְרַרְר(춤을 추다), גִּלְגֵּל(굴리다) 등이 있고, 아랍어에서는 رَكَرَكَ(크나큰)이 대표적인 중복어이다(참. GKCS §55e-g; JMK §147c; Rodrigue 190; PDSBH; 조성식 외).

헬라어에서 중복은 통사 층위와 관련이 있다. 현재완료형의 경우,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분사 모두 다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면 그 자음 앞에 동일한 자음을 중복하고 ε를 붙인다. 따라서 동사 λύω의 현재완료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는 λέλυκα이다(참. PDSNTG 107).

지시어(指示語)

reference

서로 연관되는 용어나 개념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어떤 특정한 지시물(referent)을 가리키는 것.

일반적으로는 ‘언어적 표현’(이름, 단어)과 그 표현이 가리키는 언어외적인 실재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즉 표현과 실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예로, “Jay is a good teacher”에서 Jay는 실제 세계에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지시어라고 할 수 있다(OED). 혹은 ‘저 산’, ‘그 여자’ 등의 표현과 같이 “언어 외의 어떤 대상,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지시물(referent)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식 외).

지시물을 지시하는 지시표현에는 한정표현과 비한정표현이 있는데, 한정표현은 대개 지시의 개념이 명확한 편이나 비한정표현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장 안의 다른 표현과의 관계 속에서 맥락을 잘 살펴 파악해야 한다(참. Rodrigue 190-191; 이정민 외; 조성식 외; 이익환, 『의미론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95: 2-13).

이익환, 『의미론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5.

지시물(指示物)

referent

지시어(reference)가 가리키는 대상이 되는 것.

“예나의 승리자, 워털루의 패배자(The victor at Jena and the loser at Waterloo)”는 바로 나폴레옹을 가리킨다. 즉, 나폴레옹이 승리자와 패배자의 지시물이다(ODEG). 그렇지만, 지시물은 특정한 물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 무생물은 물론 어떤 종류의 개념일 수도 있다. 예로, ‘승용차’나 ‘기차’는 엔진의 힘으로 운송을 하는 특정한 물건을 가리킨다(PDSBH).

동일한 지시물이 다른 지시어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고, 동일한 지시어가 다른 지시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Rodrigue 191; 이정민 외).

히브리어에서는 명사문장을 분류할 때 주어와 술어의 지시물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체 판명절(clause of identification)과 분류절(clause of classification)로 나뉘며, 명사문장의 종류에 따라 어순에 차이를 보인다(참. JMK §154ea; IBHS §8.4.1).

(1) 주어-술어 어순을 갖는 정체 판명절

수 2:1

וְשֵׁמָּהּ רָחֵב

그녀의 이름은 라합이었다.

(2) 주어-술어 어순을 갖는 분류절

삼하 3:39

וְאַנְכִּי הַיּוֹם כֹּדִי

나는 오늘 약하다.

(3) 술어-주어 어순을 갖는 분류절

왕상 14:21

בְּיָמָיו מָלַךְ יְרָבָם בֶּן־נִבְמַן וְאַחַת שָׁנָה רָחֲבָעַם בְּמֶלֶכוֹ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 41 세였다.

(4) 주어-술어 어순의 명사문장

대상 4:2

אֵלֶּה מְשֻׁחָזֹת הָעֲרֻקָּה:

이들은 소라 가족들이었다.

사람의 이름이나 숫자를 표현하는 목록 텍스트에서 명사문장의 어순은 주로 주어-술어이다.

(5) 술어-주어 어순의 명사문장

대상 29:15

כַּעֲלֵי יָמֵינוּ עַל־הָאָרֶץ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대화체 중 기도문의 경우 술어-주어 어순을 선호한다.

+ 지시어(reference)

재귀적(再歸的)

reflexive

주어가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스스로 그 자신과 관계를 갖는 것

재귀적이라는 영어 reflexive는 라틴어에서 ‘되돌려 굽어진’(bent or curved back)을 뜻하는 단어 reflexus에서 나왔다. 즉, 어떤 사물이 그 자신에게도 되돌아 오는 것이다. 문법에서 ‘재귀적’은 ‘재귀 대명사’나 ‘재귀적인 동사’에 주로 사용된다. 영어에서 재귀대명사는 주로 -self, -selves로 마치며 himself, herself, ourselves와 같은 것이 있다. 재귀적이란 주어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가지며(reflexive relation),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행위자 스스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실체를 갖는다.

히브리어에서는 재귀적 의미가 몇 가지 유형에서 나타난다. 동사에서 나타날 때는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히트파엘(hithpa'el)과 니팔(niphal) 유형에서 나타난다. 전치사 לְ와 함께 감성의 여격(dative of feeling)에서도 나타나며, 직접목적어 표지인 אֶת나 전치사 לְ 등을 접미사와 함께 사용하여 재귀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참. GKCS §135i-k; JMK §133d; 이정민 외; PDSBH).

삿 3:16

וַיַּעַשׂ לְאֵהָרָב חֶבֶר

에훗은 그 자신을 위해 칼을 만들었다.

헬라어의 재귀적 용법은 주로 세 가지에 의해서 표현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귀 대명사(ἐμαυτοῦ, σεαυτοῦ, ἑαυτοῦ, ἑαυτῶν)이다. 둘째, 동사의 태 중에서 중간태가 재귀적 용법을 가진다. 셋째, 3 인칭 대명사가 특별용법으로 사용될 때 재귀적으로 사용된다. 누가의 경우 그 특별용법이 반드시 재귀적인 것은 아니다 (참. W 349-351, 416-418; R 286-287; Z §199).

마 4:6 (W 350)

εἰ υἱὸς εἶ τοῦ θεοῦ, βάλε σεαυτὸν κάτω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아래로 던져라.

동사 ἀπήγατο 는 중간태로 스스로 ~하다의 의미이다.

마 27:5 (W 417)

ἀπελθὼν ἀπήγατο

그가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었다.

동사 ἀπήγατο 는 중간태로 스스로 ~하다의 의미이다.

막 12:36 (W 349)

αὐτὸς Δαυὶδ εἶπεν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τῷ ἁγίῳ

다윗 자신이 성령 안에서 말했다.

αὐτὸς 는 재귀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눅 5:1 (W 323)

αὐτὸς ἦν ἐστὼς παρὰ τὴν λίμνην Γεννησαρέτ

그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여기서 αὐτὸς 가 재귀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중간태(middle)

재귀 동사(再歸動詞)

reflexive verb

주어가 자신에게 미치는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한 동사적 표현

재귀 동사란 “동사가 취한 목적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귀 대명사에 한정되는 동사이다”(표준국어). 즉, 동사가 재귀대명사를 직접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absent oneself, avail oneself, behave oneself, pride oneself, wash oneself).

히브리어에서 재귀 동사는 일곱 가지 기본 유형 중 히트파엘(hithpa'el)과 니팔(niphal) 유형에서 주로 나타나며, 재귀대명사 없이 나타난다(참. GKCS §51c, 54e; JMK §51c, 53i).

수 3:5

וַיֹּאמֶר יְהוֹשֻׁעַ אֶל־הָעָם הַתְּקַדְּשׁוּ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삼상 20:24

וַיִּסְתֵּר דָּוִד בְּעֵדָה

다윗은 스스로 들판에 숨어 있었다.

헬라어 동사들 중에 재귀대명사 없이 재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중간태라고 한다. 한 동사가 중간태의 어미를 취할 때 능동태와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αἰρέω (취하다)가 αἰρέομαι (선택하다)의 뜻이 되고, ἀναμιμνήσκω(생각나게 하다)가 ἀναμιμνήσκομαι (기억하다)의 뜻이 되며, πείθω (내가 설득시키다)가 πείθομαι(내가 순종하다)의 뜻이 된다(참. R 804).

탈락(脫落)

rejection

한 단어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표준국어대사전).

우리 말에서는 ‘가+아서’가 ‘가서’로, ‘울+는’이 ‘우는’이 되는 것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는 어형 변화가 일어나는 굴절(inflexion)에서 원래 어근에 속했던 형태소나 음절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 단어의 앞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두음 탈락(aphaeresis), 중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중음 탈락(syncope), 끝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미음 탈락(apocope)이 있다. 히브리어에서 탈락은 약한 자음인 **נ**과 **ל**에서, 후음 중에서는 **א**와 **ה**에서 일어나고, 또한 **ו**와 **י**에서도 일어난다(참. GKCS §19g-l, 23b-f, 68b-k).

(1) 어두음 탈락(aphaeresis)

어두음 탈락은 주로 제1눈 동사(혹은 폐-눈 동사)나 제 1 바브 동사(혹은 폐-바브 동사)에서 발생한다. 예로서, 어근 **נפל**의 칼미완료 3인칭남성단수 형태로 **יפל**, 어근 **ודע**의(기본형은 **ידע**이지만 첫째 자리의 어근은 요드가 아닌 바브이므로 제 1 바브 동사라 부르며, 니팔과 히필 등에서 **גודע**, **הודיע** 와 같이 원래의 어근인 바브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יטב**, **יקץ** 등은 첫째 자리의 어근이 원래 요드이므로 제 1 요드 동사라 부르며, 니팔과 히필 등에서도 요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칼명령남성단수 형태로 **דע** 등이다.

(2) 어중음 탈락(syncope)

어중음 탈락은 주로 후음 중 **א**과 **ה**에서 일어나고 또한 **ו**와 **י**에서도 일어난다. 예로서, 동사 **אמר**의 칼미완료 1인칭단수 형태로 **אאמר** 대신에 **אמר**, **בְּהִאָּרָךְ** 대신에 **בְּהִאָּרָךְ**, **מְקוֹמוֹת** 대신에 **מְקוֹמוֹת** 등이다.

(3) 어미음 탈락(apocope)

어미음 탈락은 주로 제 3 요드 동사(혹은 라메드-요드 동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נִהְיָה** 대신 **נִהְיָ**, **עָשָׂהוּ** 대신 **עָשָׂ** 등이 그 예이다.

헬라어에서 어두음 탈락, 어중음 탈락, 어미음 탈락이 있다(참. LSNTG 81-82; R 203, 205-206; PMHL 10-11; S §75D)

(1) 어두모음 탈락(aphaeresis)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ἐθέλω** 가 **θέλω** 로 사용된다.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ἐκεῖ** 와 **κεῖ** 사이에 그리고 **οὐδέν** 과 **δέν** 사이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신약성경 헬라어 사본들에서는 **ἐχθές** 대신에 **χθές** 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 어중모음 탈락(syncope)

πατήρ 의 소유격은 **πατρός** 인데 원래 **πατερός** 에서 **ε** 가 탈락되었다. 이와 같이, **πιπέτω** 에서 **ε** 가 탈락되어 **πίπτω** 가 되었으며, **γίγνομαι** 에서 **ε** 가 탈락되어 **γίγνομαι** 가 되었다.

(3) 어미음/어말 모음 탈락(apocope)

ἀνά 에서 ἀ 가 탈락되어 ἀν 으로 사용되거나, κατά 에서 ἀ 가 탈락되어 κατ 로 사용되거나, παρά 에서 ἀ 가 탈락되어 παρ 로 사용된다.

PMHL: Jeffers, Robert J. and Ilse Lehiste, *Prince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he MIT Press, 1979.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관계사(關係詞)

relative

종속절을 이끌어 선행하는 용어를 가리키거나 한정하는 것으로서,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

영어에서는 who, whom, whose, which 같은 관계대명사(relative pronoun), what(ever), which(ever) 같은 관계형용사(relative adjective), when, where, why, how 같은 관계부사(relative adverb) 등을 총칭적으로 일컫는 말이다(ODEG, CDEG, 조성식 외). 간접의문문에서 종속절을 이끄는 의문사는 관계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אִי**와 **זֶה**가 합쳐져서 **אִי־זֶה**와 같은 형태로 관계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의문부사 **אֵיפֶה**, **אֵיךְ**, **כִּמָּה** 등이 관계절에서 사용될 때는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렘 6:16

וְשִׂאֲלוּ לַנִּתְבוֹת עוֹלָם אִי־זֶה דֶּרֶךְ הַטּוֹב

너희는 옛 길에 대해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물어보라.

룻 3:18

וְהָאִמְרָ שְׂכִי בְחַי עַד אֲשֶׁר תִּדְעִין אֵיךְ יִפֹּל דָּבָר

그녀가 말했다. 내 딸아, 너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어라.

창 37:16

הַגִּידָה־נָא לִי אֵיפֶה הֵם רֹעִים: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슥 2:2(히, 2:6)

וַיֹּאמֶר אֵלַי לְמַד אֶת־יְרוּשָׁלַם לְרֵאוֹת כִּמָּה־רְחֹבָהּ וְכִמָּה אֶרְבֶּהּ: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 측정하고 보기위해서이다.”

헬라어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주로 사용된다(R 290-291, 710-735; W 335-345, 659; B §289-333).

요 4:50

ἐπίστευσεν ὁ ἄνθρωπος τῷ λόγῳ ᾧ εἶπε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

선행사 τῷ λόγῳ 이 있고 관계 대명사 ᾧ 가 사용되었다. τῷ λόγῳ 가 여격인 것은 동사 ἐπίστευσεν 가 여격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관계절(關係節)

relative clause

종속절의 한 유형으로 주절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로 시작하는 절

관계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세 종류로 나뉜다. 통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사절의 경우는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며, 명사절과 형용사절인 경우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계절은 또한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의해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나뉘어 진다.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수식하여 선행사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이며, 비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예로, Here is the book that you were looking for (and none other than that one)는 제한절이다. 바로 그 책 외의 다른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Napoleon, who came from Corsica, was exiled to Elba”는 확장절이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분사와 함께 하는 관계절도 있다. 그 경우 대개 분사에 관사가 붙으며,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관계사가 생략된 관계절(asyndetic relative clause)도 있다(참. GKCS §138; JMK §158; WSK 265-268).

(1) 명사절

(1-1)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삼하 2:4

אֲנָשִׁי יִבְיִשׁ גִּלְעָד אֲשֶׁר קִבְּרוּ אֶת-שָׁאוּל:

사무엘을 장사지낸 이들은 길르앗 야벳스 사람들이다.

(1-2)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

수 9:3

וַיִּשְׁבְּי גִבְעֹזן שָׁמְעוּ אֶת־אֲשֶׁר עָשָׂה יְהוֹשֻׁעַ לְיִרְחוֹ וּלְעָי: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것을 들었다.

삼하 1:5

אֵיךְ יָדַעְתָּ כִּי-מָת שָׁאוּל

너는 어떻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느냐?

(2) 형용사절

창 22:9

וַיָּבֹאוּ אֶל־הַמָּקוֹם אֲשֶׁר אָמַר־לּוֹ הָאֱלֹהִים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장소로 갔다.

(3) 부사절

삿 8:8

וַיַּעֲנוּ אוֹתוֹ אֲנָשֵׁי פְנוּאֵל כַּאֲשֶׁר עָנוּ אֲנָשֵׁי סְכוֹת:

브누엘 사람들은 숙곳 사람들이 대답한 것과 같이 그에게 대답했다.

수 14:14

על־כֵּן הִתְהַתְּבְּרוּן לְכָל־בְּנוֹי־פְּנֵה הַקִּנְיָ לְנַחֲלָה עַד הַיּוֹם הַזֶּה יַעַן אֲשֶׁר מָלָא אֶת־לִי יְהוָה אֱלֹהֵי יִשְׂרָאֵל:
 그러므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
나님 여호와의 뒤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이다.

관계절에는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가 있다. 관계대명사에는 ὅς, ὅστις, οἷος, ὅποῖος, ὅσος, ἡλίκος 가 있다. 선행사의 유무에 따라 선행사가 있는 정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없는 부정 관계 대명사로 나누기도 한다. 헬라어의 독특한 특징들 중의 하나로 동사 안에 주어가 내포된 경우도 있다. 관계 형용사에는 οἷος, ὅσος 가 있고 관계부사에는 ὅπου, ὅτε, ὥς, ὥσπερ, 등 이 있다(R 290-291, 710-735; W 335-345, 659; BDF §293-297; B §289-333).

(1) 정 관계대명사

막 14:71

οὐκ οἶδα τὸν ἄνθρωπον τοῦτον **ὃν** λέγετε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선행사 τὸν ἄνθρωπον τοῦτον 이 있고 관계 대명사 ὃν 이 사용되었다.

(2) 부정 관계대명사

마 18:5

ὃς ἂν δέξηται παιδίον τοιοῦτον ἐν ἐπὶ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μὲ δέχεται

누구든지 이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ὃς 가 ἂν 과 함께 사용되어 부정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3) 부정 관계대명사

마 5:39

ὅστις σε ῥαπίζει εἰς τὴν δεξιὰν σιαγόνα [σου], στρέψον αὐτῷ καὶ τὴν ἄλλην

누구든지 너의 오른 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그에게 돌려대어라

ὅστις 가 부정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4) 관계대명사와 동사 안에 주어가 내포된 경우

요 1:26

μέσος ὑμῶν ἔστηκεν **ὃν** ὑμεῖς οὐκ οἶδατε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섰다.

선행사가 동사 ἔστηκεν 속에 내포되어 있다.

(5) 관계형용사 οἷος

τὸν αὐτὸν ἀγῶνα ἔχοντες, **οἷον** εἶδετε ἐν ἐμοί.

너희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그런 것을 보았다.

οἷον 이 관계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6) 관계형용사 ὅσος

계 3:19

ἐγὼ **ὅσους** ἂν φιλῶ ἐλέγχω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큼 내가 꾸짖는다.

ὅσους 가 관계형용사로 사용되었다.

롬 8:14 (W 685)

ὅσοι γὰρ πνεύματι θεοῦ ἄγονται, οὗτοι υἱοὶ θεοῦ εἰσιν.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ὅσοι 가 관계형용사로 사용되었다.

(7) 관계부사 ὅπου

막 14:71

Ἴδε, ὁ τόπος ὅπου ἔθηκαν αὐτόν.

보라, 그들이 그를 두었던 장소다.

선행사 τόπος 가 있고 장소를 의미하는 관계부사 ὅπου 가 사용되었다.

(8) 관계부사 ὅτε

νῦν ἐστίν, ὅτε οἱ ἀληθινοὶ προσκυνητ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τῷ πατρί

진실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선행사 없이 시간을 의미하는 관계부사 ὅτε 가 사용되었다.

B: Burton, Ernest De Witt,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0.

관계대명사(關係代名詞)

relative pronoun

문장에서 바로 앞에 오는 명사, 명사구, 절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영어에서는 대명사의 하부 범주로서 관계절이 시작됨을 알려준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겸한 어류(語類)이다”(조성식 외). who, whose, whom, which 의 세트를 이루며 인칭대명사처럼 굴절한다(CDEG). 일반적으로 which 는 제한적인 관계절을, that 는 비제한적인 관계절을 열어준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흔한 관계대명사는 **אֲשֶׁר**이다. **אֲשֶׁר**는 **בְּאֲשֶׁר**, **כְּאֲשֶׁר**, **לְאֲשֶׁר**, **מֵאֲשֶׁר**, **אֵת אֲשֶׁר** 등과 같이 전치사나 대격표지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히브리어에서 **שֶׁ**가 대표적인 관계대명사인 반면, 성경히브리어에서는 아주 드물게 **שֶׁ**(혹은 **שׁ**)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접속사로 많이 사용되는 **כִּי**는 그것이 이끄는 절 전체가 동사의 목적어가 될 때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문대명사 **מִי**와 **מַה**가 간접의문문에서는 관계대명사로 사용된다. 지시대명사인 **זֶה**, **זוּ**, **זוּ** 등이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히브리어의 지시대명사와 대응되는 아람어 **ܕܝ**가 아람어에서는 가장 흔한 관계대명사로 사용된다(참. GKCS §138; JMK §38; WSK 265-268).

(1) **כִּי**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삿 9:55

וַיֵּרְאוּ אִישׁ-יִשְׂרָאֵל כִּי מֵת אַבִּימֶלֶךְ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았다.

(2) 의문대명사가 간접의문문에서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신 9:2

וְאַתָּה שְׁמַעְתָּ מִי יִתְצַב לִפְנֵי בְנֵי עַמֶּךָ

당신은 누가 아낙 자손들 앞에서 맞설 수 있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왕하 4:2

גִּידִי לִי מַה-יְשֻׁלָּךְ בְּבֵית

집에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3) 지시대명사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욥 19:19

זֶה-אַהֲבָתִי נֶהְפְּכוּ-בִי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내게서 돌아선다.

(4) 히브리어의 지시대명사와 대응되는 단어인 **ܕܝ**가 아람어에서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스 5:4

מִן-אַנּוֹן שְׁמֵהָת גְּבְרִיא דִּי-דִנְהָ בְּנִינָא בְּנִינִי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나?

복수를 표현하는 반복(複數 表現 反復)

repeated for plurality

단수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복수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

히브리어에서 이런 표현은 자주 나타난다. 접속사 바브(ו) 없이 표현하기도 하고, 접속사(혹은 전치사)와 함께 표현하기도 한다. יום יום 혹은 יוֹם יוֹם 혹은 יוֹם בְּיוֹם (날마다), שָׁנָה שָׁנָה 혹은 שָׁנָה בְּשָׁנָה (해마다), אִישׁ אִישׁ 혹은 אִישׁ וְאִישׁ (사람마다), דּוֹר דּוֹר (세대마다), שַׁעַר וְשַׁעַר (성문마다) 등. 때로는 בֶּבֶקֶר בֶּבֶקֶר 혹은 לְבֶקֶר לְבֶקֶר(아침마다)와 같이 모든 단어에 전치사를 사용하기도 하며, בְּיוֹם הַשַּׁבָּת בְּיוֹם הַשַּׁבָּת와 같이 전치사구의 반복으로도 나타난다(참. GKCS §123c; JMK §135d).

반복법(反復法)

repetition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리, 단어, 통사 구조를 되풀이하여 강조나 장식을 하는 수사법.

반복은 수사법 중의 일종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하며, 주로 강조나 운율이나 언어의 장식적 기능 등을 위해 사용한다(조성식 외). 우리 말에서는 대표적으로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를 꼽을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산문보다는 운문에서 많이 나타나며, 평행법(parallelism)과 마찬가지로 운문체에서 사용되는 두드러진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첫음이나 중간음, 혹은 끝음을 일치시키는 음운론적 반복이 있고, 성, 수, 인칭, 유형, 상 등을 일치시키는 형태론적 반복이 있으며, 주어, 술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순서를 일치시키는 통사론적 반복이 있으며, 동일한 단어나 특정한 표현을 되풀이 하는 경우도 있다. 산문에서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적 반복보다는 **מִי אֲנֹכִי וּמִי חַיִּי, עֵמֶק עֵמֶק, מַעֲט מַעֲט, מֵאֵד מֵאֵד** 등과 같이 동일한 단어나 특정한 표현을 되풀이하여 반복을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개념의 강화, 강조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참. GKCS §133k-l, 137a, 141d; JMK §141k, 142p, 154j, 161l; W. G. E. Watson, 274-278).

– 어간중복(reduplication)

≡ 평행법(parallelism)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레쉬

Resh

히브리어 알파벳의 스무 번째 문자.

히브리어 문자 레쉬가 사람의 머리 모양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영어의 R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이 문자의 명칭인 ‘레쉬’도 히브리어 ‘ראש’(머리)와 관련이 있다. 초기에는 완전한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표현하다가 주전 12세기 경에는 반원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윗부분의 반원 모양이 점점 사라져 7 모양으로 정착되었다. 레쉬는 ‘20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레쉬는 불분명하다. 목젓을 떨면서 내는 구개음으로 보기도 하고, 설음으로 보기도 한다. 발음에 있어서 후음과 비슷하여 종종 후음과 동일한 특징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참. GKCS §5b-d, 6o-p, 22q, r; JMK §5c-d, h, n; A. Yardeni, 76-78).

+ 문자(letter)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제한적 불변사(制限的不變詞)

restrictive particle

주요어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힘을 가진 불변사.

제한적 불변사는 주로 주절에 표현된 것이나 주요어를 제한하거나 혹은 한정하는 ‘동사수식어’(adverbial modifier)로 작용하며, 접속사(but, only), 부사(at least) 혹은 관계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RDLL). 때로는 a red rose 처럼 주요어를 한정하기도 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의 제한적 불변사는 **אך**와 **רק**가 있다. 이 불변사들은 바로 다음에 오는 단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동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문장에서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참. GKCS §153; IBHS §39.3.5; PDSBH).

수 1:17

וְכִּי יִהְיֶה יְהוָה אֱלֹהֶיךָ עִמָּךְ כְּאֶשֶׁר הָיָה עִם־מֹשֶׁ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삿 10:15

אֲךָ הֲצִילָנוּ נָא הַיּוֹם הַזֶּה:

그러나(오직) 오늘은 부디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결과적(結果的)

resultative

동사의 동작과 사건의 결과나 주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결과란 동작이나 사건이 성취되거나 목적을 이루거나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말한다. 영어에서는 ‘to kill, to cut up, to burn down, to find, to eat’와 같은 동사들이다(RDLL).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의 7가지 유형 중 피엘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미인 작위적(factitive) 행동에서 형용사나 분사에서의 결과적 용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칼형에서도 이러한 용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로서 동사 **עָדָה**(알다)나 **זָכַר**(기억하다)가 완료(qatal)로 사용될 때 결과적 완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정사 연계형이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참. JMK §52d, 112a; IBHS §24.3b; WHSK 121-122; Rodrigue 194).

<부정사 연계형이 결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 4:1

וַתֵּן יְיָ אֱלֹהֵינוּ שְׁמָע אֶל־הַקְּוִים וְאֶל־הַמִּשְׁפָּטִים אֲשֶׁר אָנֹכִי מְלַמֵּךְ אֶתְכֶם לַעֲשׂוֹת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들을 듣고 행하라.

헬라어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덟 가지 용법이 있다.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τοῦ* + 부정사, *εἰς τὸ* + 부정사, *ὥστε* + 부정사, *ἵνα*(드물게), *ὥς* + 부정사(드물게), *ἐν τῷ* 부정사를 사용한다. (W 592-594; R 1089-1091)

마 13:54 (R 1091)

ἐδίδασκεν αὐτοὺς ἐν τῇ συναγωγῇ αὐτῶν, **ὥστε** ἐκπλήττεσθαι αὐτοὺς
그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
ὥστε 가 부정사 *ἐκπλήττεσθαι* 와 함께 사용되어 결과를 나타낸다.

막 1:27 (Y 170)

Πίστει καλούμενος Ἀβραὰμ ὑπήκουσεν **ἐξελεθεῖν**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갔다.
순종의 결과로 부정사 *ἐξελεθεῖν* 이 사용되었다.

요 9:2 (Y 187)

τίς ἥμαρτεν, ... **ἵνα** τυφλὸς γεννηθῇ;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 그래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ἵνα 가 결과로 사용되었다.

≡ 작위적(factitive)

Y: Young, Richard A., *Intermediate New Testament Greek: A Linguistic and Exegetical Approach*,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재생(再生)

resumption

앞에 나온 어구를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되풀이 하는 것.

영어 *resumptive* 는 라틴어에서 ‘회복’을 뜻하는 단어(*resumptivus*)에서 나왔다. 즉, 선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것이다. 영문법에서는 ‘재서’(再敍)라고 하며, 이것은 “글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앞에 나온 어구를 뒤에서 대명사 등을 사용하여 되풀이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에서 재생은 고리형(*casus pendens*)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 문두에 위치하여 선행하는 어구를 추가배치(*extraposition*)라 부른다. 재생의 경우 문장에서 속격, 목적어, 보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구성소 명사문장(*tripartite nominal sentence*)에서 주어와 술어를 제외한 제3의 구성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생 구조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 즉 세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의 구성소를 계사(*copula*)나 강조의 역할로 보는 이들은 세구성소 명사문장을 재생 구조로 보지 않지만, 세구성소 명사문장을 고리형의 일종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세구성소 명사문장도 재생 구조로 본다(참. PDSBH; 조성식 외;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17-18;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203-205; T. Zewi,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162-163).

헬라어 문법에서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등을 사용한다(R 679, 762, 859).

마 12:50 (R 679)

“Ὅστις γὰρ ἂν ποιήσῃ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οῦ ἐν οὐρανοῖς, **αὐτός** μου ἀδελφός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αὐτός 가 앞 절을 받으면서 재생하고 있다.

요 7:39 (R 859))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περὶ τοῦ πνεύματος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성령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었다.
τοῦτο 가 앞 문장을 받아 재생하고 있다.

≡ 고리형(*casus pendens*)

≡ 추가배치(*extraposition*)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Muraoka, T.,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Zewi, T.,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재생 대명사(再生代名詞)

resumptive pronoun

선행하는 어구를 뒤에서 되풀이 할 때 사용되는 대명사.

히브리어에서 재생대명사는 고리형(casus pendens)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재생대명사는 대부분 인칭대명사로 나타나지만 지시대명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리형 구조와 마찬가지로 재생의 경우도 문장에서 속격, 목적어, 보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구성소 명사문장(tripartite nominal sentence)에서 주어와 술어를 제외한 제3의 구성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재생대명사의 여부가 결정된다. 즉 세구성소 명사문장에서 제3의 구성소를 계사(copula)나 강조의 역할로 보는 이들은 세구성소 명사문장의 대명사를 재생대명사로 보지 않지만 세구성소 명사문장을 고리형의 일종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세구성소 명사문장의 대명사를 재생대명사로 본다(참. PDSBH; 조성식 외; T. Muraoka,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17-18; T. Muraoka,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203-205; T. Zewi,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162-163).

(1) 재생대명사가 목적격에서 사용되는 경우

창 27:34

בְּרַכְנִי גַם־אֲנִי אָבִי:

저를,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2) 재생대명사가 속격에서 사용되는 경우

왕상 21:19

בְּמָקוֹם אֲשֶׁר לָקְחוּ הַכְּלָבִים אֶת־דָּם נְבוֹזָת יִלְקֹוּ הַכְּלָבִים אֶת־דַּמִּי גַם־אֶתָּ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는 그 곳에서 너의 피, 너의 피도 핏는 것이다.

(3) 재생대명사가 보어에서 사용되는 경우

왕상 18:7

הֲאֵתָהּ זֶה אֲדֹנִי אֱלֹהֶי:

당신, 바로 당신이 내 주 엘리야이십니까?

≡ 고리형(casus pendens)

≡ 추가배치(extraposition)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Muraoka, T.,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Zewi, T.,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수사법(修辭法)

rhetoric

화자나 저자가 청자나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적 기술.

수사법 혹은 수사학은 주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설득력 있는 대화나 연설을 위한 웅변술을 의미했다. 대화술에만 국한되었던 수사법은 점차 글을 잘 쓰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odrigue 195-196).

고전 수사법에서 ‘설득의 기술’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1) 주제 설정(inventio, invention or discovery), (2) 배열(dispositio, organization or arrangement), (3) 문체(elocutio, style), (4) 기억(memoria, memory), (5) 낭독 혹은 연기(pronuntiatio or actio, delivery or action). 기타이(Gitay)는 고전수사법을 성경해석에 적용하면서, 다섯 단계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1) 자충족적인 단위이든 책 전권이든 간에 ‘수사적 단위’(rhetorical unit)를 결정한다. (2) 수사적 상황(rhetorical situation)을 정의한다. 여기에서는 인물, 사건, 긴급 상황이 만들어 내는 언어적 반응이 나오는 상황을 파악한다. (3) 수사적 문제(rhetorical problem)나 핵심 쟁점(stasis)을 찾고, 수사적 유형(species)으로서 법정적(judicial, 고발과 방어), 심의적(deliberative, 설득과 단념), 의례적이거나(ceremonial), 칭찬과 비난의 수사적 연사(epideitic)를 결정한다. (4) 주제 설정(inventio, invention), 배열(dispositio, arrangement), 문체(elocutio, style)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주제 설정은 설득의 방법(혹은 기술)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배열은 서론(exordium), 사실 진술(narration), 본론(probation), 결론(peroration)으로 구성된다. 문체는 주제 설정에 필요한 언어로서, 비유법을 포함한다. (5) 주제 설정(invention), 배열(arrangement), 문체(style)를 이용하여 수사적 단위의 수사적 효율성을 평가한다.

기타이와 달리 마일렌버거는 수사법을 ‘구성의 예술’로 보고 성경해석에 적용할 때 세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1) 수사학은 “하나의 문학적 단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마치는지 면밀하게 찾아냄으로써, 그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수사학은 “한 작품의 구조(structure of a composition)를 찾아야 한다”. (3) 수사학은 히브리 문학의 다양한 수사적 기법들(rhetorical devices)로서, 수미일치(inclusio), 평행법(parallelism), 교차대구(chiasmus), 핵심단어의 반복(repetition), 후렴(refrain), 강조적 불변사(emphatic particles)와 호격(vocative), 수사의문(rhetorical questions) 등의 장치들을 통하여 각 연의 구조(strophic structure)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경의 수사법 혹은 수사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라는 금언(잠 25:11)처럼, 구성의 기교와 설득의 예술을 둘 다 반영하는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참. 김정우, “수사분석의 모델들과 히브리 시의 분석 범주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37-63).

김정우, “수사분석의 모델들과 히브리 시의 분석 범주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78 (2011), 37-63.

수사의문(修辭疑問)

rhetorical question

문장의 구조는 의문문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명제를 강조하는 수사법의 일종.

수사의문문은 화자나 청자가(혹은 둘 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의문문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화자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언어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수사의문 문장에서는 긍정문과 부정문이 둘 다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긍정 의문문이면 강한 부정의 효과를 갖고, 부정 의문문이면 강한 긍정의 효과를 갖는다(참. 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DLL).

히브리어에서 수사의문은 산문에서도 사용되나 운문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수사의문은 히브리 시의 부차적인 기능이다. 수사의문의 기능은 강조적 기능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도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단락이나 연을 개시하거나 종결하기 위한 것, 반어법 등을 표현한다(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338-342).

(1)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우(Watson, 341)

미 2:7

הָאֱמֹר בֵּית־יַעֲקֹב הִקְצַר רוּחַ יְהוָה אֶם־אֱלֹהִים מַעֲלִיזוּ

야곱 가족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영도 분노하시는가?’, ‘그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가?’라고 말하느냐?

(2) 연을 개시하는 경우(Watson, 341)

사 50:1

אִי זֶה סֵפֶר בְּרִיתוֹת אֲמַכֶּם אֲשֶׁר שְׁלַחְתִּיהָ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쫓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3) 연을 종결하는 경우(Watson, 342)

욥 40:24

בְּעֵינָיו יִקְחֶנּוּ בְּמוֹקְשִׁים יִקְבֵּאֶף:

그 눈을 취할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코를 뚫을 수 있느냐?

(4) 반어법의 경우

삿 5:30

הֲלֹא יַמְצֵאוּ יִחְלְקוּ שְׁלָל רַחֵם רַחֲמָתִים לְרֹאשׁ נֹבֵר

그들이 탈취물을 찾지 않았겠느냐? 남자들마다 한 두 명의 여자를 얻지 않았겠느냐?

헬라어에서는 변증에서 활기있고 명쾌한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놀람, 분개, 기쁨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BDF §496; W 450).

롬 11:2 (W 450)

ἢ οὐκ οἶδατε ἐν Ἠλίας τί λέγει ἡ γραφή, ὡς ἐντυγχάνει τῷ θεῷ κατὰ τοῦ Ἰσραήλ;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놀람을 표현하는 수사적 의문문이다.

약 2:5 (W 450)

Οὐχ ὁ θεὸς ἐξελέξατο τοὺς πτωχοὺς τοῦ κόσμου ... ;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적 의문문이다.

고후 11:22 (BDF §496)

Ἑβραῖοι **εἰσιν**; Καγ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바울이 변증에서 수사 의문을 사용하고 있다.

≡ 평행법

+ 수사법

어근(語根)

root

의존 형태소(bound morpheme)를 제외한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어근은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궁극적 요소’이고(OED), 모든 접사를 제거해도 남아 있는 ‘핵심 요소’이며(ODEG),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표준국어대사전). 우리 말에서는 ‘덮개’의 ‘덮-’, ‘어른스럽다’의 ‘어른’ 따위로 ‘근저어’라고 부른다(표준국어대사전). 때때로 학자들은 접두사나 접미사와 같은 의존 형태소를 제외한 주된 의미를 갖는 기본 형태소를 뜻하는 어근과 굴절어미를 제외한 어간(stem)을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말에서 ‘활용어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먹다’, ‘먹니’, ‘먹고’에서 ‘먹-’ 따위”가 ‘어간’으로 설명되지만(표준국어), 어근으로 볼 수도 있다.

히브리어는 대부분 세 자음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만 가끔 네 자음 어근이나 두 자음 어근도 있다. 모스카티(Moscatti 1947)나 보터벡(Botterweck 1952)은 원시 셈어-함어의 어근이 본래 두 자음이었고, 셈어가 나중에 세 자음 어근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샌즈 바딜로스는 “여러 셈어의 명사와 동사까지 보존된 두 자음 어근보다 더 고대의 것이라는 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BCP,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류의 명사들과 약 동사에 두 자음 어근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같은 자음을 가진 세 자음 어근들과 의미론적 관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SBCP, 42). 주옹-무라오까도 히브리어에서 세 자음 어근이 주로 나오는 것은 “원래 두 자음 어근으로 구성된 어휘들이 부분적으로 조정되면서 역사적으로 후대에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현존하는 세 자음 어근들이 결국 두 자음 어근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근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언어의 역사적인 연구와 비교언어학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민족학과 역사, 고고학의 성과도 이용한다. 원시 셈어의 알파벳은 모두 29 개였으나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22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므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어근을 파악하려면 사라진(혹은 동화된) 일곱 개를 찾아야 한다. 아람어는 고전 아랍어와 현대 아랍어가 모두 28 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므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어근을 파악하는데 있어 아람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זהב**이며, 아람어 단어는 **זהב**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ז**과 아람어의 **ד**은 실질적인 어근이 아니며, 아람어 단어 **זהב**에서 실제 어근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나 빈도수가 매우 낮은 단어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셈어에 나타난 문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가장 오래된 셈어인 아카드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어근은 대부분 완료 3 인칭남성단수 형태로 표시되는 어간(stem)과 동일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그 둘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היה**, **עשה**, **ראה**, **עלה** 등 소위 라메드-헤 동사의 어간은 세 번째 자음이 **ה**이지만, 어근은 세 번째 자음이 **י**이므로 그 동사들의 어근은 **היי**, **עשי**, **ראי**, **עלי** 등이다. 소위 페-요드 동사인 **ישב**, **ידע**, **ילד** 등도 어근은 첫 번째 자음이 바브인 **ושב**, **ודע**, **ולד** 등이다(참. GKCS i30; JMK i34, 60, 88K).

≡ 어간(stem)

+ 곡용(declension), 활용(conjugation), 굴절(inflection)

르비아

rvi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예티브, 트비르, 자르카, 파쉬타 등과 함께 제 3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4 급보다는 힘이 크지만 제 1 급, 제 2 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적다(참. GKCS §15f; JMK §15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서울: 목양, 2015.

사마리아

Samaria

이스라엘의 중앙산지에 있으며 예루살렘 북쪽 약 70km 지점에 있는 도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버지인 오프리가 세멜(שֶׁמֶל)로부터 구입하여 원래 땅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히, 숨론 שֶׁמֶרֹן)라 부르게 되었다(왕상 16:24). 해발 430미터에 위치하며, 주위의 비옥한 평지보다 100미터 가량 높이 솟아 있다. 세겜에서 북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풍요한 농경지가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가 된 곳이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이후 궁전을 상아로 장식했으며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상아 장식들이 발굴되기도 했다. 주전 734-732년 앗수르 왕 티글랏 빌레셋 3세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주민들의 유배가 시작되고, 주전 722년 앗수르 왕 살만에셀의 아들 사르곤 2세에 의해 완전히 함락당했다. 그 후 헤롯 대왕이 이곳을 재건하여 로마 황제 세바스티아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개명하여 불렀던 것이 현재의 지명인 ‘세바스티아’가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된 후에 앗수르의 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사마리아성을 포함한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참. J. Murphy-O'Connor,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458-462; A. Negev, *Archaeological Encyclopedia of the Holy Land*, 447-450).

Murphy-O'Connor, J.,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Negev, A., *Archaeological Encyclopedia of the Holy Land*, New York: Continuum, 2001.

사마리아어

Samaritan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언어.

무라오까에 의하면 사마리아어는 아람어의 한 방언으로 취급되지만(JMK §2d),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시대에 따라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된 후에 사용된 이름이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 중 얼마가 포로로 잡혀가고 앗수르인들 중 어느 정도가 사마리아로 이주해 와서 살았는지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의 주언어가 히브리어였는지 아람어였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바빌론 유수 이후 바빌론 왕 다리우스 3세의 총독으로 보내진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의 아들이 결혼하면서 두 민족의 피가 섞였으므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언어는 아람어였을 것이며 바빌론 유수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주전 6세기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바빌론 유수 이후 주전 4세기말엽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사마리아인들의 경전인 사마리아 오경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마리아 오경이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적어도 문헌의 언어로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마리아 오경 외에 다른 문서들에서도 히브리어는 문헌 언어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의 복잡한 역사를 살펴볼 때 사마리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람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외에도 헬라어나 아람어도 사용하게 되었다. 빈약하지만 헬레니즘 시대의 문헌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1953년 사마리아 회당에서 주후 4세기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헬라어로 된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마시대부터 주후 11세기까지 서부아람어 방언으로 된 아람어가 보존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약 11세기경부터 아람어의 사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문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이후 사마리아 오경과 주석서를 포함한 사마리아 공동체에서의 많은 문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아람어 세가지 언어가 함께 사용되었다.(참. J. Murphy-O'Connor,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462-463; Z. Ben-Hayyim,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2000; SBCP, 163-175, F. Skolnik, *Encyclopaedia Judaica*, vol. 17, 735;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보는 성경』, 237-254).

Ben-Hayyim, Z.,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0.

Murphy-O'Connor, J.,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Skolnik, F., *Encyclopaedia Judaica*, vol. 17,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LTD., 2007.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7.

사마리아 히브리어

Samaritan Hebrew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사마리아 히브리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티베리아 히브리어보다 더 통일성이 있고, 아람어와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음운론에서의 특징은 후음들의 약화와 소멸, u와 o의 불명료한 발음, 슈바의 부재, 일부 파열음들의 마찰음화 현상, 특정 모음들의 축약과 발음 생략, 보조 모음들의 발달 등이다. 또한 후음 헤와 헤트, 치찰음 썬과 썬이 중화된 결과 사마리아 히브리어의 자음은 모두 20 개로 축소되었다. 또한 브가드크파트의 이음적 발음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형태론에서 중요한 특징은 인칭대명사에서 성서히브리어의 형태가 그대로 발견된다는 것, 지시대명사가 티베리아 전통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 동사에서 새로운 어근들이 자음 도치와 다양한 음운론 변화로 등장한다는 것, 쿰란과 성경 이후의 히브리어에서처럼 칼 수동태가 니팔로 대체된다는 것 등이다. 통사론에서는 성경히브리어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사와 관련 단어 사이에서의 성과 수, 문장에서의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문법적으로 좀 더 조화를 이루려는 흔적이 보인다. 어휘의 측면에서 보면 알려지지 않은 어근들이나 유일어귀(hapax legomenon) 등을 없애고, 보다 친숙한 표현들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참. Z. Ben-Hayyim,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2000; SBCP 163-175).

Ben-Hayyim, Z.,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0.

사마리아 서체

Samaritan script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글의 서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서체는 고대 히브리어의 서체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 발전했으며, 제 2 성전 시대의 히브리어 서체와 가깝다. 사마리아 서체의 고대 형태는 하스모니안 시대(주전 166-주전 63 년)에 사용했던 히브리어 서체와 거의 흡사하다. 사마리아 서체는 수 세기 동안 두 가지 형태- 완전한 문자(whole letter)와 절반의 문자(half letter) -로 사용되었다. 완전한 문자 형태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돌에 새겨진 비문의 형태와 동일하다. 이 형태는 사마리아 오경 두루마리와 다른 종교 문서와 공적인 문서에 남아 있다. 절반의 문자 형태는 사마리아 기도문에 필기체로 남아 있다(참. Z. Ben-Hayyim,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23-28).

Ben-Hayyim, Z.,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0.

싸메흐

Sameḥ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다섯 번째 문자.

히브리어 문자 싸메흐의 초기 형태는 불분명하다. 아랍어에서 *samak*(سَمَك)는 ‘물고기’를 뜻한다. 이 문자의 고대 남부 아랍어 서체는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이었다. 따라서 이 문자는 물고기나 물고기의 뼈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어의 X가 동일한 기원을 갖는 것으로 본다. 주전 12세기 가나안 비문에 나타난 싸메흐는 오늘날 히브리어의 모양과 거의 흡사한 것이었다. 싸메흐는 ‘6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싸메흐는 무성 치찰음(sibilant)에 속한다. 초기 히브리어에서 싸메흐와 쥘(ש)은 서로 구분되었지만(예, סָכַל 어리석다, שָׁכַל 총명하다),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두 문자를 같은 음으로 발음해 왔다. 성경히브리어의 단어에서도 싸메흐와 쥘을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예, 분노라는 뜻으로 כָּעַס와 כָּעַשׁ)(참. GKCS § 5b-d, 6o-p; JMK §5c-d, h, m; A. Yardeni, 61-63).

+ 문자(letter)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연성(連聲)

sandhi

서로 가까이 있는 음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발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현상.

연성을 뜻하는 영어 sandi 는 산스크리트어 ‘삼디’(samdhi)에서 나왔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서 ‘삼’(sam, together)과 ‘다’(dhā, to place)라는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함께 두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원래 산스크리트어 문법가들에 의해서 한 문장에서 단어들의 끝 소리와 첫 소리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변화와 단어 형성에서 어근의 마지막 소리에서 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OED). 국어 문법에서는 ‘이음소리’라고도 하며, “음소가 인접한 음소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음. 동화(同化), 탈락(脫落), 첨가(添加) 따위의 음운 현상을 겪어 나타난다”고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 a cow 의 a 가 an old cow 로 되며, I like him 에서 him 이 [him]이나 [im]으로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이정민 외). 히브리어에서는 활음조의 다게쉬(euphonic dagesh) 중 두 단어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연결 다게쉬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GKCS §20c-k; JMK §18h, 82h-k).

헬라어에서 부정하는 부사 οὐ 는 모음 앞에서는 οὐκ 가 되고, 강기식 앞에서는 οὐχ 가 된다. 전치사 ἐκ 의 경우, 모음 앞에서는 ἐξ 가 된다. 다른 전치사 ἐν 의 경우 양순음 앞에서는 ἐμ 가 되고, ἐπί 의 경우, 강기식 앞에서는 ἐφ'가 된다(PMHL 13, 44, 184).

≡ 활음조의 강점,유음적 다게쉬(dagesh euphonicum, euphonic dagesh)

PMHL: Jeffers, Robert J. and Ilse Lehiste, *Prince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he MIT Press, 1979.

산스크리트어

Sanskrit

고대 인도-아리안의 언어로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언어이며, 인구어족(Indo-European language family)의 분파 중 하나.

‘산스크리트’는 ‘함께 두다, 다듬어지다, 온전해지다’(put together, well-formed, highly wrought, perfected)는 뜻을 가진 ‘삼스크리타’(saṃskṛta)라는 단어에서 나왔다(OED).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는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힌디어(Hindi)의 조어(祖語)이다. 힌두(Hindu)라는 말은 인더스강의 원명인 Sindhu를 이란어로 부른 이름이며,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India가 되어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다.

산스크리트어는 베다(Vedas)의 언어로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보전하고 있다. 베다는 주전 1,000년 전의 제의적 본문이지만 기록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다. 산스크리트어는 시와 희곡 등 문학에서 전해지는 문학어로서 주전 4-5세기경에 규범화되어 고정되었고 일상 언어와는 독립적으로 전승되었다. 주전 4세기경에 파니니(Panini)가 문법을 정리하였다.

산스크리트어와 관련하여 일상 언어로 사용되던 구어를 프라크리트어(Prakṛit)라고 했으며, 이 구어는 산스크리트어와는 달리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여 오늘날의 여러 방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참. 김진우, 『언어』, 38, 246-265,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227-228). 산스크리트어는 풍부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예로, 명사에서 8개의 격, 세 개의 수, 세 개의 성을 가지며, 동사에는 다양한 시제, 법, 태가 나온다. 어순은 주어+목적어+동사의 순서이다(참. RDLL).

산스크리트어와 헬라어와 라틴어 사이에 친근성 가설과 규칙성 가설에 근거하여 비교 언어학을 통해 많은 동계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 세 언어 사이의 음운 대응을 통해 공통 조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조상 언어가 되는 공통 조어를 인구조어(Proto-Indo-European)라고 한다(PMHL 17-35; LSNTG 233-235).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PMHL: Jeffers, Robert J. and Ilse Lehiste,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The MIT Press, 1979.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1.

김진우, 『언어』, 서울: 탐출판사, 1985.

서체(書體)

script

글자의 모양이나 특징 및 쓰는 격식이나 양식.

성경 언어에서 서체를 거론할 때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서체와 관련하여 다룬다. 원시 가나안어(주전 18-17 세기)에서 시작하여 게셀 달력, 실로암 비문, 메사 비문 등에서 나타나는 고대 히브리어 서체(Paleo Hebrew script)가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서체는 바빌론 포로기 이후인 주전 5 세기경부터 동일한 모양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며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라고 부른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서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히브리어, 아람어 자체의 서체와 함께 고전 아람어, 나바티안어, 시리아어, 페니키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의 서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참. GKCS §5a; JMK §5b; A. Yardeni, 4-5).

헬라어 서체는 크게 대문자체와 소문자체로 나누어진다. 대문자체는 문학 작품을 위한 것이었고, 돌에 글을 새기는 데에도 사용되었지만 등글고 글쓰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10 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신약성경 사본들은 대문자체로 되어 있다. 소문자체는 흘림체이며 비문학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개인의 편지, 상업이나 법 관련 문서에 사용되었다. 바울서신은 개인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문자체로 기록되었으나, 전달될 때는 대문자체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문자 사본은 흘림체로 글 쓰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0 세기 말부터 대문자체를 대체하게 되었다(참. INTTC 36-38).

- 고대 히브리 서체(Paleo-Hebrew script), 아람어 서체(Aramaic script), 정방형 서체(square script), 히브리어 서체(Hebrew script)

INTTC: Greenlee, Haorld,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고영렬·장민석 역, 『신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연속 서법(連續書法)

scriptio continua

낱말의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든 낱말을 붙여서 쓰는 방식.

낱말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고 연달아 붙여 쓰는 오늘날에도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 있지만, 고대 문서의 경우 거의 모든 문서에서 나타난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물론 페니키아어, 우가리트어, 모압어 등의 고대 문서에서도 연속 서법은 나타난다. 메사비문이나 실로암비문과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를 점으로 구분하는 경우 단어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나 히브리어의 경우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단어를 잘못 결합시키거나 잘못 나누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예로서, 사무엘상 1 장 24 절의 ‘בְּפָרִים שְׁלֹשָׁה’에서 문자 뎀은 앞 단어가 아닌 뒷 단어에 속하여, ‘세 마리의 소들’이 아니라 ‘삼 년 된 소(한 마리)’로 보는 것이 전후 문맥에 맞다(참. GKCS §3gN; PDSBH;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26).

헬라어의 경우도 단순한 관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시작하는 글자는 크게 하고 장식하거나 세련된 글자로 표기하고 띄어 쓰기, 구두점, 구분점 등이 도입되었다(참. INTTC 36).

INTTC: Greenlee, Haorl,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고영렬·장민석 역, 『신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완전 철자법(完全綴字法)

scripto plena

히브리어의 모음문자를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는 서법.

히브리어에서 i, o, u 모음을 표기할 때 모음문자(matres lectionis) 중 **י**와 **ו**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철자법이다. 예로서, 다윗을 표기할 때 **דָּוִד**로 하지 않고 **דָּוִיד**로 표기하든지, **קל**로 표기하지 않고 **קִל**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 단어의 복수를 표기할 경우는 **קולות**와 같이 이어지는 두 음절에서 홀람이 모두 완전서법/철자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קלות**, **קולת**와 같이 어느 한쪽만 완전서법/철자법을 사용하든지(전자가 선호됨), **קלת**와 같이 모두 불완전서법/철자법으로 사용한다. 완전서법/철자법은 바빌론 유수 이후에 기록된 후기성경히브리어에서 보다 더 선호된다(GKCS §8i-l, 25b; JMK §7c, 82h-k; PDSBH).

↔ 불완전서법/철자법(defective writing)

세쿤다

Secunda

주후 3 세기 중엽에 오리겐이 완성한 여섯 개의 본문 대조 성경인 헥사플라에서 두 번째 열.

헥사플라는 오리겐이 가이사랴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15년에 걸쳐 작업한 여섯 개의 본문 대조 성경으로 주후 240년 또는 245년경에 완성한 것이다. 여섯 열의 순서는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의 그리스어 음역, 아퀼라역, 쉼마쿠스역, 칠십인역, 테오도션역이다. 이 중 두 번째 열인 히브리어 본문의 그리스어 음역을 가리켜 ‘세쿤다’라고 부른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모음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치가 인정된다(참.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45-4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66-67; E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72-73;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revised and expanded ed., 145-146).

+ 헥사플라(Hexapla), 70인경(Septuagint)

Brotzman, Elis R.,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Tov, E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revised and expande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세골 명사 어미

segholate ending

히브리어 명사 중에서 모음 ‘세골’(ֿ) 모음으로 이루어진 어미.

히브리어 명사 중 여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는 ‘-ה’와 ‘-ת’이다. ‘-ה’로 끝나는 여성 어미는 모두 ‘ֿה’이며, 세골인 ‘ֿה’로 끝나는 여성 어미는 없다. ‘-ת’로 끝나는 여성 어미는 **בַּת**, **אֵחָת**와 같이 파타흐로 끝나는 것과 **בְּרִית**, **רֵאשִׁית**와 같이 히렉으로 끝나는 것과 함께 세골로 끝나는 어미들이 있다. 여성 명사가 세골로 끝날 때는 대개 종음절 뿐 아니라 전종음절까지 세골로 구성되어 **בִּשָּׁת**, **גְּבֻרָת**, **מַמְלָכָת**, **קֶשֶׁת** 등의 어미로 끝나는 것이 많고, 전종음절이 오 모음인 홀람이 붙어 **קִטְרֶת**, **נְחֻשֶׁת**, **בִּשְׁת**, **גְּלִגְלֶת** 등의 어미가 많이 등장한다(참. GKCS §80e-f; JMK §89d-i).

+ 세골

세골 명사

segholate noun

히브리어 명사 중 두 번째 자음에서 ‘세골’(**סֵּ**) 모음을 갖는 명사.

세골 명사는 모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갖는데, 세골 명사는 모두 첫 음절에 강세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1) a 유형

이 유형은 원시 히브리어에서 qatl 과 같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경히브리어에서 격체계가 없어지면서 보조 모음 e 를 취하여 qatel 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가 두 모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qetel 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다. 즉 qatl → qatel → qetel 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세골 명사 중 이 유형에 속하는 명사가 가장 많으며,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מֶלֶךְ(왕), עֶבֶד(종), דָּרָךְ(길), כֶּלֶב(개), אֶרֶץ(땅), נֶפֶשׁ(생명/혼).

(2) i 유형

이 유형은 원시 히브리어에서 qitl 이었으나 최종적으로 qetel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סֵפֶר(책/문서), אֵדֶק(의), בֹּטֵן(옷) 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3) u(o) 유형

이 유형은 원시 히브리어에서 qutl(qotl)이었는데 최종적으로 qotel 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קֹדֶשׁ(거룩), חֹדֶשׁ(달), אֹהֶל(천막) 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세골 명사들이 복수 연계형이나 대명사 접미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원시 히브리어의 첫 모음이 살아나 מִלְכָּה(여왕), מִלְכִּי(나의 왕), סִפְרִי(나의 책), אֲדֹקִי(나의 의), קֹדְשִׁי(나의 거룩) 등과 같이 나타난다(참.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 48-49; GKCS §84a; JMK §96A).

+ 명사(noun)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 서울: 그리심, 2014.

세골 명사화

segholisation

히브리어에서 본래 세골 명사가 아닌 단어들이 세골 명사와 같은 형태를 갖는 것.

מָלַךְ, עָבַד, דָּרַךְ 등과 같은 세골 명사들은 단어에 포함된 문자들이 모두 어근이나 기본형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세골 명사화 된 것들은 기본형에서 추가되어 나타난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서, 페-요드동사의 칼부정사 형태는 שָׁבַת, לָלַח, רָדַת 등과 같이 세골 명사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여성명사의 연계형에서 많은 경우가 세골 명사화 된다. 예로서, מַמְלָכָה → מַמְלָכָת, מַרְפָּה → מַרְפָּחַת, עֵטְרָה → עֵטְרַת 등이다(참. JMK §72d, 97Fa).

세골

segol

히브리어의 모음 중 에(e) 음가를 갖는 것으로 자음의 아래에 ֿ로 표기한 것.

성경 시대에는 히브리어 모음의 음량이 달랐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를 때 세골은 단모음 에(e) 음가를 가졌을 것이며, 반면 켄레는 장모음 에(ē) 음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음량의 차이가 아닌 음색(혹은 음질)의 차이를 가진 티베리아의 모음 체계에서는 세골과 켄레의 차이는 혀의 높낮이의 차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켄레는 우리말의 ‘에’(영어의 ‘e’)에 가깝고 세골은 우리말의 ‘애’(영어의 ‘æ’)에 가까웠을 것이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세골과 켄레 사이에 발음상의 차이가 없다(참. GKCS §8a, 9m; JMK §6a-n).

+ 모음(vowel)

의미론(意味論)

semantics

언어의 의미(meaning)를 단어의 어원(etymology), 폭(semantic shift), 역사적 변화(sematic shift), 다양한 형태들과 파생어들, 문장 안에서 계열 관계 및 결합 관계, 역사적 의미(diachronic)와 문헌의 통일성 속의 의미(synchronic) 등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방법론.

의미론이란 영어 semantic 은 헬라어에서 ‘의미 심장한’(significant)이란 단어 세만티코스(σημαντικ-ός)에서 나왔다(동사형, σημαίνειν, to show, signify). 전통 문법은 음운론(phonology)과 통사론(syntax)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 이에 반하여 의미론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단어와 실체의 관계를 살핀다. 즉, 언어의 표현과 실제 세계에서 그에 대한 대응물과의 관계를 연구하게 된다. 여기서 지시어(reference)와 지시물(referent)의 관계에 대한 담론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성경해석에서 한 단어의 다양한 의미가 간과되고 또한 문맥까지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단어의 동의어, 반의어, 연관어 등을 찾는 ‘어휘 의미론’(lexical semantics)가 발전하게 되었다. 성경해석에서 단어 연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오용하여, 한 단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신학화 하는 오류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의미의 ‘부적절한 전체적 전가’(illegitimate total transfer)라는 문제를 의미론에서는 다루게 되었다. 특히 단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현상(sematic shift)을 발견하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 해석하는 ‘통시적 해석’과 본문의 통일성 속에서 해석하는 ‘공시적 해석’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한 단어의 의미는 문장 안에서 결정되므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절(clauses)과 텍스트(texts)의 상호 관계를 살피게 되었다. 또한 문장 안에서 단어들은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갖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현상도 찾아내게 되었다.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각각 특색 있는 의미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리하여 지시의미론(referential semantics), 종합의미론(synthetic semantics),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 심리주의 의미론(mentalistic semantics), 행동주의 의미론(behavioristic semantics), 화용의미론(pragmatics) 등 다양한 분야가 생겼다.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을 구별하여 어휘의미론과 형식의미론으로 나누기도 한다. 어휘의미론에서는 동의어, 다의어, 동음어, 반의어 등 단어 자체의 연구와 의미의 변화 등을 다룬다. 형식의미론에서는 형식논리체계를 기초로 하여 문장들의 진리조건과 함의관계를 다룬다. 문장이 실제로 쓰이는 환경과 실세계에 대한 지식에 따른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는 화용론(pragmatics)을 의미론의 한 분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모세 실바, 『성경 어휘와 그 의미-어휘 의미론 서론』, 김정우·차영규 역; 김진우, 『언어』, 210-244, 김방한 외, 155-216; 이익환, 『의미론개론』; 심재기 외, 『의미론서설』).

+ 언어학(linguistics)

- 어휘 의미론(lexical semantics),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 지시어(reference), 지시물(referent)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1.

김진우, 『언어』, 서울: 탐출판사, 1985.

모세 실바, 『성경 어휘와 그 의미-어휘 의미론 서론』, 김정우·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심재기, 이기용, 이정민, 『의미론서설』, 서울: 집문당, 1989.

이익환, 『의미론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5.

이정민 외: 이정민 외, 『언어학사전』, 제 3 판, 서울: 박영사, 2000.

조성식 외: 조성식 외, 『영어학사전(A Dictionary of English Linguistics)』, 서울: 신아사, 1990.

셈어

Semitic/semitic language

고대 근동 아시아 전역에서 공통된 언어적 특징을 갖고 있는 고대 셈족의 언어.

게제니우스에 의하면 셈어라는 말은 Eichhorn에 의해 1781년 최초로 사용되었다(GKCS §1aN). 셈어에서 가장 오래된 셈어는 아카드어이다. 셈어는 지리적인 구분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북셈어/동부셈어(northeast Semitic/east Semitic), 서북셈어(northwest Semitic), 남부셈어(south Semitic)로 나뉜다. 동북셈어에는 최초의 셈어인 아카드어와 에블라어가 속해 있다. 서북셈어는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사용된 언어로 고전 히브리어,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모압어, 암몬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남부셈어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로 아랍어와 에티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함족의 언어인 함어는 셈어와의 차이점 때문에 독자적인 이름을 사용하지만 셈어와의 유사성이나 함어의 기원과 관련지어 셈어와 함어를 합쳐 함셈어(Hamito-Semitic)로 부르기도 하며 아프리카-아시아어로 부르기도 한다.

셈어의 중심 특징으로, 발음에 있어서 인두음과 후음 자음이 나오고, 동사 형태는 완료와 미완료의 두 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 완료, 미완료의 모든 시제들과 또한 다양한 시상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세 자음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 수, 격의 변화가 있으며, 명사형은 특히 연계형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참. JMK i1a-n, 2k; JMK i2a-k; SBCP 26-27, 35, 45-48; C. Rabin,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 [written in Hebrew], 143-148).

– 동북셈어(northeast Semitic), 서북셈어(northwest Semitic), 남부셈어(south Semitic)
 ≡ 함어(Hamitic)

Rabin, C.,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1.

준-모음적 자음(準子音的母音)

semi-vocalic consonant

모음의 성격을 띠는 자음.

반모음(semivowe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j, w 등이 모음과 함께 올 때(주로 모음 뒤에서) 이중모음이 되어 모음처럼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어에서 준-모음적 자음은 ו and י이다. 이 두 자음은 모음과 결합하거나 탈락하면서 자음의 성격을 상실하고 모음의 성격을 가진다. 접속사 ו that 수바(וּ)나 순음(ב, מ, פ) 앞에 오면 וְשִׁלְשִׁים, וּבֵין, וּמֵן, וּפֶרַח와 같이 자음의 성격을 상실하고 모음처럼 취급된다. 또한 절대형에서는 מִן로 자음이던 것이 연계형이 되면 מִן가 되어 모음으로 취급된다. 요드의 경우 אֵין, סוֹסִינוּ, בִּימִי, יֵשׁ, יָלַד 등에서 모음처럼 취급된다(JMK 126; PDSBH; 조성식 외).

헬라어에서 준-모음적 자음은 ι (Ιούδα), υ (Δαυίδ), ρ (Παῦλος)이다(참. LSNTG 59-60).

+ 자음, 모음
= 전이음(glide)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의미(意味)

sense

한 단어에서 화자/저자가 청자/독자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한 단어가 어떤 대상물인 지시물(referent)을 가리키는 것을 지시(어)(reference)라고 한다면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sense)라고 한다. 그래서 의미는 내포(connotation)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지시(reference)와 의미(sense) 두가지 개념을 합쳐서 의미(meaning)라고 부른다.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음 이의어뿐 아니라 의미 영역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화자의 의도와 여러 상황에 따라 화자가 의도했던 것이 문장 안에서 불분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조직에 대한 분석부터 전후문맥, 이름과 뜻과의 관계, 논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이정민 외; 조성식 외; 김진우, 『언어』, 210-218, 김방한 외, 155-216).

김진우, 『언어』, 서울: 탐출판사, 1985.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1.

문장(文章)

sentence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 단위.

문장을 가리키는 영어 sentence 는 라틴어 sententia (견해, 격언, 사고방식)에서 나왔다. 문장은 ‘완결되고 독립적인 사상’(complete and independent)을 전달하는 최소 단위이다(PDSNTG). 즉, 어휘나 구나 절이 의미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문장이 모든 의미의 기본 단위가 된다. 문장보다 더 큰 의미의 단위는 ‘담론’(discourse)과 ‘장르’(genre)가 된다.

구문적으로 볼 때 문장은 주로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지만, 언어에 따라 하나의 단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 예로, 라틴어 algeo, “나는 춥다”를 들 수 있다(OED). 한국어에서도 주어나 술어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될 수 있다. 예로,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이다(표준국어). 그렇지만, 주어와 술어를 포함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비문이므로 그 구성 성분이 서로 문법적으로 정상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다. 문장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은 절의 상위 개념으로 주절로만 된 문장이 있고 종속절을 포함한 문장이 있다. 그래서 문장은 유형적으로, ‘단문, 중문, 복문’으로 나누어지며, 기능적으로는 ‘진술, 질문, 명령, 감탄’을 전달한다(CDEG).

또한 문장은 형식상으로 볼 때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완전 스톱으로 마친다(ODEG). 그러나 이러한 형식상의 정의는 히브리어와 같이 문장 부호가 나타나지 않는 고대 언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히브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술어가 명사나 그 상당어구이면 명사문장으로 부르고, 술어가 정동사(finite verb)이면 동사문장으로 부르지만 이러한 문장의 이분법적 구분은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술어가 분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명사문장으로 분류하지만, 서술적 기능을 갖는 분사가 사용된 경우 의미적으로는 동사문장에 가깝기 때문에 명사문장으로 부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존재사(שׁ או אִין)가 들어간 문장이나 ‘תָּהָא’가 들어간 문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명사문장과 동사문장 모두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분법적 문장 구분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참. GKCS §140; JMK §153; R. Huddliston and G.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22, 1728; 서정수, 28-33; 송창선, 3-8, 97-100).

Huddliston, R. and G.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2006.

송창선, 『국어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0.

분리모음(分離母音)

separating vowel

히브리어에서 특정 자음(**ג**, **ת**)으로 시작되는 어미 형태소와 어간의 음절 사이에 삽입되는 모음.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분리모음은 제2중복동사(아인-중복동사, **ע"ע** 동사)와 제2바브동사(아인-바브동사, **ע"ו** 동사)에서만 나타난다. 완료에서는 **i**로 나타나고, 미완료에서는 **i̇**로 나타난다. 동일한 현상의 모음을 게제니우스는 분리모음으로 표현하는 반면, 무라오카는 연결모음(linking vowel)으로 표현한다(참. GKCS §67d, 72i; JMK §80b, 82a).

제2중복동사에서의 예: **סָבֹנוּ**, **סָבֹנוּ**, **תִּסְבְּיָנָה**

제2바브동사에서의 예: **תְּקוּמִינָה**, **תְּבִיאִינָה**, **נְקוּמוֹתַי**, **הַקִּימוֹת**

70 인경

Septuagint

주전 3-1 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 인경의 유래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프톨레미 2 세 필라델푸스(주전 285-246 년)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당시의 편지임을 드러내기 위해 당시 관리로 있던 그리스인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편지에 의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 여섯명씩 총 72 명을 뽑아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어 율법을 번역하게 한다. 그 후 72 일만에 번역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주후 1 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내용과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70 명 혹은 72 명의 장로들이 각각 따로 작업을 한 후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완전히 일치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나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것들과 과장된 내용이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보인다. 정확하게 몇 명이 번역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주전 3 세기경 율법서와 시편이 먼저 번역되고, 그 후 주전 2 세기, 혹은 1 세기경에 예언서와 성문서의 번역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하여 헬라어를 사용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70 인경은 히브리어 성경 못지 않은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유대인은 물론 초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초대 교회의 교리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기독교에서 70 인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자 유대교에서는 70 인경을 거부하고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다듬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 이후 주후 4 세기부터 70 인경은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어 동방 정교회에서만 사용하게 되었다. 70 인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헬라어의 문체를 무시하면서까지 히브리어의 어순을 매우 중요시하여 문자번역에 가까운 번역들이 많이 발견되어 원본을 찾아가는 사본학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된다.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역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구약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신약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신약 연구에도 요긴한 자료가 된다. 70 인경의 사본은 총 400 개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본은 주후 5 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주후 4 세기경의 바티칸 사본, 그리고 시내 사본이다. 70 인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는 Emanuel Tov 와 Frank Polak 이 2004 년에 공동으로 작업한 CATSS(the Computer-Assited Tools for Septuagint Studies Project)라는 것이다. 그 자료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기록된 모든 단어에 대한 70 인경의 헬라어 대응 단어를 제시하고 오늘날 남아 있지 않은 70 인경의 저본(Vorlage)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까지 제시해 준다. 70 인경이라는 말은 최초의 번역본을 반영하지 않고 후대의 사본이나 개정본만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초의 번역본은 고대 그리스 번역(the Old Greek, OG)이라고 구분하여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참.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31-42;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64-68; Elis R. Brotzman,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68-70;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34-142).

70 인경은 신약성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70 인경의 헬라어 어휘가 신약성경에 그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문법도 셈어적 영향을 받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신약의 저자들이 히브리 성경보다는 70 인경을 더 많이 인용하기도 함으로써 큰 영향을 미쳤다.

≡ 콤란(Qumran), 마소라(masora)

Brotzman, Elis R.,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 Practical Introduc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 이창배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Tov, Emma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97.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연속(連續)

sequence

문장에서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것, 혹은 독립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는 것.

영어 *sequence* 는 라틴어에서 ‘뒤따르다’(to follow)를 뜻하는 단어(*sequi*)에서 나왔다. 원래는 라틴어 문법에서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의존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주로 동사에 사용되고, 명사의 성, 수, 격, 인칭의 일치를 다루는 용어인 *concord* 와 구별되며, 이 둘을 합하여 ‘일치’(agreement)라고 부른다(CDEG). 영문법에서 스위트(Sweet)는 좀 더 확장하여 “두 개 이상의 독립문이 접속사 없이 복문이나 중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관계로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고, ‘반의연속’(adversative sequence)과 ‘인과연속’(causal sequence)라는 범주로 나누었다(조성식 외).

언어학에서는 추상적인 측면에서의 순서(order)와 구별하여 좀더 표면적인 관계를 지칭할 때 쓰기도 하고, 두 개(혹은 이상)의 독립문이 접속사 없이 복문이나 중문과 같은 논리적 관계로 결합된 것을 뜻하기도 한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 용어를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모음의 배열순서, 자음의 배열순서, 성(gender)의 배열순서, 책의 배열순서, 문장의 배열순서를 가리킬 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한다. 특히 문장의 어순을 가리킬 때는 순서(order)와 상호교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GKCS § 142f, 156bN). 또한 동사의 미완료에 대한 설명에서 시간적으로/계속적으로, 혹은 논리적 연쇄로 일어나는 동작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다(참. GKCS §15d, 26i, 47aN, 49b, 111o, 145t; JMK §17b, 21i, 26b, 39c, 53a, 73b, 104d, 117c, 118k, 129a, 155n, 160b, 174h).

≡ 일치(agreement)

ჟერე

šere

히브리어의 모음 중 에(ē) 음가를 갖는 것으로 자음의 아래에 ׀로 표기한 것.

성경 시대에는 히브리어 모음의 음량이 달랐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를 때, ჟერე는 장모음 에(ē) 혹은 에(ē) 음가를 가졌을 것[가장 긴 에(ē) 음가는 대개 요드와 함께 ׀로 쓰였음]으로 본다. 반면 쟈골은 단모음 에(e) 음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음량의 차이가 아닌 음색(혹은 음질)의 차이를 가진 티베리아의 모음 체계에서는 ჟერე와 쟈골은 혀의 높낮이의 차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ჟერე는 우리말의 ‘개’(영어의 ‘ε’)에 가깝고, 쟈골은 우리말의 ‘하’(영어의 ‘æ’)에 가까웠을 것이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ჟერე와 쟈골 사이에 발음상의 차이가 없다(참. GKCS §8b, §9i-l; JMK §6a-n).

+ 모음(vowel)

세투마

setumah

한 단락의 끝을 표시하는 기호.

마소라 사본에서 한 단락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다음 단락이 시작하는 지점에 히브리어 싸멕(פ)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간이 부족할 때는 뒤따르는 절 앞에 둔다. 예로, 레닌 그라드 사본을 보면 창세기에서 세투마는 2:3, 3:22, 5:1 을 시작하는 부분의 난외에 큰 글씨로 나오고 있다. 이 기호들은 BHS 에서 반영되고 있다.

↔ 페투하(פְּתוּחָה)

샬셰레트

shalshelet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 2 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샬셰레트는 사슬을 의미하며, 모양도 사슬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자첩 카톤, 자첩 가돌, 티프하, 쉼골 등과 함께 제 2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1 급보다는 힘이 적지만, 제 3 급과 제 4 급보다는 힘이 크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더 많다. 그러나 이 악센트는 제 2 급에 속하는 다른 악센트와는 달리 매우 빈약하게 출현한다. 이 악센트가 올 때는 주로 절의 처음에 세로로 된 중지 기호와 함께 등장한다(참. GKCS §15f; JMK §15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171-176).

창 39:8

וַיִּמְאָז | וַיֹּאמֶר אֶל-אִשְׁתּוֹ אֲדֹנָי

그가 거절했다. 그는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샤펠

shaphel

성경아람어에서 사역능동인 하펠에 속하는 유형.

하펠(haphel)은 성경아람어 동사의 6가지 유형 중 단순능동인 페알(61%) 다음으로 많이 출현한다(17%). 하펠 유형 안에서 아펠(Aphel)이 약 16% 출현하고, 샤펠(shapel)은 약 8% 정도 출현한다. 아카드어에서 사역형은 접두어 ‘쾰’(ש)이 붙으므로 성경아람어의 ‘샤펠’은 아카드어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히브리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드물게 등장한다. 예로서, 명사 שְׁלֶהֶבֶת(불꽃)는 아람어 동사 להב(불타다)의 샤펠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참. 권성달, 『성경아람어울판』, 61-63, 119; S. A. Kaufman, *The Akkadian Influences on Aramaic*, 123-124; J. Huehnergard, *A Grammar of Akkadian*, 2005; GKCS §55i)

Huehnergard, J., *A Grammar of Akkadian*, Winona Lake: Eisenbruns, 2005.

Kaufman, S. A., *The Akkadian Influences on Arama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권성달, 『성경아람어울판』, 목양, 2012.

중첩음절(重疊音節)

sharp syllable

히브리어에서 다음 음절을 시작하는 자음과 동일한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

중첩음절의 폐음절에 강세가 없다면 대부분 원래의 단모음과 함께 온다. אָמִי, כָּלוּ, קָטַל 등이 중첩음절의 예이다. 강세가 없는 경우 קָלוּ와 같이 단모음과 함께 올 수도 있고 הָמָה, שָׁמָּה 등과 같이 장모음을 가질 수도 있다(참. GKCS §9h, 26q; JMK §6i)

+ 음절 (syllable)

שׁ

Shin

히브리어 알파벳의 스물한 번째 문자.

원시 가나안어의 알파벳을 살펴볼 때 히브리어 문자 ‘שׁ’은 활 모양이나 떠오르는 태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자는 주전 12 세기경의 가나안 비문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위아래로 세워진 모양으로도 나타나며,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채택하여 Σ 모양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영어의 S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שׁ’은 '30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שׁ는 무성 치찰음(sibilant)에 속한다. 이 문자가 처음 사용되던 시기에는 שׁ와 שׁ의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는 23 개가 아닌 22 개로 본다. 초기 히브리어에서 싸메흐와 שׁ(שׁ)의 발음은 서로 구분되었지만(예, סכל 어리석다, שכל 총명하다),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두 문자를 같은 음으로 발음해 왔다. 성경히브리어의 단어에서도 싸메흐와 שׁ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예, 분노라는 뜻으로 כעס과 כעס)(참. GKCS §5b, 6o-p; JMK §5c, h, m; A. Yardeni, 79-81).

+ 문자(letter)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두 번 연달아 올 때에는 둘 다 무성 슈바이다(참. JMK_i 8a, b; GKCS_i 10f-h; JMK_i 9a-d, 22a-d; 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18-21).

치찰음(齒擦音)

sibilant

혀의 앞쪽 끝과 잇몸 앞쪽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나오는 파찰음이나 마찰음의 하위 분류.

영어 sibilant 는 라틴어에서 ‘쉬하는 소리를 내다(to hiss), 휘파람 소리를 내다(whistle)’라는 뜻을 가진 단어(sibilāre, sibilant)에서 나왔다(OED). “조음방식을 기초로하여 언어음을 분류할 때 쓰이는 음성학의 용어로서 마찰음(fricative)중 설단(tongue blade)과 치경(alveolar ridge)의 뒷부분이 좁혀져서 조음되는 음으로 1 초 동안의 진동수가 많은 음이다”(조성식 외). 영어에서는 마찰음 [f] [v], [θ] [ð], [s] [z], [ʃ] [ʒ] 가운데, [s] [z], [ʃ] [ʒ] 음을 치찰음이라 하고, [f] [v], [θ] [ð] 는 비치찰음이라고 한다(참. 조성식 외 1125; RDLL 1073).

히브리어에서는 **ס**(유성 치음의 치찰음), **צ**(무성 치찰음), **שׁ**(무성 치찰음), **שׂ**(무성 치찰음), **שׁ**(무성 연구개 치찰음)를 들 수 있다(JMK i5c)

헬라어에서는 σ 가 무성 치찰음이고 ζ 가 유성 파찰음에 해당한다(참. LSNTG 64-65).

+ 음성학(phonetics)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기호(記號)

sign

실제 세상에 있는 대상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인지적 신호(signal), 지표(index), 상징(symbol)을 가리키며,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기호로 보는 것.

영어 sign 은 라틴어에서 ‘표시’(mark, token)를 뜻하는 단어(signum)에서 나왔다(OED). 일반적으로 기호란 실제하는 어떤 것(B)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대치하는 것(A)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기호’로서 어떤 증상 같은 것과 ‘인위적 기호’로서 관습에 따라 어떤 표상이나 상징을 만드는 것이다(RDLL). 문법에서 기호는 주로 ‘언어학적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장을 연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따르면 언어학적 기호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1) 언어 기호의 양면성. 언어 기호에는 음성학적으로 혹은 음소적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기호(material sign)인 기표(記標, signifier, signifiant)와 언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기호로 표시하는 개념적인 기호(conceptual sign)인 기의(記意, signified, signifié)가 있다. (2) 언어 기호는 자의성(arbitrariness). 의미의 기표로 작용하는 어떤 소리와 그 소리가 나타내는 개념(記意)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으로서, 어떤 개념은 여러 언어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언어 기호의 선적인 흐름(linearity). 언어 기호는 전적으로 오직 시간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신호(signal)이다.

이와 같이 기호 이론은 (1) 기호와 다른 기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통사론(syntax), (2) 기호와 의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의미론(semantics), 그리고 (3) 기호와 기호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어용론(pragmatics, 語用論)으로 구별된다(RDLL; IBHS §3.2.1; 이정민 외).

– 기표(記標) (signifiant), 기의(記意) (signified)

기의(記意)

signified

기표가 부여한 의미를 가진 기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만든 용어(불어, signifié)로서, 기표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 즉 실제적인 의미를 말한다. 언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기호로 표시하는 개념적인 기호(conceptual sign)라고 할 수 있다(RDLL; IBHS §3.2.1; 이정민 외).

+ 기호(sign)

↔ 기표(記標) (signifiant)

기표(記標)

signifiant

표현된 의미를 뜻하는 기의(記意)와 대조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

소시르(Ferdinand de Saussure)의 언어 기호에 관련된 용어인 signifier 의 불어 용어이다. 기표(記標)는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청각 영상으로 의미(signifié)를 전달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문자 기호로 표시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갖거나 또는 전하는 것, 즉 기호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어들, 단어들의 그룹들, 문장들이 모두 기호가 된다(RDLL). 또한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혹은 음소적으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기호로 표시하는 대상 지시 기호이며, 실질적인 기호(material sign)라고 말할 수 있다(RDLL; IBHS §3.2.1; PDSBH; 이정민 외).

+ 기호(sign)

↔ 기의(記意) (signified)

기호의 의미작용(記號意味作用)

signification

기호가 다른 사물의 뜻을 나타내는 관계.

소쉬르가 확립한 현대 언어학에서 기표(記標)와 기의(記意)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예로, “내가 새 차를 샀다”고 할 때, ‘새 차’라는 말은 기표이며, 내가 가리키는 새 자동차는 기의가 된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인위점을 지적하였다.

≡ sign(기호), semiotics(기호학), signifier, significant(기표), signified, signifié(기의)

실로암 비문

Siloam inscription

기원전 7-6 세기경 유다의 히스기야(Hezekiah)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고대 히브리어 산문’으로 쓰여진 실로암 비문.

이 비문은 현재 예루살렘 성전 산의 실로암(실완, Silwan) 남쪽, 아랍 골짜기(Arab village)에 있는 히스기야의 터널(Hezekiah's tunnel)이라고 불리는 입구, 아래쪽에 새겨져 있었다. 이 비문의 내용은 앗시리아 산헤립 대왕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물수로 사용되었던 터널(왕하 20:20, 대하 32:30)을 뚫었던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1880 년에 발견되었으며, 불법적으로 옮기다가 깨어졌고 지금은 이스탄불에 있는 고대 동양 박물관(the Museum of the Ancient Orient)에 소장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터널이 뚫렸을 때. 이것이 터널이 뚫린 이야기이다. 각자가 그의 동료들 향하여 여전히... 도끼를... 하고 있을 때, 세 규빗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른쪽 (과 왼쪽에) 바위가 중첩되어 있었다. 터널이 뚫렸을 때, 채석 인부들이 (바위를) 쪼갤 때, 서로가 서로를, 도끼가 도끼를 향했다. 그리고 샘에서 물이 흘러 1200 큐빗 거리에 있는 저 수조로 흘렀다. 채석 인부들의 머리 위에 있는 바위의 높이는 100 큐빗이었다”.

+ 비문(inscription), 히브리어 서체(Hebrew script)

직유(直喩)

simile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유사성에 근거하여 비교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혹은 새롭게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

직유는 어떤 것을 묘사함에 있어서 “비교와 대비의 대상을 명시하면서,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전제하여”(조성식 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비교 되는 것을 명확하게, 혹은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때 “표현하는 대상을 ‘원관념’(tenor)이라고 하며, 비교하는 대상을 ‘보조 관념’(vehicle)이라고 부른다”(참.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연습,” 33). 영어에서는 항상 as, like, so 등과 같은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며, 우리 말에서는 ‘~같이, ~처럼’ 등의 형태가 쓰인다. 직유는 비교하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비교 되는 사물의 의미가 달라진다. 예로서, 사자(lion)가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는 사자의 힘과 위엄을 부각하지만(계 5:5), 사단을 비유할 때는 그의 잔혹성을 가리킨다(벧전 5:8). 일반적으로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כּ과 같은 접두된 전치사로 사용되어 표현된다.

창 3:5

וְהָיִיתֶם כְּאֱלֹהִים יְדַעַי טוֹב וָרָע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시 1:3

וְהָיָה כְּעֵץ שֶׁתּוֹלַע עַל-פִּלְגֵי מַיִם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 7:3[한 7:2]

כִּי-יִטְרֹף כְּאַרְיֵה נִפְשֵׁי פֶלֶק וְאִין מַצִּיל:

건져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사자같이 나를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헬라어는 ὁμοίως 와 ὥς 가 있다. ὁμοίως 는 형용사로 비교 대상을 여격 명사를 취한다. ὥς 는 접속사

계 21:11

ὁ φωστὴρ αὐτῆς ὁμοίως λίθῳ τιμιωτάτῳ

그것의 빛은 귀한 보석과 같다

ὁμοίως 가 여격을 취하면서 직유를 나타낸다.

고전 13:11

Ὅτε ἤμην νήπιος, ὥς νήπιος ἐλάλουν

내가 아이였을 때,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다.

ὥς 가 직유를 나타낸다.

≡ 은유법(metaphor)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 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8 (2014), 31-50.

단수(單數)

singular

하나의 실체(사람, 사물 등)를 나타내거나 가리키는 단어 혹은 문법적 형태.

영어 singular 는 라틴어에서 ‘홀로, 하나, 개인’(alone, single, individual)을 가리키는 단어(singulāris)에서 나왔다. 단수는 ‘수의 하부 범주’로서(RDLL) 복수와 대비된다. 문법에서는 주로 명사에 사용되지만, 그 명사를 받는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에도 사용된다.

영어에서는 단수가 실제로는 하나 이상을 가리키는 집합단수, 총칭단수, 배분단수로 사용된다. (1) 집합단수(collective singular)란 복수성이 강하게 의식되는 집합복수(collective plural)에 반해 단일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동사나 대명사도 단수에 일치되는 집합명사(collective noun)의 수를 집합 단수라고 부른다. 이 경우 집합단수는 보통명사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때로 복수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2) 총칭단수(generic singular)란 총칭복수에 비해 단수형으로 하나의 종류, 종족을 총체적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화 시키는 진술’에 사용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의 ‘사람’과 같은 것이다. (3) 배분단수(distributive singular) 배분적, 개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수를 뜻하며, 형태가 없는 추상성을 내포하는 명사의 경우, 둘 이상의 형용사적 수식어를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참. 조성식 외).

히브리어는 문법적인 단수를 가산명사(countables), 집합명사(collectives), 종속(種屬)명사(class nouns)에서 사용한다. 단수 명사들은 여러가지 구조들로 반복될 수 있다. (1) 가산명사에서 단수는 하나의 목적어나 전체로서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목적어로 셀 수 있다. 가산명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별적인 것(individual)으로서 지시대상을 나타낸다. (2) 집합명사로서 단수는 한 그룹(group)을 가리킨다. (3) 종속 명사로서 단수 명사는 하나의 특별한 부류(class)나 그룹(group)을 가리키는 한 단수 명사와 함께 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시문에서는 관사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단수는 양을 나타내는 용어나 כל 뒤에서, 종족들, 그리고 여러가지 표현들로 사용된다(IBHS §7.2.1-7.2.2).

(1) 가산명사(countables)의 단수 (IBHS §7.2.1)

창 29:21

הָבָה אֶת־אִשְׁתִּי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창 1:2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 37:15

וַיִּמְצָאֵהוּ אִישׁ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았다(만났다)

(2) 집합명사(collectives)의 단수

תְּדַשָּׂא הָאָרֶץ דָּשָׂא עֵשֶׂב מִזֵּרֵעַ זָרַע

땅은 씨 맺는 식물을 내라

(3) 종속 명사의 단수

왕상 20:1

וּשְׁלֹשִׁים וּשְׁנַיִם מְלָדִים

왕 32 명

출 34:23

כָּל־יְכוּרָהּ

모든 너희 남자는

잠 11:14

בְּרֹב יוֹעֵץ

조언자가 많으면

수 1:12

וְלִרְאוּבֵנִי וְלִגְדִי וְלִחֲצִי שֶׁבֶט הַמְּנַשֶּׁה אָמַר יְהוֹשֻׁעַ לְאַמֶּר: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집합 명사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를 취한다. 그러나 개별성을 강조할 때는 복수 동사를 취하기도 한다(W 400-401; R 403-404).

눅 8:30 (R 404)

δαιμόνια πολλὰ εἰσῆλθεν εἰς αὐτόν

많은 귀신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집합 명사인 중성 복수 주어가 단수 동사를 취했다.

막 3:32 (R 404)

ἐκάθητο περὶ αὐτόν ὄχλος

그의 주위에 군중이 앉아있었다.

집합명사인 남성 단수 ὄχλος가 단수동사를 취했다.

눅 6:19 (W 401)

πᾶς ὁ ὄχλος ἐζήτουν ἅπτεσθαι αὐτοῦ

온 군중이 그를 만지려고 하고 있었다.

양화사가 첨가된 집합명사가 복수 동사를 취했다. 개별성이 강조되었다.

마 21:8 (R 404)

Ὁ δὲ πλεῖστος ὄχλος ἔστρωσαν ἑαυτῶν τὰ ἱμάτια

그리고 아주 많은 군중이 자신들의 옷들을 폈다.

집합명사 ὄχλος가 복수 동사를 취했다. 개별성이 강조되었다

↔ 복수(plural)

+ 수(numeral)

자음의 연음화

softening of consonant

발음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음의 소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것.

히브리어에서는 브가드크파트(Begadkepat) 글자의 경우 그 글자 다음에 개음절이 따라나와서 다게쉬 레네가 생략될 때에 소리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PDSBH 156, 181).

≡ 자음의 약화(weakening of consonant)

유성음(有聲音)

sonant

발음을 할 때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떨려 올라나는 소리.

유성음을 뜻하는 영어 sonant 는 라틴어에서 ‘소리내다’(to sound)라는 단어 sonāre 에서 나왔다. 국어에서는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 국어의 모든 모음이 이에 속하며, 자음 가운데에는 ‘ㄴ’, ‘ㄷ’, ‘ㄹ’, ‘ㄴ’ 따위가 있다”고 한다(표준국어대사전). 히브리어에서 유성음으로는 ν , γ , μ , λ , ρ , ζ 등이 있다.

헬라어에서 유성음은 β , δ , γ , μ , ν , ρ , λ , ζ 가 있다(LSNTG 56).

= 유성음(voiced)

↔ 무성음(voiceless)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남부셈어

south Semitic

셈어의 남부 그룹

일반적인 견해는 기원전 삼천 년 전에 셈어 지역에 첫 분열이 일어나서 북동 셈어(아카드어)가 다른 셈어들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본다. 기원전 이천 년 전에 서쪽 셈어가 이미 북부와 남부 두 개의 가지로 분열되었을 수 있다. 이천 년대 말에 가나안어와 아랍어 그룹이 서북 셈어에 등장했다. 남쪽에서는 아랍어(북부 아라비아어)와 남부 아라비아어, 에티오피아어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났다. 마침내 이 가지들은 저마다 오늘날의 언어들과 방언들로 진화했다. 남 셈어 그룹의 확실성에 대한 논의도 여전하다. 어떤 학자들은 아랍어가 기원적으로 가나안어, 우가리트어, 아랍어와 관련이 있다는 그다지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남아라비아어와 에티오피아어가 북동 셈어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남쪽 지역 내에서 가장 초기의 남쪽 아라비아 비문들은 주로 기원전 8-5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방언에는 기원후 천 년경에 사라진 사바어(Sabaeen, 아라비아의 옛 왕국 사바의 언어-역자 주), 미네아어(Miaean), 하드람어(Hadrami)가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메흐리어(Mehri)와 슈하우리어(Shahawri) 등의 언어들도 같은 어족에서 나온 한 분파를 대표한다.

아프리카 동쪽의 해안 지역은 남부 아라비아가 식민지로 개척하여 게에즈어(Ge'ez, 기원후 3-12세기) 같은 에티오피아 방언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는 게에즈어에서 티그리나어(Tigrina)와 티그레어(Tigre)가 나왔다. 남쪽에서는 암하리어(Amharic, 기원후 14세기에 첫 자료가 등장한다.)와 기원이 불분명한 하라리어(Harari)와 구라즈어(Gurage) 같은 다른 방언들을 주목해야 한다(SBCP 31-35).

+ 셈어(Semitic)

발화행위(發話行爲)

speech act

말이 발화되는 순간 어떤 동작을 실행하고 수행한다는 것.

전통문법에서는 개체 단어나 문장의 성분을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로 보지만, 발화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화행론(話行論)은 “발화가 이루어질 때의 사회적인 행동 혹은 상호간의 행동”에 초점을 가진다(ODEG). 이 이론은 원래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의 의미는 ‘용법’에 있다는 언어철학과 모든 발화(utterance)는 행위를 수반한다는 언어의 수행적 측면을 강조한 오스틴(J. L. Austin 1962)과 그 이후에 이 관점을 더욱 발전시킨 설(J. R. Searle 1969)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오스틴은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나 촘스키(Chomsky)의 언어학이 지나치게 언어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언어 표현을 문맥에서 고립시켜 분석하였다고 보고, 모든 발화는 행위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언어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실제 상황 속에서 언어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이론을 화행론(話行論)이라고 한다. 예로, “내가 보증한다, 용서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행동이 된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바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화행론(話行論)은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의 범주로서 일반 통사론, 의미론과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Austin, Seale 등), 생성의미론자들(Ross, Lakoff 등)은 이것을 일반문법 속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서 수행적 분석(performative analysis)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론 자체 내의 많은 통사적 의미론적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화행론의 발화수반행위의 분류 및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 문법(grammar)

≡ 의미론(semantics)

마찰음(摩擦音)

spirant

“입 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표준국어대사전).

마찰음을 뜻하는 영어 spirant 는 라틴어에서 ‘숨쉬다’(to breathe)라는 단어(spirare)에서 나왔다. 즉, 숨을 쉬면서 생기는 마찰에서 나온 음이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부조음기관과 하부조음기관 사이에서 배기의 통로가 좁게 되어 마찰이 일어나 생기는 자음으로서 계속음(continuant)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조성식 외). 국어에서는 ‘스’, ‘쓰’, ‘흐’ 따위이다(표준국어).

히브리어에서는 브가드크파트(Begadkepat) 글자의 경우, 다게쉬 레네가 떨어질 때 기식음인 마찰음이 되고 계속음(continuant)으로 분류된다. כ, ג, ד, ב, פ, ת가 있다.

헬라어의 마찰음에는 ϕ , θ , χ , σ , 강기식이 있다(참. LSNTG 58).

≡ 파열음(plosive)

LSNTG: Black, David Alan,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이상일 역,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적용에 관한 개설』,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마찰음화(摩擦音化)

spirantisation

파열음이 뒤따르는 모음의 영향으로 마찰음으로 변화되는 현상.

히브리어에서 마찰음화 현상은 브가드크파트(begadkepat)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올 때 일어난다. 그것은 마찰음화 되는 경우는 “(1) 브가드크파트가 완전 모음 뒤(이후)에 오든지, 하텱 슈바 모음 뒤(이후)에 올 때, (2) 브가드크파트가 있는 단어의 첫 자음이 단순 슈바를 가지고 있을 때, (3) 브가드크파트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모음의 탈락으로 생긴 슈바를 가진 한 단어의 중간 자음을 따라올 때” 이다(JMK §19.b).

자발적인 가상 중복(自發的假想重複)

spontaneous virtual doubling

외부적인 이유나 내부적인 이유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중복이 일어나며, 그 중복의 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은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 것

히브리어에는 강 다게쉬로 표시하는 완전한 중복 외에도, 가상 중복(virtual gemination)이 나타난다. 그것은 반-중복(semi-gemination) 또는 약한 중복(weak gemin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후음 **ן**에는 가끔 자발적이며 가상의 중복이 일어난다. **ן**가 모든 후음들처럼 완전한 중복을 거부하지만 가상 중복과 자발적인 중복까지 용납하는 이유는 **h** 음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JMK i88Da, 20c, 5k).

창 33:13

וַדְּפָקוּם יוֹם אֶחָד וַמָּתוּ כָּל־הָעֹאֵן

하루만 과하게 물면 모든 짐승 때가 다 죽을 것이다

(**דָּפָא**는 **דָּפָא**에서 왔으며, 자발적인 가상중복이 된 것이다)

+ 중복(germination)

정방형 서체(正方形書體)

square script

히브리어에서 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서체.

현재 우리가 성경의 인쇄본에서 보는 히브리어는 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방형 서체(כְּתָב מְרֻבָּע, square script)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전 3세기경에 등장한 이 서체는 아람어 글자체에서 발전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아람어와 함께 점차 사용하게 되었다. 가끔 유대 서체(Jewish script)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글자체는 게제르 농경 달력, 실로암 비문 및 메사 비문등에 사용된 ‘히브리 서체’(כְּתָב עִבְרִי)로 불리는 고대 글자체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대 히브리 서체’(Palaeo-Hebrew)로 불리는 이전의 고대 글자체는 일부 사해 사본 중 모세 오경의 단편들과 헬라-로마 시대의 유대 동전들에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며, 그 글자체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된 후에 다소 변형되어 계속 사용되었다. 랍비 서체(rabbinic script)나 라쉬 서체(Rashi script)는 정방형 서체의 변형이다. 이 서체들은 특히 랍비 성경의 난외 주에 인쇄된 주석들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다.

≡ 마소라 사본(Massoretic text),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 쿰란 히브리어(Qumran Hebrew)

상태동사(狀態動詞)

stative verb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변화나 사건을 표현하는 동작 동사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태나 형편을 가리키는 동사.

상태를 가리키는 영어 stative 는 라틴어에서 ‘서다’(to stand)라는 단어(stare)에서 나왔다. 즉, 정지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사건보다는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정신 상태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CDEG, comprehend, hate, know, love, remember, understand 등).

성경 히브리어에서 상태동사는 (1) 동사변화를 하는 형용사로서, 두 번째 음절이 제레로 표시되는 것과 홀람으로 표시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주 사용되는 형태는 qatil이고(קָטִיל, 그가 무겁다), 좀 드물게 사용되는 형태는 qatul이다(קָטֹל, 그가 작다). 이 두 개의 완료형은 둘째 모음이 a인 단 한 가지 형태의 미완료형을 갖는다(יָקֵבֵד, 그가 무거운 것이다; יָקֵטֵן, 그가 작을 것이다).

(2) 가장 초기 단계에 모든 상태동사들은 셈족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동작 보다는 상태나 속성으로 인식된 것을 표현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 많은 상태동사들은 실제로 동작이 되는 것을 표현한다. ‘שָׁמַע, שָׁמַע’ 듣다’, ‘כָּבֵד, כָּבֵד’ 그가 무겁다’ 와 같은 일부 동사들은 순수한 상태 동사적 의미를 갖는 것 외에, ‘그가 무거워졌다’, ‘그가 무겁게(비중있게) 자라났다’ 처럼 동사의 개념에 가까운 뉘앙스를 갖는다.

(3)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태동사들은 의미에서나 모음 표기에 있어서 동작동사들이 되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작동사가 상태동사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진화하여 동작 동사가 수적으로 확실히 훨씬 많기 때문이며,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음성적 법칙 때문이다. 완료형에서 상태동사의 특징적인 모음을 갖는 어떤 동사들은 미완료형에서 동작동사의 전형적인 모음을 가져온다. 예로서, ‘שָׁכַן, שָׁכַן’의 미완료는 ‘יָשָׁן’ 거주하다, ‘חָפַץ, חָפַץ’ 미완료 ‘יִחְפֹּץ’ 좋아하다, 바라다(또한 ‘יִחְפֹּץ’) 등이 있다.

(4) 완료형에서 상태동사의 ִ 모음은 동작동사의 ֵ 모음으로 자주 대체된다.

(5) 엄격한 의미에서 상태동사인 경우는 분사를 가질 수 없으며 단지 동사적 형용사만을 갖는다(חָזַק, חָזַק 두려운). 그러나 실제로는 상태동사가 동작동사로 발전되어 상태동사들은 자주 분사를 갖는다(אָהַב, אָהַב 사랑하는; שָׂנֵא, שָׂנֵא 미워하는). 때때로 분사와 동사적 형용사가 함께 존재한다(שָׁכַן, שָׁכַן 거주하고 있는 vs. שָׁכַן, שָׁכַן 거주자, 이웃).

(6) 상태동사는 미완료형의 a 모음으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부류의 동사들은 접두사의 i나 e 모음으로 확인된다. 흔하지는 않지만 완료형의 e 모음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7) 이외에 이차적인 흔적들로서 동사적 형용사의 존재(כָּבֵד, כָּבֵד 와 קָטֵן, קָטֵן 형태들)와 הֵ-를 갖는 부정사의 존재(사실상 קָטֵלָה, קָטֵלָה, קָטֵלָה 부정사 형태들은 상태동사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가 있다.

(8)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미완료형 접두사 모음이 원래 동작동사에서는 a, 상태동사에서는 i 였다는 견해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히브리어에서 이 모음들은 실제로 열린 음절에서 나타난다. 닫힌 음절에서는 동작동사의 원시모음 a가 꽤 널리 퍼짐에 따라 i로 약화된다.

(9) 상태동사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진 것(완료 טֹב, 미완료 יָטֵב 선하다; קָטֵן, קָטֵן 작다; גָּבֵה, גָּבֵה 높다),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אָהַב, אָהַב, 미완료 יִאָּהַב 사랑하다), 육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לָבַשׁ, לָבַשׁ 옷을 입다)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헬라어에서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이다. (참. W 412, 548; PDSNTG 115)

눅 16:23 (W 413)

ὑπάρχων ἐν βασάνοις

그가 음부에 있으면서

상태동사 *ὑπάρχων* 가 사용되었다.

롬 6:17 (W 548)

ἦτε δοῦλοι τῆς ἀμαρτίας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

계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 동작 동사(dynamic verb)

+ 동사(verb)

연계형 상태(連繫形狀態)

status constructus

연계형의 상태를 일컫는다.

창 41:42

וַיִּתֵּן אֹתָהּ עַל־יָד יוֹסֵף

그리고 그가 그것을 요셉의 손에 두었다

(이 경우 ‘손’은 유사 전치사들을 폭넓게 사용하여서 실명사를 이룬 것으로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연계형 상태로 쓰였다)

출 2:5

וַיַּעֲרֹחֲתָהּ הַלֶּכֶת עַל־יָד הַיָּאֵר

그 여종들이 나일 강변을 따라 거닐고 있었다

(이 경우에서 ‘손’은 일차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의 연계형 상태로 사용되었다)

+ 연계형(construct)

어간(語幹)

stem

활용(conjugation)과 굴절(inflexion)에서 가장 기본 단위인 어근(root)이 확장되고 변화를 이룬 한 단어의 본질적 부분.

영어 stem은 헬라어 *στάμνος*(토기 항아리[earthen jar] 문자적으로 ‘standing vessel’), 라틴어 어근 *sta-*(to stand)와 연관되어 있는 것(예, *stabilis*, ‘firm, stable’)으로 추정된다(OED). 어간은 일반적으로 어근과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라틴 문법과 헬라 문법에서 “굴절 어미가 결합된 단어의 부분, 그리고 주로 어근이 확장된 것”(ODEG), 혹은 “고전어에 나오는 어근들의 확장과 변화를 가리키는 것”(CDEG)으로 정의된다. 예로, 라틴어에서 어근 *fac-*은 ‘만들다’(make)이며, 여기서 변화된 어간 *fec-*은 과거 시제를, *fact-*는 과거 분사를 가리킨다(CDEG). 라틴어 어근 *fac-*은 기체(base)가 되어, 영어에서 *factor*, *factory*, *manufacture*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다.

영문법에서 어간은 한 단어의 최소 형태를 가리키며, 여기에 접사를 붙여 단어들이 확장된다. 예로, *allow*는 *disallow*, *allowable*의 어간이다. 혹은 *works*, *worked*, *working*에서 *work*가 어간이 된다.

어간은 모두 규칙적 어형변화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think*, *thinks*, *thought*, *thinking*과 같은 동사의 불규칙변화나 *man*, *man’s*, *men*, *men’s*라고 하는 명사의 불규칙변화에서는 어간이 변화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어간이라는 용어는 굴절 어미에 대해 사용되므로 접사에 대해 사용되는 기체와는 구별해야하지만 어간과 기체가 혼동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히브리어의 경우 (1) 어간들은 다른 셈족 언어에서처럼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낱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세 자음에 의존하지만, 모음의 변화에 의해서 의미가 다양하다. 예컨대 *עמק*(עמק) 혹은 *עמק*; 3인칭 단수 완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it was deep*, *עמק* *deep*, *עמק* *depth*, *עמק* *a valley, plain*의 어간은 동사나 명사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그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 예로서, *זָרַע* *he has sown*, *זֶרַע* *seed*와 *חָכַם* *he was wise*, *חָכָם* *a wise man*가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칼 완료 3인칭 단수를 어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이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소도 첨가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동사 형태들뿐 아니라 명사 형태들 및 명사로부터 파생된 다수의 불변사들 또한 이러한 어간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קָדַשׁ* *he was holy*, *קִדְּשׁ* *holiness*, *קִדְּשׁ* *holy*가 있다. 또한 동사 어간만 있고 그에 상응하는 명사 형태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סָקַל* *to stone*, *נָהַק* *to bray*). 한편 명사만 있고 그에 상당하는 동사가 없는 때도 있다(*אֶבֶן* *stone*, *נָגַב* *south*).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현재 발견되지 않는 명사 어간이나 동사 어간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셈족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살아 있는 언어였을 때에는 히브리어도 그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3자음 어간이라는 원칙은 히브리어에서(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셈어들에서도) 동사나 명사의 형성에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며, 따라서 단음절 어간 형태이지만 최소한 외관상으로도 3자음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들이 채택되곤 한다. 한편 많은 3자음 어간들이 그 실질적인 토대가 2자음 형태임을 시사한다. 이 2자음 형태를 어근(root)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뜻을 지니는 3자음으로 된 여러가지 변형 형태들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근들은 자체로서는 발음될 수 없지만, 보통 두 자음 사이에 *ā*를 넣어서 발음하며 √기호를 사용해서 표기한다. 예컨대, *כָּרַךְ*는 *כָּרַךְ*, *כָּרַךְ*, *כָּרַךְ*의 어근이다. 어떤 어간이 두 개의 강한 자음과 하나의 약한 자음을 갖고 있

을 때,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이 같을 때에 그 어간은 그 토대가 되는 뿌리(어근)로 확실하게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דָּכַךְ**, **דָּוָךְ**, **אָדָּךְ**, **הָדָךְ**와 같은 어간들은 모두 striking, breaking 이라는 뜻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모든 어간들에 공통되는 어근은 두 개의 강한 자음인 **דָּד(dakh)**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강한 자음 특히 치찰음, 유음 혹은 후음의 첨가에 의해서 어근이 어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마지막으로 어근의 한 자음 또는 첨가되었던 문자가 음운 법칙에 따라 유사한 문자로 바뀔때에도 동일한 어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3) 4 자음 또는 심지어 명사의 경우에서 5 자음을 갖는 어간들은 이차적인 형성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3 자음 어간의 확대에서 생긴다.

(4) 3 자음 혹은 4 자음으로 완전하게 발전된 어간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형성된 부류로서 자연적인 소리를 직접 모방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형성 원칙과 무관한 감탄사들이 있으며, 대명사들, 대부분의 불변사들(부사, 전치사, 접속사)이 있다(참. 조성식 외; GKCS i30a-s).

≡ 어근(root)

어간 자음(語幹子音)

stem-consonant / radical

셈어의 어근이나 어간 가운데 몇몇 글자들.

영어로 radical(어근)이라고도 한다. 즉, 이것은 셈어에서 어근 혹은 어간과 동의어로서 단어를 형성하는 글자들(formative letters)이다. 이것은 어형론에서 다루어지는 “접두된 자음들(preformative consonants)과 대조되는 개념이다”(PDSBH).

= 어근(root), 어간(stem)

강세(強勢)

stress

어떤 음절을 주위의 음절보다 더 강하게 발음할 때, 그 음절에 가해진 날숨의 세기로서 흔히 악센트(dynamic accent)라고도 함.

강세 음절을 발음할 때에는 통상 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강세를 꼭 음의 강도와 결부하여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강세는 음의 높이(pitch)나 지속 시간(duration)과 연관된다. 듣는 사람은 기본 진동수가 증가하면 강세가 있는 것으로 느끼기 쉽고, 음절의 지속 시간이 길어져도 강세가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 따라서 강세는 음절, 단어, 구, 문장에서 음의 높이나 음의 길이가 강해지는 것이다. 영어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발음되는 음절에 제 1 강세(primary stress),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 2 강세(secondary stress), 제 3 강세(tertiary stress), 약강세(weak stress)의 네 가지 강세가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DLL).

히브리어에서 무라오까는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서 강세와 악센트의 의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악센트를 일반적으로 강세의 위치를 표시하는 그림 부호들(그리고 이 부호들에 의해 표현되는 네우마[neumes] 기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그것이 후접어(proclitic)가 아닐 때, 즉 뒤따라오는 단어에 밀접하게 의존되지 않을 때, 그 단어가 지닌 다른 모음들보다 더 크게 강조하여 발음하는 강세 모음을 갖는다. 어떤 단어가 약간 길 경우에 그것은 부차적인 강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길 경우에는 각각 메텍으로 표시된다. 이 강세가 주 강세이든 부차적인 강세이든지 간에 그 강세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악센트라고 부르는 기호로 표시된다. 나크다님이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주된 강세는 주로 엘티마(ultima)와 펜엘티마(penultima)에 흔히 나타난다. 여기서 엘티마는 끝 음절을 말하고 펜엘티마는 끝 이전의 음절을 말한다. 히브리어 강세는 점차 발전되면서 단어의 끝 쪽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다. 끝 이전의 음절 강세는 밀엘(מִלְעֵיל, 아람어 מן + ל + עיל = 라틴어의 desuper “위에서부터”, 즉 단어의 처음 쪽으로)이라고 부르며, 끝 음절 강세는 밀라(מִלְרַע, 아람어 מן + ל + אַרַע “땅에서” 라틴어로 deorsum “아래에서” 즉 단어의 끝 쪽으로)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강세는 관례상 ֿ으로 표시한다(혹은 주된 휴지 부분에는 아트나흐 ֿ로 표시된다). 히브리어에서 강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가끔 음소적으로 의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בָּנוּ 그들이 지었다는 בָּנוּ 우리 안에가 된다. קָמָה 그녀가 일어났다는 קָמָה 일어나고 있다(여성 단수 분사)가 된다. וְקָטַלְתִּי 그리고 내가 죽였다는 וְקָטַלְתִּי 그리고 내가 죽일 것이다(도치바브)가 된다. וְקָוִי 일어나라!(여성형)는 וְקָוִי 나의 일어난(부정사)가 된다. וְתָמָה 그녀가 온전하다는 וְתָמָה 온전한(여성 형용사)가 된다(JMK §15a-c).

헬라어의 액센트는 강세보다는 선율이 있는 고저였다(참. VG 116).

≡ 액센트(accent)

VG: Allen, W. Sidney, *Vox Graeca: the Pronunciation of Classical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강동사(强動詞)

strong verb

규칙적인 활용(conjugation)과 굴절(inflection)을 하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에는 일곱 개(파알,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의 유형이 있다. 문법 관례상 פָּעַל 어근을 이용하여 만든 3 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이 각 유형의 명칭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유형의 동사에는 각각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는 데, 문법책에 따라 규칙 동사를 강동사 변화 혹은 강변화 동사(strong verbs), 불규칙 동사를 약동사 변화(weak verbs), 약변화 동사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모든 동사의 완료형은 3 인칭 남성 단수를 제외한 모든 인칭에 특정한 어미가 붙는다. 일반적으로 칼 동사 중 동작 동사는 חָק 형태(3 인칭 남성단수 형태)를 취하고 상태 동사는 חָק 또는 חָק(3 인칭 남성단수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모든 동사의 미완료형은 각 인칭에 특정한 접두어가 붙고 몇 개의 인칭에 특정한 어미가 붙는다. 일반적으로 칼 동사 중 동작 동사는 חָק 형태를 취하고, 상태동사는 חָק 형태를 취한다.

헬라어는 강동사를 규칙 동사 혹은 제 1 단순과거라고 하고, 약동사를 불규칙 동사 혹은 제 2 단순과거라고 한다. 동사 λύω 는 규칙 동사라서 제 1 단순과거형 ἔλυον 을 가지며, 동사 ἔρχομαι 는 불규칙 동사라서 제 2 단순과거형 ἦλθον 을 가진다.

+ 동사(verb)

↔ 약동사(weak verb)

구조주의(構造主義)

structuralism

언어를 고유한 체계로 보며, 언어의 의미는 그 체계 안에 있는 여러 단위들의 ‘상관 관계’와 ‘기능’을 파악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는 언어학적 이론.

구조주의 이론은 협의적으로 촘스키(N.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generative transformational grammar)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구조주의 이론은 대부분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연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소쉬르의 영향으로 구조주의는 언어학 뿐만 아니라, 문예비평, 문화 인류학 그리고 사회학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구조주의’는 소쉬르의 언어학 이론인 반면,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언어학적인 구조주의와 비슷한 인류학, 인종학(민족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비평 안에서의 접근을 위한 포괄적인 용어이다. 소쉬르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생론적이거나 역사적인 전제 조건들보다는 오히려 공시적인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언어를 실질적인 것이 아닌, 형식적인 요소들의 상관적인 체계라고 가정했다. 그에게 언어는 정밀하게 기록될 수 있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는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로서 언어의 내적인 관계들에 대한 연구를 보여주었다. 비록 소쉬르의 사후에 출판된 일반 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916, 1906-11 년의 강의노트에 근거했던)에서, 소쉬르가 ‘구조(stru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système and mécanisme’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할 지라도, 그는 구조주의의 선구자와 아버지로서 인식되었으며, 그의 강의들은 구조주의자의 언어학적인 서술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주의 이론이 성립되게 하는 소쉬르의 기여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그는 첫째로, 언어학의 연구대상에 대해 언어학에서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관점이 연구대상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으며, 둘째로 그는 언어학에서의 공시적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구조주의에 직접 연관되는 언어요소의 추상화 혹은 형식화와 언어 가치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쉬르는 두 가지 관계형인 계열 관계(paradigmatic)와 결합 관계(syntagmatic)를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관계 개념의 연구는 언어구조의 개념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소쉬르의 주장은 구조를 이루는 요소(elements)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구조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참. 조성식 외; RDLL).

- 통시적(diachronic) 연구와 공시적(synchronic) 연구, 계열관계(paradigmatic), 결합관계 (syntagmatic)
- 심층구조(deep structure),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

구조(構造)

structure

언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구성 부분들의 관계, 그들의 배열, 성격과 구성을 결정하는 것(ODEG).

구조란 일반적으로 기호체계의 추상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음소(phoneme), 형태소(morpheme)등이 각각 고유의 위치를 차지하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규칙성이 보일 때 구조가 있다고 하며, 이 같은 조직을 구조라고 한다. 혹은 부분을 이루는 요소의 규칙적인 배열방법 또는 부분의 결합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 구조주의(structuralism)

문체(文體)

style

저자가 자신의 독특한 어휘, 문법 구조, 문학적 기교, 수사적 특징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나, 화자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나 고유한 특징으로 말하는 방식.

영어 style 이라는 말은 원래 납판에 문자를 새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도구’(pen)로서 ‘글 쓰는 방식’을 라틴어 stilus 에서 유래하였다(어근, sti-, ‘찌르다’ [to prick], stimulus). 학자들은 이 라틴어 단어가 헬라어 ‘스틸로서’(στῦλος, ‘column’ [행, 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은 어원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ODEG). 라틴어 stilus 자체가 이미 고전라틴어 시대에 의미의 변화확장을 겪게 되어, 사람이 글을 쓰는 방법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그후에 다시 어떤 특징인이 글을 쓰거나 이야기할 때,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 또는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조성식 외).

문체의 기원은 법정에서의 변호나 가두에서의 연설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어법을 가르친 고대의 수사학이나 웅변술에서 찾을 수 있지만, 현재 문체는 쓰기, 말하기, 표현양식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문체의 개념을 살펴보면, (1) 문체 장식설은 르네상스 시대 및 신고전주의 시대에 문체를 장식으로 보았다. (2) 문체 인격설은 문체는 작가의 인격표현, 인간 그 자체로서 작가의 심층심리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3) 문체 유기설은 문체는 주제(matter)와 그것의 표현방법(manner)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한 것을 보았다. (4) 문체 선택설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데에도 어떤 언어 재료(발음, 문법,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체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았다. (5) 문체 일탈설은 문체가 통상적인 언어 운용의 기준에서 일탈한 것으로 보았다(조성식 외).

≡ 수사법(rhetoric)

주어(主語)

subject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진술의 주제가 되며, 술어가 서술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것.

주어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로 이루어지며, 때때로 형용사, 분사, 동명사, 부정사, 구, 절등이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장은 주어와 술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주어와 동사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어가 동작의 수행자일 때는 능동 동사, 동작의 수용자가 되면 중간태나 수동 동사가 사용된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전통 문법에서 문장은 주어와 술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다시 명사+술어(NP)로 구성된 명사 문장과 동사+술어(VP)로 구성된 동사 문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지만, “Jump!” 같은 문장에는 이와 같은 이항 대립(binary system)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 29:20

וַיַּעֲבֹד יַעֲקֹב בְּרָחֶל שֶׁבַע שָׁנִים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 년을 일하였다.

출 9:6

וְהָיָה כָּל מִקְנֶה מִצְרָיִם וּמִמִּקְנֶה בְנֵי־יִשְׂרָאֵל לֹא־תָמָּד: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헬라어에서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 분사, 부정사, 전치사의 독립적 용법, 등이 주어의 역할을 한다.

(1) 인칭대명사가 사용된 경우

마 5:13

ὑμεῖς ἐστε τὸ ἅλας τῆς γῆς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인칭대명사 ὑμεῖς 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2) 명사구가 사용된 경우

요일 4:18

ἡ τελεία ἀγάπη ἔξω βάλλει τὸν φόβον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명사구 ἡ τελεία ἀγάπη 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3) 부정사가 사용된 경우

빌 1:21

τὸ ἀποθανεῖν κέρδος.

죽는 것이 유익이다.

부정사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 술어(predicate)

+ 문장(sentence)

주어적 속격(主語的 屬格)

subjective genitive

밀접하게 이어진 두 개의 상호의존적인 명사들에서 속격(retum)이 주요어(reges)의 성질을 표현하거나, 혹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

히브리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격이 동사적이며 동사 수식적(ad-verbial)이라면, 속격은 명사 수식적(ad-nominal)이다. 주로 다른 명사의 수식어(attribute)가 되는 명사는 속격으로 나오며, 이러한 속격관계는 두 명사의 밀접한 음성학적 연합으로 표현되고, 그 중 첫번째 것이 두번째 것에 맞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속격관계에 대한 형식적 표현을 연계형이라고 한다. 두 개의 상호의존적인 명사들 간의 다양한 관계가 속격구문으로 표현되는 것은 주어의 속격(subjective genitive), 목적어의 속격(objective genitive), 추상명사로 표현된 성질(quality)의 속격, 전체(whole)의 속격, 부류(genus)의 속격, 종류(species)의 속격, 재료(material)의 속격, 단위(measure)의 속격, 고유명사의 속격, 부분(partitive)의 속격, 관계(relation)의 속격, 기원(origin)의 속격, 시간 혹은 장소의 속격, 회원(membership)의 속격, 동작(action)의 속격, 주제(topic)의 속격, 목적(purpose)의 속격등이 있다. 이 가운데 주어적 속격이란 (1) 어떤 사물이나 성질등을 소유하거나 갖고 있는 주어의 속격, 또는 (2) 어떤 것의 주체가 되는 주어의 속격을 나타낸다(JMK i 129d-f).

(1) 어떤 사물이나 성질등을 소유하거나 갖고 있는 주어의 속격(JMK i129d)

렘 7:4

אַל־תִּבְטְחוּ לָכֶם אֶל־דְּבָרִי הַשָּׁקֶר לֵאמֹר תִּכְלֹ' יְהוָה תִּכְלֹ' יְהוָה תִּכְלֹ' יְהוָה הֵמָּ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왕상 10:9

בְּאַהֲבַת יְהוָה אֶת־יִשְׂרָאֵל לְעַלְמִם

여호와가 가진 사랑(이스라엘에게 영원히)

(2) 어떤 것의 주체가 되는 주어의 속격(JMK i129d)

창 24:33

וַיֹּאמֶר לֹא אֵלָּל עַד אִם־דִּבַּרְתִּי דְּבָרִי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내가 말해야 하는(마땅히 해야하는)말로서 주어의 속격이다

대하 24:6

לְהַבְיֵא מִיְהוּדָה וּמִירוּשָׁלַם אֶת־מִשְׁאֵת מִשָּׁח עֲבַד־יְהוָה וְהִקְהֵל לְיִשְׂרָאֵל לְאַהֲלֵי הָעֵדוּת:

여호와와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도록

여기서는 모세가 정한 세금을 말한다

헬라어에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전치사나 여격을 통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표현한다(참. R 499).

롬 1:17 (R 499)

δικαιοσύνη ... θεοῦ

하나님의 의

주격적 소유격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라는 의미이다.

고후 5:14 (R 499)

ἡ γὰρ ἀγάπη τοῦ Χριστοῦ συνέχει ἡμᾶς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주격적 소유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의미이다.

가정법(假定法)

subjunctive mood

구체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직설법과 대조되며 가정이나 비사실성을 표현하는 서법으로, 소원이나 목적을 표현하는 의지법의 하나.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나 양태의 표시가 한정 동사의 어형에 일정 형태로 일관해서 표현될 때 이것을 서법(mood)이라고 하며, 그러한 서법의 하나로서 가정법(subjunctive mood)은 소원(만일 그가 여기에 있었다면, If only he were here!), 의심, 상상, 가정, 기원, 혹은 가능성의 표현처럼, 화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실제로 모든 인도-유럽 언어들(Indo-European languages)은 독일어나 불어에 비교하여 영어에는 훨씬 적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 언어들은 형태론적인 가정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언어들 중에서 서법의 조동사(modal auxiliaries)와 부사 문장(sentence adverbials (probably, maybe))과 같은 다른 형태들이 어느정도 가정법의 기능을 갖는다(참. RDLL; 조성식 외).

특히 히브리어에서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사실로서가 아니라, 화자의 상상, 가정, 기원, 소원(wish), 또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지법(volitive)을 말한다. 히브리어에서 가정법으로서 화자의 상상, 가정, 기원, 소원, 가능성, 당위성등의 개념을 표현하는 서법의 뉘앙스를 가지는 경우는 현대 유럽어보다 훨씬 불완전하지만, 히브리어 시체의 카탈과 익톨 형태로, 혹은 의지법(volitive)이나 기원법(optative)으로 이 같은 뉘앙스를 표현하기도 한다(JMK §113l, GKCS §106p).

(1) 카탈 형태

창 31:42 (GKCS i106p)

לוֹלִי אֱלֹהֵי אָבִי אֱלֹהֵי אֲבֹרָהֶם וַיִּפְחַד יִצְחָק' תָּהָּ לִי כִּי עָתָה רִיקָם שְׁלֹחָתָנִי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두려운 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 하셨다면, 당신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삼상 13:13 (GKCS i106p)

לֹא שְׁמַרְתָּ אֶת-מִצְוֹת יְהוָה אֱלֹהֶיךָ אֲשֶׁר צִוְּךָ כִּי עָתָה תִּכָּזֵּב יְהוָה אֶת-מַלְכָּתְךָ אֶל-יִשְׂרָאֵל עַד-עוֹלָם: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위의 두 문장은 카탈 형태로 과거에 완료된 행위나 사실과 관련하여 그 성취를 실제로서가 아니라 단지 가상의 것으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이다.

(2) 익톨 형태

창 42:37 (JMK i113l)

אֶת-שְׁנֵי בָנֵי תָמָר אֶת-אֲבִיאָנוּ אֵלֶיךָ

만일 내가 그를 당신에게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민 35:17

וְאִם בָּאָבוֹן יָד אֲשֶׁר-יָמוּת בָּהּ הִכָּהוּ וַיָּמוּת רָצָח הוּא מוֹת יוֹמָת הָרָצָח: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헬라어에서 가정법의 시제는 시간의 의미는 없고, 시상의 의미만 있다. 가정법 현재는 반복상과 진행상을 가리키고 가정법 과거는 단순 발생을 가리킨다. 종속절을 이끄는 여러 접속사들은 가정법 동사로 취하여 목적, 결과, 명사절, 권고 등의 뜻을 나타낸다(R 323-325; W 461-480).

(1) 권고

히 4:14(W 465)

κρατῶμεν τῆς ὁμολογίας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붙잡자

가정법 1 인칭 복수는 권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2) ἵνα 목적

마 7:1

Μὴ κρίνετε, ἵνα μὴ κριθήτε·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마라

ἵνα 가정법은 목적, 결과, 동격, 보어 등의 뜻으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ὅπως 목적

마 2:8

ἀπαγγεῖλατέ μοι, ὅπως καὶ ἐλθὼν προσκυνήσω αὐτόν.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나에게 보고하라.

ὅπως 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4) ἐάν 조건문

마 4:9

ταῦτά σοι πάντα δώσω, ἐάν πεσὼν προσκυνήσῃς μοι.

만약 네가 나에게 엎으려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ἐάν 조건문은 가정법 동사를 취한다.

+ 의지법(volitive)

↔ 직설법(indicative)

종속절(從屬節)

subordinate clause

주절과 대조되며, 어순(word order), 시제(tense), 법(mood)에 있어서 관련된 주 동사에 의존하는 절.

종속(종속)을 뜻하는 영어 subordinate는 라틴어에서 ‘복종하다, 의존하다’를 뜻하는 단어(subordināre)에서 나왔다. 종속절은 주절이나 “다른 절, 구, 혹은 문장 요소에나 형태에 의존하는 절이다”(ODEG). 현대의 영문법에서 종속절은 동사수식적 절, 비교절, 관계절, 그리고 명사절(보어절 혹은 내용절)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CDEG).

일반적으로 종속절을 구분하는 관점은 형식적인 표지(formal markers,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미론적인 고려들(semantic considerations; 시간절, 인과절, 서법적인 절, 조건절들), 문장 안에서의 기능들(function in the sentence; 주어, 목적어, 부사어)이 중요하다(부시만).

히브리어에서도 절은 일반적으로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다. 술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명사절과 동사절로 구분되며, 이것은 다시 단순절과 복합절(여러 개의 단순절)로 구성된다. 그리고 현대 문법학자들은 단순절이 주어와 술어가 수식어나 보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원형절(bare, 원형절) 혹은 확장절(covered, 확장절)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복합절은 등위절(coordinate)이나 종속절(subordinate)로 일컫는데, 등위와 종속은 접속사적인(syndetic) 것과 비접속사적인(asyndetic) 것으로 구분된다(참. RDLL; JMK §153).

삼상 9:5

וְשֹׁאֵל אָמַר לְנַעֲרֹו אֲשֶׁר-עָמַד לְפָנָיו וְנִשְׁוֹבָה פְּרוֹיְחָדָל אָבִי מִן-הָאֲתָנֹת וְדָאָג לָנוּ:

사울이 함께 가던 종에게 이르기를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우리 걱정을 하실까 염려된다

삼상 26:23 (JMK i170m)

וַיְהִי־הָיָה יָשִׁיב לְאִישׁ אֶת-צִדְקָתוֹ וְאֶת-אֱמָנָתוֹ אֲשֶׁר נִתְּנָה לְיְהוֹנָתָן הַיּוֹם בְּיַד וְלֹא אָבִיתִי לְשַׁלַּח יָדִי בְּמִשְׁיָחָוּ: יְהוֹנָתָן:

주님께서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 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에서 종속절은 주로 종속 접속사가 이끈다(W 657).

요 4:1

ἔγνω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접속사 ὅτι 가 종속절을 이끈다.

↔ 주절(main[principal] clause)

종속 접속사(從屬接續詞)

subordinating conjunction

주절의 주 동사에 의존하는 종속절을 이끌면서 주절과 접속을 시키면서도, 사실은 뒤따르는 절을 인도하는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와 대립되며, 영문법에서는 단순 종속 접속사(after, although, as, because, before, for, if, like, since, than, that, though, whereas, whether 등)와 복합 종속 접속사(as if, as long as, even if, even though, in case, in order that, provided that 등)가 있다 (CDEG, ODEG)

히브리어의 경우 단순 접속사로서 주된 접속사들은 등위(병렬)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다. 등위 접속사로는 ו 그리고, אף 또한, גם 또한, או 또는 등이 있다. 특히 ו 접속사는 단순히 병렬하는 바브와 함께 나오는 직접 의지법뿐 아니라, 목적이나 결과 개념을 표현하는 바브와 함께 나올 때 그것들은 간접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종속의지법이 되어 주로 직접 의지법 다음에 사용되는 간접 의지법(간접 권유형, 간접 지시형, 간접 명령형)으로서 종속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참. JMK §116).

종속 접속사로는 אֲשֶׁר, שׁ ~는 것 (that), אֲשֶׁר는 구문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관계 접속사; כִּי ~라는 것, ~때, ~라면, ~때문에, 그러나 등; כִּן ~하는 경우에 (in case), ~않도록 (lest); אִם ~라면 (if); לוֹ ~라면 (if) (비현실); לוֹלֵי, לוֹלֵי ~가 아니라면 (if... not)이 있다.

그리고 결합된 종속접속사로는 יַעַן ~때문에 (יַעַן만 오기도 함, 23 번); לְמַעַן ~하기 위하여 (in order that) (빈번하게 나타나고 종종 לְמַעַן만 오기도 함); כַּאֲשֶׁר ~처럼 (as), ~와 마찬가지로 (just as), ~때 (when), ~때문에 (because); אַחֲרֵי אֲשֶׁר ~후에 (after); עַד אֲשֶׁר ~까지 (until), ~전에 (עַד만 오기도 함); עַקֵּב אֲשֶׁר ~의 결과로, ~에 대한 보상으로, ~때문에 (עַקֵּב만 오기도 함); טֶרֶם ~전에 등이 있다. 또한 전치사 עַד나 לְמַעַן과 같은 전치사구는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부사 טֶרֶם 아직 아니다 도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전에 라는 접속사로 사용된다(그러나 בְּטֶרֶם ~전에 는 자주 사용된다) (JMK §104abc).

창 27:4 (JMK i116b)

וְהָבִי־אָהָ לִּי וְאֶכְלָ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선 나로 먹게 하라(목적)

삼상 25:8 (JMK i116d)

שְׂאֵל אֶת-נְעָרָיָהּ וַיִּגִּדּוּ לָהּ

당신의 일꾼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결과)

왕하 5:13 (JMK i116f)

רָחֵץ וְטָהַר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깨끗해질 것이다(결과)

렘 28:9

הַנְּבִיא אֲשֶׁר יִנְבֵּא לְשָׁלוֹם בְּבֹא דְבַר הַנְּבִיא יִדְעֵה הַנְּבִיא אֲשֶׁר-שָׁלַח יְהוָה בְּאַמְתּוֹ: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 내신 그 예언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요

창 7:2

הַבְּהֵמָה אֲשֶׁר לֹא טָהָרָה הִוא

깨끗하지 않은 그 짐승

헬라어 종속 접속사로는 시간, 이유, 장소, 방법, 등을 나타낸다.

(1) 시간

행 11:2

“Ὅτε δὲ ἀνέβη Πέτρος εἰς Ἱερουσαλήμ, διεκρίνοντο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에 대해 힐난했다.

“Ὅτε 는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절을 이끈다.

(2) 양태

마 18:33

οὐκ ἔδει καὶ σὲ ἐλεῆσαι τὸν σύνδουλόν σου, ὥς καὶ γὰρ σὲ ἠλέησα;

나마저도 너를 용서했던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인 종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ὥς 가 양태를 의미하는 종속절을 이끈다.

(3) 양태

요 5:26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ήρ ἔχει ζωὴν ἐν ἑαυτῷ, οὕτως καὶ τῷ υἱῷ ἔδωκεν ζωὴν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ὥσπερ 가 종속절을 이끈다.

(4) 결과

마 12:22

ἐθεράπευσεν αὐτόν, ὥστε τὸν κωφὸν λαλεῖν καὶ βλέπειν

그가 그를 고쳤다.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이 말하고 본다.

ὥστε 가 종속절을 이끈다.

↔ 등위 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

실명사절(實名詞節)

substantival clause

실명사란 ‘명사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실명사절이란 주격 실명사(subjective substantive)로서 주어나 혹은 목적격 실명사(objective substantive)로서 목적어로 단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절(PDSBH).

명사절이나 동사절은 실명사로 여겨질 수 있는 한 단위이다. “나는 네가 도착하였음을 알고 있다”에서 “나는 네가 도착하였음”은 실명사절이자 목적절이다. 이처럼 실명사절은 문장의 주어나 술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치사나 속격의 보어로서 동격으로 나올 수 있지만, 주로 목적어로서 사용된다(JMK i 157ab).

사 41:24 (PDSBH)

תועבה יבחר בכם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그가 너희를 택하다’라는 동사절은 명사절 안에서 서술적인 주격으로서 실명사절이다

삼하 14:32 (JMK i157a)

טוב לי עד אני-שם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았겠다

접속사가 없는 주어절로서 실명사절이다

사 63:19 (JMK i157a)

הינינו מעולם לא-משלת בם

우리는 오래 전부터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절은 술어로서 관계절인 실명사절이다

욥 32:22 (JMK i157b)

כי לא ידעתי אכנה

나는 아침할 줄 모른다.

창 3:6

ותרא האשה כי טוב העץ

그 여자는 그 나무가 좋은 것을 보았다

헬라어에도 주격적 실명사와 목적격적 실명사가 있다.

(1) 주격적 실명사

막 9:5

καλόν ἐστιν ἡμᾶς ὥδε εἶναι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ἡμᾶς ὥδε εἶναι 는 주격적 실명사로 사용되었다.

(2) 목적격적 실명사

마 5:17

Μὴ νομίζετε ὅτι ἤλθον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όμον

내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왔다고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ὅτι ἤλθον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όμον 는 목적격적 실명사절로 사용되었다.

+ 실명사(substantive)

실명사(實名詞)

substantive

실체를 가진 명사의 동의어로, 명사처럼 작용하는 단어나 단어들의 그룹.

실명사는 실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명사에서는 명사이며, 확장이 되어 ‘명사 같은 것’(noun-like)을 가리킨다(ODEG). 영어학에서는 명사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실사(實辭)라고 한다. 본래 영어에서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등과 같은 의미변화를 하는 어류(word-class)를 총칭하여 명사라 부른다. 그리고 명사류에는 명사-실사, 형용사류에는 명사-형용사라는 명칭으로 구별하였다”(조성식 외). 따라서 실명사는 명사 상당어들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서 명사, 형용사, 대명사, 숫자들처럼 어형변화가 되는 모든 단어들을 말하거나, 분사, 동명사, 부정사, 형용사, 구나 절과 같은 명사로 사용되는 품사를 포함하게 되었다(RDLL).

왕상 2:13 (JMK i141a)

וְהָאֵמֶר הַשְּׁלֹום בְּאֶדְךָ וַיֵּאמֶר שְׁלֹום

너의 방문은 평화를 위함이나?

술어로 사용된 실명사는 가끔 형용사와 동일하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실명사이다.

전 3:8 (JMK i49d)

עַתָּה לְאַהֲבָה וְעַתָּה לְשִׂנְאָ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칼 부정사 연계형으로서 실명사이다

속 11:9 (JMK i121i)

תִּמְתָּה תָּמוֹת וְהִנֵּכְתְּתָ תִּכְתֹּד

죽을 자는 죽고 망할 자는 망하여라

분사로서 실명사이다

창 22:2 (JMK i137v, 142b)

עַל אֶתְךָ הִתְּלִים אֲשֶׁר אֵמֶר אֱלֹהִים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속격의 실명사 앞이나 그것 앞에 전치사가 놓일 때 이 수사는 형용사적인 성격을 띠는 실명사이다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사

요 4:4

Ἦδει δὲ αὐτὸν **διέρχασθαι** διὰ τῆς Σαμαρείας.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것이 필요했다.

부정사 **διέρχασθαι** 가 실명사로 사용되었다.

(2) 명사구

요 5:30

ἡ κρίσις ἡ ἐμὴ δικαία ἐστίν

나의 심판은 의롭다.

명사구 *ἡ κρίσις ἡ ἐμὴ* 가 실명사로 사용되었다.

(3) 분사구문

빌 3:17

*σκοπεῖτε τοὺς οὕτως περιπατοῦντας καθὼς ἔχετε τύπον ἡμᾶς.*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삼는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보여라분사구문 *τοὺς οὕτως περιπατοῦντας καθὼς ἔχετε τύπον ἡμᾶς* 가 실명사로 사용되었다.

대용(代用)

substitutes (substitution)

단어, 구, 문장의 한 구성소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법적 개념.

대용은 치환 혹은 대치이라고도 하며(조성식 외), 동의어(synonym)나 공지시어(co-reference)와는 다른 개념이며 생략법(ellipsis)와 연관된다(ODEG). 전통문법에서 대명사류(pronominal)에 해당하는 대용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형용사를 대신하는 요소, 대명사를 대신하는 요소들을 비롯해서, 어떤 요소를 대신하여 같은 기능을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요소로서 대치하고 대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창 14:5ff (JMK i118a)

בָּא כְּדָרְלֵעֶמָר וְהַמְלָכִים אֲשֶׁר אִתּוֹ וַיָּבֹאוּ אֶת־רֶפְאִים בְּעֶשְׂתָּרֶת קַרְנִים וְאֶת־הַחוּזִים בְּהֶם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왔고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쳤고

וַיָּבֹאוּ의 바익톨형은 카탈형 **בָּא**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지므로, 우리는 이것을 카탈의 대용(substitutes)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하 18:14 (JMK i152fa)

וַיֹּאמֶר עָלָיו וְהַצְלִיחוּ וַיָּגִתּוּ בִּידֵיכֶם

그(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들은 왕의 손에 넘긴 바 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선지자 미가야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답을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동사에서조차 능동태(왕상 22:15, **וַיָּגִתּוּ יְהוָה בְּיַד הַמֶּלֶךְ**)를 비인칭 수동태로 대치(substitutes)하여 나타내는 경우이다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눅 2:6

Ἐγένετο δὲ ἐν τῷ εἶναι αὐτοὺς ἐκεῖ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었을 때에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절이 Ἐγένετο 와 전치사와 부정사 구문으로 대체되었다.

마 13:3

ἐξῆλθεν ὁ σπείρων τοῦ σπείρειν.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나갔다.

분사구문 ὁ σπείρων 이 명사를 대체하고 있다.

계승(繼承)

succession

두 동작을 동시에 나타내는 병렬(juxtaposition)의 개념과 구별해서 두 번째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을 뒤따르는 개념(참. JMK i115a)

예를들어 라틴어에서는 *et* 라는 단어(그리고)를 *comedit et bibit* “그는 먹었고 그리고 마셨다”(동시적인 두 동작)와 *comedit et ivit cubitum* “그는 먹었고 그리고 자러 갔다”(두 번째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을 뒤따른다)에서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divide et impera* “나누고 다스리라!”는 문장에서 *et* 는 *ita ut(sic) imperes* “이리하여 네가 다스리도록”과 *et sic imperabis* “너는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결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는 다스릴 것이다”, 혹은 *ut imperes*(목적) “네가 다스리도록” 등과 논리적으로는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정동사형(카탈, 익톨, 지시형, 권유형, 명령형) 앞에 나오는 **בַּ**는 “그리고(et)”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언어에서 무시되거나 다른 용어를 첨가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동시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즉 히브리어는 이 두 개의 그리고(et)를 구별하여 두 번째 것은 “그리고 나서(*et postea*)라는 뜻을 가지며 논리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바브의 서법적 뉘앙스(결과나 목적)를 구별한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병렬(juxtaposition)의 *et* 와 계승(succession), 결과(consecution), 목적(purpose)을 뜻하는 *et* 로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승(succession)의 의미는 서법적 뉘앙스에서 두 번째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을 뒤따르는 개념을 말한다(참. JMK i115a).

삼하 12:1

וַיִּשְׁלַח יְהוָה אֶת-נָתָן אֶל-דָּוִד וַיֹּאמֶר אֵלָיו וַיֹּאמֶר לוֹ

주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삼하 12:20

וַיָּקֶם דָּוִד מִהָאָרֶץ וַיָּרֶחַץ וַיִּסֹּךְ וַיַּחֲלֵף (שְׂמֻלְתּוֹ) [שְׂמֻלְתּוֹ] וַיָּבֵא בֵּית-יְהוָה וַיִּשְׁתַּחוּ וַיָּבֵא אֶל-בֵּיתוֹ וַיִּשְׁאַל וַיִּשְׁיֹמוּ לוֹ לֶחֶם וַיֹּאכְלוּ: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고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음식을 차려오게 하고 먹었다.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막 1:35

ἐξῆλθεν καὶ ἀπῆλθεν

그가 나가서 떠나갔다.

ἐξῆλθεν 를 ἀπῆλθεν 가 계승하고 있다.

= 접속사(conjunction)

≡ 병렬(juxtaposition), 결과(consecution), 목적(final)

접미사(接尾辭)

suffix

한 단어, 어근, 어간의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형태적 요소’(Morphological element) (RDLL).

일반적으로 접미사는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특별한 다른 단어 부류(specific word classes)와 결합하여 쓰이며, 어떤 면에서 그 뜻을 더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접사(接辭)의 일종으로 굴절 접미사(inflexional suffixes)와 파생 접미사(derivational suffixes)로 구분된다(참. RDLL). 굴절 접미사로는 ox, ox-en 에서 -en 과 같은 것이다. 파생 접미사는 ‘선생님’의 ‘-님’, ‘떡보’의 ‘-보’, ‘지우개’의 ‘-개’를 들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는 명사 접미사(-er, -ity, -ling, -ness, -tion)와 형용사 접미사(-able, -ive, -ish, -ous)가 구별된다(RDLL).

히브리어의 경우 동사 접미사(접미사를 가진 완료형, 접미사를 가진 미완료형, 접미사를 가진 명령형, 접미사를 가진 부정사, 접미사를 가진 분사) 명사 접미사(인칭 대명사 접미사를 가진 명사들, 단수 명사와 함께 오는 접미사, 복수 명사와 함께 오는 접미사) 부사와 함께 오는 인칭 접미사, 전치사 접미사(접미사를 취하는 전치사)가 있다(참. JMK i39, 61, 62, 63, 64, 65, 66, 79, 94, 102, 103, 125, 129, 140, 142, 146, 148, 155).

참 4:6 (JMK i64a)

אַל־תַּעֲזֹבָהּ וְחַשְׁמֶרְהָ אֶהְיֶה וְחָצְרָהּ:

그것을(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줄 것이라 그것을(지혜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신 25:7 (JMK i65a)

לֹא אָבָה יִבְמִי

그가 나와 결혼하는 것(나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호 2:16(한 2:14) (JMK i66c)

לָכֵן הִנֵּה אֲנִי מַפְתִּיחַ וְהִלַּכְתִּיךָ הַמַּדְבָּר וְדִבַּרְתִּי עַל־לִבָּהּ:

보라 내가 그녀를 유혹하여 광야로 그녀를 데려갈 것이다

민 14:33 (JMK i94j)

וּבְנֵיכֶם יִהְיוּ רָעִים בַּמַּדְבָּר אֲרָבָעִים שָׁנָה וְנִשְׁאַזּוּ אֶת־זִנּוּתֵיכֶם עַד־תָּם פְּגַרְיֶכֶם בַּמַּדְבָּר: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사십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헬라어에는 여러 접미사들이 있다. 형태론 층위에서는, 명사 접미사에는 행동이나 과정을 뜻하는 명사 접미사로 -σις (ἀνάστασις), 결과를 뜻하는 -μα (γράμμα), 수행자를 뜻하는 -της (προφήτης), 특성이나 조건을 뜻하는 -ία (ἀκαθαρσία), 장소를 뜻하는 -τήριον (δεσμοτήριον), 작은 것을 의미하는 -νιον (ἀρνιον) 등이 있다. 형용사 접미사로는 가득함을 뜻하는 -ρός (πονηρός), 소속이나 소유를 뜻하는 -ιος (μακάριος), 완료수동분사의 의미나 가능성을 뜻하는

- (ἀγαπητός) 등이 있다. 동사 접미사로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하는 -εύω (φωνεύω), 강제적이거나 되풀이되는 것을 뜻하는 -ζω (ἐργάζομαι),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 접미사로는 어디로부터를 뜻하는 -θεν (πόθεν), 방법을 뜻하는 -ως (δικαίως) 등이 있다. 통사론 층위에서는, 명사 곡용과 동사 활용에 사용되는 접미사들이 있다(참. LSNTG 96-98, 112-122).

= 어미형태소(suffix)

↔ 접두사(prefix)

접미 활용(接尾活用)

suffix conjugation

접미사의 첨가로 이루어지는 동사의 접미 어형변화

히브리어에서 동사형태 자체에 첨가하는 접미사의 접미 어형변화는 완료형과 미완료형과 명령형, 부정사, 분사에 나타난다(참. JMK :62-66)

대표적인 접미 어형변화로서 완료형의 어형변화가 있다. 대부분의 접미사들에서 독립 인칭 대명사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히브리어의 모든 동사의 완료형은 3 인칭 남성 단수를 제외한 모든 인칭에 특정한 어미가 붙는다. 완료형에서 접미 어형변화는 인칭 여성 단수 접미사 הָ, 2 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 תָּ, 2 인칭 여성 단수 접미사 תְּ, 1 인칭 공성 단수 접미사 תִּי, 3 인칭 공성 복수 접미사 י, 2 인칭 남성 복수 접미사 תֶּם, 2 인칭 여성 복수 접미사 תֶּן, 1 인칭 공성 복수 접미사 נו로 이루어진다.

שמר의 접미 어형변화

3인칭 남성 단수	שָׁמַר	3인칭 공성 복수	שָׁמְרוּ
3인칭 여성 단수	שָׁמְרָה		
2인칭 남성 단수	שָׁמַרְתָּ	2인칭 남성 복수	שָׁמַרְתֶּם
2인칭 여성 단수	שָׁמַרְתְּ	2인칭 여성 복수	שָׁמַרְתֶּן
1인칭 공성 단수	שָׁמַרְתִּי	1인칭 공성 복수	שָׁמַרְנוּ

헬라어 동사 접미사는 시제(현재, 미래, 미완료 과거, 단순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법(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분사, 부정사), 태(능동태, 중간태, 수동태)에 따라 동사 접미사를 가진다.

+ 접미사(suffix)

≡ 동사 접미사(suffix of verb), 명사 접미사(suffix of noun), 어미 형태소(sufformative)

명사 접미사(名詞接尾辭)

suffix of noun

명사에 첨가하는 접미사

히브리어에서 명사는 속격을 취하며, 원칙적으로 접미사는 연계형에 첨가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들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형태들과 연결 모음에 의해 연결된다. 명사에 첨가되는 접미사는 가벼운 접미사와 무거운 접미사(כֶּם, כֵּן, הֶם, הֵן)가 있으며, 무거운 접미사는 가벼운 접미사들로 불리는 다른 접미사들보다 단어의 모음표기를 더 확실하게 해준다.

특히 명사 접미사에는 인칭대명사 접미사로서 남성(여성) 단수명사에 결합된 접미사(וֹ, הָ, דֶּ, דָּ, וְ, וּ, סֵ, סָ, כֵּן, כָּם, נוּ, 남성(여성) 복수명사에 결합된 접미사(יוֹ, יָהּ, יָד, יָדָּ, יֵ, יָהֶם, יָהֵן, יָכֶם, יָכֵן, יָנוּ)를 들 수 있다(참. JMK i94a).

신 1:41

וַתַּחַגְרוּ אִישׁ אֶת־כְּלֵי מִלְחָמָתוֹ

그의 전쟁의 무기들(그의 무기들)

사 2:20

בַּיּוֹם הַהוּא יִשְׁלַךְ הָאֱלֹהִים אֶת אֱלֹלֵי כֶסֶף וְאֶת אֱלֹלֵי זָהָב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그의 은 우상들과 그의 금 우상들을 던져 버릴 것이다

사 56:7

וְהָבִיאוּתָּם אֶל־הָר קֹדֶשׁ יִשְׁמְחוּתָם בְּבֵית תְּפִלָּתִי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며

왕상 11:11

קָרַע אֶקְרַע אֶת־הַמַּמְלָכָה מֵעָלָיו וְנָתַתִּיהָ לְעַבְדֵּךָ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동사 접미사(動詞接尾辭)

suffix of verb

동사 형태 자체에 첨가하는 접미사

히브리어에서는 동사 형태 자체에 첨가하는 접미사는 동사의 어형변화(완료형, 미완료형, 명령형, 부정사, 분사)에 사용되거나,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을 표현할 때 동사 형태 자체에 인칭대명사 접미사를 첨가하여 사용된다.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접미사 형태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접미사 형태와 거의 유사하고, 동사에 목적격 접미사가 붙을 때 강세의 위치에 따라 모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동사 접미사 형태는 동사 형태가 모음으로 끝나는지 혹은 자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강세의 관점에서 볼 때 **כֶּם, כֹּן, הֶם, הֵן**와 같은 무거운 접미사들은 항상 강세를 갖지만 **נִי, נוּ, הוּ, הָ** 등의 접미사들은 결코 강세를 갖지 않는다. 모음 뒤에 오는 **ךָ**는 강세를 갖지 않지만 슈바 뒤에 올 때에는 강세를 갖는다. 필요에 따라 동사의 완료형에는 동사와 목적격 접미사 사이에 보조모음으로 **נָ**나 **וּ**가 나오고 미완료형에는 보조모음 **וּ**나 **נָ**가 나온다. 또한 **נִנֵּי, נִנְהָ, נִנְךָ, נִנְיָ**의 강세의 눈(energetic נ) 또는 삽입의 눈(epenthetic נ)으로 불리는 **נ**을 가진 일련의 접미사들이 미완료형(그리고 명령형)에서 나타난다. 이 **נ**은 원래 아랍어에서처럼 어떤 강세적 의미를 표시했을 것이나, 지금은 더 이상 의미론적인 가치를 갖지 않으며 그 강조적 효과는 단지 음성적일 뿐이다. 그리고 강세의 눈이 없는 형태가 기대되는 곳에서 강세의 눈이 없는 형태인 **הוּ**가 나온다. 이 형태들은 도치바브를 지닌 미완료 형태나 금지의 **אַל** 뒤에서, 혹은 **אַל**없이 나오는 지시형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다(참. JMK i61-63).

창 30:6

וַתֹּאמֶר רָחֵל דִּבְנִי אֱלֹהִים וְגַם שָׁמַע בְּקוֹלִי וַיֵּתֶן־לִי בֶן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판단하시고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렘 20:15

אֲרֹזֵר הָאִישׁ אֲשֶׁר בָּשָׂר אֶת־אָבִי לֵאמֹר יִלְדֶּלֶךָ בֶּן זָכָר שִׁמְחָה שִׁמְחָ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있기를

욥 19:2

עַד־אֲנִי תוֹגִינוּ נַפְשִׁי וַתִּדְּבְּאוּנִי בַמָּלִים: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박살내려느냐
첨가된 눈을 가진 미완료형으로 목적격 접미사를 취하였다.

어미 형태소(語尾形態素)

sufformative

다양한 접미사 가운데, 특히 어떤 특정한 어미 형태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

히브리어 문법에서 접미사(sufformative)라는 용어는 주로 **תְּכַבְּדָהָ**에서 접미사 **נָה**- (JMK § 32b), **וְנָתַן**에서 접미사 **ת** 혹은 **נ**의 중복(JMK i42e), 성과 수를 표시하는 접미사(sufformatives marking the gender and the number)등을 설명하거나, 형태론적으로 접미형 시제(sufformative tense)인 완료형, 미완료형 동사변화에서 2인칭과 3인칭 남성 복수의 접미사 **ו**, 2인칭 여성 단수에 오는 접미사 **יְ-**, 2인칭과 3인칭 여성 복수에 오는 접미사 **נָה**를 설명할 때(JMK i44a), 첨가의 **הֶ**(paragogic **הֶ**)를 덧붙여서 만들어지는 권유형에서 접미사 **הֶ**가 접미사 **יְ-**와 **ו**처럼 취급(JMK i45a)됨을 설명할 때, 다양한 접미사 가운데 특정한 어미 형태소로 사용된다.

창 34:16

וְנָתַן אֶת-בָּנָתָיו לָלֶזְבֶּתִים וְאֶת-בָּנֹתֵיהֶם נָקַח-לָנוּ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접미사 **ת** 혹은 **נ**의 중복을 설명할 때 특정한 어미 형태(sufformative) **ת** 혹은 **נ** 이라고 부른다)

시 2:3

נִתְקָה אֶת-מִסְרוֹתֵינוּ וְנִשְׁלַכָּה מִמֶּנּוּ עֲבֹתֵינוּ: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한다

(권유형에서 접미사 **הֶ**가 접미사 **יְ-**와 **ו**처럼 취급될 때 사용된다)

= 접미사(suffix)

수메르어

Sumerian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로서 고대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썬기 문자의 교착어.

수메르어는 이집트어와 함께 인류 역사상 문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언어에 속한다. 이 언어는 3500-2050년까지 구어 형태로 현존하였다. ‘수메르’라는 단어는 1850년대까지 세계의 사전에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수메르인과 수메르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1850년 힝크스(Hincks)는 the British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앓시리아와 바빌론에 살고 있던 썬족 사람들이 처음으로 썬기문자를 발명하였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썬어는 모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는데 반해 자음은 불변하는 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음이 자음처럼 변하지 않는 음절체계를 만들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당시 알고 있던 썬어 안에 모음이 변하지 않는 문자가 발견되었다. 또한 썬어에는 부드럽고 강한 후음과 치음 사이의 구별이 나타나지만, 이런 구별이 나타나지 않는 언어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힝크스는 썬기문자 체계가 바빌론에 살던 썬족들 이전의 비-썬계 사람들에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후 로린슨 (Rawlinson)은 메소포타미아에 비썬족 백성과 비썬족 언어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리고 1869년 오퍼(Jules Oppert)가 처음으로 그들이 바로 수메르인이며, 그들의 언어가 수메르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초기의 통치자들이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카드는 앓시리아와 바빌론에 사는 썬족이며, 비-썬족은 수메르로 불렸다. 그는 수메르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터기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와 아주 유사하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 약 25만개의 서판들과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주로 경제적인 것들이며, 종교적, 윤리적인 주제는 1%미만이다.

수메르어는 여러 면에서 아카드어에 영향을 준 비썬어로서, 아카드어에 썬기 문자체계를 제공하였다. 주전 3000년대에 수메르어는 썬어 계열의 아카드어와 혼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주전 2000년대 말기에 썬족인 아카드인들이 수메르를 정복하였으나, 아카드인들은 오히려 수메르의 문자 체계를 배우고 기술과 문학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수메르어는 수메르가 멸망한 뒤에도 오랫동안 문학, 의식, 기술에서 사용되었다. 수메르어는 인도유럽어나 썬어와 같이 어형변화는 없고, 다른 어족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고립어이다. 수메르어는 함무라비 왕 무렵까지 약 1,500년 간 쓰였으나 썬어계에 압도되어 사어(死語)가 되었다(참. 최명덕 박미섭, 히브리어 발달사).

고고학자들은 가장 초기의 토기 형태를 통하여 수메르인들인 알 우베이드(Al ‘Ubarid) 문화를 만들었다고 본다. 우베이드 백성들의 고향은 수메르였다는 점에 대하여 고고학적인 데이터는 의심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수메르 문화는 북부 시리아까지 미쳤고, 주전 5000년경에 수메르인의 인구는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메르는 주전 5천년대에 문화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카드인들의 선조들도 ‘우베이드’ 인구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개인 이름들이 주전 3천년대의 토판과 파라(고대 슈루팍)에서 발견된 수메르 토판에서 발견되고 있다(참. J. Oates, *Babylon*, 19-22).

수메르의 문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메르 왕의 목록’(king list)이다. 주전 2천년대에 이 목록에 대한 초기 판이 있었다. 여기는 창조 이야기와 창조 이후의 10명의 왕들과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W. G. Lambert, “The Babylonians and Chaldaeans,” in POTT, 179-96).

≡ 셈어(Semitic)

Lambert, W. G., “The Babylonians and Chaldaeans,” in POTT.
Oates, J.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최상급(最上級)

superlative

비교 대상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표시하는 형용사와 부사의 어형 변화.

영어 superlative 는 라틴어에서 ‘더 높은 정도로 끌고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수펠라티붐’(superlativum)에서 나왔다. 최상급은 주로 단순형이 의미하는 질이나 속성보다 최상의 정도를 갖고 있음을 표시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상대적인 최상급을 만들기 위해 정관사, 한정명사, 접미사로 한정된 형용사를 사용한다.

삼상 30:19

לִּיְהוָה הַדָּוָה הַקָּטָן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대하 21:17

קָטָן בְּנֵי

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린자

아 1:8

הַיָּפֵת הַבְּרָא

오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여

헬라어에서 최상급은 세 가지 용법이 있다(W 301-305; R 669-671)

(1) 최상급 형용사 사용

행 16:17 (W 302)

οὗτοι οἱ ἄνθρωποι δοῦλοι τοῦ θεοῦ τοῦ ὑψίστου εἰσίν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최상급 형용사 ὑψίστου 가 사용되었다.

(2) 분리격으로 사용하는 최상급

막 4:1 (W 303)

συνάγ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ὄχλος πλείστος

아주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였다.

최상급 형용사 πλείστος 가 아주 많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비교급 대신 사용하는 최상급

요 20:4 (W 303)

ὁ ἄλλος μαθητὴς προέδραμεν τάχιον τοῦ Πέτρου καὶ ἦλθεν πρῶτος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무덤에 먼저 갔다 .

둘 중에서 최고인 것을 가리킬 때 최상급 πρῶτος 가 사용된다.

≡ 비교급(comparative)

표면 구조(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

일반적으로 표면구조란 문장들이 의사전달에 사용될 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태의 문장들을 의미한다. 한편 표면구조라는 용어는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에서 문장의 문법구조로서 의미 해석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문법구조인 심층구조(deep structure)와 대립되는 용어로서, 음성 해석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문법구조를 말한다(참. 이정민 외; RDLL).

표면구조는 기저규칙(base rules)과 변형규칙(transformational rules)의 적용에서 비롯된, 그리고 음운론적인 구성요소를 위한 입력(the input for the phonological component)이 되는 문장구조이다. 즉 표면구조는 문장들이 의사전달에 사용될 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형태의 문장들과 일치하도록, 음성적인 해석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해석들이 다른 표면 구조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red roses and tulips는 모호하며, [[red roses] and tulips]나 [red [roses and tulips]]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면구조에 대한 언어의 통사론적인 설명의 기본은 구 구조문법(phrase structure grammar)과 같은 구조주의자의 분석(구조주의)이 지니는 특징에 나타난다.

표면구조는 변형의 출력(output)으로 그 형식은 심층구조와 같이 구 구조(phrase structure)의 형식을 취하며 구 표시(phrase-marker)에 의해서 표시된다. 이 표면구조에서 형성소의 열(列)을 어휘표시(lexical representation)라고도 부르는데 이 어휘표시는 다시 재조정규칙(readjustment rule)에 의해서 더욱 표면적인 구조로 변하게 된다. 이 결과로 얻어진 구 구조(phrase structure)를 역시 표면구조라고도 부르는데, 그 구 구조(phrase structure)는 음운부로 보내져서 음운표시(phonological representation)가 되는 것이다. 이 음운 표시에 음운부(phonological component)의 규칙이 적용되어서 구체적인 음성 표시(phonetic representation)로 다시 옮겨진다. 이때 음운 규칙은 표면구조에 따라 형성소의 열(列)에 적용되므로 따라서 표면구조는 음운 결정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표면구조는 변형의 출력으로 나오는 열(列)임과 동시에 음운부의 입력(input)이 되므로 실제적인 표면구조가 결정되기까지는 변형규칙과 음운 규칙이 모두 관계되는 것이다. 표면구조는 주로 음성해석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지만 의미부에도 어떤 정보를 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종류의 논의는 이미 Chomsky도 말했듯이 표면구조에서 예를 들면 양화사(量化辭, quantifier)의 순서가 의미 해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현재 표면구조가 관계한다고 여겨지는 의미정보에는 초점(focus), 전제(presupposition), 화제-평언(topic-comment), 논리요소 영향권 대명사의 지시성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현상들은 특히 표면구조와 심층구조의 특징 안에서 복합적인 설명을 하게 한다. (a) 표면구조는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장의 선출(the choice of the chairman)은 의장이 X를 선출했다(the chairman chose X)가 되거나, 혹은 의장이 선출되었다(the chairman was chosen)가 될 수 있다. (b) 다른 표면구조가 의미적으로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구(paraphrase)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the blue sky and the sky which is blue이다. (c) 정보가 표면구조에는 없을 수 있으며 듣는 자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hilip promised to come to California에서 to come의 논리적 주어는 Philip으로 이해된다. (d) 불연속적인 요소들에 대한 표현이다. 예를 들면 Caroline will call me up tomorrow에서 call 과 up은 통사론적으로는 불연속적이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사론적인 심층구조(syntactic deep structure)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심층구조(deep structure)는 모든 문법적인 관계들의 이론적이고 기본적인 구조를 묘사하며, 또한 분명히 의미론적인 해석과 통사론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변형들(transformations; [전위, transposition, 삭제, deletion])을 적용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최초의 모형들에 대한 몇몇 개정들은 통사론의 단계들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제시해왔다. 한편 표면구조는 전위적인(바꾸어놓는) 변형들(transpositional transformations)의 흔적들(traces)과 다른 빈 위치들(empty positions)에 의해 풍부해졌다(흔적이론, trace theory). 그래서 심층구조의 구조적인 정보는 표면구조(투사원리, projection principle)로 유지된다. 심층구조로부터 정보를 포함하는 이러한 새로운 표면구조를 s-structure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 실제적인 깊은 구조는 d-structure라고 부른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RDLL; Chomsky Noam,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Cambridge, MA, 1992).

+ 구조주의(structuralism)
 ↔ 심층구조(deep structure)

Noam, Chomsky,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Cambridge: MIT, 1992.

슈룩

Šuruq

/w/ 음이 원시 장모음에서 왔을 경우에 종종 키부쯔 ֿ 대신 바브 가운데 점을 찍은 형태(װ)로 나타나는 모음부호.

이 부호는 위에 소개된 일곱개의 히브리어 모음 부호에 속하지 않는다. 맛소라 학파가 전수 받은 자음 본문의 특정 단어에 /w/음을 표시하는 모음 글자 바브 װ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키부쯔를 붙이는 대신 그 바브에 가운데 점을 첨가한 것이 슈룩이다(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16-17).

신 3:21

וְאַת־יְהוֹשֻׁעַ צִוִּיתִי בְּעַת הַהוּא לֵאמֹר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삿 2:7

וְכָל יְמֵי הַזְּקֵנִים אֲשֶׁר הָאָרֶזְכוּ יָמִים אַחֲרֵי יְהוֹשֻׁעַ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 알파벳(alphabet)

박미섭, 『성서히브리어문법』,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6.

걸려 있는

suspended

히브리어에서 “명사, 혹은 대명사가 가끔 절의 문두 나와서 뒤따라 오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가 소급적인 대명사에 의해 재생되는 경우, 그 명사는 일시적으로 단절된 상태이거나 일시적으로 걸려있다고 표현된다.”(JMK §156a).

히브리어 문법에서 “일시적으로 명사가 단절된, 혹은 걸려있는 경우를 고리형(casus pendens)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구문은 가끔 명사의 중요성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화자의 마음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절이며, 가끔 표현을 명료하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고리형에서 명사는 속격, 대격(목적어), 주어, 전치사의 보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단절된 속격(suspended genitive), 일시적으로 걸려있는 주어(suspended subject)라고 부른다(JMK §156a; 참. GKCS §130e, f).

나 1:3 (JMK §156b)

יְהוָה בְּסוּפָהּ וּבִשְׁעָרָהּ דָּרְבָּנוּ וְעָנָן אֲבָק רִגְלֵינוּ: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폭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밑에 일어나는 먼지이다.

여기서 יְהוָה ... דָּרְבָּנוּ는 고리형으로 일시적으로 단절된 속격(suspended genitive)이 된다.

창 3:12 (JMK §156e)

וַיֹּאמֶר הָאָדָם הָאִשָּׁה אֲשֶׁר נָתַתָּה עִמָּדִי הִוא נָתַתְהִי לִי מִן־הָעֵץ וָאָכַל: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הָאִשָּׁה ... הִוא는 고리형으로 일시적으로 걸려있는 주어(suspended subject)가 된다.

= 고리형(casus pendence)

음절(音節)

syllable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표준국어대사전).

음절은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예로,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표준국어대사전). 달리 말하자면, 음절은 “직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말이나 단어의 음성적이고 음운적인(phonetic-phonological)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부시만). 따라서 음절이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분절음(seg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절을 구성하는 이들 분절음들 중, 소리의 울림이 가장 큰 분절음이 주음(syllabic)을 이루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모음(vowel)이고, 때로는 공명음(sonorant)이 될 수도 있다. 이 때의 공명음이 음절 주음의 공명음(syllabic sonorant)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bottom [bat'm], cotton [kat'n], little [lit'l] 등에서 [m] [n] [l] 이 음절주음의 공명음이다.”(조성식외).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언어들에서처럼 음절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 음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그 음절들이 규칙적일 때이다. 그러나 음절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는 음절들이 규칙에 맞지 않거나 불규칙적일 때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규칙적인 음절은 열린 음절이거나 닫힌 음절이다. 열린 음절은 모음으로 끝나며(קְטָלָה) 닫힌 음절은 한 자음이나 자음들로 끝난다(אַבְלָה, מַלְכִּי). 그리고 음절을 닫는 자음이 중복될 때 그 음절은 중첩음절(혹은 경강음절)이라고 불린다(עֲמִי). 한편 히브리어에서 불규칙적인 음절들은 불완전하게 닫힌 음절들로서 (1) 보조 하탍이 나오는 경우(יַעֲמֹד), 보조 하탍을 대신하는 완전 보조모음이 나오는 경우(יַעֲמֹדוּ), 쉼표 형태들에 오는 보조 모음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반-닫힌(semi-closed) 음절(סִפָּר), (2) 반 닫힌 음절의 단순한 변형이며 가상 중복의 경우에 나오는 것과 유사한 가상적으로 닫힌 음절이 있다(יַבְעֵר) (JMK i27a, b, c 요약)

히브리어의 음절을 좀 더 관찰해보면, (1) 운율을 계산할 때에 완전 음절들만 고려되며 보조모음들은 무시된다. (2) 한 음절은 항상 자음(또는 자음들)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히브리어 철자법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음절은 가끔 모음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이것은 종종 א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으며, 예로서 אָמַר와 같은 단어에서는 알렙이 발음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어 처음에 바브가 오는 경우와 요드가 오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3) 한 음절은 두 개의 연속되는 자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때 첫 번째 자음은 단수 슈바나 복합 슈바를 갖는다(סִפָּרִים). (4) 한 음절은 두 개의 다른 자음으로 닫힐 수 있으며, 끝 자음은 파열음일 때가 많다(יִלְדָּתָּ). (5) 쉼표 명사로 불려지는 자음+모음+자음+자음 형태의 원시적인 단음절 명사의 경우는 끝자음이 /w/나 /y/가 아닌 경우에는 원시적인 짧은 끝모음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로 붙어 있는 끝자음은 단모음의 삽입으로 깨어지게 되어 자음+모음/자음+모음+자음(보조모음 첨가, anaptyxis)가 된다(מִלְכָּד). (6) 동일한 자음이 원래 단어의 끝에서 중복될 때 그것은 단순화된다(לֵב이지만 לֵבִי로, חֶק이지만 חֶקִּי가 된다)(JMK i27d, da, db, dc 요약).

헬라어의 경우 음절 경계는 뚜렷이 나타나지만 설측음인 λ의 경우 음성학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겸용법(兼用法)

syllepsis

생략(abbreviation)의 비유적인 표현(A figure of speech)이나 형태(type) (RDLL)

같은 낱말을 동시에 글자 그대로의 뜻과 비유적인 뜻으로 쓰는 용법으로서, 원래 문법적 생략(ellipsis)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예로, He drank beer, she wine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통합된 구조들에서는 더욱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의 공통되는 술부는 구문론적으로 둘을 연결하거나, 또는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동등하지 않은 부분들을 연결하기도 한다. (1) 구문론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액어법(軋語法, zeugma; 한 문장 내에서 하나의 동사 또는 형용사를 둘 이상의 다른 명사에 대하여 억지로 쓰는 일): ‘He’s drinking beer, we wine. 그는 맥주를 마시고 있으며 우리는 와인을 마시고 있다.’의 경우와 (2)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액어법(軋語法, zeugma)인 경우: ‘He travelled with his wife and his umbrella.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여행을 했으며 그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 ‘She was wearing a white dress and a smile.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다’의 경우가 있다(참. RDLL). 히브리어에는 인칭의 일치룰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인칭의 겸용법(syllepsis of person)’과 같은 사례로 나타난다(JMK §151c, 158h, n).

사 26:9 (JMK §151c)

נַפְשִׁי אֲנִיתִיךָ בְּלִילָה אֶף־דִּוְתִי בִקְרָבִי אֲשַׁתְּרָךְ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개인의 일부를 이루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명사(נֶפֶשׁ 영혼, פֶּה 입, קוֹל 목소리) 다음에 1 인칭이나 2 인칭 접미사가 나올 때 동사는 그 접미사의 인칭에 일치한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나’와 동일한 נֶפֶשׁ에서 비롯되어서 맞물리는 명사들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창 45:4 (JMK §158n)

אֲנִי יוֹסֵף אֲחֵיכֶם אֲשֶׁר־מִכְרַתֶּם אֹתִי מִצְרָיִמָּה:

나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다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그 선행사처럼 관계절에서도 동일한 인칭을 사용한다. 이것을 인칭의 겸용법이라고 말한다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전 3:2(LSNTG 222)

γάλα ὑμᾶς ἐπότισα, οὐ βρῶμα

내가 너희들을 젖을 마시게 하고 밥으로 안했다.

동사 ‘마시게 하다’가 젖에는 맞지만 밥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겸용법이다.

≡ 액어법(zeugma),

+ 생략(ellipsis)

심마쿠스 역

Symmachus

주후 2 세기 말 심마쿠스가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심마쿠스역은 제롬이 자신의 불가타역에 활용하기는 했지만, 오늘날 오리겐의 헥사플라(Hexapla, 여섯본문의 대조성경으로, 히브리어본문, 히브리어본문의 그리스어 음역, 아퀼라역, 심마쿠스역, 70 인경, 테오도선의 개정역)를 통하여 일부분만 알려져 있으며, 정작 번역자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히브리적 표현들이 제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역본들과 뚜렷이 구별되며, 반(反)신인동형론적 번역의 특징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공시적 연구

synchrony

언어학에서 소시르(F. de Saussure)에 의해 성립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지닌 방법론적 연구로서, 통시(diachrony)와 대립되는 개념이며,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동시성(시간 안에서 정해진 순간)의 축을 따르는 언어 연구(참. RDLL)

공시는 언어가 시간 안에서 정해진 상태(a state fixed in time)에 대해 말하는 반면, 통시는 언어가 다른 시간의 단계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상태들(changing states of a language between different time periods)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소시르에 의하면, 공시적 연구란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균형잡힌 언어 체계와 개별적인 요소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반면, 역사적인 것을 지향하는 통시적 연구들은 다른 요소에 의해 각각의 요소들이 대체되거나 개별적인 요소들이 변하는 것을 연구한다(참. RDLL).

중간자음 탈락(中間子音脫落)

syncope

모음 사이에 놓여서 발음되는 *h* 발음의 자음(ה)이나, ' 발음의 자음(א)이 중간자음으로 나올 때 그 자음이 탈락되는 것

h 발음의 자음(ה)은 대체로 사역동사 미완료와 분사 활용에서 중간자음이 탈락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יִהְיֶה 대신 יִהְיֶה가 나타난다. 그리고 채귀 대명사(히트파엘)에서 3 인칭 대명사 접미사(*hu, hēm, hēn*)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בְּנוּ, בָּהֶם 대신 בָּם, יִקְטְלוּ, קִבְּצוּ로 나타나며, יְהוֹנָתָן 대신 יוֹנָתָן에서처럼, 신명(theophoric)의 요소인 -יְהוֹ에서도 중간자음 탈락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관사 ה는 ב, כ, ל, 전치사 뒤에서 중간자음 탈락 현상을 일으킨다. 그 예로 לְהַמְלִיךְ 대신 לְמֶלֶךְ가 있다.

' 발음의 자음(א)은 중간 자음 탈락을 매우 자주 일으키지만, 어떤 형태들에서는 그것의 철자법에 일반적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לִקְרֹאת 대신 לִקְרֹאת ~을 향하여; מְאוֹם 대신 מוֹם 결합 등이 나타난다(JMK §17e).

헬라어에서는 중간 모음이나 한 단어에서 하나의 음절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 있다.

헬라어에서 πατήρ의 소유격이 원래는 πατερός인데 ε가 탈락하고 πατρός가 되었다(LSNTG 81; R 203-204).

접속사 구문과 비접속사 구문(接續詞構文, 非接續詞構文)

syndesis and asyndesis

접속사가 있는 구문과 접속사가 없는 구문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 바브와 함께 나오는 ‘접속사 구문(syndesis)’을 매우 선호한다(JMK §177a). 바브와 함께 나오는 접속사 구문에는 여러 경우가 있다. 바브로 시작하는 접속사 구문은 (1) 가끔 목적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JMK §177h). (2) ‘보다(ראה)’ 동사 다음에 **וְהָנָה**로 시작하는 절은 목적어 명사가 (2-1) 예측 안될 수도 있고(창 8:13) (2-2) 예측 될 수도 있다(창 1:31) (JMK §177i). (3) 명령의 동사와 함께 나올 때 바브 접속사 구문은 명령의 의미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JMK §177j). (4) 지시형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해준다(JMK §177l). (5) 상당히 많은 경우에 바브 접속사 구문은 논리적 연결고리보다 오히려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하기도 한다(JMK §177m). (6) 시문에서 접속사 바브는 가끔 단언의 뉘앙스로서 강조로 사용된다. 그리고 일련의 명사가 접속사 바브와 함께 차례로 뒤따라 나오는 바브의 용법은 다양하다(JMK §177n). (7) 일반적으로 접속사 바브는 각각의 명사 앞에 나오거나, 가끔 마지막 명사만 바브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끔 바브는 두 명사 중 첫 번째 명사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일련의 명사들 가운데 첫 번째 명사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결합된 용어는 개입되는 요소로 나뉘어 연결된다(JMK §177p).

이와 함께 히브리어에서 바브 접속사가 없이 나오는 구문을 ‘비접속사 구문(asyndesis)’이라 일컫는다(삿 5:27). 따라서 이 비접속사구문은 (8) ‘다시’라는 개념을 지닌 **וְשׁוּב** ‘돌아가다, **וְשׁוּב**, **וְשׁוּב** 더하다’의 동사들은 바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창 30:3) (JMK §177b). (9) ‘**וְהָנָה** 시작하다’의 명령형에서 바브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욥 6:28) (JMK §177d). 그리고 명령형에서 두 번째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올 때 가끔 접속사 없는 구문이 나온다(룻 4:1)(JMK §177e). (10) 첫 번째 동사가 동사수식적 개념을 표현할 때에는 접속사 없이 나온다(호 9:9)(JMK §177g). (11) 동사 외의 단어 부류 가운데 비접속사 구문이 있다(창 37:27) (JMK §177s).

접속사 구문(syndesis)

창 22:3 (JMK §177a)

וַיִּשְׁכֶּם אַבְרָהָם בְּבֹקֶר וַיִּתְּבֶשׂ אֶת־חֲמֹלּוֹ וַיִּלָּח אֶת־שָׁנָי נַעֲרָיו אֹתוֹ וְאֵת יֶצְחָק בְּנֵו וַיִּבְקַע עֶצֶי עֲלָה וְקֶסֶם וַיִּלְד אֶל־הַמָּקוֹם אֲשֶׁר־אָמַר־לּוֹ הָאֱלֹהִים: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그의 나귀에 안장을 엮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두 젊은 종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그곳으로 갔다.

접속사 바브와 함께 나오는 접속사 구문을 매우 선호하는 경우이다.

(1) 목적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바브 접속사절

창 47:6 (JMK §177h)

וְאִם־יִדְעָתָּ וְיִשְׁכֶּם אֲנָשֵׁי־חֵיל

만약 네가 그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2-1) ‘보다(ראה)’ 동사 다음에 **וְהָנָה**로 시작하는 바브 접속사절로서 목적어 명사가 목적어 명사가 예측 안되는 경우

창 8:13 (JMK §177i)

וַיֵּרָא יְהוָה תְּרֵבוּ פְּנֵי הָאָדָמָה

그는 보았고 그리고 보라(=그는 보았다) 땅의 표면이 말라 있었다

(2-2) ‘보다(ראה)’ 동사 다음에 **וַיֵּרָא**로 시작하는 바브 접속사 구문으로서, 목적어 명사가 목적어 명사가 예측 되는 경우

창 1:31 (JMK §177i)

וַיֵּרָא אֱלֹהִים אֶת-כָּל-אֲשֶׁר עָשָׂה יְהוָה טוֹב מְאֹד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은 것을 보았다

(3) 명령의 동사와 함께 나올 때, 명령의 의미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바브 접속사 구문
창 42:25 (JMK §177j)

וַיִּצְוּ יוֹסֵף וַיְמַלְאוּ אֶת-כְּלִיָּהֶם בָּרֶזֶק וַלְהֵשִׁיב כֶּסֶף יָהֶם אִישׁ אֶל-שָׁקוֹ וְלָתֵת לָהֶם צֶדֶה לְדָרָדָר

요셉이 명령하여, 그들의 자루에 곡물을 채우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명령)하였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명령)하였다

(4) 지시형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해주는 바브 접속사 구문

창 27:28 (JMK §177l)

וַיִּתֵּן לָךְ הָאֱלֹהִי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5)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바브 접속사 구문

왕상 2:22 (JMK §177m)

וְשִׂאֲלֵי-לֹא אֶת-הַמְּלוּכָה כִּי הוּא אָחִי הַגָּדוֹל מִמֶּנִּי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하여 왕권을 구하시지요

(6) 시문에서 단언의 뉘앙스로서 강조로 사용되는 바브 접속사 구문

사 51:15 (JMK §177n)

וְאַנְכִּי יְהוָה אֱלֹהֶיךָ

그리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마치 내가 야웨 너희 하나님인 것은 참되다는 뜻과 같다)

(7) 각각의 명사 앞에 나오는 접속사 바브

시 76:7[한 76:6] (JMK §177p)

מִגְעַעֲרֶתְךָ אֱלֹהֵי יַעֲקֹב לְרָדָם וְרִכָּב יְסוֹס:

야곱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일련의 명사들 가운데 첫 번째 명사 앞에 나오는 바브

대상 16:4 (JMK §177p)

וַיִּתֵּן לִפְנֵי אֶרְחוֹ יְהוָה מִן-הַלְוִיִּם מְשֻׁרְתִּים

레위사람을 임명하여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비접속사 구문(asyndesis)

삿 5:27

בֵּין רַגְלֶיהָ כָּרַע נֶפֶל שָׁכַב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꾸부러졌고, 엎드려졌고, 쓰러졌다

(8) ‘다시’라는 개념을 지닌 ‘שוב’ 돌아가다, יָסַף, הוֹסִיף 더하다’의 동사들이 나올 때 바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창 30:31 (JMK §177b)

אֲשׁוּבָה אֶרְעָה צֹאנֶךָ אֲשַׁמְרֶ:

내가 다시 당신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9) ‘הוֹאִיא 시작하다’의 명령형에서 바브없이 나오는 경우

욥 6:28 (JMK §177d)

וְעַתָּה הוֹאִילוּ פְנֵי־בִי

이제 너희는 내 얼굴을 좀 보아라

명령형에서 두 번째 동사가 바로 따라올 때 가끔 나오는 비접속사 구문

룻 4:1 (JMK §177e)

סוּרָה שְׁבֶה־פָּה

이리로 오라 여기에 앉으라

(10) 첫 번째 동사가 동사수식적 개념을 표현할 때에는 나오는 비접속사 구문

호 9:9 (JMK §177g).

הָעַמִּיקוּ־שִׁתָּתוֹ

한없이 부패해졌다

(11) 동사 외의 단어 부류 가운데 나오는 비접속사 구문

창 37:27 (JMK §177s).

אֲחִינוּ בְּשָׂרָנוּ הוּא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고 우리의 혈육이다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

감각이나 자극이 연합된 것으로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감각의 자극을 유발하는 것(RDLL).

일반적으로 공감각이란 ‘색채를 듣거나(hearing colors), 소리를 보는 것(seeing sounds)’과 같은 현상으로, 청각을 느끼면서 시각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다. 즉 음색과 색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색이 깊을수록 색상도 어두워지는 지각 현상이나, 어떤 특정한 음색이 맛, 촉감, 냄새, 온도 등의 감각을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공감각이란, 한 요소가 은유적인 감각(metaphorical sense)으로 사용되는 표현 안에서 나타난다. 다시말해 어떤 목소리가 부드럽거나(soft, 촉각) 따뜻하거나(warm, 열감각) 어두울 수(dark, 시각) 있다(참. RDLL).

욥 39:25

וּמִרְחֹק יִרְיֵחַ מִלְחָמָה רָעַם שָׁרִים וְתִרְעָה: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는다

동의성(同義性, 同意性)

synonymy

어휘 항목들 사이에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하게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의미 관계를 갖는 것.

영어 synonymy 는 헬라어에서 ‘같은’(σύν)과 ‘이름’(ὄνομα)을 합성한 단어(συνωνυμία)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라틴어(synonymia)에서 나왔다. 즉, 유사성은 단어들이나 구들에서 강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지니는 의미관계를 말한다. 이 용어의 해석은 어휘론, 문법, 문체론에서 발견되는 의미론만큼이나 다양하지만 크게 완전한 동의성(complete synonymy)과 부분적인 동의성(partial synonymy)으로 나뉜다(RDLL). ‘저녁별’과 ‘새벽별’은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둘 다 동일한 ‘금성’(Venus)을 가리킨다(RDLL). 영어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지만 문맥에 따라 다른 뉘앙스를 갖는 단어들이 많다. 예로, “serpent, snake; ship, vessel; compassion, fellow-feeling, sympathy; enormous, excessive, immense; glad, happy, joyful, joyous; to kill, slay, slaughter; to grieve, mourn, lament, sorrow” 등이다(OED).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동의성의 의미관계는 주로 강조를 위해 대칭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곤 한다.

암 9:13 (JMK §119d)

וְהָטִיפוּ הַהָרִים עָלֵים וְכָל־הַגְּבָעוֹת תִּתְמוֹגְגָנָה: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흘러서 모든 언덕들에 넘칠 것이다

↔ 반의성(antonymy)

결합체(結合體)

syntagm

몇 개의 다른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진 것.

결합체를 뜻하는 영어 syntagm은 헬라어에서 ‘질서 있게 묶은 것’(that which is put together in order)을 뜻하는 단어인 켄타그마(σύνταγμα, συντάσσειν)에서 나왔다. 이것은 원래 파이크(K. L. Pike)가 ‘문법소’(tagmeme)로 이루어진 ‘연쇄문법소’(連鎖文法素, syntagmeme)라고 이름지은 것에서 나온 문법용어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소리, 단어, 구, 절이나 전체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분절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적 요소들이 구조화되어서 구문적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 (2) Lyons에 의해 좀 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서, 주어나 서술어를 갖지 않은 단어나 문장 사이에 놓인 언어적인 단위를 가리킨다(RDLL). 다시말해 이것들은 하나의 단어로서 문법적으로 기능하는 단어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영어의 “He wants the dog to go away”의 문장에서 세 부분(to, go, away)으로 구성된 “to go away”의 부정사구는 ‘하나의 분리된 의미 단위’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syntagm이라는 용어는 단어들이나 단어 그룹들에 제한되지 않으며, 구들, 절들, 문장들, 그리고 정보의 더 큰 단위들을 말할 수도 있으며, 단어 연결과 구성요소들을 말하는 구문적 구조로서 언급될 수 있다. 예로, 영어에서 “John hit the ball”과 “The ball hit John”은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단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어 요소들이 다른 자리에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PDSBH).

삼하 18:27

וַיֹּאמֶר הַמֶּלֶךְ אִישׁ־טוֹב זֶה וְאֶל־בְּשׂוֹרָה טוֹבָה יָבוֹא:

왕이 대답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창 24:48

הִנְחֵנִי בְּדֶרֶךְ אֲמִת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

Lyons, J.,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결합 관계(結合關係)

syntagmatic relation

문법적 구조를 통하여 단어들이 서로 올바른 의미론적 관계로 연결되는 것.

결합 관계는 문장의 의미 관계에 있어서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와 대립되는 것이다. 계열 관계가 문장 안에서 구성소들의 유사성 및 대립성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결합 관계는 구성소들의 상호 연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단어들과 구문들의 ‘결합적’ 관계 내지 ‘배열’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문장 안에서 어휘들이 의미론적으로나 구문적으로 서로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를 전할 수 없으므로, 결합 관계가 중요해진다. 예로, “Mary never cooks the lunch badly”에서 cooks 는 결합관계로서 never 직후에 나오면서 수식되고, Mary 와는 주어+서술동사라는 관계를 가지며, the lunch 와 같은 어구를 예상하는 성질을 갖는다(참. 이정민 외).

↔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

통사론, 구문론(統辭論)

syntax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문장의 구조, 기능, 구성 요소, 단어들의 배열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 등으로도 불린다. 통사론은 ‘품사들’의 관점, 구문론은 ‘단어, 구, 절’의 관점, 문장론 ‘문장’의 관점으로 문법을 보고 분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어 syntax라는 용어는 헬라어(σύνταξις)에서 나온 것으로 ‘질서있게 함께 결합하다’(putting together in order, arrangement)는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언어 요소의 결합(체)를 뜻한다.

따라서 언어의 음성 구조를 다루는 부분을 음운론, 단어 구조를 다루는 부분을 형태론 또는 어형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다루는 부분으로 통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구조를 다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요소의 배열 형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조성식 외).

다시 말해 통사론이란, 자연 언어들이 지닌 문법의 하위 범주로서, 한 언어의 잘 형성된 모든 문장들이 기본적인 요소들(형태소, 단어들, 품사)로부터 어떻게 유래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규칙들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통사론적인 설명은 문장 분석의 특별한 방법들과 범주 형성(문장 형태, 문장의 요소들)에 기초한다(RDLL).

시리아어

Syriac

서북 셈어의 하나인 아람어의 한 어파를 이룬다. 이다. 신앗시리아 제국이 아람제국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6 세기에는 고대근동의 공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리아어는 주후 1 세기 이후 시리아 기독교의 언어로 사용되었고, 구약 히브리 성경과 신약 그리스어 성경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페쉬타(Peshitta) 성경을 낳았다. 최초의 번역 성경은 타티안이 복음서를 연속적인 기사로 편집한 ‘디아테사론’(Diatessaron)이다. 복음서의 번역은 주후 2 세기 후반이나 3 세기 초에 나왔다. 페쉬타는 주후 5 세기 경 에데사(Edessa)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후 3 세기에서 5 세기 사이에 시리아는 전역이 기독교가 되었으며, 헬라어와 함께 시리아어가 사용되었다. 시리아어는 아람어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현재 시리아 기독교회는 시리아어를 예배를 위한 예전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 아람어(Aramaic)

문법소(文法素)

tagmeme

언어학에서 문장을 만드는 가장 작은 의미 있는 단위.

‘문법소’에서 ‘소’(素)를 뜻하는 영어 -meme 는 헬라어에서 ‘파편, 조각’(fragment)을 뜻하는 ‘아그마’(ἄγμα)에서 나왔다. ‘소’(素)로 구성되는 용어들 가운데, 음소(phoneme), 형태소(morpheme), 결합소(syntagmeme)가 모두 음, 형태, 결합의 최소 단위를 이루듯이 문법소(tagmeme)는 문법의 형식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블룸필드(Bloomfield, 1933)가 만들었다. 그는 문법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법 특성소’(taxeme)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즉, “형태소(morpheme)가 음소(phoneme)로 구성되듯이 문법소는 문법 특성소(taxeme)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소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문법 특성소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문법소는 어휘형식의 단위인 형태소보다 더 큰 범주로서 문법 형식의 단위로 사용된다. 달리 말하자면, 문법소는 “의미를 갖지 않는 문법 특성소(taxeme)와는 달리, 의미를 갖는 언어의 기능적이고 문법적인 가장 작은 요소”이다(RDLL).

예로, 문장 “Run!”은 음소 연속이 /ran/인 한 개의 형태소 {run}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감탄의 말미음조(exclamatory final-pitch)에 의해 나타나는 억양(modulation)이라는 문법 특성소(taxeme)와 부정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선택의 문법특성소(taxeme of selection)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두 문법 특성소는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법소가 될 수 있다. 블룸필드(Bloomfield, 1933)에 의하면 “전자는 강한 자극(strong stimulus)을 의미하는 문법소이고 후자는 행위(action)을 의미하는 문법소이다”(참. 조성식 외).

– 음소(phoneme), 형태소(morpheme)

≡ 결합소(syntagmeme)

문법소론(文法素論)

tagmemics

문법소(tagmeme)를 통하여 언어를 서술하는 언어학의 한 방법론.

이 용어는 파이크(Kenneth L. Pike, 1967)와 롱에이크(Robert E. Longacre, 1964) 및 몇몇 언어학자들(Benjamin F. Elson, 1962; Velma B. Pickett, 1965; Walter A. Cook, 1969)이 제창한 언어 분석 및 기술 이론이다. 그들은 모두 블룸필드(Bloomfield, 1933)의 ‘문법소론’과 소쉬르의 구조 언어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파이크와 롱에이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성경번역 이론 형성을 위하여 문법소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블룸필드(Bloomfield, 1933)를 따라서 의미 있는 문장의 최소 단위를 ‘문법소’로 보고, 문법소를 ‘결합 관계’(주어, 동사, 목적어 등)와 ‘계열 관계’의 상호관계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결합 관계’는 소쉬르가 말한 바와 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문법적인 결합 관계를 말하며, ‘계열 관계’는 명사, 대명사, 고유명사 등 각각 계열 안에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문법소를 가리킨다. 문법소는 결합소(syntagmeme)를 형성하기 위하여 연결되면서, ‘계층구조’(hierarchical levels)를 만들어 간다(단어, 구, 문장, 단락, 담화)(참. RDLL).

문법소론의 근저에는 언어를 독립된 현상으로서가 아니고 넓게 인간 행동의 일부로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깔려있다. 즉 언어 행동은 언어 이외의 다른 인간 행동과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언어이론은 인간행동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통일이론의 특수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소론에서는 형식과 의미라는 이원론을 배격하고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복합체(form-meaning composite)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법소론에서는 언어분석을 할 때 형식과 의미를 분리시켜 먼저 형식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반대로 의미에서부터 시작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이고, 처음부터 형식과 의미의 쌍방을 고려한다. 단 기술과정에서 편의상 형식과 의미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양자를 별개로 다룰 수는 있다.

+ 언어학(linguistics)

- 음소(phoneme), 형태소(morpheme), 문법소(tagmeme)

탈무드

Talmud

주후 2-7 세기 사이에 형성된 유대교 랍비 문학의 핵심을 이루는 미슈나와 그에 대한 랍비들의 체계적인 주석의 모음집인 게마라를 집대성한 책들.

로마 시대에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초기 랍비들은 유대교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망라하는 ‘구전 율법’으로 미슈나를 주후 200 년경에 편집하고 법전화하였다. 이들을 ‘타나임’(Tannaim, תַּנַּיִם)이라고 한다(주후 20-200 년). 그들은 위대한 랍비들인 힐렐과 샴마이의 학풍을 이어 받은 자들이다.

물론 미슈나의 첫 출발점은 바빌론 포로기에 성전을 잃고 오경의 ‘시민법’과 ‘의식법’ 대로 살 수 없는 이방 땅의 상황 속에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였고, 그들의 관례들과 규칙들이 구전으로 전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리하여 미슈나는 (1) 전통적 법의 전체 내용, (2) 랍비들의 가르침의 총체(타나임 때까지), (3) 율법에 대한 한 진술(할라카)과 이런 진술들의 모음집, (4) 가장 탁월한 미쉬나인 ‘유다 하-나시’(Judah ha-Nasi)가 편찬한 전집으로 이해되었다(참. H. L. Strack, *Introduction to the Talmud and Midrash* (New York: Temple Book, 1969), 3).

랍비들은 이후에 계속하여 미슈나에 대하여 토론하고, 설명하고, 예증하면서 주석을 달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게마라’(gemara, ‘완성’[completion]을 뜻함)라고 하였다.

유대인 랍비들은 팔레스타인과 바빌론에서 각각 따로 주석 작업을 하였다. 팔레스타인에서 만든 주석을 ‘팔레스타인 탈무드’(혹은 예루살렘 탈무드, 주후 400-450 년 완성), 바빌론에서 만든 주석을 ‘바빌론 탈무드’라고 부른다(주후 500-600 년 완성). 바빌론 탈무드는 63 권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유대교에서는 바빌론 탈무드의 권위를 팔레스타인 탈무드의 권위보다 더 높이 부여하였다. 탈무드가 완성된 뒤에도 탈무드에 관련된 많은 해석 문헌들이 많이 나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경전이 되어왔다(참. IDB).

- 미슈나

IDB: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타르굼

Targum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풀이한 것

아람어는 바빌론 포로 이전 시대에도 오랫동안 국제적 외교언어였다(왕하 18:26 이하). 주전 5, 6 세기경부터 페르시아제국에서는 아람어를 공식적 언어로 사용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과 흠어진 유대인들인 다아스포라도 아람어를 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미 느헤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를 사용하였다(느 13:24).

아람어 타르굼은 주후 200 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통역자’(metrugeman)가 필요하였고, 그들은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율법서와 선지서 본문 등을 아람어로 통역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권위 보존을 위하여 통역을 구두로만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통역 내용이 일정한 형식을 이루게 되었고, 드디어 기록으로 정착되어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타르굼에는 단순한 번역뿐 아니라 자유로운 해석과 의역, 보충설명 등을 통해 본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대표적인 타르굼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타르굼 옹겔로스(Targum Onkelos). 이것은 오경에 대한 공식적인 타르굼이다. 바빌론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랍비들의 주석을 반영하였다. 옹겔로스라는 이름은 바빌론 탈무드에서 나온 것으로서 개종자 옹겔로스가 토라에 대한 타르굼을 썼다고 한다. 오늘날엔 옹겔로스가 한 번역자의 작업이 아니라 긴 전승과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2) 타르굼 요나단(Targum Jonathan ben Uzziel). 이것은 선지서(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까지,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에 대한 공식적인 타르굼이다. 의역의 경향이 강하다. 팔레스타인에서 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요나단’(Jo+nathan= Yahweh+ gives)이란 이름은 헬라어 이름 ‘테오도션’(Theo + dotion= God + given)을 히브리어로 바꾼 것이다. 유대의 전통에서 요나단이란 이름은 ‘유명한 힐렐의 제자, 웃지엘의 아들 요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작품에 옛 사람들은 권위를 부여하였다.

(3) 위(僞) 요나단 타르굼(Targum Pseudo-Jonathan)은 ‘요나단’의 이름을 빌려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주석적 요소가 많이 첨가되어 있다(참. IDB).

칼레(Paul Kahle)는 타르굼 옹겔로스가 바빌론에서 나왔으며, 주후 1000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맥나마라(McNamara)나 쿠처(Kutzscher)는 이 두 개의 타르굼이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 두 개의 타르굼은 단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번역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최종적인 번역판은 주후 5-6 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최종적 편집보다 훨씬 오래 전의 것들을 담고 있다. 타르굼 요나단은 옹겔로스보다 더 오래된 자료를 보전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은 콤란 보다 오래되었다고 한다. 타르굼의 인쇄본으로서 베를리너(Berliner)는 옹겔로스를 1884-1886 년에, 라가르드는 요나단을 1872 년 출판하였다. 보다 근래의 작품으로는 A. Sperber, *The Bible in Aramaic* (1959)에 보다 종합적인 판을 제시하였으나, 오류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IDB: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타브

Taw

히브리어 알파벳의 23 번째 글자.

목적절(目的節)

telic clause

주절의 동작에 목적이나 결과를 부여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종속절.

‘목적’을 뜻하는 영어 telic 의 어원은 헬라어 ‘텔로소’(τέλος, completion 완성, end 결과)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시간적인 한계를 가진 사건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동사의 시상적인 특징을 나타낸다(RDLL). 이와함께 telic clause 는 목적절, 혹은 결과절(final clause, purpose clause)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목적절은 영어에서 in order that, so that, for, for the sake of, to or in order to 와 같은 연결 접속사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לְ, לְמַעַן, פֶּן, בְּעֵבוּר, אֲשֶׁר, לְבִלְתִּי, 바브 접속사등의 불변화사를 사용하여 표현된다(참. PDSBH; IBHS §32.2.1.d).

신 2:25 (IBHS §32.2.1.d)

אֲשֶׁר יִשְׁמְעוּן שְׁמֵעָה וְרָגְזוּ וְחָלוּ מִפְּנֵיהֶּ:

....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듣고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라

창 12:13 (IBHS §32.2.1.d)

אֲמַרְיָנָא אֶחָדִי אֶתְּ לְמַעַן יִיטַב־לִי בְּעִבְדוֹתָהּ וְחִתָּהּ נָפְשִׁי בְּגִלְתָּהּ: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의 목숨이 부지될 것이오

창 3:22 (IBHS §32.2.1.d)

וְעָתָה פֶּן יִשְׁלַח יְדָו וְלָקַח גַּם מִעֵץ הַחַיִּים וְאָכַל וְחָי לְעֹלָם: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헬라어에서는 ἵνα 절, ὅπως 절, ὥς 절, μή 절, μήποτε 절, μή πῶς 절, 관계사 절, 부정사, 분사, 등을 통해서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참. R 981-991; W 676; PDSNTG 120).

(1) ἵνα 절

마 26:4

συνεβουλευσάντο ἵνα τὸν Ἰησοῦν δόλῳ κρατήσωσιν καὶ ἀποκτείνωσιν

그들이 예수를 꾀계로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

ἵνα 절이 목적절로 사용되었다.

(2) 부정사

마 26:17

ποῦ θέλεις ἐτοιμάσωμέν σοι φαγεῖν τὸ πάσχα;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당신은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3) τοῦ 부정사

마 2:13

μέλλει γὰρ Ἡρώδης ζητεῖν τὸ παιδίον τοῦ ἀπολέσαι αὐτό

왜냐하면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찾으려고 한다.

τοῦ 부정사가 목적으로 사용된다.

+ 주절(main clause), 종속절(subordinate clause)

= 목적절 (final clause)

성전 두루마리

temple scroll (Qumran)

쿰란의 제 11 동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온전한 사회, 제의, 정치에 대한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ABD VI 348).

야딘(Yigael Yadin)이 1967 년 6 일 전쟁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현재 예루살렘의 ‘책의 전당’(Shrine of the Book)에 보존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는 현존하는 쿰란 문서들 중에서 가장 길다(8.75 미터; 1Qis^a는 7.34 미터이다).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두 명의 서기관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본다. 전반부(col. 1-5)를 기록한 서기관은 이미 두루마리를 많이 사용하여 낡아진 것 위에 다시 기록하였다. 이 두루마리의 언어는 쿰란 종파의 방언이 가진 언어적 특징과 용어들을 보여준다. 이 두루마리는 토라를 새롭게 기록한 것으로서, 정경 토라의 순서를 따르면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들을 재해석하고 주석을 하면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두루마리는 성전, 제의, 정치, 성결성 등의 주요한 주제에 대하여 쿰란 공동체 자체의 관점을 주석적으로, 법적으로 제시한다. 이 두루마리는 요한 히르카누스의 하반기 통치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전 두루마리는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DJD) 40 권 시리즈의 23 권에 수록되어 있다.

+쿰란 두루마리(Qumran scrolls)

참. L. H. Schiffman, “Temple Scroll,” in *Anchor Bible* VI, 348-350.

시간절(時間節)

temporal clause

계승(succession), 선행성(anteriority), 후행성(posteriority), 동시성(simultaneity)과 연관된 주절을 표현하기 위해 동사수식적인 수식어의 기능을 하는 종속절(참. RDLL; JMK §166)

시간절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지속성을 표현하는 접속사로 표현된다. 영어에서는 as while, as long as, until, since 와 같은 접속사로 표현된다(I watched television while he made dinner). 특히 동사수식어구로도 표현된다(in July, during the summer).

히브리어에서는 (1) 단순 바브로 가볍고 세련되게 병렬적으로 표현되거나, (2) 바브외에 다른 불변사(시간 불변사, temporal particle)인 **אֲחֵרִי, לְפָנִים, בְּרֵאשִׁי, בְּטָרָם, עַד, לְפָנֵי**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종속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로, 단순 바브로 표현된 시간관계에서, (1-1) 한 동작이 후행성(posteriority)을 나타낸다면 계승(succession)의 바브(과거 영역에서 바익톨, 미래영역에서 베카탈티)가 사용된다. (1-2) 두 동작들 중 하나는 순간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으므로 동시성(simultaneity)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4 개의 조합(2 개의 순간적 동작인 경우, 2 개의 지속적 동작인 경우, 첫 번째 동작은 지속성이지만 두 번째 동작은 순간적인 경우, 첫 번째 동작은 순간적이지만 두 번째 동작은 지속적인 경우)이 가능하다. (1-3) 앞에서 언급된 행동보다 더 이전의 행동, 즉 선행성(anteriority)을 표현하려고 할 때 히브리어는 내러티브의 순서에 따라 바익톨을 회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둘째로, 바브외에 다른 시간 불변사로 표현된 시간관계에서, (2-1) 선행성과 후행성은 전 후와 같은 전치사나 접속사로 표현된다. (2-2) 동시성은 엄격한 의미이든 아니든 간에 특히 시간 불변사로서 2 개의 전치사 **בְּ**와 **כִּ**가 부정사와 함께 나옴으로써 표현된다. 그것은 접속사 **כַּאֲשֶׁר**로 표현되며 좀 덜 빈번하게 **כִּ**나 **אִם**으로도 표현된다. **בְּ**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시간 안(within)의 행동을 포함하며, ‘그가 오자(on his coming)’ ‘그가 왔을 때(when he came)’처럼 특별한 뉘앙스가 없이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행동이 지속성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כִּ**는 엄격하게 말하면 시간 속에서(in time) 두 행동의 일치성을 가리킨다. 즉 하나의 시간이 다른 시간과 같다. **כִּ**는 내포된 비교, 즉 두 행동의 시간 사이에 있는 상호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한 행동에 다른 것이 즉각적으로 뒤따라 오는 두 행동의 완전한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 두 전치사는 거의 유사하지만 그 기본 의미로서 구분된다(참. JMK §166).

(1-1)

창 24:19 (JMK §166b)

וַתִּקַּל לְהִשְׁקֶתָּ וַתֹּאמֶר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마실 물을 준 후에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1-2)

삼상 9:17 (JMK §166c)

וַשְּׂמוּאֵל רְאָה אֶת־שָׁאוּל וַיְהִי עֲנָהוּ

사무엘이 사울을 본 순간 야웨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카탈 다음에 베..카탈이 나오면서 2 개의 순간적인 동작을 표현한다

(1-3)

민 17:15(한 16:50) (JMK §166j)

וַיָּשָׁב אֶהְרֹן אֶל־מִשְׁה אֶל־פֶּתַח אֹהֶל מוֹעֵד וְהַמִּגְפָּה נִעְצְרָה: פ그리고 아론을 돌아왔다... 그리고 재앙은 그쳤었다

재앙이 그친 후에, 혹은 재앙이 그쳤기 때문에... 아론이 돌아왔다는 선행성을 표현한다.

(2-1)

레 22:4

לֹא יֵאָכֵל עַד אֲשֶׁר יִטְהַר정결하기 전에는 먹지 말 것이요

(2-2)

수 5:13 (JMK §166l)

וַיְהִי בַּהֲנִיחַ יְהוֹשֻׁעַ בִּירְיָחוֹ וַיִּשָּׂא עֵינָיו וַיֵּרָא여호수아가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그의 눈을 들어 보았다

삼상 9:13 (JMK §166m)

כְּבֹאֲכֶם הָעִיר כִּי תִמְצְאוּן אֹתוֹ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때 너는 그를 만날 것이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ἄχρι 절, ἕως 절, πότε 절, ὡς 절 등이 있다(참. R 970-979; W 677).

(1) ἄχρι 절

마 24:38

ἄχρι ἧς ἡμέρας εἰσῆλθεν Νῶε εἰς τὴν κιβωτόν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날까지

ἄχρι 가 시간 부사절을 나타낸다.

(2) ὅταν 절

눅 11:2

ὅταν προσεύχησθε λέγετε·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말하라

ὅταν 절은 시간 부사절을 나타낸다.

(3) πότε 절

막 13:4

εἰπὸν ἡμῖν, πότε ταῦτα ἔσται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지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πότε 절은 시간 부사절을 나타낸다.

시제(時制)

tense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자리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호화된 동사의 형태적 특징과 문법적 체계.

전통문법에서 시제와 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 현재, 과거, alfoo의 시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시제와 시간을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예로, 현재 시제로 과거의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Minister *resigns*), 미래의 시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예, *If he comes tomorrow...* ODEG).

즉, 시제는 언어 외적 시간이 화자의 의식 속에 반영되었다가 그 의식을 거쳐서 객관적인 동사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객관적 시간관계는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에 의하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상대적으로 이른 것(the earlier), 상대적으로 늦은 것(the later),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것(the neither earlier nor later), 따라서 개념적 시간의 주요 구분은 선행성(anteriority), 후행성(posteriority), 그리고 동시성(simultaneity)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 시간의 3구분설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Jespersen (1924)이다. 그는 시간을 1차원 즉 일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해 객관적 시간관계가 의식에 반영되고 개념화되어서 자연 언어의 동사형으로 표현된 것이 시제이다. 시제는 그 지시어가 참여자(participants), 특정 시간, 장소에 의해 상대적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직시적(deictic)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어 동사의 시제 형식에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시간 관계의 구분에 맞추어, 과거시제(past tense, preterite tense), 미래시제(future tense) 및 현재 시제(present tense)가 있다(조성식 외).

그러나 무엇보다 시제 체계는 언어 특징적(language-specific)이며 상(aspect)이나 법(mood)과 같은 다른 정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제의 분석은 특히 문체적이고 실용적인 요소들이 고려될 때 매우 복잡할 수 있다(RDLL).

히브리어의 시제(tense)는 인도 유럽어의 수많은 용어들 가운데 그 어떤 용어로도 히브리어가 사용하는 2개의 정시제(finite tense)에 내포된 복잡성을 정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히브리어 정시제는 ‘접미사 시제’와 ‘접두사와 접미사를 함께 갖는 시제’가 있는데,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료’나 ‘미완료(미래)’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시간 형태들은 동사의 시제(tense)와 서법(modality)을 동시에 표현한다. 많은 언어에서처럼 그것들은 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시제를 표현하지만, 그것들은 자주 동작의 서법이나 시상(aspect)을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언어들보다는 시제가 좀 불완전하게 표현된다. 히브리어 시제와 함께 표현되는 시상들은 2가지로 구성된다. (1) 그 동작이 특유하고 단독적인지, 혹은 반복적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동작의 ‘통일성’과 ‘복수성’, (2) 그 동작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지, 혹은 얼마간의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동작의 ‘즉각성’과 ‘지속성’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두 시상은 서로 닮았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 어떤 동사들은 그 자체 안에 즉각적인 시상(instantaneous aspect)과 지속적인 시상(durative aspect)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작은 전반적(global)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는 마치 유일하거나 즉각적인 것처럼 취급된다. 또한 시상 이외에도 어떤 시제 형태는 어느 정도의 법(mood)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많은 언어에서 준-조동사(semi-auxiliaries)인 ‘할 수 있다(can)’, ‘해야 한다(must)’, ‘할 것이다(will)’ 등으로 표현된다(JMK §111a-g).

≡ 상, 시상(aspect)

테트

Tet

히브리어 알파벳의 아홉번째 글자.

네 자음 신명(四子音神明)

Tetragrammaton

라틴어로 ‘네 글자’(four-letter word)를 뜻하며, 주님의 이름(יהוה)에 대한 또 다른 호칭.

라틴어 Tetragrammaton 은 헬라어에서 ‘4’(τετρα)와 ‘문자’(γραμμα[τ-])를 합성한 단어 (τετραγράμματον)를 음역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יהוה)는 네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랍비들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므로 직접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대신에 ‘주’(Adonai)로 읽도록 하였다(Authorized version, ‘Lord’).

= 여호와, 야웨(Jehovah)

본문(本文)

text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한정된 형식으로 순서를 따라 기록한 작품으로, 주로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과 텍스트 이론(text theory)에 사용된 용어

영어 text란 라틴어로 textus를 음역한 말로, ‘짜인 작업의 한 부분, 직물, 구조’의 의미를 갖는다. 본문은 의사전달 행위를 표현하는 언어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문장 이상의 단위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성서학에서는 성경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언어학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텍스트는 저자가 청자의 기대나 특정 상황 속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경계 표지들(boundary signals), 거시 구조(macro-structure), 문법적 응결성(grammatical cohesion), 내용의 응집성(content coherence), 지배적인 주제(dominant text theme), 주제의 발전(thematic development), 그리고 통일성(unity)을 이루고 있다.

–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

텍스트 언어학

text linguistics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본문의 구성적인 특징들과 언어적인 규칙들을 분석하여 문맥 안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방식을 찾는 언어학의 한 분야.

텍스트는 단지 문장들의 결합체가 아니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모음집도 아니다. 텍스트는 그것을 만든 저자와 그것을 전달받는 독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이다. 이것을 위하여 저자와 독자는 서로 공유하는 세계가 있어야 한다. 즉, 텍스트는 서로 공유하는 세계를 가진 저자와 독자 사이에 소통적 기능과 뼈대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 ‘답화를 담화답게 조리 있게 만드는’ 응집성(coherence)과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문법적, 어휘적, 음성적)로써 문장들이 결속시키는 응결성(cohesion)이 있어야 한다. 텍스트 언어학은 바로 구문적이고 주제적인 응집성과 응결성을 통하여 본문 전체의 의사소통적 구조를 찾으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텍스트 언어학은 1960년대 이후 구조주의 기반(문법소론, 본문 분석, 프로그 학파)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문체론과 수사학의 연구 기반으로 통합되었다. 텍스트 언어학은 문장론에 제한된 본문 분석을 극복했으며, 나아가 본문들이 다른 학문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텍스트 언어학은 ‘본문’(text)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1) 만일 ‘본문’(text)을 문장의 연속물(sequence of sentences)로 정의하고 언어 체계의 한 단위로 규정한다면, 텍스트 언어학은 확장된 문장 문법(an expanded sentence grammar)으로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을 구성한다. (2) 만일 ‘본문’을 전달 단위(communicative unit)로 이해한다면, 본문의 기능이나 본문의 주제와 같은 그 이상의 특징들은 본문 문법적인 규칙들(text-grammatical regularities)에서 비롯된다.

+ 언어학(linguistics)

- 응집성(coherence), 응결성(cohesion),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 결속 관계(syntagmatic relation)

본문 유형(本文類型)

text types

본문들(texts)의 분류를 위해 텍스트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RDLL)

본문 유형은 계층적인 본문 유형학(text typology)의 용어이다. 모든 본문들은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특징을 가지므로, 그 특징들을 공유하는 점들을 찾아 본문을 분류하는 것이다(예. 조리법, 설교, 강의 등). 본문 내적인 요소들은 분류에 일치하는 단어들(지시적인 표현들, 고유명사들), 내용적이고 주제적인 구조, 스타일의 형태(거시구조 macrostructure, 상부구조 superstructure, 주제적 발전 thematic development)를 사용한다. 본문의 외적인 요소들은 지역적이고, 시간적이며, 제도적인 조건들(전달 거리, 본문 기능)뿐 아니라, 화자의 의도, 청자의 기대와 같은 의사 전달 상황의 요인들에 의해 한정되는 복잡한 발화 행위로서 형성된다. 따라서 본문 유형들은 본문 종류들의 특별하고 실용적인 특징들 때문에, 집행문서, 농담, 대화 등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다(RDLL; van Dijk, T.A., 297–323).

≡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

van Dijk, T. A., “Foundations for typologies of texts,” *Semiotica* 6, 1972.

본문 훼손(本文毀損)

textual corruption

본문 전송에 있어서 성경을 복사하고 보존하는 과정에 생겨진 오류나 훼손.

성경 본문이 서기관들의 사본 필사과정을 통하여 전달되어 오는 동안에 어떤 본문의 일부가 빠지거나, 잘못 필사되거나, 왜곡되는 등, 본문 전달과정에서 실수나 고의적 변경에 따른 본문 왜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본문의 오류들에는 (1) 비의도적인 서기관의 오류로서, 두 번 써야 하는 것을 한 번 쓰는 중자 탈락(haplography), 한 번 쓸 단어나 글자를 두 번 쓰는 중복 오사(dittigraphy), 유사한 글자의 혼돈(confusion of letters), 자음 순서의 도치(metathesis), 단어를 합성하여 연결하고 나누어 구분할 때 생기는 오해,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동음이어(homonphony), 우연한 생략, 모음을 삽입할 때 원래 모음으로 삽입된 것을 자음으로 여겨 혼란을 일으킨 경우들이 있다. (2) 의도적인 서기관의 수정으로서, 문법적인 분석을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단어를 첨가하여 본문을 단순하게 만드는 경우, 시대의 용법에 맞추기 위해서 언어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 종교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학적인 이유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김정우, 『구약통전 상』, 114-117).

+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本文批評)

textual criticism

성경의 ‘원문’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사본들과 역본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학문.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쓰여졌으므로 ‘원본’(original text)은 전수되지 않았다. 다만 성경은 오랜 과정을 통하여 필사된 사본들과 그 사본들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들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들과 역본들은 성경의 여러 책들이나 구절들에서 내용을 달리하기도 하며, 내용은 같아도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본문이 사본으로 필사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의도적, 비의도적 오류를 찾아내게 되었다. 예로, 본문의 단어, 구, 절 등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 거듭 반복되어 적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사자가 불러주는 이의 말을 잘못 들어 엉뚱하게 적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때로는 어느 전통이나 학파나 교단의 독특한 견해나 입장을 본문 속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오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본문의 전수 과정에는 부주의한 실수나 고의적 변경에 따른 본문 와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 학자들은 사본들과 역본들의 배후에 서로 다른 전통들이 있는 것을 보고, 본문의 여러 유형들을 분석하며 서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피게 되었다. 따라서 본문 비평이란 본문의 다양한 전수 과정들, 사본들, 역본들을 과학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본래의 본문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참.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49-50).

- 본문 훼손(textual corruption)

공인 본문(公認本文)

Textus Receptus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권위 있는 본문으로 수용한 성경의 인쇄본.

‘공인본문’이라는 용어는 라틴어(textus receptus)를 번역한 용어(received text)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의 본문 비평에서는 ‘벤 하임’(Jacob ben Chayyim)이 편집한 성경을 가리킨다. 벤 하임의 성경은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봄버거(Daniel Bomberg)가 의 1524/1525 년에 인쇄하였으며, ‘제 2 랍비 성경’이라고 한다. 이 성경에는 타르굼과 중세의 여러 유대인 학자들인 라쉬, 김히, 이븐 에즈라 등의 주석들도 담겨 있다. 루돌프 키텔은 이 본문에 기초하여 최초의 비평본인 Biblia Hebraica (J. C. Hinrichs publisher, 1906)를 출판하였다. 벤 하임 성경은 키텔의 비평본이 나올 때까지 대표적인 히브리어 본문으로 수용되었다.

신약성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비잔틴 본문>이 ‘공인 본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것은 ‘시리아 본문, 코이네 본문, 교회 본문, 안디옥 본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텍스트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만들어진 후 콘스탄티노폴로 갔고 비잔틴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 에라스무스는 최초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하였다(1516 년). 그는 몇 개의 사본들을 입수하여 비잔틴 본문에 비평적인 작업을 하였다. 이후 스테파누스(Stephanus)로 알려진 로베르 에티엔(Robert Etienne)이 파리에서 본문비평장치를 포함한 헬라어 성경을 출판하였다. 이후 네델란드 라이덴의 인쇄 업자였던 보나벤투라 엘제비르(Bonaventura Elzevir)와 아브라함 엘제비르(Elzevir) 형제가 『헬라어 성서 제 2 판』(1633)을 인쇄하면서, 서문에서 “이제 여러 분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본문(textum receptum)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결코 수정되거나(immutatum) 손상된 것(corruptum)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바로 여기서 ‘수용 본문’, 혹은 ‘공인 본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 책은 1516 년 최초로 인쇄된 에라스무스 판 이래로 인쇄되어 발행된 160 여개의 다른 헬라어 성경 본문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초기의 모든 인쇄본들에서 재생된 비잔틴 형태의 헬라어 성경 본문은 여러 모로 손상된 것이었다(참. Bruce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8-9).

+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티베리아 마소라

Tiberian massora

티베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98km 지점, 갈릴리 바닷가 서쪽 언덕에 위치한 도시이다. 티베리아는 주후 20 년경에 헤롯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안디바, 주전 4-39 년)가 건설한 도시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Tiberius)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라 불렸다. 주후 70 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 당한 후,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게 되어 티베리아는 ‘유대 랍비 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무엇보다 티베리아는 랍비 나파하(R. Johana-ben Nappaha, 주후 180-279 년)가 티베리아 학파를 주도하여 미슈나(Mishnah)와 탈무드(Talmud), 지금까지 히브리어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마소라(Masorah)성경이 완성된 곳이기도 하다.

티베리아의 마소라 학자들은 세 학파(바빌로니아 학파, 팔레스타인 학파, 티베리아 학파)가 있었다. 이들은 자음 본문의 모음화와 억양 부호를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하였다. 티베리아 학자들은 성경 독법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수하는데 있어서, 시리아 문법학자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당시 시리아 학자들은 바빌론의 히브리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다시 티베리아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티베리아 마소라’ 성경은 티베리아 학파에 의하여 구상된 가장 정밀한 체계를 사용한다. 히브리어 문법은 일반적으로 주후 7 세기경에 티베리아 학파의 유대인 학자들이 확립하였던 전통적인 성경원문언어의 문법으로 이해되고 있다(JMK §1a).

+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s)

티프하

tifha

히브리어의 짧은 절에서 가끔 아트나흐 대신 오는 ‘ֿ’ 형태의 분리 악센트

창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 악센트(accent)

음색(音色)

timbre

일반적으로 소리를 구별시키는 특색을 가리키지만 언어학에서는 모음이 가진 성질을 말함.

영어 **timbre** 는 헬라어에서 ‘북’(drum)을 가리키는 단어인 ‘뿔과논’(τύμπανον, **timbrel**, **kettle-drum**)에서 나왔다. 모든 음은 길이, 이음, 강도를 가지므로, “소리의 높낮이, 크기가 같더라도 진동체나 발음체, 진동 방법에 따라 음이 갖는 감각적 성질에는 차이가 생긴다”(표준국어대사전). 영어에서도 모음 **a, i, u** 는 고저와 장단과 진폭에 따라 다른 음색이 나온다.

히브리어에서는 팔레스타인 전통과 티베리아 전통의 모음 음색이 서로 너무나 달라 서로 다른 방언을 반영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체계는 일관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하나의 모음이 다른 모음 특히 유사한 음색의 모음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단어 끝에서 두 자음의 연속을 막기 위해 **e** 모음을 삽입한다”(SBCP 107). 티베리아 모음 체계는 “모음의 음질이나 음색만을 표시하고, 최단 모음이 아닌 한 모음의 장단을 표시하지 않는다”(SBCP 128). 티베리아 체계와 달리 바빌론 체계에는 “티베리아 체계의 세골에 해당하는 모음이 없어 여섯 개의 음색이 다른 모음이 있고, 팔레스타인 전통은 가장 초기 단계에 다섯 개의 기본 모음만 갖고 있었다(SBCP 128)

+ 모음(vowel)

틀리샤 그돌라

tlisha gdol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 4 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틀리샤 그돌라는 연결 악센트 중 하나인 틀리샤 크타나(○○○[◌])와 생긴 모양이 비슷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틀리샤 그돌라는 틀리샤 크타나와 방향이 서로 다르며, 틀리샤 그돌라는 단어 처음에 위치하고 틀리샤 크타나는 단어 끝에 위치한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카르네이 파라, 파제르, 게레쉬, 게르샤임, 무나흐 레가르메 등과 함께 제 4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이 악센트는 어절 수가 적은 짧은 절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긴 절에서만 등장며, 긴 절 중에서도 이 악센트의 출현횟수는 매우 적다(참. GKCS i15f, JMK i15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틀리샤 크타나

tlisha ktan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틀리샤 크타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인 틀리샤 그돌라(○○○○ֿ)와 생긴 모양이 비슷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틀리샤 크타나는 틀리샤 그돌라와 방향이 서로 다르며, 틀리샤 크타나는 단어 끝에 위치하고 틀리샤 그돌라는 단어 처음에 위치한다. 이 악센트는 다른 연결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할 때, 다음에 오는 단어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참. GKCS i15g; JMK i15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177).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허용적(許容的)

tolerative (tolerativum)

동사의 의미가 어떤 것을 허용함을 나타내는 경우를 일컫는 말

히브리어의 경우, 허용의 니팔, 허용의 피엘, 허용의 히필 등, 동사가 어떤 것을 허용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허용의 니팔이란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가 되어, 사실상의 실제 동작 개념으로 이해되게 된다. 예를 들면, **סר** 동사의 니팔 형태는 ‘자신이 경고받도록 허락하다’라는 수동의 개념으로부터 실제로 경고를 받는다는 뜻으로 확립되게 되었다(JMK §51c).

화제(話題)

topic

한 문장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구성요소.

화제는 대부분 “문장의 처음에 나와서 추가적인 발전을 위하여 초점을 제공하는 주제”이며 문맥 속에서 이 화제에 대해 언급하는 ‘평언’(comment)이 주제를 뒤따르며 보충하게 된다. 즉 ‘평언’은 “문장 안에서 정보 전달과 연관된 화제(topic)에 대하여 보충적인 용어로서 사용되는 것이다”(CDEG). 따라서 문장을 ‘화제’와 ‘평언’으로 분석하는 구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구성요소인 주어-술어(subject-predicate)와 달라진다. 왜냐하면, 평언 안에 주어-술어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학에서는 문장을 주제-논술(theme-rheme), 화제-평언(topic-comment)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화제-평언은 문법적인 시각이 아닌 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시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하는 것이 화제이며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하는 것이 평언이다. 정보 이론에 의하면 알려진 정보가 화제이며 새로운 정보가 평언에 속한다”(이정민 외; 조성식 외). 영문법에서는 ‘평언절’(comment clause)이라는 범주가 있으며, 이것은 준-형식적인 단문절(quasis-formulaic mini-clause)로서, I think, you know, I believe, I guess, I suppose, it seems, they say 등의 형식이 있다(CDEG).

≡ 평언(comment)

토셉타

Tosefta

미슈나와 성경에 대한 토론들을 담은 책.

토셉타는 아람어로 ‘보충, 추가’를 의미한다. 주후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랍비들은 미슈나에 대하여 상당한 양의 주석을 하였다. 토셉타는 미슈나에 ‘보충’을 했다는 뜻이다. 이 시기를 타나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의 랍비들은 구어로 사용된 히브리어를 점차 문헌 히브리어로 발전시켰고, 이 당시의 작품들이 미슈나, 토셉타, 바라이트트(baraitot), 그리고 초기 미드라쉬이다. 타나임 시대 이후를 아모라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아람어가 랍비 시대 히브리어를 구어체 방언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에, 랍비 시대 히브리어는 문헌 언어로만 살아남게 되었다(참. SBCP 186).

≡ 미슈나(Mishnah)

타동사(他動詞)

transitive verb

동작이 목적어에 전달되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므로, 목적어가 필요없는 자동사(intransitive verb)와 대조된다. 타동사는 문장 안에서 동사가 그 동사를 보강하는 어구를 갖게 되는 경우이고, 자동사는 그 동사를 보강하는 어구가 없는 경우이다(ODEG 422). “갓다, 취하다, 죽이다” 등의 동사들, 그리고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타동사의 예이다. 어떤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목적어를 갖지 않더라도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 동사(verb)

≡ 동작 동사(active verb)

↔ 자동사 (intransitive verb)

음역(音譯)

transliteration

한 언어의 소리값을 다른 언어의 소리값으로 표기하는 행위.

음역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되, 의미를 옮기는 번역과는 달리, 소리나는대로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히브리어의 **רָאָה**를 소리나는대로 한국어로 ‘라아’로 표현하는 것이 음역이다. ‘그가 보았다’로 표현하면 번역이 된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타나임 시대와 동시대 작품들인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안의 번역에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오리겐의 헥사플라에는 한 칼럼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을 담고 있다. 랍비 시대의 히브리어는 랍비들의 글 속에 헬라어와 라틴어들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들과, 또한 헬라어와 라틴 문헌들 속에 히브리어들이 음역된 것들을 통하여 발음을 재구성하게 된다(SBCP 196).

헬라어에는 셈어와 라틴어의 음역이 많이 나온다. 신약에 나오는 음역은 지역명, 인명, 강조를 위한 음역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참. Lee 334; BDF §36-42).

≡ 70 인경(Septuagint), 헥사플라(Hexapla).

Lee, Sang-Il,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erlin and 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모음 전환(母音轉換)

transposed vowel

모음의 순서가 전환되는 현상.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 알렙(א)이 묵음과정을 통해 모음 위치의 전환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원형으로 추정되는 מְלֶאכָה 에서 알렙에 묵음이 되면서 모음의 위치가 전환되어 מְלֶאכָה 가 된다(JMK §24f).

세 자음 어근(三子音語根)

triconsonantal root (triliteralism)

히브리어에서 세 개의 자음으로 어근이 구성된 형태

히브리어에서 어근은 대개의 경우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네 개의 자음이나 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개의 자음으로 어근이 구성된다. 두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경우는 아인 중복 동사나 아인 바브 동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JMK §2j, 34a).

+ 어근(root), 셈어(Semitic)

짜데

Tsade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여덟 번째 문자.

원시 가나안어의 알파벳을 살펴볼 때, 히브리어 문자 짜데는 식물(히브리어 ‘제마흐’ צמח)이나 꽃(히브리어 ‘찌즈’ ציצית)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지만 이 문자의 명칭인 ‘짜데’(혹은 ‘짜디’)의 뜻은 불분명하다. 주전 약 12세기경의 가나안 비문에는 수직으로 다리를 두고 위로 두 팔을 밖으로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영어의 Y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고대 헬라어에는 이 문자가 존재했었으나, 후에 사라져 버려서 라틴어 문자와 오늘날 영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짜데는 ‘9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짜데는 무성 치찰음(sibilant)에 속한다(참. GKCS §5b-c, 6o-p; JMK §5c-d, h, m; A. Yardeni, 70-72).

+ 문자(letter)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트비르

tvir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3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밑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이 악센트의 명칭 ‘트비르’(תְּבִיר)는 아람어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שְׁבוּר’이며 ‘깨어진’이라는 뜻이다. 이는 음악적인 멜로디와 관련된 것으로 음을 아래 쪽으로 떨어뜨리는(깨뜨리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예티브, 파쉬타, 자르카, 르비아 등과 함께 제3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4급보다는 힘이 크지만, 제1급, 제2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적다(참. GKCS i15f; JMK i15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서울: 목양, 2015.

언어 유형론(言語類型論)

typological linguistics

언어들을 상호비교하여 유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

언어들을 상호연구하되 구조, 구문, 형태적으로 어떻게 특징을 공유하게 되는지를 살펴서 언어들 사이의 공통점 및 상이점을 발견해내는 학문분야이다. 전세계의 언어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한 개별언어가 가지는 특징을 일반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ODEG 424).

+ 언어학(linguistics)

우가리트어

Ugaritic

아마르나 시대의 우가리트에서 사용한 서북 셈어의 방언.

우가리트어는 주전 1550-1200년 경에 고대 우가리트 도시국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우가리트은 오늘날 시리아의 라스 샤므라 지역이다. 우가리트 사람들은 30개의 췌기 문자로 된 알파벳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알파벳 췌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의 ‘음절 췌기 문자’와 구별된다. 우가리트어는 서북 셈어 군에 속하며, 히브리어 및 가나안어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우가리트어는 가나안어와 연관되고 동시적이지만, 서로 구별된다”고 한다(Alan R. Millard, “The Canaanites,” in *POTT*, 29-52). 우가리트의 토판들은 1929년 불란스의 고고학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우가리트 문헌들에 나온 신화들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들과 다르다. 우가리트어는 히브리어와 유사성이 높으므로 히브리어 어휘 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 + 서북셈어(Northwest Semitic)
- = 가나안어(Canaanite language)
- ≍ 히브리어(Hebrew)

끝 음절(終音節)

ultima

한 단어의 마지막 음절.

한 단어의 마지막 음절을 끝음절(ultima)라고 부르며, 끝음절 바로 앞의 음절 즉 끝에서부터 두번째 순서인 음절을 끝전음절(penultima)라고 부른다. 끝전음절 앞의 음절은 제 3 말음절(proparoxyton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끝음절-끝전음절-제 3 말음절은 중음절-전중음절-전전중음절로 불리기도 한다.

헬라어에서는 단어의 끝 음절을 울티마(ultima)라고 부르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을 페널트(penult)라고 하며, 끝에서 세 번째 음절을 안티페널트(antipenult)라고 한다.

+ 음절(syllable)

단회적(單回的)

unique

단 한번 발생하고 끝난 것을 말함.

히브리어 동사의 시간의 형태를 시제로 볼 것인지 서법/시상으로 볼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 동사들은 많은 경우 시제뿐 아니라 서법/시상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시상들을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의 원리를 고려하게 되는데, 첫번째는 동작이 즉각성(instantaneous aspect)을 나타내는지 혹은 지속적 시상(durative aspect)을 나타내는지 보아야 하고, 두번째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일회적(unique)인지 반복적(repeated)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일회적’이란 한번 발생하였기에 다중적으로 반복되지 않음을 뜻한다(JMK §111c, 112d). 주옹-무라오까는 히브리어 카탈 유형은 주로 일회적 동작을 나타낸다고 본다.

삼상 30:3

וַשִּׁיחֶם וּבְנֵיהֶם וּבְנֹתֵיהֶם וְשָׁבוּ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이 사로잡혔다.

히브리어 **שָׁבָה**는 니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과거에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 즉 사로잡힌 사건을 표현하였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계속이나 진행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와 대립되는 것으로 단순상이나 부정상이라고 부르면서 단순 과거 혹은 부정 과거라고 한다.

+ 시상(aspect)

↔ 반복적(repetitive), 반복의(iterative)

단위 명사(單位名詞)

unit noun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명사란 단위로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를 셀 수 있는 형태로 나눌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명사를 말한다. 영어로 **water** 는 불가산 명사이나 **a cup of water** 라는 표현에서는 물(**water**)를 셀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단위명사 **cup** 을 사용했다.

히브리어에서는 불가산명사에 여성형 어미를 추가해서 단위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מַעֲרָב**는 머리털을 뜻하는 집합 명사인데, **מַעֲרָבִית**는 셀 수 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뜻한다(ODEG 428; JMK §134p).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마 5:36

οὐ δύνασαι **μίαν τρίχα** λευκὴν ποιῆσαι ἢ μέλαιναν

너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헬라어에서 머리카락 **τρίχα** 은 집합명사이지만 한 올로 표현할 때는 수사를 앞에 붙여서 한 올로 표현한다.

+ 명사(noun)

보편성(普遍性)

universal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법특징을 가리키는 말.

보편적인 언어현상이란 어떤 특정한 언어가 아닌 모든 언어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을 말한다. 보편적 언어현상의 예로는 모든 언어에 동사와 명사가 존재하고,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며,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ODEG 428).

+ 언어학(linguistics)

무표(無標)

unmarked

상호 대립을 나타내는 언어학적 자질 중 어느 하나에는 +값을 주고 다른 하나에는 -값을 주어 전자를 유표(marked), 후자를 무표(unmarked)라고 부르는 언어 분석상의 원칙.

단어의 어휘적인 형태로부터 단어에 있는 형태론적인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서, 무표의 자질을 가진 것은 보다 일반적이며 유표의 자질을 가진 것은 보다 복잡하거나 특수하고 덜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데는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이 때 단수를 무표적인 것으로 그리고 복수를 유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dog-dogs[z], cat-cats[s], church-churches[iz] 에서 처럼, 복수 형태의 발음이 단수 형태에 따라 결정되고 의미상으로도 단수의 개념이 복수의 개념보다 더 기본 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표/무표의 해석은 prince-princes 와 같은 성(gender), happy-unhappy 같은 긍정 부정의 관계, walk-walked 같은 시제(tense)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유표(marked)

우크톨

Uqtol

접속사 바브 뒤에 명령형이 첨가된 형태.

접속사와 명령형이 함께 사용된 형태로서 대개 간접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이 우크톨 형태 바로 앞에는 권유형, 지시형, 명령형 등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크톨은 ‘~하도록’의 목적의 의미 혹은 ‘~하게 된다’는 결과의 의미를 뜻하게 된다(JMK §116f).

왕하 5:13

אָמַר אֵלָיו רְחֹץ וְטָהַר

그가 너에게 말했다.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두 개의 명령형을 사용하는데, 두번째 명령형인 **וְטָהַר** 가 ‘결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의지법(volitive)

= 명령형(imperative), 지시형(jussive), 권유형(cohortative)

모호성(模糊性)

vague

정보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

주어진 표현이 구체적인 특정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최근의 성경신학계에서는 vague 라는 용어보다 ambiguous 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며 ‘중의적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IBHS 694).

= 중의성(ambiguity)

연구개음(軟口蓋音)

velar

혀 뒤쪽과 입천장의 뒷부분인 연하고 부드러운 곳에서 조음이 되는 소리.

혀 뒷부분을 연구개에 접촉함으로써 발음이 되는 것으로, 영어에서는 back, bag, bang 의 끝음에 나오는 [k], [g], [ŋ]을 발음할 때 나오는 소리이다.

히브리어에서 연구개음을 표시하는 자음은 테트(ט), 짜데(צ), 코프(כ) 세 개가 있다(JMK § 5c). “세 개의 연구개 자음 ט, צ, כ는 강세음이라고 불린다. 또한 이것들은 비 강세음인 세 개의 자음 ת, נ, ס와 대응된다. 이 강세음들은 연구개(soft palate)라고 불리는 입 안의 뒷쪽 부분에서 나오며, 비 강세음들보다 발음 기관이 더욱 긴장하면서 발음된다”(JMK §5i).

우가릿어는 연구개음과 치간 마찰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원시 셈어 자음 음소들을 보존하고 있다. “주전 이천 년대에 다소 불안정해진 연구개음은 천 년에 걸쳐서 인두음과 중화되었다(/ħ/>/h/, /g/>/ʕ/)”(SBCP 66).

헬라어에서 연구개음은 γ(유성 파열음), χ(무성 무기 파열음), χ(무성 유기 파열음), ξ(파찰음) 이 있다(참. LSNTG 63, 65).

+ 자음(consonant)

동사(動詞)

verb

시제, 법, 상 등의 문법적 의미를 취하여 문장에서 술어의 역할을 하는 어휘소(참. 이정민 외)

전통문법에서는 동사란 상태 혹은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소로 생각되었으나, 명사 역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에, 문장 내에서 술어로 기능하면서 시제, 법, 상 등을 나타내는 어휘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정민 외) 동사는 어근을 지닌 동사와 조동사로 나눌 수 있고, 또한 타동사, 자동사, 연결동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ODEG). 히브리어 문법에서 동사는 7 가지의 주요유형(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푸알)으로 사용되며, 완료형과 미완료형 등의 형태 이해에 있어서 시제를 우선시할 것인지 상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이슈이다(JMK §111-112; IBHS §29).

헬라어에서 동사는 시제(현재, 미래, 미완료 과거, 단순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법(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회구법, 분사, 부정사), 태(능동태, 중간태, 수동태)에 따라 활용한다.

+ 품사(part of speech)

명령의 동사(命令動詞)

verb imperandi

명령의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

명령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히브리어의 경우는 짜바 (צוה) 동사를 예로 들 수 있다(JMK §177i).

민 9:8

מִשְׁפָּחַי מִי־צִוִּיתִי וְהָיָה לָכֵן

여호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명령하실지 내가 들을 것이다.

히브리어 צוה 동사가 여호와와 명령하심을 가리키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헬라어에는 ἐντέλλομαι, κελεύω 등이 있다.

요 15:14

ὁμοῖς φίλοι μου ἐστε ἐὰν ποιῇτε ἃ ἐγὼ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동사 ἐντέλλομαι 는 명령하다라는 의미이다.

마 14:28

κέλευσόν με ἐλθεῖν πρὸς σε ἐπὶ τὰ ὕδατα.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소서

명령하다 동사 κέλευσόν 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 동사(verb)

지각 동사(知覺動詞)

verb of perception (verba sentiendi)

사람의 오감(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지각동사(verb of perception)는 동사의 분류 중 의미에 따른 분류에서 거론되며, 통사론에 대한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look at, hear, smell, watch, feel 등이 지각동사이며, 이러한 동사를 갖는 문장에서는 대개 목적어뿐 아니라 목적격 보어를 취한다(조성식 외). 히브리어 동사 중 **ראה**나 **ראה**와 같은 동사들은 지각을 나타내어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알게 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이런 동사들은 그 지각의 내용을 동사가 취하는 목적절을 통해 표시한다(JMK §157d). 한편 지각동사의 목적어가 문맥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경우, 목적어를 종종 생략한다. 또한 지각동사 뒤에서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참. GKCS §117f, 157a; JMK §126b).

출 2:2

וַיֵּרָא אֹתוֹ כִּי־טוֹב הוּא그녀는 그가 훌륭한 것을 보았다.

히브리어 **ראה** 동사는 ‘보다’라는 의미인데 지각동사로 어떤 인식을 했음을 나타낸다. 예시 구절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은 후 그가 훌륭한 것을 보고 인식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목적어를 생략하고 지각동사를 사용한 경우

삼상 6:16

וַתִּמְשָׁה סַרְנֵי־פִלְשֹׁתִים **רָאוּ** וַיָּשְׁבוּ עֶקְרוֹן בַּיּוֹם הַהוּא: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이 보았다. 그들은 그 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창 35:22

וַיֵּלֶךְ רְאוּבֵן וַיִּשְׁכַּב אֶת־בִּלְהָהּ פִּילְגָשׁ אִבְנֵי **וַיִּשְׁמַע** יִשְׂרָאֵל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잠을 잤다. 이스라엘이 들었다.

(2) 지각동사 뒤에서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

슥 8:23

שָׁמַעְנוּ אֱלֹהִים עִמָּכֶם: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들었다.

헬라어 지각동사에는 βλέπω, ἀκούω, θεωρέω,

(1) 지각동사 다음에 절이 올 경우

막 2:1

ἤκουσθη ὅτι ἐν οἴκῳ ἐστίν.

그가 집 안에 있다는 것이 들렸다.

‘듣다’라는 지각 동사 ἤκουσθη 가 ὅτι 명사절을 취한다.

(2) ‘보다’ 동사 다음에 분사가 목적보어로 온 경우

막 6:49

Οἱ δέ, *ιδόντες* αὐτὸν περιπατοῦντα ἐπὶ τῆς θαλάσσης

그리고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그들이 본 후에

‘보다’ 동사 *ιδόντες* 다음에 분사 *περιπατοῦντα* 가 목적 보어로 왔다. 목적어는 주어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3) ‘보다’ 동사 다음에 분사가 목적 보어로 온 경우

눅 10:18 (R 1041)

ἐθεώρουν τὸν σατανᾶν ὡς ἀστραπὴ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πεσόντα.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다’ 동사 *ἐθεώρουν* 다음에 분사 *πεσόντα* 가 목적 보어로 왔다. 목적어는 주어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 동사(verb)

보는 동사(視覺動詞)

verb videndi

시각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

눈으로 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히브리어의 경우는 라아 (ראה) 동사를 예로 들 수 있다(JMK §177i).

왕하 5:13

וַיֵּרָא אֶת־כָּל־כְּפַר הַיַּרְדֵּן

그는 모든 요단 지역을 보았다.

히브리어 **ראה** 동사가 요단 지역을 보는 시각행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동사(verb)

충만, 결핍의 동사(充滿, 缺乏動詞)

verba copiae et inopiae

충만함과 결핍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verba abundandi et dificiendi 로도 불린다. 본래에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명확하지 않고, 한국어나 영어 개념에서는 자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구약 본문에서는 타동사의 용례가 나타난다(GKC i117z).

사 1:15

יְדֵיכֶם דָּמִים מְלֵאוּ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차 있다.

히브리어 **מלא**는 충만의 동사로서 대격인 **דָּמִים**을 취하여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창 18:28

אוֹלֵי יִחְסְרוּן חֲמִשִּׁים הַצְדִּיקִים חֲמִשָּׁה

만약 그 의인 오십 중에 다섯이 부족하다면

히브리어 **חסר**는 결핍의 동사로서 대격인 **חֲמִשָּׁה**을 취하여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 동사(verb)

착탈 동사(着脫動詞)

verba induendi et exuendi

부착과 제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부착과 제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본래의 의미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본문에서 타동사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GKC §117y).

삼상 28:8

וַיִּלְבָּשׁ בְּגָדִים אֲחֵרִים

그는 다른 옷을 입었다.

히브리어 **לָבַשׁ**는 부착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다른 옷’이라는 의미인 **אֲחֵרִים בְּגָדִים**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로 사용되었다.

+ 동사(verb)

동사적 형용사(動詞的形容詞)

verbal adjective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

형용사가 동사처럼 사용되어 문장의 술어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웅-무라오까는 이런 동사적 형용사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들은 사실상 동사가 아니고 “활용된 형용사”(conjugated adjectives)일 뿐이라고 못박는다. 이 형용사들은 qatil 형태나 qatul 형태로 사용되기에 두번째 어간의 모음이 a 모음이 아닌 i/e 나 o/u 모임을 가진다(JMK §50b).

왕상 1:51

אֲדֹנֵיהוּ יָרָא אֶת־הַמֶּלֶךְ שְׁלֹמֹה

아도니야는 솔로몬왕을 두려워했다.

히브리어 **יָרָא**는 동사적 형용사로 사용되어 문장에서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동사(verb), 형용사(adjective)

동사적 명사(動詞的名詞)

verbal nouns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로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

히브리어에서 동사적 명사(verbal noun)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부정사 즉 부정사 연계형과 부정사 절대형이 있다. 부정사는 형태적으로 완전한 동명사(gerund)는 아니지만 기능상 동명사의 역할(gerundive)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MK §49ca; GKC§45f-g; IBHS 694). 동명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동명사’(gerund) 및 ‘동명사적’(gerundive) 항목을 참고하라.

+ 동사(verb), 명사(noun)

동사 문장(動詞文章)

verbal sentence

동사가 술어역할을 하는 문장.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 문장과 명사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명사 문장은 동사가 없는 상태로 주어부와 술어부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동사 문장은 동사가 문장의 술어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히브리어 구문에서 동사 문장의 강조점은 주어로부터 비롯된 동작에 있기 때문에 동사문장의 어순은 ‘동사-주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GKC §142a).

왕상 22:23

הִנֵּה נָתַן יְהוָה רוּחַ שָׁקָר בְּפִי כָל־נְבִיאָיו

보라 여호와께서 거짓의 영을 너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주셨다.

히브리어 **נָתַן**은 이 문장의 동사이다. 즉 이 문장은 동사 문장이다. 어순은 동사인 **נָתַן**이 먼저 나온 후 주어인 **רוּחַ שָׁקָר**가 뒤따라 나왔다.

+ 문장(sentence)

본래적 동사 어간(本來的 動詞語幹)

verbal stem proper

파생된 것이 아닌 본래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 어간.

동사 어간에는 본래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본래적인 어간에서 파생된 것이 있다. 본래적 동사 어간이란 칼 유형처럼 파생을 위한 형태소가 부착되지 않은 어간이다. 이 본래적 동사 어간에서 활용(conjugations)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הַקְלִיד**는 본래적 어간 **מִלַּךְ**에서 파생된 것이다(GKC §38a-c).

+ 어간(stem)

모음표기(母音標記)

vocalization

히브리어 원문의 자음에 모음기호를 붙여 모음을 표기해주는 행위

구약성경의 원문에는 원래 모음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나크다님(Naqdanim)에 의해 모음 기호가 창안되어 원문에 모음을 표기하게 되었다. 주옹무라오까는 모음체계를 창안한 나크다님과 그 후의 본문기록을 계속 연구해나간 마소라 학자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JMK §1a-b).

+ 마소라(Massorah)

호격(呼格)

vocative

청자(addresssee)을 부름을 나타내는 격(ODEG).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격을 일컫는 말이다. 히브리어서 호격은 누군가를 지명하며 부르는 상태이므로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가지므로 대개의 경우 정관사가 붙게 된다. 그러나 청자가 화자와 함께 있지 않거나 가공의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 문맥상 한정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정관사 없이 나타날 때도 있다(JMK §137g; GKC §126e).

삼하 14:4

וְהָאִמֶּר הַשְׁעָה הַמְּלִיךְ

그 여자가 말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왕을 호격으로 지칭하는 경우인데, 정관사 ה를 붙여 왕(**מֶלֶךְ**)을 부르고 있다.

잠 4:1

שְׁמָעוּ בְּנִים מוֹסֵר אָב

아들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

아들들(복수)을 부르는 호격의 용례인데, 아들들(**בְּנִים**)이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다.

헬라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막 10:47

υἱὲ Δαυὶδ Ἰησοῦ, ἐλέησόν με.

다윗의 아들 예수여 !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아들 υἱὲ 와 예수 Ἰησοῦ 가 호격으로 사용되었다.

+ 격(case)

태(態)

voice

동작을 하는 자(agent)와 동작을 받는 자(patient)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형변화의 범주.

능동태(active voice) 문장에서는 동작을 하는 자가 주어가 되고 동작을 받는 자가 목적어가 되고, 수동태(passive voice)에서는 동작을 하는 자가 목적어가 되고 동작을 받는 자가 주어가 된다. 중간태(middle voice)에서는 동작을 하는 자가 주어와 목적어가 된다(IBHS 694).

- 능동태(active voice), 중간태(middle voice), 수동태(passive voice)

의지법(意志法)

volitive mood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법

히브리어에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법으로는 권유형(cohortative), 지시형(jussive), 명령형(imperative) 세 가지가 있다. 권유형은 1 인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지시형은 주로 3 인칭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2 인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부정명령을 위해서 사용된다. 명령형은 2 인칭 즉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지법에는 직접 의지법과 간접 의지법의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 의지법은 동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단순 병렬의 바브(י)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고, 간접 의지법은 목적이나 결과를 뜻하는 바브(י)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다(JMK §114, 116; GKC §108-110). 지시형, 권유형, 명령형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글을 참고하라.

헬라어에서는 의지법이 없으나 유사한 것으로 의지적 회구법(volitive optative)이 있다(참. W 481-482).

눅 20:16 (W 482)

μὴ γένοιτο

그렇게 되지 않기를

γένοιτο 가 의지적 회구법으로 사용되었다.

— 지시형(jussive), 권유형(cohortative), 명령형(imperative)

모음(母音)

vowel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표준국어대사전).

음소에는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자음과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모음이 있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그 음소가 가지는 음가와 관련해서 본다면, 음성학적 자음이면서 동시에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음소가 자음이며, 음성학적 모음이면서 음절을 구성하는 음소가 모음이다. 음성학적으로는 모음인데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는 음소를 반모음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모음은 크게 분류하면 a, i/e, o/u 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장모음, 단모음, 반모음, 순장모음을 가진다. 현대 이스라엘의 발음은 음소적으로 모음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모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섯개의 모음 (a, e, i, o, u)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옹무라오가는 히브리어의 모음을 중설저모음(◌, ◌, ◌), 전설고모음(◌), 후설고모음(◌, ʔ), 전설중모음(◌, ◌, ◌), 후설중모음이지만 더 열리고 더 짧은 모음(◌, ◌, ◌)으로 나누고 있다(JMK § 6).

헬라어 모음 사각도는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라(참. LSNTG 65-71).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ɪ		ʊ
중모음	ɨ		ɘ
저모음	ɛ	α	ο

↔ 자음(子音, consonant)

모음동화(母音同化)

vowel assimilation

두 개의 다른 소리의 요소가 인접하여 나올 때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모음이 비슷하거나 닮은 소리로 통합되는 현상

동화(assimilation)이란 대개의 경우 자음동화 현상을 가리키는데, 모음이 동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경우 강세가 없는 음절 (또는 단힌 음절로 간주되는 음절)을 닫는 후음 파에서 원시모음 i와 u는 ϵ 와 $\varnothing$ 가 되어 $\mathfrak{a}$ 음에 가까워지는 부분적 동화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JMK §21d).

헬라어의 명사 $\acute{\alpha}\rho\epsilon\tau\eta$ 가 어느 지방에서는 모음 동화로 인해 $\acute{\alpha}$ 가 ϵ 로 동화되어 $\acute{\epsilon}\rho\epsilon\tau\eta$ 가 되기도 한다(R 182).

+ 동화(assimilation)

≡ 자음동화(consonant assimilation)

모음조화(母音調和)

vowel harmony

모음이 주변의 모음의 영향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범주의 모음으로 변화되는 현상

주옹-무라오까는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의 예로 카마쯔 혹은 하탐 카마쯔와 함께 오는 후음 앞에서 파타흐(◌ֿ)가 세골(◌ֿ)이 되는 현상을 들고 있다. **מִאֲחִי**과 **מִאֲחִי**을 비교하라. 주옹-무라오까에 따르면, 이 현상은 모음 약화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모음조화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e** 와 **ə** 의 두 음색은 히브리어 모음 체계에서 두 개의 대칭을 이루는 열린 모음이며, 중앙모음인 **a** 로부터 한 등급씩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JMK § 29f).

불가타역

Vulgate

제롬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에서 직접 번역한 라틴어 성경.

제롬(St. Jerome)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으로, 기원후 382 년 교황 다마스스(Damasus)의 명령에 따라 『구 라틴어 성경』(Vetus Latina)을 개정하기 위하여 진행된 번역 작업의 결과이다. 현재 『구 라틴어 성경』은 “불가타 이전(pre-Vulgate)의 본문을 시사하는 라틴어 성경의 사본들(Latin Bible manuscripts)과 양피지 본문의 아래 부분(lower texts of palimpsests)과 라틴 교회의 교부들이 인용한 글들(quotations)과 불가타의 난외주에 있는 인용들(marginal annotations)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김정우 『시편 89 편: 그 본문과 주석』 충신대출판부, 1992, 38). 제롬은 70 인역을 대본으로 하여 신속하게 시편의 일부만 먼저 번역하였고, 이것은 후대에 로마의 시편(Psalterium Romanum, 약 384 년)으로 불려졌다. 이후에 제롬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두 번째로 완전한 개정판을 만들었고, 이것은 갈리카눔의 시편(Psalterium Gallicanum), 혹은 불가타(약 386-391 년)로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 제롬은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구약성경 전부를 히브리어 본문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하였다(390-420 년). 특히, 제롬은 시편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할 때, ‘원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이 번역은 여러 곳에서 70 인역과 다를 뿐 아니라, 주후 4 세기의 히브리어 발음법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시편의 본문 비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는 히브리어 원본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 인역, 심마쿠스, 아퀼라와 데오도션에 자주 의지하였다. 신약 복음서의 경우는 제롬이 헬라어 사본을 참고하여 『구 라틴어 성경』을 개정하였고,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경우는 익명의 번역자에 의해서 『구 라틴어 성경』을 다소간 수정한 정도에 그쳤다. 트론티공회(기원후 1545-63)에서 카톨릭교회의 공식성경으로 채택되었다.

+ 번역(translation),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 70 인역(Septuagint), 마소라 사본(Massorah Text),

바브

Waw

히브리어 알파벳의 여섯 번째 문자.

히브리어 문자 바브는 고리 모양에서 유래하였다. 알파벳이 시작되던 초기인 주전 17세기경에는 긴 세로의 선 위에 조그만 원으로 표시하였다. 주전 11세기경부터 원으로 된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여 Y와 같이 세로로 된 선 위에 두 팔을 뻗고 있는 모양이나 y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되다가 주전 6세기경에 지금과 같은 1 모양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오늘날 영어의 F, U, V, W, Y는 모두 바브가 기원인 것으로 본다. 바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여섯 번째 글자이므로 '6'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바브는 유성음(sonants) 혹은 순음(labials)에 속한다. 영어의 w와 같이 자음에 속하기는 하지만 u의 음가를 갖기도 하여 모음적 자음, 혹은 자음적 모음의 성격을 갖는다. 바브가 언제부터 순음인 v의 음가를 갖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바브는 װ와 ױ와 함께 모음 o와 u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여 모음문자라고도 불린다(참. GKCS §5 b, §6 o-p; JMK §5 c, h; Yardeni 2003: 34-36).

+ 문자(letter)

비교의 바브

Waw adaequationis

히브리어에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바브.

많지는 않지만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바브를 통해 비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운문체의 평행법에서 사용된다. 비교의 바브가 사용된 구절들은 잠언 17:3, 25:3, 25, 26:3, 9, 14, 27:21, 욥기 5:7, 12:11, 14:11, 16:21, 17:3, 25:3, 9, 12, 14, 25, 26:21, 27:21, 34:3 등이다(참. GKCS §161a; JMK §174 h; IBHS §39.2.3b; WHSK 217).

잠 27:21

מִצָּרָה לְפָסֶסֶף יָבוֹר לְזָהָב וְאִישׁ לְפִי מִהָלָלוֹ:

용광로에서 금을 만드는 것처럼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며,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 낸다.

+ 접속사(conjunction)

바브 연속법

Waw consecutive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바브와 완료, 미완료 형태를 결합하여 시간이나 논리의 연속적 개념을 표현하는 것.

바브 연속법의 형태는 ‘베(וּ)+완료’나 ‘바(וּ)+미완료’로 나타나며, 전자를 ‘베카탈’로 부르고 후자를 ‘바이크톨’로 부른다. 따라서 ‘베(וּ)+미완료’, 즉 베이크톨은 바브 연속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바이크톨에서 불규칙 동사의 경우 ‘וָיָהֳרָא’와 같이 지시형(jussive)의 형태를 사용한다. 바브 연속법은 운문에서보다는 산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바이크톨은 서술체에서 주로 사용되고 베카탈은 대화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바이크톨은 주로 시간의 연속을 표현한다면 베카탈은 논리의 연속을 주로 표현한다. 그리고 바이크톨은 주로 동사의 완료 다음에 사용되고 베카탈은 명령형이나 미완료 다음에 많이 사용된다. 바브연속법은 문장을 단위로 하여 문장의 연속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최근 들어 등장하게 된 텍스트언어학(text linguistics)이나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과 연관된 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경히브리어 학자들 사이에서 바브 연속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견해는 아직 통일된 정설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롱에이커(Longacre)와 하이머딩어(Heimerdinger)의 논쟁 등을 참조해 보라(참. Longacre, Robert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Indiana: Eisenbrauns, 2003; Heimerdinger, Jean-Marc, *Topic, Focus and Foreground in Ancient Hebrew Narrative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Heller, Roy L.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Constellations: An Analysis of Clause Function in Biblical Hebrew Prose*, Indiana: Eisenbrauns, 2004; GKCS §111, 112; JMK §117-119; 권성달, 『구약성경 히브리어(개정 3 판)』, 116-119).

≡ 바브 전환법(Waw conversive), 바브 도치법(Waw inversive)

Heimerdinger, Jean-Marc, *Topic, Focus and Foreground in Ancient Hebrew Narratives*,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Heller, Roy L.,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Constellations: An Analysis of Clause Function in Biblical Hebrew Prose*, Indiana: Eisenbrauns, 2004.

Longacre, Robert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Indiana: Eisenbrauns, 2003.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개정 3 판)』, 서울: 그리심, 2014.

바브 전환법

Waw conversive

시제의 관점에서 바브 연속법을 가리키는 것.

바브 연속법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시간적,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면, 바브 전환법은 시제와 형태의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시제의 측면에서 볼 때 베카탈은 과거의 기능을 갖는 ‘카탈’이 아닌 미래의 기능을 갖는 이크톨의 역할을 하며, 반대로 바이크톨은 미래의 기능을 갖는 ‘이크톨’이 아닌 과거의 기능을 갖는 ‘카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시제와 형태가 서로 전환, 혹은 도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기능이 시제가 아닌 상(aspect)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참. GKCS §49; JMK §117; R. L. Heller,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Constellations: An Analysis of Clause Function in Biblical Hebrew Prose*, Indiana: Eisenbrauns, 2004: 10).

≡ 바브 연속법(Waw consecutive), 바브 도치법(Waw inversive)

동반의 바브

Waw of accompaniment

히브리어에서 둘 이상이 함께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브.

‘수반의 바브’ 또는 ‘공존 구조’로도 불린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명사(혹은 대명사)를 접속사 바브와 연결하여 접속사 앞에 있는 명사(혹은 대명사)와 접속사 뒤에 있는 명사(혹은 대명사)가 함께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동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에는 대개 단수 형태를 가지며, 동사가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단수(두 개 이상의 명사가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 혹은 복수로 나타난다(참. GKCS §141e, 142 d, 154a; JMK §150p, 151a; WHSK 217).

창 13:1

וַיַּעַל אַבְרָם מִמִּצְרַיִם הוּא וְאִשְׁתּוֹ וְכָל-אֲשֶׁר-לּוֹ וְלוֹט עַמּוֹ הַנִּגְבָּה:

아브람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과 그와 함께 한 롯과 함께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올라갔다.

호 4:11 (JMK §150p)

זָנוּת וְיֵין וְתִירוֹשׁ יִקַּח-לָב:

음행과 오래된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마음을 빼앗는다.

출 17:10 (JMK §150p)

וּמֹשֶׁה אֶתְרֹן וְחֹזֶר עָלוּ רֹאשׁ הַגִּבְעָ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대등 접속사 바브

Waw of coordination

히브리어에서 둘 이상의 명사, 구,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바브.

둘 이상의 명사나 구를 대등 접속사 바브로 표현하는 경우 영어나 독일어와 같이 마지막 명사나 구 앞에 접속사를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창 5:32, 10:1 등), 접속사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호수아 17장 11절과 같이 모든 명사 앞에 11번이나 사용된 경우도 있고, 사사기 1장 27절과 같이 직접목적어 표지인 **לְ** 앞에 'וְ'로 9번 연속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으며, 네 개 중 마지막 세 개의 명사에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앞의 두 어구만이 접속사로 연결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두 개 이상의 절을 연결하는 경우 대등 접속사 바브는 종속절이나 상황절, 비교절, 원인절, 목적절, 결과절 등이 아닌 동일한 상(aspect)이나 법(mood)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절에서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접속사 바브는 생략되기보다는 거의 모든 동사 앞에서 사용된다(참. GKCS §154 a; JMK §115a; WHSK 214).

바이크톨

Wayyiqtol

성경 히브리어의 바브 연속법 중 하나로 바브 연속법 미완료를 가리키는 것.

바이크톨은 운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산문에서 주로 나타나며, 산문 중에서도 대화체가 아닌 서술체에서 주로 나타난다. 바이크톨은 바브 연속법 중의 하나이므로 앞에 나온 문장과 연결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카탈(weqatal)과는 달리 논리의 연속보다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이크톨은 완료를 포함한 문장의 연속을 표현한다. 바이크톨이 항상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먹고 마시다’(וַיֵּאָכֵל וַיִּשְׁתֶּה), ‘보내면서 말하다’(וַיִּשְׁלַח ... וַיֹּאמֶר), ‘소리높여 울다’(וַיִּשָּׂא ... וַיִּבְקֶה) 등과 같이 동시동작이나 관용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무엘하 20장 7절과 같이 동일한 동사 형태(וַיִּצָּא)를 두 번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다른 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민수기 23장 2절과 같이(JMK §118ia)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참. GKCS § 111; JMK § 118; WSK 111).

+ 바브 연속법(Waw consecutive)

약자음(弱子音)

weak consonant

발음이 약하여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자음.

강자음과 약자음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언어마다 분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경음과 격음을 강자음에 분류하고, 그 외의 자음은 약자음에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자음은 히브리어와 아랍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히브리어에서 약자음의 분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대개 모음 문자로 불리는 ו, י, ה, 그리고 א과 נ을 약자음에 넣으며, ל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약자음들은 단어의 처음이나(שֶׁבֶּ 대신 שֶׁבֶּ) 중간이나(הוֹנָה 대신 הוֹנָה) 끝에서(עָהֶה 대신 עָהֶה) 탈락되기도 하고, 뒤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기도 하고(אֶנְשָׁה 대신 אֶנְשָׁה), 앞의 모음과 결합하여 장모음화 되기도 한다(참. GKCS §6s, 19; JMK §17; 이동석, “마찰음화 현상과 약자음화 현상,” 114)

+ 자음(consonant)

이동석, “마찰음화 현상과 약자음화 현상,” 『어문논집』 60 (2009), 99-122.

약동사 어근(弱動詞語根)

weak root

히브리어에서 약자음으로 구성된 어근.

약동사 어근에서는 기본형 첫째 자리에 **י**가 오는 경우와 기본형 셋째 자리에 **ה**가 오는 경우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우선 기본형 첫째 자리에 **י**가 오는 경우(**ישב**, **ידע**, **ילד** 등) 일반적으로 페-요드 동사로 부르지만, 실제 어근은 첫째 자리에 **י**가 아닌 **ו**이므로 페-바브 동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동사들은 니팔, 히필, 호팔 등에서 원래의 어근인 **ו**로 바뀐다. **יטב** 와 **יקץ** 등의 동사와 같이 니팔, 히필, 호팔 등에서도 첫째 자음을 **י**로 유지하는 동사가 페-요드 동사이다. 또한 기본형 셋째 자리에 **ה**를 가져 라메드-헤 동사로 불리는 동사들도(**היה**, **עשה**, **ראה**, **עלה** 등) 실제 어근은 세번째 자음이 **ה**가 아닌 **י** 이므로 라메드-요드 동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적인 라메드-헤 동사는 **נבחה**와 같이 **ה**에 점이 찍혀 있으며, 동사의 활용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참. GKCS i30, 69, 70, 75; JMK §75, 76, 79).

+ 동사(verb), 어근(root)

약동사(弱動詞)

weak verb

히브리어에서 불규칙적인 어형 변화를 하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에는 일곱 개(칼,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의 유형이 있다. 문법 관례상 **פעל** 어근을 이용하여 만든 3 인칭 남성 단수 완료형이 각 유형의 명칭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유형의 동사에는 각각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는데, 문법책에 따라 규칙 동사를 강동사 변화 혹은 강변화 동사(strong verbs), 불규칙 동사를 약동사 변화 혹은 약변화 동사라고 부른다.

히브리어에서 불규칙 동사, 즉 약동사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1) 동사의 기본형이 되는 세 자음 중에 후음문자(**א, ה, ח, ע**)가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 있는 경우, (2) 기본형 첫 자음에 **י** 혹은 **נ**이 들어 있는 경우, (3) 기본형 둘째 자음에 **י** 혹은 **נ**이 들어 있는 경우, (4) 기본형 세 자음 중 둘째와 셋째가 동일한 경우(예, **הָלַל, סָבַב** 등). 히브리어 문법 학자들이 동사 **פעל**를 대표 동사로 설명해 왔으므로 세 자음 어간 중 **פ**는 첫 번째 자음, **ע**는 두 번째 자음, **ל**는 세 번째 자음을 대표하여 첫 번째 자리에 **נ**이 있는 경우 ‘페-눈’동사로 부르며 두 번째 자리에 **נ**이 있는 경우 ‘아인-바브’동사 등으로 부른다.

성경 히브리어에서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강동사 보다는 약동사가 훨씬 많이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동사의 경우 빈도수 20 위권 안에 있는 동사 중에서는 하나도 없고 30 위권 내에서 단 하나 있으며(**שמר** 지키다, 28 위 - 468 회 출현) 60 위권 내에서는 6 개(10%)만 발견될 뿐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약 90% 정도가 약동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참. JMK §40c;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 83).

↔ 강동사(strong verb)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 2015.

베카탈

Weqatal

성경 히브리어의 바브 연속법 중 하나로 바브 연속법 완료를 가리키는 것.

베카탈은 운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산문에서 주로 나타나며, 산문 중에서도 서술체가 아닌 대화체에서 주로 나타난다. 베카탈은 바브 연속법 중의 하나이므로 앞에 나온 문장과 연결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크톨(wayyiqtol)과는 달리 시간의 연속보다는 논리적으로 연속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베카탈은 명령형 혹은 미완료를 포함한 문장의 연속을 표현한다. 형태적으로 볼 때 베카탈은 바브 연속법 완료가 아닌 일반적인 완료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바브 연속법 완료와 일반적인 완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וַנֵּתַן’ (삼상 17:38), ‘וַנַּעֲשֶׂה’ (창 37:3), ‘וַיִּשְׁלַח’ (렘 25:4) 등은 베카탈 형태이기는 하지만 바브 연속법 완료가 아닌 일반 완료형이다. 3인칭남성단수의 경우 바브 연속법 완료와 일반적인 완료 사이에 형태적 구분이 어렵지만, 1인칭과 2인칭의 경우 강세의 위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 베카탈티(w-qatalti)로 부르기도 한다(JMK § 117d). 이 경우 ‘וַיִּשְׁלַחְתִּי’ (창 27:45), ‘וַיִּלְקַחְתִּי’ (왕하 5:20) 등과 같이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만 바브 연속법 완료이며, 강세가 다른 곳에 있으면 일반적인 완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וַיְהִי־וַיָּהֲרֹאֵתִי’ (왕하 5:12), ‘וַיַּעֲשֵׂתִי’ (렘 7:14), ‘וַיִּקְרָאֲתִי’ (겔 38:21) 등과 같이 중음절에 강세가 없지만 베카탈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참. GKCS § 112; JMK § 117, 119).

(1) 명령형 다음에 사용된 베카탈

신 6:4-6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וְאַתְּבֹרָה אֶת יְהוָה אֱלֹהֵי בְּכָל־לִבְבִּי וּבְכָל־נַפְשִׁי וּבְכָל־מַאֲדִּי׃
וְהָיָה הַדְּבָרִים הָאֵלֶּה אֲשֶׁר אֲנֹכִי מְצַוְּךָ הַיּוֹם עַל־לִבְבִּי׃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한 여호와시다.

너는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혼과 너의 모든 힘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네 마음 위에 있게 하라.

(2) 미완료형 다음에 사용된 베카탈

삼상 12:15

וְאַס־לָא תִשְׁמַעוּ בְּקוֹל יְהוָה וּמִרִיתֶם אֶת־פִּי יְהוָה וְהִתְנַחֵ יַד־יְהוָה בְּכֶם וּבְאַבְתֵּיכֶם׃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입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있을 것이다.”

+ 바브 연속법(waw consecutive)

베에크틀라

W-eqtlah

히브리어에서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권유형.

간접 권유형은 대개 직접 의지법 다음에 사용되어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한다. 명령형이나 지시형이나 첫 번째 권유형 다음에 오며, 의문문과 기원문에서는 직설법 다음에 사용되기도 한다(참. GKCS § 108; JMK §116 a-c).

(1) 명령형 다음에 사용된 베에크틀라

삿 1:3

עֲלֵה אִתִּי בְּגוֹרְלִי וְנִלְחַמָּהּ בְּכַנְעָנִי

“너는 내게 할당된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라. 우리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2) 지시형 다음에 사용된 베에크틀라

삿 6:39

אֵל-יְיָ אֶפְדָּה לִּי וְנִאֲדַבְרָה אִךְ הַפֶּעַם

“당신께서는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첫 번째 권유형 다음에 사용된 베에크틀라

신 13:7

נִלְכָּה וְנַעֲבֹדָה אֱלֹהִים אֲחֵרִים

“우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 권유형(cohortative)

단어(單語)

word

하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최소의 자립 형태나 그에 준하는 말.

단어 또는 낱말이라는 용어는 전통 문법에서는 최소의 의미단위로 취급했으나 현대 문법에서는 단어를 다시 분석한 형태소(morphem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단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단위를 가리키는 형태소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로서, 히브리어 ‘אָמַרְתִּי’(내가 말했다)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אָמַר’+ ‘תִּי’로 구분되므로 두 개의 형태소로 나뉜다. 단어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립성에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견해가 통일되지는 않는다. 우리말 조사의 경우 자립성이 없지만 단어로 인정하는 이들도 있고 의미나 기능 면에서 볼 때 단어가 아닌 문법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서정수 2006: 76-79; 김진우 1985: 38, 119-140).

+ 문장(sentence)

어순(語順)

word order

한 문장의 구성요소들이 배열되는 순서.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중요한 구성요소들의 순서뿐 아니라 명사구나 동사구 내의 순서를 포함한다. 어순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생성문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과 언어유형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전자는 변형규칙이 적용되기 전의 심층구조까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관찰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순에 대한 접근에서 전자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오늘날에는 Greenberg 를 필두로 한 언어유형론적 방법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순뿐 아니라 비교언어학, 역사언어학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만의 순서를 살펴볼 때 논리적으로 가능한 유형의 문장은 SOV, SVO, VSO, VOS, OSV, OVS 6 개이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언어든, 고대 언어든 특정 유형이 기본 어순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그러한 기본 어순에 따라 대표적인 언어들을 선정하기도 한다. Greenberg 가 제시하는 보편원리와 언어 유형론자들에 따르면 전치사를 위주로 하는 언어는 목적어가 술어 뒤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Dryer 의 언어 분류에 따르면 세계의 언어는 SOV 언어가 497 개, SVO 언어가 435 개, VSO 언어가 85 개, VOS 언어가 26 개, OSV 언어가 9 개, OVS 언어가 4 개, 지배적 어순이 없는 언어가 172 개로 본다.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서북 셈어 중 우가릿어, 페니키아어, 그리고 남부 셈어 중 아랍어뿐 아니라 셈어가 아닌 함족어에 속하는 이집트어에서도 기본 어순은 VSO 이다. 그러나 성경 아랍어는 히브리어와 같이 서북 셈어에 속한 언어임에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6 개의 순서가 모두 나타나는 등 기본 어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어순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최초의 셈어라 할 수 있는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의 영향을 받아 SOV 어순을 갖는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김인철, 홍선호, “어순 변화의 영어사적 조명,” 40-54; 임홍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53-120).

+ 통사론(syntax), 언어학(linguistics)

김인철, 홍선호, “어순 변화의 영어사적 조명,” 『Athenaeum』 12 (2006), 40-54.

임홍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2007), 53-120.

단어유형(單語類型)

word type

단어 또는 낱말이 형태소의 관계에 따라 나뉘는 유형.

한 형태소만으로 구성된 단어를 단순어나 단일어(simple word)라 하고,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단어를 복합어(complex word)라 부른다. 복합어는 파생 접사를 붙여서 쓰는 파생어(derivative word)와 둘 이상의 어근을 결합하여 쓰는 합성어(compound word)로 나눈다. 밤, 오늘, 어머니, 아주머니 등이 단일어이고, 손가락, 슬기롭다, 베개, unhappy, freedom, singer 등이 파생어이며, 보리떡, 큰집, 오르내리다, 강산, greenhouse, blackboard, mailman 등이 합성어이다. 히브리어에서는 대부분 단일어를 사용하고 복합어는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 ‘צְלֵמוֹת’(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보통명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אֲבִימֶלֶךְ(아비멜렉 = 왕의 아버지), אֲבִשְׁלֹום(압살롬 = 평화의 아버지) 등과 같이 대부분 고유명사에서 사용된다(참. 서정수 2006: 88-107; 김진우 1985: 38, 119-140).

+ 단어(word)

베야콤

W-yaqom

히브리어에서 화자의 의지나 심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지시형.

히브리어에서 의지법에는 직접 의지법(JMK §114)과 간접 의지법(JMK §116)이 있다. 직접 의지법은 권유형(1 인칭), 명령형(2 인칭), 지시형(2 인칭, 3 인칭)을 표현하며, 간접 지시형은 직접 의지법 뒤에 따라 나오면서 논리적으로 종속되면서 목적이나 결과를 표현한다. 간접 지시형에서 접속사 바브는 논리적으로 종속하는 가치를 지닌다. w-yaqom 에서 w 는 접속사를 가리키며, yaqom 은 일반 미완료형이 아닌 지시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1) 명령형 다음에 사용된 베야콤

창 24:51

קח וְלָךְ וּתְתִי אִשָּׁה לְבִנְיָאֵלְךָ

"당신은 취하여 가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종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 지시형과 명령형 다음에 사용된 베야콤

잠 20:22

אַל־תִּאְמַר אֲשֶׁלְמָה־רַע קִנָּה לִיהוָה וְיַשֵּׁעַ לְךָ:

너는 '내가 악을 갚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 하실 것이다.

(3) 첫 번째 지시형 다음에 사용된 베야콤

대상 12:18

יְרֵא אֱלֹהֵי אֲבוֹתֵינוּ וְיִזְכֶּחַ: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 지시형(jussive)

≡ 베에크틀라(W-eqtlah)

아레아흐 벤요모

yareah benyomo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의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읍/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연결(비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아래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이 악센트는 강세가 있는 음절 아래 위치하고 다른 연결 악센트와 마찬가지로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할 때, 다음에 오는 단어와 연결하여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참. GKCS §15 g; JMK §15 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177).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예멘식 발음

Yemenite pronunciation

히브리어의 일부 자음에서 발견되는 예멘 전통의 발음.

파열음과 마찰음 두 가지로 발음되는 ‘브가드크파트’의 경우 파열음들은 영어에서 b, g, d, k, p, t 에 해당하는 자음의 음가를 가지며 파열음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 안에 ‘다게쉬(dagesh)’라고 부르는 점을 찍는다. 반면 ‘다게쉬’가 없는 마찰음의 발음은 **ב**(*b, bh* 현대 그리스어의 β, 영어의 v 와 거의 같다), **כ**(*g, gh* 현대 그리스어의 γάλα 의 γ), **ד**(*d, dh* 현대 그리스어 δ (영어 this 의 th), **ק**(*k, kh* 현대 그리스어의 χάρις 의 χ), **פ**(*,ph* 현대 그리스어의 φ =영어의 f), **ט**(*t, th* 현대 그리스어의 θ =영어 thing 의 th)가 된다. 그런데 아랍어 알파벳으로 음역된 일부 초기 중세 히브리어 본문들 속에서 이러한 마찰음들의 발음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히브리어 자음 중 설음에 해당하는 **נ**는 완전한 중복이나 약한 중복도 할 수 없으나 예멘의 전통에서는 중복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참. JMK §5oN, 20aN;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18-19).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예티브

yetiv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 3 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밑에 ○○○○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생긴 모양이지만 לְשֹׁמֵר(수 1:7)와 같이 단어 중간에 오는 것은 분리 악센트가 아닌 ‘마흐파흐’라 부르는 연결 악센트이다. ‘예티브’는 ‘마흐파흐’와 모양은 동일하나, טָרַם (창 2:5)과 같이 단어의 중간이 아닌 처음에 와야 한다. 이 악센트의 명칭 ‘예티브’(יְתִיב)는 ‘반복하다’의 뜻으로 단어의 첫 자음보다 더 가장 먼저 와서 음을 반복해 준다는 의미이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파쉬타, 트비르, 자르카, 르비아 등과 함께 제3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4급보다는 힘이 크지만, 제1급, 제2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적다(참. GKCS §15f; JMK § 15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올판』 (개정2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올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이디쉬어

Yiddish

중세 시대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독일어와 히브리어가 혼합된 언어.

이디쉬라는 말은 독일어로 유대인/유대어라는 뜻의 위디쉬(jüdisch)에서 나온 말이다. 이디쉬어는 대개 주후 12세기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 히브리어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용하고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하지만 독일어에 유대인의 전통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으므로 슬라브 계통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시기 동부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언어를 사용했는데 구어뿐 아니라 문어로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다. 19세기 말 현대 히브리어가 새로운 모국어로 만들어지기까지 이디쉬어는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사용되었으며, 현대 히브리어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디쉬어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미국 뉴욕의 유대인 공동체나 이스라엘의 종교인 공동체들 사이에서 이디쉬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참. SBCP 276-281, 288, 292).

+ 히브리어(Hebrews)

요드

Yod

히브리어 알파벳의 열 번째 문자.

원시 가나안어의 알파벳을 살펴볼 때 히브리어 문자 ‘요드’는 옆에서 바라본 손의 모양에서 유래했다. 초기에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발전하다가 헬라어 서체에 와서는 엄지손가락의 모양이 사라지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남아 있다가 수직으로 된 선 모양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영어의 I와 J도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 주전 5세기경에 정착된 정방형의 히브리어(아람어 역시) 알파벳 22개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모양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 중 ‘율법의 일점 일획’에서 ‘일점’에 해당하는 것이 ‘요드’를 가리키며,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 중 가장 작은 문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드는 ‘10’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요드는 구개음(palatals)에 속한다. 요드는 **י, י**와 함께 모음으로도 사용되는 모음 문자(matres lectionis)에 속하여 i, e, ē 모음들을 표시할 수 있다(참. GKCS § 5b-c, 6o-p; JMK § 5c-d, h, 7a-d; Yardeni 2003: 46-48).

+ 문자(letter)

자캡 가돌

zakef gadol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 2 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자캡 가돌은 동일한 급에 속하는 자캡 카톤(ֿֿ)과 비슷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자캡 카톤은 그 앞의 연결 악센트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 자캡 가돌은 ‘וְלֵסֵד רַבְעִית הָהֵן גִּזְּן’ (출 29:40)와 같이 연결 악센트 없이 오는 특징이 있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자캡 카톤, 샬렐레트, 티프하, 쉼골 등과 함께 제2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1급보다는 힘이 적지만 제3급과 제4급보다는 힘이 크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더 많다. 이 악센트는 샬렐레트와 같이 제2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매우 빈약하게 출현한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2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자캡 카톤

zakef katon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 2 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이다. 히브리어 자음 중 강세가 있는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자캡 카톤은 동일한 급에 속하는 자캡 가돌(◌◌◌)과 비슷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자캡 가돌은 ‘וְנִסְדָּ רַבְעִית הָיִין גִּזְן’(출 29:40)와 같이 연결 악센트 없이 오지만, 자캡 카톤은 ‘וְרִיחַ אֱלֹהִים מִרְחַפָּת עַל־פְּנֵי הַמָּיִם’(창 1:2)과 같이 그 앞의 연결 악센트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자캡 카톤, 샬렐레트, 티프하, 쎄골 등과 함께 제2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1급보다는 힘이 적지만, 제3급과 제4급보다는 힘이 크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더 많다. 이 악센트는 제2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티프하와 함께 매우 빈번하게 출현한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2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자르카

zarka

히브리어 악센트 체계에서 분리 악센트 가운데 제 3 급에 속하는 악센트 중 하나.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난 두 종류의 악센트 체계 중, 읊/시편/잠언을 제외한 나머지 21 권에서 사용되는 악센트 체계에 속하는 분리 악센트 중 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음 위에 ֿֿֿֿ라는 표기로 표현한다. 자르카는 파쉬타(ֿֿֿֿ)와 같이 단어 끝에 위치해야 한다. 자르카는 동급의 다른 분리 악센트에 비해 출현 빈도수가 낮은 편이며, וְשִׁפְטָא אֲתָּו בְּכִנְפֵּי לֹא יִבְדִּיל (레 1:17) 과 같이 제 2 급 악센트인 켄골(ֿֿ) 앞에서 출현한다. 이 악센트는 분리 악센트 중 예티브, 파쉬타, 트비르, 르비아 등과 함께 제 3 급에 속하는 악센트이다. 그러므로 제 4 급보다는 힘이 크지만, 제 1 급, 제 2 급의 분리 악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적으며 지배하는 어절의 수도 적다(참. GKCS §15 f; JMK §15 g;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171-176).

+ 악센트(accent)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목양, 2015.

자인

Zayin

히브리어 알파벳의 일곱 번째 문자.

원시 가나안어의 알파벳을 살펴볼 때 히브리어 문자 ‘자인’은 무기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도끼 모양에서 유래하였다. 성경히브리어 단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 ‘자인’은 무기라는 뜻이다. 주전 12세기경에는 도끼 모양에서 눌혀진 영어의 대문자 I 모양과 같이 가로로 된 하나의 긴 선과 두 개의 짧은 선으로 연결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현재 영어의 대문자 I 모양과 같이 세로로 세워져서 사용되다가 Z 모양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영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인은 '7'이라는 수값을 가진다. 음소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 자인은 치찰음(sibilants)에 속한다(참. GKCS § 5b-c, 6o-p; JMK § 5c, h; Yardeni 2003: 37-39).

+ 문자(letter)

액어법(軛語法)

zeugma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한 단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대개 두 개 이상의 명사를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결 방식은 무리가 따르기 쉽고 다른 동사나 형용사를 보충하여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중의성을 띠게 되기도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액어법이 많이 나타난다. 동사의 경우 ‘מַצִּיחַן: תַּצֵּא תוֹלָה וּדְבַר־יְהוָה מִירוּשָׁלַם:’ (사 2:3,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과 같이 운문의 평행법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생략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다. 형용사의 경우 ‘קוֹל תֵּל גָּדוֹל’ (왕하 7:6)와 같이 ‘군대의 소리’라는 명사구를 한정해주는 형용사인 ‘큰’이 ‘군대’를 수식하여 ‘큰 군대의 소리’인지, 아니면 ‘소리’를 수식하여 ‘군대의 큰 소리’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성, 수와 악센트를 잘 관찰하면 이러한 중의성은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왕하 7:6의 경우 ‘קוֹל’에 분리 악센트가 있으므로 ‘큰’이라는 형용사는 ‘군대’를 수식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 이정민 외; 조성식 외]).

+ 평행법(parallelism)

V. 참 고 문 헌

☞ 아래 내용 중 노란표시는 해당 편집자의 서지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출처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강승일, “구약성경 고대 시가에 나타나는 전접 맴(前接語, enclitic mem) 연구,” 『구약논단』 33 (2009), 151-164.
-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5 (2014), 170-194.
- 권성달, “히브리어 중심의 이스라엘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25 (2015), 164-179.
- 권성달, 『구약성경히브리어』, 서울: 그리심, 2014[2015].
- 권성달, 『성경아람어울판』, 서울: 목양, 2012.
- 권성달, 『성경히브리어울판』 (개정 2 판), 서울: 목양, 2015.
- 김경래,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Canon&Culture』 12 (2012), 137-164.
-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결정 연구사,” 『구약논단』 21 (2015), 213-243.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 장 해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5 (2014), 31-50.
-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1.
- 김영진, 『이스라엘 역사』, 이레서원, 2006.
- 김인철, 홍선호, “어순 변화의 영어사적 조명,” 『Athenaeum』 12 (2006), 40-54.
- 김정우, “다시 보는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학,” 『Canon&Culture』 16 (2014), 5-40.
- 김정우, “특집: 하박국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의 서원 (합 3 장),” 『그말씀』 147 (2001), 70-83.
- 김정우, “수사분석의 모델들과 히브리 시의 분석 범주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78 (2011), 37-63.
- 김정우, 『구약통전 (상)』, 서울: 이레서원, 2002.
- 김정우, 『구약통전 (하)』, 서울: 이레서원, 2003.
-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 김정우, 『시편주석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 김정우, 『성서주석 잠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우, 『너는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사의 사랑이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김정우, 『히브리 시학』, 서울: 도서출판 기혼, 2013.
- 김정웅, “고대 히브리어의 문법관계와 유형론,” 『언어학』 49 (2007), 227-248.
- 김진우, 『언어』, 서울: 탐출판사, 1985.
- 남기심 외, 『언어학개론』, 탐출판사, 1979.
- 모쉐 바르-아체르, “랍비시대 히브리어 개관,” in 박미섭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201-250.

- 모세 실바, 『성경 어휘와 그 의미-어휘 의미론 서론』, 김정우·차영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박미섭, 『성서히브리어 문법』, 서울: 도서출판기혼, 2005[2016].
- 박신구, “히브리어 전치사 탈격의 의미에 대하여,” 『기독교사상』 426 (1994), 211-237.
- 박형대, “성경 헬라어 관사 번역에 대한 교육적 제안,” 『성경원문연구』 24 (2009), 93-109.
- 배철현, “호로즈: 미슈나 경전해석의 원칙,” 『종교학연구』 30 (2012), 1-17.
-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2006.
- 성일호, “사회언어학의 변이에 대한 개념 연구,” 『역사와 사회』 2 (1989), 55-77.
- 송창선, 『국어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0.
- 셀로모 모라그, “유대광야 문서의 언어-그 구조와 특성,” 박미섭 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183-200.
- 신성윤, “성서 히브리어 미완료 1 인칭 단수 의지표현법 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1 (2011), 217-248.
- 심재기, 이기용, 이정민, 『의미론서설』, 서울: 집문당, 1989.
- 아비 후르비츠,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본질 및 특징,” 『성서시대와 성서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박미섭 역,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엘리샤 키르론,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한 유대광야 문서의 공헌,” 최창모, 박미섭 역, 『고대 히브리어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1: 185-198.
- 요제프 트롭퍼, 『우가릿어 문법』, 주원준 역,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10.
- 우상혁, “성경 히브리어 동사형태 연구: 시간, 상, 양태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17 (2011), 41-73.
- 유윤종,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변이들과 문체 전환,” 『한국개혁신학』 10 (2001), 143-161.
- 유윤종,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Variation and a Regional Dialect in the Biblical Hebrew),” 『구약논단』 9 (한국구약학회, 2000), 289-310.
- 윤영탁,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신학지남』 176 (1977), 50-60.
- 이동석, “마찰음화 현상과 약자음화 현상,” 『어문논집』 60 (2009), 99-122.
- 이수민,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구약 성경,” 『Canon&Culture』 1 (2007), 105-124.
- 이익환, 『의미론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이종택, 『현대표준아랍어』, 서울: 찰람, 2014.
- 임홍빈,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2007), 53-120.
- 장영일, “‘야웨’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2 (1996), 104-136.
- 전정례, “언어는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한말연구』 19 (2006), 301-321.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달력체계와 제의력,” 『사회과학논총』 27 (2008), 79-94.
- 정진강, “중국어에 보이는 언어변이,” 『중국어언어연구』 19 (2004), 491-509.
- 하임 라빈, “쿰란 히브리어의 역사적 배경,” 박미섭 역,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1999: 156-182.
- 현창학, “잠언 페쉬타의 번역기법 연구,”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20 (2002), 6-23.
- Aharoni, Yohanan, “Arad: Its Inscriptions and Temple,” *BA* 31 (1968), 1-32.

- Albright, William Foxwell, "The Old Testament and Canaanite Language and Literature," *CBQ* 7 (1945), 5-31.
- Andersen, F. I., *The Hebrew Verbless Clause in the Pentateuch*, New York: Abingdon, 1970.
- Andrason, Alexander, "The Akkadian *iprus* from the Unidirectional perspective," *JSS* 55 (2010), 325-345.
- Baarda, Tjitze, "Ti eti diōkomai in Gal 5:11: Apodosis or Parenthesis?" *NovT* 34 (1992), 250-256.
- Barré, Michael L., "A Cuneiform Parallel to Ps 86:16-17 and Mic 7:16-17," *JBL* 101 (1982), 271-275.
- Bausi, Alessandro, and Alberto Camplani, "New Ethiopic Documents for the History of Christian Egypt," *ZAC* 17 (2013), 215-247.
- Ben-Hayyim, Z., *A Grammar of Samarita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0.
- Bendavid, A., *לשון מקרא ולשון חכמים (성서언어와 랍비언어)*, Tel-Aviv: Dvir Publication, 1971.
- Black, Matthew, *An Aramaic Approach to the Gospels and Acts*, 3rd ed., Oxford: Clarendon, 1977 [1967].
- Blau, Joshua. "Hapax Legomena," *Encyclopaedia Judaica*. Ed.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2nd ed. Vol. 8.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 Bloch, A.A. *Studies in Arabic syntax and semantics*, 2nd rev. printing. 1991.
- Bowern, Claire & Bethwyn Evan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5.
- Brewer, David Instone, "Mene mene teqel uparsin: Daniel 5:25 in Cuneiform," *TynBul* 42 (1991), 310-316.
- Brueggemann, Walter, "Narrative Coherence and Theological Intentionality in 1 Samuel 18," *CBQ* 55 (1993), 225-243.
- Bulkeley, Tim, "Amos 7.1-8.3: Cohesion and Generic Dissonance," *ZAW* 121 (2009), 515-528.
- Bynon, Theodora,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Callaham, Scott N., "But Ruth Clung to Her: Textual Constraints on Ambiguity in Ruth 1:14," *TynBul* 63 (2012), 179-197.
- Callaham, Scott N., "Passive Paradox: Demoted agent Promotion in Biblical Hebrew," *ZAW* 124 (2012), 89-97.
- Campbell, J Y., "KOINŌNIA and Its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JBL* 51 (1932), 352-380.
- Campbell, Lyle,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 Caplice, R. Introduction to Akkadian, 3rd rev. edition,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8.
- Casanowicz, Immanuel M., "Paronomasia in the Old Testament," *JBL* 12 (1893), 105-167.
- Catford, J.C.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1965.
- Chankin-Gould, J D'ror *et al.*, "The Sanctified 'Adulteress' and Her Circumstantial Clause: Bathsheba's Bath and Self-Consecration in 2 Samuel 11," *JSOT* 32 (2008), 339-352.
-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Cornell Uni., 1978.
- Cheyne, T. K., "Some Supposed Archaisms in the Old Testament," *JBL* 18 (1899), 210-211.
- Chirichigno, Gregory C., "The Use of the Epithet in the Characterization of Joshua," *TJ* 8 (1987), 69-79.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2015.
- Chomsky, N.,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Cambridge: MIT, 1992.
- Cline, Eric H., 『성서고고학』, 류광현 역, 서울: CLC, 2003.
- Cody, Aelred, "New Inscription from Tell āl-Rimah and King Jehoash of Israel," *CBQ* 32 (1970), 325-340.
- Coffin, E. A., *A Reference Grammar of Modern Hebr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Cohen, H. R., *Biblical Hapax Legomena in the Light of Akkadian and Ugaritic*, California: Scholars Press, 1978.
- Cohen, M., *The Kethib and Qeri System in the Biblical Text* [in Hebrew],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7.
- Collins, C. John, "Ambiguity and Theology in Ruth: Ruth 1:21 and 2:20," *Presb* 19 (1993), 97-102.
- Colwell, E. C., "A Definite Rule for the Use of the Article in the Greek New Testament," *JBL* 52 (1933), 12-21.
- Comrie, B., *Aspec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Cook, Edward M., "The Causative Internal Passive in Qumran Aramaic," *Aramaic Studies* 8 (2010), 5-12.
- Cosby, Michael R., "The Rhetorical Composition of Hebrews 11," *JBL* 107 (1988), 257-273.
- Cross, Frank Moore,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Scripts,"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 Cross, Frank Moore, "Ugaritic db'at and Hebrew Cognates," *VT* 2 (1952), 162-164.
- Crowley, Terry & Claire Bowern (eds)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Dahood and T. Penar, "The Grammar of the Psalter," in M. Dahood, *Psalms III*, Anchor Bible 17A;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0, 361-456, 435-437.
- Dahood, Mitchell Joseph, "Eblaite and Biblical Hebrew," *CBQ* 44 (1982), 1-24.
- Dalley, Stephanie, "Yahweh in Hamath in the 8th Century BC: Cuneiform Material and Historical Deductions," *VT* 40 (1990), 21-32.
- Dassow, Eva von, "Advances in Late Babylonian," *JAOS* 122 (2002), 535-541.
- Davies, Richard, "Creative Ambiguity," *RelEd* 77 (1982), 642-656.
- DeCaen, Vincent, "Hebrew Sonority and Tiberian Contact Anaptyxis: the Case of Verb Primae Gutturalis," *JSS* 48 (2003), 35-46.
- Depuydt, Leo, "A New Coptic Grammar," *JAOS* 122 (2002), 807-815.
- Dion, Paul-Eugène, "Aramaic Words for 'Letter'," *Semeia* 22 (1981), 77-88.
- Driver, Godfrey Rolles, "The Aramaic language," *JBL* 45 (1926), 323-325.
-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892], 1969.
- Dubois, Jean-Daniel, "Ephesians 4:15: alētheuopstes de or alētheiaps de poiountes; on the Use of Coptic Versions for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ovT* 16 (1974), 30-34.
- Elliott, J. K., "Nouns with diminutive endings in the New Testament," *NT* 12 (1970), 391-398.
- Elliott, J. K., "Temporal Augment in Verbs with Initial Diphthong in the Greek New Testament," *NT* 22 (1980), 1-11.
- Ephraim, S.,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1, Jerusalem: Carta, 1993.
- Fassberg, Steven E., "Vowel Dissimilation in Plural Pronouns in Biblical Hebrew," *Or* 78 (2009), 326-335.
- Filson, Floyd Vivian, "New Greek and Coptic Gospel Manuscripts," *BA* 24 (1961), 2-18.
- Firth, J.R. *Modes of meaning. In his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1957.
- Fitzmyer, Joseph A., "The Aramaic Language and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JBL* 99 (1980), 5-21.
- Flesher, Paul Virgil McCracken, "The Aramaic Dialect of the James Ossuary Inscription," *Aramaic Studies* 2 (2004), 37-55.

- Florentin, Moshe, "The Alternation u/o, Diphthongs, Pataḥ Furtivum and the 3m.s. Pronominal Suffix in Samaritan Hebrew and Aramaic versus Tiberian Hebrew," *JSS* 54 (2009), 365-381.
- Foster, Benjamin R.,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the early years," *JCS* 65 (2013), 3-12.
- Furfey, Paul Hanly, "PLOUSIOS and Cognates in the New Testament," *CBQ* 5 (1943), 241-263.
- Gardiner, S. A., *Egyptian Grammar,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eroglyphs*, Oxford: Ashmolean Museum, 1957.
- Genette, G.,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Ithaca: Cornell Uni., 1980; 『서사담론』 권택영 역, 서울: 교보문고, 1992.
- Gibson, R. J., "The Literary Coherence of 1 Timothy," *RTR* 55 (1996), 53-66.
- Glinert 2004, 174. → 수정 요약
- Greenberg, J. H., "The Afro-Asiatic (Hamito-Semitic) Present," *JAOS* 72 (1952), 1-9.
- Greenspahn, F., *Hapax Legomena in Biblical Hebrew*,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4.
- Haber, Heriberto, "Year or Season," *JBQ* 22 (1994), 57-58.
- Häberl, Charles G., "Iranian Scripts for Aramaic Languages: the Origin of the Mandaic Script," *BASOR* 341 (2006), 53-62.
- Hamilton, Gordon J., "New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bšṯ in Hebrew Personal Names and for Its Use as a Divine Epithet in Biblical Texts," *CBQ* 60 (1998), 228-250.
- Hamilton, Gordon J., "W. F. Albright and Early Alphabetic Epigraphy," *Near Eastern Archaeology* 65 (2002), 35-42.
- Harner, Philip B., "Qualitative Anarthrous Predicate Nouns: Mark 15:39 and John 1:1," *JBL* 92 (1973), 75-87.
- Hartmann 1972, 55. → 수정 요약
- Hawkins, J. A.,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1978.
- Hedges, David W., "Apollonius' Canon and Anarthrous Constructions in Pauline Literature: An Hypothesis," M.Div. thesis,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83.
- Heimerdinger, Jean-Marc, *Topic, Focus and Foreground in Ancient Hebrew Narrativ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Held, Moshe, "Action-result (factitive-passive) Sequence of Identical Verbs in Biblical Hebrew and Ugaritic," *JBL* 84 (1965), 272-282.
- Heller, Roy L., *Narrative Structure and Discourse Constellations: An Analysis of Clause Function in Biblical Hebrew Prose*, Indiana: Eisenbrauns, 2004.
- Hillers, Delbert R., "Delocutive Verbs in Biblical Hebrew," *JBL* 86 (1967), 320-324.
- Hillers, Delbert R., "Hebrew Cognate of unuššu/unt in Is 33:8," *HTR* 64 (1971), 257-259.
- Hirsch, E. D.,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 Press, 1967.
- Hitti, Philip K., *History of the Arab*, Macmillan, 1970.
- Horowitz, Wayne, "Hazor: A Cuneiform City in the West," *Near Eastern Archaeology* 76 (2013), 98-101.
- Horowitz, Wayne, et al., "A Bibliographical List of Cuneiform Inscriptions from Canaan, Palestine/Philistia, and the Land of Israel," *JAOS* 122 (2002), 753-766.
- Huber, Peter J., "On the Old Babylonian Understanding of Grammar: A Reexamination of OBGT VI-X," *JCS* 59 (2007), 1-17.

- Huddliston, R. and G. K. Pullum,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Huehnergard, J., *A Grammar of Akkadian*, Winona Lake: Eisenbruns, 2005.
- Huehnergard, John, "Philippi's Law,"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edited by Geoffrey Khan, Brill Online, 2013.
- Huehnergard, John, and Saul M. Olyan, "The etymology of Hebrew and Aramaic ykl 'to be able'," *JSS* 58 (2013), 13-19.
- Hull, Sanford D., "Exceptions to Apollonius' Canon in the New Testament: A Grammatical Study," *TrinJ* ns 7 (1986), 3-16.
- Hummel, Horace D., "Enclitic Mem in Northwest Semitic, especially Hebrew," *JBL* 76 (1957), 85-104.
- Hurvitz, A., "Continuity and Change in Biblical Hebrew: The Linguistic History of a Formulaic Idiom from the Realm of the Royal Court," in *Biblical Hebrew in Its Northwest Semitic Setting: Ty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edited by Fassberg S. E.,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2006, 127-133.
- Hurvitz, A.,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Code and the Book of Ezekiel -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Paris: Gabalda, 1982.
- Jacobson, Howard, "Moses as Alpha," *JTS* 50 (1999), 626-627.
- Jacobson, Joshua R., *Chanting the Hebrew Bible*,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5.
- Jeffrey T. Reed, "Discourse Analysis as New Testament Hermeneutic: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Appraisal," *JETS* 39 (1996), 223-240.
- Jespersen, O., *Analytic Synta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7.
- Jobs, Karen H., and Moisé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 Joseph, Brian D. & Richard d.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2003.
- Joseph, N., *Origins of the Alphabets. Introduction to Archaeology*, Herzlia: Palphot, 1994.
- Kahn, Lily, "The Grammatical Composition of the Early Hasidic Hebrew Tale," *JSS* 56 (2011), 327-343.
- Kaufman, S. A., *The Akkadian Influences on Aramaic*,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4.
- Kelly, P. H.,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Michigan & Cambridge: Grand Rapids, 1998;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 Khan, Geoffrey, "Some Remarks on Linguistic and Lexical Change in the North Eastern Neo-Aramaic dialects," *Aramaic Studies* 1 (2003), 179-190.
-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Jerusalem: Carta, 1987.
- Knutson, F. Brent, "Cuneiform Letters and Social Conventions," *Semeia* 22 (1981), 15-23.
- Kutscher, Eduard Yechezkel, "Aramaic," in *Hebrew and Aramaic Studies*, ed. By Z. Ben-Hayyim et al, Jerusalem: Magnes Press, 1977, 90-155.
- Kutscher, Eduard Yechezkel, "The Language of the Genesis apocryphon-A Preliminary Study," in *Hebrew and Aramaic Studies*, ed. By Z. Ben-Hayyim et al (Jerusalem: Magnes Press, 1977), 3-36.
- Kutscher, Eduard Yechezkel,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Magnes Press, 1982.
- Lambdin, Thomas O., "Philippi's Law Reconsidered," In Ann Kort (ed.). *Biblical and Related Studies Presented to Samuel Iwry*, Eisenbrauns, 1985, 135-145.
- Lambert, W. G.,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 Lambert, W. G., "The Babylonians and Chaldaeans," in POTT.
- Lee, Sang-Il,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erlin and 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 Lemaire, André, "Mari, the Bible, and the Northwest Semitic world," *BA* 47 (1984), 101-108.
- Levinson, Bernard M., "The 'effected object' in Contractual Legal Language: the Semantics of 'if you purchase a Hebrew slave' (Exod xxi 2)," *VT* 56 (2006), 485-504.
- Little, Joyce A., "Paul's Use of Analogy: A Structural Analysis of Romans 7:1-6," *CBQ* 46 (1984), 82-90.
- Liverani, M., "The Amorites," in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edited by D. J. Wise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100-133.
- Longacre, Robert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Indiana: Eisenbrauns, 2003.
- Lutzky, Harriet, "Shadday as Goddess Epithet," *VT* 48 (1998), 15-36.
- Lyons, J.,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Manross, Lawrence N., "Bêth Essentiae," *JBL* 73 (1954), 238-239.
- Marcus, David, "Doublet catchwords in the Leningrad Codex," *TC* 12 (2007), ???
- Marcus, David, "Nonrecurring Doublets in the Book of Joel," *CBQ* 56 (1994), 56-67.
- Margolis, Max Leopold, "The Place of the Word-accent in Hebrew," *JBL* 30 (1911), 29-43
- Maynard, John A. F., "Hebrew or Aramaic? A Critique of Naville's Hypothesis of an Aramaic Text of the Old Testament," *ATHR* 4 (1921), 29-45.
- McFall, 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2.
- McKay, Kenneth L., "On the Perfect and other Aspects in New Testament Greek," *NovT* 23 (1981), 289-329.
- McKenzie, John L., "The Appellative use of El and Elohim," *CBQ* 10 (1948), 170-181.
- Meier, Samuel A., "Linguistic Clues on the Date and Canaanite Origin of Genesis 2:23-24," *CBQ* 53 (1991), 18-24.
- Mendenhall, George E., "Arabic in Semitic Linguistic History," *JAOS* 126 (2006), 17-26.
- Merrill, Eugene H., "Ebla and Biblical Historical Inerrancy," *BSac* 140 (1983), 302-321.
- Metzger, Bruce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Mieroop, M. V.,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7; 김구원 역, 『고대 근동 역사』, 서울: CLC, 2010.
- Migsch H., "Gibt es im Bibelhebräischen eine unpersönliche Passivkonstruktion mit direktem Objekt?," *BN* 102, 2000.
- Millard, Alan R. "The Cannanites," in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edited by D. J. Wise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29-52.
- Miller, Cynthia L., "A Linguistic Approach to Ellipsis in Biblical Poetry (or, what to do when exegesis of what is there depends on what isn't)," *BBR* 13 (2003), 251-270.
- Mitchell, Hinckley Gilbert Thomas, "The Poetical Accents," *JBL* 10 (1891), 144-146.
- Mitchell, Hinckley Gilbert Thomas, "The Prose Accents," *JBL* 9 (1890), 132-135.
- Montgomery, James A., "Some Aramaisms in the Gospels and Acts," *JBL* 46 (1927), 69-73.

- Morrison, Bruce, and John Woodhouse, "The Coherence of Romans 7:1-8:8," *RTR* 47 (1988), 8-16.
- Moscatti S.,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80.
- Müller, H. P., "Ergativelemente im akkadischen und althebräischen Verbalsystem," *Biblica* 66, 1985.
- Muraoka, T., "The Tripartite Nominal Clause Revisited",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Linguistic Approaches*, C. L. Miller, ed., Indiana: Eisenbrauns, 1999.
- Muraoka, T., *Emphatic words and structures in Biblical Hebrew*,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5.
- Muraoka, Takamitsu, "The Prefix Conjugation in Circumstantial Clauses in the Tel Dan Inscription?" *VT* 51 (2001), 389-392.
- Murphy-O'Connor, J., *The Holy Land. An Oxford Archaeological Gu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Naveh, J., *Early Hi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Magnes Press, 1987.
- Naveh, J., *Origins of the Alphabets. Introduction to Archaeology*, Herzlia: Palphot LTD, 1994.
- Negev, A., *Archaeological Encyclopedia of the Holy Land*, New York: Continuum, 2001.
- Niccacci, Alviero, "Finite Verb in the Second Position of the Sentence Coherence of the Hebrew Verbal System," *ZAW* 108 (1996), 434-440.
- O'Callaghan, Roger T., "Echoes of Canaanite Literature in the Psalms," *VT* 4 (1954), 164-176.
- Oates, J. *Babyl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6.
- Ornan, U., "Syntax" in *Encyclopaedia Judaica* VIII, Jerusalem: Encyclopaedia Judaica, 1973, 124-146.
- Palmer, L. *The Greek language, Atlantic Heights*, NJ. 1980.
- Pervo, Richard I., "Direct Speech in Acts and the Question of Genre," *JSNT* 28 (2006), 285-307.
- Petersen, Theodore, "Early Coptic Manuscript of Acts: An Unrevised Version of the Ancient so-called Western Text," *CBQ* 26 (1964), 225-241.
- Plozin, R., *Late Biblical Hebrew-Toward an Historical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Atlanta: Scholars Press, 1976.
- Pratico, Gary Davis,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 변순복 역, 서울: 대서, 2009.
- Prichard, J. B.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Prince, John Dyneley, "An Assyrian Cognate of the Word ROZNYM," *JBL* 16 (1897), 175-176.
- Pustet 2003, 5 → 수정 요약
- Qimron, E.,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Rabin, C., *Semitic Languages an Introduction* [written in Hebrew],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1.
- Rainey, Anson F, "The Energic in Northwest Semitic," *Or* 77 (2008), 79-83.
- Rendsburg, Gary A. *et al.*, "A Proper View of Arabic, Semitic, and More," *JAOT* 128 (2008), 533-541.
- Roberts, J. W., "Exegetical Helps-the Genitive of Apposition," *ResQ* 3 (1959), 36-37.
- Romaine, Suzanne, *Bilingualism*, 2nd edn., Oxford: Blackwell, 1995.
- Roose, Hanna, "'A Letter as by Us': Intentional Ambiguity in 2 Thessalonians 2.2," *JSNT* 29 (2006), 107-124.
- Rubinstein, E., **המשפט השמני בעברית של ימינו** (현대히브리어에서의 명사문장), Doctoral Dissertation in Tel-Aviv University, 1967.
- Saggs, H. W. F. "The Assyrian," in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edited by D. J. Wise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156-78.
- Sampson, G., *Schools of Linguistics*, 권연진역, 『현대 언어학의 흐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고전 히브리어 및 아람어와 코이네 헬라어 문법용어사전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15

- 1999.
- Sasson, Victor, "The Aramaic Text of the Tell Fakhriyah Assyrian-Aramaic Bilingual Inscription," *ZAW* 97 (1985), 86-103.
- Schmitt, R., "Old Persian," in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ed. By R. D. Woodard, Cambridge Uni. Press, 2015, 717-741.
- Schmitz, Philip C., "Archaic Greek Names in a Neo-Assyrian Cuneiform Tablet from Tarsus," *JCS* 61 (2009), 127-131.
- Segal, David Simha, "Observations on Three War Poems of Shmuel ha-Nagid: A Study in Internal Poetic Cohesion," *AJSR* 4 (1979), 165-203.
- Segal, M. H.,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Shachmon, Ori, "ibn aššarīfah vs ibn aljāriyah 'son of the noble wife vs son of the concubine': The Hebrew Component as a Polemic Device," *JQR* 104 (2014), 144-166.
- Sharp, Granville, *Remarks on the Uses of the Definitive Article in the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Containing Many New Proofs of the Divinity of Christ from Passages Which Are Wrongly Translated in the Common English Version*, L. Pennington: Durham, 1798.
- Skolnik, F., *Encyclopaedia Judaica*, 2nd edit., vol.8, Detroit: Thomson Gale, 2007.
- Skolnik, F., *Encyclopaedia Judaica*, vol. 17,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LTD., 2007.
- Smelik, Klaas A. D., "My Servant Nebuchadnezzar: The Use of the Epithet 'my servant' for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n the Book of Jeremiah," *VT* 64 (2014), 109-134.
- Smick, Elmer B., "A Lesson in Textual Criticism as Learned from a Comparison of Akkadian and Hebrew Textual Variants,"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10 (1967), 127-133.
- Snell, Daniel C., "Why is there Aramaic in the Bible," *JSOT* 18 1(1980), 32-51.
- Snyman, S. D., "Antitheses in Malachi 1:2-5," *ZAW* 98 (1986), 436-438.
- Snyman, S. D., "Cohesion in the Book of Obadiah," *ZAW* 101 (1989), 59-71.
- Stem, E., *The New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vol. 3, Jerusalem: Carta, 1993.
- Stinespring, William Franklin, "N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Appositional Genitive in Hebrew Grammar," *Enc* 26 (1965), 133-141.
- Swanson, Donald C., "Diminutiv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JBL* 77 (1958), 134-151.
- Tal, Abraham, "Euphemisms in the Samaritan Targum of the Pentateuch," *Aramaic Studies* 1 (2003), 109-129.
- Tal, Abraham, "In Search of Late Samaritan Aramaic," *Aramaic Studies* 7 (2009), 163-188.
- Thackeray, Henry St. John,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 Torrey, Charles Cutler, "The Aramaic of the Gospels," *JBL* 61 (1942), 71-85.
- Torrey, Charles Cutler, "The Edomites in Southern Judah," *JBL* 17 (1898), 16-20.
- Tov, E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revised and expanded ed., Minneapolis: Fortress, 2012.
- Tov, Em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Tsumura, David Toshio, "Tense and Aspect of Hebrew Verbs in 2 Samuel 7:8-16-from the Point of View of Discourse Grammar," *VT* 60 (2010), 641-654.
- van Dijk, T. A., "Foundations for typologies of texts," *Semiotica* 6 (1972), 297-323.

- van Seters, John, "Terms Amorite and Hittite in the Old Testament," *VT* 22 (1972), 64-81.
- Verschueren, J. *Understanding Pragmatics*, 김영순 외 역, 『화용론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
- Viviers, Hendrik, "The Coherence of the ma'alôt Psalms (Pss 120-134)," *ZAW* 106 (1994), 275-289.
- von Dassow, Eva, "Advances in Late Babylonian," *JAOS* 122 (2002), 535-541.
- von Dassow, Eva, "Canaanite in Cuneiform," *JAOS* 124 (2004), 641-674.
- Wallace, Daniel B., "The Relation of Adjective to Noun in Anarthrous Constructions in the New Testament," *NovT* 26 (1984), 128-167.
- Waltisberg, Michael, "The Case Functions in Amorite: A Re-evaluation," *JSS* 56 (2011), 19-36.
- Ward, William A., "Semitic Biconsonantal root SP and the Common Origin of Egyptian čwf and Hebrew sūp: marsh (-plant)," *VT* 24 (1974), 339-349.
-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성경 평행법의 역동성』, 이희성 역, 서울: 그리심, 2012.
- Watson, W.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4.
- Weingreen, J., 『히브리어 문법』 류근상 역, 고양: 크리스찬 출판사, 2002.
- Weingreen, Jacob, "Construct-genitive relation in Hebrew syntax," *VT* 4 (1954), 50-59.
- Wells & Colson, 『음성학』, 이현복 편역, 서울: 탐구당, 1987.
- Wenham, Gordon J., "Coherence of the Flood Narrative," *VT* 28 (1978), 336-348.
- Weninger, Stefan, "On Performatives in Classical Ethiopic," *JSS* 45 (2000), 91-101.
- Wertheimer, Ada, "Special Type of Cleft Sentences in Syriac," *JSS* 46 (2001), 221-241.
- Wesselius, J. W., "Language and Style in Biblical Aramaic: Observations on the Unity of Daniel 2-6," *VT* 38 (1988), 194-209.
- White, Stephen L., "Angel of the LORD: Messenger or Euphemism?," *TynBul* 50 (1999), 299-305.
- Wickes, William, *Two Treatises on the Accentuation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KTAV, 1970 [1881, 1887]), reprinted in *The Library of Biblical Studies*, prologomenon by Aron Dotan, edited by Harry Orlinsky.
- Widengren, G., "The Persians," in *POTT*, 313-357.
- Wiesbaden. Wright, W. *A grammar of the Arabic language*, 3rd ed, 2 vols. Cambridge, 1955.
- Williams, R. J., "the Egyptinas," in *Peoples of Old Testament Times*, edited by D. J. Wisema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79-99.
- Williams, Ronald J.,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욱 역, 서울: 그리심, 2012.
- Winfred P. Lehmann, *Linguistics: an Introduction*, New York, et al: Holt et al, 1962.
- Wolters, Albert M., "Authentēs and Its Cognates in Biblical Greek," *JETS* 52 (2009), 719-729.
- Würthwein, Ernst,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translated by Erroll F. Rhode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the Biblia Hebraic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4.
- Yardeni, A., *A-dventure-Z: The Story of the Alphabet*, Jerusalem: Carta, 2003.
- Yeivin, in *Jerusalem Crown*, 29, 35. → 수정 요함
- Yeivin, Israel., *Introduction to the Tyberian Massorah* (Scholars Press, 1980), translated & edited by E. J. Revell. *Massoretic Studies* 5.
- Yoder, Perry B., "A-B Pairs and Oral Composition in Hebrew poetry," *VT* 21 (1971), 470-489.

Young, Edward J., “Adverbial in Semitic,” *WTJ* 13 (1951), 151-154.

Young, Ian, “The Style of the Gezer Calendar and Some ‘Archaic Biblical Hebrew’ Passages,” *VT* 42 (1992), 362-375.

Younger, K. Lawson, Jr., “Some of What's New in Old Aramaic Epigraphy,” *Near Eastern Archaeology* 70 (2007), 139-146.

Zewi 1996 → 수정 요약

Zewi, T., “The Nominal Sentence in Biblical Hebrew,” *Semitic and Cushitic Studies*, G. Goldenberg and S. Raz,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94.

Ziffer, Walter, “Two Epithets for Jesus of Nazareth in Talmud and Midrash,” *JBL* 85 (1966), 356-357.

Zimmermann, Frank, “The Aramaic Origin of Daniel 8-12,” *JBL* 57 (1938), 255-272.

Zvi, T., **מקראית בעברית ההסבות התחביות הכרוכות במבנה הפונקציונלי של המשפט**
(성서히브리어 문장의 기능적 구조에서의 통사적 전환),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1.

VI. 색인

1. 우리말 색인 1052-1072
2. 외국어 색인 1073-1093

1. 우리말 색인

- 70 인경 Septuagint 867
 가격(價格)의 베티 Beth pretii 151
 가나안어 Canaanite 162
 가산명사(可算名詞) countable 260
 가아야 ga'ya 393
 가인 Ghain 413
 가정법(假定法) subjunctive mood 912
 간결성(簡潔性) brevity 158
 간접 화법(間接話法) indirect speech 491
 감성의 여격(感性與格) dative of feeling, ethical dative, dativus ethicus 278
 감탄사(感歎詞), 간투사(間投詞) interjection 508
 강다게쉬(硬強點) dagesh forte 266
 강동사(強動詞) strong verb 904
 강세 전전 음절(強勢前前音節) antepretonic 83
 강세(強勢) stress 903
 강세음(強勢音), 강조음(強調音) emphatic sound 342
 강세의 눈(強勢의 ㄴ) energetic Nun 347
 강세의 바브(強勢의 ㅂ) energetic vav 348
 강세의 후퇴(強勢後退) nasog aħor 622
 강의형 복수(強意形複數) intensive plural 507
 강의형(強意形) intensive 506
 개음절(開音節), 열린 음절 open syllable 658
 걸려 있는 suspended 936
 게레쉬 geresh 407
 게르샤임(그라샤임) gershayim, grashayim 409
 게이즈어 Ge'ez 394
 게제르 달력 Gezer calendar 412
 격(格) case 168
 격어미(格語尾) case ending 169
 격언적(格言的) gnomic 418
 견인(牽引) attraction 125
 결과의 대격 accusative of result 25
 결과적(結果的) resultative 835
 결과절(結果節) consecutive clause 239
 결성어(缺性語) privative 765
 결속형태소(結束形態素) bound morpheme 156
 결합 관계(結合關係) syntagmatic relation 948
 결합체(結合體) syntagm 947
 겸용법(兼用法) syllepsis 938
 계사(繫辭) copula 255
 계승(繼承) succession 922
 계열관계(系列關係) paradigmatic relation 672

계층 hierarchy 455
 고대 히브리 서체 paleo-Hebrew script 670
 고리(連鎖) chain 179
 고리형(環形) casus pendens 171
 고문서학(古文書學) paleography 669
 고양형(高揚形) elative 337
 고어풍 archaism 107
 고유 명사(固有名詞) proper noun 775
 고전어(古典語) classical language 186
 고착 강다게쉬, 고착 경강점(固着 硬強點) dagesh forte firmativum 270
 곡용(曲用) declension 281
 공간 확장의 복수(空間擴張 複數) plural of local extension 734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 945
 공성(共性) common gender, communia 208
 공성명사(共性名詞) epicene noun 353
 공시적 연구 synchrony 940
 공인 본문(公認本文) Textus Receptus 970
 과거(過去) preterite 763
 과거(속의) 미래 past future 695
 과거완료(過去完了) pluperfect 730
 과정동사(過程動詞) fientive verb 373
 관계대명사(關係代名詞) relative pronoun 830
 관계사(關係詞) relative 826
 관계절(關係節) relative clause 827
 관사(冠詞) article 108
 교차대구(交叉對句) chiasm, chiasmus 180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 50
 교체(交替) commutation 212
 구 동사(句動詞) phrasal verb 723
 구(句) phrase 724
 구개음(口蓋音) palatal 667
 구상명사(具象名詞) concrete noun 231
 구심적(求心的) centripetal 178
 구조(構造) structure 906
 구조주의(構造主義) structuralism 905
 굴절(屈折) inflection 501
 권말(卷末) 마소라, 끝 마소라 Masora finalis 569
 권유형(勸諭形), 청유형(請誘形) cohortative 201
 귀결절, 결과절(歸結節, 結果節) apodosis 91
 그랜빌 샵 법칙 Granville Sharp rule 426
 근접본문(近接本文) co-text 259
 기능(機能) function 386
 기능어(機能語) function word 387
 기동상(起動相) inchoative 483

- 기본어간(基本語幹) ground stem 429
- 기수(基數) cardinal 165
- 기식음(氣息音) aspirate (aspiration) 113
- 기원문(祈願文) desiderative sentence 295
- 기원법(祈願法) optative mood 660
- 기원의 완료(祈願의 完了) perfective of prayer 708
- 기원절(祈願節) optative clause 659
- 기의(記意) signified 880
- 기표(記標) signifiant 881
- 기호(記號) sign 879
- 기호의 의미작용(記號意味作用) signification 882
- 긴 휴지 형태 long (forms) in pause 561
- 길르앗 방언 Gileadite dialect 414
- 김멜 Gimel 415
- 깨어진 복수 broken plural 160
- 깨어진 연계형 고리 broken construct chain 159
- 끝 문자 final letter 376
- 끝 음절(終音節) ultima 987
- 끝 직전 음절 penultima 702
- 끝음 탈락, 어말음 탈락(語末音脫落) apocopation (apocope) 90

- 나크다님(모음 첨가자들, 母音添加者) Naqdanim 619
- 난외(欄外) 마소라 Masora marginalis 571
- 남부셈어 south Semitic 891
- 남성(男性) masculine 568
- 낱글자, 자소(子素), 문자소(文字素) grapheme 427
- 내러티브(敘事物) narrative 620
- 내적 목적어의 대격 accusative of internal object 20
- 내적 수동태(內的受動態) internal passive 509
- 네 방위(四方位) cardinal points 167
- 네 자음 신명(四子音神明) Tetragrammaton 964
- 네자음어 quadriliterals 800
- 누팔 nufal 650
- 능동 동사(能動動詞) active verb 30
- 능동 의미를 갖는 수동 분사 passive participle with active meaning 694
- 능동격(能動格) ergative 357
- 능동태(能動態) active voice 31
- 니트파엘 nithpael 630
- 니팔 niphal 629

- 다게쉬 dagesh 262
- 다섯 자음어 quinqueliteral 807
- 다의성(多義性) polysemy 741
- 단수(單數) singular 886

- 단어(單語) word 1026
- 단어유형(單語類型) word type 1028
- 단언절(斷言節) asserverative clause 114
- 단위 명사(單位名詞) unit noun 989
- 단음(單音) phone 719
- 단음절(單音節) monosyllable 609
- 단회적(單回的) unique 988
- 달레트 Dalet 273
- 달력상의 해 calendar year 161
- 달성 목적어(達成目的語) effected object 333
- 담화(談話) discourse 312
- 대(大) 마소라 Masora magna 570
- 대격 표지(對格標紙) nota accusativi 642
- 대격(對格) accusative 18
- 대과거(大過去) plusquamperfect 737
- 대등 접속(對等接續), 등위 접속(等位接續) coordination, coordinate conjunction 252
- 대등 접속사 바브 Waw of coordination 1019
- 대명사 규칙(代名詞規則) pronominal regel 770
- 대명사(代名詞) pronoun 773
- 대명사적 대용어(代名詞的 代用語) pronominal substitution 771
- 대명사적 접미사(代名詞的 接尾辭) pronominal suffix 772
- 대역적(代役的) dummy 327
- 대용(代用) substitutes (substitution) 921
- 대조법(對照法), 반의법(反義法) antithesis 87
- 도구격(道具格) instrument 504
- 도치(倒置) inversive 516
- 도치의 눈(倒置의 눈) inverted nuns 517
- 독일어(獨逸語) German 408
-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free-standing 381
- 돈절법(頓絶法) aposiopesis 94
- 동격(同格) apposition 97
- 동격의 속격(同格의 屬格) genitive of apposition, genitive appositionis 403
- 동기관적 자음(同器官的 子音) homorganic consonant 470
- 동명사(動名詞) gerund 410
- 동명사적(動名詞的) gerundive 411
- 동반(同伴)의 베티 Beth commentiae 146
- 동반의 바브 Waw of accompaniment 1018
- 동사 문장(動詞文章) verbal sentence 1004
- 동사 수식어(動詞修飾語) adverbial 41
- 동사 접미사(動詞接尾辭) suffix of verb 927
- 동사 파생 명사(動詞派生名詞) deverbal noun 297
- 동사 활용(動詞活用) binyan, binyanim 155
- 동사(動詞) verb 995
- 동사적 명사(動詞的名詞) verbal noun 1003

- 동사적 형용사(動詞的形容詞) verbal adjective 1002
 동음어(同音語) homophone 469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homonym 468
 동의성(同義性, 同意性) synonymy 946
 동일 단어 반복(同一單語反復) idem per idem 474
 동일지시(同一指示), 공지시(共指示) coreference 257
 동작 동사(動作動詞) action verb 29
 동작양태(動作樣態) aktionsart(en) 54
 동족 대격(同族對格), 동족 목적어(同族目的語) cognate accusative, cognate object 196
 동족어(同族語) cognate 195
 동질적 자음(同質的 子音) homogeneous consonant 467
 동화(同化) assimilation 115
 두 자음 어근(二子音語根) biconsonantal root, biliteral root 152
 두음법(頭音法) alliteration 58
 두자법(頭字法) acrophony 27
 드문 유형들 rare patterns 813
 드히 Dhiq 298
- 라기스 문서 Lachish inscription 535
 라메드 lamed 536
 라틴어 Latin 540
 라페 Rafé 812
 랍비 히브리어 rabbinic Hebrew 811
 레닌그라드 사본 Leningrad codex 542
 레쉬 Resh 833
 르비아 rvia 844
- 마소라 Massorah 573
 마소라 본문 Massoretic texts 574
 마찰음(摩擦音) fricative 384
 마찰음(摩擦音) spirant 893
 마찰음화(摩擦音化) spirantisation 894
 마켄 maqqef 565
 마픽 mappiq 564
 마흐파흐 mahpah 562
 만다어 Mandaean 563
 맥락(脈絡) context 249
 맹세절(盟誓節) clause of oath 191
 메라히q merahiq 580
 메르하 merha 581
 메르하 호플라 merha hfula 582
 메테그 metheg 588
 메흐리어 Mehri 578
 멤 Mem 579

명령(문)(命令[文]) command 206
 명령의 동사(命令動詞) verb imperandi 996
 명령형(命令形) imperative 475
 명료성(明瞭性) clarity 184
 명사 수식적(名詞修飾的) ad-nominal 37
 명사 접미사(名詞接尾辭) suffix of noun 926
 명사 파생 동사(名詞派生動詞) denominative 290
 명사 파생 명사(名詞派生名詞) denominative nouns 291
 명사(名詞) noun 643
 명사구(名詞句) noun phrase 647
 명사류(名詞類) nominal 636
 명사절(名詞節) nominal clause 637
 명사화(名詞化) nominalization 638
 모압어 Moabite 600
 모음 약화(母音弱化) attenuation 124
 모음 전환(母音轉換) transposed vowel 981
 모음(母音) vowel 1010
 모음동화(母音同化) vowel assimilation 1011
 모음문자(母音文字) matres lectionis 576
 모음연속(母音連續) hiatus 454
 모음조화(母音調和) vowel harmony 1012
 모음표기(母音標記) vocalization 1006
 모호성(模糊性) vague 993
 목적(目的) purpose 792
 목적격 속격(目的格屬格) objective genitive 656
 목적격 접미사(目的格接尾辭) object suffix 654
 목적격(目的格) objective case 655
 목적어(目的語) object 653
 목적절(目的節) final clause 374
 목적절(目的節) telic clause 956
 무거운 접미사 heavy suffixes 446
 무관사의(無冠詞的) anarthrous 78
 무나흐 munah 617
 무나흐 레가르메 munah legarme 618
 무시된 지시형 jussive neglected 523
 무표(無標) unmarked 991
 묵음(默音) quiescent 806
 문법(文法) grammar 420
 문법소(文法素) tagmeme 951
 문법소론(文法素論) tagmemics 952
 문법적 단어(文法的單語) grammatical word 424
 문법학자(文法學子) grammarian 422
 문법화(文法化) grammaticalization 425
 문장(文章) sentence 865

- 문체(文體) style 907
 미네아어 Minaean 595
 미드라쉬 Midrash 592
 미래(未來) future 389
 미래완료(未來完了) future perfect, futurum exactum 392
 미슈나 Mishnah 597
 미슈나 히브리어 Mishnaic Hebrew 598
 미완료(未完了) imperfect 477
 미완료상(未完了相) imperfective 478
 밀라(끝 음절 강세) mil'ra 594
 밀엘(끝 음절 전 강세) mil'el 593
- 바르트-긴즈버그 법칙 Barth-Ginsberg's law 139
 바브 Waw 1014
 바브 연속법 Waw consecutive 1016
 바브 전환법 Waw conversive 1017
 바빌론어 Babylonian 136
 바이크톨 Wayyiqtol 1020
 반복법(反復法) repetition 832
 반복상(反復相) iterative 519
 반의절(反義節) adversative clause 43
 발화행위(發話行爲) speech act 892
 방언(方言) dialect 300
 방향(方向)의 헤 directional *he* 311
 방향(方向)의 헤 locative *He* (*He locale*) 559
 배수사(倍數詞) multiplicative 616
 법((法), 서법(敍法) mood 610
 베야콤 W-yaqom 1029
 베에크틀라 W-eqtlah 1025
 베카탈 Weqatal 1024
 베트 Beth 144
 변이음(變異音) allophone 63
 변이형태(變異形態) allomorph 62
 변칙형태(變則形態) anomaly 80
 변형(變形) contamination 247
 변환의(變換) conversive, converted 251
 별칭 epithet 355
 병렬(並列) parataxis 676
 병치(並置), 병렬(並列) juxtaposition 525
 보는 동사(視覺動詞) verb *videndi* 999
 보상 강다게쉬, 보상 강점(報償 強點) dagesh compensativum 264
 보상 장모음화(報償長母音化) compensatory lengthening 219
 보어(補語) complement 220
 보조모음 첨가(補助母音添加) anaptyxis 77

- 보조어(補助的) auxiliary 133
 보통명사(普通名詞) common noun 210
 보통명사화(普通名詞化) appellative 96
 보편성(普遍性) universal 990
 복수(複數) plural 731
 복수를 표현하는 반복(複數 表現 反復) repeated for plurality 831
 복합 슈바, 하텡 슈바 hataf (hatef) shva 441
 복합명사(複合名詞) compound noun 228
 복합의(複合的) complex (compound) 223
 본래적 동사 어간(本來的 動詞語幹) verbal stem proper 1005
 본문 비평(本文批評) textual criticism 969
 본문 유형(本文類型) text types 967
 본문 훼손(本文毀損) textual corruption 968
 본문(本文) text 965
 본질(本質)의 베트 Beth essentiae 147
 부가 형태소(附加形態素) affirmative 47
 부가어(附加語) adjunct 36
 부분의 속격(部分的屬格) partitive genitive 688
 부분적(部分的) partitive 687
 부사(副詞) adverb 38
 부적절한 어구(不適切語句) improper annexation 482
 부정 관사(不定 冠詞) indefinite article 485
 부정(否定) negation 623
 부정사 연계형(不定詞 連繫形) infinitive construct 498
 부정사 절대형(不定詞 絕對形) infinitive absolute 496
 부정사(不定詞) infinitive 494
 부정어(否定語) negative 624
 부정절(否定節) negative clause 627
 분류절(分類節) clause of classification 188
 분리 강다게쉬, 분리 경강점(分離 硬強點) dagesh forte dirimens 269
 분리 의문문(分離 疑問文), 이접 의문문(離接 疑問文) disjunctive question 315
 분리모음(分離母音) separating vowel 866
 분리적(分離的), 이접사(離接詞) disjunctive 313
 분리절(分離節), 이접절(離接節) disjunctive clause 314
 분사(分詞) participle 682
 분석(分析) analysis 74
 불가타역 Vulgate 1013
 불규칙(不規則) irregular 518
 불변화사(不變化詞) particle 684
 불어(프랑스어) French 382
 불완전동사(不完全動詞) defective verbs 283
 불완전서법(不完全書法) defective writing 284
 불이익의 여격(不利益與格) dative of disadvantage, dativus incommodi 277
 브가드크파트 begadkefat 140

- 비교(比較) comparison 216
- 비교급(比較級) comparative 213
- 비교의 바브 Waw adaequationis 1015
- 비교절(比較節) comparative clause 215
- 비대칭(非對稱) asymmetry 120
- 비명학 epigraphy 354
- 비인칭의 apersonal 88
- 비인칭의(非人稱的) impersonal 479
- 비정동사(非定動詞) nonfinite verb 640
- 비한정 대명사(非限定 代名詞), 부정 대명사(不定 代名詞) indefinite pronoun 486
- 비한정 주어(非限定主語) indefinite subject 488
- 비한정성(非限定性) indefiniteness 489
- 빈번상(頻繁相) frequentative 383

- 사격(斜格) casus obliquus 170
- 사마리아 Samaria 845
- 사마리아 서체 Samaritan script 848
- 사마리아 히브리어 Samaritan Hebrew 847
- 사마리아어 Samaritan 846
- 사역적(使役的) causative 176
- 사전적 형태(辭典的形態) dictionary form 301
- 사해사본 Dead Sea Scrolls 279
- 산스크리트어 Sanskrit 851
- 삽입사(插入辭), 접요사(接腰辭) infix 500
- 삽입어구(插入語句) parenthesis 677
- 상(相), 시상(時相) aspect 110
- 상관어구(相關語句) correlatives 258
- 상태동사(狀態動詞) stative verb 897
- 상태의 서술적 대격(狀態의 敘述的對格) predicative accusative of state 749
- 상형문자(象形文字) hieroglyph, hieroglyphics 457
- 상호 대명사(相互代名詞) reciprocal pronoun 816
- 상호적(相互的) reciprocal 815
- 상황절(狀況節) circumstantial clause 181
- 생략(省略) ellipse, ellipsis 339
- 생략된 비교(省略된 比較) elliptical comparison 341
- 샤펠 shaphel 873
- 샬셰레트 shalsholet 872
- 서법 조동사(敍法 助動詞) modal auxiliary 602
- 서법성(敍法性) modality 603
- 서북 셈어 northwest Semitic 641
- 서수(序數) ordinal 661
- 서체(書體) script 852
- 선언적(宣言的) declarative 280
- 선행법(先行法) anticipation 86

- 선행사(先行詞) antecedent 81
 선행성(先行性) anteriority 84
 설명의 속격 epexegetical genitive, genitive explicativus 351
 설명절(說明節) explicative clause 366
 설음(舌音) lingual 548
 성(姓) gender 396
 성분(性分), 요소(要素) component 224
 성전 두루마리 temple scroll (Qumran) 958
 세 자음 어근(三子音語根) triconsonantal root (triliteralism) 982
 세쿤다 Secunda 855
 세투마 setumah 871
 셈어 Semitic/semitic language 862
 소(小) 마소라 Masora parva 572
 속격 독립 분사구문(屬格獨立分詞構文) genitive absolute participle 401
 속격 부정사(屬格 不定詞) genitive infinitive 402
 속격(屬格) genitive 399
 수(數) number 651
 수단(手段)의 베트 Beth instrumenti 149
 수동자(受動者) patient 697
 수동태(受動態) passive 691
 수메르어 Sumerian 929
 수사 numeral 652
 수사법(修辭法) rhetoric 840
 수사의문(修辭疑問) rhetorical question 841
 수식어(修飾語) modifier 606
 수식어(히. 修飾語) attribute, attributive 127
 수식적 대격(修飾的對格) attributive accusative 129
 수식적 분사(修飾的 分詞) attributive participle 131
 수식적 형용사(修飾的 形容詞) attributive adjective 130
 수여동사(授與動詞), 수혜동사(受惠動詞) bestowal verb 143
 수행적(遂行的) Performative 709
 수혜적 benefactive 141
 순음(唇音) labial 534
 술어 형용사(述語 形容詞) predicate adjective 748
 술어(述語), 술부(述部) predicate 746
 술어적 분사(述語的 分詞) predicative participle 751
 쉰 Shin 875
 슈룩 Šuruq 935
 슈바 Shva 876
 습관상(習慣相) habitual 433
 시간의 대격 accusative of time 26
 시간절(時間節) temporal clause 959
 시리아어 Syriac 950
 시상접두모음(時相接頭母音) augment, temporal augment 132

시작상(始作相) ingressive 502
 시제(時制) tense 961
 실로암 비문 Silwan inscription 883
 실명사(實名詞) substantive 919
 실명사절(實名詞節) substantival clause 917
 심마쿠스 역 Symmachus 939
 심층구조 deep structure 282
 싸메흐 Sameḥ 849
 쌍수(雙數) dual 326
 쎄골 segol 859
 쎄골 명사 segholate noun 857
 쎄골 명사 어미 segholate ending 856
 쎄골 명사화 segholisation 858
 쎄기문자, 설형문자(楔形文字) cuneiform 261

아라드 비문 Arad inscriptions 100
 아람어 Aramaic 101
 아람어 서체 Aramaic script 104
 아람어풍(1) Aramaism (in Hebrew) 105
 아람어풍(2) Aramaism (in Greek) 106
 아랍어 Arabic 98
 아모리어 Amorite 68
 아인 Ayin 135
 아카드어 Akkadian 52
 아트나흐 Athnah 123
 아폴로니우스의 규범 Apollonius' Canon 93
 아프리카-아시아어족 Afro-Asiatic 48
 악센트 accent 16
 알레포사본 Aleppo codex 56
 알파벳 alphabet 64
 알파벳체(이합체, 離合體) acrostic 28
 암몬어 Ammonite 67
 앓시리아어 Assyrian 118
 앞선 강세 prestress 761
 액어법(輓語法) zeugma 1039
 야레아흐 벤요모 yareah benyomo 1030
 약다게쉬, 연강점(軟強點) dagesh lene 272
 약동사 어근(弱動詞語根) weak root 1022
 약동사(弱動詞) weak verb 1023
 약어(略語) abbreviation 11
 약자음(弱子音) weak consonant 1021
 양보절(讓步節) concessive clause 230
 양화사(量化辭) quantifier 801
 어간 자음(語幹子音) stem-consonant / radical 902

어간(語幹) stem 900
 어간중복(語幹重複), 중복(重複) reduplication 817
 어근(語根) root 843
 어두 형태소(語頭形態素) preformative 755
 어두음 알렙 prosthetic aleph 777
 어두음 첨가(語頭音添加) prothetic/prothesis 780
 어미 형태소(語尾形態素) sufformative 928
 어미음 첨가 해(語尾音添加) paragoric He 673
 어순(語順) word order 1027
 어원(학)(語源學) etymology 360
 어중 삽입(語中插入) epenthesis, epenthetic 350
 어형 변이(語形變異) metaplasm 584
 어형 변화표(語形變化標) paradigm 671
 어휘론(語彙論, 語彙學) lexicology 544
 어휘목록(語彙目錄) lexicon 545
 어휘소(語彙素) lexeme 543
 억양(抑揚) intonation 514
 언어 유형론(言語類型論) typological linguistics 985
 언어변이(言語變異) linguistic variation 550
 언어변화(言語變化) linguistic change 549
 언어학(言語學) linguistics 551
 언외의 전치사(言外前置詞) preposition understood 757
 에돔어 Edomite 332
 에브라임 방언 Ephraimite dialect 352
 에블라어 Eblaite 331
 에티오피아어 Ethiopic 359
 엘 아마르나 el Amarna 336
 여격(與格) dative (dativus) 274
 여성 집합명사(女性集合名詞) feminine collective noun 372
 여성(女性) feminine 371
 여호와, 야웨 Jehovah 521
 연결 강다게쉬, 연결 경강점(連結 硬強點) dagesh forte conjunctivum 268
 연결문자(連結文字) litterae compaginis 554
 연결사 생략(連結絲省略) asyndesis, asyndetic, asydeton 121
 연계형 상태(連繫形狀態) status constructus 899
 연계형(連繫形) construct 246
 연구개음(軟口蓋音) velar 994
 연성(連聲) sandhi 850
 연속 서법(連續書法) scriptio continua 853
 연속 접속(連續接續) polysyndeton 742
 연속(連續) consecution 238
 연속(連續) sequence 869
 연속적 미완료(連續的 未完了) consecutive imperfect 240
 연속적 완료(連續的 完了) consecutive perfect 241

- 연어(連語), 배합(配合) collocation 203
- 연음 liaison 546
- 연장(延長) prolongation 769
- 영창(詠唱) cantillation 164
- 예멘식 발음 Yemenite pronunciation 1031
- 예변법(豫辯法) prolepsis 768
- 예언적 완료(豫言的完了) prophetic perfect 776
- 예외절(例外節) exceptive clause 363
- 예티브 yetiv 1032
- 오로모어 Oromo 662
- 완결된(完結) completed 221
- 완곡어법(婉曲語法) euphemism 361
- 완료(完了) perfect 703
- 완전 철자법(完全綴字法) scriptio plena 854
- 완전서법/철자법 full writing 385
- 외부점(外部點) external point 367
- 요드 Yod 1034
- 용어법(冗語法), 중어법(重語法) pleonasm 728
- 우가릿어 Ugaritic 986
- 우언법(迂言法) periphrastic 710
- 우크톨 Uqtol 992
- 운율(韻律) metre/meter 590
- 움직이는 낱 movable nu 615
- 움직임의 대격 accusative of movement 23
- 원급 positive 743
- 원시 셈어 proto-Semitic 781
- 원인(原因)의 베틀 Beth causa 145
- 원인절(原因節) causal clause 174
- 원형절(原形節) bare clause 138
- 위엄의 복수(威嚴複數) plural of majesty 735
- 유사 권유형(類似勸諭形) pseudo-cohortative 782
- 유사 부정사(類似不定詞) pseudo-infinitive 785
- 유사 수동태(類似受動態) pseudo-passive 786
- 유사 전치사(類似前置詞) pseudo-preposition 787
- 유사 직접화법(類似直接話法) pseudo-direct speech 783
- 유사 히필 pseudo-hiphil 784
- 유사복수(類似複數) apparent plural 95
- 유사음 놀이(類似音遊戲) paronomasia 678
- 유성 슈바와 무성 슈바 mobile shva and quiescens shva 601
- 유성음(有聲音) sonant 890
- 유운(類韻) assonance 116
- 유음 동사 liquid verb 553
- 유음적 자음(流音的子音) liquid consonant 552
- 유일어구(唯一語句) hapax legomenon 435

유추(類推) analogy 72
 유표(有標) marked 567
 은유적 용법(隱喻的 用法) metaphorical usage 583
 음량 도치(音量倒置) metathesis of quantity 587
 음량(音量) quantity 803
 음색(音色) timbre 973
 음성학(音聲學) phonetics 721
 음소(音素) phoneme 720
 음역(音譯) transliteration 980
 음운 전환(音韻轉換) metathesis 585
 음운론(音韻論) phonology 722
 음의 탈락(音 脫落) elision 338
 음절(音節) syllable 937
 응결성(凝結性) cohesion 200
 응집성(凝集性) coherence 198
 의문불변사 헤(疑問不變辭 헤) interrogative He 513
 의문사(疑問詞) interrogative 510
 의문절(疑問節) interrogative clause 512
 의미 강조의 복수(意味強調 複數) plural of amplification 733
 의미(意味) sense 864
 의미론(意味論) semantics 860
 의성어(擬聲語) onomatopoeia 657
 의욕적(意慾的) conative 229
 의인법 personification 715
 의지법(意志法) volitive mood 1009
 이디시어 Yiddish 1033
 이명식(二名式) binominal 154
 이분화(二分化) dyad 330
 이사일의(二詞一意), 중언법(重言法) hendiadys 450
 이음절어(二音節語) dissyllable 317
 이익의 여격(利益與格) dative of advantage, dativus commodi 276
 이중 기능 전치사 double-duty preposition 322
 이중 대격(二重對格) double accusative 319
 이중 목적어 접미사(二重目的語 接尾辭) double object suffixes 321
 이중 문자(二重 文子), 두 글자 표기 digraph 302
 이중모음(二重母音) diphthong 305
 이중어(二重語) doublet 323
 이중언어(二重言語) bilingualism 153
 이중적 성격의 모음(二重性格母音) anceps vowel 79
 이집트어 Egyptian 335
 이화(異化) dissimilation 316
 인도유럽어(印歐語) Indo-European languages 493
 인용공식(引用公式) citation formula 183
 인칭(人稱) person 714

- 일치(一致) agreement 51
 읽기전승 reading tradition 814
- 자동사(自動詞) intransitive verb 515
 자르카 zarka 1037
 자발적인 가상 중복(自發的假想重複) spontaneous virtual doubling 895
 자음 도치(子音倒置) metathesis of consonant 586
 자음 동화(子音同化) consonant assimilation 243
 자음(子音) consonant 242
 자음의 연음화 softening of consonant 889
 자음의 장음화(子音長音化) consonant lengthening 245
 자인 Zayin 1038
 자켄 가돌 zakef gadol 1035
 자켄 카톤 zakef katon 1036
 작용 강다게쉬, 작용 경강점(作用 硬強點) dagesh forte affectuosum 267
 작용적(作用的) factitive 369
 장르(形式) genre 405
 장소(場所)의 베티 Beth locale 150
 장소의 한정적 대격 accusative of place (accusative of local determination) 24
 재귀 동사(再歸動詞) reflexive verb 823
 재귀적(再歸的) reflexive 821
 재생 대명사(再生代名詞) resumptive pronoun 839
 재생(再生) resumption 837
 저자 표시 라메드 lamed auctoris 537
 저주문(詛呪文) imprecation 481
 저주문서(詛呪文書) execration text 364
 전반적(全般的), 술정적(述定的) global, constative 416
 전방대용어(前方代用語) anaphor (anaphora) 75
 전접어 뎀(前接語 ん) enclitic Mem 346
 전접어(前接語) enclitic 343
 전제(前提) presupposition 762
 전치(前置) prepositive 759
 전치사(前置詞) preposition 756
 전치사구(前置詞句) prepositional phrase 758
 전형(典型) epitome 356
 절(節) clause 187
 절대형(絶對形) absolute 14
 접두 활용(接頭活用) prefix conjugation 754
 접두사(接頭辭) prefix 753
 접미 활용(接尾活用) suffix conjugation 925
 접미사(接尾辭) suffix 923
 접미사를 가진 완료형 perfect with suffixes 706
 접사(接辭) affix 46
 접속사 구문과 비접속사 구문(接續詞構文, 非接續詞構文) syndesis and asyndesis 942

- 접속사(接續詞) conjunction 236
- 접속사(接續詞) 바브 conjunction vav(waw) 237
- 접어(接語), 접속어(接續語) clitic, clitic-like 193
- 정동사(定動詞), 한정동사(限定動詞) finite verb 377
- 정방형 서체(正方形書體) square script 896
- 정서법(正書法) orthography 664
- 정음학(正音學) orthoepy 663
- 정체 판명절(正體判明節) clause of identification 190
- 제 3 말음절(第 3 末音節) proparoxytone 774
- 제한적 불변사(制限的不變詞) restrictive particle 834
- 조건문(條件文) conditional sentence 234
- 조건절(條件節) conditional clause 232
- 조건절(條件節) protasis 778
- 조동사(助動詞) auxiliary verb 134
- 조상명(祖上名) patronymics 698
- 조어(祖語)의, 원어의 primitive 764
- 족속명(족속명의) gentilic 406
- 존재부사(存在副詞) adverb of existence 40
- 존재의(存在의) existential 365
- 종속 접속사(從屬接續詞) subordinating conjunction 915
- 종속절(從屬節) subordinate clause 914
- 종의 명사(種名詞) Noun of species 646
- 종족명 nomina gentilitia 635
- 좌우교대서법(左右交代書法) boustrophedon 157
- 주 명사(主 名詞) head noun 444
- 주격(主格) nominative 639
- 주어(主語) subject 908
- 주어적 속격(主語的 屬格) subjective genitive 910
- 준(유사)-형용사적 quasi-adjectival 804
- 준-모음적 자음(準子音的母音) semi-vocalic consonant 863
- 준지시대명사 quasi-demonstrative 805
- 중간자음 탈락(中間子音脫落) syncope 941
- 중간태(中間態) middle voice 591
- 중복 발음(重複 發音), 이중 조음(二重 調音) double articulation 320
- 중복 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 318
- 중복(重複) gemination 395
- 중복(重複), 장음화(長音化) doubling or lengthening 325
- 중성(中性) neuter 628
- 중세(中世) 히브리어 Medieval Hebrew 577
- 중음탈락(重音脫落) haplology 438
- 중의성(重義性) ambiguity 65
- 중자탈락(重字脫落) haplography 436
- 중첩음절(重疊音節) sharp syllable 874
- 즉각상(卽刻相), 순간상(瞬間相) instantaneous 503

- 지각 동사(知覺動詞) verb of perception (verba sentiendi) 997
 지배 명사(支配名詞)와 피지배 명사(被支配名詞) nomen regens and rectum 632
 지소사(指小辭) diminutive 304
 지속성 durative 328
 지시물(指示物) referent 819
 지시사(指示詞) demonstrative 289
 지시어(指示語) reference 818
 지시형(指示形), 지시법(指示法) jussive 522
 직격(直格) casus rectus 172
 직설법(直說法) indicative 490
 직시(直示), 직시소(直示素) deixis, deictic 287
 직유(直喩) simile 884
 직접 목적어(直接目的語) direct object 306
 직접 의지법(直接意志法) direct volitive mood 309
 직접 화법(直接話法) direct speech 308
 진행형(進行形) progressive 767
 집합명사(集合名詞) collective noun 202
 집합적 단일명사 nomen unitatis (nomina unitatis) 633
 짜데 Tsade 983
 켜레 şere 870

 차용어(借用語) loan-word 556
 착탈 동사(着脫動詞) verba induendi et exuendi 1001
 처격 불변사(處格不變詞) locative particle 560
 처격(處格) locative 557
 첨가의 ㄴ(눈) paragogic Nun (ㄴ) 674
 첫음 탈락, 어두음 탈락(語頭音脫落) aphaeresis 89
 초점 구문(焦點 構文) focus construction 378
 총칭적 용법(總稱用法) generic usage, generic statement 397
 최상급(最上級) superlative 931
 최소대립쌍 minimal pair 596
 추가배치(追加配置) extraposition 368
 추상명사의 이중어(抽象名詞 二重語) doublets of abstract nouns 324
 추상화 abstraction 15
 추정(推定的) putative 793
 축약(縮約) contraction 250
 충만, 결핍의 동사(充滿, 缺乏動詞) verba copiae et inopiae 1000
 측량 명사(測量名詞) nouns of Measure 648
 측정 단위의 대격 accusative of measure 22
 치음(齒音) dental 292
 치찰음(齒擦音) sibilant 878

 카드마 kadma 527
 카르네이 파라 karnei para 531

카마쯔 kamatz 529
 카마쯔-하툼 kamatz-hatuf 530
 카프 Kaf 528
 칼 qal 794
 칼 수동 qal passive 795
 칼의 수동태 passive of qal 693
 코프 Qof 797
 콜웰 법칙 Colwell's rule 205
 콥트어 Coptic 254
 쿰란 철자법 Qumran orthography 810
 쿰란 히브리어 Qumran Hebrew 808
 크레 Qre 798
 크티브 ktiv 533
 키나 운율 qina-metre 796
 키부쯔 kibutz 532
 타동사(他動詞) transitive verb 979
 타르굼 Targum 954
 타브 Taw 955
 탈격(奪格) ablative 12
 탈락(脫落) rejection 824
 탈무드 Talmud 953
 탈언 동사(脫言動詞) delocutive verb 288
 탈의미화(脫意味化) desemanticisation 294
 태(態) voice 1008
 테트 Tet 963
 텍스트 언어학 text linguistics 966
 토셰타 Tosefta 978
 통사론, 구문론(統辭論) syntax 949
 통시대(通時態), 통시적인(通時的) diachrony, diachronic 299
 트비르 tvir 984
 특성 강다게쉬, 특성 강점(特性 強點) dagesh characteristicum 263
 틀리샤 그돌라 tlisha gdola 974
 틀리샤 크타나 tlisha ktana 975
 틸새 문장, 분열 문장(分列文章) cleft sentence 192
 틸입(闖入) 파타흐, 도입 파타흐 furtive patah 388
 티베리아 마소라 Tiberian massora 971
 티프하 tifha 972

 파격구문(破格構文) anacoluthon 70
 파생어간(派生語幹) derived stem 293
 파쉬타 pashita 690
 파세크 paseq 689
 파알렐 pa'lel 668
 파열음(破裂音) plosive 729

- 파제르 pazer 700
 파타흐 pathah 696
 페 Pe 701
 페니키아어 Phoenician 718
 페르시아어 Persian 713
 페쉬타 Peshitta 716
 평언(評言) comment 207
 평행법(平行法) parallelism 675
 폐음절(닫힌 음절, 閉音節) closed syllable 194
 포알 poal 738
 포에니어 Punic 791
 포엘 poel 739
 폭이 확장된 문자, 폭 확장 문자(幅擴張 文字) dilatatable 303
 폴팔 polpal 740
 표면 구조(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 933
 푸랄 pu'lal 789
 푸알 pual 788
 풀팔 pulpal 790
 품사(品詞) part of speech 690
 프알랄 p'al'al 666
 피동 목적어(被動目的語) affected object 44
 피렐 pi'lel 726
 피엘 piel 725
 필리피 법칙 Philippi's law 717
 필펠 pilpel 727
- 하타프 세골 hataf (hatef) segol 440
 하타프 카마쯔 hataf kamatz (hatef qames) 442
 하타프 파타흐 hataf (hatef) patah 439
 하타프 슈바, 복합 슈바, 합성 슈바 nuanced shvas 649
 한계의 대격 accusative of limitation 21
 한정사(限定詞) determinative 296
 한정성(限定性) definiteness 285
 한정어(헬. 限定語) attributive 128
 함어 Hamitic 434
 함축 강다게쉬, 함축 경강점(含蓄 硬強點) dagesh forte implicitum 271
 합성(合成) composition 225
 항구적 복수형(恒久的 複數形) plurale tantum 736
 항구적 분사(恒久的 分詞) participium tantum 681
 항구적 크레 Qre perpetuum 799
 행(行) line (verse) 547
 행위수행 명사(行爲遂行名詞) nomen agentis 631
 행위자(行爲者) agent 49
 허용 중간태 permissive middle 712

- 허용적(許容的) tolerative (tolerativum) 976
- 헤 He 443
- 헤에만틱 자음 He'emantic consonants 449
- 헤트 Het 452
- 헥사플라 Hexapla 453
- 헬라어 Greek 428
- 현대 그리스어 Modern Greek 604
- 현대 히브리어 modern Hebrew 605
- 현대 히브리어 발음 contemporary Hebrew pronunciation 248
- 현재(現在) present 760
- 형성소 글자(形性素 綴字) formative letter 380
- 형용사(形容詞) adjective 34
- 형용사적 명사(形容詞的 名詞) adjective noun 35
- 형용사적 수식어(形容詞的 修飾語) adjectival modifier 32
- 형태(形態) morph 612
- 형태론(形態論) morphology 614
- 형태소(形態素) morpheme 613
- 호격(呼格) vocative 1007
- 호트파엘 hothpael 472
- 호팔 hophal 471
- 혼성어(混成語) hybrid 473
- 혼합된 쓰기 lectiones mixtae 541
- 혼합언어(混合言語) mixed language 599
- 홀람 holam 466
- 화제(話題) topic 977
- 확신의 완료(確信의 完了) perfective of confidence 707
- 확인절(確言節) affirmative clause 45
- 확장 가능 자음(擴張可能子音) litterae dilatabile 555
- 환유(換喩) metonymy 589
- 활용(活用) conjugation 235
- 활음조(滑音調) euphony 362
-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滑音調 強點) dagesh euphonicum, euphonic dagesh 265
- 후기 성서 히브리어 late biblical Hebrew 538
-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서의 퇴화 degeneration in LBH 286
- 후방대용어(後方代用語) cataphoric, cataphora 173
- 후음(喉音) guttural 430
- 후음과 모음(喉音과 母音) guttural and vowels 432
- 후음과 보조 하텡 guttural and auxiliary ḥaṭef 431
- 후접어(後接語) proclitic 766
- 후치(後置), 후치사(後置詞) postpositive 745
- 후행성(後行性) posteriority 744
- 휴지(休止) pause 699
- 히렉 hireq 459
- 히브리어 Hebrew 447

히브리어 서체 Hebrew script 448

히슈타펠 hishtapel 460

히트파알 hithpaal 461

히트파엘 hithpael 462

히트팔펠 hithpalpel 463

히트포엘 hithpoel 464

히트폴렐 hithpolel 465

히필 hiphil 458

2. 외국어 색인

- abbreviation 약어(略語) 11
- ablative 탈격(奪格) 12
- absolute 절대형(絶對形) 14
- abstraction 추상화 15
- accent 악센트 16
- accusative 대격(對格) 18
- accusative of internal object 내적 목적어의 대격 20
- accusative of limitation 한계의 대격 21
- accusative of measure 측정 단위의 대격 22
- accusative of movement 움직임의 대격 23
- accusative of place (accusative of local determination) 장소의 한정적 대격 24
- accusative of result 결과의 대격 25
- accusative of time 시간의 대격 26
- acrophony 두자법(頭字法) 27
- acrostic 알파벳체(이합체, 離合體) 28
- action verb 동작 동사(動作動詞) 29
- active verb 능동 동사(能動動詞) 30
- active voice 능동태(能動態) 31
- adjectival modifier 형용사적 수식어(形容詞的 修飾語) 32
- adjective 형용사(形容詞) 34
- adjective noun 형용사적 명사(形容詞的 名詞) 35
- adjunct 부가어(附加語) 36
- ad-nominal 명사 수식적(名詞修飾的) 37
- adverb 부사(副詞) 38
- adverb of existence 존재부사(存在副詞) 40
- adverbial 동사 수식어(動詞修飾語) 41
- adversative clause 반의절(反義節) 43
- affected object 피동 목적어(被動目的語) 44
- affirmative clause 확인절(確言節) 45
- affix 접사(接辭) 46
- afformative 부가 형태소(附加形態素) 47
- Afro-Asiatic 아프리카-아시아어족 48
- agent 행위자(行爲者) 49
- agglutinative language 교착어(膠着語) 50
- agreement 일치(一致) 51
- Akkadian 아카드어 52
- aktionsart(en) 동작양태(動作樣態) 54
- Aleppo codex 알레포사본 56
- alliteration 두음법(頭音法) 58
- allomorph 변이형태(變異形態) 62
- allophone 변이음(變異音) 63
- alphabet 알파벳 64

- ambiguity 중의성(重義性) 65
- Ammonite 암몬어 67
- Amorite 아모리어 68
- anacoluthon 파격구문(破格構文) 70
- analogy 유추(類推) 72
- analysis 분석(分析) 74
- anaphor (anaphora) 전방대용어(前方代用語) 75
- anaptyxis 보조모음 첨가(補助母音添加) 77
- anarthrous 무관사의(無冠詞的) 78
- anceps vowel 이중적 성격의 모음(二重性格母音) 79
- anomaly 변칙형태(變則形態) 80
- antecedent 선행사(先行詞) 81
- antepretonic 강세 전전 음절(強勢前前音節) 83
- anteriority 선행성(先行性) 84
- anticipation 선행법(先行法) 86
- antithesis 대조법(對照法), 반의법(反義法) 87
- apersonal 비인칭의 88
- aphaeresis 첫음 탈락, 어두음 탈락(語頭音脫落) 89
- apocopation (apocope) 끝음 탈락, 어말음 탈락(語末音脫落) 90
- apodosis 귀결절, 결과절(歸結節, 結果節) 91
- Apollonius' Canon 아폴로니우스의 규범 93
- aposiopesis 돈절법(頓絕法) 94
- apparent plural 유사복수(類似複數) 95
- appellative 보통명사화(普通名詞化) 96
- apposition 동격(同格) 97
- Arabic 아랍어 98
- Arad inscriptions 아라드 비문 100
- Aramaic 아람어 101
- Aramaic script 아람어 서체 104
- Aramaism (in Hebrew) 아람어풍(1) 105
- Aramaism (in Greek) 아람어풍(2) 106
- archaism 고어풍 107
- article 관사(冠詞) 108
- aspect 상(相), 시상(時相) 110
- aspirate (aspiration) 기식음(氣息音) 113
- asserterative clause 단언절(斷言節) 114
- assimilation 동화(同化) 115
- assonance 유운(類韻) 116
- Assyrian 앓시리아어 118
- asymmetry 비대칭(非對稱) 120
- asyndesis, asyndetic, asydeton 연결사 생략(連結絲省略) 121
- Athnah 아트나흐 123
- attenuation 모음 약화(母音弱化) 124
- attraction 견인(牽引) 125

- attribute, attributive 수식어(히, 修飾語) 127
- attributive 한정어(헬, 限定語) 128
- attributive accusative 수식적 대격(修飾的對格) 129
- attributive adjective 수식적 형용사(修飾的形容詞) 130
- attributive participle 수식적 분사(修飾的分子) 131
- augment, temporal augment 시상접두모음(時相接頭母音) 132
- auxiliary 보조어(補助的) 133
- auxiliary verb 조동사(助動詞) 134
- Ayin 아인 135

- Babylonian 바빌론어 136
- bare clause 원형절(原形節) 138
- Barth-Ginsberg's law 바르트-긴즈버그 법칙 139
- begadkefat 브가드크파트 140
- benefactive 수혜적 141
- bestowal verb 수여동사(授與動詞), 수혜동사(受惠動詞) 143
- Beth 베트 144
- Beth causa 원인(原因)의 베트 145
- Beth commentiae 동반(同伴)의 베트 146
- Beth essentiae 본질(本質)의 베트 147
- Beth instrumenti 수단(手段)의 베트 149
- Beth locale 장소(場所)의 베트 150
- Beth pretii 가격(價格)의 베트 151
- biconsonantal root, biliteral root 두 자음 어근(二子音語根) 152
- bilingualism 이중언어(二重言語) 153
- binominal 이명식(二名式) 154
- binyan, binyanim 동사 활용(動詞活用) 155
- bound morpheme 결속형태소(結束形態素) 156
- boustrophedon 좌우교대서법(左右交代書法) 157
- brevisity 간결성(簡潔性) 158
- broken construct chain 깨어진 연계형 고리 159
- broken plural 깨어진 복수 160

- calendar year 달력상의 해 161
- Canaanite 가나안어 162
- cantillation 영창(詠唱) 164
- cardinal 기수(基數) 165
- cardinal points 네 방위(四方位) 167
- case 격(格) 168
- case ending 격어미(格語尾) 169
- casus obliquus 사격(斜格) 170
- casus pendens 고리형(環形) 171
- casus rectus 직격(直格) 172
- cataphoric, cataphora 후방대용어(後方代用語) 173

- causal clause 원인절(原因節) 174
- causative 사역적(使役的) 176
- centripetal 구심적(求心的) 178
- chain 고리(連鎖) 179
- chiasm, chiasmus 교차대구(交叉對句) 180
- circumstantial clause 상황절(狀況節) 181
- citation formula 인용공식(引用公式) 183
- clarity 명료성(明瞭性) 184
- classical language 고전어(古典語) 186
- clause 절(節) 187
- clause of classification 분류절(分類節) 188
- clause of identification 정체 판명절(正體判明節) 190
- clause of oath 맹세절(盟誓節) 191
- cleft sentence 틈새 문장, 분열 문장(分列文章) 192
- clitic, clitic-like 접어(接語), 접속어(接續語) 193
- closed syllable 폐음절(닫힌 음절, 閉音節) 194
- cognate 동족어(同族語) 195
- cognate accusative, cognate object 동족 대격(同族對格), 동족 목적어(同族目的語) 196
- coherence 응집성(凝集性) 198
- cohesion 응결성(凝結性) 200
- cohortative 권유형(勸諭形), 청유형(請誘形) 201
- collective noun 집합명사(集合名詞) 202
- collocation 연어(連語), 배합(配合) 203
- Colwell's rule 콜웰 법칙 205
- command 명령(문)(命令[文]) 206
- comment 평언(評言) 207
- common gender, communia 공성(共性) 208
- common noun 보통명사(普通名詞) 210
- commutation 교체(交替) 212
- comparative 비교급(比較級) 213
- comparative clause 비교절(比較節) 215
- comparison 비교(比較) 216
- compensatory lengthening 보상 장모음화(報償長母音化) 219
- complement 보어(補語) 220
- completed 완결된(完結) 221
- complex (compound) 복합의(複合的) 223
- component 성분(性分), 요소(要素) 224
- composition 합성(合成) 225
- compound noun 복합명사(複合名詞) 228
- conative 의욕적(意慾的) 229
- concessive clause 양보절(讓步節) 230
- concrete noun 구상명사(具象名詞) 231
- conditional clause 조건절(條件節) 232
- conditional sentence 조건문(條件文) 234

- conjugation 활용(活用) 235
- conjunction 접속사(接續詞) 236
- conjunction vav(waw) 접속사(接續詞) 바브 237
- consecution 연속(連續) 238
- consecutive clause 결과절(結果節) 239
- consecutive imperfect 연속적 미완료(連續的 未完了) 240
- consecutive perfect 연속적 완료(連續的 完了) 241
- consonant 자음(子音) 242
- consonant assimilation 자음 동화(子音同化) 243
- consonant lengthening 자음의 장음화(子音長音化) 245
- construct 연계형(連繫形) 246
- contamination 변형(變形) 247
- contemporary Hebrew pronunciation 현대 히브리어 발음 248
- context 맥락(脈絡) 249
- contraction 축약(縮約) 250
- conversive, converted 변환의(變換) 251
- coordination, coordinate conjunction 대등 접속(對等接續), 등위 접속(等位接續) 252
- Coptic 콥트어 254
- copula 계사(繫辭) 255
- coreference 동일지시(同一指示), 공지시(共指示) 257
- correlatives 상관어구(相關語句) 258
- co-text 근접본문(近接本文) 259
- countable 가산명사(可算名詞) 260
- cuneiform 췌기문자, 설형문자(楔形文字) 261

- dagesh 다게쉬 262
- dagesh characteristicum 특성 강다게쉬, 특성 강점(特性 強點) 263
- dagesh compensativum 보상 강다게쉬, 보상 강점(報償 強點) 264
- dagesh euphonicum, euphonic dagesh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점(滑音調 強點) 265
- dagesh forte 강다게쉬(硬強點) 266
- dagesh forte affectuosum 작용 강다게쉬, 작용 경강점(作用 硬強點) 267
- dagesh forte conjunctivum 연결 강다게쉬, 연결 경강점(連結 硬強點) 268
- dagesh forte dirimens 분리 강다게쉬, 분리 경강점(分離 硬強點) 269
- dagesh forte firmativum 고착 강다게쉬, 고착 경강점(固着 硬強點) 270
- dagesh forte implicitum 함축 강다게쉬, 함축 경강점(含蓄 硬強點) 271
- dagesh lene 약다게쉬, 연강점(軟強點) 272
- Dalet 달레트 273
- dative (dativus) 여격(與格) 274
- dative of advantage, dativus commodi 이익의 여격(利益與格) 276
- dative of disadvantage, dativus incommodi 불이익의 여격(不利益與格) 277
- dative of feeling, ethical dative, dativus ethicus 감성의 여격(感性與格) 278
- Dead Sea Scrolls 사해사본 279
- declarative 선언적(宣言的) 280
- declension 곡용(曲用) 281

- deep structure 심층구조 282
- defective verbs 불완전동사(不完全動詞) 283
- defective writing 불완전서법(不完全書法) 284
- definiteness 한정성(限定性) 285
- degeneration in LBH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서의 퇴화 286
- deixis, deictic 직시(直示), 직시소(直示素) 287
- delocutive verb 탈언 동사(脫言動詞) 288
- demonstrative 지시사(指示詞) 289
- denominative 명사 파생 동사(名詞派生動詞) 290
- denominative nouns 명사 파생 명사(名詞派生名詞) 291
- dental 치음(齒音) 292
- derived stem 파생어간(派生語幹) 293
- desemanticisation 탈의미화(脫意味化) 294
- desiderative sentence 기원문(祈願文) 295
- determinative 한정사(限定詞) 296
- deverbal noun 동사 파생 명사(動詞派生名詞) 297
- Dhiq 드히크 298
- diachrony, diachronic 통시대(通時態), 통시적인(通時的) 299
- dialect 방언(方言) 300
- dictionary form 사전적 형태(辭典的形態) 301
- digraph 이중 문자(二重 文字), 두 글자 표기 302
- dilatable 폭이 확장된 문자, 폭 확장 문자(幅 擴張 文字) 303
- diminutive 지소사(指小辭) 304
- diphthong 이중모음(二重母音) 305
-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直接目的語) 306
- direct speech 직접 화법(直接話法) 308
- direct volitive mood 직접 의지법(直接意志法) 309
- directional *he* 방향(方向)의 헤 311
- discourse 담화(談話) 312
- disjunctive 분리적(分離的), 이접사(離接詞) 313
- disjunctive clause 분리절(分離節), 이접절(離接節) 314
- disjunctive question 분리 의문문(分離 疑問文), 이접 의문문(離接 疑問文) 315
- dissimilation 이화(異化) 316
- dissyllable 이음절어(二音節語) 317
- dittography 중복 오사(重複誤寫) 318
- double accusative 이중 대격(二重對格) 319
- double articulation 중복 발음(重複 發音), 이중 조음(二重 調音) 320
- double object suffixes 이중 목적어 접미사(二重目的語 接尾辭) 321
- double-duty preposition 이중 기능 전치사 322
- doublet 이중어(二重語) 323
- doublets of abstract nouns 추상명사의 이중어(抽象名詞 二重語) 324
- doubling or lengthening 중복(重複), 장음화(長音化) 325
- dual 쌍수(雙數) 326
- dummy 대역적(代役的) 327

- durative 지속성 328
 dyad 이분화(二分化) 330
- Eblaite 에블라어 331
 Edomite 에돔어 332
 effected object 달성 목적어(達成目的語) 333
 Egyptian 이집트어 335
 el Amarna 엘 아마르나 336
 elative 고양형(高揚形) 337
 elision 음의 탈락(音 脫落) 338
 ellipse, ellipsis 생략(省略) 339
 elliptical comparison 생략된 비교(省略된 比較) 341
 emphatic sound 강세음(強勢音), 강조음(強調音) 342
 enclitic 전접어(前接語) 343
 enclitic Mem 전접어 멨(前接語 ァ) 346
 energetic Nun 강세의 눈(強勢의 ㄴ) 347
 energetic vav 강세의 바브(強勢의 ㅂ) 348
 epenthesis, epenthetic 어중 삽입(語中插入) 350
 epexegetical genitive, genitive explicativus 설명의 속격 351
 Ephraimite dialect 에브라임 방언 352
 epicene noun 공성명사(共性名詞) 353
 epigraphy 비명학 354
 epithet 별칭 355
 epitome 전형(典型) 356
 ergative 능동격(能動格) 357
 Ethiopic 에티오피아어 359
 etymology 어원(학)(語源學) 360
 euphemism 완곡어법(婉曲語法) 361
 euphony 활음조(滑音調) 362
 exceptive clause 예외절(例外節) 363
 execration text 저주문서(詛呪文書) 364
 existential 존재의(存在의) 365
 explicative clause 설명절(說明節) 366
 external point 외부점(外部點) 367
 extraposition 추가배치(追加配置) 368
- factitive 작용적(作用的) 369
 feminine 여성(女性) 371
 feminine collective noun 여성 집합명사(女性集合名詞) 372
 fientive verb 과정동사(過程動詞) 373
 final clause 목적절(目的節) 374
 final letter 끝 문자 376
 finite verb 정동사(定動詞), 한정동사(限定動詞) 377
 focus construction 초점 구문(焦點 構文) 378

- formative letter 형성소 글자(形性素 綴字) 380
- free-standing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381
- French 불어(프랑스어) 382
- frequentative 빈번상(頻繁相) 383
- fricative 마찰음(摩擦音) 384
- full writing 완전서법/철자법 385
- function 기능(機能) 386
- function word 기능어(機能語) 387
- furtive patah 틈입(闖入) 파타흐, 도입 파타흐 388
- future 미래(未來) 389
- future perfect, futurm exactum 미래완료(未來完了) 392

- ga'ya 가아야 393
- Ge'ez 게이즈어 394
- gemination 중복(重複) 395
- gender 성(姓) 396
- generic usage, generic statement 총칭적 용법(總稱用法) 397
- genitive 속격(屬格) 399
- genitive absolute participle 속격 독립 분사구문(屬格獨立分詞構文) 401
- genitive infinitive 속격 부정사(屬格 不定詞) 402
- genitive of apposition, genitive appositionis 동격의 속격(同格의 屬格) 403
- genre 장르(形式) 405
- gentilic 족속명(족속명의) 406
- geresh 게레쉬 407
- German 독일어(獨逸語) 408
- gershayim, grashayim 게르샤임(그라샤임) 409
- gerund 동명사(動名詞) 410
- gerundive 동명사적(動名詞的) 411
- Gezer calendar 게제르 달력 412
- Ghain 가인 413
- Gileadite dialect 길르앗 방언 414
- Gimel 김멜 415
- global, constative 전반적(全般的), 술정적(述定的) 416
- gnomic 격언적(格言的) 418
- grammar 문법(文法) 420
- grammarian 문법학자(文法學子) 422
- grammatical word 문법적 단어(文法的單語) 424
- grammaticalization 문법화(文法化) 425
- Granville Sharp rule 그랜빌 샵 법칙 426
- grapheme 낱글자, 자소(子素), 문자소(文字素) 427
- Greek 헬라어 428
- ground stem 기본어간(基本語幹) 429
- guttural 후음(喉音) 430
- guttural and auxiliary ḥaṭef 후음과 보조 하텍 431

guttural and vowels 후음과 모음(喉音과 母音) 432

habitual 습관상(習慣相) 433

Hamitic 함어 434

hapax legomenon 유일어구(唯一語句) 435

haplography 중자탈락(重字脫落) 436

haplology 중음탈락(重音脫落) 438

hataf (hatef) patah 하타프 파타흐 439

hataf (hatef) segol 하타프 세골 440

hataf (hatef) shva 복합 슈바, 하타프 슈바 441

hataf kamatz (hatef qames) 하타프 카마쯔 442

He 헤 443

head noun 주 명사(主 名詞) 444

heavy suffixes 무거운 접미사 446

Hebrew 히브리어 447

Hebrew script 히브리어 서체 448

He'ematic consonants 헤에만틱 자음 449

hendiadys 이사일의(二詞一意), 중언법(重言法) 450

Het 헤트 452

Hexapla 헥사플라 453

hiatus 모음연속(母音連續) 454

hierarchy 계층 455

hieroglyph, hieroglyphics 상형문자(象形文字) 457

hiphil 히필 458

hireq 히렉 459

hishtapel 히슈타펠 460

hithpaal 히트파알 461

hithpaal 히트파엘 462

hithpalpel 히트팔펠 463

hithpoel 히트포엘 464

hithpolel 히트폴렐 465

holam 홀람 466

homogeneous consonant 동질적 자음(同質的 子音) 467

homonym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468

homophone 동음어(同音語) 469

homorganic consonant 동기관적 자음(同器官的 子音) 470

hophal 호팔 471

hothpaal 호트파엘 472

hybrid 혼성어(混成語) 473

idem per idem 동일 단어 반복(同一單語反復) 474

imperative 명령형(命令形) 475

imperfect 미완료(未完了) 477

imperfective 미완료상(未完了相) 478

- impersonal 비인칭의(非人稱的) 479
- imprecation 저주문(詛呪文) 481
- improper annexation 부적절한 어구(不適切語句) 482
- inchoative 기동상(起動相) 483
- indefinite article 부정 관사(不定 冠詞) 485
- indefinite pronoun 비한정 대명사(非限定 代名詞), 부정 대명사(不定 代名詞) 486
- indefinite subject 비한정 주어(非限定主語) 488
- indefiniteness 비한정성(非限定性) 489
- indicative 직설법(直說法) 490
- indirect speech 간접 화법(間接話法) 491
- Indo-European languages 인도유럽어(印歐語) 493
- infinitive 부정사(不定詞) 494
- infinitive absolute 부정사 절대형(不定詞 絶對形) 496
- infinitive construct 부정사 연계형(不定詞 連繫形) 498
- infix 삽입사(插入辭), 접요사(接腰辭) 500
- inflection 굴절(屈折) 501
- ingressive 시작상(始作相) 502
- instantaneous 즉각상(卽刻相), 순간상(瞬間相) 503
- instrument 도구격(道具格) 504
- intensive 강의형(強意形) 506
- intensive plural 강의형 복수(強意形複數) 507
- interjection 감탄사(感歎詞), 간투사(間投詞) 508
- internal passive 내적 수동태(內的受動態) 509
- interrogative 의문사(疑問詞) 510
- interrogative clause 의문절(疑問節) 512
- interrogative He 의문불변사 해(疑問不變辭 해) 513
- intonation 억양(抑揚) 514
- intransitive verb 자동사(自動詞) 515
- inversive 도치(倒置) 516
- inverted nuns 도치의 눈(倒置의 눈) 517
- irregular 불규칙(不規則) 518
- iterative 반복상(反復相) 519

- Jehovah 여호와, 야웨 521
- jussive 지시형(指示形), 지시법(指示法) 522
- jussive neglected 무시된 지시형 523
- juxtaposition 병치(並置), 병렬(並列) 525

- kadma 카드마 527
- Kaf 카프 528
- kamatz 카마쯔 529
- kamatz-hatuf 카마쯔-하툼 530
- karnei para 카르네이 파라 531
- kibutz 키부쯔 532

- ktiv 크티브 533
- labial 순음(脣音) 534
- Lachish inscription 라기스 문서 535
- lamed 라메드 536
- lamed auctoris 저자 표시 라메드 537
- late biblical Hebrew 후기 성서 히브리어 538
- Latin 라틴어 540
- lectiones mixtae 혼합된 쓰기 541
- Leningrad codex 레닌그라드 사본 542
- lexeme 어휘소(語彙素) 543
- lexicology 어휘론(語彙論, 語彙學) 544
- lexicon 어휘목록(語彙目錄) 545
- liaison 연음 546
- line (verse) 행(行) 547
- lingual 설음(舌音) 548
- linguistic change 언어변화(言語變化) 549
- linguistic variation 언어변이(言語變異) 550
- linguistics 언어학(言語學) 551
- liquid consonant 유음적 자음(流音的子音) 552
- liquid verb 유음 동사 553
- litterae compaginis 연결문자(連結文字) 554
- litterae dilatabile 확장 가능 자음(擴張可能子音) 555
- loan-word 차용어(借用語) 556
- locative 처격(處格) 557
- locative He (He locale) 방향(方向)의 헤 559
- locative particle 처격 불변사(處格不變詞) 560
- long (forms) in pause 긴 휴지 형태 561
- mahpah 마흐파흐 562
- Mandaean 만다어 563
- mappiq 마픽 564
- maqgef 마켄프 565
- marked 유표(有標) 567
- masculine 남성(男性) 568
- Masora finalis 권말(卷末) 마소라, 끝 마소라 569
- Masora magna 대(大) 마소라 570
- Masora marginalis 난외(欄外) 마소라 571
- Masora parva 소(小) 마소라 572
- Massorah 마소라 573
- Massoretic texts 마소라 본문 574
- matres lectionis 모음문자(母音文字) 576
- Medieval Hebrew 중세(中世) 히브리어 577
- Mehri 메흐리어 578

- Mem 맴 579
 merahiq 메라히크 580
 merha 메르하 581
 merha hfula 메르하 흐플라 582
 metaphorical usage 은유적 용법(隱喻的 用法) 583
 metaplasma 어형 변이(語形變異) 584
 metathesis 음운 전환(音韻轉換) 585
 metathesis of consonant 자음 도치(子音倒置) 586
 metathesis of quantity 음량 도치(音量倒置) 587
 metheg 메테그 588
 metonymy 환유(換喻) 589
 metre/meter 운율(韻律) 590
 middle voice 중간태(中間態) 591
 Midrash 미드라쉬 592
 mil'el 밀엘(끝 음절 전 강세) 593
 mil'ra 밀라(끝 음절 강세) 594
 Minaean 미네아어 595
 minimal pair 최소대립쌍 596
 Mishnah 미슈나 597
 Mishnaic Hebrew 미슈나 히브리어 598
 mixed language 혼합언어(混合言語) 599
 Moabite 모압어 600
 mobile shva and quiescens shva 유성 슈바와 무성 슈바 601
 modal auxiliary 서법 조동사(敍法 助動詞) 602
 modality 서법성(敍法性) 603
 Modern Greek 현대 그리스어 604
 modern Hebrew 현대 히브리어 605
 modifier 수식어(修飾語) 606
 monosyllable 단음절(單音節) 609
 mood 법((法), 서법(敍法) 610
 morph 형태(形態) 612
 morpheme 형태소(形態素) 613
 morphology 형태론(形態論) 614
 movable nu 움직이는 נ 615
 multiplicative 배수사(倍數詞) 616
 munah 무나흐 617
 munah legarme 무나흐 레가르메 618
- Naqdanim 나크다님(모음 첨가자들, 母音添加者) 619
 narrative 내러티브(敍事物) 620
 nasog aħor 강세의 후퇴(強勢後退) 622
 negation 부정(否定) 623
 negative 부정어(否定語) 624
 negative clause 부정절(否定節) 627

- neuter 중성(中性) 628
- niphal 니팔 629
- nithpaël 니트파엘 630
- nomen agentis 행위수행 명사(行爲遂行名詞) 631
- nomen regens and rectum 지배 명사(支配名詞)와 피지배 명사(被支配名詞) 632
- nomen unitatis (nomina unitatis) 집합적 단일명사 633
- nomina gentilitia 종족명 635
- nominal 명사류(名詞類) 636
- nominal clause 명사절(名詞節) 637
- nominalization 명사화(名詞化) 638
- nominative 주격(主格) 639
- nonfinite verb 비정동사(非定動詞) 640
- northwest Semitic 서북 셈어 641
- nota accusativi 대격 표지(對格標紙) 642
- noun 명사(名詞) 643
- Noun of species 종의 명사(種名詞) 646
- noun phrase 명사구(名詞句) 647
- nouns of Measure 측량 명사(測量名詞) 648
- nuanced shvas 하텡 슈바, 복합 슈바, 합성 슈바 649
- nufal 누팔 650
- number 수(數) 651
- numeral 수사 652
- object 목적어(目的語) 653
- object suffix 목적격 접미사(目的格接尾辭) 654
- objective case 목적격(目的格) 655
- objective genitive 목적격 속격(目的格屬格) 656
- onomatopoeia 의성어(擬聲語) 657
- open syllable 개음절(開音節), 열린 음절 658
- optative clause 기원절(祈願節) 659
- optative mood 기원법(祈願法) 660
- ordinal 서수(序數) 661
- Oromo 오로모어 662
- orthoepy 정음학(正音學) 663
- orthography 정서법(正書法) 664
- p'al'al 프알랄 666
- palatal 구개음(口蓋音) 667
- pa'lel 파알렐 668
- paleography 고문서학(古文書學) 669
- paleo-Hebrew script 고대 히브리 서체 670
- paradigm 어형 변화표(語形變化標) 671
- paradigmatic relation 계열관계(系列關係) 672
- paragogic He 어미음 첨가 해(語尾音添加) 673

- paragogic Nun (נ) 첨가의 נ(눈) 674
- parallelism 평행법(平行法) 675
- parataxis 병렬(並列) 676
- parenthesis 삽입어구(插入語句) 677
- paronomasia 유사음 놀이(類似音遊戲) 678
- part of speech 품사(品詞) 690
- participium tantum 항구적 분사(恒久的分詞) 681
- participle 분사(分詞) 682
- particle 불변화사(不變化詞) 684
- partitive 부분적(部分的) 687
- partitive genitive 부분의 속격(部分的屬格) 688
- paseq 파세크 689
- pashita 파쉬타 690
- passive 수동태(受動態) 691
- passive of qal 칼의 수동태 693
- passive participle with active meaning 능동 의미를 갖는 수동 분사 694
- past future 과거(속의) 미래 695
- pathah 파타흐 696
- patient 수동자(受動者) 697
- patronymics 조상명(祖上名) 698
- pause 휴지(休止) 699
- pazer 파제르 700
- Pe 페 701
- penultima 끝 직전 음절 702
- perfect 완료(完了) 703
- perfect with suffixes 접미사를 가진 완료형 706
- perfective of confidence 확신의 완료(確信의 完了) 707
- perfective of prayer 기원의 완료(祈願의 完了) 708
- Performative 수행적(遂行的) 709
- periphrastic 우언법(迂言法) 710
- permissive middle 허용 중간태 712
- Persian 페르시아어 713
- person 인칭(人稱) 714
- personification 의인법 715
- Peshitta 페쉬타 716
- Philippi's law 필리피 법칙 717
- Phoenician 페니키아어 718
- phone 단음(單音) 719
- phoneme 음소(音素) 720
- phonetics 음성학(音聲學) 721
- phonology 음운론(音韻論) 722
- phrasal verb 구 동사(句動詞) 723
- phrase 구(句) 724
- piel 피엘 725

- pi'lel 피렐 726
- pilpel 필펠 727
- pleonasm 용어법(冗語法), 중어법(重語法) 728
- plosive 파열음(破裂音) 729
- pluperfect 과거완료(過去完了) 730
- plural 복수(複數) 731
- plural of amplification 의미 강조의 복수(意味強調 複數) 733
- plural of local extension 공간 확장의 복수(空間擴張 複數) 734
- plural of majesty 위엄의 복수(威嚴複數) 735
- plurale tantum 항구적 복수형(恒久的 複數形) 736
- plusquamperfect 대과거(大過去) 737
- poal 포알 738
- poel 포엘 739
- polpal 폴팔 740
- polysemy 다의성(多義性) 741
- polysyndeton 연속 접속(連續接續) 742
- positive 원급 743
- posteriority 후행성(後行性) 744
- postpositive 후치(後置), 후치사(後置詞) 745
- predicate 술어(述語), 술부(述部) 746
- predicate adjective 술어 형용사(述語 形容詞) 748
- predicative accusative of state 상태의 서술적 대격(狀態의 敘述的對格) 749
- predicative participle 술어적 분사(述語的 分詞) 751
- prefix 접두사(接頭辭) 753
- prefix conjugation 접두 활용(接頭活用) 754
- preformative 어두 형태소(語頭形態素) 755
- preposition 전치사(前置詞) 756
- preposition understood 언외의 전치사(言外前置詞) 757
-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구(前置詞句) 758
- prepositive 전치(前置) 759
- present 현재(現在) 760
- prestress 앞선 강세 761
- presupposition 전제(前提) 762
- preterite 과거(過去) 763
- primitive 조어(祖語)의, 원시의 764
- privative 결성어(缺性語) 765
- proclitic 후접어(後接語) 766
- progressive 진행형(進行形) 767
- prolepsis 예변법(豫辯法) 768
- prolongation 연장(延長) 769
- pronominal regel 대명사 규칙(代名詞規則) 770
- pronominal substitution 대명사적 대용어(代名詞的 代用語) 771
- pronominal suffix 대명사적 접미사(代名詞的 接尾辭) 772
- pronoun 대명사(代名詞) 773

proparoxytone 제 3 말음절(第 3 末音節) 774
 proper noun 고유 명사(固有名詞) 775
 prophetic perfect 예언적 완료(豫言的完了) 776
 prosthetic aleph 어두음 알렘 777
 protasis 조건절(條件節) 778
 prothetic/prothesis 어두음 첨가(語頭音添加) 780
 proto-Semitic 원시 셈어 781
 pseudo-cohortative 유사 권유형(類似勸諭形) 782
 pseudo-direct speech 유사 직접화법(類似直接話法) 783
 pseudo-hiphil 유사 히필 784
 pseudo-infinitive 유사 부정사(類似不定詞) 785
 pseudo-passive 유사 수동태(類似受動態) 786
 pseudo-preposition 유사 전치사(類似前置詞) 787
 pual 푸알 788
 pu'lal 푸랄 789
 pulpal 풀팔 790
 Punic 포에니어 791
 purpose 목적(目的) 792
 putative 추정어(推定的) 793

qal 칼 794
 qal passive 칼 수동 795
 qina-metre 키나 운율 796
 Qof 코프 797
 Qre 크레 798
 Qre perpetuum 항구적 크레 799
 quadriliterals 네자음어 800
 quantifier 양화사(量化辭) 801
 quantity 음량(音量) 803
 quasi-adjectival 준(유사)-형용사적 804
 quasi-demonstrative 준지시대명사 805
 quiescent 묵음(默音) 806
 quinqueliteral 다섯 자음어 807
 Qumran Hebrew 쿰란 히브리어 808
 Qumran orthography 쿰란 철자법 810

rabbinic Hebrew 랍비 히브리어 811
 Rafé 라페 812
 rare patterns 드문 유형들 813
 reading tradition 읽기전승 814
 reciprocal 상호적(相互的) 815
 reciprocal pronoun 상호 대명사(相互代名詞) 816
 reduplication 어간중복(語幹重複), 중복(重複) 817
 reference 지시어(指示語) 818

referent 지시물(指示物) 819
 reflexive 재귀적(再歸的) 821
 reflexive verb 재귀 동사(再歸動詞) 823
 rejection 탈락(脫落) 824
 relative 관계사(關係詞) 826
 relative clause 관계절(關係節) 827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關係代名詞) 830
 repeated for plurality 복수를 표현하는 반복(複數 表現 反復) 831
 repetition 반복법(反復法) 832
 Resh 레쉬 833
 restrictive particle 제한적 불변사(制限的不變詞) 834
 resultative 결과적(結果的) 835
 resumption 재생(再生) 837
 resumptive pronoun 재생 대명사(再生代名詞) 839
 rhetoric 수사법(修辭法) 840
 rhetorical question 수사의문(修辭疑問) 841
 root 어근(語根) 843
 rvia 르비아 844

Samaria 사마리아 845
 Samaritan 사마리아어 846
 Samaritan Hebrew 사마리아 히브리어 847
 Samaritan script 사마리아 서체 848
 Sameḥ 싸메흐 849
 sandhi 연성(連聲) 850
 Sanskrit 산스크리트어 851
 script 서체(書體) 852
 scriptio continua 연속 서법(連續書法) 853
 scriptio plena 완전 철자법(完全綴字法) 854
 Secunda 세쿤다 855
 segholate ending 쎄골 명사 어미 856
 segholate noun 쎄골 명사 857
 segholisation 쎄골 명사화 858
 segol 쎄골 859
 semantics 의미론(意味論) 860
 Semitic/semitic language 셈어 862
 semi-vocalic consonant 준-모음적 자음(準子音의母音) 863
 sense 의미(意味) 864
 sentence 문장(文章) 865
 separating vowel 분리모음(分離母音) 866
 Septuagint 70 인경 867
 sequence 연속(連續) 869
 šere 쎄레 870
 setumah 세투마 871

shalshelet 샬셤레트 872
 shaphel 샤펠 873
 sharp syllable 중첩음절(重疊音節) 874
 Shin 쉰 875
 Shva 슈바 876
 sibilant 치찰음(齒擦音) 878
 sign 기호(記號) 879
 signified 기의(記意) 880
 signifiant 기표(記標) 881
 signification 기호의 의미작용(記號意味作用) 882
 Silwan inscription 실로암 비문 883
 simile 직유(直喩) 884
 singular 단수(單數) 886
 softening of consonant 자음의 연음화 889
 sonant 유성음(有聲音) 890
 south Semitic 남부셈어 891
 speech act 발화행위(發話行爲) 892
 spirant 마찰음(摩擦音) 893
 spirantisation 마찰음화(摩擦音化) 894
 spontaneous virtual doubling 자발적인 가상 중복(自發的假想重複) 895
 square script 정방형 서체(正方形書體) 896
 stative verb 상태동사(狀態動詞) 897
 status constructus 연계형 상태(連繫形狀態) 899
 stem 어간(語幹) 900
 stem-consonant / radical 어간 자음(語幹子音) 902
 stress 강세(強勢) 903
 strong verb 강동사(強動詞) 904
 structuralism 구조주의(構造主義) 905
 structure 구조(構造) 906
 style 문체(文體) 907
 subject 주어(主語) 908
 subjective genitive 주어적 속격(主語的 屬格) 910
 subjunctive mood 가정법(假定法) 912
 subordinate clause 종속절(從屬節) 914
 subordinating conjunction 종속 접속사(從屬接續詞) 915
 substantival clause 실명사절(實名詞節) 917
 substantive 실명사(實名詞) 919
 substitutes (substitution) 대용(代用) 921
 succession 계승(繼承) 922
 suffix 접미사(接尾辭) 923
 suffix conjugation 접미 활용(接尾活用) 925
 suffix of noun 명사 접미사(名詞接尾辭) 926
 suffix of verb 동사 접미사(動詞接尾辭) 927
 sufformative 어미 형태소(語尾形態素) 928

- Sumerian 수메르어 929
 superlative 최상급(最上級) 931
 surface structure 표면 구조(表面構造) 933
 Šuruq 슈룩 935
 suspended 걸려 있는 936
 syllable 음절(音節) 937
 syllepsis 겸용법(兼用法) 938
 Symmachus 심마쿠스 역 939
 synchrony 공시적 연구 940
 syncope 중간자음 탈락(中間子音脫落) 941
 syndesis and asyndesis 접속사 구문과 비접속사 구문(接續詞構文, 非接續詞構文) 942
 synesthesia 공감각(共感覺) 945
 synonymy 동의성(同義性, 同意性) 946
 syntagm 결합체(結合體) 947
 syntagmatic relation 결합 관계(結合關係) 948
 syntax 통사론, 구문론(統辭論) 949
 Syriac 시리아어 950
- tagmeme 문법소(文法素) 951
 tagmemics 문법소론(文法素論) 952
 Talmud 탈무드 953
 Targum 타르굼 954
 Taw 타브 955
 telic clause 목적절(目的節) 956
 temple scroll (Qumran) 성전 두루마리 958
 temporal clause 시간절(時間節) 959
 tense 시제(時制) 961
 Tet 테트 963
 Tetragrammaton 네 자음 신명(四子音神明) 964
 text 본문(本文) 965
 text linguistics 텍스트 언어학 966
 text types 본문 유형(本文類型) 967
 textual corruption 본문 훼손(本文毀損) 968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本文批評) 969
 Textus Receptus 공인 본문(公認本文) 970
 Tiberian massora 티베리아 마소라 971
 tifha 티프하 972
 timbre 음색(音色) 973
 tlisha gdola 틀리샤 그돌라 974
 tlisha ktana 틀리샤 크타나 975
 tolerative (tolerativum) 허용적(許容的) 976
 topic 화제(話題) 977
 Tosefta 토셉타 978
 transitive verb 타동사(他動詞) 979

- transliteration 음역(音譯) 980
- transposed vowel 모음 전환(母音轉換) 981
- triconsonantal root (triliteralism) 세 자음 어근(三子音語根) 982
- Tsade 짜데 983
- tvir 트비르 984
- typological linguistics 언어 유형론(言語類型論) 985

- Ugaritic 우가릿어 986
- ultima 끝 음절(終音節) 987
- unique 단회적(單回的) 988
- unit noun 단위 명사(單位名詞) 989
- universal 보편성(普遍性) 990
- unmarked 무표(無標) 991
- Uqtol 우크톨 992

- vague 모호성(模糊性) 993
- velar 연구개음(軟口蓋音) 994
- verb 동사(動詞) 995
- verb imperandi 명령의 동사(命令動詞) 996
- verb of perception (verba sentiendi) 지각 동사(知覺動詞) 997
- verb videndi 보는 동사(視覺動詞) 999
- verba copiae et inopiae 충만, 결핍의 동사(充滿, 缺乏動詞) 1000
- verba induendi et exuendi 착탈 동사(着脫動詞) 1001
- verbal adjective 동사적 형용사(動詞的形容詞) 1002
- verbal noun 동사적 명사(動詞的名詞) 1003
- verbal sentence 동사 문장(動詞文章) 1004
- verbal stem proper 본래적 동사 어간(本來的 動詞語幹) 1005
- vocalization 모음표기(母音標記) 1006
- vocative 호격(呼格) 1007
- voice 태(態) 1008
- volitive mood 의지법(意志法) 1009
- vowel 모음(母音) 1010
- vowel assimilation 모음동화(母音同化) 1011
- vowel harmony 모음조화(母音調和) 1012
- Vulgate 불가타역 1013

- Waw 바브 1014
- Waw adaequationis 비교의 바브 1015
- Waw consecutive 바브 연속법 1016
- Waw conversive 바브 전환법 1017
- Waw of accompaniment 동반의 바브 1018
- Waw of coordination 대등 접속사 바브 1019
- Wayyiqtol 바이크톨 1020
- weak consonant 약자음(弱子音) 1021

weak root 약동사 어근(弱動詞語根) 1022

weak verb 약동사(弱動詞) 1023

Weqatal 베카탈 1024

W-eqtlah 베에크틀라 1025

word 단어(單語) 1026

word order 어순(語順) 1027

word type 단어유형(單語類型) 1028

W-yaqom 베야콤 1029

yareah benyomo 야레아흐 벤요모 1030

Yemenite pronunciation 예멘식 발음 1031

yetiv 예티브 1032

Yiddish 이디시어 1033

Yod 요드 1034

zakef gadol 자킵 가돌 1035

zakef katon 자킵 카톤 1036

zarka 자르카 1037

Zayin 자인 1038

zeugma 엑어법(輓語法) 1039